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7

- 제주의 혼례문화 구술 자료집

결혼허영 뒷날 아칙 밥허렌 요강에 쏠을 솜빡 채완 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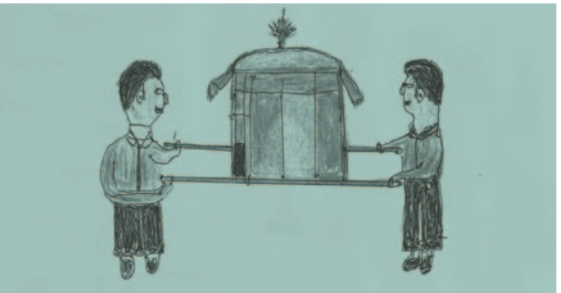


2025

연구 책임 권미소

공동 연구 김미진 김보향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7
- 제주의 혼례문화 구술 자료집

결혼허영 뒷날 아칙 밥허렌 요강에 쏠을 솜빡 채완 줭게

2025

결혼허영 뒷날 아칙 밥허렌
요강에 쏠을 솜빡 채완 줭게

구술 자료집의 제목 ‘결혼허영 뒷날 아칙 밥허렌 요강에 쏠을 솜빡 채완 줭게.’는
‘결혼해서 다음날 아침 밥하라고 요강에 쌀을 가득 채워서 주더라.’라는 뜻의 제주어입니다.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7

- 제주의 혼례문화 구술 자료집

결혼허영 뒷날 아칙 밥허렌 요강에 쏠을 솜빡 채완 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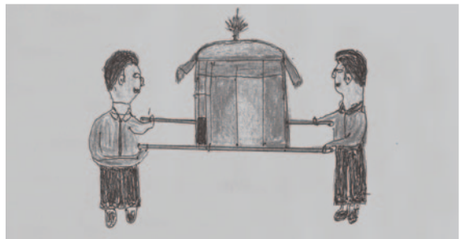
2025

연구 책임 권미소

공동 연구 김미진 김보향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차례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9
2. 연구 기간 ····· 9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10
4. 연구진 ····· 11
5. 주요 연구 내용 ····· 12
6. 기대 효과 ····· 13

Ⅱ. 제보자별 주요 구술 내용과 시사점

1. 제주의 전통 혼례를 기억하는 사람들 ····· 17
조수용, 고계모, 허복선, 양유정 · 오봉식, 김춘자, 김옥출, 김옥자, 박영추, 강재문
2. 신부 화장과 머리를 해 주던 사람들 ····· 26
문순애, 정춘자, 박황자, 양경순 · 한정자
3. 혼례식을 기록해 주던 사람들 ····· 30
한봉원, 김석원

Ⅲ. 제주의 혼례,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구술 채록 자료

1. 조천읍 선흘리, 조수용 ····· 35
2. 우도면 하고수동, 고계모 ····· 89
3. 서귀포시 하효동, 허복선 ····· 121
4. 서귀포시 상효동, 양유정·오봉식 ····· 183
5. 한림읍 금악리, 김춘자 ····· 225
6. 대정읍 무릉리, 김옥출 ····· 269
7. 성산읍 신양리, 김옥자 ····· 315
8. 안덕면 화순리, 박영추 ····· 363
9. 성산읍 고성리, 강재문 ····· 403
10. 제주시 일도1동, 문순애 ····· 415
11. 성산읍 고성리, 정춘자 ····· 461
12. 한림읍 한림리, 박황자 ····· 511
13. 구좌읍 세화리, 양경순·한정자 ····· 557
14. 우도면 중앙동, 한봉원 ····· 609
15. 대정읍 하모리, 김석원 ····· 631

Ⅳ. 부록

‘제주의 혼례문화’ 조사 질문지 ····· 663
‘제주의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조사 질문지 ····· 667

I.

연구 개요



정춘자(1941년생) 씨의 혼례식 사진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독특한 민속 문화를 만들어 왔음. 이러한 제주의 전통문화는 민속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언학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큼. 그러나 현재 제주 전통문화의 원형을 제주어로 구축한 자료가 드물어 자료 확보 및 정리가 매우 시급함.

○ 이에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전승자를 대상으로 연차별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아가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의 혼례문화'를 주제로 제주에서 행해지던 혼례 절차 등을 기억하는 사람들, 혼례를 돕던 미용사 · 사진사 등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함으로써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참조〉 제주학연구센터 2019~2024년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결과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내용	'제주의 초가' 관련 조사와 자료 구축	'제주의 목축' 관련 조사와 자료 구축	'제주의 전통 옷' 관련 조사와 자료 구축
자료명	구술 자료집《엿날 집은 춤낭으로 헌 거난 멧 벡년 가도 끄딱 엇어》	구술 자료집《몰은 똠나게 부리곡 쉐는 세나게 부리라》	구술 자료집《시집올 때 입어난 장옷 죽엉 가멍도 입곡》, 단행본《제주의 옷, 그리고 제주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용	'제주의 석공과 돌 문화' 관련 조사와 자료 구축	'제주의 불미' 관련 조사와 자료 구축	'제주의 산파, 출산의례' 관련 조사와 자료 구축
자료명	구술 자료집《어귓돌이 선생이여》	구술 자료집《이레 부름 푸껑 쒜녹이는 것가 불미》, 단행본《제주 불미-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구술 자료집《아이고 할마니, 이애기 궤양 세상에 내와 줍서》, 단행본《제주의 산파와 출산-애기 내우는 할망에서 조산사까지》

2. 연구 기간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제주의 혼례문화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 과거 혼례식에서 미용사, 사진사 역할을 했던 분 등을 찾아 전 지역을 사전 조사함. 이후 제주의 혼례문화를 제주어로 세세히 구술해 줄 수 있는 사람, 신부의 머리와 화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사람, 혼례식을 촬영했던 사람 등을 대상으로 삼고, 주제와 관련된 제보자가 살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 신양리, 제주시 일도1동, 대정읍 하모리 · 무릉리, 우도면 하고수동 · 중앙동, 한림읍 한림리, 구좌읍 세화리, 조천읍 선흘리, 안덕면 화순리, 서귀포시 상효동 · 하효동 등 13개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함.

대체로 80대 이상을 제보자로 선정하되,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70대 후반의 제보자도 포함한 결과, 주 제보자가 15명, 보조 제보자가 2명, 총 17명이 이 사업의 최종 조사 · 연구 대상임. 제보자 정보를 정리해 보이면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제보자 정보(구술 자료 제시 순)

번호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조사 지역	비고
1	조수용	여	1930년생	조천읍 선흘리	주 제보자
2	고계모	여	1936년생	우도면 하고수동	주 제보자
3	허복선	여	1935년생	서귀포시 하효동	주 제보자
4	양유정	여	1936년생	서귀포시 상효동	주 제보자
5	오봉식	남	1937년생	서귀포시 상효동	보조 제보자
6	김춘자	여	1936년생	한림읍 금악리	주 제보자
7	김옥출	여	1939년생	대정읍 무릉리	주 제보자
8	김옥자	여	1939년생	성산읍 신양리	주 제보자
9	박영추	여	1941년생	안덕면 화순리	주 제보자
10	강재문	남	1941년생	성산읍 고성리	주 제보자
11	문순애	여	1941년생	제주시 일도1동	주 제보자
12	정춘자	여	1941년생	성산읍 고성리	주 제보자
13	박황자	여	1942년생	한림읍 한림리	주 제보자
14	양경순	여	1949년생	구좌읍 세화리	주 제보자
15	한정자	여	1939년생	구좌읍 세화리	보조 제보자
16	한봉원	남	1939년생	우도면 중앙동	주 제보자
17	김석원	남	1946년생	대정읍 하모리	주 제보자

※ 위의 제보자 중 김석원 씨는 대정읍 하모리에서 혼례식의 사진을 찍어 주고, 인근에서 예식장을 운영했던 인물인데, 타 제보자 구술에 비해 표준어 사용 비중이 매우 큼. 다만 1960년대 후반부터의 사진업과 관련해 구술한 내용의 가치를 고려하여 면담한 자료를 그대로 전사함.

제보자 강재문 씨는 성산읍 고성리 인근에서 활동했던 사진사, 예식장, 양장점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인물임. 혼례문화의 주요 구술자는 아니지만 제보자 정춘자 씨 및 한봉원 씨의 구술 채록 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일부 구술 내용만을 옮김.

또한 보조 제보자 오봉식 씨는 주 제보자 양유정 씨의 남편이며, 보조 제보자 한정자 씨는 주 제보자 양경순 씨와 함께 혼례를 도왔던 사진사 남편을 둔 이로 제보자 면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역할을 하였기에 보조 제보자로 이름을 제시함.

○ 연구 방법: 문헌 조사, 현장 조사

1) 문헌 조사: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제주의 혼례문화',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문헌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 질문지 2종을 개발함.

2) 현장 조사: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총 15회에 걸쳐 제보자를 직접 만나 연구진이 개발한 '제주의 혼례문화',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질문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함. "결혼 날짜는 어떵 정허는 거꽈?", "삼춘 시집올 때 무신거 무신거 헹 와수과?", "신부 머리허곡 화장은 멧 명 정도 헤진 거 닮으꽈?", "보통 결혼 사진은 멧 장 찍어마씨?" 등과 같은 내용을 제주어로 묻고 제주어로 구술하는 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의 혼례문화를 온전히 채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나 관련 내용 등이 나오면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녹음 및 촬영 장비: 녹음기-소니 PCM-A10, 캠코더-캐논 FDR-AX100, 사진기-캐논 EOS-800D를 주로 사용함. 필요에 따라 연구진의 휴대전화 등도 보조 장비로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4. 연구진

〈표 2〉 연구진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연구책임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총괄, 조사, 전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공동연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조사, 전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김보향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조사, 전사, 집필

5. 주요 연구 내용

○ 연구(조사) 내용: 〈부록〉의 질문지 참조

1) 제보자 정보

2) 제주의 혼례 절차 및 특징, 관련 제주어 어휘 조사

(1) 혼례 전 준비 절차: 중매 진행 과정, 사주 · 궁합, 예복 · 예물 · 예단 준비, 잔치 음식 준비, 혼례 준비와 관련한 계 문화, 혼례 전 신랑 · 신부의 금기사항 등

(2) 혼례식 절차: 홍세함, 혼례식날 지내는 제사와 의미, '사둔열멩', 당일 음식 준비, 신랑 및 신부의 혼례식 준비(머리 손질 및 화장, 예복 환복, 이동 방법 등), 혼례식 진행 순서, 뒤풀이, 부조금 및 답례, 혼례와 관계된 금기사항 등

3) 전문 영역-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미용사, 사진사를 중심으로 한 조사

(1) 미용 · 화장업: 일을 하게 된 계기, 기술 습득 방법, 미용 · 화장 출장 물품, 신부 머리 · 화장에 드는 시간 및 진행 방법, 사례비, 금기 · 주의사항, 호칭, 기억나는 일화 등

(2) 사진업: 일을 하게 된 계기, 기술 습득 방법, 촬영 준비 물품, 촬영 건수, 촬영 순서 및 진행 방법, 촬영 장소, 사진 인화, 사례비, 금기 · 주의사항, 호칭, 기억나는 일화 등

○ 자료 전사: 제보자의 말은 제주어 표기법 등을 고려해 한글로 전사함. 구술 내용 중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은 꽃표(**)로, 제보자 외의 인물 중 실명이 거론된 경우나 일부 비속어의 경우에는 숨김표(○○)로 표기하였음. 실명이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예) 제보자 이름 및 당시 조사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미용사 · 사진사 · 양장사 실명 등의 정보)에는 그대로 밝혔음.

띄어쓰기 및 표준어 발화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준용하였으나, 제주어와 표준어가 섞인 발화는 제주어 표기를 따르고자 하였음.

한편, 전사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를 의미함. 조사자가 여럿일 때는 @1, @2처럼 표시하고, 제보자가 여럿일 때는 #1, #2처럼 나타내었음.

구술 내용 중 일본어나 외래어의 일본어식 발음이 나타난 경우, 제주어 어휘가 어려워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그 내용을 제시하였음.

○ 결과물

1) 제주의 혼례문화 관련 구술 자료집 발간

2) 구술 전사 자료 《제주어대사전》 어휘 및 용례 자료로 활용

3) 음성, 사진, 영상 자료 확보, 《제주어대사전》 말뭉치 자료 구축

〈**표 3**〉 현장 조사 성과물(조사일 순)

번호	제보자	조사 일시	성과물	구분
			녹음 및 영상(시간)	
1	강재문(1941년생)	25. 4. 16.	1:27:30	혼례 사진 수집
2	김옥자(1939년생)	25. 4. 17.	2:04:15	
3	정춘자(1941년생)	25. 4. 30. 25. 6. 27.	1:29:08	미용, 혼례 사진 수집
4	문순애(1941년생)	25. 5. 2.	1:55:56	미용, 혼례 사진 수집
5	김석원(1946년생)	25. 5. 30.	1:06:46	
6	고계모(1936년생)	25. 6. 4.	1:21:25	
7	한봉원(1939년생)	25. 6. 4.	0:53:41	소장 카메라 사진 촬영
8	박황자(1942년생)	25. 8. 1.	1:17:11	
9	양경순(1949년생) · 한정자(1939년생)	25. 9. 5.	1:50:44	
10	조수용(1930년생)	25. 9. 6.	1:55:48	
11	박영추(1941년생)	25. 9. 12.	1:43:27	혼례 사진 수집
12	허복선(1935년생)	25. 11. 26.	1:40:48	
13	양유정(1936년생) · 오봉식(1937년생)	25. 11. 26.	1:29:09	
14	김춘자(1936년생)	25. 11. 27.	1:46:51	
15	김옥출(1939년생)	25. 11. 27.	1:50:42	
		합계	23:53:21	

6. 기대 효과

○ 제주의 혼례문화와 관련한 제주어 구술 자료를 구축하고 관련 어휘,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사라지는 제주의 혼례와 관련한 제주 사람들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관련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주의 혼례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 정리함으로써 제주학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구술 채록된 자료는 전사하여 제주어 자료로 구축하고, 관련 어휘와 용례, 사진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 발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Ⅱ.

제보자별 주요 구술 내용과 시사점



정춘자(1941년생) 씨가 미용사 일을 하던 시절, 배를 타고 우도의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

1. 제주의 전통 혼례를 기억하는 사람들

1) 조천읍 선흘리, 조수용



조수용 씨(1930년생)는 올해 95세이지만 24세에 결혼하던 당시의 풍습을 또렷히 기억하시는 분이다. 특히 선흘에서 그림 그리는 할망 중 한 명으로 최근에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의 주인공 아이유도 만나고,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었다면서 자랑을 늘어 놓으셨다.

조 씨는 조천읍 선흘 출신으로, 4.3 때 중산간 지역의 소개령으로 인해 잠시 조천읍 함덕리 평사동으로 내려가 살았다. 스물네 살에 선흘 출신의 남자과 결혼하고,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선흘에서 살고 있다.

한문 서당의 사장이었던 할아버지와 남편의 할아버지인 김 훈장과의 약속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따로 사주와 궁합을 보았는지는 모르겠고, 할아버지끼리 혼례일을 정했다고 한다. 신부의 사주를 받으러 신랑집에서 처음으로 신붓집을 방문하는 날에는 신부집에서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았으며,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혼이 결정된 이후에야 음식을 대접한다고 한다. 또한 이바지는 집안이 어려운 신부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어떤 물건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한다. 다만, 양단 치마저고리를 시댁에서 선물 받은 기억은 있다. 결혼할 때 입었던 장옷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빌려 입은 것이고, 후에 수의로 푸른색에 빨간 깃과 끝동을 넣은 장옷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칠월칠석에 날이 좋으면 장옷을 꺼내어 바람을 쏘이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꺼내어 손질했다고 한다.

옛날에 시집올 때 잘 차리는 사람은 이불을 두 채를 장만했지만 본인은 한 채만 하고 왔다고 했다. 또한 베개 두 개와 방석, 궤, 경대, 요강 등도 혼수로 마련했으며, 결혼 후 설날이 돌아오면 친척들에게 광목 버선을 만들어 선물했다고 한다.

선흘리에는 '살장귓제'가 있었는데 동네에 큰일이 있을 때면 모두 와서 도와주었다. 일이 끝나면 설장구를 치면서 놀았다고 해서 '살장귓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혼례 당일에는 네 사람이 드는 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고, 머리는 낭자를 하고 족두리를 썼는데 새색시 전용 큰 비녀를 꼈다고 기억했다. 더 이전 시대에는 딴머리를 머리에 얹는 형태인 건지를 하고 '이망거리'로 묶었다고 했다. 조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식날 밤에 신랑집에서 검은 허벅으로 장단을 치면서 노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2) 우도면 하고수동, 고계모



고계모 씨(1936년생)는 우도면 하고수동에서 태어나서, 줄곧 우도면에서 농사를 짓고 바닷일을 겸하며 살아왔다. 초등학교는 입학했으나 해방 이후에는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이후 야학에서 한글을 익혔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경북, 충남, 삼천포 등지로 물질을 나갔었고, 일본에 물질하러 다녀오기도 했다.

고계모 씨는 열아홉 살에 중매로 결혼했다. 한 살 아래의 남편은 같은 마을 사람으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동네에서 서로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웃집 어른이 남자 집과 여자 집을 여러 차례 오가며 혼사가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결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잔치에 필요한 돼지고기나 쌀, 술 등 보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고계모 씨의 집에서도 돼지 한 마리를 받았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 잔치라 하여 특별한 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돼지 두세 마리를 잡아 잔치를 치르는 동안 손님에게 삶은 돼지고기를 넉넉히 대접할 수 있었다. 한편, 돼지고기를 써는 사람은 남성이어야 했으며 이러한 사람을 '도감'이라 불렀다고 했다.

혼례 당일, 고 씨는 머리를 길게 두 가닥으로 땋은 건지머리를 자신의 머리에 붙여서 엮은 뒤 비녀를 찌르는 형태의 머리에, 간단히 화장을 했다고 기억한다.

치마저고리에 면사포, 장옷을 쓰고 시집갔다는 고계모 씨는 결혼 날 친정에서 장만한 치마저고리 세 벌을 겹쳐 입었다고 회상한다. 시집에도 새색시를 맞이하는 선물로 시어머니나 시할머니, 시고모 등이 마련해 준 한복이 여러 벌 준비되어 있었다. 옷 한 벌 장만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 결혼은 새색시가 여러 벌의 치마저고리로 호사를 부릴 수 있는 날이었다.

3) 서귀포시 하효동, 허복선



허복선 씨(1935년생)는 서귀포시 하효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하효동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과거 딸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며 일만 하다가 학교를 못 다녔다. 잠시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열두 살이 되던 해, 4.3으로 인해 그마저도 도중에 그만둬야 했다. 젊은 시절에는 농사도 짓고 해녀 일도 겸해 생활했다. 주된 농사는 보리, 조, 고구마 등이었으며, 이후 감귤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감귤 재배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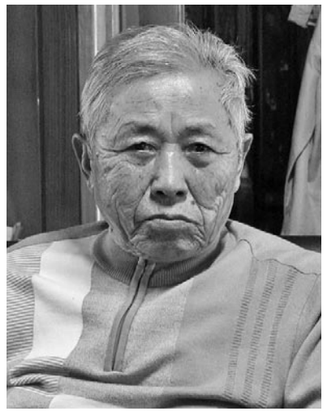
허 씨는 스물두 살 무렵 외할머니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신랑은 세 살 연상이었는데, 결혼 전 남편을 따로 만난 적은 없고,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을 때 얼굴을 본 것이 전부였다. 당시에는 연애결혼보다 중매결혼이 일반적이었고, 신랑의 성실함과 생활태도가 신랑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혼례일은 지관을 했던 사람이 예비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보고 택일해 줬으며, 택일기를 가져오는 날, 허 씨는 본인이 물질을 해서 번 돈으로 혼례복을 장만했다. 유동치마에 양단 저고리를 입었으며, 파란색으로 물을 들이고 빨갛게 끝동을 댄 장옷을 입고 혼례를 치렀다. 허복선 씨가 결혼하던 시절에는 머리를 손질하거나 화장을 하는 일이 따로 없었다. 족두리도, 면사포도 없이, 그저 머리에 '건지'를 얹고, 명주 '이망거리'로 묶었을 뿐이었다. 한복과 이불도 모두 집에서 손바느질로 장만했음은 물론이고, 솜을 넣은 '요팡석'과 아버지가 멀구슬나무로 짜 준 궤도 혼수로 마련해서 시집을 왔다.

가문잔치 때는 대나무 꼬치에 순대, 염통, 허파, 머릿고기 등을 끼워 한 사람씩 나눠 주었는데 이것이 '가문반'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잔치는 집 마당에 천막을 쳐 열었고, 상, 그릇, 멍석 등은 이웃집에서 빌려왔다. 잔치 준비는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도왔으며, 특별히 밥을 짓는 '솟밋할망'과 고기를 써는 '도감'에게는 쌀이나 품삯을 지급했다고 했다. 도감 옆에서 고기를 놓는 사람은 '짝도감'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대체로 '궨당'들이 맡았다고 했다.

허복선 씨의 구술 자료를 통해 과거 혼례 준비와 혼례식 절차, 서귀포의 겹부조 문화, 예식장이 등장했던 시기,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 문화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서귀포시 상효동, 양유정 · 오봉식





양유정(1936년생), 오봉식 씨(1937년생)는 스물두 살 신부와 스물한 살 신랑으로 만나 1957년 음력 11월 22일 결혼식을 올렸다. 올해로 68년을 함께 살고 있는 이들 부부의 결혼식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다로 시작한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진을 찍지도 못했고 새각시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없는 쓸쓸한 잔치를 했다. 말이나 '뛔께'(독교)를 타고 결혼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왔는데 다행히 오봉식 씨가 서귀포의 부잣집 어르신에게 트럭을 빌려서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형님이 중매를 서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양 씨가 혼수품으로는 이불 두 채, 누비 이불 하나, 베개, 방석, 요강, 세숫대야, 친척들께 드릴 버선을 준비했다. 신부옷은 양단 저고리와 유동 치마에 장옷을 입고 결혼했으며, 시어머니는 양 씨의 인주 치마저고리를 해 주셨다고 한다. 장옷 하나는 입고, 하나는 머리에 썼는데 머리에 쓰는 용도의 장옷은 친정어머니 것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결혼할 때 입고 온 장옷은 현재까지도 수의로 잘 보관하고 있다. 양유정 씨가 결혼할 때 어머니의 머리를 가지고 건지를 만들었으며, '이멍거리'라는 끈으로 이마에 묶어 고정했다고 기억한다.

가문잔칫날은 돼지고기 삶은 국물에 모자반을 넣고 끓인 '몰망국'과 좁쌀보리밥, 무김치, 돼지고기 내장과 순대를 네다섯 개 꽂은 '가문꼬지', 메밀전을 덮은 무채를 먹었다고 한다. 신부상에 계란을 세 개 올려 주는데 가난한 집은 계란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엎어 놓아 세 개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다.

상효동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다음날은 신랑집에서 이바지 음식으로 돼지 다리 하나, 쌀 한 말, 술 한 되를 준비해서 신랑신부가 신부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신붓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신랑집으로 가서 친척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결혼식을 위해 고기를 써는 '도감', 밥을 하는 '솟밋할망', 말을 끌고 이불을 져 나르는 하인이 꼭 필요하다. 상효동에는 1970년대까지 하인 가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 년에 보리 한 말, 조 한 말을 삯으로 주고 동네 대소사 때 일을 하거나 회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5) 한림읍 금악리, 김춘자



김춘자 씨(1936년생)는 금악리 출신이다. 4 · 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웃둥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열세 살에 한림, 명월로 옮겨지냈다. 생활이 어려워 모슬포에서 남의집살이를 하기도 했다.

스무살 무렵이 되면서 동네에서 혼담이 들어오자 김춘자 씨는 이를 피해 고향을 떠났다. 이후 부산을 거쳐, 대구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딸의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일주일 전에 급하게 딸을 부른 것이었는데, 김 씨가 스물세 살 때였다. 방직공장에 일하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김춘자 씨는 결혼 준비 내내 울고불고했다고 한다. 심지어 결혼 당일 신부 화장을 거부했다. 족두리를 쓰면서도 낭자를 하는 등 머리 손질을 하지 않고, 단발머리에 그냥 족두리를 올렸을 뿐이다. 신랑 집에서 누구든 신부가 곱지 않다는 말을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유로 박차고 돌아오겠다는 오기였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결혼 적령기였기에 혼수는 스스로 다 준비해 두고 있었다. 땔감 등을 팔아 번 돈으로 친구들과의 계 모임에서 광목을 한 통 마련해 두었고, 부산에서 일하면서 이불이나 한복감 등을 미리 다 마련하여 고향에 보내 두었었다. 궤나 경대, 화로 등도 준비했다. 당시 방직공장에서는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광목 한 통과 알루미늄 대야를 선물로 주었는데, 갑자기 고향에 내려오면서 그것을 받지 못해 아쉬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방직공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일터에서 인정을 받으며 스스로 '테운(어떤 복이나 재주를 타고 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하기가 싫었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 자유롭게 살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딸을 낳고 살아 보니 "나 신랑만이 존 사람도 엇다" 하며, 남편을 먼저 보낸 지금까지도 이웃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자랑한다.

6) 대정읍 무릉리, 김옥출



김옥출 씨(1939년생)는 대정읍 무릉리 토박이다. 2남 3녀 중 큰딸로 태어나 열여덟 살에 결혼했다. 남편은 당시 열아홉 살로 고등학생이었다. 평소 이웃한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시아버지가 김옥출 씨를 며느리 삼고자 친척 할아버지를 중매로 앞세워 혼담을 넣었다고 한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 울고불고하는 자신에게,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비가 오는 날이건, 날이 좋은 날이건 오고 가다 벼락을 맞는다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당시는 연애결혼은 상상치도 못하던 시절로 부모가 정해 주는 신랑감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혼담이 성사되고 나서 남편은 종종 김옥출 씨를 만나러 왔다. 얼굴을 마주하기를 피하는 김옥출에게 편지를 건넨 것도 여러 번이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김옥출 씨는 글을 읽지 못했다. 글을 읽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연애편지를 누구에게 읽어 달라고 하기도 어려웠던 김옥출 씨는 여러 통의 편지를 언젠가 글을 배워 꼭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룻널 밑에 숨겨 두었다. 결혼하여 생활하던 어느 때인가 홍수로 집이 물에 잠겨 그 편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 남편에게 한 번은 물어봤을 법도 했으나 김옥출 씨는 그러지 못했다.

김옥출 씨는 일을 잘했다. 김을 매더라도 다른 사람들 한 고랑을 맬 때 김 씨는 두 고랑을 맸다. 손이 빨라 남들의 두 배를 일을 한 셈이다. 결혼 생활을 하며, 시집살이를 하며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밭에 나가 일을 했다. 낮이건 밤이건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울며 일을 하고 나면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는 가족과 얼굴 붉히지 말고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건네라고 조언한다.

7) 성산읍 신양리, 김옥자



김옥자 씨(1939년생)는 성산읍 신양리 토박이다. 80세를 넘은 나이에도 신양리를 대표하는 해녀로 활동하고 있다. 김옥자 씨의 부모는 전라남도 벌교 출신인데, 김 씨가 태어나기 전에 제주에 들어와서 김녕리를 거쳐 신양리에 자리 잡고 살았다. 아버지가 신양리에 들어왔을 때 여러 도움을 준 시외삼촌의 중매로, 스무 살에 결혼했다.

김옥자 씨가 시집온 집은 김 씨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다. 김 씨의 남편은 예전 '고잡'이라고 불렀던 수산2리 출신이다. 수산2리에서 신양리로 이사 왔는데, 우연인 듯 필연처럼 김옥자 씨가 살았던 집을 장만하여 살았던 것이다.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성장했기에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집안 어른의 중매로 결혼이 정해지면서, 신랑이 집으로 찾아와서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결혼 후 남편은 부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했다. 김옥자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왕래했다. 그때는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비롯하여 고사리, 감귤 등을 가지고 가서 부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삼십 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고, 해녀로 일하며 다섯 자녀를 키웠다.

김옥자 씨는 치마저고리에 면사포를 쓰고, 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다고 한다. 김 씨의 구술은 제주의 전통 혼례에서 택일, 혼례 예복이나 이불을 비롯한 혼수의 준비 과정, 잔치 준비 과정과 가문잔치 풍습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김옥자 씨의 구술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전통 혼례문화를 그려볼 수 있다.

8) 안덕면 화순리, 박영추



박영추 씨(1941년생)는 제주도 안덕면 화순 곤물동네에서 태어나 '안인터' 중동네로 시집왔다. 박 씨는 보리, 조, 고구마 농사와 바닷일을 주업으로 삼아 살아왔는데, 결혼 전에는 물질을 배우고 육지와 일본을 오가며 해녀로 일한 경험도 있다.

박 씨는 스무 살에 결혼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다소 이른 편이었다. 결혼은 집안 어른들이 서로 사돈을 맺자는 이야기로 이루어졌으며, 약혼 절차는 따로 없었다. 신랑은 한 살 위로, 국민학교 동창이어서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가까이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다. 결혼 전 신랑이 신부 집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일은 없었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정도였다.

혼례는 예비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보고 난 뒤, 약 다섯 달 후 음력 정월에 치러졌다. 그 사이 박 씨는 혼수 물품으로, 이불 세 채, 책상, 화장대, 요강, 세숫대야 등을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특히, 요강에는 혼례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하라면서 쌀 하나를 '솝빡' 채워서 받았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쌀을 담은 의미를 묻자, 부자로 살라는 것 아니었겠냐는 대답을 주었다.

혼례식 당일에는 요즘의 트럭과 같은 군부대 차량을 빌려 이동했다. 신부는 안방에 머물다가 신랑이 도착하고 난 뒤에는, 친척집 방에 가서 미용사에게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박 씨가 퍼머를 한 단발머리였기 때문에 가체나 가짜 머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잔치 음식은 주로 돼지고기와 김치, 간장 정도로 매우 소박했으며, 밥은 보리쌀과 흰쌀, 팥 등을 섞어 지은 경우가 많았다. 당시 밥을 떠 놓을 그릇도 없어서 밤새 지은 밥을 '멩텡이'에 퍼 두었다가 대접하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하객들은 축의금 대신 보통 보리쌀 한 되나 두 되를, 아주 가까운 친척은 흰쌀 한 말을 부조로 가져왔다. 잔치가 끝난 밤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허벅 장단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어울렸고, 신부 역시 분위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혼례 후에는 시댁의 여러 채 집 가운데 작은 집에서 살았으며, 대가족이 한 마당을 공유하되 살림은 각자 따로 했다. 박영추 씨는 막내 며느리로서 시부모와 동서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고 회상한다. 박 씨의 구술과 소장한 혼례 사진 등을 통해 박 씨가 알려준 당시의 혼례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9) 성산읍 고성리, 강재문



강재문 씨(1941년생, 호적상 1942년생)는 성산읍 수산리에서 태어나 결혼 후 성산읍 고성리에 정착해 살아왔다. 생계를 위해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열여섯 살 무렵 제주를 떠나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약 10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다.

1965년, 강 씨가 스물다섯이 되던 해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인연과 혼례를 올렸다. 이 시기 성산 지역에는 예식장이 일반화되지 않아 강재문 씨의 집 마당이 혼례식의 장소가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는 대나무를 잘라 장식하고 천막을 쳤다고 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사진사 고대유 씨가 지은 동남 최초의 예식장인 동남예식장이 들어섰다고 기억한다. 예식장이 생긴 이후에도 한동안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예식장은 197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동남예식장은 198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운영자의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고 했다.

혼례 사진은 당시 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진사 고대유 씨가 주로 촬영했으며, 그 이전 세대에는 한봉원 씨의 형인 한봉칠 씨가 사진 촬영을 주로 맡았다고 기억한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오가며 혼례와 각종 행사를 기록했다.

강 씨는 서울 을지로에서 맞춘 양복을 입고 혼례를 치렀다. 당시 양복은 매우 귀한 옷이었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맞춤 양복과 양장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돌아온 양장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간판도 없는 집의 작업장에서 옷을 만들면서도 뛰어난 솜씨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1900년대생으로 추정되는 김석보 씨는 가봉 없이도 몸에 꼭 맞는 양복을 제작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으며, 구좌·세화 등 인근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만큼 신뢰를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양장사들의 활동은 기성복이 보급되기 이전 제주 지역 의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강 씨의 구술은 짧지만 제주의 동남 지역에서 예식장 혼례로의 이행, 그리고 지역 장인들의 생업과 기술 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2. 신부 화장과 머리를 해 주던 사람들

1) 제주시 일도1동, 문순애



문순애 씨(1941년생)는 82세 나이에도 동문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미용사다. 열아홉 살 때부터 은하수 미장원에서 미용 기술을 3년간 배우고 1961년에 미용사 자격증을 땄다. 그 당시 미장원에 보조로 들어가면 주인집에 물도 길어다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남는 시간에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문 씨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약 5년 동안 미용사로 일을 하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와서 1973년에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미장원을 차렸다. 1980년대에는 호텔 미용실 두 개를 더 차려서 총 세 개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봉사를 다니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미용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신부 화장을 위해 출장을 갈 때는 보통 전날 저녁에 가는데 고데기, 화장품, 핀, 꼬리빗 등을 가지고 갔다. 신부뿐만이 아니라 신부 어머니와 위요를 가는 여자 친척분까지 두세 명은 추가로 머리 손질을 해 주어야 했다. 신부 화장의 일화로, 조천읍 북촌리까지 출장을 갔는데, 신부 화장을 시켜주는 장소가 '고팡'이었다고 한다. 밖에서 화장하면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초롱불을 켜고 항아리들이 있는 컴컴한 '고팡'에서 화장을 했었다고 회상한다. 또 구좌읍 송당리에 트럭을 타고 가서 화장을 하는데 손님에게는 보리쌀과 팥을 넣은 밥을 주어 몰랐는데, 신부가 먹는 흰쌀밥에는 재가 가득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면사포를 쓰기 위한 올림머리를 하기 전에는 먼저 머리카락을 잘 말려야 한다. 드라이기가 없을 때는 화로의 열기가 신문지 통해 신부의 머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머리를 말렸었다고 한다. 머리를 부풀려 풍성하게 만들고, 붙이는 부분 가발을 이용해서 올림머리를 완성한다. 처음에는 숯불을 이용한 불파마를 했었는데 연탄 고데기가 나오고 점차 전기를 이용한 고데기가 등장했다. 문 씨의 미용실 한 켠에 아직도 오래된 고데기가 있었다. 가위 모양의 두 개가 겹쳐져 한 쌍이 되는 것인데 달궈진 쇠의 열기로 머리가 고정되는 원리다. 그다음은 핸드 파마가 나왔는데 약을 바르고 플라스틱 롤로 머리를 마는 파마를 말한다. 1980년대에는 호텔 미용실이 성행했는데 신혼여행을 오는 신부가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삼십 명의 머리를 만져 주기도 했다고 한다.

2) 성산읍 고성리, 정춘자



정춘자 씨(1941년생)는 한때 성산읍 관내 마을을 돌며 신부 화장과 머리를 담당했던 미용사다. 성산읍 고성리에서 나고 자란 정춘자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18세 무렵에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미용학원은 제주 시내 동문로타리 근처에 있었다. 약 1년간 강습을 받으며 미용 기술을 익혔다. 당시 학원은 5~6명이 수강생이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 미용학원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가서 5년 동안 여러 미용실에서 기술을 쌓았다. 대천동예식장 미용실 등 부산 중구, 영도구 일대 다양한 미장원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보조로 시작해 중급 미용사 단계를 거치며 실력을 키웠다.

이후 정 씨는 스물네 살에 결혼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두 살 연상의 동네 오빠로 어린 시절부터 이름을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지냈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6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다. 당시에는 예식장이 흔하지 않았다. 남편의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만국기를 걸어 결혼식을 치렀다. 집에서 치르는 결혼식이었지만 주례가 있었고, 사회자가 있었다. 예복은 치마저고리에 족두리, 장옷의 전통 혼례복 차림이었다.

결혼 후 정춘자 씨는 스물여섯 살 무렵부터 고성리에 미용실을 운영했다. 시골 마을 여성이 주요 고객으로 커트와 고데, 파마 손님들이었다. 신부 화장도 겸했는데, 성산읍 관내 여러 마을로 출장 미용을 다녔다.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뿐만 아니라 화장을 해 줬고, 면사포와 부케 준비도 맡았다. 서른한 살 무렵까지 미용 일을 하다가 이후에는 출산과 육아,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정 씨의 구술에서 제주의 전통 혼례문화와 관련한 미용사의 역할과 신부의 혼례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3) 한림읍 한림리, 박황자



박황자 씨(1942년생)는 한림읍에서 미용실을 따로 차리지는 않고 출장 미용만 전문으로 하던 전직 미용사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와 손자들의 머리를 직접 자르고 파마도 해 주었다고 한다.

처음 미용을 배우고 싶어서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한림 현대 미장원에서 보조로 일하다 대구에서 미용학원을 다녔다. 6개월 코스로 미용학원을 나오고 미용일을 했으나 개인 미용실을 차려서 하지는 않았다. 시골에서 여러 사람 모집해서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 불파마 도구를 들고 출장을 가기도 했다. 이럴 때는 한 사람의 파마를 말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말게 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도 했다. 특히 출가 물질을 준비하는 해녀들이 단체로 파마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신부 화장 출장 예약은 보통 인편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데기와 화장품을 챙겨서 전날 신부집에 갔다고 한다.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할 때는 미용사가 면사포와 부케를 가지고 갔었다고 한다. 박 씨는 장미꽃 같은 것을 종이로 만들어서 동백나무 가지를 끼워서 부케를 직접 만들었다. 결혼식 때 머리 손질을 하기 위해서 전날 고데를 하는데 처음에는 숯불을 이용해서 고데기를 데우다가 나중에는 연탄을 이용했다. 면사포는 비쌌기 때문에 주로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출장 미용사끼리 연락을 하면서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다. 신부상을 받고 신부가 옷을 갈아입으면 면사포를 챙겨서 돌아오는데, 부케는 그때그때 새로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신부에게 주고 온다고 했다.

비양도의 신부의 머리를 해 준 적이 있는데 신부집 소유의 배를 타고 전날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신부 단장을 하고 함께 배를 타고 나와서 한림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박황자 씨는 스물다섯에 한림 삼성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드레스를 입고 허리까지 오는 면사포를 썼다고 한다. 드레스도 예식장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용사가 면사포와 함께 준비해 줬다고 했다. 결혼할 때 짐은 트럭에 실어 보냈다고 하며 한림 성당 신부님이 타던 지프차를 빌려서 결혼했다. 예식장이 생기면서 예식장 전속 사진사들이 사진 촬영을 했고 신랑집으로 결혼사진을 찍으러 가는 출장 사진사도 없어졌다고 회상한다.

4) 구좌읍 세화리, 양경순 · 한정자





양경순 씨(1949년생)는 구좌읍 세화리에서 현재까지도 '오고파 미용실'을 운영 중인 약 55년 경력의 미용사이고, 보조 제보자 한정자 씨(1939년생)은 1970년대부터 양 씨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한 사진사의 아내다.

양경순 씨는 한림읍 월령리 출신이다. 어렸을 때 몸이 약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기술을 배웠으면 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제주 시내의 영주미용학원에서 약 3개월 간 미용 기술을 익혔다. 이후, 부산과 제주 시내 등의 미용실에서 보조 업무에서부터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미용사의 경험을 쌓은 뒤 21세에 세화리로 들어와 '오고파 미용실'을 개업했다. 세화리에 정착한 이후에는 파마와 커트뿐 아니라 신부 화장과 올림머리에 특화된 미용사로 명성을 쌓았다. 특히 결혼식이 대부분 집에서 치러지던 시기, 양경순 씨는 신부 집의 고팡이나 안방에서 직접 화장과 머리 손질을 담당하며 마을 혼례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했다.

한정자 씨는 구좌읍 월정리 출신으로, 서울과 육지에서 사진 기술을 익힌 남편 고창송 씨과 함께 세화리에 정착해 중앙사진관을 운영했다. 중앙사진관은 세화리 최초의 사진관으로, 결혼식·가족사진·기념사진 등을 담당하며 마을의 중요한 의례를 기록했다. 사진관과 미용사는 분리된 업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늘 함께 움직이며 신부 단장-사진 촬영-의례 진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양 씨와, 한 씨의 남편 고창송 씨는 예식장이 없던 시절, 차량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걸어서 인근 마을까지 이동하며 출장 미용과 출장 촬영을 함께 다녔다. 양경순 씨가 신부의 머리와 화장을 책임지면, 한정자 씨의 남편과 사진관 인력은 병풍 앞에서 사진을 찍고, 보조원은 신부 이동과 촬영을 도왔다. 특히 양 씨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는 출장 미용의 에피소드와 신부 화장의 순서, 머리 단장의 방법 등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고, 미용사로서 양 씨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3. 혼례식을 기록해 주던 사람들

1) 우도면 중앙동, 한봉원



한봉원 씨(1939년생)는 우도면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성산읍 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결혼사진을 찍었던 사진사다. 우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가서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형편상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성산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형님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형님에게서 사진 기술을 익혔다.

한봉원 씨의 큰형님인 한봉칠 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사진 교육을 받은 전문가다. 해방 이후 고향에 돌아와 성산포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다. 고성리에서 동남예식장을 운영하며 결혼사진을 찍었던 고대유 씨도 한봉칠 씨 밑에서 일하며 사진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한봉원 씨는 결혼식 사진을 주로 찍었으며, 때로는 사건 현장 사진도 촬영했다. 또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한다. 신산리에 예식장을 차리고 얼마간 운영하며 결혼사진도 찍었다. 그러다가 사고로 다쳐 예식장을 그만두고 우도로 이사를 하게 된다. 우도에서도 사진관을 열었으나 몇 년 이어가지는 못하고 사진 일을 접고 바닷일과 밭일을 겸하여 생활해 왔다.

한봉원 씨가 사진사로 활동했던 당시 결혼사진은 잔치가 치러지는 신랑 신부의 집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삼각대와 카메라, 필름을 준비하여 버스를 타거나 혹은 먼 길을 걸어서 시골 마을의 잔칫집을 찾았다. 지금처럼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 시 빛을 적절히 반사시키기 위해 벽을 활용하거나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조명을 설정했다. 사진 촬영 후에는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약품을 사용하여 사진이 잘 나오도록 시간과 농도를 조절해야 했다.

한 씨는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기 전 제주의 혼례에 출장 사진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그의 사진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사진사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혼례 의례 전 과정을 기록하는 핵심 문화 매개자였음을 보여 준다. 그의 구술에서 결혼사진 촬영에 필요한 도구, 촬영 과정, 사진의 인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대정읍 하모리, 김석원



김석원 씨(1946년생)는 대정읍 하모리 출신으로, 대정읍에서 혼례 출장 사진과 사진관·예식장 운영을 병행했던 사진사다. 중학교 시절부터 형을 따라 사진관 암실 작업을 도우며 사진 기술을 익혔고, 사진 기술의 핵심인 흑백사진 수정 · 보정에 능통했다. 당시에는 한 번의 촬영이 전부였기 때문에, 눈을 감은 신부의 눈을 칼과 연필로 새로 만들어 넣는 등 고도의 수작업이 요구되었다고 했다.

김 씨의 형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사진 기술을 배운 세대로, 대정 지역에 있던 사진관에서 일을 하며 사진 기술을 쌓아나갔다. 김 씨 또한 형과 함께 기술을 전수받으며 성장했고, 군 제대 후인 1967년 현재 살고 있는 집터에 건물을 지은 뒤 형과 동업 형태로 '칠십리사진관'을 운영했다. 1970년에는 제주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예식장을 개업했는데, 김 씨의 구술에 따르면 모슬포 지역 최초의 예식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김 씨가 활동하던 시기 혼례 사진은 대부분 신랑집 마당이나 예식장에서 촬영되었으며, 출장 촬영 시에는 사진기사와 조명 담당, 2인 1조가 필수였다. 제주의 혼례식은 겨울에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형 카메라와 삼각대, 마그네슘 플래시를 챙겨 가서 보릿짚을 깔고 병풍을 세운 마당에서 혼례 사진을 촬영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출장에서 돌아오면, 밤새 암실에서 필름 현상과 인화 작업을 진행해야만 약속한 날짜를 맞춰 사진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바빴다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결혼사진의 기본 구성은 신랑·신부, 양가 가족, 친구 사진 등 약 5판이었고, 각 판마다 사진은 기본 3장씩 인화되었다. 가격은 판당 약 1,800원 수준으로, 당시에는 증명사진 한 장 값이 보리쌀 한 말에 해당할 만큼 사진사는 고급 기술 직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김 씨는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정부 요인 방문 기록, 교통사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 등 공적 기록 사진도 담당했다.

김 씨의 사진관과 예식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으나, 컬러 사진과 카메라의 대중화로 인해 사진 기술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사진관을 정리하였다.

김석원 씨의 구술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결혼사진과 관련한 문화를 그려볼 수 있다. 사진은 혼례의 결과물이자 의례 그 자체의 일부로 기능했으며, 당시 결혼사진은 가족 공동체의 기억을 물질적으로 남기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Ⅲ.

제주의 혼례,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구술 채록 자료



한봉원(1939년생) 씨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렌즈

1.

조천읍 선흘리 조수용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9월 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권미소
- **제보자**: #1 조수용

제보자 정보

@1 삼춘 알주마는 이름은 무신거꽈?

#1 조수용.

@1 조수용. 생년월일은 멧 년생?

#1 에, 저 팔공 년인디 팔일 년이라.

@1 삼공 년인디.

#1 나가 호적에 흔 나 줄여 부난 팔이 년, 팔일 년.

@1 삼일 년.

#1 저 삼일 년 첨.

@1 팔일 년이믄 삼춘 나보다도 어리게. (웃음)

#1 삼일 년, 삼일 년.

@1 삼십일 년. 거난 무슨 띠꽈?

#1 나 물띠주게.

@1 아, 말띠.

#1 겨난 저 생일은 또 나가 십일월에 낫는데 삼월 십오 일로 뒈 잇어, 호적에.

@1 아, 호적에는 삼 월 십오 일. 어, 우리 남편이랑 생일 똑같네. 삼춘 고향은 어디마씨?

#1 이디, 이디 선흘. 선흘서 난 이때도록 살안.

@1 선흘서 난 선흘서 컨예. 선흘서 시집가고.

#1 선흘 사람이영 시집간.

@1 학교는 어디까지 뎅겻수과?

#1 ᄒᆞᆨ교 헤졋어게. 그냥 저 우리 나 우이 언니덜은 다 간이ᄒᆞᆨ교 이학년 졸업을 다 허고 나 ᄎᆞ례 돌아완 가난 저 삼 개월 안 뒈언 해방 뒈 불언. 해방 뒈 불언. 경헤 부난 ᄒᆞᆨ교 못 헤연게. 경허난 글후제 ᄉᆞ삼사건 터젼 ᄒᆞᆨ교도 군인 오란 바락 담아젼 선흘 저 ᄒᆞᆨ교도 엇어져 불고, 막 불태와 불고. 경헨 그루후제사 이제 ᄒᆞᆨ교도 짓언에 ᄒᆞᆨ셍 그때 겐 ᄒᆞᆨ셍도 멧 개 안 뒈어. 우리 큰뚤이 중ᄒᆞᆨ셍 선흘에서 ᄒᆞᆫ나뿐. 우리 큰뚤. 경허난 글후젠 이제 우리 셋뚤ᄁᆞ장 중학교 허고, 저 남의 사람덜은 중ᄒᆞᆨ교도 안 시키고 나 ᄒᆞᆨ교 시겨 가난 막덜 웃어. 난 벤또[1] 니 개썩 쌋주. 그 시절에 벤또 싸 부난. 경헤여근에 부지런히 책가방덜 지엉 나가 가민 우리 봥 막 웃어. 어떤 하르방은 흥 허멍 막, ᄒᆞᆨ교 시겸젠. 경도 허여난. 동○상회 궨당이난 그디 간 글으멍 헤도 나 ᄒᆞᆨ교 시켜 가난 느네 궨당 경헤낫저 허멍. 경도 허연, 억울허연.

@1 아이들은 몇 명이꽈, 게난?

#1 아이들은 나 팔 남매인디게 저 셋뚤만 서울 간에게 다 칠 남매 시에 살암주게. 시에.

@1 아들 몇, 딸 몇?

---

1) '벤또'는 일본어 'べんとう(弁当)'에서 온 말로, 도시락을 말한다.

#1 아들 서이게.

@1 아들 서이, 딸 다섯 개.

#1 으, 막내 그건 결혼 안 헨. 이제 아라동 간 거.

@1 게난 삼춘 몇 살에 결혼헌 거꽈?

#1 그때게 스물 서너니 개에, 니 개에 가신가. 너이에.

@1 스물네 살에.

#1 응. 옛날이난게.

@1 거난 이 동네 삼춘이영 결혼헤신디 옛날에 얼굴 알아난?

#1 동네라도 경 알도 아녀고 친절도 아녀난. 기자 할아방덜끼리 결혼은 헤 불엇주.

@1 할아방덜끼리 어떵 결혼허기로 헤신고?

#1 우리 하르바님은 저 거시기 한문 ᄉᆞ장 저 선생이라낫주게. 겨고 또 우리 시하르바님은 훈장, 짐 훈장 짐 훈장 우리난, 우리 하르바님이 사돈 허겐 헨 허연 뭐 누게 얼굴도 몰르고 ᄒᆞᆫ 동네라도 어린 때덜이난 경헨 헌 게 첨 이때도록 살안게. 경헨 살앗주게.

@1 아까 시아버지는 무신거, 짐 훈장?

#1 짐 훈장.

@1 진 훈장?

#1 훈장, 훈장. 그 시절에.

@1 훈장은 알겟는데 진 훈장은 뭐라?

#1 짐씨게, 짐씨. 김씨니까.

@1 아, 짐씨. 짐 훈장.

#1 우리 하르바님은 조 ᄉᆞ장.

@1 조 ᄉᆞ장. 아, 조씨난.

#1 한문 선생이라. 경헨 막 선흘에서 막 울련 살단 그 놈의 ᄉᆞ삼사건 덕분에 하르바님네도 막 고생허멍 돌아가고 우리 아버지도 막 고생허단 돌아가 부련. 거난 서럽주게 서러와.

결혼 약속

@1 게난 몇 살에 결혼하기로 한 거라?

#1 멧 술에 무시거 스물 너인가 다섯에.

@1 그냥 결혼헐 때쯤에. 어렸을 때부터 약속헌 건 아니고?

#1 아니, 아니. 당추 아니. 그 시절에 무신. 첨 만나곡 하간거, 저 그때도게 함덕 사름덜이나 시에 사름덜은 게도, 촌에 경도 안 헤나고, 그 시절에.

@1 게믄 삼춘예, 저 짐 훈장네 아들이영 결혼허라 영 ᄀᆞᆯ은 거, 아부지가?

#1 손지, 손지.

@1 아, 손지영. 짐 훈장네 손지영 결혼허라 영 허난 그다음 어떵 헷수과?

#1 어떵 허여. 대답도 아녀고 뭐 잔칫날 돌아오난 잔치헷주.

@1 안 허켄도 안 허고?

#1 아, 줌줌헨 내불엇주.

사주

@1 그믄 그 절차가 순서대로 어떵 헹은에 이름을, 저기 사주를 줘야 뒐 거 아니꽈?

#1 ᄉᆞ주? ᄉᆞ주는 할아방, 아부지네찌리 헷주게. 할아방덜찌리. 우리 시아바님도 ᄉᆞ삼에 돌아가 부난 하르바님이 결혼도 시견. 우린 또 시아바님도 돌아가 불고 우리 하르방 누님도 돌아가 불고 나 친정 언니도 돌아가 불엇주게, ᄉᆞ삼사건에. 경헤 부난 ᄉᆞ삼사건에 언니 심어가난 밥을 암만 맛 좋은 걸 앞더레 놔도 ᄂᆞ려가지 아년 못 먹어. 못 먹어. ᄒᆞᆫ 삼 개월 동안 밥 못 먹언게. 경허단 선흘 사람이 그루후제 ᄉᆞ삼사건에 ᄆᆞᆫ딱 첨, 돌아가 불엇주게. 우리 성님네가 체ᄁᆞ장 돌아가 불언.

@1 삼춘 스물네 살이믄 ᄒᆞ꼼 늦게 결혼헌 거 아니꽈, 그때는?

#1 그땐 늦엇주. 우리 셋성님넨 열아홉에 갓어.

@1 거난.

#1 경헨 이제 혼인신고를 안 헷주. 그때 못 헤여 부난. 경허난 이제 ᄉᆞ삼에 이제 돈이 나왓어. 언니 직시도. 언니 직시로 나오난 우리신디 나오난 이젠 우리가 저 일본 언니, 큰언니도 일본 가 불고 아시 둘도 서울 살아 불고 허난 이디 사는 동생덜 허고 올케만 이제 돈을 모연 그디 삼천만 원 가져 간. 그디 제ᄉᆞ 허는디. 거난 이제 제ᄉᆞ 허는 조케가 고맙수덴 왓어. 서울서, 역불로, 막 고맙덴. 거난 그때도 그냥 보내져. 돈 십 만 원 주고. 그 조케 오난.

@1 겨난 결혼헐 거여 헹은에 결혼헌 때까지는 얼마나 걸려신고? 말 나온 때부터?

#1 ᄒᆞ썰 걸려신디 말아신디 잘 몰르커라.

중매

@1 혹시 이 동네서는 중매 전문적으로 봐 주는 사람은 엇수과? 중매쟁이 헤난 사름은 엇어?

#1 엇어.

@1 엇어.

#1 그때ᄁᆞ장은 없고 그냥 영 서로 그자 헐 만헌 사돈덜은 다 헤엿주. 우리 성님네도 좋은 디 결혼 영 허고 우리 아주바님은 제주신문사에 간 취직허연 허는디 아덜을 아이 데려 오민 부모덜이 살 수가 없어. 아덜 안 데려 오민 부모덜을 죽이켄 하도 허여 부난.

@1 사삼 때.

@2 아이 데려 오렌.

#1 경헨 시에서 오랑 ᄒᆞᆫ 둘만에 죽어 불엇어. 제주신문사에 뎅기당. 우리 형부, 경 헨 돌아가션. 겨난 더 억울허주게.

궁합

@1 게믄 사주를 줫어예. 그 사주를 어디 강은에 보는 거라. 궁합도 봐실 거 아니?

#1 어디 간덜 봐실 테주. 하르방덜찌리 아버지네찌리덜.

@1 이 동네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없고?

#1 어. 엇어. 그자 하르방덜찌리덜 봔덜 헤실, 헤엿주 뭐.

@1 결혼 날짜는 어떵 헹 정허는 건고? 누게가 정해 주는 거라?

#1 겨난 그 ᄉᆞ주 봔덜 정헨 헤실 테주. 그 하르방덜찌리. 우리 그거 저거도 모르고게. ᄉᆞ주사 봠신디 날사 봠신디 뭐 잔칫날 돌아오란에 잔치허염저 허난 그자 헌 게, 경헤도 첨 법으로 세상을 살앗주게. 경허연.

문우장

@1 막펜지엔 헌 건 무신건고?

#1 응?

@1 막펜지.

#1 아, 막펜지[2]는 저 잔치를 이제 허기로 허연 그때 이제 사돈칩이 그 문우장[3]을 가져가. 잔치헐 걸로.

@1 누게가? 신랑 칩이서? 새서방칩이서?

#1 이 저 새서방, 신랑칩이서가 새각시칩이. 경 헤근엥에 잔치를 허엿주게. 어느날 헐 거 믄 씨어. 겡 가져가민 이제 그날로 잔치헤여. 경 헤낫주 옛날은.

@1 그 어느 날 잔치헐 거 써진 게 막펜지꽈?

#1 응. 그게 막펜지.

@1 문우장은 뭐라?

#1 문우장이 그게 그거.

@1 아, 그게 그거.

#1 응. 막펜지. 경헹 이제 만약에 옛날엔게 아이 살앙 가는 사람도 잇이면 또 메누리를 헤 오젠 허민 그 문우장을 강 그 가 분 메누리네 집이 강 ᄉᆞ정헹 춪아 와야 결혼을 또 허여.

@2 아, 두 불 가젠 허민?

#1 응. 메누리 또 헤 오젱 허민 거기서가 큰어멍 시민 안 허겟다 허면 그런 법도 잇어나고, 옛날.

@1 아니 호적에 안 올라간, 동사무소 강 신고 안 헤도?

#1 신고허는 사람도 싯고, 아년 사람도 싯고, 막펜지 그냥 집이 놔두는 사람도 이시니까 강 줍센 ᄉᆞ정헹 춪아당 또 메누리도 허고, 그렇게 허는 시절도 잇어낫젱 말이우다 이거. 난 들은 말이주, 나도게. 나도 들은 말.

---

2)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 예단과 함께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3) '문우장'은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붓집에 보내는 편지를 말한다.

이부지

@1 게믄 이제 뭐 다음 달에 결혼헐 거여 영 허민 집이서 무신거, 무신거부터 준비헐 건고, ᄎᆞ근ᄎᆞ근 시집오젠 허민?

#1 ᄎᆞ근ᄎᆞ근은 그때겐 뭐 요새, 어떤 디 이제 새각시 집이 어려우나 어떵 허민 이부주라고 헤 가지고 새서방칩이서가 뭘 가져가, 돈도 더러 가져가고.

@1 이젠 돈 주는디 옛날엔 돈 아니라낫지예.

#1 무사, 그때도 돈도 허곡 또 무신 곡석이나 무시거, 쏠이 어려운 때난 그런 것도 가져갓주마는 돈을 역불로덜 헷주. 아져가는 거. 경 헤도.

@1 삼춘네 헐 때는?

#1 우린 그런 것도 안 받고. 우리 시절엔.

@1 삼춘 안 헤도 다른 사람네는 받은 사람도 있지 안헤?

#1 응. 받은 사람도 잇어.

@1 무신거 받앗덴 헙니까?

#1 그디도 돈.

@1 돈.

#1 돈을 얼만지 가져가. 겡 받는 사람도 잇고, 또 이녁네가 이제 집안이 싱싱허민 안 받앙 돌리는 사람도 잇고. 딱 받는 거 아니, 것도. 지금은 얼만이 딱 받넨 허멍 헤도 그렇지 아녀. 옛날은.

@2 어려운 사람만 받았구나예.

#1 응. 어려운 사람만.

@2 게민 그걸로 잔치헤 먹을 걸로.

#1 경헹 이제 풍족헌 집인 아예 안 받고. 새각시 집이가. 살만이 살아지믄 안 받고. 그렇게 헨 헷주게. 나도 이거 들은 말이주마는 나 욱은 후제도 그런, 그런 태가 만헤여낫수다게. 경 헨.

막펜지

@1 그 막펜진가 뭐 사주 받으레 오는 날인가 그 신랑 새서방, 새서방칩이 사람들 오민 밥 안 준덴 헤라 영 허는 말은 뭐꽈?

#1 그건 저 새서방이 ᄎᆞ담 오랑 밥을 먹으면은 잔치를 못 헌다고 옛날에 법으로. 게난 그냥 왕 강 봉만 가곡, ᄯᅳᄅᆞ 막 허기로 허면 사돈 두 어른 허곡 신랑 허고 왕은엥이 허면 이제 새각시 칩이서가 밥헤 영 드리주게. 그냥 보낼 수도 엇고. 그럴 땐 그 신랑 펜이 누님이나 성이나 잇인 사람덜은 둘곡 허영 왕 밥 허여근에 먹곡 헹 가주게. 우리도 큰뚤 결혼헐 땐 시에난 이디 오난 그때게, 밥덜 헤연 드련. 겐 밥 먹언 가낫주게.

@1 초담 올 땐 안 주고?

#1 아니, 아니, 먹젠도 않고, 주도 않고. 경 헷주. 경헨 ᄉᆞ주 줍서 이제 허면 허락허면 왕 ᄉᆞ주 아져가. 그 펜지에 썽 날, 날짜.

@1 ᄉᆞ주 아져가는 날 밥 안 주는 거구나.

#1 응. 그땐 안 먹주게. 잔치를 허기로 헤야 먹주. 그 ᄉᆞ주만 오랑 가져가주. 그루제 난날 난시 씬 거 아져가, 경 헷수다게. 경헹 시작헌 게 이제 첨 다 이 법으로 경 허엿주. 요새ᄀᆞ치 연애헤영 이녁네냥으로 어디 강 살곡 그런 식이 엇어나고. 그렇게 허면은 덜 봐, 사람을. 당추.

@1 덜 봐?

#1 사람을 잘, 좋은 사람으로 아이 추급을 헤여. 이녁으로 여자가 남자네 집일 강 사나 남자가 여자네 집일 또 무턱대고 오랑 사나 허는 사람덜은 사람으로 취급 안 헤낫주게. 그때는.

@2 아, 덜 봐.

#1 응. 딱 이제 결혼을 허기로 헤야 오랑 살곡, 다니곡 그렇게 헤여 옛날은. 경헤서 양반 쌍놈을 갈린 거. 게난 양반이 집인 그런 패가 엇어야 뒈고 또 무턱대고 이제 경 헌 사람은 아주 덜 보고. 그렇게 헤나수다, 옛날. 옛날 법이 그렇게 뒈낫다고 말이우다. 나도 들은 말.

예복 준비

@1 예복은 어떵 어떵 준비헙니까. 한복도 해야 뒐 거 아니?

#1 한복은 그땐 이제 시집이 이제 여럿 동싱이 ᄋᆞ라이고 고모덜이영 시면 고모ᄁᆞ장은 다 한복을 ᄒᆞᆫ 벌썩 헤 주고 게믄 이제 고모영 이제 새서방 어멍 아방에 또 큰아덜이민 아랫 동생은 그렇게 한복도 그렇게 ᄀᆞ추왕 안 헤도 뒈고, 우잇 오라방 누님이나 동생 잇이면 똑ᄀᆞ치 한복을 ᄒᆞᆫ 불썩 다 헤여.

@1 그건 누게가 헤 주는 거라?

#1 새각시칩이서가.

@1 아이고, 그럼 경 하영 헤 줘야 뒈어?

#1 응. 경허민 우리 셋성님 결혼헐 땐 열 불 헤낫어. 그디 고모, 저 큰시아방, 족은시아방 그디ᄁᆞ장 다 허젠 허난. 경도 헤나고. 그런 시절도 잇어나고.

@1 삼춘은 헐 땐 어떵 헙디가?

#1 우리도 저 시고모네영 시난에 허엿주. 우리 헐 때ᄁᆞ장.

@1 올 때 헹 완, 삼춘이?

#1 응. 허영 그 잔치 전이 몬 아져가.

@1 한복으로 헤, 아니믄 옷감으로 헤?

#1 한복 허영 그때게. 이젠 그루후제사 이 기지로 헷어. 것도 ᄒᆞ꼼 셔 가사.

@1 ᄒᆞ꼼 셔 가사.

#1 응. 그냥 기지 끊엉 그냥.

@1 기지만예.

#1 ᄒᆞᆫ 번에 재영 다 ᄂᆞ놔. 그추룩 헤난. 우리 큰아들 풀 때는 그 사둔칩이 기지로 보내엿어. 간 그치멍 그냥. ᄒᆞᆫ 불에치썩. 경헨 헤난.

새각시옷

@1 그믄 새각시옷은 어떵 만들아?

#1 새각시옷은 이녁으로 헨 입엇주.

@1 무시거 멘들엉 입읍디가, 삼춘은 헐 때?

#1 한복이영 또 그 장옷은 저 빌엉 입어. 새각시 입는. 난 지금 호상 헤 논 거 옛날ᄀᆞ뜨민 빌려. 새각시 이제 허민 장옷 빌레 와. 새각시 입지젠. 경헨 강 그걸 빌어당 입곡.

@1 아, 장옷 멘들앙 그 호상으로 헐 거 멘들앙 놔둔 거 빌령 갑니까?

#1 응. 응. 거 빌어당 입어.

@1 그냥 막 빌려 줘?

#1 빌려 줘. 할망덜 헤 놧당.

@1 안 빌려 주지 안허고?

#1 아니.

@1 빌려 주민 좋덴 헙니까?

#1 응.

@1 뭐가 좋아?

#1 무시것사 좋은지 그 장옷을 강 빌어당 입어, 새각시덜. 겐 누구네 할망 거 빌어당 입엇젠 경 허고. 나 이제 한복 이제 장옷이영 헤연에 난 거 부영주단 우리 이불칩덜 허난 막 ᄀᆞᆺ추완 헤단 놧주게.

@1 무슨 천으로 헙디가?

#1 멩지.

@1 아, 멩지로.

#1 멩지도 좋은 거. 이 저 멩지도 치마도 두 개 속치메, 것치메 또 후루메도 두 개. 우이 장옷 말고. 그냥 후루메. 속에 입는 거.

@1 게난 장옷은 빌리고.

#1 응. 빌려. 빌어 가.

@1 그다음 한복은 무신 천으로, 멩지로? 결혼헐 때. 호상 말고?

#1 우리? 우리 헐 덕에 무신 법단이여 무신 양단이여 허면, 최고 가는 사람은 무신 모빈단, 양단 그런 걸로 한복 ᄒᆞᆫ 불 헹 입고 시집이서도 헤 주고 그렇게 헷주.

@1 시집이선 무신거 헤 줍디가, 삼춘한테?

#1 그때게 저 양단 헤 줘실 거라.

@1 양단으로. 하얀색?

#1 하얀색이나 그건 뭐 물색도 허구정 허믄 물색 허고 존 걸로 헷주게.

@1 무신 물색으로 헤연?

#1 무신 빨간 거나 이제 막 허여근엥에 아무거라도 색 좋은 걸로. 모빈단, 그냥 양단, 뭐 호박단 그런.

@1 그게 좋은 거꽈?

#1 응. 그것이 최고. 양단, 모빈단 경 허영 새각시옷도 헤낫주게, 그 시절에. 경허단 그것도 엇어지고 이젠, 아예.

@1 거 어떤 딘 가난 장옷 하난 멘들고 하난 빌렷젠 ᄀᆞᆯ아라마는 삼춘은 다 빌려신가?

#1 아니, 우이 장옷만.

@1 하난 입고 하난 쓰고 안 헤?

#1 안 허여.

@1 입기만 허여?

#1 응. 입기만 헤여. 옛날 그 왕실에는 그 저 장옷 썽 뎅기는 거 테레비에 이땅 나오잖아. 그추룩 허지마는 그 새각시 입은 땐 경 씨는 건 안 아져가고. 우리도 두린 때 새각시 오민 새각시 보레 가곡 허는디 그런 건 아녀고. 그냥 입는 것만.

@1 입는 것만.

#1 응. 장옷.

@1 거믄 무신 색깔이꽈, 장옷은?

#1 나? 나건 끗동 놓고 헨 푸린색.

@1 아, 푸린색. 끝동은 무신 색으로 헷어?

#1 빨간 거 놘에.

@1 빨간 거 놘에. 요디 짓은?

#1 짓도 똔 짓 허고.

@1 빨간색으로 이것도.

#1 저 요자기 저 칠월칠석에는 그 좀 안 먹는 날이엔 허주게, 엿날부터.

@1 칠월칠석이.

#1 어. 겨난 이제 호상 다 내놘에 다.

@1 ᄆᆞᆯ련?

#1 이디 놘에 ᄌᆞ근ᄌᆞ근 앗아 놧당 또 싼 놧주, 저디. 좀 먹카 부덴.

@1 햇빛디 말리는 건 아니고? ᄇᆞ름 쒜움으로?

@2 매년 경 헴수과?

#1 아니. 나도 저 하르방 거 경현 펀칙헤영 입지고 나 것도 편칙허난. 영 또 칠월칠석에 날 좋는 벳이 어려와. 날이 우쳐, 그날은. 그거 무신, 무신 대왕 돌아간 날이엔 헤근엥이.

@1 무신 대왕?

#1 그 저.

@2 누구랑 누구랑 만나젠.

#1 비 ᄒᆞᆫ 쌀이라도 헌뎅 말 엇어게.

@1 비 ᄒᆞᆫ 쌀이라도 헌덴.

#1 경허난 그날 벳 남도 어려와. 게도 올린 막 벳 잘 난. 겨난 난간에 내놧단 또 쌍 들여놧주게. 이디 앗아내 보켄 허민 붸와 주주게.

@1 ᄒᆞ꼼 이따근에 그건. 나중에랑. 물어볼 거 먼저 물어보고.

#1 경허여. 희여뜩헌 말 ᄀᆞᆫ지 말아.

@1 맞아. 친정어머니 건 안 헤 줘? 시댁에서 친정 건 안 헤 줘? 이제는 양쪽으로 헤 주는디. 시집이 것만 헹 가?

#1 시집이 것만 헹 가주 안 헤 줘.

이불

@1 응. 이불은 멧 채나 헹 갑니까?

#1 이불 그때게 잘 출리는 사름이라사 두 채. 두 채 허곡 이제 ᄎᆞ츰 시어 가난에 ᄉᆞ삼 사건, 아, 옛날은 엇은 사름 한 채밲이 안 형 가고. 잘 출리는 사름은 이젠 두 채 허곡 요 두 개, 이불 두 개, 베개, 뭐 요팡석 그런 것ᄁᆞ지 다 헹 갓주. 요 중간에 사라져 가난. 겡 허고 우리 헐 땐 뭐 이불 ᄒᆞᆫ 채도 헹 가고. 안 헹 간 사람도 많고. 그 시절에. ᄉᆞ삼사건 곧 끝난에 우리가 그 결혼인가 무시거 헨 ᄀᆞ자 살앗주게. 경허난.

@1 이불도 미리 미리, 결혼허기 전에 미리 만들어야 뒐 거 아니꽈예.

#1 어. ᄒᆞᆫ 며칠 전이 저 바농질허는 날이엔 허영 오라근엥에 옷덜 멘들아.

@1 멧 사름이? ᄒᆞᆫ 사름, 어멍만 못 헐 거 아니꽈?

#1 아이, 겨난 동네에서 오랑 헤 줘. 저 장옷은 말고게, 새각시 집이선 새각시옷이영 이제 부모덜도 옷 엇인 어른덜 그날 이제 기지 헤당 헤영덜 입곡. 그렇게 헷수다게. 경헷주. 뭐 경 똑 벡여 놓고 허는 건 아니. 경 헤영 이제 바농질 허는 날이민 그날도 점심도 헹 멕이고. 잔치 돌아오민. 그 옷 허젠 허민. 경도 헤낫어.

@1 그 솜이영 소게영 다 이디서 사당 헌 게 아니라 집이서 다 헹은에 만들언마씨?

#1 소게 사단 헷주, 우리 시절에.

@1 아, 삼춘네 사당 헨. 멘네 갈앙 헌 게 아니고.

#1 그루제 ᄉᆞ삼 사건 전에는 멘네를 많이 갈아낫어. 제국시대에 멘네 갈앙 바찌렌도 허고 그렇게 허니까 그때는 멘네를 이제 그 물레엔 헤영 그 씨 뽑는 게 잇어. 영 돌리멍 영 멕이멍. 경허민 그거를 헤여 가지고 소게 기계에서 태와 그디 강. 경헤단 이불도 잘 헤영 새각시 이불도 좋은 소게로 헤영 가고. 그렇게 헌 시절도 잇어나곡. 뭐 시기시기 때때로게. 다 그때 허당 또 바꽈지곡. 그루젠 이젠 소게도 그 저 태와근에 몬 장 짓엉 ᄑᆞ난 그거 막 좋아. 그 소게 헤다근에 그 공들이 아녀도 뒈고. ᄎᆞ츰ᄎᆞ츰 시대가 발달뒈 가지고. 경허고 저.

@1 장 짓은 건 뭐꽈?

#1 영 이제 ᄒᆞᆫ 장썩 영 쭉 허민 그 소게 이불 지레기, 경헤영 이불 ᄒᆞ나에 멧 장 들어 가는 거. 이불 ᄒᆞ나 많이 허는 사름은 아홉 근, 또 족게 허는 사름은 ᄋᆞ덥 근ᄁᆞ장도 허곡, 경 안헌 사름 막 잘 허는 사름은 열 근도 헤여. 이불 ᄒᆞᆫ 채에.

@1 열 근 허믄 몇 장이나 들어가?

#1 건 장수 헤 봐야 알주. 경 근수로는 그렇게 헤영 이불 잘 헤영 가는 사름. 그렇게도 헤낫수다게. 경막 복잡허주게.

@1 거난 그 이불 다 데껴 붑디가, 이젠? 삼춘 시집올 때 헤난 거?

#1 다 데끼단도 이제 저 우리 이불 집 허난 이제 소게를 이젠 곧 것덜 강 태왕 저 흔 채 태우민 두 개썩 멘들앙 선흘 다 헤 왓어. 가외일통 그 소게 태우는 사람신디 아져 가민 태와 오면 그디서 이불 거적 궂인 거 다 데껴 불고 이제 우리 이불집이서 헌 걸로 간 기지들 헤연 가외일통 헤와 선흘서. 소게 태우멍. 경 헷수다게. 우리 이제 큰아덜네 저 허여 온 거 두 채 잇어. 이제 저디 데며 놘. 요새 더끄지도 아녀고.

@1 삼춘 헤 온 건 다 데껴 불고 큰아들네 헤 온 건 다 잇수과?

#1 잇어. 나도 곤 건 이제 저 흔 채 헤단 두 채 멘들안에 얍지롱허게 경 헹 잇주게. 그것도 소게 존 거난. 다 데끼단도, 저번에도 ᄒᆞ나 데껴 불엇어.

@1 그것도 저 빨간색 허고 푸린색 허고 영 헤근에 놩은에 헙니까?

#1 이불 거적?

@1 응.

#1 응. 이불 거적, 이불 짓이영 이불 거적에, 짓은 이제 똔 짓 허고.

@1 똔 짓으로 그건 하얀 색으로?

#1 아이 그건 저 푸린 걱적이민 붉은 짓. 게난 이불 짓이 잇어. 나 요디 싼 놧주 그것도.

@1 이불 짓은 이거 이불이믄 요기가.

#1 이건 이불 껍데기민 요디 짓을 이제 빨간 걸로 둘아. 똔 색으로.

@1 요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둘아. 이불은 하얀색은 여기 끝에가 하얀색?

#1 이젠 안이 크지게, 이건 겁데기고. 이젠.

@1 안이 잇고 밖에예.

#1 경허고 또 소겔 싸. 시러목으로. 소게 싸근엥에 허민 막 이불 허기가 좋아. 거 소게 놔근에 튼튼하게 쌍 이제 다 공들이 시꺼. 헤싸지지 아녀게. 그추룩 헹 놧당 이제 뽈 때민 걱죽만 탁 뽈아 뒁 또 허민 막 좋고. 시대가 좋아 가난 다 그렇게 헷주게.

@1 삼춘 시집올 때 베개는 멧 개 헹 옵디가?

#1 베개 멧 개 헤, 두 개 헷주.

@1 베개 두 개 헨? 진 거 ᄒᆞ나 헷덴 허는 삼춘도 잇어라.

#1 그건 그루후제 사람덜이주.

@1 삼춘네 헐 때 아니꽈?

#1 그때ᄁᆞ장 두 개 허는 사람도 벨로 엇엇어. 함덕 부제칩이 우리가 우리 하르방 동창 허고 우리가 ᄀᆞ치 헷어이. 경헌디 그 사름은 막 부제칩인디 군인 간 그냥 가 불엇어. 똘 하나 놔 둰. 우리 하르방 동창.

@1 궤도 헹 완?

#1 궤가 어디 셔, 그때. 그루후제사 궤도 헤연 뎅이는 사람도 잇고. 우린 ᄉᆞ삼사건 곧 끗난에 허연 궤도 안 헹 가고 아무것도 안 현. 그냥 이불만 흔 채 헷주. 요 허고.

예물과 예단

@1 저 친척들한테 버선도 만들아 줘?

#1 보선은 이제 정월 멩질 돌아오면 그 한복 열 불이믄 열 불 헌디 흔 베썩 다 헤 가. 보선. 보선 헹 태와, 정월 명질에.

@1 정월 멩질에.

#1 응. 겅 헹 강 보선을 줘 와야 뒈어. 그때 광목으로 보선 주언게. 겡 보선골 헤여근에 영 놔근엥에 허민 그 보선이 영 잘 허면은 두 개 나와. 이 광목 흔 필에. 흔 영 흔 너비에. 그것도 잘 허는 사람이라사 그걸 몰라근엥에 허주 경 안헌 사람은 못 몰라, 것도. 보선 두 개 내우젱 허면. 경허멍 이제 ᄎᆞ례 ᄎᆞ례 헤영 다 이제 미싱에 박아근엥에 그걸 영 곳아근 벗어 내여, 뒈쌍 이제 그 보선 코도 바농으로 영 헤영 꼬작허게시리 멘들곡. 경 허멍.

@1 코 나오게.

#1 코 나오게. 코젭이 보선이렌 말도 엇어.

@1 겨난. 코젭이보선예.

#1 옛날엔 왕실에만 그런 보선도 신곡 허연.

@1 거난 삼춘 시집올 때 무신거 무신거 헹 온 거꽈, 이불허고?

#1 이불밲이 아녀낫어. 아무것도 안 헤낫어. 무시걸 허여 그 시절에.

@1 자부동은 안 헤?

#1 자부동 두어 개 놔실 테주.

@2 헹 와신게.

#1 이불 두 채 허고.

@1 이불 두 채 허고.

#1 자부동 두어 개 허고.

@1 자부동 두어 개 허고.

#1 베개 두 개 허고.

@1 베개 두 개 허고.

#1 그 시절에 무시걸 허여.

@2 요강 안 헤수꽈, 요강?

#1 요강은 헤연.

@1 요강은 헤연. 무신 요강? 놋이라, 사기라?

#1 사기 요강 헤실 거라. 놋 요강은 아주 옛날 우리 어머니네 시절에. 놋 요강 헤 난 거 ᄉᆞ삼 사건에 함덕 아젼갓단에 내불멍 헷어. 경도 헤나고.

@1 아, 그거 헷잖아. 거울. 명경?

#1 아, 거울 경대엔 헤여.

@1 경대, 경대.

#1 그건 헤나고.

@1 경대 헷지예?

#1 응. 그것도 경대도 허여당 놔도, 저추룩 놔도 잘 보도 아녀니까 이 사름 헤나민 그디 강 사당 또 허고, 경 허멍도 허곡.

@2 아, 써난 거, 헹 가난 거 사당.

@1 중고로?

#1 문여, 문여 결혼헌 사름 허여 나민 그거 아이 쓰크메 나 거 사단 허라 허민 그거 사당 허고. 경도 허는 시절도 셔나고. 우리도 경대 요 저 이 선풍기만이 헌 거 그거 헤 와난. 헹 가난. 경 허는 사람도 많고. 그 시절에. 우리 하르방네 동창. 이제 동창덜 다 돌아간 이제 엇어. 우리 하르방 젤 말쩨 돌아갓어. 소학교 동창, 소학교 동창. 우리 하르방하고 난 시대 못 만난 공부를 못 헤엿주게. 함덕 저 거 시기 소혹교 졸업허난 동창덜은 함덕 사름, 조천 사름 허난 문딱 높은 학교를 가고 이디서 버스도 엇곡 어디 강 집을 빌어사 시에 강 공부를 헐 건디 헤졋어? 겨난 하르방이영 나영은 멍청구리로 살안. 공부 못 헤여 부난.

@1 아이고, 경 헤도 이제 완전 유명한, 잘 나가는 삼춘인디.

#1 겨난 하르방은 이젠 동창회 막 오래 헷어. 우리 큰똘 풀 때ᄁᆞ장. 겐 시에 간 보난 다 높은 사람덜. 경 허난 우리 하르방 이름이 상수주, 겨난 상수야, 상수야 허멍 막 울어렌. 동창덜이. 경허고 또 함덕 사름인디 저 그 사름은 홍씬디 제주대학교서 약사. 약사난에 우리 하르방 입원허난 그 동창이 아이고 춤말로, 이녁 동싱 경 안 혀 줘. 동창이 육층에 입원 헤여도 왓다 갓다 허멍 약도 잘 썸시메 걱정 말앙 갑센 허멍 막 헤여고. 그 동창도 먼저 죽어 불언.

@1 삼춘 이불 허는 날 신랑 칩이서 뭐 헹 먹으렌 왓당 가고 헙니까? 옛날에 그렇게 안 헤난?

#1 옛날 것도 ᄒᆞ끔 생각허는 사람은 허영 헤다 주고.

@1 경도 헤?

#1 응. 영 동네에서나 또 뭐 허민 허여다 주고 그렇지 안허민 안 헤와. 것도 때 때, 시대 시대 때 때. 경 뭐 걸 법적으로 그 무시거 헤다근에 영 바농질허는 날 먹읍센도 아녀고. 경 헷주게. 경 헷수다게.

도세기 질루기

@1 잔치 음식은예, 미리 도세기도 미리 질롸사고 헙니께.

#1 아이고, 도세기 질루와근에기 허젠 나 큰똘 풀젠 도세기 서너 번 질롸도 잔치 못 허난 다 풀아 둰에 이제 잔친 갑자기 허게 됴난 사단 헤연.

@1 아니, 큰딸 시집보내젠 도세기를 질롸신디 시집을 안 가멘?

#1 어떵산지 못 헤연 허단에 이젠 잔치는 허게 됴난 사단 헷주게. 경허민 도세기 사레 온 사람은 너미 이제 질루와 부난에 지름 하부난 돈 ᄂᆞ려우렌 허고. 경도 허멍 풀아 불엇주게.

@1 삼춘 헐 땐 어떵 헷수과?

#1 우리 헐 땐 그때 도세기 ᄒᆞ썰 헨연덜 그 시절에 경 잘 출련 허도 아녀고게. 그땐 막 ᄉᆞ삼사건 끗에 뭐 결혼도 허나마나 헐 때인디 하르방들이 손지들 풀겐 헹 경 헷주게. 경헌게 ᄀᆞ자 살앗주.

쌀 준비

@1 음. 쌀도 미리 막 다 준비해 놔야 뒐 거 아니? 결혼허젠 허민?

#1 쏠 허여다근에 이젠 쏠도 그 나룩쏠 사오민 그땐 궂어. 경허민 방상덜이 모다졍 쏠 다듬으레도 와. 가멩이에 쏠 사 오면. 경 이제 문딱 비와 놩 그걸 콜콜이 다듬아. 경헹 또 담앗당 잔칫날은 시치멍 밥 허곡. 그추룩도 헷주게. 이제ᄀᆞ찌 쏠이 경 씰락쌀락 어디 시난.

@1 쏠접으로 헤근에 ᄀᆞ치 큰일 때 다른 동네 사람들이영 ᄀᆞ치 허는 건 엇어?

#1 아니, 우리 제로 이제 큰일 둼민 쏠 한 가멩이제를 헤여. 잔치를 허게 둼도 쏠 한가멩이 받고 한 열두, 열두 사름이 제 헌 것도 경 허여근에 이제 잔치 돌아오민 그 쏠 헤살로구나 헤영 ᄒᆞᆫ 가멩이 헤오고 경허멍 돌아가멍. 그땐 쏠이 어려우난. 제일 쏠이 크니까.

@1 그건 제로 헹 헌 거꽈, 쏠제?

#1 응. 그 잔치 때 나도 쏠 한 가멩이 받안도 헌 잔치도 잇어나고 돌아가멍 허여. 그것도. 그추룩 헷주게.

살장귓제

@1 건 동네 사름이 허는 거꽈, 친목이?

#1 응. 동네에서게. 친목덜 헤영. 친목덜 헤영. 겨고 또 난 서른다섯 사름이 제도 헤 낫어.

@1 건 무사 경 하영.

#1 그거는 살장귓제라고 헤 가지고 이제 그 저 큰일 때에 그 집이 무슨 일 잇이믄 다 모다 왕 일헤 주곡 또 그 돌아가시면은 영 사름으로 영 모사 가지 안 허여게. 경헐 땐예 그 사람들 다 왕 모사 가 주곡. 경 허멍 서른다섯 사름이 제 허연, 나가 제모 허연 돈 이젠 헤당 이디서 다 갈라내고 헷주게, 나가. 그때 돈 백, 백 얼마니 모두완. 겐 이디서 밥덜 헨 안네고, 그추록도 헤낫수다게.

@2 무슨 제마씨 그게?

#1 응?

@1 그게 무슨?

#1 살장귓제.

@1 살.

#1 장구. 장구.

@1 장구. 살장구.

#1 살장구[4].

4) '살장구'는 '설장구'의 제주어로 일어서서 장구를 어깨에 걸어 메고 치는 장구를 말한다.

@1 무사 살장구엔 굴아신고 이름을.

#1 아니, 이름은 그 살장구를 이제 그때 가면 사름이 모다 가야 이제 재미잇게 서럽지 말고 그 살장귓제가 가서 놀면게, 울단 사람도 안 울주게. 그렇게 헤서 기분 좋게 헤어지자고 살장귓제를 서른다섯이 허연. 경헨 이제 그 그때는 살장귀 메엉 나강 소리 허는 사름 소리 허고 장구 두드리는 사름 두드리고 그추룩도 헤나고.

@1 누게 돌아가셨을 때, 영장 날 때? 영장 날 때만 허는 거꽈, 그건?

#1 응. 그거 경 허여. 경허여근에.

@1 상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1 아니.

@1 상여는 상여제엔 안 허고?

#1 이따근엥이 놀레 갈 때. 기분 좋앙 놀레 갈 때는 살장귓제로 감저 허영 강 놂도 허고.

@1 아, 놂도 허고.

#1 응. 그렇게도 헤나고. 나도 첨 생전에 그 제도 여러 개 헤낫주게. 경헨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함덕서 돌아가 부난 이젠 그때 사름으로 오젠 허난 얼마나 헐 거라. 살장귓제 선흘서 그분덜이 저 억수동ᄁᆞ장 마중 간. 저 바메기 앞이 가는디 문딱 모사다 줘. 이제도 막 고마와 생각헤 보난, 그 어른덜.

@1 다 선흘 사름?

#1 선흘 사름. 선흘 사름덜찌리 허영.

@1 잔치 땐 안 허고?

#1 잔치 땐 그냥 잔치 먹으레 오주, 살장귀 두드리멍, 저 기분 좋은 땐이, 잔치 아시 날 놀기도 허여. 경허여도 제론 안 놀고

@1 제로는 안 허고.

#1 그 제는 그런 때만 헤영.

@1 누게 돌아가셨을 때만?

#1 응. 허여 줘, 장밧디도 강 막 헤 주고. 그추룩. 그런 것도 헤나고. 그 어른덜 다 돌아가 불언 엇어. 이제 막 우리 사진 친디 나만 살앗어렌 헨게. 문딱 돌아간. 우라이 사진 친 것에. 노인당에 가난 아이고 저 성님 ᄒᆞ나만 살앗다고. 할망덜 다 돌아가 부난. 경허멍 굴안.

술 준비

@1 술도 잔치허젠 허믄 미리 만들어삽니께. 옛날에는.

#1 그냥 술은 저 소주. 소주 먹엇주.

@1 소주 나오기 전이. 집이서 술 다까근에 헌 거 아니? 추니에?

#1 소주 다끌 땐 이녁으로 술 헤영 다까지민 좋주마는 경 매집이 다끄지 못헤여. 술 다끌 때는.

@1 게난 삼춘 결혼헐 때 쯤에 술, 집이서 술 안 다깟수과?

#1 아니, 아니. 그냥 사단 헷주. 그때 술 다끔이랑 말앙 쏠 먹을 것도 엇인 시절인디뭐. 그 ᄉᆞ삼사건에, ᄉᆞ삼사건에.

@1 그믄 삼춘네 언니 결혼할 때는 집이서 헤낫수과?

#1 그땐, 우리 언니넨 ᄉᆞ삼사건 전이.

@1 그니까.

#1 그때는 허여난.

@1 그때는 허여난. 집이서 어무니가 술도 다끄고 다 헤난?

#1 술은 그때 허민 항에 술을 헤여 놔. 이제 술떡 허영 헐 땐이 ᄀᆞ루 뽓아다근엥에 그 떡을 이제 저 침도 허곡 돌레떡도 멘들앙 이젠 도구리, ᄉᆞ삼사건에 다 카부난 헷주, 큰 도구리에서 걸 뀌어 가지고 누룩 서꺼근엥에 항에 담앗당 이젠 익으면 거려다근엥이 고소리 앚져근엥이 솟디서 소주 헐 땐 영펭 대곡, 등덜펭이엔 헌 펭이 잇어. 고소리에 꼭 맞은 거. 그거 영 허믄 이제 그 우이 고소리 우이 장텡이 놩 그 장텡이에 물이 두 번 더우면 다 뒌 걸로 허영 물 퍼 둬근엥에 장텡이 앗아 불고 고소리 앗아 뒁 그 술은 소주가 뒈어. 허벅더레 질어근에 헹.

@1 겨난. 삼춘도 막 헤나신게게.

#1 어. 나도 술 다끄는 거 알아져. 술 다끄는 거 알아져, 이제도 허민. 겨난 이제 고소리도 고소리 풀암실 걸 어디.

@1 박물관, 박물관에.

#1 저 거시기 박물관에도 이실 테주마는 이 항 멩그는디 고소리도 이실 거라. 경헹 고소리도 흔 집 어울엉 ᄒᆞ나썩 선흘도 우리도 셔난. 조그만 헌 거 우리 건 막 좋은 거 잇어낫어, 우리 친정어머님은. 겡 그거 앚져근엥에 술 다까.

그릇제

@1 삼춘 이거 아까 자부동도 놧뒀다근에 큰일 헐 때 빌려 주곡 헤낫덴 헨게마는 그릇도 빌려 주곡 헤낫수과?

#1 그릇은이 이녁으로 다 못 허민 젯그릇이 잇어 또 제에서가 헤여 놩 그릇을 빌려.

@1 아, 그거는 어떤 제에서 허는 거라? 아까 살장귀제?

#1 살장귀제에서도 허곡 다른 제에서도. 그릇제도 잇어.

@1 그릇제도 잇어. ᄯᆞ로.

#1 응. 응. 겡 이제 그릇을 빌어가민 이제 큰일 때 강 허여 앗아 오민 젭시 ᄒᆞ나도 떨어지지 안허게 다 세어 마트곡 세어 가곡. 그렇게 헨 허는 시절도 잇어낫수다게. 경허단 그것도 설러 불고. 이젠 시대가 좋아 가난. 경 헷수다.

@1 게난 이거 자부동도 빌려 줫덴. 아까 상도 빌려 줄 거 아니, 게민 큰 상.

#1 큰 상, 족은 상, 상 빌레도 뎅겨야 뒈.

@1 게난.

#1 그 큰일 때. 이제 족은 상도 경 ᄒᆞᆫ 사람 먹는 상. ᄯᅮ로 저 영 진 거. 젯상 말고. 중간 뒈어 가난 그 상도 헤단 그런 상도 동네에 강 빌어 당 다 이제 마당에도 막 손님덜 하영 오민 마당에도 그 상 페왕 밥 먹곡, 그추룩 헨 잔치도 헷수다게. 나 잔치 ᄋᆞ섯 번 헤연 이 집이서.

@1 이 집이서 여섯 번 헨. 그믄 천막도 이디 쳐야 뒐 거 아니?

#1 천막도 치난에 우리 짐칩이서 천막도 헷단 그것도 엇어져 비엇주게. 그루젠 안 쳔 것도. 우리 방상에서 천막도 산.

@1 아, 방상에서.

#1 응. 큰일 때에 치젠. 경헹 천막도 이젠 엇어져 불엇어. 어디레 간 내불엇주, 안 씨어 부난.

@1 이젠 안 쓰난. 식당으로 호텔로 강 허난예.

#1 식당으로 간. 우리 족은 막내 아들만 식당에 간 헤연 그 우이덜은 다 집이서 헷주게.

@1 집이서.

#1 경 허민 모다 오랑 잔치헐 때민 약밥 허곡 둠비 허곡 수에 돔곡 헐 게 족아.

@1 약밥도 허엿구나.

#1 약밥도 헤여. 춥쌀 헤영 약밥. 경 헤여근에 이디 막 큰 솟덜 앚져근에, 다 동네에서, 선흘 막 좋아.

@2 그거 아이들 풀 때예. 약밥 허고 헌 건예.

#1 우리 큰똘부터 약밥허기 시작허연 다섯 번ᄁᆞ장 약밥도 허연.

@2 예. 그 아까 그릇제 헌덴 헐 때는 어떤 그릇들 헐 때 그릇제를 헤나수과?

#1 저 거시기 이모노[5].

@2 이모노 나올 때.

#1 응. 이모노 나올 때.

@2 게민 삼춘 결혼헐 때도 이모노 그릇이 나와십디가?

#1 엇어. 우리 헐 때.

@1 게민 그때는 사기그릇 쓸 때잖아예.

#1 응. 사기그릇 허단 ᄯᅮ루 그 저 노랑헌 아레미[6] 엇어? 그 사발이 나완. 게단 그게 ᄒᆞ끔 허민 멜라져 부난 그것은 버려 두고 이모노로 돌려.

@2 예. 회색 빛깔 나는 거예. 그민 삼춘네 결혼헐 때는 그릇들 제 엇이난 어떵 빌련.

#1 그냥 그 동네서 ᄒᆞ끔 빌어단 썻주게 그때.

@2 기지예.

#1 응. 경 헤연.

@2 그때는 상도 큰 상들 아니랑 다 웨상이렌 헙디다예.

#1 웨상도 허고 저 영 진 거 ᄒᆞ나썩 싯는 집이 싯고 엇는 집인 엇고.

@2 엇어.

#1 어떵 헤신디사 ᄉᆞ삼사건에 ᄆᆞ딱 불케와 불언 저 우리도 함덕서 허난에 헷주. 선흘.

@2 거난 족은 상덜도 다 동네서 빌리멍들.

#1 빌려. 상 빌레도 뎅기고.

@2 상 빌레도 뎅기고.

#1 상 빌어 오민 그디 이름 썻당 또 잘 헹 가져 가곡.

@2 예. 사기그릇도 다 빌령 오고.

#1 응. 경헌 시절도 셔나수다게, 다.

@1 누게네 그릇인지 어떵 알아?

#1 겨난 이름을 써야 뒈.

@2 그릇에도.

#1 상도 빌어 오멍 누게네 거라 헤영 상도 강 이름 썽. 경헷당 아, 요건 누게네 거여 그 집이 앗아가사 켜 헹 아져 가고, 경헷주. 경 헷수다게. 경 헌 시절 정 헌 시절 나 다 겪언.

도감과 솟밋할망

@1 게난예. ᄒᆞᆫ번 잔치허젠 허민예 사름도 하영 빌어삽니께.

#1 하영 빌주게.

@1 그 왕 잔심부름 헤 주는 사람 말고도 무사 도세기 잡는 사람도 잇어야 뒈고, 도감도 잇어야 뒈고.

#1 도감 빌레 가민 또 막 것도 특별히 잘 허여 주는 집, 못 헤 주는 집, 비썰룅? 안 헤 주는 집도 잇어. 그 도감도.

@1 무신거 놩 안 헤 준다고, 비썰?

#1 아이게, 비썰룅게 아니 가켄 허영, 게민 ᄉᆞ정헹 빌어 오주게. 도감을. 궤기 썰곡 허는 사름. 이제는 여자덜토 아무나 궤기 썰지 안 헴서? 그땐 경 안 헤. 도감이 오라야 궤기도 썰곡 허멍 멕이고 경 헷주, 경 허여.

@2 도감은 남자라에 뒈니까?

@1 남저. 남저.

@2 남자라야 뒈는 거. 그때는 여자 안 써수꽈?

#1 여자 안 써. 여자 안 써. 밥 허는 사람은 여자 빌곡.

@1 밥 허는 사람은 뭐엔 골아? 이름 엇어?

#1 무사 엇어게.

@1 무신 할망 영 곧는 말 엇어?

#1 솟밋할망[7].

---

5) '이모노'는 일본어 'いもの'에서 온 말로 '주물(鑄物)'이라는 뜻이다.

6) '아레미'는 일본어 'アルミ'에서 온 말로 '알루미늄'이라는 뜻이다.

7) '솟밋할망'은 잔치와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1 솟밋할망.

#1 경헨 빌어 오곡.

@1 솟밋할망 빌고 도감 빌고.

#1 도감 빌고.

@1 그다음 또?

#1 경헨 그 남안게 동네에서 모다들언 헤 주곡. 또 그릇 시치는 사람ᄁᆞ장은 품 줘야 뒈곡.

@1 아, 그릇 시치는 사람 품 줘야 뒈고. 그믄 솟밋할망도 아무나 허는 거 아니?

#1 안 허여.

@1 어떤 사람이 허는 거라 그건?

#1 그거 뎅이는 사람이 잇주게.

@1 아, 전문가가 잇구나.

#1 응, 응. 도감도 있고 오랑 허는 그 솟밋할망도 있고. 우리도 멧 번 빌어단 헤연. 요디 솟 앚젼.

@1 이디 선흘 사람이꽈, 그 사름은 아니민?

#1 그 사람 시방 북촌 살암서.

@1 북촌 사름이꽈?

@2 살암서?

@1 지금 잇어?

#1 지금 잇어.

@2 솟밋할망 헤난 사람?

#1 응, 응.

@2 일름 알아지쿠과?

#1 일름 알주마는 이젠 어디 농협에 간 헴젠 허는 거 닮안게.

@1 아니, 이 사름. 이 사름은 몇 살이나 난 사름? 이디 왕 삼춘네 집이 헤난.

#1 이제 한 칠십 낫주. 칠십 넘엇주.

@2 아, 막 그 후제.

#1 응, 막 늙언, 이제. 그 사름네 젊은 때 우린 잔치를 헷주.

@1 삼춘네 똘 풀 때 왕은에 헤 준 사람이꽈?

#1 글로부터 쭉 허연. 우리가 ᄒᆞᆫ엇이 놈도 아니고 허난 오랑 헤 주고 경 헤낫어. 겐 솟밋할망 맡겨 불민 아무 음식이라도 그냥 막 마탕 허고 그 사람 지시허민 그 문 모다들엉 허고 그추룩 헨 동네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ᄉᆞ춘 고모 메누리 그릇 씻을 거 걱정 말민 시쳐 내쿠덴 헨 이제도 나 막 고맙덴 ᄀᆞᆯ아. 경 헨 씻어 가민 다 모다들엉 헤 주곡. 경 안 허민 그냥 마탕 허민 돈 줘사 뒈어. 그릇 씻는 거. 거난 우리 아주망이 나가 마탕 허크메 그릇 씻는 거 걱정하지 맙센. 겨난 씻어 가민 다 모다들엉 허여. 이제도 친헙니다, 고모 메누리.

족두리와 가마

@1 삼춘 족두리접 같은 것도 잇어납디가?

#1 족두리? 우리 시절에 족두리 썻주게.

@1 삼춘 결혼헐 때 족두리 썬예. 그믄 그것도 어디 강 빌령 오는 거 아니?

#1 그거는 저 거시기 가메에, 장옷에도 안 부뜨고 가메가 잇잖여, 가메 탕 갈 때. 거기 ᄀᆞ찌 셔, 그거.

@1 아, 그건 어디 강 빌령 오는 거라 가메는?

#1 가메 놓는 디가 잇주. 것도.

@1 마을에 잇어?

#1 응. 어디 그. 경헨 하인들 가메 들러 가는 사름 하인. 겡 그 사름덜이 오랑 헤 가. 경 헤근에 새각시 태왕 들러 가는 거. 건 하인, 하인. 또 하인이 저 하간 부름씨도 다 허곡.

@1 아, 삼춘네 옛날에 삼춘네 결혼헐 때는 하인이 잇어난 거 아니예.

#1 잇어난, 그때ᄁᆞ장도.

@1 거난 삼춘 똘 풀 때는 엇어나고.

#1 그때 엇어낫어. 그땐 차로 헷주게. 우리 큰똘 풀 때ᄁᆞ장.

@1 거난예.

#1 그 시절은 돌아 오난. 시에라도 차로 와져. 가메가 엇어젼, 그때.

@1 딸은 몇 살? 큰딸은. 큰딸이 제일 우에?

#1 우이주. 거시기.

@1 이제 멧 살이꽈?

#1 일흔셋.

@1 일흔셋. 큰똘이 일흔셋?

#1 응. 그 알로. 겨난 그 전이부터 이 차가 나 부난에 가메도 아녀곡. 가메도 설러 불곡.

@1 가메도 설러 불고예. 그거 어디 강 빌려 오는, 그 마을에 거 놔 두는 디가 잇인가 가메 놔 두는 디.

#1 응. 잇어.

@1 선흘은 어디 놔둬낫수과?

#1 어디 그거 놓는 디 잇어난. 잇엇단 이젠 다 치와 불엇주.

@1 그지, 이젠 다 치와 불엇지.

#1 다 치와 불언.

@1 그믄 가메 놓는 디영 상여 놓는 디영 ᄀᆞ튼 디꽈?

#1 ᄯᅳ로 놔실 걸. ᄀᆞ치 못 놓주.

@1 ᄀᆞ치 못 놓지예. 다른예, 하난 좋은 거고 하난 안 좋은 거고 허난예.

#1 그 저 화단이엔 헤영 그거 놔 놘 딘 이제사 치왓어.

@1 아, 건 어디 이서낫수과?

#1 건 이제 집이영 다 튿어 불엇주, 이제. 그것도 이젠 아이 씨니까.

@1 화단 놔두는 디가 더 오랫동안 잇엇구나.
#1 응. 오랫동안 잇엇주.
@1 가메는 빨리 엇어지난 치와 불고.
#1 응. 치와 불고.

결혼 준비

@1 이제 낼모리 멩질 헐 거여 허민에 멩질헐 때, 멩질 허기 전에 무신거부터 헤야 뒈니까?
@3 멩질?
@1 아, 결혼.
#1 결혼헐 때?
@1 낼모리 결혼식이여 허민 결혼허기 전이 무신거부터 허여?
#1 무시거 허여. 무시거 허여.
@1 도세기 잡는 날이 더 먼저? 도세기 잡는 날보다 더 먼저 헐 건 엇어?
#1 엇어. 그날 둠비 허고. 옛날이난 둠비도 집이서 허여. 둠비 허고 도세기 잡고.
@1 그믄 제일 처음에 둠비허고 도세기 잡고 그거 먼저 허는 거꽈?
#1 응. 그추룩 헤 집이서 잔치허젱 허민.
@1 그믄 도세기도 도세기 잡는 사람 아까 빌려근에? 동네 사람덜이?
#1 응. 빌령. 빌령.
@1 어디서 헤여? 이디 집에서 허젠 허민.
#1 집이서 허젠 헛간 어디 저 공한 헌 디 강 물 시치멍게. 것도 막 힘들어. 것도 허젱 허민 빌어 와야 뒈어.
@1 사람 빌어야 뒈어예. 남자들 뭐 동네 사람덜이 허는 게 아니고?
#1 아니, 아니. 안 헤여. 하인, 하인.
@1 하인이.
#1 오랑 다 헤여.

둠비

@1 둠비는 누가 헤, 둠비는?
#1 둠비는 어른덜 모다들엉 허곡. 둠비는 여자 어른덜.
@1 여자 어른덜.
#1 겡 둠비 숢아근에 이제 그 둠비 포에 싸근에 지둘롯당 둠비 베민 이제 체암 둠비 베민 맛봄으로 막 먹곡. 맛좋아.
@1 그믄 소금물은 어떵 헹은에 헤?
#1 소금물은이 바당물 질어 와야 뒈어. 경허단 말짜엔 바당에 간 보니 곱질 아녀더라고. 거난 소금 허연에 이젠 난 근 맞게 항아리에 이젠 소금 칸 소금물을 드끈 걸라앚안에 둠비 허난 막 좋뎬 헨 그루 후제 소금덜 헨 헤여. 바당물 질레 안 간.
@1 이 선흘에서는 바당이 막 멀잖아.
#1 멀어.
@1 겅헌디도 바당.
#1 강 허벅으로 강 지어당.
@1 허벅으로 강 물 질어 와난.
#1 지어당 헤여.
@1 아, 바닷물로. 둠비 허젠.
#1 둠비 허젠.
@1 그믄 어디 함덕 갑니까?
#1 함덕 강 질어 왓주. 경허단에 말짜엔 이젠 에, 에 소금 허여근엥에 허주긴 허연덜 항에 이제 소금 놩 막 근 맞추아근엥에 막 들덜 심엉 허영 소금물이 드끈 걸라앚아. 경허민 이제 그 콩ᄀᆞ루에 이젠 그 소금물 서꺼근에 둠비. 둠비 숢을 땐 그 소금물 꿰와 놔 둠비 짠 거 이젠 그레 노민 둠비가 첨 다 글다글 뒈주게. 경허민 이제 둠비포 헤근엥에 영 심엉덜 싸근에 지둘르민 거 둠비 뒈는 거. 둠비도 많이 헤 봔, 나.

수에

@1 수에는, 수에는?
#1 수에도 둠을 땐 ᄄᆞ로 그 도세기 잡아난 그 무시것덜 허고 막 ᄏᆞᆯ이 시쳐. 경허연 수에도 담아.
@1 수에 담는 거 무신거에 담는 거꽈, 그거는?
#1 ᄀᆞ루. ᄆᆞ물ᄀᆞ루 서껑.
@1 ᄆᆞ물 ᄀᆞ루영 무신거 놔?
#1 그 도세기 피 놩게.
@1 도세기 피 놓고 그다음?
#1 그것에 서꺼.
@1 그것만 놔?
#1 것에 하간 양념도 놤주.
@1 양념도 놓고.
#1 경헤영 서꺼근엥 허영 수에 담는 사람도 또 ᄄᆞ로 헤영 잘 둠는 사름은 거 터지지 아녀게 잘 헤야 뒈, 것도. 겡 숢앙 이제 먹어 봥 이제 근 맞앗저, 아이 맞앗저 허멍덜 막 먹주게. 모다들엉 허영. 잔치 돌아오민 수에 둠는 디 강 앚앙덜 막 먹곡. 경 허멍 잔치를 멧 번 헤연덜.
@1 다른 배설들도 막 숢으고?
#1 그것들도 숢앙 먹고.

@1 무신 배설 숣읍니까?

#1 그 수에 못 둠는 거?

@1 뭐, 뭐라?

#1 건 준 배설이엔 헹게. 난 안 먹어.

@1 아, 건 준 배설이엔 굴읍니까? 수에 못 담는 거는?

#1 응. 큰 배설은 수에 둠곡. 그추룩 허멍. 큰일 때도 내리 그 수엘 담앗주. 게영 반에 수에 놓곡, 둠비 놓곡. 그땐 반 텝지 안 헤서게, 흔 반 두 반. 경헤영 수에 놓곡 둠비 놓곡 궤기 놓곡 경헤연 반 놀 때민 그추룩 헨 멕엿주게. 그추룩 헨 내리 멕연. 수에도게 잘 뒈민 이제 것도 잘 뒈사. 경헨덜 먹곡 수에 담앙 이제 집이도 앗앙 강덜 먹곡 그추룩도 허멍 허곡. 날 역버령 왕덜 허여긴에. 경허멍 헌디 선흘은 첨 하도 경 좋앙 다 모다들엉 헤 줘. 이번 하르방 돌아간 때도 가위일동 흔 사름도 아이 떨어젼 다 간. 다 간, 다 간. 장례식장에 다 가왓어. 선흘 참말로 존 세계. 경헨 첨. 저물앙덜 날 역버려주고, 경허멍. 나 잔치 ᄋᆞ섯 번 헤도 잘도 고마워. 막 헤 줜.

결혼 전 금기사항

@1 혹시 몇 달 잇다근에 잔치헐 거여 허민 신랑 신부는 무신거 허지 말라 허는 거 잇수과?

#1 아니, 무시거 허지 말렌, 무시걸 허여.

@1 그 어디도 가지 말곡게. 상 난디, 장밧디도 가지 말고.

#1 그런 디는 흔 열흘이나 잔치가 ᄇᆞ뎌 와. 경허민 그런 딘 이녁 친척집이라도 ᄒᆞ꼼 정성허영 가지 말렌도 허는 사람 잇주마는 그런 것도 이젠 엇고게. 또 집이 그때 겐 시어 부난 헷주마는게 장례식장에 간디 무신 간 만남서?

@1 장례식장 가는 건 상관엇어?

#1 이젠 상관없고. 그것도. 옛날엔 것도 정성허연. 신랑 신부. 정성헤낫주게. 거난 후에 사름이 살아야 헐 거니까. 것도 존 거라. 어른덜이 법을 잘 냇수게게, 겨난. 경헨 첨 시대가 이젠 묽아져 가고, 머리 좋은 사름덜이 나 가난 이추룩 살기가 좋게 멘들고 허는 거.

청첩장

@1 청첩장도 만들어낫수과?

#1 청첩장 허여근엥에 저 먼 디 태웁고, 저 이제 요제ᄀᆞ치 전화 엇어 부난 청첩장 헨 테웁주게. 잔치허는 디우다 허연. 거 써근엥에 봉투에 담앙 경 헨 아져 갈 때도 있고, 경 아녀민 다 소문 들엉덜 오곡게.

@1 삼춘네 똘 헐 때는 청첩장 헤나수과, 큰똘 헐 때?

#1 그때ᄁᆞ장 안 헨.

@1 그때ᄁᆞ장도 안 헨. 삼춘네 헐 때는 안 헷고예. 청첩장.

#1 에, 당초 안 허고.

@1 당초 안 허고.

#1 그때도 시에나 이 먼 디 권당덜 신 사름덜은 허고게. 건 이녁 가정에 따랑 청첩장 보낼 디 보내야 뒈주게. 우편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청첩장은 경헨 허는 거주. 이젠게 하간 동창덜도 많고 이제 첨 허난에 청첩장도 영 몬 테웁고 법이 달라젼 경헴수게게. 이젠 아주 첨. 시대가 뭐 뭐 멧 번을 달라졈서. 우리 시대로부터 뭐 달라진 게 멧 번이주.

@1 막 옛날에 삼춘이 청첩장 받고 이런 건 엇수과? 누게 결혼헴수다 이레 옵서 영 헹은에 받은 건 언제 받아진 거 닮으꽈?

#1 그 우리 흔엇이 아이 받아 봣어.

@1 안 받아 봔. 혹시 결혼허기로 헷당에, 안 허켄 헹은에 설러 부는 경우도 잇어나신가?

#1 그런 사람도 잇일 테주마는 난 거 몰라.

@1 주변에서 삼춘 주변에선 안 봐 봔?

#1 안 봐 봔.

@1 친척이나 누게 그런 사람 엇어난?

약혼식

@1 약혼식도 헤나신가, 옛날에?

#1 약혼식은 저 잔치가 ᄒᆞ꼼 뭐 허나 어떵 허면 약혼식 헷당 허곡 또 ᄇᆞ딘 디 영 자게 헐 땐 약혼식도 안 혀고.

@1 삼춘은 약혼식 헨?

#1 에, 에. 우리 시절에 그거 험이랑 말앙.

@1 삼춘네 똘 풀 땐 헹 헷수과?

#1 안 헤연.

@1 그때도 안 허연.

#1 우리도 잔치 택일 막 재기 나 부난 그냥 헤연. 똘 풀 때도 안 헤 봔.

@1 똘 풀 때도 안 허고. 큰아들 풀 땐?

#1 큰아들 풀 때도 약혼 잔치 아녀고 사돈칩인 가 왓주. 어느 날 헐 걸로 헨. 저 권당 어른 둘고 새서방 이영 아버지영 가 오고. 우리 메누리 펭대라.

@1 아, 평대.

#1 응. 큰메누리. 또 저 셋메누린 저 거시기 신제주.

@1 신제주.

#1 신성부락 그디ᄀᆞ라 무신 부락이엔. 오일장드레 가는 디 알 쪽에.

@1 신성마을 맞은 거 닮은디.

#1 그디 아이 셋메누리. 그디 우리 셋아덜 동창 잇이난 어떵헤연 소개헨에 알안 셋메누리 허고 족은 메누린 시의 아이고. 메누리 서이라도 막 좋주게. 메누리덜이 잘도 좋아 우리 메누리.

가문잔치

@1 가문잔칫날이라예. 아까 저 뭐 다 헷지예. 도세기 잡앗지예. 그믄 이제 그다음날은 가문잔치 아니?

#1 그날은 방상덜 모영 먹어.

@1 방상덜 모영? 무신거 반찬 헤 줘?

#1 밥 허영 먹곡 궤기 먹곡게.

@1 밥 허고 궤기 먹고. 국은?

#1 국도 도세기 궤기국 끓영게.

@1 무신 국 끓여?

#1 아이고 몸국 끓령 막 동네에 놀르곡 난리주게. 그때도.

@1 아, 몸국 끓령.

#1 큰 말치에서 몸국을 막 끓려. 경헹 오랑 먹곡덜 이제 동네에도 놀르곡 그런 시절도 셔나고 헤수다게.

@1 국은 몸국 허고. 그믄 아까 그 저 궤기영 수에영 헌 것도 다 그날 주곡예. 가문잔칫날예.

#1 가문잔칫날도 많이 먹주. 경 먹을 거 잔칫날 먹을 거 다 챙경덜 놔 두고. 우린 경헨 헉생덜 헤 불민 우린 몰라. 문 오랑 헤 줘 부난. 그치룩 조근조근 잘 헹 놧다근에. 잔치거튼 땐 저디 궤긴 데미난에 이디서 화투 치멍 궤기 다 앗다당덜 이녁냥으로 먹곡덜 허멍 술도 잔칫날 먹을 거 사당 놔두민 먹어 불곡, 궤기도 앗당 먹엇젠 지네 먹어 놩덜 막 곧아. 경헤도 먹어도 어떵게. 경헹도 헤나고. 저디 밧거리에 궤기 숣아근엥에 잔칫날 먹젱 다 헤 노민 경 화투들덜 치멍 밤이도 가문잔칫날 밤이.

@1 가문잔칫날 다 먹어 불어?

#1 밤이도 앗다당덜 먹주게. 젊은 청년들 모여 둥.

@1 예. 맞아.

#1 경도 헤영 허곡. 그때가 살기 좋은 때. 잔치도 재미나게 허고.

@1 예. 게믄 가문잔칫날 신랑 집이영 신부 집이영 각자 손님을 받을 거 아니꽈예. 그믄 그날 밤에 신랑 집이서 신부집이 가? 신랑이 신부네 집이 가?

#1 그 흔 ᄀᆞ리는 그 신랑이 아시날 저녁 꼭 왓다 가는 시대가 또 셔낫어. 우리 큰똘 풀 때부터. 겐 그 시에서도 오랏당 간게.

@1 와근에 무신거 헤?

#1 무시거 헤여, 오랑 인사허영 기자 낼 잘 오쿠덴 기자 헤 둥 가는 거주. 거뿐.

@1 도감비도 줘야 뒌덴 헤나신디.

#1 도감은게, 궤기 썰고 저 도감 마탕.

@1 거난 그 사람한테 신랑이 잘 부탁헴수다 헹 돈도 드리고 안 헤?

#1 그건 돈 주고픈 사름은, 무시거 저 잔치에 이제 수고헤수덴.

@1 예. 수고헴수덴 헤근에.

#1 그 신랑이 오랑 가멍 이걸로 무시것덜 사당 먹읍서 영 허영 드리는 사람은 허고 것도 아이 주민 말곡 뭐 경헷주 뭐. 그걸 꼭 법적으로 주는 거 아니.

@1 맞아.

#1 거 신랑이 오랑 가멍 이거 무시것덜 상 먹읍서, 영 돈 드리는 사름은 드리고 또 매말짜에라 가난 양말 사단 흔 베썩, 이 부름씨 헌 사름 도감소에 흔 베썩 드리고. 그추룩도 허는 시대도 셔나고. 시기 시기 때때로 경헤수다. 뒈는양게, 것도 법이 아니고. 이녁이 섭섭허면 속앗수덴 허영 새각시도 돈 이거 새각시 내놔수다, 새서방 내놔수다 영 헤영 그 양말도 사당 테와 드리곡, 또 돈도 이제 신랑 오랑 가멍 뭐 상덜 먹읍서, 수고헴수다 영 인ᄉᆞ헤 둥 가고. 경 헤수게게 경. 집에서 잔치헐 때 느량 경 헤수다.

답례

@1 거난 집에서 잔치헐 때 일헌 사람들한테 무신거 태우고 허는 거는 신랑, 신부만 태우는 거꽈, 어멍, 아방도 태우는 거꽈?

#1 우리도 안 태와도 뒈고. 우리도 도감 헤영 날 역버리면 그때 시절엔 쏠도 귀허곡 허면 생각허영 이제 밥도 저 어둑엉 가 불어도 밥 허영 낭푼으로 ᄒᆞ나 거리곡 궤기도 많이 놓곡 허영 갖다 드리곡, 동네에서 헤 주면. 경도 허고 ᄯᅳᄅᆞ 너미 섭섭허면 또 쏠도 아졍 가.

@1 그 가졍 가는 건 무신거엔 곧는 말 잇수과?

#1 아니. 아니 곧아. 아졍 강 이거 수고허여 부난 이거 아져 왓수다, 영헹 안네주. 그추룩 헷주게. 경 공을 갚아 불어야 ᄆᆞ음 놓고, 그추룩 헷수다게.

@1 공정은 무신거꽈, 공정?

#1 공정은 저.

@1 장밧디 허는 것만인가?

#1 그 소상 ᄀᆞ튼 거 헐 때, 이때 산터 집이 공정 설러 가고, 또 도감소에 공정 설러강 떡을 이제 차롱에 침떡 요추룩 침떡 궤면 차롱에다가 영헹 침떡 흔 도리, 이젠 곤떡 흔 도리, 그 덕엔 물떡, 세미떡, 떡도 ᄋᆞ라 가지라. 셍펜 경허민 쭐쭈러니 차롱에 흔 도리썩 놩 공정 설름으로. 경 헤영 다 아져 가곡.

@1 그건 거난 장밧디서 소상 날 때만 공정이엔 곧읍니까?

#1 어.

@1 잔칫날 허는 건 공정 아니?

#1 잔칫날은 아녀고. 잔칫날은 이녁 ᄆᆞ음으로 그축 헤영 쏠을 앗아가던지 이제 그 잔칫날도 저녁도 안 먹엉 가민 밥 허영 ᄌᆞ끗딘 거려 가곡. 그추룩 헤영 공 가프곡게. 수고헷수덴. 경 헷수게게. 경 허멍 정 허멍 큰일을 첨 멧 번 나도 멧 번 나도 헤여도 첨 잔치 ᄋᆞ섯 번 헤도 말썽 ᄒᆞ나 엇이 나도 넹기고 다 헷수다게. 여기에 또 친정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간 허고 난 또 시하르바님도 돌안 살단 돌아간 잘 허고 다 헷수다. ᄒᆞ나 말썽 엇이 이때도록 넴겻주게.

문전제

@1 게믄 이제 멩질날 아니, 멩질이엔 자꾸. 잔칫날 아침이라예. 새벡이. 새벡 뒈믄 신랑 집이선 먼저

무신거 헙니까?

#1 신랑집이서? 신랑집이서 무시거 허여. 이녁 집이 차례 허주. 아침이.

@1 아침이. 거믄 문전제로 허는 거라 어떵 본상 출령 허는 거라?

#1 문전제도 허곡 문전제도 허곡 차례, 이 초상덜 나시, 차례.

@1 초상덜 나시 차례도 헤? 문전만 하는 게 아니고?

#1 응. 문전상 몬여 출령 올리곡 차롄 초상들 나시게. 메 허여근에 다 올려. 차례 험으로. 아척 새벡이.

@1 거난 새벡이예.

#1 잔치마다.

@1 잔치허젠 허민.

#1 잔칫날 아척 새벽이.

@1 아침 새벽이.

#1 차례 헴젠 허영. 겡 다 허곡.

@1 그디 상에 무신거 올리는 거꽈?

#1 무시거 허여 잔치허젠 출린 거, 궤기여, 과일이여.

@1 아, 다 올리는구나.

#1 응. 메 허영 올리고. 차례 허듯이 과일도 사 와사 뒈곡 경헤연, 경헹 헷수게.

@1 그거 끝나민 그다음엔?

#1 그다음엔 기자 손님덜 오민 밥 먹곡 뭐 막 이제 잔치를 헐 거주.

우시

@1 아니, 신랑이 신부 둘레 가야지.

#1 아, 겨난 신랑 오면 새서방 나시 막 상 출리고 우시가 가주게.

@1 우시는 누게 누게 가는 거꽈?

#1 새서방 칩이서 둘이 오나, 여자 우시 아이 뎅기단 ᄒᆞ꼼 중간 뒈사 여자 우시 ᄒᆞ나 오기 시작허연 여자 ᄒᆞ나 와. 남자 둘 허고. 경 허영 오곡. 이디서도 경 헤영 가곡 그추룩 헷어.

@1 그믄 신랑집이 먼저예. 신랑집이서 아침이 신부 둘레 가젠 허민 신랑하고 아방도 가?

#1 아방 신 땐 아방도.

@1 아방도 가고.

#1 아방 아이 가는 어른은 그냥 우시만 보내여.

@1 우시는 두 명만, 남자 어른 두 명만 가?

#1 어. 겨곡 ᄒᆞ나 여자 와.

@1 여자 한 명 나중에야 추가 뒌 거고. 요 남자는 누게가 가는 거꽈?

#1 그디서 권당게. ᄇᆞ딘 친촉.

@1 ᄇᆞ딘 권당. 뭐 혹시 어머니 쪽 외가 쪽 한 명, 성가 쪽 한 명 영 헙니까?

#1 응. 경 헹 가.

홍세

@1 경 헤근에 무신거 들렁 가지예?

#1 건 홍세 아졍 갈 때.

@1 홍세 아졍 갈 때 거난 옛날에.

#1 새서방 칩이서.

@1 어. 새서방 칩이서.

#1 홍세 아졍 오민 홍세 받을 땐 이제 이 새각시 칩이서가 높은 이제 ᄒᆞ끔 잘 사는 어른으로 홍세 받을 때 영헹 앗앙오민 홍세 받앙 영 놓곡 경 허주게. 그 옛날은 홍세함에엔 허영 하꼬 요만한 것에 미녕 두 필 그디 놓곡. 중간에라 가난에 돈도 놓는 사람은 돈도 놩 오곡 겅 헷수다게. 그 전인 미녕 두 필.

@1 미녕 두 필만 놔, 다른 건 안 놔?

#1 안 놔.

@1 딱 미녕 두 필만?

#1 그것만 헤영 홍세에 담아. 경헹 앗앙오주게. 경허민 이제 그 새서방 들어오민 저디 새서방은 사곡 홍세 이제 들렁온 사람이 잇어, 그디 우시 온 사람. 경허민 마트곡. 경 헷수게. 잔치헐 때. 경헨 우린 다 그 홍세 아젼 오난 다 받앗주, 똘 풀 때. 우리도 아들 풀 땐.

@1 아들 풀 때는 가졍 가고?

#1 우리가 아졍 가고. 경헨 헤수게. 그것이 잔치주 뭐, 무신.

@1 그믄 홍세함을 집이서 그거 들런에 신랑 집이라예, 이디예. 가졍 감서예. 큰아들 풀젠 허난예. 아니믄 삼춘네 헤근에 갈 때 요거 들렁 나가민 홍세함은 누게가 들렁 갈 거라? 신랑은 말 타고.

#1 신랑 갈 때 우시 가는 사람.

@1 우시 가는 사람이 이거 홍세는 들르는 거꽈?

#1 응. 권당, 권당.

@1 그믄 물은 누게가 잡앙 갈 거라? 물 이껑 갈 거라? 하인인가?

#1 물은 저 그 ᄉᆞ삼사건 전이는 함덕이나 먼 디 갈 때는 물을 탕 가주마는 동네서 우시는 물도 안 타고게.

새서방 입장

@1 신랑은?

#1 신랑만 물 탕 갓주.

@1 신랑 물은 누가 이끌 거꽈?

#1 하인.

@1 하인이.

#1 하인이 잇주, 그런 때. 이 잔치마다 뎅기는 하인 잇어. 우리 ᄆᆞ을에도 하인 살아낫주게. 경 잔치에 도 오랑 허곡 그런 부름씨도 다 허곡, 그런 시절도 잇어나고. ᄆᆞ을마다. 선흘만 헌 게 아니고.

@1 이젠 죽어 불엇수과? 그 집이?

#1 죽엇주. ᄉᆞ삼사건에 하인도 죽엇어. 경허고 ᄆᆞ을마다 그 법이 그런 때. 법이 그런 때가 넘엇다 이 말이주, 이것도. 뭐 다른 말이 아니우다게. ᄆᆞ을마다 그것도. 하인 오라근에 그 다 허곡 저 가메도 들러가곡 허는 하인이 잇주.

@1 신부집이 도착해서예. 게믄 신랑이 말 높아 부난 내릴 때 무신거 영 지펑, 밟앙 내릴 거 아니꽈?

#1 붋앙 ᄂᆞ릴 땐 옛날은 저 새서방 들어와 가민 절로 이레 ᄂᆞ람지가 잇어낫어. 새로 짠 거. ᄂᆞ람지를 쭉 허게 페왕 그 시절도 셔나고.

@1 그거 헐 때 말 ᄀᆞᆯ아 줍서.

#1 저 새서방 들어올 때민 ᄂᆞ람지를 영 이디서민 저만이 페와. 경헤영 새서방이 글로 걸어 오곡 걸어가곡 허곡. 또 이제 노프민 도구리, 엿날 낭도구리, 그거 어펑 새서방 쪼글락헌 사름은 지펑 올라가곡 ᄂᆞ릴 때도 허곡. 장옷 입주게, 새서방도. 관복이엥 헹 새서방 입는 옷도 잇어.

새서방옷

@1 어. 관복. 장옷 아니고 관복예. 그 관복도 빌리는 거예.

#1 빌리는 거. 아니, 가메에 거 ᄀᆞ치 부터 뎅겨.

@1 가메영 같이.

#1 신도 있잇.

@1 신도 있고. 무신 신이엔 ᄀᆞᆫ는 말은 어수과?

#1 몰라 그거 뭐 가죽신 닯아 붸어. 거 무신 신이엔사.

@1 머리에도 뭐 쓸 거 아니?

#1 머리에 사모관대 썻주게. 옛날.

@1 사모관대 쓰고예. 이디 배도 영 무신거 띠 같은 거.

#1 띠가 거 장옷에 ᄃᆞᆯ른 거 것도.

@1 것도. 남자 옷도 장옷이엔 헙니까, 관복 아니?

#1 관복이엥 헤여.

@1 관복이엔 헤여예.

#1 응. 새서방 입는 건 관복. 경 이제 사미관대엔 탕건이여 무신거 헤영 영 갓 닮은 거 영 씨는 거 잇주, 새서방 씨는 거. 그것에 그 관복에 ᄃᆞᆯ롸. 경 헤근엥 헤엿단 것도 어디사 가신디 뭐 이제 뭐.

예장 검사

@1 경헹 신랑 신부집이 왓어예. 경헹 그거 홍세함 열어 봥 아, 거기 예장 쓰네.

#1 예장도 보곡.

@1 예장 봥 못 썻저, 잘 썻저 헌덴 허멍마씨.

#1 응. 경도 허는 사람도 잇곡 군소리 안 형 ᄀᆞ만히 받는 사람은 ᄀᆞ만히 받아 불곡게. 그때사 군소리 허믄 어떵 헐 거라.

@1 삼춘, 다시 썽 오렌 헌덴 허멍마씨.

@2 고치렌. 고치렌.

@1 고치렌 헹 먹도 가졍 강은에 그디서 고친덴 경도 ᄀᆞᆫ던데.

#1 그건 어떵 잘못 뒌 사람덜이주 우린 그런 거 안 봐난. 그자 썽 와시민 썽 와신가 허연.

@1 경헹 이제 들어오라 헹 신랑이 들어왓어예. 그믄 신랑상을 받을 거 아니꽈, 옛날에예.

#1 새서방 들어올 땐 또 저 누게 궨당 사둠서라 영 들어오렌 영도 허영.

@1 거 누게꽈? 영 허는 사름.

#1 거 궨당. 궨당 청년. 새서방 들어올 때. 경도 허고 영 들어오렌도 허고. 그런 시절도 셔나고.

@1 겨난 경 헌 시절 말 물어보는 거지, 우리는. 들어완에 앉앗어예. 신랑상 받앙 신랑상. 신랑 혼자만 먹읍니까 우시들이영 ᄀᆞ치 먹읍니까?

#1 우시도 앚앙 먹곡 신랑, 신랑상은 ᄐᆞ로 허곡게.

@1 신랑상은 ᄐᆞ로 허곡.

#1 벗덜토 앚앙 먹곡 궨당도 앚앙 먹곡 경헷주.

새각시 단장

@1 경헌 다음에 그때 신부는 고팡에 곱앙 이십니까?

#1 무사 곱아?

@1 삼춘은 곱앙 잇어나수과? 안 곱앙 잇어나수과?

#1 곱곡 대곡 뭐 구들, 그때엔 구들 엇어 부난 고팡만 셔 부난 고팡에 간 헷주. 구들이 엇어사 고팡에 가주, 무시거 허레 고팡에 가. 이제 ᄀᆞ치 영 구들덜 ᄋᆞ라 개믄 구들 ᄒᆞ나 헤서 새각시 출렷주게. 화장허고 옷 입지고.

@1 삼춘 헐 때 생각헤 봅서. 삼춘은 어디 앚앙 화장헤수과?

#1 우리도 구들 시난 구들에 헷주, 고팡에 아이 가 봣어. 그때도 경허연 뭐 그거주 뭐. 옛날 집이 족은 집인 구들도 엇어. 고팡이나 감밲이. 경헤 부난 고팡에 간 헷주. 경도 허연.

@1 삼춘 옷 입을 거라예. 삼춘 그 새각시옷 입젠 허민 어떵 어떵 헹 출릴 거꽈?

#1 어떵 허여, 저.

@1 뭐 입어 옷은.

#1 어떵 허여. 저 속치메에 것치메에 치메 두 개에, 경헹 입엉 저고리 입어 놩 장옷 입엇주.

건지와 낭제

@1 장옷 입고. 머리는?

#1 머리는 우리 헐 땐 저 옛날은 건지 헐 때 막 힘들어낫어. 그 머리 허는 사름 잇어낫주. 다와근엥에.

@1 누게가 왕 헤 주는 거꽈, 그거는?

#1 그것도 빌어 와사 뒈어. 저 건지 헐 땐 이제 다왕 영 건지에 예끼곡. ᄄᆞ로 초담 ᄒᆞ꼼 셔 가난 낭제로 돌리니까 그 낭제 헌 머리도 족게 소곱에 낭제 허여 놩 크게 ᄄᆞ로 허영 큰 빈네 빈넷대 찔러. 그초룩 헌 시절도 셔나고.

@1 건진 이디 영 허는 거고 낭제는 뒤에 영 허는 거꽈?

#1 응.

@1 겅 헹 빈네 찌는 거꽈?

#1 응. 빈네 찔러. 경헐 때도 그 새각시 허는 빈네도 어디서 놧당 빌어당 헤어낫어. 그추룩 헹 큰 빈네가 잇어, 영. 또 ᄍᆞ끌락허게 낭제 소곱에 헤 놩, 쪼끌락 헌 거. 겅헹 우이 ᄄᆞ로 머리도 막 다와 돌뤼 빌어단. 겐 다와근에 그걸로 이제 우이 크게시리 낭제 허고.

@1 건지허고 돌뤼는 뭐가 다른 거꽈? 돌뤼는 어떤 게 돌뤼꽈?

#1 돌뤼, 머리 끄차근에 영 무끈 거.

@1 어. 그게 돌뤼고.

#1 돌뤼 그걸 이제 헤야 질게시리 다와 가.

@1 아, 경헹 영 돌리는 이건 건지고, 건지 머리고. 영 따근에 머리 잘라진 건 돌뤼고. 돌뤼로 헹 건지 만드는 거구나.

#1 어. 겡 그 돌뤼 노멍 질게 헤야 건지를 크게 헐 거난, 이녁 머리만은 족아 부난 경헹 그걸 놩 다와근엥이 이제 건질 허여. 겨고 낭제 또 시절도 돌아 오난 족은 거 이제 ᄒᆞ끔헌 거 이제 ᄍᆞ글락허게 낭제 허여 놩 또 크게 다운 거 크게 헤영 큰 빈네 찔러, 새각시. 경헹 장옷 입어. 그추룩 헨게.

@1 머리 벳겨져 불지 안허여?

#1 아니.

@1 거 어떵 영 고정허젠 허민 어떵 헙니까?

#1 겅허여근엥 이제 그 신랑 저 새각시가 만약에 강 상 받아 나민 ᄄᆞ로 하인이 잇어 그거 풀어 주는 사람. 머리도 풀엉 ᄐᆞ로 놩 아져 가야 그 돌뤼도 풀엉 또 빌어 온 사름은 그디 다 인계헤 드리고. 그런 시절 저런 시절 잇어낫수게.

@1 삼춘 건지 헐 때도 족두리 쓰는 거꽈?

#1 아니.

@1 건지 헐 땐 건지만.

#1 응. 낭제 헌 거.

@1 낭제 허멍 족두리 쓰는 거예.

#1 족두리도 나건 지 오래지 아녀난.

@1 삼춘은 족두리 헷수과, 건지 헷수과?

#1 우린 낭제 허연에 족두리.

@1 낭저 헨에 족두리 썬. 삼춘 옛날에 건지 헐 때는 이거 건지 풀어지지 안허게 어떵 영 무꺼낫덴 헨게 마는.

#1 무끄믄 저 거시기 그 덕엔 뎅기엥 허여근엥에 그 머리에다가 뎅기를 드려. 경헹 이제 질게 헤 가지고 영 틀어지지 안허게 영 잘 헤주게 건지를. 경 풀어지지 아녀게.

@1 이마에 영 무끄는 거 아니고?

#1 무끄는 건 이마 띠가 잇어. 거 비단으로 멘든 거. 영 헹 띰도 허고.

@1 아, 이렇게 건지 헤 놩 이마에 이렇게 띠를 메는예, 그거 잇던데 이망거린가 무신 건가.

#1 이망거리 허여근엥에 그것도 법단 헤당 멘들어야 뒈어. 영 이레 영 헹 졸라 무꺼.

@1 아, 그건 비단으로 헤 가지고 만드는 거.

#1 그것만도 풀아도나고. 경헌 시절도 잇어낫수다.

@1 이거 무신거엔 골읍니까, 띠는.

#1 머리띠.

@1 그냥 머리띠? 이망거리는 뭐라? 아까 이망거리가.

#1 이망거리엥도 허고 머리띠엥도 허고. 그렇게 헤난 거.

@1 아, 음. 그게 먼저 옛날에 헤난 거고 그다음엔 족두리 썻구나.

#1 그다음에 족두리 나완.

@1 그다음엔 멘사포 쓰고.

#1 어.

@1 삼춘은 족두리 썻구나예.

#1 응. 응. 우리 시절은 오래 우리 시대에는 족두리를 많이 쓰고. 또 건지 헐 땐 우리 친정어머니네 아주 엿날 고래 시절에.

@1 더 옛날.

#1 고래 시절에. 건지 헐 때 조선왕조 오백 년 때.

@2 그럼 그때 그 돌뤼는 마을에 겅 그거 가졍 이신 사름이 잇어나신가예.

#1 저 돌륀이,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를 풀아. 끊엉 풀며는 그 돌뤼를 꼽는 사람이 잇어, 사단. 경헹 빌려도 주곡 풂도 허고. 또 그때는이 이 저 ᄒᆞ꼼 높은 사름덜은 건지 뽄내게 허젱이, 그 돌뤼 사다근엥에 이녁 머리 족은 사름은 그 돌뤼에다가 이녁 머리에 영 ᄀᆞ찌 영, ᄀᆞ찌도 다와. 다왕 건지 허여.

@1 옛날도 붙임 머리 헷네.

#1 응. 경헹 건지 허여. 그 돌뤼 드려야. 머리 족으면. 그런 시절도 잇어나고 헷수다게. 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꺼꺼난.

@1 거난. 삼춘 나이니까 그런 거 알지.

#1 다 몰라. 당초 몰라.

@3 삼춘 어머니는 건지, 삼춘은 낭저, 큰똘은 멘사포.

#1 응, 큰똘은 멘사포.

@3 세 개 이렇게?

결혼식

@1 큰뚤은 어디서 예식장에서 헤수과, 집이서 잔치헤수과?
#1 이디서 새각시로 출련 간게.
@1 어디 간에 헤수과?
#1 시에 간.
@1 아, 시에 간.
#1 시에 가난.
@1 예식장?
#1 예식장 시에 가난. 이제 용담동 살암주게. 용담동.
@1 삼춘네는 그냥 마당에서 헷는데.
#1 그 저 방안에서 헤연 새각시 출련 나갓주게.
@1 새각시 다 출렷어예, 이제. 겡 새서방이 새각시 둘앙 나완예. 겐 이제 새서방 칩이 갈 거 아니, 예,
#1 가주게.
@1 그믄 그디서 무신거 허여? 마당에서 잔치?
#1 아니 그냥 예식장에 간에 헷주, 우리 큰뚤 풀게 뒈난.
@1 아니, 삼춘 헐 때.
#1 우리 헐 땐 그냥 구들에 들어가 불고 마당에서도 안 헤여.
@1 마당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헤?
#1 아이고, 사진이 어디 셔, 그때.
@1 뭐 절 허고 영 허는 것도 안 허고?
#1 절은 무신 절. 그냥 새각시 들어강 그냥.
@1 끝? 그냥 방에 들어가 불어, 바로?
#1 우리 하르방 동창허고 우리가 ᄀᆞ찌 헷주게, 둘이. 그딘 함덕, 함덕서 우린 허난에. 겡 그 사름은 똘 ᄒᆞ나 난디 여자 잘도 곤 사름. 군인 간에 가 불언. 똘 ᄒᆞ나 나고. 우리 막 하르방 오래오래 ᄀᆞᆯ아낫어. ᄀᆞ치 결혼허고 허연에.
@2 아, 먼저 가 불엇덴.
@1 군인 간, 국인 간.
@2 안타까왕 ᄀᆞᆯ앗구나.
#1 응. 동창, 동창. 그 한칩이 저 그 함덕 거 그 집 이젠 엇어졋어.
@3 함, 함, 함씨. 함씨들?
#1 함칩이 아니고 한씨, 한씨. 응. 한씨. 한씨네 집이 동창. 경헨에 똘 ᄒᆞ나도 막 고와. 각시도 잘도 고운 사름. 경헨 헷단에 경. 우리영 ᄒᆞ루에 잔치허연.

@1 ᄀᆞ튼 날? ᄀᆞ치 헌 건 아니고?
#1 ᄒᆞ루에 잔치헤연. ᄒᆞ루에.
@1 ᄒᆞ루에 어떵 잔치헌 거꽈, ᄀᆞ치?
#1 그, 그디도 잔치허고 우리도 허고.
@1 ᄀᆞ튼 날, 응.
#1 경헤낫주게.

새각시상

@1 새각시가 들어왓어예. 방에예. 그믄 그다음 새각시상 출려 줄 거 아니꽈예. 삼춘 새각시 밥 먹어난 거 생각남수과? 상 받은 거?
#1 생각나지, 아이 나?
@1 어떵 헤낫수과? 삼춘이 결혼헐 때. 어떤 상 출령 와십디가?
#1 새각시 상은 그때 잘 출려주렌 헹.
@1 뭐 출려, 뭐 올라왓수과?
#1 뭐 무시거 뭐 궤기 놓고 밥 놓고 다 헷주, 무시거.
@1 궤기 놓고 밥 놓고 또?
#1 게, 하간 둠비여 무시거 거 출린 거. 출린 거 상에.
@1 특별한 거 뭐 엇어? 특별한 거, 독?
#1 아, 그런 거 안 허고.
@1 독세기?
#1 응. 계란은 주로 허고게.
@1 계란은 주로 허고.
#1 새서방 상에도 계란 두 개 올리고. 그 시절에 놀 거 엇이난. ᄯᅳ로 그 반상귀옌 허영 새각시 상 새서방 상 출리는 그릇이 잇어. 반상귀. 경허민 그 그릇에 채소 놓는 거 이제 계란 놓는 거 궤기 놓는 거 그릇이 ᄋᆞ라 개 잇주게. 국사발, 밥사발. 겐 반상귀는 이제 어디 젯그릇에 ᄀᆞ치 어디 머쳐. 그걸. 게 당 잔치허민 강 가져 와. 반상귀 그것ᄀᆞ라, 반상귀.
@1 아, 그거에 헹은에 새각시상 출려 주는 거구나.
#1 응. 새서방 상도 그걸로 허고. 반상귀엔 헹 그디 셔.
@2 놋그릇마씨?
#1 아니. 저 놋그릇 허단 이젠 그 저 이모노로 돌련.
@2 이모노로 돌련예. 그믄 그 반상기도 마을에서 ᄀᆞ치 관리허는 거꽈?
#1 응. 관리허여. 관리허여. 것도 아무디나 아니 놔.
@2 게난 반찬도 다, 밥그릇 국그릇 영 따로 잇고 족은 그릇들 다 영 잇입디다예.
#1 응. 다 잇어. 영 보시. 보시만썩 헌 거.

@2 다 ᄯᅮ로 ᄯᅮ로 ᄯᅮ로 담을 걸로 헹예.

#1 다. 둠비 놓는 거, 됵세기 놓는 거, 그릇이 다 ᄋᆞ라 개라, 것도. 경헹 출령. 새서방 상, 새각시 상 출리는 거 반상귀. 그디 반상귀라고 쓰민 뒈주게. 이제 우리 시댄 허민 것도 이름도 잊어 불고 아무것도 엇어.

@1 맞아. 맞아.

@2 게난 삼춘 반상기렌 허는 건 새각시 반상기영 새시방 반상기영 그냥 똑 ᄀᆞ튼 거지예?

#1 ᄀᆞ타.

@2 게난 새각시용으로도 쓰고 새서방용으로도 쓰고예.

#1 응. 응. 경헤연.

@1 새각시 밥 먹은 말 ᄀᆞᆯ아 줍서게.

#1 무시거엔?

@1 밥 한 숟가락은 먹읍디가? 세 숟가락 먹어야 뒌덴 헤신가?

#1 몰라. 어떵사 헤신지. 먹어져신지 어떵사 헤신지.

@1 그 무슨 또 가지껭이 거려근에 뭐 상 알러레도 영 논덴 허멍마씨? 건 아니?

#1 것도 옛날식이주.

@1 거난 옛날식 삼춘 결혼헐 땐 그런 거 헤낫수과?

#1 안 헤연.

@1 건 안 허연?

#1 응. 우리 시대 나난 그런 거 엇언.

@1 게믄 밥 한 숟가락씩 아이들 나눠 주는 건 헤실 거 아니?

#1 그것도 아녀고 우리 보단 우이, ᄉᆞ삼사건 전이. 우리가 어린 때 이제 새각시 보젠 무뚱에 강 막 올락돌락 사민 그 하인이 잇어, 또 하인. 그 하인 들어가 가지고 그 새각시 밥을 ᄋᆞᆯ아 가지고 숟가락으로 ᄒᆞ나썩 아이들 테와 주민 손으로 마탕 먹어.

@1 응. 거난.

#1 그거 봐낫어.

@1 삼춘 그거 마탕 먹어나기만 헨?

#1 그거밖엔 안 봐난. 그루젠 ᄉᆞ삼사건 나 불고 것도 엇어지곡. 그 어른덜토 다 돌아가 벳어.

@1 삼춘 새각시 밥 먹젠 영 앉으민 사람들 막 새각시 보젠 무뚱에 막 사실 거 아니꽈?

#1 아이고 사곡 말곡 난리주게.

@1 게난. 아이고 새각시가 키가 ᄒᆞ꼼 족다 영 허멍예.

#1 곱다, 궂다 뭐 뭐 난리주게.

@1 새각시 밥 다 먹언. 그다음엔 옷 갈아입어야 뒐 거 아니우꽈예. 장옷 벗고.

#1 장옷 벗어 불고. 상 받아나민. 장옷 벗어 불곡.

@1 한복도 갈아입어? 다른 걸로?

#1 다른 건 저 우리가 입엉 갓지. 가면은 그 시집이서 옷을 허엿주. 새각시옷을. 경허민 사름마다 그 이녁 옷은 입엉 강 벗어 뒁 시집이서 헤 준 옷 입어. 경 헤난. 그런 시절.

폐백

@1 시집이서 헤 준 옷 입언예. 그다음엔? 그다음 뭐 헤?

#1 그다음 무시거 허여게. 이제 그다음엔 잔치 넘으민게 오랏다 갓다 허멍게.

@1 절.

#1 아, 절은 이제.

@1 어른들한테 절 안 헤?

#1 그때 시절엔 우린 절 허렌 안 헨게.

@1 뭐 폐백 이런 거.

#1 폐백은게 그 홍세게. 그것이 폐백이주. 홍세함에 논 거ᄀᆞ라 폐백이라.

@1 삼춘네가 그 시댁 어른들한테 절 허고 영 허는 거 안 허는구나.

#1 안 허여. 잔치 넘엉 이제 어멍 아방신디 절 허곡 시어멍 시아방신디 절 허곡 경 허엿주게.

@1 족은아방, 족은아방한테는?

#1 그때도 저 권당들 모이민 인ᄉᆞ허고게.

@1 거난 그 인ᄉᆞ허는 거는 그날 안 허는 거꽈?

#1 안 헤여. 안 헤여.

@1 아, 잔칫날 안 헤여.

#1 그날은 이제 시어망 시아바지신디 절 허렝 허민 절 허고. 새서방도 오랑은에 체얌이난 절 허고. 경 허주. 것도 옛날식이주 이제 경 헴서게.

@1 거난 옛날식이 궁금헌 거지. 우리는.

#1 게메.

@1 옛날에 어떵 헤나신고.

#1 경 헨덜.

사둔열맹

@1 사둔열맹은 어떵 허는 거꽈?

#1 사둔열맹은이 잔치 넘엉 저 뒷날 가는 사름, 뒷날 저 새서방 칩이서가 새각시 칩이 가. 경헌 다음은 또 새각시 칩이서가 또 새서방 칩이 가. 경 허영 사흘 걸려. 이제 잔칫날 ᄒᆞ루, 사돈열맹 이틀, 경 허젱 허민, 새각시 칩이 가고 새서방 칩이 가곡 허젠 허민 삼일 걸려, 삼일. 경허당 이제 말쩨에라 가난 ᄒᆞ루에 헤영게.

@1 아무것도 안 헹 ᄒᆞ루에 다 끝내 불어?

#1 새서방 칩이 강 온 때 또 새각시 칩이도 가곡.

@1 아, ᄀᆞ튼 날?

#1 ᄀᆞ튼 날. ᄒᆞ루에 두 집 뎅견 또 설러 불고. 경허단 끝나 불언. 겨당 그것도 없어지고. 경 헷수다게. 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봔.

@1 삼춘네 헐 땐 어떵 헤나고 큰똘네 헐 땐 어떵 헤나신지, 똑같아?

#1 아니, 우리 큰똘네 헐 때ᄁᆞ장은 뒷날 새서방 칩이서 새각시 칩이 와낫주. 경허단 그루젠 설러 불언. 우리 큰똘 풀 때도 옛날.

@1 게난예.

#1 응. 그때ᄁᆞ장은. 예를 지켠. 허단 그루젠 설러 불언, 것도.

갗인상

@1 신랑상 신부상을 갗인상이엔 골읍니까?

#1 응.

@1 무사 갗인상이엔 허는 거?

#1 잘 출리난게.

@1 아, 잘 출리난.

#1 모든 걸, 먹을 걸 다 놓안 출리난 갗인상 출렷젱. 무시거 잘 출리민 아, 이거 갗인상이로구나 영 허고. 중간에도 반찬, 밥 하영 잘 출리면 이거 갗인상 출렷구나게. 경 골아낫주게. 별다른 거 아니우다게. 그추룩. 그 새서방 새각시 헐 때도 이제 우시상, 새서방 상 ᄯᆞᄅᆞ 출리주게, 경허여.

가마와 뛔게

@1 삼춘 신랑 칩이 올 때 가마 탕 왓잖아마씨. 가마 탈 땐 어떵 헤? 안 무서워?

#1 무섭긴 뭘. 가마 타민 들러 아졍.

@1 거난 그게 가마가 네 사름이 들르는 거꽈, 두 사름이 들르는 거꽈?

#1 네 사름.

@1 하나씩예.

#1 응. ᄒᆞ나 이 ᄒᆞᆫ 착썩 들러.

@1 ᄒᆞᆫ 착썩 들르민예.

#1 너이, 너이. 경허곡 또 먼 디 가는 딘이 바꽈. ᄒᆞᆫ 사름만 버쳥 못 가. 이디서 함덕을 가젱 허면 그 하인이 또 가야 뒈어. 경허믄 하인 품도 만허여. 그건 신랑 칩이서가 물어. 그 하인 값.

@1 하인 값. 삼춘 여기 앉아신디 가메 여기 왓어예. 신부 가메 탑서, 새각시 가메 타라 영 허민 가메 가근에 앞으로 타는 거꽈, 옆으로 타는 거꽈?

#1 앞으로 영 올라가, 앞으로 저레 돌아앚앙 가사게.

@1 겡 딱 탓어예. 그믄 그 옆이 무신거 놔, 가마 안에?

#1 아무것도 아이 놔.

@1 요강 이런 거 안 놔?

#1 아니, 거 요강 건 그런 건 ᄯᆞ로 짐 시꺼 가 불엇주게, 그거.

@1 아, 미리 시꺼 가?

#1 미릿을 가나 그날을 가나.

@1 이불은?

#1 이불이영 다.

@1 그믄 새각시만 앉을 거라?

#1 응.

@1 그디 무신 자부동 같은 거라도 안 끌아 줘?

#1 무사 엇어, 자부동 다 잇주.

@1 아, 자부동 깔아 줘.

#1 소곱에? 잇어, 잇어.

@1 겡 탕은에 앉으민.

#1 게민 들러 갓주게. 들러 가민 집이 가민 ᄂᆞ령, 그디 가민 ᄂᆞ령.

@1 영 열어 주는 사람도 잇어? 문 열어 주고?

#1 잇어.

@1 삼춘 이거 뛔께엔 헌 말은 무신거꽈?

#1 뛔께가 그게 그거.

@1 똑ᄀᆞ튼 거?

#1 응. 가마 허고 뛔께는이 가마 ᄀᆞ추룩 안 헨에 조그만 허게시리 그 가마보단 족아, 뛔께.

@1 아, 뛔께는 ᄒᆞ끔 족아.

#1 응. 엿날 그것은 가마엔 막 니 귀에 막 실, 수지 둘린 거 막 둘고 가마. 그추룩 헌디 그 뛔께는 아예 저 족은 거 기계ᄀᆞ추룩. 말짜에 난 거 그거, 뛔께.

@1 뛔께가 말짜 난 거, 가메가 말짜 난 거?

#1 뛔께가 말짜에 난.

@1 뛔께가 말짜 난 거. 삼춘, 멀리 갈 때는 사름이 안 들르고 물에 시껏덴 헨게마는 뛔께를.

#1 목에?

@1 응. 말, 말. 말 두 개 헤근에.

#1 몰라, 건 난. 물에 경 두 개 탄 거 안 봐난디.

@1 겅헹 안 봐난예.

#1 뛔께 물에 시끈 거 안 봐낫어.

@1 멀리 갈 때는 뛔께를 말 두 개 헤근에 앞뒤로 헤근에 뛔께를 헤근에.

#1 건 어디 육지주. 제주도엔 그런 거 엇어난디. 어디 육지주 그건.

@1 알앗수다.

#1 이 저 가마는 이 제주도에. 제주도에 헤난 거.
@1 삼춘은 가메 탕 시집와신디 똘 시집갈 땐 무신거 탕 가수과?
#1 차 그땐.
@1 어떤 차?
#1 그때 자가용덜 오란 시껑 갓주, 뭐.
@1 자가용이 날 때꽈? 트럭 아니고?
#1 아니, 아니. 자가용 난 때주.
@1 택시 빌린 건 아니고?
#1 아니. 자가용덜 탄 완 다 갓주. 우시덜토 자가용 다 태왕 가고. 차가 그 새서방칩이서 여러 개 와. 이디 저 손님들 시끄곡 헹 가주.

미용사

@1 새각시 머리만 허여? 화장은 안 헤?
#1 무사 안 헤여게, 화장.
@1 화장 어떵 헹 헤수과? 삼출 헐 땐. 화장품도 엇인디.
#1 화장허는 사람 잇주, 무사 엇어.
@1 화장허는 사람 잇어나수과, 삼춘네 때도?
#1 응.
@1 어디 함덕 사름이꽈, 그 사름은? 어디서 빌엉 왓수과?
#1 동네서도 허여 주곡, 또 거 화장 허레 뎅이는 사람 잇엉 그 사름 빌엉 오곡 경 헷어.
@2 아들 감수다.
#1 가도 뒈어. 저 농협에 감주, 이제. 저 농협에 저거 시꺼 갈 거.
@1 혹시 그 화장 헤난 사름이나 지금 살아 이신 사람 엇인가마씨? 머리 헤난 사람.
#1 머리 허여난 사람 ᄒᆞ나 셔.
@1 누게, 어디 이수과?
#1 함덕.
@1 함덕에. 그 사름은 몇 살이나 난 사람이라?
#1 그 사름 우리 똘 헐 때 오라난디 이제 ᄒᆞᆫ 팔십 넘어실 걸.
@1 혹시 일름이 누겐지 아니믄 무신 미용실인지 뭐 이런 거 이수과?
#1 그디 미용실 허난 무신 미용실 알아지크라? 함덕 신장로 바우에 그디 그 집 잇어. 이제. 냄편은 돌아가건 디 오래고.
@1 이 사름 이름 몰르겟고?
#1 몰라, 몰라. 이름 무시것산디.
@2 지금도 미용실이 잇어마씨?

#1 엇어, 이젠 설러 불언.
@1 이젠 설러 불언.
#1 응. 그때 설렷주. 경헌디 그 냄편 이름 나 막 웨완 뎅이당 이젠 잊어불어 져신게.
@1 누게네 집, 이거 누게네, 누게네 어멍 이런 거 엇수과, 누게네 집이여 영헌 말?
#1 아, 게메. 그 냄편 이름은 나가 잘 알아난디 그만 잊어불어 졋어. 여자 이름은 모르고. 저 그 냄편은 우리 어머니네 하고 막 친구 아덜이라. 경헨에 이제 미용사로 이제 그 사람 빌어 오렌 헹 우리도 우리 큰똘 헐 때 그 사름 빌어와낫어. 완 화장도 허고 하간거. 경헤낫주.
@3 삼춘 헐 때는 미용사렌은 안 헤낫잖아예. 이건 똘 할 때고 삼춘이 화장허고 머리 헐 때는.
#1 아이고, 그때는 미용사 엇어낫어. 미용사 이제 시에나 잇주이, 함덕으로 이 선흘러레 엇어낫어. 미용사가 엇어난.
@1 게믄 누게가 왕 화장 헤 준 거라? 삼춘은?
#1 저 영 거시기, 거기서 그냥 친촉덜. 젊은 사람덜 허여 주고.
@1 무신거 불라, 얼굴에?
#1 얼굴에 무시거 불라? 이제 분도 불르고 구루무 불르고. 그때 구루무. 그거 일본말로 구루무라. 그거가 대중 썻주 대중.
@1 뭐 여기 붙이기도 헤? 연지 곤지.
#1 그런 것도 아녀고. 그런 것도 아녀고.

대반

@1 대반은 어떵 헌 사람이꽈?
#1 아, 대반은 이제 새각시 칩이 나이도 하곡 ᄒᆞ꼼 복 좋게 사는 어른을 대반 앚져.
@1 아무나 허는 거 아니구나.
#1 아무나 허는 거 아니, 것도. 대반상 거. ᄯᅳ로 갖인상 출령 그 대반상도 출령 안내고.
@1 아, 대반상도 갖인상이꽈?
#1 어. 대반 앚져. 경헤영 방상에 ᄒᆞ꼼 나이든 어른 새각시 오면 대반 앚져. 경헤영 허고. 또 저 새서방칩이도 가면 우시덜 가면은 또 그디 우시상 출려근엥에 막 대반상으로 허영 들이곡 새각시칩이 오라도 경허곡 그렇게 헷주게.

손수건 팔기

@1 나 결혼헐 땐예, 막 저기 신랑 손수건 팔고 막 신랑 친구들 오민 막 경헌 거 헤나신디 그건 언제부터 헤나신고?
#1 손수건, 멧이라 시방?
@1 나 삼춘네 막내똘이영 비슷헌.
#1 아, 겨난 우리 큰똘네 풀 때는 그게 없고, 그루후제 이제 그 신랑이 오라서 손수건 풀아근엥에 돈

얼마 영 형 또 풀면 그 손수건 헹 풀앗젠 허영 그 일보는 사람덜 돈을 줘야 뒈.

@1 맞아.

#1 경 돈도 주고 헤낫주. 경 헤난 시절도 잇고. 경허단 뭐 그루젠 뭐 그것도 엇어지고, 저것도 엇어지고 이건 뭐, 식장에 가근엥이 뭐 기자 저 허여 부난 뭐 잔치가 뭐 막 쉬와. 아시날도 허젱을 허카이. 차례상이나 출령 차례나 잘 지내영 가젠 문상 출리고 잔치마다 경 헤엿주, 첨.

상객

@1 상객 허는 사름은 어떤 사름이꽈?

#1 상객은 저 그날 집이 오랑 이제 그 상객이 엇이민 저 무시거 이제 누게 먹은 중, 아이 먹은 중 몰라 근에 허카 부뎅 상객도 빌어 와. 손님 오람저, 멧 상 아져오라 영 허민 이제 도가에서가 멧 상을 출령 탁 탁 아져다 놓앙 밥 멕이는 거. 거 상격. 경 허영 상격이 이제 이디 사. 이디 사근엥이 소님이 멧 사름 왓저, 멧 상 출령 아져 오라 경헹 아져당 멕이고. 경허민 군밥 먹는 사름도 없고 아이 먹엉 간 사름도 없고 그렇게 헤서 이제 상격도 빌언 허건 디가 멧 년 허단 것도 설르고 경 헷수다게.

잔치 음식

@1 손님들 올 때 밥은 곤밥 헹 줍니까, 픗밥 헹 멕엿수과?

#1 아이고 곤밥 헷주. 픗밥은 옛날 이제 보리쏠에 픗에 서꺼근엥이 그 밥이 맛좋아. 잔치 아시날 방상 덜 먹젱 허민 그 밥을 주로 허여. 곤쏠도 엇고 허니까. 겡 픗 숢아근에 통보리쏠에 이제 저 밥허영.

@1 무신 보리쏠? 통보리쏠?

#1 그 덕에는 ᄀᆞ레에 검펴근엥이 통보리쏠을 검피연 밥을 헨 먹엇는디 말째라 가난 이제 그 보리쏠을 통차 실렁 통보리쌀 밥이엥 허영 픗에 숢아. 경헹 이제 궤어 가민 물 놩 궤다근엥이 그 보리쏠 숢은 걸 보리쏠, 통보리쏠 거려 놩 궤어 가민 곤쌀 놩 뿔른 것이 그것이 픗밥. 경허연 그 밥을 주로 먹엇주. 그자 큰일 때도 가민 그 밥이라. 곤밥은 못 헹 멕이고 경허여. 이제사 이거 곤밥으로 통일이주, 제주도에 어디 경 먹은 사름이 잇엇어? 경허민 그것이 벨미. 벨미로 그 밥을 헨 먹엇주게. 경 헌 시절도 하영 넘고.

@1 잔칫날도 몸국 헹 멕입니까?

#1 으.

@1 가문잔칫날도 몸국, 잔칫날도 몸국?

#1 아이, 잔칫날은 둠비 ᄒᆞ끔 썰어 넣고, 고기 줌질이 썰어근엥 이제 그 상격상이영 새각시상이 그 국이 ᄯᅳ로 잇어 또. 국은 ᄯᅳ로 잇어.

@1 새각시상이영 상객상이영 이거에 국은 장국으로. 둠비 넣고.

#1 둠비 줌질이 썰어 놓고 궤기 줌질이 썰어 놩 장국 꿰와가지고 톡톡 놔. 그것이 국.

@1 놈삐 같은 거 놔?

#1 아니, 놈삐도 아이 놓고. 그냥 궤기허고 둠비 썰언 툭툭 줍아 와. 장국 꿰와. 그것이 국. 그런 것도 헤나고. 겅헷수다게. 경헤연 첨. 그게 큰일.

@1 장국은 장물 논 거지예, 된장 아니고예?

#1 응. 아니. 장물 그냥 꿰와. 장국 꿰와. 경헤여근엥이 저 큰일 칩이 그 국이 주로 먹어나고. 몸국 못 허면. 경허영 멕이곡 경헤낫어. 큰일 허젠 허민 춥 ᄋᆞ라 가지주. ᄋᆞ라 가지. ᄋᆞ라 가지. 난 저 친정어머니, 아버지 돌아간 넹겨, 나도 시하르바님, 시어머님 큰일도 나 ᄋᆞ라 번 허연. ᄋᆞ라 번에, 잔치도 ᄋᆞ라 번 허고.

꽃다발과 화동

@1 삼춘 결혼할 때 부케 같은 것도 들러?

#1 부케가 무시거라?

@1 부케, 꽃, 꽃. 꽃 들러?

#1 아이고, 꽃이 어디 셔 그때. ᄉᆞ삼사건 끗에 결혼도 헐 동 말 동 헐 시절인디 잔치허는 체 허난 꼿도 엇고 사진도 엇고 이거 뭐, 우리 시절에.

@1 막예, 화동도 잇어근에 꽃도 영 아이들 뿌리고도 헤낫덴 헙디다. 옛날에.

#1 그건 우리 큰년네 시작헐 때. 그때사 이제 꽃바구니 거 ᄍᆞ끌락한 아이덜 왕 꼿바구니 들러당 새각시 오라 가민 뿌리고. 그 시절 나건 지도 오래지 안헤연.

@1 삼춘넨 아니고?

#1 아니, 아니. 우리 시절엔 것도 엇고. 경 헷수다게.

@1 꼿도 안 들르고?

#1 꼿도 안 들르고. 경헹 거 새각시 꼿 들럿당 꼿은 이제 훅 데끼민 그디 저 벗들 갓당 마타. 경허믄.

@1 우리 허는 거랑 똑같네.

#1 마타근엥 이제 아고, 이제 자이 결혼허켜 꼿 마탕. 경도 허고.

@1 그거 큰똘 헐 때도 헤낫수과, 겅?

#1 어. 허여난, 헤난. 큰똘 헐 때 시작헨 허여난. 경헤난. 그게 이제 그 꼿 들른 식도 허고. 겨단 이제 뭐 연애들 헹 지네냥으로 살아도 불고. 뭐 무신.

부신랑 부신부

@1 이젠 부신랑 부신부도 이신디 옛날에 그런 거 잇어낫수과?

#1 옛날엔 엇언. ᄉᆞ못 옛날은 엇고, 우리 큰똘 그 우부터 셔낫주. 부신랑, 신랑.

@1 그때도 잇어수과? 칠십 넘은 큰똘 헐 때도?

#1 부신랑은 이제 새서방 조름에 촐촐 돌랑 뎅겨, 부신랑. 부신랑은 누게 헐 것고, 영 허영 허민 허곡. 것도 얼굴도 곱고 뒈방진 사름으로 뽑아근엥이 부신랑 허라, 게민 허고 경헤낫수다게. 부신랑도 셔낫주게.

@2 삼춘네 들러리 엇어나수꽈? 들러리렌 허는 말은.

#1 들러린 저 그 이제 오랑 화장도 헤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새각시 간 때ᄁᆞ장 영 조름에 상 가는 거 들러리 그거, 그거.

@1 부신부 말고?

#1 응. 부신부 말고. 부신부는 또 똘라 가. 벗, 벗 ᄒᆞ나 똘라 가, 부신부도.

@1 그 우리 헐 땐예, 신랑이영 신부영 신랑 친구영 신부 친구영 헹근에 어디, 요 옆에 어디 저 동백동산이나 이런 디 강 사진도 찍고 그디 강 무신거 먹으멍 말도 허고 영 헤난 거 이신디 그런 건 안 헤나수과?

@2 식 끝난 다음에.

#1 아니 저, 벗들 가근엥이 그 부신부영 강 어디 가근엥이 저 밥 사 먹고 저 새서방 칩이서 새서방이.

@1 사 줘?

#1 어. 벗덜 둘앙 가. 우리 셋아덜도 부신부로 허연 새서방이영 친구덜이영 간 갓다 왓어. 새서방 아방이 돈 줘. 그럴 때. 그때 씨렌.

@1 거 말고 결혼식 당일날은 안 하고예?

#1 안 헤. 결혼식 넘엉.

@1 넘어근에.

#1 응. 넘엉 경헨 가나고 경 헷수다. 경헨 놀레 가낫주.

뒤풀이

@1 결혼식 끝난 그날 밤이는 무신거 허는 거꽈? 이제. 신랑 신부 다 들어완에 결혼식 다 끝낫어예, 이제예. 그믄 그때 허믄 무신거 헐 거꽈?

#1 그때 무시거 안 헤여. 그냥 잔칫날 저녁은 놀주, 놀아.

@1 어디서 무신거 허멍 놀아?

#1 그 새서방칩이나 새각시칩, 새서방칩이 놀주, 새각시는 가 부난 새각시는 또 뒷날 와사 새각시칩이 놀아.

@1 아, 그믄 밤에 무신거 살장귀 치멍 노는 거꽈?

#1 응. 놀아.

@1 허벅 장단 허멍?

#1 허벅 장단 허멍. 그 옛날은 살장귀도 아무 디나 엇어 부난 허벅도 이제 붉은 허벅은 소리 잘 안나. 옛날 검은 허벅 잇어낫어. 허벅 장단. 우리 언니네 ᄉᆞ삼사건 전인 우리 집이 요 가운디 우리가 사난 허벅을 두 개썩 지멍 이 팔월달에 둘밤이, 얼도 덥도 안 허영 둘밤이 팔월 때가 질 놀기가 좋아. 경 허민 마당으로 ᄀᆞ득아. 선흘 청년 다 모여. 허벅 두 개로 장단 춰. 경헤영 막 춤덜 추멍 놀곡. 옛날 잡타령. 얼씨구나 불르멍.

@1 그거 잔칫날 밤이도 겅 헙니까?

#1 잔칫날 밤이도 경 노는 집도 잇곡, 또 놀레도 강 막 반갑게 맞이허는 집이는 잘 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안 가고. 경 놀레덜 왕 막 놀라, 이렇게 허곡 이젠 가민 또 무신거 허영 영 멕임도 헤사뒐 거난 경헤영 허주게. 게믄 그런 집인 강 반갑게 강 막 놀곡 그렇지 안헹 신방불방 허는 집인 놀레도 안 가곡게. 경헷주게. 무신 매집이 가는 것도 아니고.

@1 그 테레비에 보민 신랑 발창 막 두드리곡 허는 거 잇언게마는 제주도도 그런 거 헤낫수과?

#1 그거 육지.

@1 건 육지.

#1 제주도 경 아녀. 육지 사름은 얼먹크란게 그 새서방 막 둘아멩 두드리곡. 거 무사 그거라?

@1 게난.

#1 제주도, 제주도는 그런 거 엇어. 엇어, 엇어. 우리 테레비에 보난 육지 경헨게. 거 육지 사름 나빠.

@1 나빠.

#1 아니, 막 못 젼디게 굴어 부난.

전통 혼례와 합동 결혼식

@1 맞아. 삼춘 옛날에 그 전통 혼례식처럼 텔레비전에 보면 영 헤근에 신랑도 절 허고 신부도 절 허고 영 술 먹고 막 영 허는 거 이수게.

#1 전통 혼례.

@1 제주돈 그런 거 안 헤난?

#1 제주도에 저 선흘 사름 ᄒᆞ나, 그거 어디라니. 전통으로 ᄋᆞ라이 모영 잔치헌덴 헤영 ᄒᆞᆫ 사름 간 허는디 간 보난 그 신랑 어멍네 신랑 아방네 막덜 완 그 결혼식을 홉치 허더라고.

@2 제주시 어디, 향교?

#1 향교 아니.

@3 성산, 성산. 온평.

@2 온평리?

#1 아니, 저 중앙로.

@1 혼인지?

#1 중앙로 어디서 헷어. ᄒᆞᆫ 사름 간 헤낫어, 그때에. 우리도 친촉 부뜨난 그디 간 구경헤난.

@1 거난 합동 결혼식? 다른 신랑 신부 막 여러 사람?

#1 응. 여러 사람.

@1 합동 결혼식이네.

#1 응. 합동 결혼식. 겡 그디 간 허영 돈 족영 들엇젠 허멍 허는 사름 봐낫어. 경 허영 그거 ᄒᆞᆫ 번 봣주 그루젠 합동 결혼식사 헴신지 무신것도 모르고 향교에는 잘 허여. 향교에. 향교엔 가는 사름은이, 그디도 아무나 못 가. 향교에도 뎅기곡 허는 이가 이제 집이서 이제 불편헤영 잔치를 잘 못허나 어떤 사름은 향교에 가근에 그 잔치를 식을 지내여. 그추룩 헹 그디서 방상덜토 모여근엥이 이제 그디서 밥 허여근에 먹는 사름은 먹엉 헐어지곡, 경 안헌 사람은 그디 강 식만 헤여근엥에 집이덜 강 허영

밥 먹고 그렇게 허는 거. 향교. 향교에 우린 간에 저디 사진 붸와 줘사컬. 향교에 간 하르방 헌 거.

@1 같이 사진 찍은 거 잇수과?

결혼 사진

(녹음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됨)

@1 삼춘 아까 그 결혼 사모관대 쓰고 장옷 입고 헹 찍은 사진 그거 말고는 결혼식 헐 때 사진도 없고 그런 옷 입엉.

#1 아니, 아이덜 건 잇주. 아이덜 거.

@1 삼춘 거는?

#1 나 건 엇어. 나 사진 안 찍언.

@1 어. 거나 그 이후에 오십년 기념, 삼십년 기념 이렇게 헹 사진 찍은 건 엇지예.

#1 그것도 엇고. 아이고 우리도 아이덜이영게 살젠 허난 복잡헹 그런 거 저런 거 헤졋어게. 시에 간 ᄒᆞᆨ교, 대ᄒᆞᆨ교도 너이 헷주게. 큰아덜도 대학교 졸업헷주. 퇴직허난에 밧, 밧디 왓주. 밧도 헐 중 몰라, 잘. 거난 놈들 왕 정정 허는 것도 다 ᄀᆞ르쳐 주고. 질가 밧이난. 경 허영 헴서 시방.

부주

@1 삼춘, 부줏돈은 옛날 어떵 헹 줘나신고?

#1 부주? 무신 부주? 저, 저 사둔칩이?

@1 사둔칩이영게.

#1 사둔칩인 이부주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아이 받고.

@1 아니, 이부주 말고. 친척들이 잔치 허민 돈 왕은에 얼마씩 줘실 거 아니우꽈?

#1 게. 주엇주. 그때 돈 얼아 아이 줘.

@1 이젠 오만 원, 십 만 원 영 허는디.

#1 이젠 오만 원 그런 부주가 없는데 그떡엔 삼만 원 이만 원. 경 허엿주게.

@1 삼춘네 결혼헐 땐 무신거 받아난 거 닮으꽈?

#1 그때게, 그때게 돈 만 원짜리도 엇어. 천 원 짜릿주. 천 원, 천 원. 천 원으로 헤 가단 만 원에 올라간 만 원에 허단 이젠 오만 원에 올라간 시대가 차츰차츰 허여 간에 돈이 영 뒛주. 그때 무신. 그때 시절에 돈이 어디 셔.

큰성님

@1 삼춘네 사삼 하기 전에 삼춘네 언니 결혼헐 때는 결혼식을 집 마당에서 헤낫수과?

#1 그냥 새각시 새서방 출련 그냥 간. 우리 큰성은 조천 시집가낫어.

@1 거난 그 마당에서 절 허고 영 허는 거 옛날에도 안 헤난?

#1 안 헤연 그대 그냥 헤연게. 그냥 헤연 새서방 새각시 그자 우리 허듯이 출련 간.

@1 그 전이도 그런 거 엇어난예.

#1 어. 경허연에 허고 우리 성님 결혼 허연에 일본 간 일본 통화가 이십 년을 막아져 분 거라. 그때 시절이. 배도 안 들어 오고 통화 막아져 부난 먹을 것도 못 사먹고덜 제주 사람이 어떵 어렵게 살아서게. 경허단 통화 뒈난 이추룩 이젠 막 ᄉᆞ방팔방에 가곡 들어오고 살기가 좋앗주, 아무것도. 겨난 우리 큰성님 스물에 결혼허연 갓는데 우리 아바지가 부산 마중을 간 거라. 이제 통화 터젼. 이십 년만이. 몰란, 몰란. 똘을 몰라. 애기가 그디 간 여섯 오누이 난 다 컨 막내 나사 업어 아젼 오는디 몰란. ᄂᆞ시 똘을 몰라. 똘도 아버질 몰르고 아버지도 똘을 몰르고.

@1 큰언니는 삼춘이영 몇 살 차이 나?

#1 다섯나 차이.

@1 다섯나 우이.

#1 셋성은 세나 우인디 돌아가 불언.

@1 둘 다 돌아가셧수과, 이제?

#1 ᄉᆞ삼에 돌아가 불언.

@1 아, 아까 ᄀᆞᆯ앗구나.

#1 경헤연 이제 허난 우리 아바지가 영 보난에 일본 사름이 이런 걸레로 업엉 뎅기는 게 이거나 긴가 헤영 간 어디 감딘 들으난 이 선흘이엔 헤여. 경허난 그때사 통성명 허연 찾안. 흠치 몰란. 경헤연 부산서 ᄀᆞ치 와나고. 경헌디 큰성님이 돈을 벌언에 오는 인편이 돈을 보내연 아바지네 집도 사내고 허여난. 집도 두 개썩 사 내언. 큰성 막 잘 살아난. 겨단 이제 돌아가 부난. 조케덜 잇주마는 말도 몰르고 헤노난 이제 만나도 통화 잘 못 헤여.

재혼

@1 삼춘 이디도 뭐 저, 각시가 먼저 죽거나 서방이 먼저 죽어 불믄 아니믄 이혼헹 재혼허는 사람들도 잇지예.

#1 잇고말고.

@1 삼춘네 또래도 잇어?

#1 우리 또래는 엇고.

@1 엇어? 삼춘네 옛날에도 재혼허는 사람들 잇어낫수게.

#1 잇주게. 잇주.

@1 족은각시 허는 사람도 잇고.

#1 아이고 우리 아바지도 우리 동생 아이 커 부난 족은각시 헨에 우리 망헌 사람이주. 우린 난 우리 어머님이 아덜 삼 형제를 나도 안 커부난 말짜에 ᄋᆞ슷 설에 돌아간 오레비 생각허민 줌 안 들어지고 나가 정신 돌아나 불언. 각시 얻어단 하도 타격 받안.

@1 족은각시가 안 좋은 사람이라 낫구나.

#1 응. 도둑질 헤 가 불언 못살아. 아부지 수중 다 털엉 가 불고. 경 허연이, 오래비도 나난 경 헤여고.

오래비도 무시거 놔 두민 몰르게만 다 아져가 불어. 경허단 ᄋᆞᆨ으난은 두루 헤도이 그 심정이 어디가. 우리 그 타격으로 막 그냥. 집이 우리가이, 이 선흘에서 밧도 첨 좋은 밧만 헤 먹엇어, 친정에. 이제 저디 테우리 식당 허엿주, 그디. 그 밧으로 시작허민 그디 우영밧이 우리 친정에 밧이라 다. 경헤연 놈 부럽지 안 허게 하르바님은 한문 선생 허고 막 살단에 그 동생 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집이 그냥 망헤 불엇주게. 망허연. 여자도 존 사람이 들어와야 허는 디 나쁜 여자가 오라 가지고 그렇게.

형제간 결혼 순서

@1 삼춘, 성이 먼저 결혼헤야 뒈는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도 잇잖아.

#1 지금은 핫주.

@1 옛날에는 형부터 헤야지?

#1 옛날에는 쉐질메가 이제 그 질메를 지와이, 경헌디 쉐질메를 거꾸로 집젱 허민 잘도 어려와. 경허난 이제 아랫 사름 문여 풀면 저 집이 쉐질멧가지 꺼꾸로 허연.

@1 아, 경 굴읍니까?

#1 경 말헤낫주게. 경행 절대로 안 헤낫주. 우잇 동생 풀아 둬야 결혼을 허여. 경허단 이제 그게 아니주게.

@1 맞아.

#1 꺼꾸로도 허고 ᄂᆞ다도 허고 뭐. 시대가 바꽈젼. 우리도 ᄎᆞ례ᄎᆞ례 풀단에이, 나가 저 ○숙이가 쌍둥이여, 쌍둥이. ○숙이ᄁᆞ장 ᄋᆞ섯 오누이난에 난 애기도 세 설 문이로 똑 똑 난 여섯 오누이 나난 설럿주 허당 보건 무사 쌍둥이ᄁᆞ장 나. 경헌디 족은아덜은 저 그것이 문여 낫젱 헌다게. 경헌디 똘을 문여 풀 걸 그만 우리가 똘을 잘 못 풀안. 똘을 아이 풀아 불언. 족은아덜이 새각시 허여 오난에 그냥 잔치 허연. 경허난 이제 아덜 애기 서 오누이라. 쌍둥이. 큰아덜 군인 갓단 오고 이제 족은놈 군인 갈 거라. 쌍둥이덜. 경헤연 첨 셋아덜에도 어떵 헹 우리 손지 ᄒᆞ나 잘못 뒌 애기 잇저게. 경허여 부난 그것에 막 타격 받고 겐 셋아들에 손지 ᄒᆞ나는 저 공부 잘허연에 삼성에 들어가고.

@1 아이고, 잘 헷네.

#1 또 저 아덜은 아이 나젠 허단 난에 허난에 이제사 공군으로 군인 갓어. 셋아들에 손지. 서울 간 대학교 허연. 경허고 큰아들에 손진 그냥 저 학교 졸업 허멍 이제 교육청에. 큰아들에 손지. 저 아들 손지 두 개여.

@1 벌써 손지가 두 개?

#1 이제 ᄉᆞ 학년, 이 학년. 아덜 두 개. 아덜 두 개. 곳사 아덜.

@1 경헐 때 뒛네. 칠십이면.

#1 칠십 안 난.

@1 칠십 안 난?

#1 예순 멧 뒛지. 이제 거자 칠십 뒘서. 경헨 이제 손지메누리는 학교 선생. 교육청에 손지메누리.

@1 다 잘 뒛네. 삼춘.

#1 경허난게 그 똘도 동장 허곡게. 첨 나 ᄒᆞᆨ교 시켜 가민 게메 놈덜 막 웃어. 잘 못 살멍, 일도 못 허멍 ᄒᆞᆨ교 시겸젠.

@2 게도 얼마나 잘 헤수꽈, 공부시켠 다.

#1 경허난 시에 가도 걸릴 게 엇이 뎅겨. 막 선흘 가도 이름, 저 시에 가도 이름나게 살아. 동장도 허곡. 시청에 도청에 뭐 모른 사람이 셔. 나도 경허난 원 안 뎅기는 디 엇주. 뭐 시청에도 가고.

그림 할망

@1 거난 구십 넘엉은에 테레비에 나오고 서울 갈 줄 누가 알앗수과게.

#1 서울 아침 마당.

@1 거난 아침마당에 나올 줄예, 구십 넘은 할망이예.

#1 그건 저 이디 기림 선생 들어오난 나가 질 문여 시작헷어. 겨난 아침마당 나오고. 게난 아나운서안티 막 절 마트고. 노인네가 왓다고, 경헨에 나 초담 시작을 경헷주게. 아이고 어떵 허단 기림 선생님이 선흘에 들어완 우리가 이ᄁᆞ장 영 오라수덴 경허난 아나운서님 막 고맙수덴, 우리 영 와지카부덴 몰라수덴 허멍 허난 선흘 사람덜 말 잘헤렌. 서이가 간.

@1 맞아. 서이가 가선게.

#1 나보다 ᄋᆞ답나 알, 열 아래 사름 ᄒᆞ나허고 갓주게. 경헨 가왓주.

@2 봐야겠다. 할망의 소리 아침마당.

신혼집

@1 신혼살림은 신혼집은 결혼헹 오민 집을 ᄒᆞ나 헤 줘?

#1 허여 주는디게 큰아덜네도 집 엇언 놈이 집 막 빌언 살단에 지네도 다 집 삿주게.

@1 아니, 삼춘 결혼헐 때.

#1 우린 집 셔난.

@1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네 집 말고 밧거리 삼춘네 집 잇인 거 아니믄 다른 집 잇인 거?

#1 우린 저 우리 저 친정엔 우리 큰성님이 집 산에 헤 부난 평사동서 큰집 산 살단에 다 돌아갓주마는 허고 우리 시하르바님은 집 사 줜 우리ᄀᆞ라 살렌 허난 선흘 밧 시어 부난 선흘 오켄 그 집을 그때 오만 원에 풀아 둰 오난 요 ᄒᆞᆫ 해에 십 억에 풀안, 그 사름은.

@1 삼춘 결혼헹 함덕 살아난?

#1 어. 함덕 살아난.

@1 언제 다시 선흘 완? 몇 살에?

#1 그때 왓주. 저 우리 큰년 난 때 완.

@1 아, 큰년 난 때 완.

#1 큰년 완 선흘 완. 경헨 이제도록 살안.

@1 거난 사삼 때 내려간 함덕에서 살다가 함덕에서 결혼헨, 겡 함덕에서 살다가 선흘로 왓는데 그 함

덕 집이 오만 원 주고 팔아신디 이제 십 억인 거?

#1 십 억에 풀안, 요번에. 겐 십 억에 풀앗젠 허난 아니우다, 구 억 받앗수다 경 굴아.

@1 물가가 경 막 달라진 거예.

#1 경허고 그 평사동 집이 막 땅값이 올랏주게. 함덕 평사동. 그땐 오만 원 헤도 살 사름 엇언. 막 간 ᄉᆞ정헤연 메껸. 메껸, 메껸, 그 집을. 겐 풀아 불엇주게. 경헌디 우리 하르방이 아이고, 집 풀앙 나 선흘 아이 가켄 허난, 꿈에 어떤 사름이 완 구들을 막 파 불멍 이 집을 떠나렌 막 헤렌. 우리 집 풀앗젠 막 허난. 경허난 그 집이 그 구들이 눕구정 안 헤렌. 경헹 집 풀아 불ᄀᆞ렌. 경 굴안게.

@1 게난 그 집이 삼춘네 결혼헹 그 집이 살라 헹 집을 지어 준 거?

#1 산. 산.

@1 아, 집을 사 준 거.

#1 초가집 그때게. 집은 궂어도게 막 땅이 널러낫주게. 경헨 헌디 그 집 산 간이 그때 남편이 군인 가낫어. 건디 그 여자 부인이 삿어게. 산디 그 남자가 그디 완 아덜 난 잘 살암서, 그 사름. ○○철물이엔 헹 요 가는디. 그디 그 아이네가 삿주게. 이제도 나 친헤여. 집 풀아 주고 헤난. 어멍 친헤여낫주, 나도게. 경헤영 허난에 그 아방이 그냥 가이 놔둰 돌아가 불언게, 그 집이서. 겐 족은아덜은 아방 몰른 애기 셔.

암창개

@1 삼춘 그 저 암창개엔 헌 것도 잇잖아예.

#1 아, 그건 어떵 허다근엥이 결혼 맞추앙 남자가 이제 ᄀᆞ트민 외국 갓젠 허주마는 저 어디 남자가 어디 첨 가 부나 어떵 허민 여자가 가면은 경 굴아낫젠 헨게.

@1 남자가 둘레 안 오고.

#1 어. 여자가 그냥 가고. 또이 결혼 맞촷는디 그디 부모가 돌아가나 어떵 허민 그 새각시를 왕 돌아간덴.

@1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죽거나 이러면?

#1 경허민 그것ᄀᆞ라 경 굴아낫젠. 거 말만 들엇주 우리는 그런 거 봐나도 안 허고게. 경 굴아난.

죽은혼서

@1 사혼도 잇잖아예, 사혼. 죽은 사람끼리 결혼시켜 주는 거.

#1 어. 죽은혼서게.

@1 죽은혼서.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그건이, 이제 아들 못 풀앙 가 불곡 어떵 허민 서러우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여자 그런 사람이면은 그 신을 모사당 부부로 삼아 주는 거. 그거주. 죽은 혼사헷젠 헌 거. 그거, 그거. 이 선흘도 경헌 사람도 잇저게. 겐 메누리 식게도 허여.

@1 메누리 식게도 시집이서 허고?

#1 응. 아덜허고 ᄀᆞ치 헤여 줘. 경허는 사람도 잇어. 경허민게 사름 훈데 살젠 허민 첨 열두 번인가 무신 허영 ᄆᆞ친덴 헨게 그것이 온말이난게. 그 말이 그 말이주게.

@1 무신거가 열두 번 헌다고?

#1 사름 훈데 살젱 허민 열두 번을 벤식을 헌다고. 그 말이.

@2 바뀐다고? 열두 번 바뀐다고?

#1 어. 바뀐덴 말이주게. 경허난 이제 그런 사름 저런 사름이 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는 거. 경허는 거주.

예물

@1 삼춘 결혼헐 때 반지도 받읍디가? 가락지 ᄒᆞ나 받읍디가?

#1 받음이랑 말앙. 반지랑 말앙,

@1 그믄 이 반지는 누게가 헤 준 거꽈?

#1 이건 말짜에덜 이건 이것도 금반지 띨 거주마는 이거 이거 기자 밧디도 띠엉 뎅이곡 이것도 큰똘 헤연에 이거 허여주는 헤가 또 잇어낫어, 사람덜. 은반지. 겨난 나도 헤내쿠덴 허멍 이거 헤 줜게 맞으난 영 끼엉 뎅기는 거. 금반진 벗어 불엇주.

@1 아니, 저 남자 삼춘이 반지 안 헤 줫수과?

#1 아이고, 반지랑 말앙.

@2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1 나중에라도.

#1 에 에. 그냥 살멍은 무신 반지.

@1 아이, 겅헤도게.

#1 저 서울 셋똘 사난 반지, 쌍반지 보내어서고. 어머니 아버지, 나 나시영. 겡 잇주게.

@2 똘이?

@1 똘이 헤 준 거고.

#1 응. 똘이 다 헤연 다 보냇어. 것도 찍세로. 경도 허고. 우린 아이덜 경 ᄒᆞᆨ교 헤도 성적덜 좋아 부난 말썽 엇이 첨 팔 남매 ᄒᆞᆨ교 시켜도 나.

신혼여행

@1 삼춘 요즘엔 결혼헤근에 신혼여행도 가고 헙니께. 어디 놀레 가고. 삼춘네 헐 때는 혹시 그런 건 엇어낫수과?

#1 엇엇주게.

@1 아니, 여행은 안 가도 어디 이디 어디 저 함덕 해수욕장이라도 한번 갓다 오고 영 허는 거.

#1 아이고, 그것도이 우리 큰똘 다, 우리 큰아덜네 풀아 가야 그런 놀레도 가는 것도 널어졋주, 그 전엔 엇고. 응. 첨 그루후제사 다 그런 저런 그런 것도 나고 이제 살아가는 게 아주 첨 세상이 바꽛주. 몰라, 시에는 경 다 헤신디. 이 촌에. 촌엔 우리 큰아덜네 잔치험 시작헤사 경허고.

@1 그 전인 그런 거 엇어나고예.

#1 엇어낫어. 우리 큰똘네 보다 앞서 동창덜이영 간 사람덜이 다 안 뒛고 우리 큰똘은 화장품 장시 십 년 헷어. 그 주단학. 저 이제 동문시장 그 서쪽에 삼층에. 그디가 본부라낫주게. 그디 저 사장 헤어난 어른 이제 포목장시 허는디 나 친허여 이제도. 그디 가민 무시거 사 주믄 나 먹곡 헹 와. 경허영 우리 큰똘 그디 처녀 때 가민 똘 어디 뎅겸수과, 허고. 막 고와낫주게. 경헹 중흑생도 우리 똘 흔나뿐 선흘에서. 경헨 그 똘 공부시켜시믄 뒐 건디 나도이, 그루젠게 아이덜 두린 아이덜 흑교허저 헤가난 큰똘을 공불 못 시켠. 중흑교 졸업헤연. 경허난 막 우리 웃언. 놈덜 웃언. 엇엉 경 일도 못허멍 똘도 중흑 시겸젠 허멍 경 헤난.

큰똘

@2 그 똘이 중학교 갈 때 양철 허벅에 버스에 물 실렁 와난 똘이꽈?

#1 어. 어떵헨 알앗네?

@2 나 물 들으러 와난 사람.

@1 조사허레 와난. 옛날에.

@2 삼춘 함덕서 물 질엉 양철 허벅에 버스에 실렁 왓덴.

#1 그 벗덜이 그 허벅을 아져간 문 질어다근에 버스에 시꺼 줘. 버스 나난. 경허영 허민 물을 흔번 질어 오젠 허민 흔루를 날 역버려이, 물이 엇어. 겨난 멧 놈역 버을엇젠 헤낫주게. 큰똘이 경 첨 일을 잘 허영게. 겨난 큰똘만 얼먹으난 이제 밧이라도 시민 큰똘 주구정 허주 다른 것덜 필요엇어. 하도 얼먹언. 이제도 큰똘만 하간거 먹을 것도 사주지 뭐 하간거이 가장 살아가는 걸 다 알주, 다른 똘덜은 뭐 대학 졸업을 시켜도 뭐 별 볼일 없어.

@2 게난 큰똘이 잘 챙겸구나예.

#1 큰똘이 얼먹언. 나 돈도 씨당 나민 큰똘이나 주주 다른 건 아이 주커라.

문전제

@2 잘헴수다. 잘헴수다. 예. 그 결혼식날 아침이 제 지낼 때, 제 지내는 거 아들 풀 때도 허고 똘 풀 때도 헤수꽈?

#1 응. 마찬가지.

@2 마찬가지. 그럼 아들 풀 때는 아들이 영 상 차린 데 절도 허고 허잖아예.

#1 문전에, 문전에.

@2 문전에예.

#1 문전에도 허고 차례에도 허고.

@2 아들, 그민 그거 장가가는 본인이 절 허고 허잖아예.

#1 아니.

@2 아니, 아부지가 헙니까?

#1 아부지영 방상덜토 왕 차례에 다 절 허여. 문전제는 새서방이 보고게.

@1 문전제만 새서방이 보고?

#1 응. 응. 문전제는 잘 헤영.

@2 똘 풀 때는 그럼 그 제는 누게가 보는 거꽈? 아부지가 허는 거꽈?

#1 아부지영 방상덜토 오고.

@1 아니, 문전제.

@2 문전제.

@1 새서방칩 말고 새각시칩이선 어떵 헐 거라?

#1 새각시칩이서도 다 문전제 헤여.

@1 새각신 절을 안 하잖아.

#1 아녀주게. 경 허민 다덜 아바지네가 허주게. 문전제 지낼 때. 저 새서방칩이선 새서방도 문전제 헹 절 잘 헤사. 아덜 완. 경허멍 허주게.

@1 뭐 물어볼 만한 게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면.

#1 무시거 그거 물언 썻어?

@1 다 썻어.

#1 아이고, 고맙다.

@1 아이고 삼춘 우리가 고맙지. 막 오랫동안.

@2 우리가 고맙수다.

2.

우도면 하고수동 고계모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6월 4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고계모

제보자 정보

@1 일름부터 굴아 줍서, 이름.

#1 이름?

@1 으.

#1 고계모.

@1 예, 이제 생각남수다. 이제 딱 구십이라?

#1 응.

@1 딱 구십. 몇 년생마씨?

#1 삼십육 년생.

@1 삼십육 년생. 무슨 헤치꽈?

#1 쥐헤치.

@1 쥐띠.

@2 나영 띠동갑.

@1 띠동갑이렌 헴수다. 우리 선생님이랑. 원래 여기 삼춘은 우도꽈?

#1 응.

@1 여기 무슨 동네마씨?

#1 하고수동.

@1 하고수동. 여기서 태어난 거예. 아까 학교는 못 뎅겻고.

#1 학교는 못 헤 봔. 옛날에 우리 이 학년까장 제국시대가 뒈 벳어. 일본. 일본 공부헐 때라. 일본 글 헐 때. 경헌디 초등학교 들어가긴 들어갓는디 우리가 이 학년까장은 일본 글 헹 삼 학년 올라가젱 허난 해방뒈 분 거라. 해방뒈 부난에 그후제론 학교를 못 가.

@1 게도 학교 마당은 들어가신게예.

#1 (웃음) 게난 일본 글 그때 헤단 뭐 헤 부난 일본 글도 몰르고, 한국 글도 몰르고 통통 첨, 바보거추룩 살앗주게. 경헨 사는디 우리가 어릴 때, 처녀 때 야학 여기선 동네에 이제 남자분덜이 야학 선생질 헨에 우리 야학에서 조금 한글 조금 알앗어.

@1 야학 공부는 헤졋구나.

#1 응. 야학 뎅견 밤이 초저녁이 혼 아홉 시 전에 기자, 야학허멍 공부헨에 한글을 첨, 우리 한글을 조금 배왓주. 학교는 뎅겨 보지 못헨.

@1 학교 뎅겨 보지 못헨예.

#1 학교 가난 해방 뒈난 헤방 뒌 후제론 워낙 곤란허게 옛날은 살기 때문에, 워낙 곤란허게 살기 때문에 저 뭣고, 공부를 안 시켜 줜.

@1 맞수다.

#1 응. 안 시켜 줜. 에려와 부난.

생업, 물질

@1 삼춘, 계속 우도에만 살아수꽈, 아니면 어디 다른 디도 가 가지고 웨방 물질할 때나.

#1 물질만 뎅겻주. 기자 이 동네서 태어난 이 동네서 시집간에 기자 시집살이 살안.

@1 웨방 물질은 어느 동네 가나수꽈?

#1 저 경북도 가나고, 삼천포도 가나고, 충남도 가나고. 일본, 일본은 여행거추룩 열흘썩 저 무시것고 뭐 받아근에.

@1 비자 받안.

#1 비자 받안에 기자 구경가는 걸로 간에 ᄒᆞᆫ 일주일 물질헤 아장 오곡. 두 번, 두 번이나 가낫주게.

@1 일본 두 번. 그민 아까 삼천포도 가고, 경북도 가신디 한번 물질 가민 거기 강 얼마나 살당 와수꽈?

#1 돈?

@1 아니, 사는 기간.

#1 아, 사는 걸, 사는 기간? 나가 귀 ᄒᆞ쏠 막아 부난 이거 보청기 헤여도 저 보청기 헤도 말이 세라 벰신ᄀᆞ라 잘 말을 알아듣지 못헤여.

@1 지금 좋수다.

#1 경헨에 나가 음성 크게, 나 음성이 크게 나와져. 말하는 것이. 게난 가민 한 오륙 개월 살앙 와.

@1 아, 오륙 개월을 거기 강 사는 거라예.

#1 으, 삼월덜에, 삼월덜에 음력 삼월덜에 여기서 나가주게, 작업허레. 거기서 다 인솔허레 와. 그디 사람들이. 와근에 이제 지네 물건 헤여근에, 전주 노릇 헤여근에 물건 헤여근에 잡아지민, 그디서 그 수입 난 거 이제 팔아근에 이제 팔월 추석 전이.

@1 돌아오는 거라예.

#1 응. 여기 왕 추석 먹을 걸로 돌아오는 거.

@1 한번 가민 오륙 개월 사는디 경헹 한 횟수로 몇 번을 갓당 와수꽈?

#1 아니, 아니. 기자 그디 강 계속 살아.

@1 그민 그렇게 몇 년을 육지 왓다 갓다 헤수꽈?

#1 멧 년? 멧 년은 못 뎅겻어. 살림 살고 애기 난에, 애기 남 시작허난에, 나가 스물 여섯 살에부터 애기 낫주게. 나가 막, 우리 또래에선 나가 막 늦게 낫어. 애기 엇이켄 허멍, 시집은 오난에 애기 엇이켄 허멍 막 시하르방덜이영 시할망덜이영 걱정헨게 애기가 남 시작허난에.

@1 발음 새는 거 괜찮아요?

@2 예.

#1 애기 첨, 너 오누이 나신디 하난 가 불고.

@1 일러불엇구나, 아이고.

#1 가 불고 이제 서 오누이. 아덜에, 아덜은 몯이에, 몯이고 두번 차 똘은 이제 가 불고.

@1 게난 스물여섯 살 애기 나기 전까지는 왓다 갓다 허멍 웨방 물질 갓던 거구나예.

#1 애기 나 분 후제.

@1 아, 애기 나 분 후제 경 웨방 물질 뎅겨수꽈?

#1 응.

@1 거민 웨방 물질 갓다 온 게 한 몇 번은 경 갓다 왓어? 아까 경북 갓다 오고, 삼천포 갓다 오고.

#1 충남 두 해, 삼천포 두 해, 경북 ᄒᆞᆫ 해, 경헨에 이젠 살림 살안. 살림 살멍 이젠 애기들 키우고 공부 허곡 헤 가난 초등학교 뎅겨 가난 못 뎅견.

@1 맞수다. 여기서는 죽장 물질 해녀로만.

#1 응. 해녀로만. 뭐 헐 것이 엇언, 여기선. 공부 못 헤 부난에.

@1 밭일도 허고마씨?

#1 응. 밭일, 농사만 허주게. 농사허고 기자 물질허고.

@1 농사허고 물질허고예.

#1 그것에 보리 갈민 보리, 고구마 갈민 고구마, 조 갈민 조. 옛날엔 조 갈아근에 그거 막 태작헤근에 다 거 먹고, 보리도 갈아근에 경헹 먹고 헤낫주게. 여기선 농사 안 혀민 뭐 먹을 것이 엇어.

@1 맞수다.

#1 농사 안 혀민 먹을 것이 엇어.

결혼 시기

@1 아까 물엇주마는 몇 살에 결혼을 헤수꽈?

#1 열아홉 설에.

@1 열아홉 살. 남자 삼춘은.

#1 열여듭 설에.

@1 열여덟 살에.

#1 나보다 한나 알.

@1 아이고. 게난 남자 삼춘을 어떵 알앙 시집을.

#1 이 동네라부난. 이 동네 저 요, 요디서 집 서너 개 넘언 요 밑에 살아낫주게.

@1 ᄀᆞ치 컷구나. 그럼.

#1 응. ᄀᆞ치 컨. 게난 ᄀᆞ치 크고 여기게, 누게고 잘 사난, 우리 시가에가 시하르방덜 시할망덜이영 시아방덜이영 잘 사난 우리 남편은 저 고등학교 저 어디고. 부산 간 수산 고등학교 허고, 고등학교까장 허고. 난 초등학교도 못 마친 거라. 못 마쳐도 이게 동네에서 속 알고, 이제 사람을 아난에 우리 시아방들이 욕심 난에 날 이제 결혼을 이 동네에서 이제 메느리로 삼은 거주게.

@1 게난 시아방네가 삼춘 사는 걸 보고 점 찍엇구나예.

#1 ᄌᆞ끗디 집 두 개 넘언 요 세 개 차 우리, 우리 친정집이난에 그디 사난에게, 다 동네서 속 알고 다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연으로 이제 메느리를 헌 거주게.

중매

@1 그민 며느리 하젠 할 때 누구를 통헹 영 말이 들어오잖아예.

#1 어. 중매.

@1 응. 중매.

#1 응. 중매 놔. 옛날엔 거 중매 동네 사람 통허게, 잘허는 친헌 사람 놔근에 통헤여근에 중매 놘에 헤난. 게, 얼굴은 다, 속 알고 얼굴은 다 아난에 동네서.

@1 그민 삼춘은 누게가 중매를 헌 거꽈? 동네 사람 누구?

#1 동네에 요, 요, 요 옆집이 하르방. 옆집이 하르방. 이웃 하르방이 중매를 헌 거주.

@1 삼춘은 기억 잘 안 날 거 닮은디, 혹시 옛날에 그렇게 중매를 허는 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꽈? 예를 들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요구하는 거꽈,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그런 거.

#1 남자 집에서가 여자 집에 가근에 부모덜이영 다 잇는 그 앒아 잇는 디서 다 이제 말을 통헤영 다 이예길 허는 거주. 아무 집이서 이제 아멩 아멩 헨에 이제, 메느리굽으로 이제 선택헹 데려가켄, 메느리로 헤 가켄 이제, 말을 이제 건네주는 거주게.

@1 전하는 거예.

#1 응. 전헤, 그 사람이. 그 중매로 간 사람이. 우리 친정 부모들안트레 이예기 허는 거주게.

@1 허는 거라예.

#1 응. 겡허민 동네에서 다 속 알고 이제 다 내용을 아난 이제 허락허는 거주. 웬동네 거트민 멧 번 뎅김이라도 허주마는 ᄌᆞ끗디라 부난 속 알아 불고 다 그 집이 내용 아난에 허락헤 부는 거주.

@1 게난 옛날에 그렇게 중매헐 때는 다 남자 집이서가 영 사람 봥 여자 집에.

#1 응. 여자 집일 가근에 이제 말허는 거주게.

@1 말허는 거라예.

#1 똘 우리 이제, 아무 집이서 이제, 똘 메느리로 헤 가켄 이제 청헴젠. 겡헹 말헤여근에 서로 중매장이가 강 이제 말허민 이제 부모덜이 이제, 허락허민 좋뎬. 경 혀근에 허민 그것이 이제 중매가 뒈는 거주게.

@1 혹시 옛날에도 이렇게 중매허는 걸 어느 사람이 전문적으로 헹 그런 사람이 잇어나수꽈?

#1 아니, ᄒᆞ썰 말헐 만한 사람, 동네에서. 동네에서 조금 유지 뒈고 말이라도 조리 잇게시리 허는 사람이 잇곡, 또 조리 엇게 말허는 사람이 잇잖아. 경허난에 말 잘 허는 사람으로 택헤여근에 강 말을 부쪄야만 이제 허락을 헤도 헐 거난에 말을 부찌게꾸름 강 말허는 거주게.

@1 그민 이 중매헐 사람이, 중매를 허는 사람이 남자쪽 집도 알고 여자쪽 집도 아는 사람이꽈?

#1 응, 내용 다, 동네 사난 다 내용 알주게.

@1 우리 아까 삼춘은 남자 쪽 집에서 삼춘을 점 찍엉 이 사람 소개시켜 줍서 헹 말 넣어 달렌 헌 거잖아예.

#1 어, 어.

@1 그렇지 않고 결혼헐 남자는 이신디 야이를 장가를 보내야 뒐 건디 여자를 누구를 해야뒐 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예. 남자 집에서가예. 그럴 때 누구 중매 성 우리 아들 소개시켜 줄 만한 여자 찾아봅서 헹도 중매를 헙니까?

#1 아니. 기자 거 무시것고, 그 남자 집이서가 어디 똘이 잇다 허민, 어디 아멩 아멩 헨 이제 착헌, 옛날엔 착헌, 착헌 똘이 잇다 헌 말을 들으민 그 동네 이제, 만약에 이 동네, 같은 동네 아니랑 저 건너편에 동네 사람이민 그디 친헌 사람, 남자. 잘, 말도 통허지 잘허곡 허는 사람, 경헹 놓아근에 또 그 집이 여자 집을 보내는 거라.

@1 그치예.

#1 으, 남자 집이서가.

@1 그치예. 그니까 여자 집에 말이 통헐 만헌 사람을 중매로 내세우는 거예.

#1 응. 응.

@1 그 사람 통헹.

#1 게난 말을 잘 강 부쪄 줘야 허락헐 거 아니. 내용도 알고.

@1 맞수다.

#1 경형. 또 몰른 사람은 내용 알젠 확 허게 대답 안 헤 줘. 멧 번, 멧 번 가사.

@1 멧 번 가사예.

#1 으, 멧 번 가근에 내용, 그 동네에 아는 사람, 친헌 사람 놓아근에 다 그 집이 어떻다 헌 거 다 내막 다 알아근에 저 허락허주. 기자 무데뽀 허게시리 허락은 안 허여, 웬동네 사람은. ᄀᆞ튼 동네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 집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1 게난, 게난 여자 집에서가 중매가 들어오면 아, 남자 집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본다는 말이꽈, 어떵헌다는 말이꽈?

#2 여자 집이서도 남자 내용을 알젠 허민 남자 쪽에 사람을 보내민 여자 쪽에서가 이제 남자 그 집이 부모들이 어떻다 헌 거, 또 그 남자 이제, 약혼자가 어떻다 헌 걸 웬동네에서는 잘 모르지 안허나.

@1 맞수다.

#1 겨난에 확 허게 대답을 안 혀주게.

@1 대답 안 헤. 딸 보내쿠다 하는 말을 확 허게 대답 안 한 거라예.

#1 응. 경 헤근에 멧 번 왓닥 갓닥 헤근에 내막을 다 알아. 그 동네 친헌 사람 놔근데 다 그 집안에 어떻다 헌 걸 다 내막을 알아근에 허락허주, 무데뽀로 허락허지 안 헤여. ᄀᆞ튼 동네서는 알기 때문에 허락허주마는.

@1 게난 중매허는 사람이 막 여러 번 왓다 갓다 헐 거구나예.

#1 응. 멧 번, 멧 번 뎅김도 헤여.

@1 기라예. 경 이제 여자 내주쿠다 헤수다예. 남자 집에서 온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집도 그 집이 보내쿠다 헹 이렇게 허락을 허민 그다음 단계는 어떵 뒙니까?

#1 경허민 그 무시것고. 허락 허민 이제 일 년이민 일 년, 이 년이민 이 년. 그 순간엔 딸을 시집 못 보내켄 허민 그 순간까장 남자쪽에서 기다려야 뒘.

@1 아, 여자 집이서가 아, 우리 일 년 후제 보내쿠다, 언제 후제 보내쿠다.

#1 어. 결혼 일 년 후에 결혼헤근에, 옛날은 못 살아근에 많이 곤란허게 다 살기 때문에 돈도 벌어다근에 이제, 출가 허젠 허민 이불자리도 허고, 옷도 헤어 입곡. 무시것고, 잔치헐.

@1 도세기도 키워야 뒐 거고예.

#1 어. 돼지도 키와야 뒈고. 돼지도 이 년썩 키우곡 일 년도 키우고 삼 년도 키와. 경헹 확 허게시리 일 년에 시집도 재게 안 보내어.

@1 재게 안 보내어.

#1 응. 옛날은 돈이 엇어근에게, 활동을 못 헤 노난 경 재기 보내질.

@1 그민 보내쿠다. 우리 일 년 후에 보내쿠다. 여자 집에서 경 ᄀᆞᆯ아수다.

#1 여자 집이선 경 ᄀᆞᆫ주게.

@1 예. 경 ᄀᆞᆯ으민.

#1 남자 집이선 마음 이시민 그대로 여자 쪽에 말을 들어야주, 따라가사.

@1 따라가사 허고. 아니민 우리 ᄒᆞ끔 더 일찍 허게마씨. 날 일찍 잡게마씨, 경도 요청이 들어옵니까?

#1 일찍? 게난 일찍 허켄, 남자 잘사는 집이는 다 잘 살질, 옛날에는 다 잘 살질 못 헷주게. 이 토지, 저 밧 잇는 사람은 이제 보리 갈곡, 조 갈곡, 고구마 갈곡 헤근에 이제 먹을 걸 많이 저, 곡석을 헤 드리주마는, 그런 사람이 다 잇지 안 형 못사는 사람이 만헤 노난 밧도 엇고 ᄂᆞᆷ의 집도 하영 살고 허난 그런 사람덜은 뒐 수 이시민 육지 가근에 돈 벌어당이라도 결혼허젠 헤근에 재기 안 보내어. 이 삼 년썩 저, 이디.

@1 걸리는구나.

#1 걸려근에 기자, 클 걸어 놔근에 이삼 년썩 이따근에 결혼헤.

사주

@1 경헹 좀 이땅 이제 결혼헐 때가 뒈민 약간 사주도 보고 그런 것도 헤야 뒈지 안헙니까?

#1 응. 사주 다 봐낫주.

@1 다 봐난예. 그민 그 사주는 여자 칩이서 보는 거꽈?

#1 남자 칩이서가.

@1 게민 여자 사주는 받으러 오거나 보내거나 해야 뒈겟다예.

#1 응. 사주 봐근에, 남자 집이서 봐근에 여자 집이 보내어.

@1 아, 남자 집에서가 보내어?

#1 응. 남자 집이서가 사주를 보아근에 여자 쪽에, 여자 칩이 보내 주주게. 그 사주.

@1 그민 사주 보젠 허민 뭐가 필요허는 건 알아지쿠가. 그냥 이름만 이시민 뒐 거꽈, 사주 보젠 허민?

#1 생년월일 기자 ᄀᆞᆯ아 주민, 어느 ᄃᆞᆯ, 어느 해에 어느 ᄃᆞᆯ에 메칠날 난 것만 ᄀᆞᆯ아 주민 그디서 가근에 사주 보는 디 가근에 사주 보는.

@1 아, 메칠날까지 가야 뒈는 거예. 난시는 필요 어수꽈?

#1 난시도 ᄀᆞᆯ아 주는 사람은 ᄀᆞᆯ아.

@1 ᄀᆞᆯ아 줘예. 게민 사주는 어디 강 봐나신고, 옛날에예.

#1 옛날엔 책 보는, 사주, 사주 보는 사람 잇어낫어. 책 봐근에. 것도 ᄒᆞ쏠 유식한 사름덜이. 그 사람덜 ᄒᆞ쏠 공부헌 사름덜은 사주엔 헌 것이 책 봐근에 봐낫어.

@1 책 보는 사람이 잇어낫어예. 우도도 잇어나수꽈?

#1 응. 우도도 잇어낫주.

@1 아. 그거 공부헌 사람이라예.

#1 응. 공부헌 사람.

@1 그 책 보는 사람은 이렇게 결혼날 잡는 거나 사주 보는 거나 그런 것만 헙니까, 아니민 다른 것도 봅니까?

#1 다른 건 보질 안 혀고. 사주.

@1 사주. 결혼하는 거.

#1 그런 거 보고. 또 저, 사주보는 사람은 똑똑허난에 머리가 똑똑허난에 저 뭣고, 죽은, 옛날에는 사람 집이서 죽으민 여기선 이젠 저 어디 납골당에 다 가곡 헴주마는 여기서 집이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그 날짜를 정헤여근에, 날짜 봐근에 메칠날 이제 땅에 묻으라 허민 밧디도 강 묻곡 산에도 강 묻곡 공동묘지도 강 묻곡 경헤낫주게. 경헤나신디.

@1 거난 사주 보는 사람이 그런 것도 보는 거꽈?

#1 응, 그런 것도 봐.

@1 그런.

#1 날, 날짜 봐. 어느 날 묻으라 허곡 헤여근에.

@1 혹시.

#1 터 강 보고.

@1 터 강 보고.

#1 그 저 무시것고, 산터. 묻을 산터 강.

@1 보통 산터는 그 정시가 본덴 허잖아예.

#1 응. 정시.

@1 그럼 책 보는 사람이영 이 정시는 ᄀᆞ튼 사람이꽈?

#1 ᄀᆞ튼 사람도 만헤여.

@1 ᄀᆞ튼 사람도 잇고. 만헤여. 그치 않은 사람도 잇고.

#1 책만 보는 사람도 잇고. 정시가 이제 그, 날도 보곡 땅도 이제 정시가 가근에 그 옛날은 다 그 묻을 디 다 봐근에 땅이 좋다 궂다 허여근에 다 이제 산 묻으렌 이제 ᄀᆞᆯ안. 이야기 헨.

@1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막 새해 나민 그 나 올해 운수는 어떵 하켜, 우리 집안 아이들 올해는 어떵 하켜, 그런 것도 보러 가잖아예.

#1 운수도 운수도 봐.

@1 게민 그것도 책 보는 사람한테 갑니까?
#1 응.
@1 그런 것도. 옛날에 그런 거 막 봣지예.
#1 응. 책 보는 사름.
@1 책 보는 사람한테 가는 거. 그민 우리가 운수 보레 정시한테 간덴도 헙니까? 정시가 그런 것도 봅니까?
#1 정시도 본덴 헤여. 똑똑허난에게.
@1 똑똑허난. 어쨌든 그런 거 보는 건 책 보는 사람예. 사주 보는 것도.
#1 공부헌 사람이게, 그런 거 책 보멍. 옛날도게, 똑똑헌 사람이 잇고 첨, 못 배운 사람은 이제 못 배와근에 첨, 공부 못 헤, 못 배운 사람은 몰르는 거 아니?
@1 게난 삼춘도 이렇게 새해 뒈민 그런 운수 보거나 우리 아이 어떵 허쿠가 그런 거 보러 다녀 봣수가?
#1 아니, 안 뎅겨 봔.
@1 안 뎅겨 봣어. 게민 삼춘은 여기, 여기 우도에서 책 보는 사람 찾아가 본 일은 어수꽈?
#1 난 엇어.
@1 엇어. 삼춘 아이들 풀 때는 사주?
#1 아이들 풀 때는 자기네 뭐 이 새 시대 모냥으로 자기네 좋다 헨에 기자 풀앗어.
@1 기라예.
@2 새 시대.
#1 맞아. 새 시대난.
#1 아니, 우리 큰아들만 이 우도에서 결혼헤 부난 여기, 여기 분이라 메느리가. 여기 분이라. 요 전월 동이엔 헌 디. 게난 근땐 사주 봣주.
@1 누게한테 강 봐수꽈?
#1 거 책 보는 사람안티 강.
@1 삼춘이 강 본 거예?
#1 우리 집이 저 하르방덜, 시아방덜.
@1 아, 시아방덜.
#1 시아방덜 살 때에.
@1 아, 남편은 돌아가셔신디 시아버지는 살아 계셔낫구나.
#1 아, 남편.
@2 형제덜?
#1 남편은 살 때주게.
@1 아, 큰아들 보낼 때. 며느리 볼 때.
#1 아, 첨 죽어 불 때.
@1 그치, 죽어 불 때. 그민 누게랑 의논한 거꽈, 사주 보는 거?

#1 시하르방. 시아방. 시아방.
@1 시아방. 그니까 삼춘에 시아방.
#1 시아방, 시하르방, 시할망, 시어멍 다 나가 둘안 살멍. 다 이제 돌아가면은 근때는 삼 년, 삼 년 다 헷어. 삭망 허고, 흔 둘에 두 번 삭망 허고, 초ᄒᆞ루 허고 보름 허고. 또 삼 년 또, 소상 허고 대상 허고. 경 헨.
@1 삼춘이 다 헨.
#1 그추룩 헨. 아이고. 너무 고생헌 말은 말도 못 헤.
@1 말도 못 헤.
#1 머리 어지로왕 그 말 거 생각헤 가민 막 머리 어지로와.
@1 잊어붑서. 이제 잊어불고예. 삼춘 그럼 큰아들 그거 책 보러 갈 때 우도에서 봐수꽈, 아니민 바깟디 나강 봐수꽈?
#1 우도에서.
@1 우도에 책 보는 사람한테 봐난? 누겐지 알아지쿠과?
#1 몰라.
@1 아, 몰라예.
#1 죽어 벳어. 죽어 벳어. 그 어른. 다 죽어 벳주.

파혼

@1 그민 이제 사주 방 완예. 남자 집에서예. 사주 봥 혹시 옛날에 아고, 여기 남자영 여자영 사주가 안 맞암저, 궁합이 안 맞암저.
#1 안 맞으민 아니 헤.
@1 아, 그민 파토 나는 경우도 이수꽈?
#1 응. 안 맞으민 안 헤.
@1 안 헤. 아, 그럼 안 맞으민 아예 결혼을.
#1 사주가 막 센데, 여자가 센덴 허는 사람이 잇어. 경허민 옛날 할망덜은 여자가 사주 세민 남자가 모녀 돌아간덴 헤영 안 헤여. 사주 세민.
@1 그럼 사주 좋아야만 이렇게.
#1 사주도 서로 어지간이 좋아야만 허주이, 사주 너무 여자가 사주 세민 남자가 모녀 돌아간 딘 안 헤여.
@1 게민 우리 사주 볼 때 결혼 날도 ᄀᆞ치 받는 거꽈, 아니민 사주 ᄯᅳ로 보고 결혼 날 받으레 ᄯᅳ로 가고 합니까?
#1 그거 ᄀᆞ치 보젠 허민 ᄀᆞ치 보고, 따로 보젠 허민 ᄯᅳ로 보고. 그거는 여자 쪽에서도 서로 타협을 헤 사주게. 여자 쪽에서도 결혼을 허젠 허민 사주만 보민 좋다 헤민 사주는 좋덴 허는디 날짜가 이제 남자 쪽에서만 급허덴 모녀 허켄 허민 들어 줘? 여자 쪽에서가. 경허난 옛날은 곤란허게 사는 시대

라 부난에 돈도 벌어다근에 결혼도 시키곡 허는 따문에. 경 허난 여자덜이 공부 안 헤영 물질헤연 이 우도 사람덜은 많이 저 이제 결혼허곡 살앗주. 물질허멍 살앗주.

@1 게난 자기가, 물질허멍 자기가 벌엉 시집갓구나. 그 돈, 결혼헐 돈 마련헹.

#1 응, 마련허곡. 마련허곡. 부모덜도 헤당 돈 드리곡게.

@1 돈 드리고예.

#1 벌어당 드리곡.

혼례일 결정 후 여자 집 방문

@1 돈 드리고예. 아이고. 우리 이제 사주 봥예, 이제 날 봥예, 결혼 날짜까지 받아수다. 남자 집에서 결혼 날짜 받안예. 그민 그 날 받은 거를 여자 집이 가졍갈 거잖아예. 어떵 가져갑니까, 누게가 가졍 갑니까?

#1 중매쟁이가.

@1 중매쟁이가.

#1 이제 결혼 날짜, 날 잡궤렌 헹 중매쟁이 사주팔자 이제 다 좋덴 헤근에 헌 거 나오민 거 다 책에 다 씨어 주주게. 겨민 앗다다 주주게.

@1 앗다다 줘. 그때 중매쟁이만 갑니까, 아니민 남자 칩이 어른도 누게가 ᄀᆞ치 갑니까?

#1 아니, 중매쟁이만 우선 거, 걸 앗아가민 그디서 좋덴 헤근에 받으민 이제 낭중엔 이제 서로 여자 저, 사돈 대우도 허곡. 가근에.

사돈 대우

@1 사돈 대우 허는 건 결혼 다 헤난 다음에 허는 거 아니?

#1 아니, 그자 얼굴 가근에 서로 보젠 허민 술자리에 앚아근에게 서로게.

@1 거난 잔치허기 전에 결혼허기 전에 미리.

#1 ᄉᆞ주, ᄉᆞ주 좋덴 헤여근에 허민 훈번 만나주게.

@1 아, 사돈 대우를 헙니까?

#1 응. 훈번 만나주게.

@1 훈번 만나.

#1 원 안 만나민 질이서라도 만나민 뭐엔 헐 거라.

@1 아고게, 맞수다게.

#1 게, 만나근에 이예기 헤나사 사둔인가 알곡. 사둔님 서로 헤여근에 이제 넘어 뎅기멍도 이예기 허곡 허주.

@1 아, 그민 중매쟁이가 날 잡은 건 가져가고 그 후에 다시 사돈이 가는구나예.

#1 응. 남자 쪽에서가 가주.

@1 남자 쪽에서가 여자 집에 가는 거. 게민 그거 사돈 대우 허는 거렌 헙니까?

#1 어게, 사둔.

@1 몇 명이나 갑니까?

#1 몇 명 안 가.

@1 누게 누게가 가, 그럼?

#1 그거는 서로 허는 거는 그 집이서만 기자 가근에 저, 신랑 끔 허곡 아방 허곡 가주.

@1 둘이. 아방이영 신랑 곰이영?

#1 응.

@1 게난 저기 여자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구나.

#1 으게, 인사드리레.

@1 날 나오고 허난.

#1 으, 으.

@1 그때 뭐 가져갑니까? 남자 집에 뭐 가져가는 건 어수꽈?

#1 가져가는 건 엇어.

@1 엇어. 그냥 몸만 가.

#1 가근에, 가근에 저 허민 기자 그날 술자리 거튼 딘 가민 기자 그 술 내는 건 남자 쪽에서가 내지. 만약에 서로 술자리에 가근에 앚앙 말허젠 허민 술자리 앚아사 뒐 거아니?

@1 아니, 게도 지금이야 뭐 식당들이 이시난 술자리가 강 남자 집에서 돈 내고 하지마는 그때는 옛날에는 여자 집으로 인사 가는 거꿰?

#1 응. 집으로 인사 가는, 인사 가민게, 그거는 또 여자 집이서 내놓고. 내놔근에 손님 가시난 대접헤 살 거 아니?

@1 그지 먹을 거예.

#1 먹을 건 아니고 기자 술.

@1 아, 밥은 안 주고.

#1 응. 밥은 안 혀곡게. 밥은 안 혀곡 기자 술 거튼 거나 허곡. 술 못 먹으민 저 이젠 커피나 잇나. 그땐 무시거 커피도 엇곡 기자 술자리 못 먹어도 기자 영 받아근에 기자 뭐 허는 거주.

막펜지

@1 그것만 헹 대접할 거라마씨. 여자 칩에서 그거 대접할 거 남자 칩이 만낭예. 아이고, 기구나. 삼춘 혹시 막펜지렌 허는 거 들어봐수꽈?

#1 무시거?

@1 막펜지.

#1 막펜지? 펜지?

@1 응. 막펜지렌 헙디다. 사주 봐 가지고 날짜 나온 거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가져가는 걸 영 막펜지렌 골읍디다마는.

#1 ᄉᆞ주, ᄉᆞ주.

@1 그냥 ᄉᆞ주렌 헐 거.

#1 응. 이디선 사주엔 헤낫주. 그건 내나 중매헌 사람안틸로. 사주는, 사주는 그 중매헌 사람안틸로 이제 영 헨에 사주가 좋덴 행 이제 주민 그 중매헌 사람이 앗다다 주는 거.

@1 결혼 날짜 나온 거. 그거 적어진 거는 뭐렌 헙니까?

#1 ᄉᆞ주.

@1 그것도 ᄉᆞ주렌 헐 거? 아, 그거 막편지렌 허는 건 안 들어봣구나예.

#1 응, 안 들어 봔.

혼수

@1 이제 신랑 집이서 왕 인사도 다 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헐 거예. 여자 집이서는 뭐, 뭐 준비를 헤사 뒈니까, 결혼 준비헐 때?

#1 결혼 준비헐 적에?

@1 입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옷예, 옷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불 가져갈 것도 준비해야 되고.

#1 아니, 옛날은 저, 이불 이불자리허곡 이녁 입엉 오는 옷 허곡 시아방 이시민 시아방 옷 ᄒᆞᆫ 불 허고, 시어멍 이시민 시어멍 옷 ᄒᆞᆫ 불 헤영근에 기자 그걸로 헤여근에 기자 시집완.

@1 게민 자기 옷 한 불.

#1 아니, 자기는 그디서 헤영 입는 거난에 헤영 입엉 오는 거난 허곡 시집이 앗앙 오는 거난 이불자리.

@1 몇 채?

#1 ᄒᆞᆫ 채. 옛날은 ᄒᆞᆫ 채가 보통. ᄒᆞᆫ 채. 요강까장 앗앙 와낫주. 옛날에 요강 단지 그 오줌 누는 거.

@1 이불자리 ᄒᆞᆫ 채렌 허민 까는 요 하나.

#1 요허고 이불허고 베개 두 개허고 자부동 두 개허고.

@1 아, 자부동 두 개도 ᄒᆞᆫ 채에 들어가는구나.

#1 꼴레 이불 하나허고, 담요 하나허고 경 헤근에.

@1 아, 그민 꼴레 이불 하고 담요도 다 이불 ᄒᆞᆫ 채에 들어가는 거예.

#1 응.

신부 치마저고리

@1 아아. 게민 이거 미리 준비헐 거고예. 시아방 옷이랑 시어멍 옷도 한 불씩 여자가 준비허는 거마씨?

#1 응. 여자가.

@1 여자가 준비허는 거.

#1 게민 이 시집이선 메느리 옷.

@1 신랑 옷.

#1 아니.

@1 아들 옷.

#1 아들 옷은 뭐 그건 굳으나마나 헤영 입엉 가주마는, 결혼허레 입엉 가는 거주마는. 저 무시것고 메누리, 누게 시할망이 이시나, 이제 시 쪽에 시이모가 이시나, 시고모가 이시나 허민 저 메느리 찍신 그 메느리, 들어오는 메느리 옷 ᄒᆞᆫ 불썩 다 헤영 걸어. 걸어근에 영 헌 디 벳줄 걸어근에 그 여자 신부 앉을 방에 다 옷 걸어.

@1 게민 이거는 시어멍이 헤 주는 옷. 이거는 시고모가 헤 주는 옷. 이거는 시어멍의 누구누구, 큰어멍.

#1 만약에 큰어멍이 이시민 큰어멍, 시할망이 이시민 시할망.

@1 아이고. 식구 하면 옷 하영 받으쿠다.

#1 응. 식구 하민 옷 하영 받주게.

@1 그거 한 불씩 헹 다 헤 주는 거마씨? 준비하는 거. 아이고, 삼춘은 경헹 몇 불이나 받아수꽈?

#1 나도 ᄒᆞᆫ 다섯 불.

@1 아이구.

#1 게난 옛날은 멩지옷을 많이 헤낫어. 멩지옷. 멩지로 허여근에 헌 거. 죽엉 갈 때도 입는 거 그 멩지옷 헨에. 이젠 그 멩지로 험이랑 말앙 죽어도 이젠 베로 빙빙 베 ᄒᆞᆫ 베 행 감아근에 다 화장시켜 부는 걸. 아이가이고.

@1 맞아. 우리 그럼 결혼허기 전에 그런 옷 만들젠 허민 옷 만드는 날도 이십디다예. 이불 허는 날도 잇고.

#1 그건 저 만드는 날도 잇고, 저 이디 초상도 나민 집이서 다 이 초상 난 집이서 다 만들엉 이 옷덜 만들엉 입져난. 입어낫어.

@1 그지예. 상제 옷들 다 만들엉 입어난 거예. 상제 옷들 말고 우리 결혼허젠 허민 우리 딸 아이고 이제 시집보내젠 허난 한복, 여자 치마저고리도 만들어살 거잖아예.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거예. 장옷도 해야 될 거고예. 그거 만드는 건 누게가 왕 영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영 누게한테 메낍니까?

#1 집이서 저 초상 이 시할망덜 잇어난 할망덜은 다 옛날 옷 다 만들멍 입어 부난 다 만들어.

@1 집이서 만들어.

#1 집이서 다 만들어.

@1 삼춘 시집갈 때 삼춘이 입은 치메 저고리는 누게가 만들어 줘수꽈?

#1 우리 시어멍네.

@1 시어멍네. 시어멍네가 만든 거 잇고. 우리 집에서 올 때. 친정집에서도 입엉 올 옷은 만들 거 아니우꽈예.

#1 친청에서도게, ᄒᆞᆫ 불은 다 부모가 다 만들어 주난게.

@1 만들어 준 거.

신부옷

#1 게난 멩지옷 세 불까장은 입언 와낫어. 옛날에. 옛날엔 우리 시집갈 땐 옷 세 불, 세 불 입어근에, 멩지옷 제일 우이 입으곡, 속엔 인주 옷, 인주 옷이라도 입어근에 헤고. 유동, 옛날엔 유동 치메, 양단 저고리, 양단 치메 그런 거 다 헨 만들언에 입엇주.

@1 세 불 입었다는 건 친정에서 세 불을 만들어 줫다는 거?

#1 응. 만들어 준 거 입어 앚아근에 시집오는 날 와.

@1 와, 그치예.

#1 게민 이제 막 우이, 안네 옷 흔 불만 넹겨뒁 두 불은 벗어 뒁 이디 오랑 또 입져. 밥 먹어나민 다 입져.

@1 여기는 시댁에서 시어멍이 만든 거를 다 입져예. 밥 먹어나민. 게민 아까 친정에서 세 불을 만들어 신디 그 세 불을 다 입엉 오는 거꽈?

#1 입언 와.

@1 꼉 입엉 와?

#1 응. 옛날에 입엉 와.

@1 그민 치마를 세 개를 입었다는 얘기꽈?

#1 응.

@1 아이고, 무사?

#1 속곳 입곡, 바지, 옛날은 바지 다 만들엉 입어.

@1 아니, 그거는 당연하지만. 그게 한 벌이우께. 안에 속곳 입고.

#1 옛날은 다 경 입어낫어.

@1 그니까, 그게 한 벌이지. 치마저고리를 세 벌 만들엇덴 헹 그 세 벌을 다 걸친 건 아니잖아예.

#1 다 입어.

@1 다 입어? 치마 입엉 또 치마 입고 또 치마 입어?

#1 응. 경헹 두 불 벗어 뒁, 막 속에 저 무시것고 속치메만 안 벗어. 속저구리 허곡 아니 벗어근에 두 불은 벗어 둬근에, 이디 시집이서 헤 준 거 또 두 불 입구정 허민 두 불 입곡, 흔 불 입구정 허민 흔 불 입곡.

결혼날 한복 착용

@1 이따 불어 볼 건데 먼저 물어 보쿠다 삼춘예. 삼춘, 결혼하는 날 옷을 한번 입어 보게마씨. 지금 멘들락하게 벗어수다예. 옷 하나씩 입어 봅서. 멘 안에 뭐 입어수꽈?

#1 속곳.

@1 속곳. 예. 그때는 팬티 아니라예.

#1 으.

@1 속곳, 속곳 입엇어예.

#1 속곳도 남자영 아니 눕젠 옛날 사람덜은, 남자영 제기 누민 애기 제기 생기민 애기 제기 어릴 때 나민 이제, 자기가 자유스럽게 못 다니곡 육지도 못 뎅기고 헐 거난 속곳도 옛날엔 두 개 입어낫젠 헌 말이 잇어. 우리는 안 입어낫주마는. 두 개 입어난. 영 입곡, 영 입곡.

@1 영 입어. 여기 둘메기 다 무꺼 불고, 여기 둘메기 다 무꺼 불고. 들어수다게. 들어수다, 들엇어. 삼춘은 경 안 헷구나예. 맨 안에 속곳 ᄒᆞ나 입고. 속곳예. 속곳은 어디까지 오는 거꽈? 이 가슴도 막아지는 속곳?

#1 응. 가심 막아지주. 일로 영.

@1 여기 헹 예. 여기까지 헹 이어진 거.

#1 영, 요까장.

@1 요까장. 게민 우에는 친으로 무끄는 거꽈? 아니민 여기 둘메기 ᄃᆞ는 거꽈?

#1 이딘 둘메기 돋고, 이딘 일로 이렌 둘메기 돋고, 여기는 곰 헤여근에 영 헹 영 무꺼.

@1 영 무꺼예.

#1 준등이.

@1 준등에 묶곡예. 여기 어깨 친은 엇엇지예.

#1 어깨 친은 한쪽.

@1 한쪽은 잇어나수꽈? 게민 우리 물질헐 때 입는 속곳이랑 똑같은게.

#1 응. 똑ᄀᆞ타.

@1 똑같아예. 그 속곳을 안에 입어수다. 그다음에 우이, 속곳 우이 뭐 입어수꽈?

#1 속치마.

@1 속치마. 예. 이거 입고 그다음 뭐 입어수꽈?

#1 속저고리.

@1 그다음에 뭐 입어수꽈?

#1 그다음엔 또 옷 흔 불 입곡.

@1 속치마 안에 바지 같은 건 안 입어수꽈?

#1 바지 입주게.

@1 바지 입엇지예. 속옷 입고 속바지 입엇지예. 그리고나서 속치마 속저고리 입을 거예.

#1 응. 바지.

@1 입언예. 자, 속저고리 입고 그 우이 치마 한 불 입고. 저고리 한 불 입고.

#1 응.

@1 그다음?

#1 또 치마 입고, 또 저고리 입고.

@1 저고리 입고. 또 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진짜 세 불 입엇구나.

#1 경허민 두 불 벗어 둬근에 속치마 속저고리만 아니 벗어근에 두 불 벗어근에 여기서 두 불은 또 입어.

@2 멩지, 멩지, 멩지 이렇게?

@1 아니, 그민 삼춘 세 불이렌 헌 건 속치마랑 속저고리까지 포함헹 세 불이구나.

#1 응게.

@1 아, 예. 그거까지 포함헹 세 불.

#1 그거까장 포함헹.

@1 속치마, 속저고리까지 입고 우에 유동 치메 입어수꽈 멩지 입어수꽈?

#1 막 우이는 멩지.

@1 멩지. 삼춘 막 우이, 치마저고리 우이 다시 장옷도 입어수꽈?

#1 응. 장옷. 씨는 거 영.

@1 씨는 거.

#1 영 머리까장 영 씨영.

@1 게민 장옷은 멩지엿지예.

#1 응.

@1 그다음 치마저고리도 멩지여난?

#1 응.

@1 그 멩지 치마저고리 안에는 무슨 치마저고리라수꽈, 뭐로 만든 치마저고리여수꽈?

#1 건 뭐, 저, 양단 입젠 허민 양단 입곡, 유동으로도 치마 입곡 저고린 또 멩지 저고리도 허곡 경 허연.

예복 바느질하는 사람

@1 경 헤연. 겉에는 멩지 치마저고리 입고 장옷 쓰고예. 막 하영 준비헤사큰게. 그거 미리 준비허는 거예. 그 옷 만들 때 궨당들이 모영 바느질을 허잖아예. 그거 바느질헐 때 이런 사람이 바느질헤야 된다.

#1 저 것도 바농질, 결혼 옷 허는 디 바농질 허는 것도 저 이디 신랑 죽어 분 사람은 골라.

@1 골라예. 애기 엇인 사람도 안 뒈어예.

#1 신랑 각시 잇인 사람이 그런 결혼허는 디도 만들어, 옷.

@1 그치예. 그것도 굴령 맡겨.

#1 응. 굴령.

혼수 준비, 이불

@1 맞수다. 이불 허젠 헤도 막 이불 허는 것도 왕 누게가 도와줘야.

#1 응, 맞아. 것도 이불 허는 것도, 이불 꼬메는 것도 이녁 집에 사람 엇이민 누게 동네 사람이라도 다 신랑 각시 잇인 사름 오라근에 ᄀᆞ치 도와줘. 이녁 집이 사름 잇인 사름은 이녁 집이 사름이.

@1 게난 옛날에 이불은 지금이야 강 돈 주민 사주마는 옛날에는 그 솜 허멍.

#1 솜 다 헤다근에 다 태와근에.

@1 응. 그게 이 우도에도 잇어나수꽈, 솜 태우고 허는 디가?

#1 우도에도 잇어낫주. 솜 태우는 거.

@1 솜 태우는 거마씨? 게민 삼춘네는 어렸을 때 여기서 멘네 허고는 안 헷지, 우도는예.

#1 우린 저, 미국 솜 헤단에, 부산 간 솜 사단에 헤낫어.

@1 아, 부산 강. 물질 갓당 사 온 거꽈, 역불로?

#1 아니, 아니. 역불로도 사 왓주마는 저 무시것고 부산서 솜, 미국 솜이엔 헌 거 사다근에, 이제도 그거 잇어. 그 솜.

@1 그니까 시집올 때 삼춘이 헤 온 그 이불 솜이 이수꽈?

#1 아니, 그건, 이녁 뭐 헌 건 데껴 벳저마는 메느리 헐 적에, 메느리 헤 올 때게 그거 부산 갓단에 헤 와낫주. 헤 완에 이불 꼬멩.

@1 아, 메느리 헐 때는 부산 강 헤 왓구나. 삼춘 헐 때도 부산 강 헹 온 거?

#1 건 이디서 기자 멘네 소게 헨에.

@1 그지예. 여기서예. 삼춘 할 때는예. 이 우도에도 멘네 갈아나신가?

#1 아니, 아니.

@1 아니, 그민 배 탕 어디 강 나강 상 왓구나. 헹 왓구나.

#1 제주시 안 가민 저 부산, 이디 우도 사람덜은 육지 다녀 부난, 육지 많이 다녀 부난 부산 가근에 육지 강 올 때민 기자 그 멘네 소게 헤 아졍 오라. 영헌 포에, 영헌 저 종이포에 싸진 거, 그거 헤근에 딱 무꺼근에 이불 혼 채 헐 거 헤여근에 딱 무꺼 주건에 그디서 멘네 상 오라근에 이디 왕 꾸며근에.

@1 그민 막 태우지 안 헤도 뒈니까?

#1 그디서 혼번에 다 태운 거.

@1 태왕 오는 거?

#1 태운 거 영 장, 장 영 헤근에 고비, 고비 딱 헤근에 멘네 이런 종이포에 헹 딱 허민 그디서 다 봉헤줘근에, 상 올 때 봉헤근에 딱 헤 주어. 게민 그거 객선에 사 앚앙 와근에 집이 왕 꼬메근에.

@1 그민 꼬메는 거 이불 겉, 요거만 영 씌우민 뭘 거마씨?

#1 아니. 솜만 상 오민 솜 영 영 놓아근에 저, 시마지 헤여근에 영 헤근에 응, 솜 놔근에 이제 이불 뚜꺼우게 얼마만큼 뚜꺼운 거 헤여근에 딱 허게시리 헤영, 헤영 줍재와근에 그거 낭중에 시집갈 고리에 이제 꾸밀 거주.

@1 아, 게난 솜만 사 오는 거 맞은게. 이불 뚜께에 맞게 놓고 하는 거 다 집이 왕 할 거.

#1 응. 이디 왕 다, 집이 왕 놔.

잔치준비, 이바지

@1 집이 왕 놀 거예. 예. 자, 이제 입을 옷 준비 뒀고 이불도 준비 뒈수다예. 잔치 막 가차와 가민 먹을 것들도 준비헤야 뒈잖아예.

#1 게민 돼지도 막 일 년에 저, 돼지 이 년썩 질루와. 옛날엔 벤소 헤여근에 그디 저, 이디 강 화장실 봐 나지 안헷어 돼지. 똥, 똥돼지 먹어근에 똥 먹는 돼지. 거난 돼지 헤근에 멧 년 질루와근에 저 신부 집이 하나 가져가고. 술, 옛날엔 춘으로 헤낫주. 춘 헤근에 ᄒᆞᆫ 춘에 술, 저 돼지 ᄒᆞᆫ ᄆᆞ리 앗아가고. 또 이녁 집이 쓸 건 이녁 집이 사옴도 허곡. 옛날에.

@1 어디서 어디에 가져가마씨? 돼지영 술 춘이영?

#1 술 ᄒᆞᆫ 춘에, 옛날엔 춘 영헌 영 모가지 영헌 춘 잇어낫주게. 그런 것에 술 ᄒᆞᆫ 춘헤여근에 담곡, 돼지 ᄒᆞᆫ ᄆᆞ리 허곡 헤근에 여자 집이 앗아가.

@1 남자 집에서? 아, 그거 보내는 거.

#1 돼지. 응. 그거.

@1 돼지 한 마리를 보낼 거꽈?

#1 응. 산 차.

@1 산 차. 게민 이거 가졍 강 잔치헙서 헹 보내는구나예. 게난 삼춘도 그거 받아수꽈?

#1 받주게. 나 안 받을 리가 잇어? 옛날은 다 그거지. 뭐 다, 다 경 뒈 분 거주.

@1 게민 여자 집에서는 돼지 따로 안 키워도 되는 거구, 장만 안 헤도.

#1 무사, 옛날은 돼지, 고기로만 행사헤 부난 이제 거뜨민 밥도 허곡 뭐 모든거 다 헤여근에 허주마는 옛날엔 고기허곡 술허곡 기자 커피도 없고. 경 헤근에 대접헤낫주게. 부지 온 사름.

@1 게민 보통 결혼헐 때 돼지 멧 마리를 먹읍니까, 잔치헐 때?

#1 ᄒᆞᆫ, ᄒᆞᆫ 칭짜리 세 마리썩.

@1 삼춘네 헐 때도마씨?

#1 응. 세 마리. 남자 칩인 네 마리도 먹곡.

@1 아이고 우도는 막 통 크게 먹엇다.

#1 경 헹 막 싸 주주게.

@1 그거는 아들 풀 때 말고 삼춘 풀 때도 경 먹어수꽈?

#1 두 ᄆᆞ리, 건 집안 엇인 집안은 하영 안 먹고 집안 잇인 사람은 하영 먹고 경헨.

@1 응. 게난 한 마리 더 먹었구나. 두 마리는 먹었구나예. 춘이랑 돼지랑 보내수다예. 남자 집에서예. 여자 집에서도 뭐 보리썰도 장만헤야 뒐 거고 풋도 장만허고, 김치 허는 것도 장만허고, 먹을 것도 준비헤야 뒈지 않읍니까예.

#1 허주게.

잔치 음식

@1 뭐 뭐 준비헤나수꽈?

#1 내낭 옛날은 보리썰에 풋에 허꺼근에 숧아근에, 저 보리썰 숧아근에 그거 헹 밥 헤멍 멕이곡 잔칫날. 잔치 전날은 안 헹 멕이고. 이녁 이녁 덥덜만 기자 영 그냥 모다 앚앙 먹는 거주, 저 소님은 밥 대접은 안 혀고. 고기만 대접, 고기 그자 두 반도 주고 세 반도 주곡. 게민 고기 싸 아졍 강 먹어.

@1 여긴 고기 되게 푸지게 먹엇다예.

#1 응. 고기. 경허난 세 마리도 잡곡. 덥덜 엇인 딘 두 머리도 잡곡. 남자 잇인 딘 세 머리 더 먹곡. 더 씨곡 경허주.

@1 게민예 우리 잔치 때 한번 생각헤 보게예. 잔치 때 올라가는 음식이 고기는 꼭 잇어야 뒈는 거잖아예.

#1 게.

@1 또 뭐 이십니까?

#1 옛날은 못 살아 부난에 게, 고기밲이 사용 잘 안 헤낫주게.

@1 밥, 그니까 잔칫날은 밥 국 잇잖예.

#1 밥, 기자 이녁 집안에 기자 모여 앚앙 먹는 거주. 소님 밥, 밥 먹을 때 들어오민 밥 안내고 경 안허민 밥은 안 줘낫어.

@1 밥 안 줘낫어? 잔칫날도마씨?

#1 아, 잔칫날은 밥 헤여근에 주곡. 저 이디선 ᄒᆞᆫ 삼 일 전에부터 부주 받는 따문에 저, 무시것고, 밥은 헹 멕이지 안 혀고 그자 고기만.

잔치준비 진행 과정

@1 고기만. 우리 잔치를 결혼을 하게 뒈면 며칠을 이렇게 날력 부립니까?

#1 사흘, 나흘.

@1 사흘, 나흘 다 부를 거. 옛날에는 뭐 결혼이 제주도는 칠 일 잔치헴저, 뭐 헴저 경도 긑읍디다마는. 여기는 사흘날이민 뒐 거꽈?

#1 사흘, 나흘 기자 덥덜 한 딘 ᄒᆞᆫ 나흘까장도 가곡 허주마는 기자 사흘이민 끝나 비어.

@1 삼춘 헐 때도 사흘이민 끝나 베? 그민 봅서예. 사흘 이렇게 잔치를 헐 거우다예. 맨 처음 하루는, 오늘이 잔칫날이우다예. 그 전에 하루는 뭐 허는 날이우꽈? 맨 처음은.

#1 이틀은 부주 받고. 삼일날은 잔치허는 날.

@1 시집가는 날예.

#1 응. 시집 장게 가는 날.

@1 이틀은 부주 받는 날인데 그민 첫날은 이날 도세기 잡읍니까?

#1 응. 쳇날 잡아.

@1 첫날 도세기 잡고.

#1 잡아근에 그날 덥덜덜이영 다 모다 앚앙도 먹곡.

@1 모다 앚앙 먹고. 그다음 결혼허는 날 두 번째 날은?

#1 두 번째 날은 부주 받고. 소섬 안에 사름 다 오주게.

@1 그민 이날은 밥 헹 먹이는 날예. 부주 받고예. 예, 이날도 밥 안 줘?

#1 밥은 안 주고 소님덜, 부주 온 소님덜은 안 주고. 이녁 덥덜덜은 삼시 밥 헹 먹주게. 일 보멍게, 밥

헹 먹어사 헐 거 아니?

@1 손님한테는 고깃반만 내우는 거꽈? 고깃반 내우고, 떡 같은 것도 안 허고.

#1 아니, 떡도 안 헤낫어.

@1 떡도 안 하고. 게민 고기 나오민 지금은 김치 잇어야 먹어예. 그때는.

#1 그땐 짐치도 엇엇저게.

@1 엇어. 그민 고기에 간장만 나올 거?

#1 응. 간장.

@1 아이고, 여자 손님한테는 술대접도 안 헐 거고예.

#1 술 남자덜은 술 먹엇자 여자덜은 술 잘 안 먹주게.

@1 게민 고기 잡는 날 하루, 부주 받는 날 하루, 결혼허는 날 하루. 요렇게 삼일. 이 결혼허는 날은 밥 헹 멕입니까?

#1 응.

@1 이 날은 멕이는 거. 이 전날은 멕이지 안헤여. 우리 말 중에 영 들어 보민 가문잔치렌 허는 말이 이십디다예.

#1 가문잔치는 저녁이 모여 앚아근에 돼지 썰어 놔근에 그디 뻬다구들이영 뭣덜이영 막 나누엉 먹는 거. 가문잔치.

@1 어느날 저녁이?

#1 내일 결혼식날이민 오늘 저녁이.

@1 게난 전날 저녁이 궤기들 나눠 먹는 거.

#1 뻬다구들이영 막 모여근에 썰어난 거 모여 놧다근에 그런 것덜이영 다 문딱 헹 거 가문잔치엔 헌 거 허는 거.

@1 게민 그 가문잔치에 동네 사람들도 오는 거꽈, 아니민 방상들만, 덥덜덜만.

#1 방살들밲이 아니 와. 동네 사람은 안 오곡.

@1 아, 안 오고. 덥덜덜만. 덥덜덜만 오는 거예. 방상들만 오는 거예. 겅헹 그거 가문잔치렌 헐 거예. 여기에 순대 같은 거나 둠비 같은 건 안 만듭니까?

#1 무시거?

@1 순대.

#1 순대?

@1 수에. 수에.

#1 게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잘 엇어.

@1 둠비.

#1 둠비?

@1 두부, 두부.

#1 아, 두부도 그 시절엔 안 헨.

@1 아, 오로지 고기만 숢앗구나예.

#1 응. 고기만.

@1 우리 그 돼지 잡는 날은.

#1 그 배설 헤근에 다 삶아근에 거 가문잔치에 배설 ᄀᆞ튼 거, 뻬다구 ᄀᆞ튼 거 막 헤영 모다 놧다근에 그 가문잔치에 그런 거 먹어.

@1 그런 거 먹어.

#1 그때는 순대도 담지도 잘 못 헷고. 그거.

@1 게난 두부도 안 하고, 순대도 안 하고. 우리 보면 가문잔칫날 돼지 삶아난 국물에 몸 놘 막 국 끓인 덴 헙디다예. 그건 헤수꽈?

#1 응, 그건 헹 먹어.

@1 그건 헹 먹어. 그민 그것도 동네 사람들 부주 주레 온 사람들 멕이는 게.

#1 아니. 이녁 덥덜덜만. 집안. 방상.

@1 여기 진짜 말 그대로 가문잔치다. 진짜 말 그대로 가문잔친게.

#1 방상들만 먹어.

그릇제

@1 기구나예. 잔치 허젠 허민 그니까 어쨋든 그릇들도 하영 필요할 거고.

#1 그릇 ᄆᆞ을에, 저 이 동네서 이 무시거 행사 허젠 허민 저 이디 그릇 헤다 놔근에 행사헐 때 먹는 그릇들 사다 논 거 잇주게. 그런 거 다 앗다다근에.

@1 삼춘네도 결혼헐 때도 그런 거 잇어나수꽈?

#1 응.

@1 그민 그릇 그런 거 마을에서 사다 논 거 뭐 그릇제 헴저 헙니까?

#1 그릇 그거.

@1 제렌 안 헤?

#1 그릇.

@1 계.

#1 제?

@1 그릇접.

#1 아, 접은 안 혀고 그자 그거 헤나민 엇어지민 엇어진 거 설어 놓고, 사다 놓고 값 얼마 기자 저, 그거 씨어 난 거, 그때 씨어난 거 돈 얼마 줘.

@1 돈 얼마 주는 거예. 거난 그릇 마을 거 빌령 왕 쓰고. 천막 거튼 것도.

#1 천막 거튼 것도 동네에 거 그추룩 헌 거, 동네 거 빌어다근에 씌와 놩 그런 것도 기자, 얼마 기자, 영 헹 돈 주고 경 헨.

@1 게난 그때 그 옛날 삼춘네 결혼한 시기도 그릇 접이랑 천막 빌리는 게 잇어낫구나예.

#1 응, 잇어난.

도감

@1 잇어난예. 우리 그런 잔칫날 보민 고기 써는 사람이 따로 이십디다예.

#1 응. 도감이.

@1 도감예.

#1 도감. 옛날 도감.

@1 도감. 그 도감은 주로 누게가 마탕 헙니까?

#1 그건 이 동네 사람 이시민 동네 사람 빌고. 또 이 동네 사람 엇이민 웬동네라도 강 빌어 와. 거 써는 사람들 옛날에. 이제 사름, 이젠 보통 다 고기도 잘 썰곡 뭐, 이제 신식 사름덜은 다 잘 썰주마는 그 땐 도감이엔 헌 사름 남자 빌어근에 헤난.

@2 남자?

@1 남자여야 뒙니까?

#1 응. 남자.

@1 여자 아니고 남자라예.

#1 응. 남자가 썰어.

@1 예. 남자가 헤난.

#1 우리, 우리 그 시절에는 남자가 썰어낫어.

@1 삼춘, 여기는 하고수동이라예. 삼춘 아까 웬동네렝 허던데 웬동네는 어디 사람들이꽈?

#1 이 건너펜에 동네가 웬동네엔 허주.

@1 게민 여기 하고수동이면 저기 중앙동 사람이든.

#1 아, 저 삼양동 사람이나 전월동 사람을 놔근에 웬동네.

@1 웬동네렌 헐 거예. 게민 웬동네렌 허민 저기, 배 탕 고성 사람이나 그런 디는.

#1 아니고.

@1 아니고 어쨋든 웬동네렌 글앗구나예. 게민 거디 사람이라도 빌려 올 거. 고기 써는 건 도감이 헤수다. 잔칫날 술 영 마탕 아이고, 저 손님한테 술 한 잔 드리라, 이 손님한테 저기도 술 한 잔 갖다 드리라, 그렇게 담당하는 술도감도 잇어나수꽈?

#1 아니, 술도감은 별로 없고 그자 도감이 그자 고기만 마탕 허민 그자 술도 잡수고장 허민 술 주곡 기자 술 먹는 사람은 술 주곡.

@1 어쨌든 삼춘 도감이렌 허민 고기 써는 사람이라예. 그민 아까 나가 술도감이렌 헤신디 그런 말은 잇어나수꽈?

#1 엇어.

@1 엇어예.

#1 술도감은 엇어.

@1 엇어예. 그민 예전에 그런 잔치 때 부엌 정지에서예, 밥헐 때 그런 밥하는 거를 마탕 허는 어른 할망 어른.

#1 응. 할망들 잇어난.

@1 잇어난예. 그런 할망을 불르는 이름은 따로 잇어나수꽈? 혹시 저기, 솟밋할망은 누게가 할 거꽈? 저기 강 웬동네 강 누구누구 솟밋할망 빌령 옵서.

#1 동네서 기자 부엌에 들어근에 잘 허는 할망덜 이시민 기자 그 할망덜 왕 도와 줘.

@1 게민 그런 솟밋할망 하는 말도 엇어예.

#1 응. 엇어.

이바지

@1 응. 그런 거 안 들어 보고. 없었고. 삼춘 우리 옛날에 이바지렌 허는 거 들어봐수꽈?

#1 어?

@1 이바지.

#1 이바지? 이바지는 그 게난 사돈칩이 그 뭐 음식[임식] 헤여근에 술이영 돼지 다리영 헤근에 저, 숢은 거, 돼지 다리도 다리 통차 다리 하나, 흔 각 허곡 술 흔 뒈 허곡 헤근에 그걸 이바지로 앗아 가낫주.

@1 그민 그건 여자 칩이서 남자 칩에, 아니민 남자 칩에서 여자 칩,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이바지꽈?

#1 남자 칩이서가 여자 칩에.

@1 남자 칩이서 여자 칩. 그 이바지는 언제 가졍 갑니까?

#1 그건 저 뭣고, 결혼헤영 뒷날.

@1 뒷날, 예.

#1 남자 칩이서 저 여자 칩이 보내민 친정에 갈 거 아니라게. 게민 보내민 또 여자칩에서도 또 보내는 집안이 잇고, 안 보내는 집안이 잇고.

@1 아, 그민 이바지는 이렇게 왓다 갓다 허는 거 다 이바지렌 허는 거구나예. 아, 보내는 집 잇고, 안 보내는 집 잇고. 이제 삼춘 우리.

@2 뒤로 직산 헤사 뒐 거 닮아.

@1 여기 직산 헹 앉읍서.

#1 아고, 나 머리 아프다.

@1 머리 아파? ᄒᆞ끔 더 하게.

@2 ᄒᆞ끔 더 헤야 뒐 거난. 다리 불편하니까.

@1 ᄒᆞ끔만 더 하게예.

#1 오래 앚안 말헤지 안 헤나 부난.

@1 아이고, 오래 앚앙 말하지 안헤나난.

#1 머리 아판게.

@1 물 하나. 물 한 병 드십서.
@2 물 가졍 왔어요?
#1 너무 오래 말헤가난. 말 오래 안 헤나 부난 막.
@1 ᄒᆞ꼼 이땅 오카 그럼? 좀 쉬엇당?
#1 ᄒᆞᆫ꺼번에 허여.

결혼 당일, 신부 준비

@1 우리 오늘 결혼식 잔칫날 뒈수다. 잔칫날. 잔칫날예. 삼춘, 여자 집이 잔칫날 아침이 어떵 헐 거꽈? 여자 집이라예. 여자 집에서예. 아침이 일어낭.
#1 무시거. 아침에?
@1 결혼허는 날. 오늘 시집가는 날이라예. 전날은 막 손님 받으멍 음식 먹고 할 거잖아예. 가문잔치도 밤에 전날 끝낫고예. 가문잔치 끝낫고 오늘 전날 결혼허는 날 아침이우다. 여자칩이서는 일어나민 신부 어떵 헹 잇일 거꽈?
#1 어떵 헹 잇어? 어떵헹 잇어, 기자 이녁 결혼식 나갈 시간, 가메 타근에 갈 시간 전엔 집이서 이녁 일 볼 거주 뭐.
@1 일볼 거라예. 아니, 옷도 입어살 거고. 머리에 뭐도 써야뒐 거고 헐 거잖아예.
#1 게. 헐 거주게. 시간 전에는 아침이 일어나민 시간 전에는 아침이 일찍 저 시집 가지 안 혈 거난에, 결혼허지 않을 거난에 아침인 이녁 집이서난에 이녁 집안일 보다근에 시간 뒈 가민 출려근에 갈 거주.
@1 보통 시간이 한 거의 대부분 아침.
#1 거저 ᄒᆞᆫ 아홉 시나 뒈 가민.
@1 아홉 시나 뒈 가민예. 그민 그 아홉 시라고 하는 건 남자가 여자 집이 들어오는 시간인 거잖아예. 아니면 남자가 집에서 떠나는 시간이든지.
#1 그건 딱 시간은 그디서 남자 쪽에서가 멧 시에 갈 거엔 이야기 허민 그 시간에 남자가 와 가민 여자가 또 준비헤야주게.
@1 그니까. 준비허는 거. 뭐 준비헐 거꽈? 여자가.
#1 뭘 준비헤여게. 이녁 옷 골아 입곡 기자 뭐 헐 거주게.

신부 화장, 머리 단장

@1 치마저고리 입고. 화장 안 헤수꽈?
#1 무사 화장 안 헤게. 화장도 다 헤사주.
@1 이 화장은 누게가 헤 주는 거꽈? 누게가 왕 도와줘수꽈?
#1 화장은 이녁대로 헤여근에 허곡게. 허는 사람 잇곡게.
@1 머리는?

#1 머리도 옛날은 무신 머리 기자 빠마도 안 혀곡 기자 낭지 헤근에 영 빙빙 낭지. 머리 다와근에. 영 낭지.
@1 낭지. 그믄 이건 이녁 머리로 허는 거 아니민.
#1 이녁 머리로도 허곡 또 놈이 머리도 드리우는 사람은 드리곡.
@1 예. 그 놈이 머리허젠 허민 어디 강 빌려 와살 거 아니?
#1 빌어 와사주.
@1 그건 어디 강 빌어 오는 거꽈?
#1 그건 옛날 할망덜 거 낭지 머리 허는 거 헤영 놔두는 할망덜 잇어.
@1 동네에. 아.
#1 그거 헤여근에 영 다와근에 건지 예껴근에 영 예껴근에 딱.
@1 그 머리 그 놈이 머리 가져 왕 이 낭지 허젠 허민 건지 여끄젠 허민 아무나 못허잖아예. 누게 왕 도와줘사지예.
#1 게. 도와줘사주게. 어른덜이.
@1 어른들이. 그민 그거 동네 방상 어른, 덥덜 어른덜이 왕 도와주는 거꽈?
#1 게.
@1 그걸 전문으로 허는 사람은 어수꽈?
#1 옛날 할망덜은 보통으로 거 머리 키와근에 영 헹 뒤에도 헹 비네 찔르곡 허난에 나이든 사람덜은 보통으로 머리 길르는 따문에 헤나 불민 허는 사람덜이 잇어. 동네에.
@1 동네 어른들이 하는 거. 그민 그 어른이 왕 도와줄 거구나예. 그민 이거 낭지 허고 허는 거라. 아까 놈의 머리렌 허는 거는 이거 뚠머리렌도 굴읍니까? 그냥 놈이 머리렌 굴을 거꽈?
#1 건지머리엔 허주.
@1 건지머리렌 헐 거예. 이 건지 머리는 그냥 길게만 따왕 잇인 거.
#1 응. 질게 다운 거.
@1 질게 이렇게 따왕 한 줄로만 뒈 이수꽈, 여러 줄로 뒈어 이수꽈?
#1 두 가달.
@1 두 가달로. 두 가달로 따우면 그걸 이녁 머리에 붙영 영 돌리멍 건지 여끌 거. 게민 우리 찔르는.
#1 비네.
@1 비네 찔르고. 비네 찔르고. 비네 다 찔르고 허민 우에 뭐 써야 뒈쿠다예.
#1 거, 쪽두리, 저 저 멘사포 영 저 뭣고 옛날은 **옷 닮은 거 영 헨 둘러 씨는 거주게. ᄒᆞᆫ 불은 입곡 우이 영 씨어근에 얼굴, 눈만 베롱허게시리 헤근에.
@1 아, 그민 그거 장옷으로 영 둘러쓴 거잖아예.
#1 응. 장옷으로.
@1 여기에 족두리는 안 써수꽈?
#1 안 써난.

@1 족두리는 안 쓰고. 멘사포는 안 허고?

#1 응.

@1 그냥 머리만 올령 요거 썻구나예.

#1 옛날 우리 헐 땐 기자 머리, 그 건지머리만 영 헤낫주, 멘사포 거튼 거.

@1 아, 저기 뭐도 없고

#1 응. 족두리도 없고.

@1 족두리도 없고. 연지곤지 헤수꽈?

#1 연지곤지도 안 혀고.

@1 안 하고. 연지곤지도 안 하고예. 좋수다. 삼춘 옷 입엉 어디에 앉앙 잇어나수꽈? 방에.

신부의 집으로 온 신랑,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이동

#1 방에? 이런 딘 ᄀᆞ치 이제, 여자 쪽에 우시덜이엔 헌 사람들 오곡, 허민 한가운데 앚아낫주.

@1 아니, 보통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올 때 여자는 얼굴 보민 안 뒌덴 헙디다, 신부.

#1 게난 영 씨어 불민 얼굴 안 보주기. 딱 영 저 뭣고, 그 멘사포 씐 우이 영.

@1 장옷, 장옷.

#1 장옷 씨어 불민 알더레만, 땅더레만 봐레주. 이녁 얼굴 뭐.

@1 아, 삼춘, 삼춘네 집이서 여자 칩에서, 신부 칩이서 그거 썽 영 뒤집엉 영 방에 앉앙 잇언마씨?

#1 게. 방에 앉앙 잇엇다근에 저 무시것고 가메 영 헤근에 요 대문 앞이까장 들어오민 방에서 영 그거 씨엉 영 헹 나가근에 이제 그레 모셩 가는 사름, 그 우시 온 사름덜이, 우시 온 사름덜이 잇주게.

@1 우시 온 사람들이?

#1 응. ᄀᆞ치 영 헹 데려근에 그 가메 속더레 디물려 주민 그레 앚앙.

@1 우선은 그거 오기 전에 남자 칩이서 여자 칩이 들어와수다예. 여자는 다 준비헹 잇고예. 그민 남자 칩이서 몇 사람들 같이 오잖아. 그 남자가 방에 들어올 거지예. 신랑상 받아살 거 아니꽈예?

#1 게. 신랑 다 신랑도 받고게, 여자는 시집이 가민게, 신부상 받곡 헐 거주게.

@1 남자 집이 왕 남자는 여자 집에 몇 사람 정도 ᄀᆞ치 올 거꽈?

#1 남자도 ᄒᆞᆫ 서너, 너이 오고 여자고 또 네 사람 오곡.

@1 응. 그건 다 신랑 칩이서 오는 거예.

#1 신랑 칩이서도 오곡 또 여자 쪽에서도, 신부 쪽이서도 경 가.

@1 신랑 집에서 왕 신랑상 받앙 신부가 나갈 때 이제 ᄀᆞ치 갈 거예.

#1 응. ᄀᆞ치 갈 거.

@1 몇 사람이 ᄀᆞ치 따라 가?

#1 게메, 그디서 네 사람 오민 네 사람. 이쪽에서도 네 사람. 다섯 사람 오민 다섯 사람. 게민 서로 헹 가주.

@1 서로 헹 ᄀᆞ치 갈 거. 삼춘이 이제 가메 탕 갈 거우다예. 신랑 칩이 갈 거예. 신랑칩이 도착해수다. 이제 어떵 헐 거꽈?

#1 무시거 도착허민 어떵 허여. 신랑칩이 도착하민 그디서 대반 앉는 사람 옆이 우시로 ᄌᆞ끗디 앉는 사람이 잇어. 그 사람 오민 그 신부, 가메에 가근에 신부 손 심어근에 방더레 들어가주.

@1 방더레 들어갈 거. 삼춘은 사진은 안 찍어수꽈?

#1 우리 땐 사진이랑 말앙.

신부상

@1 엇어. 게민 가메에서 내려오면 바로 방더레 들어갈 거. 이제 신부상 받을 거우다예. 신부상에는 뭐뭐 올라 이십디가?

#1 신부상에는 기자 보통으로 ᄃᆞᆨ, ᄃᆞᆨ ᄒᆞᆫ ᄆᆞ리 놓곡 돼지고기들 허곡 기자 과일 허곡 저, 무시것고 고기들 그런 거 헤근에 다 헤영 밥 출려근에 상에 출려근에 ᄒᆞᆫ 상 이만이 허게시리 허고, 그 같이 간 우시엔 허주게.

@1 맞수다.

#1 들러리.

@1 들러리, 우시덜예.

#1 들러리로 간 사람들도 상, 상이 물러지게시리 출령 놓주게.

@1 어이구. 상이 물러지게. 막 하영 올려 놔신게.

#1 응. 하영 올려.

@1 게민 그 상은 우시상이영 신부상이영 ᄯᅳ로 ᄯᅳ로 뒈엉 이수꽈, 아니면 큰 상에 ᄒᆞᆫ꺼번에 이수꽈?

#1 저, 신부는 내나 상 하나, 또 우시 온 사람도 하나. 옆이 앉은 사람도 하나. 또 ᄒᆞᆫ 서넛 너이 우시로 온 사람덜은 다 상 하나썩. 옆이 또시 같이 따라 온 사람덜은 ᄀᆞ치 상 하나에 두 사람썩 먹게꾸롬 상 하나에.

@1 아, 그때는 다 따로따로 찰려 줫구나예.

#1 우시, ᄀᆞ치 온 우시는 다 ᄯᅳ로 ᄯᅳ로 상 이녁만썩 다 하나썩 다 챙겨.

@1 삼춘 옆에는 대반이 앉앙 잇지예.

#1 게. 대반덜이 다 상 하나씩 다.

@1 삼춘 이제 밥 먹을 거예. 삼춘 밥 먹엉 한 숟가락 거령 그거 바로 먹어 불진 안헌덴 헙디다.

#1 어떵 헤여?

@1 요거 무사 영 상 밑에 가지껭이에 ᄒᆞᆫ 숟가락은 영 거려 놤신고예?

#1 몰라.

@1 겅 헷지예, 삼춘도예.

#1 몰라 건.

@1 아, 몰라.

#1 우린 그런 건 안 헷어.

@1 아, 그건 안 헷어. 아니, 잔칫날 보면은 아이들 영 문밖이 둘아졍 ᄒᆞ끔만 줍서 경도 안 헙디가?

#1 무사 그건 잇주게. 게민 밥 먹단 남은 거 다, 옛날은 쏠밥이 엇언에 다 보리밥 ᄀᆞ튼 거, 조팝 ᄀᆞ튼 거 먹어노난 기자 ᄒᆞᆫ 숟가락썩 다 저, 나눠 주민 ᄒᆞᆫ숟가락썩 그거 다. 몬딱 모여잇다근에 ᄒᆞᆫ 숟가락썩 다 받아 먹어낫주.

@1 받아 먹언.

#1 옛날은 쏠밥이 그렇게 에려와 노난 조팝 보리밥만 먹어 노난, 쏠밥이난 막, 제사 때도 다 쏠밥 ᄒᆞᆫ 숟가락 얻어먹젠 막 다 모여 가곡 헤낫주, 아이고.

@1 경 어렵게 살앗어. 그거 얻어 먹젠예. 창문에 동동 메달아졍. 이제 밥 다 먹어지민 그다음은 뭐 헐 거꽈? 신부가 밥 다 먹어지믄.

#1 다 먹어지믄 옷 ᄀᆞᆯ아 입는 거주.

@1 옷 ᄀᆞᆯ아 입는 거.

#1 시집이서 헤 준 옷 ᄀᆞᆯ아 입어.

@1 그거 ᄀᆞᆯ아 입으민 이제.

신붓집 인사

#1 ᄀᆞᆯ아 입으민 뭐 이젠 사돈덜 가곡. 사돈덜 가곡. 또 막 어둑어 가민 해 질어근에 어둑어 가민 또 신부도 가곡 허민 신랑 ᄀᆞ치 가민 또 그 조름에 바구니에 옛날은 바구니에 막 고기영 술이영 헤여근에 저 신랑칩이서 ᄄᆞ라 가낫주. 그거 가졍.

@1 가졍 간 거.

#1 가졍 앗앙. 술이영 고기덜이영 막 바구니에 놔근에 신부 가는 디 조름에 ᄄᆞ라 가주. 시누이나 이제 시조케나 이시민 ᄀᆞ치 신부영 ᄀᆞ치 ᄄᆞ라 가곡.

@1 그니까 그거는 신부 ᄄᆞ라 간 거는 신부가, 신부 칩이서 신랑 올 때 ᄄᆞ랑 온 거잖아예.

#1 아니. 그 사람덜은 모녀 가 불고.

@1 모녀 가 불고 예.

#1 가 불민 신부는 혼자 이실 거주게, 시가에. 이시민 이제, 오레, 시간이 너무 오레영 헤가 질어근에 오레민 이제 집에 가고 싶어근에 허민게, 갓당 오젠 허민, 집이 가켄 허민 이제 신부 조름에 가는디 이쪽에서, 시가에서 아이 이시민 시누이나 누게 이시민 ᄀᆞ치 ᄄᆞ라근에 그 바구니에 막 고기영 술이영.

@1 거난 그게 이바지 아니우꽈예.

#1 그것도 이바지엔 허주.

@1 응. 헐 거예. 그민 잠을 오늘 신부가.

#1 자는 사람이 잇고 안 자는 사람은 이녁 친정에 갓당 와.

@1 아, 친정에 가? 신랑이랑 잠잘 거 아니?

#1 친정에 갓당 그날, 결혼허는 날 해가 질어근에 오레민 친정에 갓당 오켄 헤여근에 가가민 다 출려 근에 ᄀᆞ치 아이 따라 가곡, ᄄᆞ랑 보내곡 신랑 신부가 가주게. 처가에. 가근에 허민 친정에 갓다근에 또 어둑으민 오고.

@1 아, 그민 그때는 신부만 가는 거 아니고 신랑도 ᄀᆞ치 가는 거지예?

#1 응.

@1 같이 강 거기 강 다시 저녁 때 오는 거.

#1 가근에 인사드리고.

@1 예. 우리 신부가 신랑 집이서 옷 ᄀᆞᆯ아 입은 다음에 신랑집 어른들한테 막 절하고 경 안 헙니까?

#1 절 허주.

첫날밤

@1 절 허는 거지예.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허는 말이지예. 이제 영헹 첫날밤이 뒈수다.

#1 첫날밤인게, 친정에 갓당 오민 첫날밤인 둘이가 자주게. 경허민 자난 옛날은 그 속곳 입어 불민 속곳 꺼꾸로 ᄂᆞ다로 입엉 이쪽으로 끼왕 입고 이짝으로 끼왕 입엉 양쪽으로 다 영 헹 꿰엔 헌 거 입주게 벌ᄆᆞ작, 그거 헹 다 중강 이까장 중강 남자 손대지 못하게시리 딱 중가근에 옷 입엉 눈덴.

@1 삼춘은 경 안헷지예.

#1 옷 입엉 눈덴.

홍세함

@1 그런 말 잇어낫어. 예. 우리 아까 하나 빠뜨려신디 신랑 칩이서가 신부 데리러 올 때 홍세함을 들렁.

#1 응, 홍세, 홍세 지어근에 옛날도 지언 와낫주.

@1 누게가 지엉 옵니까?

#1 그거는 가메, 옛날은 가메 ᄄᆞ라 오는 사름 그 이불 졍 오는 사람이 잇어낫어.

@1 뭐렌 불러?

#1 옛날은 차 엇이난에. 그 사람ᄀᆞ라 뭐엔 ᄀᆞᆯ아나시?

@1 하인이렌 불러수꽈?

#1 하인, 하인.

@1 하인이 졍 오는 거라예. 하인이영 하인 각시영예.

#1 응. 그 사름덜 돈 받으멍 저 이디 마을에 이불 졍 오곡, 졍 가곡. 또 남자 ᄆᆞᆯ 타민 ᄆᆞᆯ.

@1 이끄곡?

#1 ᄆᆞᆯ 이꺼근에 오곡 헤낫주. 그 여자는 이불 지곡, 남자는 ᄆᆞᆯ 끗엉 가고.

@1 거난 그 남자가 등에는 홍세함을 진 거라. 그민 홍세함 영 도착하민 그거부터 먼저 열어 본덴 헙디다.

#1 어. 홍세함 ᄋᆞ는 거주게. ᄋᆞᆯ아근에 뭐엔 씌어신지 다 보는 거.

@1 응. 경 봥 틀리지 안허민 남자 들일 거예.

#1 틀려도게, 소섬 안에선 다 아는 거난에 무신, 옛날도게, 다 서로 좋다 헤근에 허락헤근에 결혼허는 건디 뜰려도 눈 곰아 부는 거 아니?

@1 보통 홍세함에는 뭐 뭐가 들어 잇어나수꽈?

#1 홍세함에? 옛날에 멩지 혼 빌 허곡 ,또 뭐엔 그 종잇장에 다 씌어근에 놓는 셍이라.

@1 혼서. 응. 그거 썽 놓는 거예. 멩지 혼 빌 허고. 그 멩지는 뭐 헐 때 쓸 멩지라?

#1 뭐 헐 때 써. 새각시가 놧다근에 이녁, 옛날은 호상옷도 허곡, 만들고.

@1 그럴 용도로 헷던 거. 게민 아까 글 쓴 종이에 뭐 쓴 것도 잇잖아예. 그런 건 누게가 쓰는 건고예?

#1 거 남자 쪽에, 남자 칩이서가 쓰는 셍이라라.

@1 아, 그런 거를 누게가 전문적으로 쓰거나 허는 사람이.

#1 거 씨는 사람이 잇는 셍이라.

@1 잇는 셍이라예. 알겟습니다. 혹시 더 질문할 거 잇습니까?

@2 아니오. 없습니다.

3.

서귀포시 하효동 허복선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11월 2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미진 @2 권미소
- **제보자**: #1 허복선

제보자 정보

@1 오늘은 서귀포시 하효동에 삼촌 일름이 무시거꽈?

#1 허복선.

@1 허복선 삼춘을 만나러 왓습니다. 오늘은 십일 월 이십육 일이네요. 허복선 삼춘은 나이가 어떵 뒘수과?

#1 구십 둘.

@1 아이고, 삼춘 구십도 넘읍디가?

#1 구십 둘.

@1 에? 삼십사 년생?

#1 삼십오 년생.

@1 삼십오 년생 헤치로는 미신 헤치꽈?

#1 개헤치.

@1 아이고, 개띠구나. 삼춘 고향은 원래 어디꽈?

#1 이디 본디 하효.

@1 본디 하효?

#1 응.

@1 겐디 남자 삼춘도 하효?

#1 저 사삼 사건 때 소까이[8] 헹 ᄂᆞ려 오란 하효 완 살앗주게.

@1 원래 어디꽈? 남자 삼춘은?

#1 저 학림동[9].

@1 응. 학림동, 학림동은 지금 어느 동에 속할 철이꽈? 하효, 상효, 신효?

#1 하예리 지경.

@1 하예리 지경? 음. 그럼 남원 사름이구나, 남자 삼춘은예.

#1 남원에서 온 거주게. 응.

@1 남원리서 소까이 헹은에 하효 오난 삼춘이영 결혼하게 뒛구나예.

#1 응.

@1 삼춘은 원래 하효 사름예. 그 삼춘 어렸을 때 학교는 하영 뎅깁디가?

#1 학교 무뚱에도 못 가 본 사름.

@1 아이고, 경헌디 영 세련뒈? 고등학교도 나온 삼춘추룩 보이는디?

#1 아니, 아니.

---

8) '소까이'는 일본어 'そかい(疎開)'에서 온 말로,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이라는 의미다.

9) '학림동'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자연마을 중 하나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 우리, 우리 엿날은 똘덜은 공부 안 헤도 좋다 헹은에 일만 헷주게.

@2 맞아.

#1 일만 ᄒᆞ난에 야간 학교 가렌 헨에 밤 야간 학교 이틀차 가난에 사삼 사건 나 부난 끗, 그걸로 끗.

@1 아이고, 사삼 사건 날 때가 삼춘이 게난 ᄒᆞᆫ 열 살, 열두 설 뛜 때구나.

#1 열, 열, 열두 설.

@1 음, 열두 살 정도. 음.

#1 응. 겨난에 이틀 저냑채 가난 ᄉᆞ삼 사건 난에 ᄉᆞ뭇 무시거 헤 가난 선셍님이 곧는 말이 니네덜 골목으로 멩심헹 집에덜 가라이, 우혐허난에 집이 못 간다, 멩심헹 가라이, 멩심헹 가. 경허난 그걸로 끗 헷어.

@1 거난 일름 쓰는 건 어디 강 배웁디가?

#1 테레비 보멍.

@1 아, 텔레비, 텔레비 보멍? 혼자 독학으로?

#1 어게. 텔레비 보멍 일름 기자 일름은 써져.

제보자의 생업

@1 거난. 그렇구나. 혹시 젊었을 때 어디 방직 공장이나 육지 강 살아나수가?

#1 아니, 시집 간 후제, 가기 전에 물질이나 가오곡.

@1 아, 물질 가오고? 물질은 어느 동네 갓다 옵디가?

#1 쳇 번은 저 울산이엔 헌 디.

@1 울산도 가고.

#1 밀포[10] 가오랏주기.

@1 밀포?

#1 으. 밀포.

@1 아, 울산 ᄌᆞ끗디 이신 거꽈?

#1 두 번차는 저 포항 가오고.

@1 포항도 가오고. 게난 삼춘 혹시 이때 울릉도 독도도 갑니까? 가낫수과?

#1 울릉도, 독돈 ᄒᆞᆫ 십 년 전이 가왓어.

@1 아, 그냥 관광으로? 물질허레.

#1 물질허렌 안 가 보고.

@1 주변에 이 동네에서는 그디 간 삼춘는 없고? 울릉도, 독도 물질허레 가온 삼춘은 엇고?

#1 엇고.

---

10) '밀포'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행정 지명의 하나다.

@1 요즘에예, 울릉도, 독도 물질헤난 해녀 막 ᄎᆞᆺ암주마씨. 혹시나 헹 물어봐수다.

#1 이디 울령도, 독도 가온 어른이 죽어 벳어.

@1 아, 잇어낫구나?

#1 응. 잇어낫주기. 두 사름이나 잇어낫는디 다 죽어 빗주.

@1 다 죽어 불언.

#1 우리 ᄒᆞᆫ디 포항 물질허레 갓단에 울령도, 독도 물질 가겐 헨에 가와신디 두 사름이라도 다 죽어 빗어.

@1 기구나. 삼춘네보다 우에? 아니면 밑에?

#1 우리보담 우에.

@1 더 우에 삼춘들이 갓다 온 철이구나예.

#1 오게.

@1 게난 삼춘은 해녀도 ᄒᆞ꼼 헤난 거 닮고.

#1 해녀, 해녀 헷주게.

@1 농사일도 하영 허고.

#1 농ᄉᆞᆫ 하영 ᄒᆞ곡.

@1 응, 해녀일은 ᄒᆞ꼼 허고, 농산 하영 헨?

#1 하르방이 놈으 집 사는 하르방, 그 소까이 통에난 놈의집이주게. 경ᄒᆞᆫ, 경ᄒᆞᆫ 하르방신디 가난에 일만, 일만 홀 거 아니?

@1 그럼 밧농사 주로 헤수가?

#1 밧농ᄉᆞ.

@1 게민 미깡 허기 전인 무슨 농사 헤나신고?

#1 고구마도 ᄒᆞ곡, 보리도 ᄒᆞ곡.

@1 보리도 허고.

#1 보리도 ᄒᆞ곡, 조도 ᄒᆞ곡. 경헨 살앗주기.

@1 아, 경헨예. 음.

#1 경ᄒᆞ단 그거 끗나난 미깡 농ᄉᆞ 지엇주.

@1 미깡은 삼춘 몃 술까지, 아이들이 몃 살 때나 삼촌이 몃 살 때쯤 헤진 거 닮수과?

#1 미깡은 ᄒᆞᆫ ᄉᆞ십 대?

@1 삼춘 ᄉᆞ십 대?

#1 응. 우리가 처음으로 ᄒᆞ난에게.

@1 그믄 천구백칠십오 년 정도?

#1 응.

@1 천구백칠십 년대 중반, 칠십오 년. 아덜이나 똘은 몃 살이꽈? 몃 년생이꽈?

#1 큰똘 몬처 난 건 죽어 불곡.

@1 아이고.

#1 이제 두 번차 것이 이제 육십일곱.
@1 육십일곱. 게난 이 육십일곱 난 아이가 멧 술 때 이 미깡을 처음 헤신고?
#1 가이가, 가이 난 때ᄁᆞ장 보리 농술 졋주게.
@1 게난에. 경허단에?
#1 그전에ᄁᆞ장 보리 농ᄉᆞ, 나 ᄒᆞᆫ 오십 대에 보리 농ᄉᆞ 지져진 거 닮다.
@1 게믄 팔십 년대 뒈근에 미깡 헤신가? 아니, 이딘 막 빨리 헷덴 들어신디?
#1 빨리 헷주게.
@1 예.
#1 경ᄒᆞᆫ디 처음에 우리가 ᄆᆞᆫ저 미깡을 시작ᄒᆞᆫ 거주기.
@1 하효에서도 삼춘네가 일 등으로 헨?
#1 응.
@1 아.
#1 경ᄒᆞᆫ디 그걸 학실히 알아지크라?
@1 음. 게난 똘 멧 살 때쯤이여, 영?
#1 요만썩 ᄒᆞᆫ 거 헤단 심건에 ᄒᆞ난에게.
@1 게난예.
#1 ᄋᆞ게. 겐 밧디 미깡낭 헤당 심거 놔두난 도둑도 맞혀 불곡.
@1 미깡낭 파가 불언?
#1 파가 비언. 경ᄒᆞ난 하르방 밧디 그거 직ᄒᆞ레도 뎅기곡. (웃음)
@1, @2 (웃음)
#1 겨난 그땐 처음이난에 싱거 놔두민 도둑질도 헹 가 비엇주게.
@1 응. 경헤근에 미깡 농사로 이제ᄁᆞ지 살앗구나예.
#1 미깡 농ᄉᆞ로 이제ᄁᆞ지 헨 살앗어.
@1 게난 이젠 미깡밧도 막 하수과, 삼춘네?
#1 ᄆᆞᆫ딱 아덜 물려줘 부난에, 뭐.
@1 아들 물려줘 붑디가?
#1 어게.
@1 거 죽을 때까지 잡앙 잇어야 뒌덴 헨게마는. (웃음)
#1 (웃음) 아니. 경ᄒᆞ난 놈의집 살멍 우리가 본채 아무것도 엇인 사름이난에.
@1 어.
#1 이, 이 터도 우리냥으로 산 들어오고, 또 밧도 여라 개.
@1 무신거 헹 돈 벌엉 살앙 옵디가?
#1 나 일허멍 버을언.
@1 거 일허멍, 애기들 키우멍 그거 헹은에 밧도 살 만이 버을어졋구나.

#1 밧, 밧 감저 농ᄉᆞ 지곡, 보리 농ᄉᆞ 지곡 ᄒᆞ멍 버을언에, 밥도 사고 집도 짓곡.
@1 아, 대단한 할머니네. 음.
#1 경 ᄒᆞ단 보난 이젠 걷지 못ᄒᆞ는 건, 남은 건 그거, 걷지 못ᄒᆞ는 거.

제보자의 자녀

@1 게난예. 아이들은 몃 명이나 낳읍디가?
#1 ᄋᆞ슷 개.
@1 아, ᄋᆞ슷 개. 아들은 몃 명?
#1 ᄒᆞ나.
@1 아들 하나에 딸 다섯?
#1 어.
@1 요즘에 딸들이 효도헌덴 헙디다.
#1 ᄋᆞ게. ᄋᆞ게.
@1 ᄌᆞ끗디 이시민 똘들이 병원도 데려다 주고.
#1 똘이 주장으루 잘헤 주주게.

외할머니의 중매

@1 게난예. 삼춘은 그난 몃 살에 결혼헙디가?
#1 스물둘 나는 해에.
@1 스물둘 나는 해에, 스물두 살 삼십오 더하기 스물둘 허면 육십, 오십칠 년. 천구백오십육 년 정도에 헷구나. 이?
#1 몰라, 어느 때나 헤산디.
@1 으? 음. 결혼헐 때 어떵 헹은에 삼춘 만난 결혼헙디가? 어떵 헨에?
#1 중매로게.
@1 중매로. 누게가 중신 사 줍디가?
#1 그때 누게사 헤신디 알아지크라? 이제.
@1 게믄 아니, 놈의집살이 허는 남자 삼춘을 만낭은에.
#1 하르방이 원서 부지런ᄒᆞᆫ 하르방.
@1 아, 경헤도 삼춘네 집에선 집도 엇인디 놈의집살이 허는디 안 보내젠 헤시크라.
#1 경헌디 원처 착실ᄒᆞ난에 보낸 거주기.
@1 아, 삼춘네는 원래 몃 형제? 친정은.
#1 친정 다섯.
@1 다섯 오누이?
#1 다섯 오누이.

@1 거기서 삼춘 멧 번째꽈?
#1 세 번차.
@1 어, 경헤도이. 남자 삼춘 야이 착허난 야이영 결혼허라 영 헹 중매 사 준 거?
#1 우리 외할머니가 중매 사 준 거.
@1 아? 외할머니가.
#1 (웃음)
@1 무사 어떠난 외할머니가? 야이 영 보난 아이 잘도 착한 아이여, 영헌 거?
#1 외할머니네 동네에 하르방이 사난.
@1 아, 학림동 아까?
#1 아니, 여기 하효 오란 사난.
@1 맞아. 하효 오란 살 때. 그럼 외할머니도 하효?
#1 살 때. 응.
@1 외가댁도 하효구나?
#1 응, 하효.
@1 아, 완전 하효 본토백이네.
#1 응. 완전 하효 본토백이.
@1 게난예.
#1 어게.
@1 외할머니가 아이고, 야이 착허난. 우리, 우리 손지영 결혼시켜 주켜 영 생각헷구나?
#1 경헌 거주기.

결혼 전 신랑과의 만남

@1 오, 겡 결혼하기 전에 하르바지 만나 봔?
#1 만나믄 비치룸만 헷주기, 무신.
@1 경헤도 막 얼굴도 몰랑 결혼헷저, 어떤 어른들은 겅 골읍디다?
#1 얼굴은.
@1 보긴 봔?
#1 봣주게. 군인 간 온, 휴가 받안 온 때에.
@1 남자 삼춘은, 삼춘보다 나이가 몃 살 우?
#1 세 설 우.
@1 세 설 우? 그러면 스물다섯 살에 결혼헷다는 얘기네.
#1 하르방은 스물다섯.
@1 그럼 군대도 갓당, 군대 갓다 왕 결혼헌 거?
#1 군대 간 오란. 북한 포로벵이로 갓단 일곱 사름에 흔 사름 바꽈온 하르방이라, 저 하르방.

@1 오? 거난 앞에 이거 국가유공자 붙여져 잇어낫구나.
#1 참전 용사옌 헨에.
@1 오. 그럼 군대 가, 군대 갓다 휴가 왔을 때 삼춘이 얼굴 한번 본 거네이. 근데 죽어 불지도 모르는디 결혼허켄 헙디가?
#1 경허난 그때에게, 그 북한 간 포로 헨, 교환헨 온 후제, 모실포 온 후제 만낫주기.
@1 아. 그 후제 만난?
#1 으. 모실포 오란 만난. 모실포 살멍 이디 나들엇주게.
@1 음. 모실포는 군대, 군부대 잇는 데?
#1 그때 군대 섯주기게. 응.

당시 결혼 연령

@1 음, 기구나, 기구나. 그난 삼춘넨 ᄒᆞ끔 늦게 결혼헌 철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에는?
#1 늦이멍 말멍이주게. 쓰물둘 초에난에.
@1 아, 다 그때쯤 결혼헤나수가, 그때 옛날은?
#1 어게, 어게. 그자 열아홉[열라옵], 쓰물, 원. 그ᄀᆞ리주.
@1 음. 음. 더 빨리허는 사름덜도 잇어나수과?
#1 응. 빨리허는 사름은 열여답.
@1 오. 그럼 더 늦은 사름은? 삼춘보다 더 늦는 사름은?
#1 늦는 사름은 스물셋도 나곡, 넷도 나곡 헷주기.

중매 방법

@1 그니까 보통 열여덜에서 스물세, 넷까지 결혼 많이 헷구나예, 옛날은예?
#1 ᄋᆞ게, 엿날은 겅헷주게.
@1 그 중매도, 옛날에는 중매 사는 사람이 잇어낫잖아예? 중신 사 주는 중매쟁이가, 옛날에는.
#1 엿, 엿날엔 그런 중매쟁이 베랑 엇엇어.
@1 아, 베랑 엇엇어?
#1 기자 영 헹 서루 기자.
@1 아는 사람이 소개헤 주는 거?
#1 소개헤 주민 기자 갓주.
@1 음. 그러믄 야이 ᄒᆞ꼼 괜찮은 아이난 ᄒᆞ꼼 만나 보라 영 허민 물어봅니께, 경헤도 한번 영 멀리서도 한번 보고예, 가이 어떵헌 아이? 물어보고예. 지금도 겅허는디.
#1 어게. 경헷주기.
@1 게난 다른 사름들도 다 착허덴 골읍디가?
#1 외할머니가 다 정헤 주난 가 보는 거.

@1 음. 게믄 이제 결혼허기로 약속을 헨예. 야이영 결혼헹은에 살렌 ᄒᆞ난에 만난에 아멩헤도 이 사람이랑 결혼헤야켜 영 헹 마음을 먹엇어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떵 헹은에 헙니까, 그다음에 뭐 헙니까?

#1 무시거 허여, 춤 그자 그다음에 날 택일, 날 택일 허곡 무시거 헨 기자 결혼헷주기.

사주고남, 택일

@1 날 택일은 허젠 허민 사주도 주고 받고 헤야 뒐 거 아니?

#1 어게.

@1 날 택일허기 전이 사주 주는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그건 그자 난 날, 난 시 들어가민 그디서가 날 택일헹 아졍 오민 결혼허는 거.

@1 그러니까 남자 칩이서, 여자 칩이 난 날 난 실 들으레 오는 거꽈?

#1 어게.

@1 게믄 아부지가 영 썽 줘?

#1 으. 경 헷주게.

@1 삼춘 난 날 난 실 영 썽 줘. 게믄 그걸 가졍은에?

#1 그 남저 집이서가.

@1 그 남저 집이서 택일허레 가는 거꽈?

#1 경허주.

@1 음. 택일도 헤 주는 사름이 잇일 거 아니?

#1 그난은, 엿날 지관이엥 헨 잇주기.

@1 게난예.

#1 어게.

@1 이디 지관 헤난 사름 아직도 살아 잇는 사름 어수과?

#1 다 죽어 빗어.

@1 다 죽어 비언. 그러면 처음에 난 날 난 시 들으레 올 때예. 나 들으난 나 결혼할 때도 그거 사주 받으레 오는 날은 저기 밥도 안 주는 거여, 사돈집이 밥도 안 주는 거여, 경헙디다?

#1 경허주게.

@1 그거 무사 경허는 거라?

#1 몰라. 엿날은 무사사 경 헤신디 경 헷주게.

@1 음.

#1 경 헹 택일헹 오라사 밥도 주국 헷주게.

@1 게난 처음 사주 받으러 온 날은 그 사람이 살아질지 안 살아질지 모르난 안 주는 건가?

#1 몰라. 원, 겡사 헤신디.

@1 삼촌네도 경 헨?

#1 우리도 경 헷주기.

@1 음. 그 택일을 가지고 택일기 다시 택일을 가져 오는 날 잇잖아예. 그날은 밥도 헹 먹고 허여?

#1 그날은 밥도 헨 먹곡 헷주게.

@1 그 택일기에예, 택일헌 날짜만 써집니까? 아니면 뭐 막 신랑 나가는 시간이영 뭐.

#1 믄 그런 거 믄 시간 정헤지주게, 정헷어.

@1 으. 으. 다 썽은에 지관이 다 썽 주는 거예. 게믄 그거 가졍은에 그것대로 허는 거?

#1 게믄 그것대로, 신랑이 신부칩이 멧 시에 가라 헤근에 헷주.

@1 그난 삼춘넨 궁합 보난 막 좋덴 헙디가?

#1 좋덴 ᄒᆞ난에 아메도 헤실 테주게. (웃음)

@1 뭐엔 말은 들어보지 안허고?

#1 우린 뭣도 몰르난 두린 때난에. 뭣도 모르난 기자 가라 ᄒᆞ민 가곡 말라 허믄 말아사주게. 뭐 무신 이제추룩 뭐 경 따주왓어게. 그 사름신디 결혼헹 가 살라 ᄒᆞ난에 온 거주게.

@1 그 허다근네 집이 집이 가 불고정헌 영 헌 생각은 안 듭디가?

#1 무사 안 들엇어게. 몸이 피곤하면 가 불고 ᄒᆞᆫ 생각 들엇주기.

시댁 식구 구성

@1 그러니까 애기 낳기 전이 남자 삼춘은 그믄 모슬포 계속 나들언마씨?

#1 으.

@1 그믄 삼춘은 친정도 가깝고 허난 친정에 혹 헹 가고 헤시커라. 예?

#1 겨난 결혼허난에 제대헷주게, 하르방이.

@1 아. 제대헨에, 음. 옛날은 결혼헤도 친정집에 강 며칠 살당 시댁에서 며칠 살당 영도 헤낫덴 헙디다? 경은 아니?

#1 경은 아니랏어.

@2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안 계신?

@1 씨어머니, 씨아버지는?

#1 씨아바진 하르방 ᄋᆞ답 살에 돌아가 부난.

@1 에? 어.

#1 저 씨아지방허고 나허고 서이 새끼만 살앗주게.

@1 아, 씨아지방은 밑에?

#1 밑엣동생.

@1 밑엣동생? 몃 살이나 밑에?

#1 아홉 설 밑에.

@1 아, 삼춘이 키와신게예, 아홉 설 밑에민이.

#1 겨난 결훈헐 때엔게, 하르방 ᄋᆞ답 설이국게, 밑엣동생은 아홉 살 차이 난게.

@1 열일곱 살?

#1 응.

@1 응. 기네, 기네.

#1 우리, 우리, 시아지방이 이제 나보다 세 술 밑에라.

혼례 준비

@1 안 맞는데? 음. 지금 삼춘보다 세 살 밑에, 씨아주방이? 여섯 살 차이? 음. 삼춘 이제, 날 이제 정헤졋어예. 택일기도 가졍 완예. 헹 아이구, 이제. 저 삼춘 몃 월 달에 결혼헙디가?

#1 이 월 덜에.

@1 이 월 덜에 결혼헨.

#1 겨난 쓰물둘 나는 이 월 둘에 결혼헷주게.

@1 택일기도 가졍 완.

#1 스물흔 설이주게. 결혼헷주게.

@1 게난예. 그믄 제일 처음에 무신 것부터 준비헤야 뒈? 내년 이 월에 결혼헐 거여,영 허민 이제 십일 월쯤 뒈민 막 이것저것 준비헤야 뒐 거 아니꽈?

#1 경허난 친정에서게, 한복덜토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게.

@1 음.

#1 겡헷주게.

@1 음. 집이서 옛날엔 다 만들엇지예?

#1 집이서 다 만들안. 한복도 집이서 만들곡, 이불도 집이서 만들곡. 다.

@1 게, 누게가 경 잘 만드는 사람이 잇어낫수가?

#1 권당덜이 모다들엉 헤 줫주게.

@1 아, 권당덜이? 음. 치마 저고리도 만들고.

#1 치마 저고리도 만들고.

@1 무신 천으로 헹 만드는 거꽈?

#1 명주로 ᄒᆞ는 사름도 잇고, 양단으로 ᄒᆞ는 사름도 잇고.

신부 혼례복

@1 삼춘은 무신걸로 헹 입엉 옵디가?

#1 난 물질헨에 버을언에 양단으로 헹 입언. 유동 치마에, 양단 저구리에.

@1 유동 치마에 양단 저구리. 무신 색? 하얀색?

#1 하얀색.

@1 유동 치마에 양단 저구리도 하얀색으로 헷구나예.

#1 하얀색으로 헤엿주.

@1 결혼헐 땐 다 하얀색, 응. 장옷도 헤?

#1 장옷도 허주.

@1 장옷은 ᄒᆞ나만 헤수꽈, 두 개 헤수꽈?

#1 ᄒᆞ나.

@1 ᄒᆞ나. 무신 색으로?

#1 파랑물 들영, 멩지에 파랑물 들연에. 겡헨에.

@1 응. 끗동 달고?

#1 끗동 둘고.

@1 끗동은 벌건색으로?

#1 응.

@1 붉은색으로 끗동 달고.

#1 그치룩 헹 입엇주게.

@1 장옷은 결혼할 때 하나만 헙니까? 아니면 영 쓰는 것까지는 두 개 헤야 뒙니까?

#1 ᄒᆞ나 ᄒᆞ민 쓰는 건 놈의 거 빌엉이라도 쓰, 쓰는 거.

@1 어디 강 빌려당 허여?

#1 친촉 거.

@1 친촉 거. 게난 삼춘도 빌어당 흡디가?

#1 빌어당 헷주게.

@1 음. 그, 그 장옷은 친촉들 그냥 다 빌려 줘?

#1 빌려 주주게. 입는 것만, 입는 것만, 자기 거.

@1 입는 거만 자기 거고?

#1 응.

@1 음. 혹시 치마 저고리하고 장옷만 헙니까? 마고지여, 뭐 무슨 두루매기여 이런 건 안 헤?

#1 원래 장옷이 두루마기랏주, 여저.

@1 여자들은예? 음. 그 신랑 옷은 신랑칩에서 헤 줘, 게민?

#1 응. 신랑 옷은 신랑칩이서 허는 거.

@1 신부가 헤 주는 거 아니고?

#1 아니, 아니. 옛날은 아니 헷어. 다 자기만씩.

@1 다 자기만씩. 예. 근데 시댁에서도 시어머니가 한복을 헤 주기도 하잖아? 여자 삼춘 거, 메누리 거.

#1 아니, 건 엿날은 경 안 헷어.

@1 시집 가민 하나 주지 안헤, 어무니가?

#1 이녁냥으로 헨 입엇주.

@1 시어머니가 헤 준 건 없고?

#1 엇곡.

혼수

@1 으음. 시집올 때 무신거 무신거 출령 옵디가, 게난 삼춘은.
#1 무시거 출령 와게, 이불허곡게. 이녁 한복 출련 오랏주게.
@1 이불은 멧 채나 헤?
#1 이불은 두 채.
@1 이불 두 채. 하난, 하난, 하난? 삼춘네 거, 하나는 시어머니네 거? 아니민 삼춘네 거 두 개 다?
#1 두 개 다 이녁 거만썩. 씨어멍, 엿날은 씨어멍 거 안 헨 가낫어.
@1 아. 그럼 애기 나민 애기 헐 거 헤근에 두 개 헷구나게.
#1 어게. 원 우리 씨집 갈 땐 원, 이불 두 채가 보통.
@1 이불 두 채가 보통?
#1 응.
@1 베개도 헤?
#1 베개두 두 개.
@1 베개 두 개 그냥?
#1 신랑 각시 벨 거 두 개.
@1 이불이 두 채믄 베개는 네 개 허지 안허곡 두 개만 헤?
#1 두 개만.
@1 그 어떤 삼춘덜은 베개 영 긴 거 헷덴 헌 삼춘도 들어나신디 그런 건 아니?
#1 그런 건 아니.

요팡석

@1 삼춘은 지금 허듯이 좁은 거 두 개? 음. 그다음에 방석도 헤수과?
#1 으게. 요팡석이렌 헨에, 저런 방석 ᄋᆞ라 개 헷주게.
@1 요팡석은 무시거라?
#1 이것ᄀᆞ라 요팡석, 요팡석 헷주게, 엿날은. 이젠 자부동, 자부동이엥 ᄒᆞ주마는, 엿날엔.
@1 엿날은 요팡석이엔 ᄀᆞᆯ아나수과?
#1 요팡석이엔 ᄀᆞᆯ앗주.
@1 음. 혹시 요팡석은 솜 놔, 노난 요팡석인가?
#1 솜 노난 요팡석이엔 ᄒᆞᆫ 모냥이라.
@1 무사 요팡석이엔 ᄀᆞᆯ아신고? 이?
#1 몰라.
@1 으. 요팡석. 요팡석 멧 개 헤 옵디가?
#1 네 개?
@1 네 개쯤예? 음.

#1 그날 오랑 꼴앙 앉을 거게.
@1 아, 나 꼴앙 앉을 거?
#1 응.
@1 새각시 꼴앙 앉을 거?
#1 어게. 또 신랑 가민 또 꼴앙 앚을 거.

궤

@1 어, 궤도 헹 옵디가? 이 궤, 이런 거?
#1 이거, 저런, 저런 색으로 헨 건디이, 이거이 바꽈 부난 이 색 뒈언. 이거이 나 씨집올 때 온 궤.
@1 이거? 새 건디?
@2 으음? 어? 색칠헷구나.
#1 색칠헤 부난 그런 색이어난디.
@1 그런 색이라난디. 이거 다시 색칠헌 거?
#1 어게.
@1 아. 언제쯤에 이거 새로 만들, 새로 헤수과?
#1 이거 ᄒᆞ건 디도 ᄒᆞᆫ 삼십 년 넘엇어.
@1 오, 막 새 거 닮은디?
#1 아니.
@1 시집올 때 헤 놓은 거, 이거.
#1 시집올 때 헤 놓은 거.
@2 이거 다시 붙인 거마씨? 이것도?
#1 그것도 ᄆᆞᆫ 다시 다 부쪈. 저런 장석이라나신디.
@1 그니까.
#1 새로 ᄆᆞᆫ 헌 거.
@1 거난 새로운 거난 이제사 한 건 줄 알앗지.
#1 ᄒᆞᆫ 삼십 년 더 뒛어.
@1 잘도 크다예, 크기가예.
#1 어게. 옛날은 다 저거주게.
@1 옛날에 이만이 큰 거 헤나수가? 저건 쫍은 건 뭐라? 저건.
#1 저건 이제사 만든 거.
@1 아, 쩌게 이제사 만든 거? 우리 몰르는 사람은 저거가 옛날 거, 이거가 이제사 만든 거.
#1 아니, 아니.
@1 영 모를 거지, 생긴 게 그거니까예.
#1 겅허난 이거 바꽈 부난 영 헌 거.

@1 으음, 옆에 손잡이도 잇고. 음.
@2 게믄 이건 산 거마씨, 삼춘?
#1 아니.
@1 누게가 멘들아 줜?
#1 아바지가.
@1 아부지가?
#1 아바지가 뭑쿠실낭 질롼에 뭑쿠실낭으루 우리 세 성제 ᄒᆞ나썩 헤 준 거.
@1 시집 갈 때 ᄒᆞ나씩 헹 가렌 헤 준 거? 음.
@2 옆에가.
@1 옆에 보니까 옛날 거네.
#1 옛날 거게.
@1 앞에서 볼 때는 막 최신식인디.
#1 옛날 거 시집올 때 ᄒᆞᆫ 거.
@1 음. 궤도 ᄒᆞ나ᄒᆞ고, 또 궤 말고 또 무신거 헤옵디가?
#1 거벢이 엇어.

그외 혼수품

@1 요강.
#1 요강.
@1 요강 헷지예? 무신 어떤 요강 헤나수가?
#1 사기 요강.
@1 사기 요강. 음, 건 데껴 붑디가?
#1 그거 데껴 불 건디가 언제라. (웃음)
@1 (웃음) 음. 그 화장대 같은 거 경, 경대?
#1 그런 것도 엇고.
@1 그런 것도 엇고. 아, 재봉틀은 나중에 삽디가? 미싱은?
#1 재봉틀? 으.

이불 장만

@1 경헤근에 결혼헹 와신디. 아, 결혼헹은에 이불 만들 때 삼춘, 이 이불을 집에서 친족 어른들이 모여 만들어실 거 아니꽈? 아이고, 우리 복선이 결혼할 거난 이불 만들어야 뒈켜 헹 모영은에 만들 거 아니꽈예?
#1 경 헤근에 막 정심 헤영 먹으멍덜 헤 줘주, 헤 줘주게.
@1 그난. 그 삼춘네 어머니가 정심 멘들앙 주멍.

#1 어게, 으.
@1 이불, 이불 허는 날도 날 봐근엥 헙니까? 무신 날, 어느 날이 좋덴 헤라 영헌 거?
#1 그건 나 두린 때난 몰라. 기자 영 헹 아졍 시집 가라 ᄒᆞ난 오난에. 몬. (웃음)

잔치 음식 준비

@1 잔치 허젠 허민, 잔치 음식 준비허젠 허민 미리 미리 도세기도 질루고 헤야 뒈니께.
#1 질롸근에.
@1 삼춘네 집이서예, 삼춘 결혼허젠 허민 도세기 질루고.
#1 도세기 질롼 그거 잡안에.
@1 게난. 그 도세긴 멧 개월이나 길러야 뒈어?
#1 ᄒᆞᆫ 이 년 질롸.
@1 이 년 질롸. 그믄 아이고, 똘 한 열여섯 살만 뒈가민 이제 언제 결혼헐지 모르난 도세기 계속 질롸야 뒈켜예.
#1 엿날은 다 질뢋주게.
@1 응. 뭐,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쌀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예. 그런 것도 다 준비를 미리 미리 헹 놧둬야 뒐 거 아니?
#1 농사 지나난게, 그걸로 헹 먹엇주게. 엿날은 보리쏠, 보리쏠로 주장헨 잔칫밥 헷주게.
@1 겐디.
#1 보리쏠 숢앙 멍석에 널엇다근에이.
@1 아, 숢앙 널엇당?
#1 숢앙. 쉬어 불카 부덴게. 멍석에 널어긴에 그거 담으멍 밥 헤연 먹엇주게, 잔칫밥.
@1 잔칫밥은 허젠 허민 보리쏠은 ᄒᆞᆫ번 숢앙 멍석에다 널엉?
#1 겨난 오늘, 내일 잔치허젠 허믄 오늘 몬 숢아근에 몬 널엇다근에 그거 담으멍 밥을 헹 들어 먹엇주게.
@1 음, 보리쌀로만? 다른 거 서끄지 안허곡?
#1 곤쏠 서껑게.
@1 아, 곤쏠 ᄒᆞ끔 서꺼?
#1 응. 겨난 보리쏠이 주장으로 먹엇주게.
@1 음. 삼춘 이디는 나룩쏠 헤수가 아니면 산디쏠 헤수가?
#1 산디쏠이주게.
@1 산디쏠예?
#1 나룩이 어디 셧어.
@1 게난예. (웃음) 경헤도 여기 서귀포 요 어느 동네에 가민 논도 잇곡 헤낫덴 헙디다게.
#1 이디 논도 읏어나난 산디쏠.

@1 음.
#1 보리 조팝 먹을 때주게, 그때게.
@1 게난예.
#1 어게.
@1 삼춘은 이 월에 결혼헤시난 보리도 ᄒᆞ끔 엇일 때 아니꽈?
#1 어게.
@1 예. 다 먹언 엇일 때, 게고 조, 좁쌀이 할 때 아니꽈?
#1 원 좁쏠 먹을 때주.
@1 게난. 겅헤도 결혼허젠 허난 다 헹 놔뒀구나.
#1 어게, 문 농사 졍 장만헹 놔뒀주게.
@1 게난 이건 복선이 풀 때 쓸 거 영 헹은에 따로예.
#1 어게.

이바지

@1 음. 그 이버지는 그런 것도 헤 봅디가? 이바지 받곡 허는 거? 이버지 받안?
#1 아니. 그런 거 읏엇어.
@1 그런 거 엇엇어. 음. 다른 사름 헤낫덴 헌 말은 들어나수가? 삼춘 친구나 누게. 이 동넨 이버지 허고 허는 거 엇어?
#1 이버지 허곡 허는 거 엇엇어.
@1 음. 이버진 어떵 헌 사름이 어떵 헹 허는 거?
#1 몰라.
@1 아예 몰라?
#1 응. 우린 이바지 안 혀나난 몰라.
@1 어, 삼춘 이제는 결혼할 때, 나 결혼할 때도예. 신랑칩이서 막 천만 원 줘라, 이 천만 원 줘라 헤낫 주마씨?
#1 어게.
@1 지금도 헙니께.
#1 이제덜토 줌주게.
@1 삼춘은 그거 안 받읍디가?
#1 그런 거, 우린 그런 거 원 몰라, 몰라.
@1 아, 옛날에 엇어낫구나.
#1 엇언.
@1 음. 삼춘네 아이덜 풀 때는 허지 않읍디가?
#1 우리 아이들 풀 때도 원, 그런 거 엇엇어.

@1 엇엇어. 큰딸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똘이나 그때 밑에 똘덜헐 때 돈 안 받아수과?
#1 아무것도 아니 현.
@1 막내똘이 몃 살이꽈?
#1 막내똘이 이제 쉰 둘인가?
@1 가이 받아실 거우다게.
#1 아니 받앗어.
@1 아니 받앗어?
#1 어.
@1 나, 나도 받아신디?
#1 아니 받안.
@1 아니 받안. (웃음) 삼춘네 부자라 부난 아니 받아신가?
#1 아니 받은 것사, 아니 받은 것사 아니 받은 거주게.
@1 오. 아니, 나도 오십, 오십, 쉰다섯이주마씨? 근데 나도 그거 받앗주마씨. 신랑칩이서.
#1 우린 그런 거 안 받아 봣어.
@1 삼춘네 부잣집이난 안 받은 거 아니? (웃음) 육지, 육지, 육지 사위 저 누게꽈? 사위가 육지, 육짓아이꽈?
#1 아니, 딱 제주.
@1 아니 겐디 어떠난 경 헤신고?
#1 원, 우리집은 그런 거 엇고.
@1 아, 그런 거, 그런 거 일절 엇구나예. 음. 그 신랑집이서 그 이버지라고 막 안 헤도.
#1 그 택일 헹 아젼 올 때에.
@1 도세기.
#1 도세기 ᄒᆞᆫ 다리허곡 쏠 ᄒᆞᆫ 말 아졍 오믄 그걸로 끗.
@1 아, 택일기 가져올 때.
#1 응.
@1 그때 가졍 오는구나예. 도세기 다리 ᄒᆞ나.
#1 쏠 ᄒᆞᆫ 말.
@1 쏠 ᄒᆞᆫ 말. 딱 그거 가졍 와?
#1 으. 술 ᄒᆞᆫ 뒈.
@1 술 ᄒᆞᆫ 뒈.
#1 거 오랑 먹엉 갈 거난. (웃음)
@1 그거 ᄒᆞ나 끗. 음.
#1 원, 똔 거 받은 거 우린 아무것도 읏어.
@1 독세기도 안 받고?

#1 아니.

도감과 솟밋할망

@1 으. 삼춘네 집이서 잔치 허젠 허민 친척들이 많이 도와 주주마는예, 아멩헤도 고기 써는 사름이나 이런 사름은 전문가로 헤야 뒈잖아?

#1 그건 돈 줘 빌어사.

@1 돈 줘 비는 사름은 도감만 빕니까?

#1 도감허곡 짝도감은 권당덜이 허곡.

@1 짝도감은 뭐라? 족은 도감?

#1 그 궤기 영 썰어 주민 놓는 사름이 짝도감이엔 헷주.

@1 아, 써는 사름은 그냥 도감.

#1 응.

@1 요거 영 그 놓는 사름은 짝도감.

#1 응. 놓는 사름은 응. 짝도감은 친족이 영 영 놔.

@1 게민 도감만 빌리민 뒈어?

#1 도감허곡 솟밋할망.

@1 솟밋할망은 뭐 허는 사름이꽈?

#1 밥허는 할망.

@1 아, 밥허는 할망? 응. 그건 그 할망은 빌어사 뒈는 거?

#1 그 할망광 도감은 빌어사.

@1 오, 이디.

#1 그건 돈 줘 빌어사.

잔칫술

@1 오. 술도, 술도 도감이 잇어낫덴 헨게마는 건 아니?

#1 아니, 술은 이녁대로 사당.

@1, @2 음.

@1 미릿, 미리 집이서 만든 건 아니고, 사단?

#1 아니, 사단.

@1 술은 사단?

#1 쏘주, 쏘주 사당 먹주.

@1 쏘주 날 때꽈, 그땐?

#1 날 때주게.

@1 뒛병으로 사다근에?

#1 그땐 뒛병으로 사당.

@1 그 전인 그니까.

#1 춘으로 사당.

@1 그니까 춘으로 사당 먹은 거 아니?

#1 춘으로 사단 먹엇주게.

@1 그거 춘으로 사다 놩 그거 비우멍 먹엇주게.

@2 어.

솟밋할망

@1 솟밋할망 헤난 사름은 혹시 이제 아직도 이디 하효 사는 사름 엇인가?

#1 읏어.

@1 다 죽어 불언?

#1 ᄒᆞ나 잇어두 귀 막아 불고, 원.

@2 음.

@1 그 솟밋할망이영 도감 비는 건이, 언제까지 헤난 거 닮으꽈?

#1 우리 족은똘.

@1 풀 때도 헨? 빌언?

#1 그땐 저 시방치룩 식당에 강 ᄒᆞ느라 그때 족은똘 할 때에만 아니 빈 거 닮다.

@1 아, 그럼 딸 다섯에 네 딸, 네 번째 딸까지 헐 때는 다 빌언?

#1 빌언.

@1 솟밋할망이영 도감이영예?

#1 어게.

@1 겅 헤신디 막내는 식당에서?

#1 막내, 막내는 식당에서 허난에 안 빌엇주.

@1 어, 아덜이 제일 밑에꽈?

#1 막내가.

@1 막내가 아덜?

#1 똘이.

@1 아, 똘이, 똘이 막내.

#1 똘이 막내.

@1 그러면 아들은 몃 번째꽈?

#1 세 번 차.

@1 아덜은 세 번 차. 음.

#1 게난 네 번차ᄁᆞ장, 똘ᄁᆞ장은 집이서 헷주게.

@1 예. 거난 한 명만 식당에서 헷구나예. 음.
@2 게민 그 솟밋할망이 왕은에 뭐, 뭐, 뭐, 뭐 헤 주는 거마씨?
#1 밥허고 국 끌려 주는 거.
@2 밥허고 국 끌려 주고?
#1 겨민 친촉덜이 영 헨에 거리멍 먹주, 멕엿주게.
@2 음.
@1 그믄 무사 밥허고 국은 누게나 다 헤지는 건디 할망을 똑 빌어신고?
#1 아이고, 그건이 힘든 일이난 빌어근에 돈 물어사 헐 거주게. 친촉들은게, 들멍날멍 ᄒᆞ주, 경 꾸준히 앚앙 헤 줘?
@1 아.
#1 안 헤 주난에 그거 비는 거.
@1 음. 이제추룩 밥통이 이신 것도 아니고.
#1 어게. 그게 이틀 가문잔치허곡 도세기 잡는 날허곡 삼 일은 헐 거난게 솟밋할망을 빌어사주게. 옛날은 삼 일 잔치주, 거. 도세기 잡는 날허곡, 가문잔치허곡, 잔치허곡 삼 일을 헷주게.
@1 게, 밥은 하영 먹고, 전기밥솟은 엇고.
#1 ᄆᆞᆫ 불 떼멍 ᄒᆞᆫ 거주. 거난에 솟밋할망을 비는 거.

잔치상 준비

@1 겐 그믄 그 막 새각시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들은 ᄒᆞ끔 더 영, 뭐.
#1 그건 저 친촉덜이라도 잘사는 사람만 멘들앗주.
@2 오?
@1 잘사는 사름?
#1 응. 신랑 각시 잘사는 사름만 빌어근에 그.
@1 음식 만드는 것도?
#1 음식 만드는 거. 사각시, 새스방상에 올라갈 건 그건 만들앗어.
@1 그건 전문가나 잘허는 사름이 필요 어수과?
#1 엿날은 잘허는[잘러는] 사름 필요 엇엇어.
@1 잘사는 사람이엇던 거?
#1 잘사는 사름만 헷주.
@1 잔치허젠 허민 그릇도 막 하영 필요허고, 멍석도 필요허고 상도 하영 잇어야 뒈니께.
#1 어게.
@1 거 다 어디 강 빌어당 헤수꽈? 옛날에는.
#1 멍석 이녁 집이 하영 이시난에 그걸로 ᄀᆞᆯ으멍 허곡. 이 그릇은 또 이녁 거 부족[부작]허믄 친촉 거 모다당 놔근에 허곡 겡헷주게.

@1 음. 혹시 그런 건 빌려주는 이런 건 없고?
#1 엇엇어.
@1 뭐 접 같은 거 헤근에 ᄀᆞ치 그런 건 없고?
#1 그런 건 엇고, 엇곡.
@1 그릇제 헤낫덴 헨게마는 그런 건 아니꽈?
#1 그건 그릇계 ᄒᆞᆫ 건 우리 잔치 끗나사덜 ᄒᆞᆫ 거.
@1 음. 더 나중에?
#1 응.

건지머리

@1 음. 그 족두리나 가마 같은 것도 접이 잇어낫덴 헙니다마는.
#1 아니, 아니.
@1 아니? 그런 건 게믄 어디 강 빌려당 허여?
#1 이 하인이엥게, 잇어.
@1 음.
#1 그런 사름이 족두리영 ᄆᆞᆯ이영 ᄆᆞᆫ 아졍 오라근에 헷주게.
@1 음.
#1 겨난 족두리가 섯어[스스]게, 건지 엿엉 시집갓주게.
@1 아, 삼춘은 족두리 안 헌 거예?
#1 으. 건지, 건지 엿엉 시집오랏주.
@1 건지 얹지는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이 머리게, 요새 그 테레비에 보믄 영 건지 엿지지 아녀게? 그추룩 헤긴에 왓주게.
@1 아, 그건 이녁 머리로만 못 헐 거 아니?
#1 그건 엿날은이, 엿날 할망덜 머리가 경 ᄆᆞᆫ 헹 놔두메. 겨민 이 부모 거 엇이민 친촉 거 빌어단 엿언 오랏어.
@1 음, 그건 그러면 그건 누게가 영 헤 줫수과? 삼춘이 직접 헌 건 아니잖아?
#1 그 친촉이 헤 주는 거주기.
@1 잘허는[잘러는] 사름이 이십니까? 게믄 삼춘 헐 때 생각허민 어머니, 어무니 머리 헹 놔둔 거허고.
#1 겨난 어머니 머리 헨, 헨에 영 헨 친촉이 건지 엿엉, 영 헹 건지 엿엉 이망거리 영 헨 묶국 헹 오랏주.
@1 이멍거린 무신걸로 헹 무끄는 거꽈?
#1 그건.
@1 무신 천으로?
#1 멩주로.
@1 멩주로. 무신 색이라?

#1 건 헤연색 헤근에 영 헨.
@1 하얀색 헨. 아까 이멍거리? 이망거리?
#1 이멍거리.
@1 이멍거리는 영 여기 무끄는 거란에 이거 무사 무껌수가?
#1 이 건지 벗어져 불카 부덴.
@1 아, 건지 벗어져 불카 부덴? 건지는 지금 막 대왕대비 막 이렇게 허는 사름추룩 영 동그랑허게 영 허는 거꽈?
#1 어게.
@1 영 허고예.
#1 어게.
@1 게민 삼춘 머린 영 헹 요기 쪽두리, 쪽지곡?
#1 아니, 우리두 머리 거난에 그 머리에 부쩡 영 헹 옂졋주게.
@1 삼춘 머리영, 삼춘 머리는, 삼춘 머리 두 개로 영 영 영 따?
#1 어게.
@1 경 헹 부쪄?
#1 깅 헹 영 헹 영 헨 영 건지.
@1 영 건지 헤? 요 삼춘 머리허고 어무니 머리는 어떵 붙이는 거라?
#1 이것에 영 헹.
@1 잇어지게 어떵 헹 허여?
#1 영 헹 다와사주게.
@1 아, 영 무끄든지, 다우든지 헤근에?
#1 다와근에.
@1 아, 영 다왕 영 헹?
#1 머리 거난에 다와지주게.
@1 머리가 뭐 허난에?
@2 거난에.
#1 머리가 질어 노난.
@1 아, 머리가 걸, 걸덴 굴아나수과?
#1 어게.
@1 진 거를?
#1 어게.
@1 음. 머리가 거난 영 다왕 영 올리는 거라?
#1 어게.
@1 그믄 요건 어떵 마무리헤?

#1 일로 오라근에 영 헤영.
@1 끝에 건 어떵헤? 요, 요, 끗에 나와실 거 아니꽈, 끼와?
#1 이레 헤근에 이레 헨에 영 끼우주게.
@1 오. 그다음에 이런 데 뭐 무슨 거 이렇게 삔 같은 것도 답니까?
#1 읏어.
@1 삔도 엇어?
#1 엇이난 그 이멍거리를 영 ᄒᆞ는 거주.
@1 어, 옛날엔 스프레이도 엇이난 이제는 막 스프레이 뿌령 고정허고 막 허는디예.
#1 어게, 어게.
@1 실삔 다 끼우고 막.
#1 아무것도 엇어.
@1 아무것도 엇어?
#1 경허난 영 헨 무끄는 거.
@1 오.
@2 고정도 허고.
#1 어게, 고정됃렌. 경 아니민 그 머리가 오당 보민 벗어져 불 거 아니?
@1 게난.
#1 겨난 영 헹 무끄는 거.
@1 음. 경 헤근에 겨믄 삼춘네 헐 땐 건지 헤신디 건지 헌 다음에 족두리 헤수가?
#1 우리 ᄒᆞ연에 막 오랜 지 후제사 족두리 헤실 거라.
@1 아, 그믄 삼춘네 결혼할 때 그전에도 건지 허고?
#1 원, 우리.
@1 후에도 ᄒᆞᆫ 몃 년은 건지 허고. 한참 후에야 족두리가 나왓구나예.
#1 어. 족두리 나온 건디 오래지 안헷어.

혼례복

@1 아. 그럼 족두리 헐 때도 장옷 입읍니까?
#1 장옷 입언.
@1 그 육지서 결혼헐 때 무사 장삼이렌 헤근에 신부 옷이 입는 거 잇는데 그런 거는 제주도에서 안 입어나수과?
#1 안 입어낫어.
@1 오.
#1 그자 장옷.
@1 족두리 써도 장옷, 건지 헐 때도 장옷?

#1 어게.
@1 속에는 멩지 치메 저고리나 양단 치메 저고리 허고, 그냥? 음.
@2 남자 삼춘 옷은 무슨? 먼저 물어 볼까요?
@1 음. 음. 옷은 뒤에 있나요?
@2 네, 여기가 없네요.
@1 음, 음, 음. 그 가메, 가마영, 가마를 하인이 가져온덴 헷잖아예. 게믄 남자 삼춘 옷도 거기 다 거기 ᄀᆞ치 이신가?
#1 신랑칩이서 남저 입엉 오주게.
@1 그 옷은 어디서 나는 거라?
#1 이녁, 신랑칩이서 헤엿주게.
@1 이디 모자 같은 거나 사모관대나 이런 건 안 헤?

데끼

#1 그건 그 뛔끼에 ᄒᆞᆫ디, 데끼에 ᄒᆞᆫ디 오주기.
@1 뒈끼가 뭐라?
@2 떼께.
#1 신랑 신부 탈 데끼.
@1 아, 데끼? 오. 그거 하인이 게믄 가졍 이신 거?
#1 오게.
@1 하인이 떼끼허고, 사모관대허고.
#1 어게.
@1 뭐 가졍 오는 거?
#1 아졍 오라근에 신랑칩이서 사모관대 쓰국, 신부칩이선 무시게 헷주게.
@1 건 남자가 비는 거, 남자 집이서 비는 거꽈? 여자 집이서 비는 거꽈?
#1 몰라, 건 몰라. 그건 어떵사 헤신디 몰라. (웃음)
@1 몰라? 응. (웃음)
@2 뒈끼? 삼춘 떼께 아니고 뒈끼?
@1 데끼, 데끼.
#1 데끼 헤긴에 앞쪽으로 물 헤긴에 영 헹 그 물 질메 지와근에 그것이 그거 이껑 오는 거.
@1 삼춘도 그난 그 데끼 탕은에 결혼헙디가?
#1 어게.
@1 게난 앞이도 말 잇고, 뒤에도 말 잇고. 그 사이에 데끼 영 헤근에.
#1 뒤에도 말 잇곡, 가운데 매와근에, 매와근에 타는 거주.
@1 타는 거라. 게면 ᄒᆞ끔 높아?

#1 그 가마나 ᄀᆞ튼 거.
@1 가마나 ᄀᆞ튼 건데 사름이 들르는 게 아니고 말에 허는 거구나예?
#1 물에 헤, 우리 ᄒᆞᆫ 땐 물에.
@1 그 물 이끄는 사름은 하인이고.
#1 하인이 이끄곡.
@1 한 사름만 이끄민 뒈어?
#1 한 사름만 이끄믄 뒈주게.
@1 음. 삼춘 그거 탈 때 안 무서웁디가?
#1 아니 무서와. 무사 무서와게?
@1 말 막 들러퀴카 부덴.
#1 독ᄒᆞᆫ 물이, 경 하인이 ᄃᆞᆫᄃᆞ헤긴에 딱 심엉 경 들라퀴게 헷어게?
@1 음. 그믄 앞엣말만 잡으민 뒈어? 뒤엣말은 안 잡아도 뒈어?
#1 안 잡아도 뒈어.
@1 안 잡아도 뒈어? 그냥 따라와?
#1 응.
@1 음.
@2 그민 밑에 데끼 아래에 바퀴나 이런 것도 엇고예?
#1 엇어.
@2 오. 말에만 영?
#1 말에만 걸쳐근에.
@2 오.
@1 지금 가마는 테레비에 보민 앞으로 영 내리잖아예?
#1 어게.
@1 데끼도 앞으로 내려?
#1 앞으로 내려.
@1 어, 그믄 탄 다음에 말에 고정헷다는 얘기네예?
#1 어게.
@2 누가 영 들러?
#1 영 타민 들러다근에 그 물에 영 헹 매와사.
@1 어. 안에, 밑에 이거 무신거꽈? 이거, 이거 욧방석이라도 깔아?
#1 이거 방석 깔앙 앚아사 오주게.
@1 그니깐예.
#1 어게.
@1 덜컹덜컹헐 거 아니예?

#1 으.
@1 그믄 가메 탈 때 삼춘은 욧방석 하나만 깔아?
#1 ᄒᆞ나만 깔아도 뒈주게.
@1 ᄒᆞ나만 깔고. 그다음 또, 멀리 가는 사름은 그 가메 안에 요강도 놓 갓덴 헙디다?
#1 몰라, 몰라 그건.
@1 그건 몰라?
#1 으.
@1 삼춘은 얼마나. 삼춘 이 동네서 결혼헤시난 오래 타진 안헤실 거 아니?
#1 오래 안 타주게, 우린 저 동카름이난에게.
@1 동카름에서?
#1 이디 오는 거난 멀리 아니 왓주.
@1 이딘 무슨 동네꽈?
#1 이딘 구루뭇 동네.
@1 구루뭇 동네. 동카름에서 구루뭇 동네 시집완. 예.
#1 어게.

가문잔치 음식

@1 이젠 결혼식 전날, 아, 도세기 잡는 날이라예. 도세기 잡는 날 삼춘네 집이선 어떵, 어떵 뭐헤난 거 닮으꽈?
#1 무시거 헤여게. 물망국 끌리곡, 도세기 잡은 국물에 끌려근에 먹엇주.
@1 물망국 끓영에?
#1 어게.
@1 안칩도 ᄒᆞ꼼 헹?
#1 그건 몬 수에 담아근에 몬 고젱이에 꿰어근에 몬 가문반 헤, 헤여근에 먹곡.
@1 음. 가문반에는 수에만 놉니까?
#1 수에영 머릿고기영 간이영 거 골고루 고젱이 꿰멍 몬 권당덜이 갈라 먹엇주게.
@1 게난 고젱이에 꿰왕, 끼왕 주는 건데 이게 가문반이꽈?
#1 어게.
@1 접시에 놓 주는 거 아니고?
#1 그거이, 고젱이 꿰왕 주는 것이 가문반이지.
@1 이게 가문반. 고젱이에 멧 개나 끼와?
#1 하영 끼우주게.
@1 하영 끼와?
#1 하영 끼와. 순대, 그 염통, 북베기, 머릿고기 헤민 바로 고젱이가 이만썩 걸게 끼왓주게.

@1 오. 겡 그거 끼왕 ᄒᆞᆫ 사름이 ᄒᆞ나씩 줘?
#1 어.
@1 남자 삼춘덜만 줘, 아니면 여자 삼춘들도?
#1 다, 아이덜토 다.
@1 아, 아이덜도 다 줘?
#1 오. 게면 다 손에 영 들렁은에.
#1 겨곡 어룬덜은 영 정반헤긴에, 정반에 놔근에 영 헹 어룬은 주곡, 아이덜은 고젱이에 꿰왕 주곡.
@1 게민 고젱이에 꿰왕 주면 밥은 어떵 헹 먹어? 이거, 이거 들러근에.
#1 그거 빠멍 먹엇주. (웃음)
@1 밥 ᄒᆞᆫ 직 먹고, 이거 한 번 빠 먹고? (웃음)
#1 어게. 어룬덜은 정반에 헨에, 정반에 놘 줫주.
@1 음. 그럼 도세기 옛날에는, 도세기도 집에서 잡앗잖아예.
#1 어게.
@1 어룬, 동네 어룬들이예.

하인의 역할

#1 어게. 것두 잡는 사름이 섯어.
@1 게난 것도 하인이꽈?
#1 것도 하인이 잡아.
@1 것도 하인이 잡아? 아까 떼끼 빌려주는 그 하인이 으, 도세기도 잡아?
#1 어게. 겨난 하인이주게.
@1 오, 옛날에 하인 말고, 남자 하인 말고 여자분도 잇지 안헤수과?
#1 여전게, 또 그 홍세 졍 간덴 헤긴에 여저 하인도 잇주게.
@1 아, 홍세는 여자 하인이 졍 가는 거꽈?
#1 으.
@1 건 결혼식날 아침이, 신붓집 갈 때?
#1 신붓집 갈 때 신부 신발이영 그 홍세헤영 헤긴에 그거 졍 가주게.
@1 아, 그건 여자 하인이 졍 가는 거? 음. 남자 말, 물 이껀 가는 남자 하인 잇고, 그거 졍 가는 여자 하인 잇고.
#1 여저 하인.
@1 두 사름 부부?
#1 어게.
@1 하인이랑 결혼허민 여자도 하인 뒈는 거구나.
#1 어게, ᄒᆞ쏠 허민 쌍, 쌍놈이엔 곧지 안헤게. 경ᄒᆞ난 경ᄒᆞᆫ 사름이영 허는 거.

가문잔치

@1 도세기 잡, 잡안 먹엇어예, 다 준비헨. 이젠 오늘 가문잔치라. 그럼 가문잔칫날은 어떵 어떵 허는 거꽈?

#1 가문잔칫날은 어떵헤여게. 그, 그거 헤근에 밥 먹고게, 궨당덜 문 모다들엉덜 밥 먹곡 ᄒᆞ는 거주.

@1 음. 밥은 아까 밥은, 보리밥? 아까 멍석에 물렷던 그걸로 허곡. 팟도 놩 헙니까, 퓟밥?

#1 퓟밥.

@1 퓟밥 헤여? 결혼헐 때 무사 퓟밥허는 건고?

#1 몰라, 무사산디 퓟 놔근에 퓟밥헷주게.

@1 예. 퓟허고?

#1 보리쏠허곡.

@1 보리쏠허고?

#1 곤쏠 놓고.

@1 곤쏠 ᄒᆞ꼼 놓고 헨에. 음.

#1 그 밥이 맛 좋으메. (웃음)

@1 맛 좋아? (웃음)

청첩장, 택일기 가져 오는 날

@1 그 혹시 옛날에도 청첩장 같은 거 잇어나수과?

#1 읏어.

@1 음, 글로 썽이라도 누게 나 결혼헴수다 영 헹 어디 보내고?

#1 아니, 아니.

@1 그런 거 아예 엇어?

#1 아니, 아예 엇어.

@1 약혼식은 안 헤난?

#1 아니, 약혼식은 안 헤?

@1 우리 옛날에 어무니, 삼춘보다 ᄒᆞ끔 어리주마는 우리 어무니넨 약혼 사진 헤 가지고, 예식장 아니 그 사진관에 가근에 둘이, 아부지영 어무니영 사진 찍은 거 이십디다?

#1 우린 읏어.

@1 그런 거 엇어?

#1 우리 때는 읏엇어.

@1 택일기 가졍 오는 날, 그날이 약혼식이여 영 허는 말도 헙디다?

#1 원, 그게 그거주게.

@1 게난예. ᄯᅮ루 안 헤도.

#1 그걸 택일기 춤 쏠 ᄒᆞᆫ 말허곡 도세기 ᄒᆞᆫ 다리허곡 술 ᄒᆞᆫ 뒈 아졍 오는 것이 그날이 그 약혼식이주게. (웃음)

@1 결혼허는 거 정헤진 약속을 허는 거난예.

#1 응, 어게.

@1 음. 그 택일기 가져오는, 약혼허는 날도 집이서 게난 막 밥헹 친척들도 불렁 밥 먹읍니까?

#1 친촉덜 불렁 먹주게, ᄇᆞ딘 ᄉᆞ춘덜.

홍세함

@1 ᄉᆞ춘덜은, 으음. 이젠 결혼식날 아침 뒛어예.

#1 음.

@1 아침 뒈민 이제 결혼식 준비를 다 헹 이제 결혼헐 거 아니꽈예. 그믄 제일 처음에 남자칩이서 아침이예, 남자칩이서 아침이 허는 게, 일어나근에 홍세함 다 챙기고?

#1 그거 홍세함 챙겨근에 신부칩이 가는 거주게.

@1 어, 그 홍세함에 무신거, 무신거 놓는고?

#1 거 무시것사 놔신디 몰라, 원.

@1 삼춘 받앙 보난 무시거 잇입디가, 그 안에?

#1 알아지크라게, 오래 부난.

@1 똘, 똘 헐 땐 어떵헙디가?

#1 똘 헐 때도 몰르크라.

@1 으. 남자 삼춘이 다 알앙 헷구나. 으. 그 하님이, 하인이 그거 졍은에 신부칩이 왓어예. 아, 오기 전에 참, 남자칩, 신랑칩에서는.

#1 게난 그 홍세 온 것이 또 말쩬 신랑칩이 앗다다 불주게.

@1 다시 또 돌려 줘, 무사?

#1 어, 무사산디 신랑칩이 아져다 비어.

@1 안에, 안에 내용은 다 빼고?

#1 아니, 그대로.

@1 그대로? 오.

#1 으. 요만헌 천 끈어 앗아근에 문 돌려 줘 부는 거.

@1 천 끈어 앗앙은 뭐라?

#1 그 홍세 온 거게. 멩지나 베, 저 미녕이나 홍세 놓잖여.

@1 어.

#1 겨민 그걸 요만이 끈어근에 그건 신부칩이서 무당신디 저거 허젠 끈어 앗는 거.

@1 무당신디?

#1 응, 심방신디 저거.

@1 무사?

#1 심방신디 갓주게, 가주게.
@1 그거 가졍은에?
#1 으.
@1 아, 이거 결혼헨에 받은 거우다 헹 가졍 가는 거라, 심방안티?
#1 으. 심방신디 강 바찌는 거.
@1 어, 잘살게 헤 주렌 허는 건가?
#1 경 ᄒᆞ는 거산디 겡 헤여.
@1 그, 그건 하고 나머지는 다시 신랑칩이 돌려 불어?
#1 나머진 다 신랑칩이 돌려 불어, 돌려 비어.
@2 돈 안 받아서 그런 건가?
@1 아니, 다른 삼춘들은 홍세 미녕이엔 ᄀᆞᆯ읍디다예.
#1 으.
@1 홍세미녕으로 양말 아니, 버선 만들앙은에 삼춘덜 다 태왓덴 헨게마는.
#1 아니, 아니.
@1 아니, 아니? 이딘 그냥 돌려 불언?
#1 이딘 그대로 돌려 비어.

예장

@1 음. 그 안에 예장 잇잖아마씨. 문우장, 예장?
#1 예장.
@1 예장은 다 빼고?
#1 예장만 빼어.
@1 어, 그거 홍세 미녕도 ᄒᆞᆫ 요만이만 끈엉은에 그냥 돌려 부는 거?
#1 어게.
@1 음. 이거 영 싸, 싸잖아예, 포대기로예. 그 포대기채 다 돌려 부는 거?
#1 포대긴, ᄒᆞᆫ디 그거 요만헌 끈어 앗은 것에 헤민.
@1 아, 그건 심방신디 보내고?
#1 심방신디 보내는 거.
@1 오, 빨간 천, 빨간색으로 영 싼 거?
#1 어게.
@1 그거는 심방신디 보내고? 나머진 다 보내?
#1 심방신디 보내는 거.
@1 나머지는 다 보내고.
#1 나머진 다 보내고.

@1 그날 보내, 메틀 잇당 보내?
#1 메틀 잇당 보내.
@1 음, 옛날 어른들 허는 거 보난 예장도 검사헹은에 잘못 쓰민 다시 썽 오렌도.
#1 돌령. 다시 썽 오렌. 겨믄 신랑이 ᄆᆞᆯ 우이서 다시 썻주게.
@1 아, 삼춘도 경 헤납디가?
#1 아니, 우린 경 안 헤 봣어.
@1 경, 경헤도 그런 말 하영 들어나수과? 음.
#1 신부, 그 여장 잘못 썽 가민 ᄆᆞᆯ 우이서 신랑이 ᄆᆞᆫ 새루 썽 또 들어가낫어.
@1 아, 신랑이 잘 아는 사람이라야 허는 거고, 신랑이 잘 몰르믄 어떵헐 거라?
#1 몰라, 원 경헌디 경헤낫젠 허니까.
@1 어, 그믄 신랑은 말 탕예, 신부집이 왓일 거 아니꽈? 그믄.
#1 그믄 ᄂᆞ리지도 못헹 ᄆᆞᆯ 우이서 그 여장을 다시 썻주게.
@1 예장 검사허는 동안 신랑은 내리지도 못허고 말 우에서 대기허는 거?
#1 어게.
@1 음.
#1 겨난 그 여장 봐근에 들어오라 헤사 ᄆᆞᆯ 알르레 내렷주.
@1 음. ᄆᆞᆯ, 신랑 들어오젠 허믄 막 마당에 무신것도 막 ᄀᆞᆯ고, ᄂᆞ람지 깔앗덴 헨게마는 그거 아니마씨?
#1 아니.
@1 똑ᄀᆞ테? 게믄 대기허고 잇다가 통과뒛다 들어오라 영 허민 이제.
#1 그때사 들어가는 거.
@1 들어가는 거?
#1 어.
@1 남자 삼춘, 신랑들 입에 영 막는 것도 잇입디다?
#1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거 엇어? 그냥 사모관대만?
#1 으.

혼례 전 문전제

@1 신발도 다 붙은 건가, 하님네 집이서 가져온 걸로예. 거멍헌 그 장화 닮은 거예? 그거 신어근에 그 신랑이 결혼, 신부 둘레 가기 전에 아침에 문전제도 지냅니까, 집이서? 제 지냉 나가?
#1 제 지내어.
@1 제 지내어? 음. 신붓집에서도 제 지내어?
#1 지내주기, 밤이.
@1 아, 새벽이 아니고 밤에?

#1 제서치룩 지내메.
@1 열한 시, 열두 시 이때쯤에?
#1 어게.
@1 음. 그건 조상님들한테?
#1 인서허는 거.
@1 인사허는 거? 음. 신부칩이서도 지내고, 신랑칩이서도 지내고예?
#1 그건 원, 전통으로 ᄒᆞ는 거.
@1 으. 신랑이 아침에 오기, 오는 거 말고 전날 밤에 내일 결혼식인데 전날 밤에 우리 생각헤 보난 신랑이 신부집에 와난 거 닮은디 경 안 헙니까? 고생헴덴 왕 뭐 허곡.
#1 똘 풀 땐 오라낫주마는 우리 홀 땐 아니 뎅겻어.
@1 아, 삼춘네 똘 풀 땐 전날 새, 새스방이 와십디가?
#1 가문잔치난.
@1 가문잔치난. 음. 뭐 들렁 와?
#1 들렁 온 건 몰르커라.
@1 어, 경헤도 왓다 가긴 헤수가? 음.
#1 오랏당 가메.

우시와 신랑상

@1 근데 삼춘 헐 땐 안 허고. 게믄 아침에 딱 와 가지고, 신랑 경 헹 내령 들어왓어예. 그러면 신랑이 신랑상을 받을 거 아니?
#1 어게.
@1 이, 신랑 신부 부모님들한테 절 헤?
#1 아니.
@1 절 아니 헤여. 그냥 들어가서 밥 먹어?
#1 그냥 들어오랑 밥 먹주.
@1 신랑집이서 신부 집이 올 때는 신랑 혼자만 올 건 아니잖아, 신랑허고 하님허고 또 누게 옵니까?
#1 우시.
@1 우신 멧 명이 와?
#1 엿날은 두 사름 오라낫저.
@1 응, 어떤 어떤 사름인고?
#1 수우시, ᄒᆞ썰 그 ᄇᆞ딘 궨당은 수우시엔 허곡 둘이 오라낫어.
@1 으. 수우시허고 그냥 우시허고 둘이 오라난.
#1 으.
@1 ᄇᆞ딘 궨당은 수우시, 그다음 그냥 ᄒᆞ끔 으, 그냥 궨당은.

#1 그자 보통 우시.
@1 그럼 두 명만 오라나수가? 아, 어머니쪽에 궨당도 오고, 아버지쪽에 궨당도 온덴 헨게마는 그건 아니구나?
#1 아니.
@1 건 아니, 음. 아, 겐 수우시가 오는 거구나예.
#1 어게.
@1 보통 수우시는 어떤 사름이 허는 거라? 족은아방이나 뭐 이런 사름인가? ᄉᆞ춘이나 아, 족은아방이나 ᄉᆞ춘이나? 음. 신랑상을 받으민 신랑상에 올라가는 건 무신거 올라가?
#1 무시거게, 궤기영 무시거영 올라가주.
@1 음. 이제는 신랑 친구들도 막 같이 와낫수, 오는데 그때 안 헤난예?
#1 아니, 아니.
@1 삼춘네 똘덜, 아덜덜 헐 때는 와나실 거 닮아. 신랑 친구덜, 들러리 헹은에.
#1 둘러리로 오랏주.
@1 예, 음. 근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엇어난예.
#1 엇언.
@1 음. 그럼 두 명만, 신랑하고 하님허고 우시 두 명만 온 거네, 집에.
#1 어게.
@1 여자 우시도 안 오고?
#1 아니.
@1 여자 우시도 안 와. 음, 그 다 밥 먹엇어예.
#1 음.
@1 그다음에는 어떵 헤? 신랑이.
#1 어떵 헤? 그땐 절헤 뒁 허는 거주.
@1 그땐 절헤?
#1 어게, 밥 먹은 후젠.
@1 밥 먹은 후젠 절헹, 새각시 둘앙 나가는 거라? 그때 동안 새각시는 어디 이십니까?
#1 어디서게, 방 안에서 문 준비헤여근에 가는 거주.

혼례 전 신부 준비

@1 그 삼춘이 아침에 준비허젠 허믄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미리 밤새도록 준비헙니까?
#1 아니.
@1 그믄 새벽이 일어낭?
#1 어게.
@1 삼춘 결혼헐 때 생각헤 봅서. 어떵 어떵 헤근에 출립디가?

#1 어떵사 헤신디 알아지커라. (웃음) 오래여 부난.
@2 (웃음)
@1 이디 무신거 붙이기도 헤?
#1 아니, 아니.
@1 연지곤지 안 붙여?
#1 아니 붙엿어.
@1 그래도 또 입술도 뭐 볼르고 헤야 뒐 거 아니? 것도 안 볼랑?
#1 그런 것도 읏어.
@1 그냥 건지만 헨?
#1 어.
@1, @2 오.
@1 아침 새벽에 헐 필요가 엇엇네, 게믄.
#1 엇엇주, 아무것도.
@1 그 저, 신랑 들어오는 거 보민 안 뒌덴 허멍 고팡에 곱앙 잇어낫덴도 굴읍디다만 아니꽈?
#1 신랑 들어오는 건 보지 아년덴 ᄒᆞ메.
@1 응, 경헤도 고팡은 안 가고 그냥 다른 방에 잇엇구나.
#1 어게.
@1 으. 그럼 밥은 그때 먹어, 삼춘이? 새각시? 안 먹엉 기다려?
#1 조반 먹주기.
@1 조반은 먹어?
#1 게.
@1 으. 다 출령 앉으민 먹어집니까게, 이거.
#1 게난게, 미릇에 먹엇주게.
@1 옷 입기 전이 미릇에 먹고?
#1 어게.
@1 어. 경헹 출령 앚앙 잇단 새서방 다 먹어지민 이제 ᄀᆞ치 나가는 거라예?
#1 어게.

새각시상

@1 뛔께 타근에 신랑칩이 들어가. 그러면 신랑 집이 가면 그다음에 뭐 헤?
#1 그때 가민게, 밥 주면 먹엇주게.
@1 마당에서 저 무신건 안 헤?
#1 안 헤.
@1 사진 치고, 이런 것도 안 헤? 그 뭐.

#1 엿날은이, 우리 시집 갈 땐이, 나 신부상을 받으민 그 영 헹 요새 개지 더끄지 안혀? 개지에 세 숟구락 밥을 거려 놔. 도세기 궤기 ᄒᆞᆫ 점 놓곡 헹 그 신부상 알르레 영 놔낫주게.
@1 응.
#1 것도 방쉰ᄀᆞ라이. 그추룩 헤엿어.
@1 겡 나머지는 먹는 거꽈, 새각시가?
#1 어게. 먹구정 ᄒᆞ민 먹곡 게 아녀민 **만이 ᄒᆞ썰 먹엉 말고게.
@1 삼춘은 어떵 홉디가?
#1 어뜽사 헤신디 알아지커라.
@1 (웃음) 새각시 밥 하영 먹으민 하영 먹엇덴 소문 나고 안 먹으민, 안 먹엇덴 소문 나곡 경헌덴 헤여 근에.
#1 몰르커라, 오래여 부난.
@1 그 밥, 새각시밥은 그 무사 아이들, 무등에 산 아이들 나눠 주곡 헤야 뒈난.
#1 그, 옛날은이, 새각시밥 이 손드레 ᄒᆞᆫ 숟구락 노멍 궤기 ᄒᆞᆫ 적썩 노멍 아이덜신디 태왓주게. 겨난 그것이 사각시덜 오라가믄 문 권당 아이덜이 모여들주게, 문. 그 밥 얻어먹젠.
@1 아, 새각시 보젠이 아니고?
#1 그건 곤밥이난에게.
@1 그건 곤밥이난에. 어.
#1 (웃음)
@1 어, 새각시상에는 무신거 무신거 올라와?
#1 것도게, 궤기영 무시거게.
@1 독세기도 올라와?
#1 으.
@1 생선도 올라와?
#1 생선은.
@1 생선은 아니, 생선 군 건 안 올라와?
#1 아니 올라와.
@1 그럼 닭? 닭다리나 뭐.
#1 독, 독다리도 아녀고.
@2 독.
@1 독다리도 안 허고, 돼지고기허곡, 계란허고.
#1 어게.
@1 밥허고 국. 국은 무신 국이라?
#1 궤기국, 바릇궤기국.
@1 아, 바릇궤기국?

@2 음.
@1 생선으로?
#1 어게.
@1 옥돔인 거지예?
#1 옥돔.
@1 옥돔 이디선 뭐옌 헙니까?
#1 옥돔이엥 허주, 무신거옌 골아.
@1 솔레기엔 안 헤?
#1 솔라니. 으.
@1 그믄 솔라니로 국 끌려.
#1 으.
@1 미역 놉니까?
#1 메역.
@1 메역 놔? 메역 안 논덴 허는 디도 이십니다.
#1 아니, 메역 놔.
@1 아, 놈삐 아니고 메역 놔. 음, 경헹 국 끌려 주민 그거 먹, 먹어예,
#1 어게.
@1 새각시. 거믄 밥 다 먹엇어, 이제. 새각시 아이들한테 것도 다 태왓어. 그믄 새각시 그다음 뭐 헙니까?
#1 글지후젠게, 건지도 벗곡 무시거 헤가주게.

대반

@1 아, 아까 밥 태와 주는 사람은, 누가 밥 태와 줘?
#1 그 대반 앚인 사름.
@1 누게가 대반 앚는 거라?
#1 그 친촉, ᄇᆞ딘 친촉이 대반 앚는 거주.
@1 음. 대반도 잘 사는 사름이 헤야 뒌덴 허멍마씨.
#1 어게.
@1 홀어멍[홀러멍]도 안 뒈고.
#1 홀어멍[홀러멍]도 안 뒈.
@1 똘 못 난, 아니 아덜 못 난 사름도 안 뒈고.
#1 골려.
@1 음, 골려근에.
#1 응.

@1 옷 갈아입는 건 누가 도와 줘?
#1 그게 대반 앚인 사름.
@1 것도 대반 앚인 사람이? 건지도 빼고.
#1 장옷도 벗고.
@1 장옷도 벗고, 그 입어난 옷 그냥 입어, 아니민 그디 시어머니가 헤 준 옷으로 갈아입은덴 허는 사람도 잇입디다마는.
#1 그냥 입엇다근에 듯날은.

혼례 뒤풀이

@1 삼춘 그냥 그 양단허고, 으 그걸 그냥 입어근에 유동 치메허고 입엇던 거 그냥 입고. 겡 옷 다 갈아입언. 금 그다음에 뭐 헤?
#1 무신거 헤, 그냥 놀주게.
@1 (웃음) 어떵 뭐 허멍 놉니까?
#1 무시것사 허멍 놀아신디 알아지커라?
@1 밤이 친구들이나 친촉덜이영 놉니까, 장단도 허고?
#1 어게. 밤이 노래 부르멍 놂도 허주게.
@1 결혼식날?
#1 응.
@1 육지, 테레비에서 보듯이 남자, 신랑 발창도 때리고 영 허는 것도 헤?
#1 우린 아니. 그런 건 읏엇어.
@1 그런 건 엇엇어.
#1 붉두룩 노는 집인 놀곡.
@1 그냥 노래 부르멍 놀아?
#1 으.
@1 신랑 신부도 ᄀᆞ찌?
#1 신, 신랑은 ᄀᆞ치 놀주게. 신부는 기자 앚앙 귀겡만 헤도.
@1 아, 남자 신랑은 술도 먹고?
#1 어게.
@1 막 놀고? 음.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예?
#1 엇어.
@1 그냥 뭐 발창 두드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1 그런 건 엇어, 엇어.
@1 그냥 술 먹고, 노래 불르고, 춤추고예. (웃음) 으.
@2 부주.

부신랑, 부신부

@1 잠시만요, 옛날에도 부신랑, 부신부 이런 거 잇어나수과? 엇어? 이젠 막 부신랑, 부신부 헙니께.

#1 이젠 뭐 헤곡대곡. 대반 앚은 것이 그냥 그것이 그거.

@1 아, 그럼 여자 신랑집이 오는 신부, 부축허는 사람이 대반이고, 신랑집이, 신부집이 들어오는 신랑 영 안내허는 사름은 뭐라?

#1 것도 대반.

@1 것도 대반? 중방은 무신거꽈?

#1 중방은 몰라.

@1 중방은 몰라. 음, 그믄 신랑 대반이 잇고, 신부 대반이 이신 거라?

#1 어게.

@1 음. 그믄 신랑 대반은 신랑.

#1 집이서 저.

@1 신부집이서?

#1 신부집이서.

@1 신랑 영 안내허고 신랑 영 허는 거 도와 주는 사름이라?

#1 어.

@1 음. 그 신랑 신부, 신랑 친척덜한테 신부가 절 허고 허는 건 안 헙니까?

#1 우리 홀 땐 그런 거 읏언.

@1 저 돈도 받고, 우리는 난 저 신랑집이 어른들헌티 절 허난 난 돈 줍디다? (웃음) 그런 건 안 헨?

#1 여긴 그런 거 읏엇어.

@1 엇엇어? 테레비에는 전통 혼례 허는 거 보믄 막 대추도 영 데끼곡 허막 영 허는디 그런 것도 엇엇어?

#1 그런 건 엇어난.

사돈대위

@1 엇어난예. 사돈연맹 허는 건 뭐꽈?

#1 뭣산디 난 몰르켜게.

@1 아, 그믄 저 신랑칩이 친척허고, 신부칩이 친척하고 가족들, 만낭 인사허고 허는 건 뭐라?

#1 그건게, 사돈대위.

@1 사돈대위. 사돈대윈 어떵 허는 거꽈?

#1 사돈대윈 어떵 허는 거라, 그냥 술 혼 잔 먹으멍 갈라 사는 것이 사돈대위주.

@1 언제 허는 거마씨?

#1 이 신랑칩이서게, 신부 아방도 가주게. 가민 그때게, 끗나민 사돈대위 허는 것이, 그것이.

@1 아, 신부는 신부상 받아근에 먹고, 새각시상 받앙 먹고 그다음에 신부칩이선 우시허고?

#1 우시허고, 신랑 집이 가도 우시, 신부칩이 가도 우시주게.

@1 응, 신랑칩이 오는 신부집이 우시가 신부 아버지허고 또 누게 옵니까? 우시, 우시허고. 두 명만 와?

#1 응.

@1 여긴 수우시 엇어?

#1 그딘 엇어.

@1 그딘 엇어. 겡 신랑 아부지허고, 우시 한 명.

#1 또.

@1 아, 신부 아버지하고 신부 우시 한 명.

#1 으.

@1 두 명만 와? 그믄 그 사름 왕은에 밥 먹을 때 그때 사돈대위 허는 거꽈?

#1 갈라 사젱 허믄 사돈대위.

@1 아, 집이 가젠 허민?

#1 어게.

@1 사돈대위는 그냥 술 한 잔 주고받고 허는 것뿐?

#1 어게.

@1 신랑 아부지가 와근에 인사허멍 술 한 잔 드리는 게 사돈대위?

#1 어게.

@2 (웃음)

@1 음. 사돈대위헐 때 신랑 아버지만 옵니까, 신랑 어무니도 인사 옵니까?

#1 아니여.

@1 아, 남자덜만?

#1 응.

@1 그, 다 끗나민 신부 아버지가 집이 갈 거 아니꽈, 예.

#1 어게.

@1 그믄 그땐 어떵허여, 뭐 안 헤?

#1 으. 뭐 아니 현다.

@1 신부 그때 막 울어진덴 헙디다, 아부지 가 불민?

#1 아니, 아니.

@1 나도 막 울어집디다게. 왓당 가, 가 우리 친척들 집이 가 부난.

#1 몰라.

@1 몰라. (웃음)

#1 오래 부난 알아지크냐게.

@1 으, 으.

@2 오래 부난.

부조

@1 음. 그때 삼춘 결혼헐 때는 부지는 무신걸로 받아신고?
#1 쏠.
@1 쏠. 얼마니 받아수과?
#1 ᄒᆞᆫ 말 아졍 가는 사름 잇곡, 두 둬 아졍 가는 사름 잇곡, 쏠로 경.
@1 아, 근쏠, 보리쏠?
#1 곤쏠 아졍 가는 사람도 잇곡, 보리쏠 아졍 가는 사름도 잇곡.
@1 막 생각허는 사름은 ᄒᆞᆫ 말, 그냥 보통은 두 둬?
#1 보통은 두 둬.
@1 음.
@2 아.
@1 그때 당시에 그 쌀 두 둬 허민 무신거 사, 사, 사, 살 수 잇어나신고?
#1 무시것사 살 수 잇어나신디, 원. 잔치헤나민 쏠이 이만은 데며지주게.
@1 아. 부지로 그걸 받으니까, 응.
#1 돈은 아니 헹 쏠로만 받아 노난게.

겹부조 문화

@1 으. 그 이 동네는 그 여, 여자 삼춘한테 부주도 따로 하고, 남자 삼춘한테 부주도 헙니께. 따로따로 하지 안헤, 부부도?
#1 ᄯᆞ로, ᄯᆞ로 허주게.
@1 응. 게난 삼춘은 저 누게네 집이 잔치헴저 허민 그디 여자 삼춘한테 부주허고, 남자 삼춘도 그디.
#1 그딘 남자 삼춘.
@1 남자 삼춘도 부주허고. 경 허는 거지예?
#1 어, 어게.
@1 이제도 경 헙니까?
#1 이제두게. 이제두 여저 ᄯᆞ루, 남저 ᄯᆞ루.
@1 응. 시에덜은 겅 안 허주마씨.
#1 어떵 ᄒᆞ느니?
@1 그냥 ᄒᆞᆫ 사름한티만. 그냥 저 여자 삼춘이 여자 삼춘한테 주민 끗. 남자 삼춘덜끼린 안 헤.
#1 아, 이딘 다 ᄯᆞ루, ᄯᆞ루.
@1 아니민 여자 삼춘이 그 남자 삼춘한티이, 거기 신랑 아버지헌티만 주민 끗, 하나만.
#1 아, 것도 틀리다이?
@1 시엔 겅 헙디다게.
#1 이딘 ᄯᆞ루 ᄯᆞ루 ᄒᆞᆫ다게.

@1 ᄯᆞ루, ᄯᆞ루.
#1 어디? 닌 고향은 어디니게?
@1 난 고향은 안덕면인데, 시집은 제주시에 갓주마씨.
#1 으.
@1 거난 친정 오민 ᄯᆞ로 ᄯᆞ로 허는디 시댁 가민 ᄒᆞ나만 허더라고. (웃음)
#1 오. (웃음)
@1 삼춘네는 다, 저 사위덜도 다 서귀포꽈?
#1 어게.
@1 어, 제주시 사위도 엇구나?
#1 큰뚤넨 이제 제주시 간 살암저마는 가이도 하효 사름신디 시집간.
@1 거난 몰람구나, 삼춘.
#1 큰사윈 대학 교수헤낫주.
@1 어디, 어디 대학 교수여수꽈?
#1 알 거라, 알 거라. 고○○옌 헌 사름.
@2 고○○, 고○○?
#1 고○○.
@1 오.
#1 큰사윈.
@1 크. 무신, 무신 관지 혹시 알아지쿠가?
#1 영어괄 거라.
@1 영어과. 오. 아, 정확하게는 누군지. 제주,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 교수라난?
#1 응.
@2 오.
@1 음. 아이고, 막예, 사위도 막, 막 좋은 사름 헤신게게, 삼춘네.
#1 어게.
@2 하효, 오.

쌀부조 시기 추정

@1 그 부지를 돈으로 헌 건 언제부터 헤신고? 삼춘네 뚤들 풀 때, 어느 뚤. 뚤들은 다 돈으로 받아신가?
#1 쏠로.
@1 뚤 헐 때도 쏠로 받안?
#1 쏠로 받단, 세 번차 뚤부떠사 돈으로 받아져신가.
@1 음. 큰뚤이 아까 쉰일곱?

#1 예순일곱.
@1 예순일곱. 그다음 둘째는?
#1 둘째는 예순넷.
@1 예순넷. 셋째는?
#1 셋째는 쉰일곱.
@1 쉰일곱. 셋째가 아덜?
#1 똘게.
@1 이게, 이게.
#1 둘째. 셋째가 아덜.
@1 셋째가 아들. 쉰, 그럼 아들은 몃 살이꽈?
#1 육십. 환갑[한갑].
@2 환갑, 음.
@1 그니까 하나, 둘, 셋, 넷.
#1 쉰.
@1 쉰둘?
#1 쉰일곱 난 똘 헐 때도 쏠로 받아진 거 닮다.
@2 에? 선생님?
@1 아니우다게. 난, 난 돈으로 받아수다게. 쉰다섯인디.
#1 쉰일곱 난 똘 헐 때도 쏠로 받아졋어.
@1 어, 진짜?
#1 쉰다섯 난 똘 헌 땐 돈으루 받곡.
@2 응, 마지막.
@1 쉰다섯 이수가?
#1 쉰다섯 잇어.
@2 족은거.
@1 쉰다섯이?
#1 네 번차.
@1 네 번째, 뒈지띠. 아이고, 아는 집이 닮다, 어떵허난. 딸은 어느 고등학교, 어디 나왓수가?
#1 ○○여고.
@1 아, 나 ○○여고 나와신디. (웃음)
#1 으. 큰똘은 ○○여고.
@1 쉰다섯, 나도. 뒈지띠. ○○여고 간 똘이 ○○여고 가시민 동창일 뻔헷네.
#1 게메게. (웃음)
@1 아는 집인가 헤신디 아니네. (웃음) 음. 거난 세 번째 딸 헐 때도 쏠로 받앗어마씨? 아닌 거 닮은디.

#1 그때는, 그때부떠 돈으로 받아져신가.
@1 아, 육십. 아덜 헐 때도 쏠로 받아져수과?
#1 응. 아덜 홀 때ᄁᆞ장 쏠로. 환갑.
@1 환갑 헌 아덜 풀 때까지. 아, 막 오랫동안 쌀로 받앗네.
#1 어게.
@1 음.
@2 육십, 육십, 팔십.

예식장에서의 결혼 시기 추정

@1 너무 많은데? 음. 아들, 아들, 딸 결혼헐 때도 집에서 다 풀앗덴 헷잖아예?
#1 게난 막내만 식당에.
@1 거난. 게도 예식장에는 가실 거 아니, 집이서 잔치헤도?
#1 예식장엔 갓주게.
@1 예식장은 갓주예. 어디 여기 서귀포에서 헙니까?
#1 서귀포서.
@1 서귀포 예식장에서. 무신 예식장이라, 서귀포?
#1 알아지크냐? (웃음)
@1 (웃음) 큰똘 풀 때도. 그땐, 그때 차, 차 날 때난예.
#1 그땐, 그때 큰똘 풀 땐 집이서 헷어.
@1 으. 거난 집이서예. 아, 결혼식도 집이서 헷어? 예식장 안 갓어?
@2 오우, 안 간.
@1 아, 그럼.
#1 쉰, 쉰다섯 난 똘도게, 집이서 헷주게. 여식장엔 가고.
@1 예식장엔 가고. 그땐 하영 헐 때지. 집이서도 허고, 헐 때니까.
#1 어게.
@1 근데 큰똘 헐 때는 예식장도 안 갓다고?
#1 큰똘 홀 땐 여식장 안 갓어, 집이서.
@1 집이서 사진 칙언? 오, 음.
#1 셋똘부떠사 예식장에 간.
@2 아.
@1 그난 삼춘네 결혼식 사진 이수가? 삼춘네 헐 때 거?
#1 우리 결혼식 사진이 섯어게?
@1 그때 사진 엇일 때?
#1 사진이랑 마랑, 원.

@2 사진 안 칙언.
@1 사진 찍어 주는 사름 사진사 엇어난?
#1 엇언.
@1 삼춘 친구덜도 결혼 사진 엇인가?
#1 엇어, 엇어.
@1 엇어. 큰뚤은 결혼식 사진 이실 거 아니꽈?
#1 잇주게.
@1 거 집이서 찍은 사진이꽈, 예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꽈?
#1 예식장이서 찍은 사진인가.
@1 (웃음)
#1 알아지커냐?
@1 초가집 앞이서 저 펭풍 쳥 찍은 사진인가? 경 헷일 수도 잇어. 음.
#1 몰르켜.
@1 음.
@2 삼춘 결혼할 때 솔문도 헤나수꽈?
#1 아니.
@2 아무것도 안 헨마씨?
#1 응.
@1 아니, 무사 문, 저기 올레 앞이 소나무 끈어다근에.
#1 우리 홀 때엔 그런 거.
@1 대낭 끈어당.
#1 읏엇어.
@1 어, 삼춘네 헐 때는 안 헤난?
#1 아니, 아니.
@1 똘덜 홀 땐 헤나고?
#1 어게. 사진만 찍엇주, 무신걸 헤여게.
@1 삼춘넨 사진도 안 찍엇잖아.
#1 우린 사진도 안 찍엇주.
@1 그난 저, 큰뚤 헐 때는 문 앞이 막 무시거 영 대낭 끈어당 놓고, 무신 빤짝이 허곡.
#1 큰뚤 헌 때도 예식장 간 거 닮다.

결혼 금기사항

@1 응, 응, 응, 응. 결혼할 때 삼춘, 날 받으민 무신거 허민 안 뒌다 헌 거 이수과?
#1 그건 난 몰라.

@1 날 받으민 왜, 나 날 받으민 놈의집 잔치도 안 가고, 누구 어디 상 난 디도 안 가고 영 헌덴 헙디다.
#1 에, 에.
@1 어떵 안 헤?
#1 에, 경은 안 헷어. 경 골류는 사름이 골렷주, 경.
@1 삼춘네 아이덜은 다 순서대로 다 결혼헨마씨?
#1 어게.
@1 아들이, 아들하고 딸허고 나이 차이 엇이난 족은딸이 더 먼저 결혼은 안 허고?
#1 아니, 아니.
@1 아니, 아까 딸 다섯이렌 헤신가? 그러면 다섯은 뭐옌, 뭐옌 부릅니까? 큰뚤, 셋뚤?
#1 말젯뚤.
@1 말젯뚤.
#1 또 족은말젯뚤.
@1 족은말젯뚤.
#1 막내.
@1 막내. 야인 족은뚤, 아님 막내?
#1 막내게.
@1 막내. 족은뚤은 엇어, 게민?
#1 그것이 족은뚤이주게.
@1 아, 막내가 족은뚤이라? 아, 네 번째는 족은말젯뚤이엔 헙니까?
#1 으.

혼인 신고

@1 결혼허민 요즘에는 동사무소 강 신고도 허곡 영 허주마씨? 삼춘네도 그런 거 헤나신가?
#1 아니.
@1 안 헤난? 경헤도 리사무소 강 결혼헷젠 신고헤야 뒈는 거 아니?
#1 그건게.
@1 호적에 어떵 올리는 거라?
#1 혼인 신고 ᄒᆞ민 가주.
@1 게난 혼인 신고는 어떵 헹 헙니까?
#1 어떵사 헤신디 알아지커라?
@1 (웃음) 하르방이 헨?
#1 하르방이 헤실 테주게.

신혼집

@1 겡 삼춘 결혼헹 오난 집은 어디?
#1 놈의집 살구렌 허난?
@1 놈의집이 밧거리 ᄒᆞ나 빌련에 살안, 살아수꽈?
#1 어게.
@1 어, 그디 뭐, 저 새로 그디 강 살젠 허민 도배도 미리 헤 놓고, 어떵 문도 새로 불르고 헨 예쁘게 헹은에 살아수과?
#1 씨집오란 보난 불, 불르곡 헨 살앗주게.
@1 아, 씨집오란 보난 새신랑이 다 헹 놔둬십디가?
#1 어게.
@1 아멩헤도?
#1 씨어멍넨 ᄀᆞ치 사난에.
@2 아.
@1 으. 아까 씨어머니 엇덴,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1 어게.
@1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음. 씨어머니하고, 씨아주방허고, 으. 남편하고 이렇게 셋이 살읍디가? ᄀᆞ치 살안, 다?
#1 어게, ᄀᆞ치 살앗주.
@1 씨어머니도 ᄀᆞ치, ᄒᆞᆫ 집이?
#1 ᄒᆞᆫ 집이.
@1 방만 ᄯᅮ, ᄯᅮ나게?
#1 어게.
@1 그럼 방은, 방 멧 개 이신 집이라, 두 개?
#1 두 개.
@1 방 두 개 이시민 시어머니영 시아주방 자고.
#1 으.
@1 이쪽 방에는 삼춘허고, 남자 삼춘허고 자고 이렇게? 음. 그럼 멧 년이나 경 삽디가?
#1 멧 년사 살아져신디 이디 산 온 후제사 ᄯᅮ로 나오난.
@1 음. 이 터를 사 가지고 올 때, 아. 애기, 애기 멧 개 있을 때? 애기 ᄒᆞ나? 두 개?
#1 두 개.
@1 다 애기 두 개 날 때까지 거기 ᄀᆞ치 살안?
#1 어게.
@1 아이고, 우리 삼춘 막 고생헤시큰게게. 마음 고생.
#1 경ᄒᆞ난게, 그때부떠 버을언 사난에 밧도 사곡, 집도 짓곡 헷주게.

@1 씨어무니가 ᄀᆞ치, 아멩 좋은 씨어멍이라도 ᄀᆞ치 이시민 아멩헤도 불편헙니께.
#1 불편허주게.
@1 예, 친정 이녁 어멍 닮지 안헤근에. 예. 막, 막 못살게 굴진 안헨? (웃음)
#1 안 헨.
@1 겅은 안 헨?
#1 어.
@1 겅헤도 부엌도 ᄀᆞ치 쓰고 허젠 허민 아멩헤도.
#1 ᄒᆞᆫ디 헤 먹엇주기.
@1 ᄒᆞᆫ디 헤 먹언. 으.
#1 놈은 씨어멍 좋다 궂다 헤도 우린 그거 몰라.
@1 아, 그럼 씨어머니영 몃, 몃 해나 ᄀᆞ치 산 거꽈?
#1 삼 년 ᄒᆞᆫ디 살아져신가.
@1 아. 음. 경헹 그다음엔 따로따로 계속 살고? 음. 나이 들어 가지고 또 모셔수가?
#1 저, 저 동생효이엔 ᄒᆞᆫ 디 씨어머님, 씨아지방네영 그디 간 살아 부난에 몰라.
@1 어디엔 ᄒᆞᆫ 디? 어디 동생?
#1 동생효, 동생효.
@1 아, 동상효. 동생효.
#1 동상효. 거난 씨아주방이영 ᄀᆞ치 살안?
@1 음. 옛날에도 신혼여행도 가고 헤나수과?
#1 아니.
@2 (웃음)
@1 혹시나. 안 헤실 테주만 혹시나 헨.
#1 사진도 안 찍은 사름이 신혼여행은 어떵.

기타 결혼식 관련

@1 게메. 음. 그 옛날에 결혼식 못 올린 사람덜은 합동 결혼식도 허고, 중간에 헤수게. 그런 것도 이디 상효도 허는 사름이 잇어나수가?
#1 엇어.
@1 엇어, 음.
@2 날 받아신디 그 ᄉᆞ주가 안 맞덴 헹은에 결혼 안 헤 분 경우도 잇언마씨?
#1 몰라, 건 몰라.
@2 건 몰라마씨?
@1 그 암창개옌 ᄒᆞᆫ 말 잇입디다. 건 무슨 말인고?
#1 암창개가 무신거라.

@1 남자가 결혼 날 받아신디 어디 육지 강 못 완. 거믄 여자 혼자만 헹 결혼허고 허는 거 어수과, 엇어?

#1 그런 건 우린 몰라.

죽은 혼서

@1 결혼, 아, 사혼. 죽은 혼서는 어떵허는 거꽈, 들어봣지예?

#1 죽은 혼서 ᄒᆞᆫ다, ᄒᆞᆫ다 헷주. 원 그런 것도 우린 몰르고.

@1 음.

#1 죽은 혼서 허는 건 사진 앗다놔근에 ᄒᆞᆫ덴 허는 거 닮아.

혼례식 뒤 친정 방문

@1 아, 삼춘 결혼식 다 끝낫어예. 그다음, 그날 밤 잔. 그다음 날, 그다음 날 또 친정에 갓다 옵디가?

#1 갓주게.

@1 건 어떵 헹 가는 거꽈, 뭐 가졍 가? 들렁 가?

#1 몰르켜, 원.

@1 간 건 생각나는디?

#1 응. 가는 건 생각나는디, 무시거.

@1 그때는 새 신랑이영 ᄀᆞ치 가? 그, 그때 삼춘네 친정집이 가민 그디서 또 잔치헹 뭐 먹고, 헹 먹곡 허여?

#1 권당들이영 헹 먹주.

@1 아, 거믄 아이고, 야이가 새신랑이구나, 예. 그땐 결혼식장 엇이난 신랑 못 봐실 거 아니꽈?

#1 어게.

@1 그 그럼 **** 영 헌 거라. 그건 무신 잔치엔 골읍니까?

#1 잔치엔 안 곧나.

@1 잔치엔 안 골아?

#1 으.

@1 사둔 잔치, 영 허는 말도 안 써?

#1 아니 헤.

@1 건 뭐옌 곧는 말은 엇고? 음. 게믄 그 뒷날은 친정 왕은에 친정 어른, 친정 친척들이영 절허고 밥 먹곡 헹. ᄒᆞ룻밤 또 장 가, 아니믄 그냥 바로 신랑집이 가?

#1 어떵사 헤신디 몰르켜. (웃음)

결혼 전 친척 선물

@1 (웃음) 신랑칩이 다시 바로 가신디 어떵 헤신디 모르크라예. 음. 그 돌아오는 우리 요즘에는 막 무사 이불도 ᄒᆞ나씩 헹 친척들 신부가 다 태우고 헙니께.

#1 어게.

@1 요즘에, 삼춘네 헐 땐 뭐 헤신고?

#1 아무것도 아니 헤연.

@1 아무것도 아니 헤연? 양말도 ᄒᆞᆫ 배 안 태웁디가?

#1 아니.

@1 어, 요즘엔 이 동넨 무신거 가졍 옵니까, 결혼헐 때 친척들이?

#1 이, 이불.

@1 이불 가졍 와?

#1 어게.

@1 여기도? 그 여름 차렵 이불 같은 거?

#1 봄 이불도 아져 오곡, 여름 이불도 아져 오곡.

@1 아, 봄 이불. 맞아, 차렵 이불.

#1 어게.

@1 보통 그런 거 가져옵니까?

#1 보통.

@1 그거 가져오기 전인 무신거 가져와나수가?

#1 그전인 몰라, 원. 무시거 가져와신디.

@1 그 신부한테, 신부 친척들이, 신랑 친척들이 그니까 신랑의 족은어멍.

#1 어.

@1 이런 사람들이 신부한테 부줏돈도 주고.

#1 어게.

@1 뭐도 주잖아예.

#1 어게.

@1 그럼 뭐, 뭐 줍니까?

#1 겨난 거 신부칩이서 이불 헹 가민게, 거 주는 거주.

@1 신부칩이서 이불은 신부 것만 헹 갈 거 아니?

#1 겨난 춤 봄 이불이나 무시거.

@1 아, 아까 봄 이불 그거 헹 가민?

#1 어게.

@1 음.

#1 그거 주민 뒈는 거주게.

@1 그러면 돈으로 받아?

#1 에?

@1 으. 돈으로 줘을?

#1 돈으로 주민게.
@1 족은어멍이 돈으로 줘?
#1 응. 돈 줘사주.
@1 옛날에 한복 천으로, 예, 받앙은에 헤난 거 생각남수다, 난.
#1 한복 천으루?
@1 응. 한복 헐 천 받앙은에 우리 어무니가 누구한테 그걸 받앙, 누게 결혼헴저 허난 그걸 받앙 옵디다. 그런 건 안 헤난?
#1 우린 그런 거 몰라.
@1 아니, 옷 헹 입으렌 옷감으로 천 사 오곡 허는 거 엇어, 결혼할 때?
#1 우리는 그런 거 몰른다.

답례품

@1 답례품 무신거 줘?
#1 답례품은 돈으로두 주곡, 요새 상품권게.
@1 요새 다 상품권인디 상품권 나기 전이.
#1 그전인 미시거 답례품 섯어?
@1 거, 경헤도 뭐 퐁퐁이도 받앙 오곡게, 커피도 받앙 오곡 헙니께.
#1 어게. 엿날엔 경헷주게.
@1 것도 옛날 말이라예, 이제.
#1 것도 엿날 말. (웃음) 퐁퐁이 받아 오곡, 미시거 받아 오곡도 엿날 말이라.
@1 이제 다 상품권이난에예. 퐁퐁이허고 그거 받기 전이는 뭐 받아신고?
#1 무시것사 받아신디 몰르켜.

부조금

@1 음. 그럼 부지는 처음엔 쌀 허단에 그다음에 돈 나난 돈 얼마 정도 헤나신고?
#1 만 원도 헤나곡, 이번 생각ᄒᆞᆫ 사름은 이 만 원도 허곡. 또 겡 헷주게. 그보단 던 안 헤 봣저.
@1 보통 만 원 아니민 이만 원.
#1 생각ᄒᆞᆫ 사름은 이만 원.
@1 지금도 삼춘 생각허민 이만 원, 경 안 허민 만 원 영 헴수과?
#1 아니.
@1 이젠, 이젠 어떵?
#1 이젠 생각ᄒᆞ민 십만 원, 경 아녀민 오만 원. (웃음)
@1 (웃음) 아니, 구십 넘어도 경 부주를 허, 헴수가?
#1 어떵 헤여.

@1 돈 이시난 삼춘이난 겅헤도. 경 안 허믄 이제 팔십 넘으민 그런 거 안 헌다, 영 헤근에.
#1 동네 이젠 권당이나 허곡 동네나벰인 안 헌다.
@1 겅헤도. 구십 넘은 삼춘이, 돈이 어디서근에 부지를 헙니까?
#1 맞다게.
@1 (웃음) 경헤도 아직도 헴신게, 삼춘.
#1 동넨 헤사주기.

접

@1 아, 동네는. 음. 이 동네에는 뭔가 결혼 같은 거 하젠 하면 다들 모다들엉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접 같은 건 엇어나수가?
#1 엿날엔 접 서낫주.
@1 무신 접? 어떵헹은에 몃 명이서? 몃 집이서?
#1 ᄒᆞᆫ 다섯 집도 허곡, 세 집도 허곡.
@1 응. 무신거?
#1 일곱 집도 허곡, 경 헤낫저게.
@1 그럼 이거 이, 다섯 집이 하는 접은 무신거 허는 접이라? 일만 도와주는 접이꽈? 아니민 무신거 ᄀᆞ치 강 사는, 돈 모앙 사기도 헙니까?
#1 돈만 사는 건 엇고, 기자 돌아가멍 일 도와 주는 거주.
@1 아, 돌아가멍 일 도와 주는 접? 그건 무신 접이엔 이름 곧는 건 엇어?
#1 친목이엔도 허곡.
@1 그냥 친목예. 게믄 이 다섯 사름네, 누게네 똘 풀암저 허민 다 그디 가근에 헤 주고.
#1 어게.
@1 우리 집이 누게 아들 풀 때도 그 사름네 다 왕 일 헤 주고 겅 허는 거구나예?
#1 경 허는 거.
@1 어, 보통 영허믄 이 다섯 접은 다 나이가 비슷헙니까?
#1 비슷허여.
@1 동네도 다 이 동네 살고?
#1 어게.
@1 음. 삼춘은 접을 몃 개나 헤납디가? 영 헌 접을.
#1 서너 개 헤낫주마는 마, 이젠 알아지크냐.
@1 음. 이젠 다 아무것도 안 허고?
#1 아무것도 아니 혀고.
@1 다 돌아가셔 불엇수과?
#1 거자 돌아가 비엇주.

전통 혼례와 현대 결혼식 비교

@1 어, 그 옛날 결혼식허고, 지금 결혼식허고 생각하민 막 바뀌엇잖아예.

#1 완전히 바뀌어졋주게.

@1 어, 생각헤 보민.

#1 많이 바뀌엇어.

@1 어떵 어떵 바뀌엇수가?

#1 옛날은게, 가근에 밥이나 먹곡 미시거 앚앙 놀당 오곡 헷주마는 이젠 강은에 그자 밥만 먹어지믄 오라 불주 아녜냐?

@2 (웃음)

@1 돈만 보냅니다, 가지도 안허고, 이제. 예.

#1 무신 계좌로 보냄저, 무시거 헴저 요샌 경허는 거주.

@1 예. 가지도 안허고, 그냥 돈만 보내고 끗. 요새 경헴수다.

#1 게메, 경 헴젠 헤라게. 엿날은 똑 가근에 밥을 먹어사 헷주.

@1 기지. 거난 옛날이 더 좋은 거 닮으꽈, 이제가 더 좋은 거 닮으꽈?

#1 엿날이 존 거 닮다게.

@1 엿날이?

#1 어게.

@1 무사, 무사 좋은 거 닮으꽈?

#1 겡헤도 가근에 얼굴도 보고, 밥도 먹엉 오라사 허주게, 미시거 계좌로 보내민 보내신가 말아신가 아니 허느냐.

@1 맞아. 으.

#1 겨난 엿날이 좋은 거주.

@1 옛날이예. 음. 결혼식 허는 그 풍습 중에서 겅헤도 이거는 지금 아이덜도 이거는 헤시민 조켜 허는 거 혹시 이수가? 옛날, 옛날 하던 것 중에, 헷던 것 중에.

#1 이젠 원, 늙으난 몰라.

@1 늙으난 몰라? 그 나 아는 어떤 할무니는 신부상을 안 받으, 안 받고, 요즘 부페에서 하니까 신부도 그냥 부페 강 밥 떠근에 먹고 허는 건예, 자긴 안 좋아 보여렌.

#1 그것도 안 좋은 거주게.

@1 신부상 딱 따로 받아야지.

#1 신부상 뚜로 출려 줘사 허는 건디.

@1 아, 건 뚜로 출려 줘사 허는 거?

#1 그건 나 안 좋아 뷈다.

@1 삼춘도 안 좋아 뷈수가?

#1 으. 신부상 안 출려 주국 신랑상 안 출려 주는 건, 그건 안 좋은 거여게.

@1 어, 건 무사 출려 줘야 뒈는 거라?

#1 그게 일생 나근에 처음인디게, 그거게 안 출려 주젱 허민 뒈어게.

@2 아, 인생 나근에 초.

갖인상

@1 그 갖인상이엔 허는 말도 골읍디다?

#1 갖인상이주게, 그게.

@1 무사 갖인상이엔 곧는 거?

#1 그거 신랑상 출려 주는 거, 갖인상 아니냐? 경ᄒᆞ난 갖인상 출려 주는 거주.

@1 으. 갖인상은 살았을 때 한 번?

#1 어게.

@1 결혼할 때 한 번뿐?

#1 경ᄒᆞ난 그 요새 춤 신랑이엥 ᄒᆞ나 신부옝 ᄒᆞ나 갖인상 못 받는 건 거 잘못뒌 거주게.

@1 오. 죽은 다음에 또 갖인상 받는 거꽈, 제사상이나 이런 걸로?

#1 그거주게. 경벰이 더 뒈는 거냐?

@1 겨난. 살았을 땐 결혼헐 때 ᄒᆞᆫ번 받고. 그다음 죽은 땐 제사상으로 받는 거네예.

#1 게난 요새 식이 틀린 식이주게.

@1 잘못뒌 거구나예, 그거예?

#1 어게. 신부상도 출려 주국, 신랑상도 출려 주국 헤사주, 그 요새식이 무신 식이니 그거.

풍습의 변화

@1 (웃음) 그다음 요즘에 신부 데리러 안 옵니께, 신랑이.

#1 아니 온덴 헤라게.

@1 다 식장에서 그냥 만낭은에 그냥 결혼허거든마씨? 우시도 안 허고?

#1 게메, 경 헨덴 헨게게.

@1 건 건 좋아 뷈수가?

#1 아, 것도 좋지 아녀.

@1 좋지 아니혀? (웃음) 무사 좋지 아녀, 그건?

#1 경 헤도 오곡 가곡 헤사주, 그자.

@2 음.

@1 오곡 가곡 헤사 혀?

#1 경 ᄒᆞ주게, 그거 무신 식이니.

@1 (웃음) 신식, 신식. (웃음) 그냥 다 자가용 탕 딱 결혼식장에서 만낭 결혼헤, 이젠.

#1 게메이, 겡 헴젠 헤라이. 어이구, 춤. 둘레 가곡 둘레 오곡 헤살 거주.

@1 음. 이젠 겅도 안 허고예.
#1 게난 팔월멩질도 안 헴젠 허멍?
@1 예, 이젠 팔월멩질도 다 설러 불엄덴 헙디다.
#1 경 글아라.
@1 으. 삼춘넨 아직 헴수가?
#1 헴저게.
@1 아이고, 아드님이 착하네, 아니 며느리가 착하네. 아직 허는 거 보난.
#1 아니 헴냐, 게난?
@1 예. 아니, 아니 우린 아직 헴수다. 겐디 다 막 설러 불엄덴 헙디다. 그 산소로 강 절헹 끗내 불고.
#1 겡 헴젠 헤라게.
@1 으. 맞아, 식게도 이제 안 할 거 닮수다.
#1 아니 헤간다게.
@1 (웃음)
#1 먹어가젠 헴젠 ᄒᆞ멍 아니 헤 감주게.
@1 다 이젠.
#1 구신 엇뎅도 잇뎅도 못 허는 거.
@1, @2 음.
#1 엿날에 가단에 차 ᄒᆞ쏠 태와 도렌 허난 우알로 헤영케 출린 어룬이 차 태와 도렌 허난 태우난에, 가단에 이디, 이디 세와 줍서 나 집이 가근에 돈, 차비 앗당 주쿠다 헹 암만 지두려도 안 왕 간 보난 식게라렌 헤라.
@1 아, 식게 먹으레?
#1 식게 먹으레 가는 구신 시껑.
@1, @2 구신이 식게 먹으레. (웃음)
#1 식게 먹으레 가는 구신을 태왕 간에 기다려도 안 나오난 이상ᄒᆞ다 헨에 그 집이 들어간 보난 제ᄉᆞ, 제ᄉᆞ옌.
@1 와, 음.
#1 경훈 말 여라 번 들엇주, 우리.
@1 오, 삼춘 우리가 결혼, 옛날 결혼헤난 거 막 물어봐신디 나가 못 물어본 거 혹시 이신가, 이런 것도 이신디 안 들어봐라, 허는 거 이신가? 결혼에 대한 거?
#1 엇다.
@1 엇어? 다, 다 들어본 거 닮으꽈?
#1 어게.
@1 뭔가 재밋는 일이나 삼춘이 결혼할 때 재밌엇던 일이나 아니믄 주변에 다른 사람이 결혼헐 때 영도 헤낫젠 헤라 영허는 건 어수꽈, 재밋는 거?

#1 무시거 엇어.
@1 무시거 엇어? 음.
#1 겨난 이제 제ᄉᆞ도 아니 헤가주.
@1 예. 경 헤도 결혼식은 할 건가?
#1 알아지크라게. (웃음)
@1 (웃음) 결혼식은 할 거우다. 웨딩 드레스 입어근에 지네끼리 사진도 찍고.
#1 응.
@1 그건 안 엇어질 거 닮아.
#1 그건 엇어지지 아녈 거여.

결혼사진 촬영 시기 추정

@2 삼춘 결혼할 때 사진 못 찍엇잖아예?
#1 으.
@2 그 후엔 언제부터 사진 찍은 거 닮으꽈?
#1 우리 동생 십집 갈 때에 사진 찍은 거 닮다.
@1 동생은 몃 살이꽈? 삼춘보다 몃 살 아래?
#1 아홉 나 차이.
@1 아, 아홉 나 차이면 팔십하나.
@2 사십, 사십.
@1 음.
#1 사십둘.
@2 삼십오에 아홉이니까.
@1 음. 집이 사진사가 와근에 찍어 준 거?
#1 집이서 찍은 거 닮은게.
@2 사십사 년생.
@1 음. 그 서귀포에 사진 찍어 주는 사람이, 서귀포에서 와신가, 하효에는 엇어나신가?
#1 하효 잇어낫저게.
@1 하효 잇어나수가? 무신 사진관 이름 이수가?
#1 이름은 뭣산디 요디 사진관 크게 출련 헤낫저.
@1 그 사름 죽어 불어신가?
#1 죽건 디 오래여.

신부 머리 변화

@1 아. 머리 올려 주는 것도 건지 허다근에 그다음에 차츰차츰 바뀌엇잖아예.

#1 응.

@1 족두리 허고, 그다음에 막 올림머리도 허고 요렇게예. 순서가예.

#1 어게.

@1 삼춘 헐 땐 건지 헷고, 그다음엔 족두리 쓰고, 그다음?

#1 그다음엔 멘, 멘사포 썻주게.

@1 그다음 멘사포, 멘사포 쓸 땐 머리 어떵 헤수가?

#1 나 알아지크라?

@1 똘, 똘, 풀 때 어떵헤수가게.

#1 기냥 기자.

@1 똘은 멘사포 썽 결혼허지 안헨?

#1 무사 아니라.

@1 거난.

#1 그자 이초록 헌 머리 멘사포 쓰지 아녓어?

@1 음. 미장원 안 가고? 미용사 집이 안 완?

#1 미용, 미용사 집이 오질 아녱 그디 강 헤연 갓일 거라.

@1 아, 그디 간에. 옛날에 미용사가 집이 완에 이렇게도 헤 줘낫덴 헨게마는.

#1 아니.

@1 그건 아니?

#1 똘, 똘 풀 때엔 그디 간.

@1 서귀포? 아니면 하효?

#1 하효 잇어나난 하효서.

@1 하효 미용실이 잇어나난? 음. 결혼식은 서귀포 강 허고?

#1 어게. 식장은 서귀포 가도.

@1 식장은 서귀포 가도, 미용실은 하효서 헷구나예. 그 미용, 옛날 하효의 미용실은 막 오래된 미용실 어수꽈?

#1 미용실, 오래된 미용실 헤사 요디 효돈 미용실이주.

@1 그디 삼춘, 사장님은 멧 살이나 뒌 사람이꽈?

#1 이제 칠십?

@1 이제 칠십. 그 위에 삼춘 혹시 허단 그만둔 삼춘 어수과, 미용사 옛날 헤난 삼춘?

#1 그 이상은 엇일 거여.

@1 그 이상은 엇어? 삼춘 머리하던 그 효돈 미용실 말고, 다른 미용실은 어수과? 더 옛날에 거, 옛날에?

#1 엇어, 엇어.

@1 엇어, 엇어.

#1 이제사 요 동녁펜이 또 흔 밧디 잇젠 허는 거 닮아라.

제보자 머리의 변화

@1 삼춘 머리 질루다근에 언제 영 잘라근에 파마헤수가?

#1 머리 질루단?

@1 으. 옛날에 쪽졍 다녀실 거 아니꽈?

#1 어게. 머리 영 헨 무껀 데녓주게.

@1 거난 그건 몃 살 때까지 경 헹 다닙디가?

#1 경 허건 디가.

@1 애기 낭?

#1 큰, 큰똘 난 지 후제사.

@1 짤란? 경 헹 파마헨?

#1 으.

@1 그때 파마헐 땐 누게가 헤 줍디가?

#1 그땐 기자 야메치기도 오민 허고.

@1 야메치기, 야메치긴 어디서 오는 거라?

@1 (웃음)

#1 몰라게, 이축 헹 오랑 헤여 주곡.

@1 그난 그 사람 혹시 지금도 살아신가?

#1 몰르켜.

@1 아, 아니 그 결혼식 할 때 머리 올려 주는 미용사 헤난 사람도 흔번 만나봐시민 헨에, 옛날 사름.

#1 몰라, 몰라.

@1 몰라, 엇어? 이 동네 엇어?

#1 엇어.

건지머리

@2 그 영 건지 허민 건지 헌 데에 빈네도 영 꽂안마씨? 빈네는 안 헨마씨?

#1 빈넨 안 헨.

@2 아, 건진 영 올리기만 헹 영 이멍거리로 영 묶기만 하믄, 끗? 게믄 영 줄줄줄줄 내려올?

#1 아니 헌다게. 이 머리, 이 본 머리가 시난 그것에 흔디 영 따, 답주게. 다와근에 영 헹 건지 헤지민 무사 이거 영 헹 무꺼 불민 안 ᄂᆞ류와.

@2 아, 그믄 빈네는 언제부터 허는 거마씨? 빈네는 그냥.

#1 빈년 그 우리 어머니 때부떠도 비년 헷주게. 그 머리 영 헤근에.

@2 족졋을 때? 머리 족졋을 때?

#1 으.
@2 어, 근디 결혼할 때는 안 허는 거마씨?
#1 결혼헐 때는 안 혀 봣어.
@1 삼춘도 비녀 안 껴 봐수과?
#1 안 현.

제보자 정보

@1 삼춘도 안 껸?
#1 머리가 우린 좋아 놓고 허난이, 이제도 이치룩 머리 좋으난에 우리는 머리가 경 좋아낫저게.
@1 아. 안 빠지신게, 삼춘 머리.
#1 으, 안 빠젼.
@1 이 나이 뒈면 머리 빠져 가지고.
#1 으. 억샥 허는디.
@1 삼춘은 아직도 머리가.
#1 머리가이, 어머니부떠 경 머리가 좋아나난이, 똘덜이 다 경, 우리 똘덜토 경 머리 좋나.
@1 아.
@2 귀도 좋수다게, 삼춘.
@1 아, 귀도 좋은 삼춘인게, 진짜.
@2 귀도 막 좋아.
@1 으.
#1 놈으집 살멍게, 집 밧 흔 문세 일곱 갤 잡아시난 보통이냐게.
@1 어? 아.
#1 놈의집 살멍.
@1 남자 삼춘이 착한 거꽈, 삼춘이 부지런헌 거꽈?
#1 서로 부지런ᄒᆞ난에.
@1 아, 아니 막 열심히 돈 벌어도 남자 삼춘이 술 먹고, 노름허곡 허민 못 모으잖아.
#1 우리 하르방은 노름헐 충도 모르고, 술은 잘 먹단에 술도 끊어 부난 이젠 몰르곡.
@1 오.
#1 담배도 피우단에 ᄉᆞ십 대 나난 기자 담배도 설러 불고.
@1 거난에 돈 모아졋구나예.
#1 겡 문세 일곱 개 헷저, 우리.
@1 와. 밧이 일곱 개라는 얘기네.
#1 이 집, 이거ᄁᆞ장.
@1 이 집 터ᄁᆞ지 헹은에예, 밧이 여섯 개예. 와.
#1 경 ᄒᆞ난에 이제 남은 건 걷지 못허는 거, 남은 거.
@1 (웃음) 게메예. 경헤도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어디 크게 아픈 데 엇지예?
#1 다리만 먼 아팡 졸바로 걷지만 못헴저, 크게 아픈 딘 읏나게.
@1 (조사자 개인사 생략) 여기까지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여.

4.

서귀포시 상효동 양유정 · 오봉식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11월 2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미진 @2 권미소
- **제보자**: #1 양유정 #2 오봉식

제보자 정보

@1 서귀포시 상효동에 여기 서상효, 동상효?

#1 서상효.

@1 서상효. 서상효에 양유정 어르신, 오봉식 어르신 만나러 왔습니다. 양유정 어르신은 몃 살이꽈?

#1 이제 팔십, 구십.

@1 구십.

#1 곧 구십ᄒᆞ나.

@1 몃 년생 삼춘?

#1 몃 년생 뭘 거라 나원 거 모르크라.

#2 삼육 년.

@1 삼육 년생. 오봉식 어르신은 몃 년생.

#2 삼칠 년.

@1 삼칠 년, 한 살 어려. 연하랑 살고 잇네. 오늘 삼춘네 결혼헤난 말 들어 보젠예. 옛날 삼춘네 결혼헐 때 어떵 헤나시고 생각헤근에 옛날 헤난 거 생각헹 한 번 골아줍서. 결혼 어떵 어떵 결혼식 헹 옛날 어떵 헤낫저.

#1 무신거 골을 거 잇어.

중매

@1 삼춘이 처음에 게민 이 삼춘 어떵 알아수과? 남자 삼춘.

#1 중매.

@1 누게가 헤 줜.

#1 중매 헌 거? 우리 시어머님 형님이, 형님이 나 신예리고, 그 형님도 신예리고 이딘 상효. 본래 이디 친정은 이디 어멍 친정은 신효. 거난 경 연결 연결뒌 거주게.

@1 어떵헌 남자 싯덴 골읍디가?

#1 어떵헌 남잔지?

@1 남자 어른 어떵헌 남자옌 이디 시집가렌 골읍디가? 막 부제칩이렌?

#1 에. 부제가 아니라 부난 부제옌 안 골안게.

@1 막 잘생겻덴?

#1 겡 막 돈 엇덴도 안 허고 그자 그자 그자 곧는 거옌 골은 거. 돈 엇덴도 안 허고 돈 잇젠도 안 허고 경헌디 어떠난산디 나가 스물 넘으난산디 뭐 풀안사 헤신디 재게 풀아 베라.

제보자의 결혼 시기

@1 삼춘 멧 살에 결혼헨?

#1 나? 스물두 설에.

@1 스물두 설에. 그땐 스물두 설에 결혼 많이 헐 때꽈?
#1 하영, 하영 스물두 설 넘어사 하영 헷주마는 스물두 설에 한창 허엿주게. 아년 사름은 아녀도. 이 사름 스물훈 설에.
@1 거난 남자 스물훈 설은 ᄒᆞ꼼 빠른 거 아니?
#1 응?
@1 ᄒᆞ꼼 빨리 허는 거 아니?
#1 빨리, 빨리 헌 거주게. 너무 빨리 헌 거라.
@1 남자는 빨리 헌 거.
#2 ○중이보단 말쩨 헷지.
@1 ○중인 누게꽈?
#2 ○중이보단 일 년 말쩨 헷어.
@1 ○중인 누게?
#1 이디 사는 사름, 동갑짜리 잇어.
@1 동갑. 삼춘은 결혼헹 군대 간?
#1 군대 가 불언. 게난 할망허고 나만 살앗주. 할망허고 나만 살멍 똘 나고.
@1 아이고. 삼춘 게난 결혼헹 얼마만이 군대 가 불언?
#1 일 년 좀 넘엇주. 겨고 그땐 삼 년, 삼 년 살앗어. 서른ᄋᆞ슷 덜 살아사 와. 지금은 재기 오는디. 그땐 서른ᄋᆞ슷 둘ᄁᆞ지 나, 할망허고 나허고 혼자 살앗어.
@1 맞아. 집이 가 불 거 아니꽈?
#1 가 불어? 애기가 ᄒᆞ나 생겨 부난.
@1 아이고.
#1 애기가 생기고 나가 저, 그때 노래 불르레 다녓주게. 이런 영 저 어디 시에 ᄀᆞ뜬 디 막 그 선소리 허렌 허민 가 와. 간디 그때 막 ᄀᆞ찌 가겐 허는 남저가 잇엇어. 그 노래허는 디 가겐. 나가 선소리 허레 가왓주. 거난 겅헤신디 나 ᄒᆞ는 말이 나 지금 똘 난, 똘이 잇덴, 똘이 신디 애기우덴. 꼼짝도 못헹 그 애기 둘앙 살아삽니덴, 게난 그 사름이 그 애기 때문에 못 둘앙 간 거.
@1 노래 불르레, 삼춘 노래 불르는 사름으로 데령 가젠 헤신디.
#1 응, 데령 가젠 헤신디. 난 아이고, 그 사름은 어른이고. 아이주게, 스물세 설쯤이민 아이 아니? 스물네 설.
@1 그때 애기 엇어시민 삼춘 어디 가수 뒈실 뻔 헌 거 아니?
#1 애기 따문 못 가.
@1 애기 엇어시민.
#1 몰라 건. 잇엇던 일이 아니라 부난.
@1 테레비에 나오는 사름 뭘 수도 잇는 거 아니.
#1 겐디 애기 내비동 가지카? 애기 나부난 어떵헤, 애기 내비동 어디 가지커라.

@2 어디 못 가마씨.
#1 못 가지. 애기 아까왕 못 가.
@2 영 눈에 영 아른아른 헤근에 갈 수가 엇어마씨.
#1 말 ᄀᆞᆫ는 거 딱 들어지고.

결혼 전 신랑 신부의 만남

@1 게난 삼춘 결혼허기 전에 남자 삼춘 얼굴 봐난?
#1 응?
@1 얼굴 봐난? 남자 삼춘 얼굴.
#1 봣지게.
@1 어떵헹 봐수과?
#1 그냥 집이 갓어라, 우리 집이.
@1 완? 결혼허기 전이.
#1 곌혼허기 전이 우리 집일 갓더라고.
@1 남자 삼춘이.
#1 응, 난 안 허고. 난 시집 가야 처음 오고. 아저씬 가오고.
@1 인사허레 온 거?
#1 응.
@1 결혼 결정뒈기 전에.
#1 결정뒈기 전에.
@1 어떵헹 갑디가? 삼춘.
#2 보레, 얼굴 보레.
@1 얼굴 보레. 겡 얼굴 봐수과? 아이고 이 여자영 결혼헤야 뒈켜 헹 생각헨?
#2 (웃음)
@1 겡 결혼허기 전에 얼굴 보레도 집이 가곡 허는구나예.
#1 가낫어.
@1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잖아예?
#1 전혀 몰르지게, 사름인지 짐싱인지 몰라. 지금은 다 알고 그디 사름인 중도 다 알주마는 그땐 몰라.
@1 경 헤도 서상효 오칩이엔 헤라 영 허민 막 물어봅니께, 사름들안티. 그디 저 누게 알아져 영 헹 물어보고 허지 안헤?
#1 그런 거 물어보지 못허고. 두련, 두련. 난 그 두린 때부떠 이런 멩지 차는 거, 베 차는 거, 그런 거만. 돈 벌멍 거만 헷어. 어디 물어보레 놀레 갈 디도 엇고 경 허멍 살단 보난.

사주와 궁합

@1 결혼허젠 허민 뭐 사주 가튼 것도 봐야, 궁합도 보고 헤야 뒙니께.

#1 멧 설에 멧 설. 이 신부가 멧 설이민 신랑이 멧 설. 처음부터 그 사름네 맞촹 다녀. 중매 사는 사름이 맞촹 다녀. 거민 멧 설 난 사름, 멧 설 난 사름 허민 뒈겟다는 걸 맞촤. 문여, 말쩨 맞추는 거 아니.

@1 응, 처음부터. 그믄 난 날 난 시를 영 써 줄 거 아니꽈? 신부집이서, 결혼허겐 허민.

#1 그건, 그건 그거 다음에 그 그거 다 물어보곡 헌 다음에 그거 물어보레 또 가는 날이 잇어, 따로, 날이.

@1 무신 날이엔 헙니까? 이름은 엇어?

#1 날 봐근에 가주. 날 봐근에 저 신부칩이서 오는 게 아니고 신랑칩이서가.

@1 거난 남자 삼춘이 여자 삼춘네 집이 친정에 날 받으레 가는 거 아니?

#1 응, 날 받으레. 날도 받곡, 멧 설 확실헌 메칠날 어느 둘 메칠날 나고 그런 거 다.

@1 물어보레예.

#1 물어보레.

@1 경 헌 날은 밥 안 헹 주는 거옌 허멍예?

#1 밥 헤줄 저르도, 줄 생각도 안 허고.

@1 줄 생각도 안 허고.

#1 몰라, 줘야 뒈는 건지 마는 건지 더 몰르고.

@1 일부러 주는 거 아니렌, 와도. 결혼헐지 안 헐지 모르는.

#1 줄 생각을 아년 거라. 난 그 베 메, 이런 베 영 벌견 매는 거 거 메는 거라고. 할망이 갓다왓다 헤도 몰라. 저 할망이 기다뿐. 말도 골아보지 안허고.

@1 중신 서는 할망이?

#1 응.

@1 삼춘, 게난 미녕 베 매고 영 헐 때라낫수과? 막 바쁠 때.

#1 그거 헐 때 갓더라고. 게난 건 벌경 내불 수가 엇는 거. 꼭 헤야 뒈어.

@1 거난 삼춘네 아부지가 그거 사주 적어진 거 가져근에 날 보는 사름.

#1 아부지가 잇어? 아부지 일본 가변 엇주게.

@1 게민 누게가 왓수과?

#1, #2 어멍.

@1 어무니가 그 집이 간? 남자 삼춘 아니고?

#1 어무니허고 ᄀᆞ찌. ᄀᆞ찌 가민 뒈주게.

@1 거난 삼춘허고 삼춘네 어무니가 날 받으레 이디 간, 이 집이예?

#1 응. 경 허민 뒈는 거.

@1 게민 그날 받은 거 가졍 어디 갓수과? 강 날짜.

#1 집이 아졍 오는 거주게.

결혼 날짜 잡기

@1 그다음에 누게안티 강 물어봥 날을 잡아, 결혼날을 잡아야 뒐 거 아니꽈?

#1 그거 결혼 날은 잡으믄은 이녁 혼자 강 갈아도 뒈고. 그 전에는 어른이 가.

@1 거난 결혼 날 잡젠 허민 어디 정시안티라도 강 물어봐야 뒐 거 아니?

#1 물어 보주게. 날 잡는 건. 날 잡아근에 그다음은 그때는 어멍도 아방도 안 강 혼자 가도 뒈.

@1 영 날 나수다 헹 가져가는 거는. 이 동네 정시, 저 그런 거 날 봐주는 사름은 이 동네 잇어낫수과?

#1 이 동넨 잇어. 이딘 잇어.

@1 지금도 살안? 죽어 불언?

#1 지금 죽어 빗주. ○일이 아방 죽어 불지 안헷어?

#2 ○일이 아방 봣어? 그때 저 ○문이 하르방이 봣주.

#1 둘리산디 이서낫어, 이디.

@1 근데 둘 다 죽어 불언? 이제 엇어? 어디 토평이나 하효 이런 데도.

#2 진서라고 진서 하르방이 잇엇어.

@1 지금 살아잇는 사름은 엇고.

#1 지금은 다 죽어 부난. 그 손지덜밲인 엇어.

@1 겡 그디 강 날 봥예, 겡 이제 다시 날 가졍 이 집이 갈 거 아니꽈예? 막펜지옌 헌 건 무신거꽈? 막펜지. 그런 말 안 써?

#1 막펜지, 우린 그런 건 안 헤봣저.

@1 그런 건 안 헤봔. 그믄 날 받은 거 가졍은에 그 집이 강 이날, 이날 결혼헐 거우다 헹은에.

#1 그디 강 말만 들엉 오주게, 말만 들엉. 말만 들엉 이디 와근에 그 날짜를 써. 썽 가져가.

@1 신부집에 가져갈 때는?

#1 그딘 말만 들엉 오고.

결혼 날짜

@1 그믄 결혼 날이 낫어예. 삼춘 멧 월달에 결혼헙디가?

#1 동짓덜이엔 허민, 음력 동짓덜.

@1 어, 십이월. 양력으로 십이월, 일월.

#1 아니게.

#2 십일월, 십일월.

@1 음력 십일월.

#1 음력 십일월, 십일, 음력 십일월 이십일일, 이십이일날.

@1 아이고 딱 동짓날 결혼헌 건가?

#1 몰라, 야튼 그날.

혼수품

@1 십일 월 이십이일 날. 경허젠 허민 가을 때쯤 뒈민, 아이고 ᄒᆞᆫ 석달 남으민 뭔가 준비헤야 뒙니께?

#1 갈 때, 시집갈 때.

@1 응, 시집가젠 허민 준비덜 하영 헤야 뒙니께?

#1 시집 갈 때 이불 두 개허고, 신부가 이불 두 개허고 무신 그 집이 권당덜 ᄇᆞ딘 친족 시민 보선, 보선 멧 개 헹 강 그디 ᄒᆞ나씩 주고 거뿐.

@1 거뿐?

#1 응. 거 무신 돈 아정강 주곡 그런 거 엇어.

@1 이불은 두 채 헙니까?

#1 두 채.

@1 이건 다 저 새각시, 새서방 새각시 더끄는 거 아니민 시어무니 드리는 거?

#1 요 두 개, 이불 두 개. 꼴레이불 ᄒᆞ나허고.

@1 꼴레이불 ᄒᆞ나허고. 누게가 다 만들엇어?

#1 신부집이서가 만들앗주.

@1 거난 어무니가 만들아 줘, 아니민 신부가 직접 만들아?

#1 어멍도 만들아 주곡, 신부도 만들곡 뭐 ᄒᆞᆫ이 엇어 건.

@1 시어머니 이불도 헤 줘야 뒈?

#1 시어머니 안 헤여.

@1 시어멍안티 줄 이불.

#1 시어멍안티 주는 게 엇어.

@1 이제는 우리 더프는 거 ᄒᆞ나, 시어멍네 거 ᄒᆞ나 영 허주마씨.

#1 지금 나도 메누리 허젠 허난 이불 헤다 줜게. 난 그런 거 엇어낫어.

@1 아,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난.

#1 우리 헐 땐 그런 거 엇어낫어.

@1 이불 두 채만 헙니까? 다른 건 안 헤? 베개, 베개.

#1 베개 두 개.

@1 베개 두 개. 신랑각시 더끌 거.

#1 베개 두 개, 것에 부뜬 거.

@1 그다음 방석.

#1 방석 잘허민 세 개 허곡, 게 아니민 다섯 개 허곡.

@1 방석은 홀수로 헤? 세 개, 다섯 개.

#1 응. 경헤여.

@1 궤는 안 헹 옵디가? 궤.

#1 잘사는 사름이나 허주, 우리추룩 못사는 사름은 궤 안 헷어.

@1 요강은 들렁 와실 거 아니꽈?

#1 요강은 허곡, 세숫대야허곡.

@1 요강허고 세숫대야허고.

#1 건 뭔지 몰라. 건 뭔지 몰라, 진짜 몰라.

@1 요강은 사기로 뒌 거고예, 세숫대얀?

#1 세숫대야 거 ᄒᆞ나.

@1 놋으로, 놋인가? 놋그릇인가? 놋그릇으로 뒌 건가?

#1 몰라. 무사산디 세숫대야허고 요강 봔.

신부옷

@1 옷은, 신부옷은 어떵 헹 만들아, 준비헤?

#1 신부옷은게 옛날 양단저고리허곡 유동치메허곡 그 집이서 거 입엉 오곡, 시어멍 잘허는 집이서는 비로도, 잘허는 집이서는. 경 안 헌 딘 비로도 아니, 인주치메. 난 인주치메 얻어 입엇어.

@1 시어머니가 헤 주는 거?

#1 시어멍 헤 주주.

@1 삼춘 아까 미녕도 차고 헷덴 헨게마는 집이서 멩진 안 찬?

#1 멩지도 차고 원 안 찬 거 엇어.

@1 게민 그 멩지로 옷 안 헹 입어?

#1 나가 집이서사 헹 입지게.

@1 시집올 때 건 아니고?

#1 이불도 허고.

@1 아, 이불도 허고.

#1 이불 껍덕허고.

@1 시집올 때 새각시옷은 그걸로 안 헤?

#1 입엉 오는 건 안 허고 만들안 오는 건 헤. 만들안 오고.

@1 결혼식날 입는 건 그냥 양단하고.

#1 양단 저고리.

@1 저고리.

#1 유동 치마.

@1 유동 치마.

#1 이 바지는 멩지.

@1 바지는 속바지.

#1 속바지 멩지. 그 중의엔 헌 거 잇어, 또. 이지금 아이들 몰를 거라. 중의 말은 들엇일 거라. 그넌 것도 멩지로. 다 멩지로 헤여 그때.

@1 중의는 소중의 말고 그냥 중의.

#1 소중의도 허고. 소중의허고 중의허고 바지허고.

@1 여자 중의? 남자 중의 아니고예?

#1 여자 거, 여자 거.

@1 여자 거. 여자 중의도 게민 속에 입는 거? 치마 속에 입는 거? 그거만 따로 입는 거 아니고?

#1 속치마 입고, 우에는 양단치마. 그다음 그 전에는 속치마옌 헌 거, 멩지 치마 그다음 중의허고 바지 허곡 빤스허고. 겐디 빤스, 우리는 물질헤나 부난에 빤스가 아니고 속곳.

@1 속곳. 영 우에까지 오는 거?

#1 이디 영 헤근에. 일로 영 무끄곡 허는 거.

@1 끈 하나 영 달린 거.

#1 끈 일로 영 달리고.

@1 속엔 그거 입고.

#1 젤 속에 거 입고, 그다음은 그 저 중의옌 헌 거 입고 바지 입고 거뿐.

@1 게난 그건 다 집이서 멘들아실 거 아니꽈예?

#1 집이서 헐 거주게, 집이서.

@1 아까 유동치메허고 양단저고리.

#1 양단 그건 사당, 사당 멘들긴 집이서 만드는 디 곰으로 사와.

@1 곰으로 사와. 어디 서귀포 장에 강?

#1 서귀포 장날 잇주게. 아이고, 그땐 어루와근에 원, 지금만이만 헤시민 허주마는 어루와.

@1 삼춘도 장옷 헙디가? 장옷.

#1 장옷 헷주게, 지금도 잇주게, 장옷게.

@1 게난예 무신 색으로?

#1 그때 파란 물 들이고 분홍헤근에 이런 디 영 짓허고 곰허고 그넌 거 허고.

@1 그거 무사 놔둰?

#1 거 무사산디 놔뒀어, 지금도.

@1 죽엉 갈 때 입을 거?

#1 경 헐 거 닮아. 난 것도 몰르고, 놔두는 거옌 놔둔 거.

@1 장옷만 놔둡디가? 치메저고리도?

#1 치메저고리 옷 다 헹 놔뒀주. 소곱으로부떠 우에ᄁᆞ지. 다 헨 놔줫주.

호상옷

@1 그건 수의, 호상옷으로 준비헹 놔둔 거구나.

#1 응, 호상옷으로 준비헤 놔둔 거.

@1 남자 삼춘 것도 다 헤놘?

#1 다 헤놘. 나가 헤 논 거.

@1 삼춘이 건 멩지로 헷수과?

#1 멩지로.

@1 결혼헐 때 입엇던 건 장옷만.

#1 멩지로 허곡 바지, 정, 이지금은 것ᄀᆞ라 바지적삼 경허주게. 하르방도 바지적삼허고 나도 바지적삼 허고. 정벵이 그거 허고. 거 헤여.

@1 정벵인 남자 거?

#1 남자 거 정벵이. 여자도 정벵이도 허곡 치마도 허곡. 베치메허곡 멩지치메허곡 유동치메허곡 세 개라. 치마가 세 개. 속치메허고 두 번채 입을 거 허고 유동, 치마허민 세 개, 세 개. 세 개 영 허리 ᄒᆞᆫ더레, ᄒᆞᆫ번에 ᄒᆞᆫ디 줘근에 허리 이거 영 ᄒᆞ나, 두 개, 세 개 놔근에 만들앙 놔뒀주게.

@1 삼춘이 멘듭디가?

#1 나가 만들주게.

@1 누게안티 멧기지 안헨?

#1 응.

@1 호상옷을 삼춘이 직접 멘들안? 삼춘 거?

#1 아니 그거 만들안, 놉 빌언 만들안에 헤온 거 보난에 ᄯᆞ로ᄯᆞ로 헤왓어. 누게가 죽으민 누게가 거 ᄒᆞ나썩 입지나? 두 개 영 ᄒᆞᆫ번에 헤근에 영 주엉 ᄒᆞᆫ번에 입지민 뒈잖아.

@1 맞아. 겡 줜. 놈 빌엉 만들어신디 삼춘이 줘 불언, 그거를.

#1 겅 허연. 지금도 영장난 디 가 보지 아녀난 거주, 가 보민 겅 만들앗어, 경 헷어. 그 사름들이 헤신디 그디 누게가 헌 건 몰르고.

@1 게난 삼춘 결혼헐 때 입어난 치마저고린 아니고. 장옷은 그때 입어난 거?

#1 장옷은 입어난 거.

신랑옷

@1 남자삼춘은 결혼헐 때 무신거 입어? 남자덜은.

#1 남자덜은 무신 광목헤근에 옥광목이엔 헌 거, 걸로 ᄆᆞᆫ 두루막 허고 원. 헌 것이 엇어라. 엇이난 걸 거라. 이 집이가 엇어 부난.

@1 사모관대 가튼 거 썽 결혼헌 거 아니?

#1 무시거?

@1 사모관대. 모자 가튼 거.

#1 그런 거 빌언 헌 거주. 돈 줭.

@1 옷은 남자도 관복 가튼 거 입지 안헤?

#1 빌엉 헌 거 빌엉. 놈이 거 빌엉, 빌엉 헷당 줘 비사주게. 우리는 입엉 오민 걸로 끗인디 남저는 빌엉 입어. 이디 쓰는 것도 빈 거.

@1 어디 강 비는 거꽈?
#1 비는 집이 잇엇주.
@1 이 동네도 잇어난?
#1 나 몰라, 이 동네.
@1 어디 강 빌립디가? 삼춘.
#2 나 거 몰라.
@1 몰라. 어무니가 강 빌령완. 이거 입으라 허난 그냥 입언. 그믄 아까 남자 삼춘도 경 헤도 바지저고리허고 두루마긴 다 새로 헤실 거 아니꽈예?
#1 문딱 새로 헷주게. 큰옷도 새로 허고. 멩지로 나가 멩지 짜니까. 나 지만이 젊을 때 멩지 막 짯주게.
@1 게난 남자 삼춘 거를 삼춘이 헤 줫다고?
#1 응, 나가 다 헨.
@1 결혼헌 다음에? 결혼헐 때 아니고.
#1 결혼헌 막 늙어사.
@1 아, 건 나중에.
#1 흔 오십 넘어사. 오십 넘어사 나 거 허멍 안 헤질 수 엇언.
@1 건 수의.
#1 응, 수의.
@1 수의를 그렇게 헷다는 거지예. 말고 결혼헐 때 입엇던 거는?
#1 결혼헐 때 거 다 버렷주.
@1 결혼헐 때 삼춘은 뭐 입엇어?
#1 미녕, 옛날 미녕, 미녕으로 이넌 영 바지 입곡 광목, 옥영목 광목이엔 헌 거 영 두루마기, 걸로 끗.
@1 그건 삼춘네 어머니가 헤 줜.
#1 응, 그넌 건. 거 문딱 버렷주.

잔치 음식

@1 삼춘, 그 도세기 잡는 날 어떵헤신지 차근차근 골아줘 봅서. 도세기 잡는 날 뒈민 어떵헤?
#1 도세기 잡는날 도세기 잡고.
@1 어떵헹 잡아? 도세기 어떵 잡아?
#1 하인 빌어당. 하인 빌어당 잡아.
#2 동네 하인이 잇엇어.
@1 겡 어떵 어떵 헹 사름들 밥 멕일 거꽈? 무신거 무신거 반찬 헹.
#1 그거 그거 잡앙 숢앙, 그걸로 국 끌려근에.
@1 무신 국?
#1 그 도세기 숢아난 물로.

@1 물망국.
#1 물망 놓곡 그거 놓곡 헤근에 ᄂᆞ물도 이시민 놓곡 헤근에 국 끌리곡 밥은 보리밥에 좁쏠, 좁쏠 놔근에 서꺼근에 김치옝 헷자 무김치. 지금은 무주마는 그때 놈삐. 놈삐 짐치 헤근에 쪼끔 놓고. 이지금 추룩 경 배추김치 그런 거 경 하지 안헷어. 그런 건 하지 안헷어. 그축 헹 그걸로 저냑 먹고. 궤기 고젱이, 고젱이 헤근에 이디 고젱이 이디 셔신가? 이디 엇다.
@1 이거라도 자, 볼펜.
#1 만약에 이것이 대막뎅이, 이것이 대막뎅이민 일로 이레 네 개 아니민 다섯 개 꿰어. 아 그거로.
@1 무신거 꿸 거꽈?
#1 고기, 그 배설. 배설 이거 하나 두 개.
@1 배설 무신거, 무신 배설, 북부기?
#1 북베기도 ᄒᆞ나, 배설도 ᄒᆞ나.
@1 그다음.
#1 저, 수웨 잇주게 수웨, 순대.
@1 수웨도 ᄒᆞ나.
#1 건 젤 말쩨 꿰, 말쩨.
@1 젤 말쩨.
#1 말쩨. 다섯 개 아니민 네 개. 겡 거 테와, ᄒᆞ나씩.
@1 ᄒᆞ나씩 다 테와. 그걸로 밥 먹는 반찬이꽈?
#1 반찬.
@1 집이 가졍 가는 거꽈?
#1 가져가는 거 엇어. 먹을 것도 부족허주. 먹을 거도 부족허여. 그추룩 살앗어.
@1 그게 가문잔칫날. 잔칫날은?
#1 잔칫날은 궤기, 이거 접시면 고기 썰어근에 ᄒᆞ나, 두 개, 세 개 놔근에 요만씩 요만씩허게 썰엉 세 개 놔근에 장, 장물, 장물 놓곡 밥 앗다 주곡 국 허곡.

무채와 메밀전

#1 무 숢아근에 저 메물. 메밀, 메밀 헤근에 영 썰엉 영 썰어근에 더펑 거 ᄒᆞ나 놓곡.
@1 무신거 놧다고? 빙떡?
#1 모물이엔 헌 거. 그걸 전을 지져.
@1 모물로 전을 지져.
#1 전을 지져. 전을 지졍 이렇게 잘라.
@1 묵추룩. 묵?
#1 네 개, 영 영 잘랑 영 찔렁 네 개 뒈잖아.
@1 모멀묵? 모멀묵이꽈?

#1 모멀묵. 겐에 거 얄브게 헤근에 무에 더퍼.
@1 무에 더프는 건 뭐?
#1 무, 이레 이것이 접시면 무 무쳐근에 이레 놔근에 그 우터레 더퍼. 거 그때 놓 거 엇이난 거 헷주게.
@1 거 무신거옌 굴읍니까? 이름이 뭐라?
#1 이름? 거 이름 채소.
@1 그냥 채소.
#1 채소옌 헤근에 거뿐.
@1 아니, 우에다가 더프는 게 묵, 메밀 지진 거를 그레 더픈다고예?
#1 더퍼.
@1 그 더프는 게 크기가 요만이 헤?
#1 응, 그만이.
@1 이만이 헌 거 우에다 더퍼?
#1 응, 더퍼근에.
@1 요만씩 헌 거 놓는 거 아니고.
#1 응, 이거민 영 두 개 정도. 이거 영 두 개. 영 더펑 앗다 놓고. 김친 무김치 놓곡 장 놓고 궤기 석 점, 걸로 끗.
@1 놈삔 썰어근에 어떵 무쳐?
#1 무쳥게, 저.
@1 빙떡헐 때 놓는 거추룩.
#1 응, 빙떡헐 때추룩 맛잇게 험이라고.
@1 거 놓고 우에다 묵은 왜 놓는 거야? 모멀은, 모멀전은 무사 놓는 거꽈?
#1 모멀 더껑, 모멀전.
@1 모멀전을 전 지진 거를 그 우트레 놓는다는 말예?
#1 거 더퍼.
@1 반찬으로?
#1 반찬으로.
@2 말믄 빙떡인데.
@1 모멀전 ᄒᆞ꼼 크게 지지민 빙떡 뭘 거 아니?
#1 크게 지져근에 영 오고려근에게 영 오그령 영 영 썰엉, 야튼 일로 이레 영 세 귀 난 게 잇고, 전부 네 귀 나고 경 허주게.
@1 뭐가 세 개 나고, 네 개 나?
#1 짤름을 잘못 쫄르민 이것이 세 개 뒈잖아, 이렇게. 잘 짤르민 이렇게 네 개 뒈고. 이것이 세 개만 짤르민 네 개 뒈잖아. 겐디 이것을 잘못 짤르면은 이렇게 뒈민 어염에 거 뭐가 뒈어.
@2 예쁘게 짤라야 뒈는구나.

@1 삼춘 모멀전을 동골랑허게 지집니까? 네모나게 헙니까?
#1 그추룩 크게.
@1 이렇게 전 지졍 그다음 짤라? 칼로.
#1 칼로 짤라.
@1 몃 개로?
#1 건 짐작허멍.
@1 게민 영 짤랏어.
#1 그보단 족게 짤라야지.
@1 이보단 작게 짤랏어.
#1 또 짤라.
@1 또 짤라. 이만이 짤랑.
#1 게 이제랑 더퍼, ᄒᆞ나씩.
@1 이거를 ᄒᆞ나씩 모멀 어디 그릇에 요만헌 그릇에, 접시에 노민.
#1 그 이것이, 이것이 접시민 이 우트레 딱 더퍼.
@1 영 더퍼?
#1 어.
@1 요 밑엔 놈삐.
#1 놈삐.
@1 무친 거.
#1 놈삐 채소, 무친 거.
@1 채소로. 그민 이 우에 모멀전 ᄒᆞ나를 놓는 거라.
#1 걸로 끗.
@1 이게 반찬?
#1 반찬.
@1 이게 채소. 요 모멀전 놓는 건 처음 들엄수다.
#1 그거 먹으렌.
@1 무사 이거 주는 거라? 빙떡을 헤 주든가.
#1 응?
@1 빙떡을 주든가.
#1 빈떡은 안 헷주게, 그때는 돈이 엇이난. 지금은 빈떡을 허는디 그땐 빈떡이 엇잖아.
@1 빙떡을 헹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헹 준다고.
#1 응, 이렇게 헹 줘. 게 얼마나 어루와시민 이렇게 주냐?

가문꼬지

@1 아까 꼬지에 꼬지에 궤기는 꿰엉.

#1 거 이름은 가문꼬지.

@1 가문꼬지.

#1 이름은 가문꼬지.

@1 아까 배설덜 꽂는 거예, 수웨영예?

#1 응, 게난 그것이 가문, 가문의[에] 사름덜만 오주게. 이 어둑아갈 때 오는 사름은 놈의 사름 막 오진 안헤. 가문 게난 그 이름이 가문꼬지.

@1 야이 일름은 엇어? 그냥 채소.

#1 이, 빈떡 더끈 거 기자 무조건 앗다 줘. 이것도 안 주민 숭나, 줘야주. 먹고 싶은디 안 주민 어떵.

@1 맞아. 요거는 잔칫날 주는 거꽈? 가문잔칫날 주는 거꽈?

#1 잔칫날. 가문잔칫날은 가문꼬지뿐.

@1 가문꼬지뿐. 도세기 잡는 날이 가문꼬지 아니고?

#1 그것이 가문꼬지.

@1 도세기 잡는 날 주는 게 가문꼬지. 가문잔칫날은?

#1 가문잔칫날이 잔치주게, 그때는. 도세기 잡는 날 따로 허고 가문잔치허고 이틀백이 아녀. 이틀허민게 가문꼬지날은 도세기 잡는 날이고 잔칫날은 새서방 가곡 새각시 오곡 허는 날이라.

새각시상의 계란

#1 겐디 계란도 이 접시에 세 개 영 노민 막 잘허는 건디 하나를 딱 짤르민 하나가 두 개 뒈잖아이, 그건 어퍼근에.

@1 영 어퍼.

#1 어펑 하난 곶인 거 놓고 어프민 두 개라. 세 개 놔야 정상인디.

@1 아, 엇이난. 이거 짤란에 영 놔근에 세 개추룩.

#1 엇이난. 응, 세 개치룩. 영 짤르민 어프민 두 개. 그자 곶인 거 ᄒᆞ나 노민 세 개. 게 ᄆᆞᆫ딱 그냥 놩은 그냥 세 개.

@1 아, 건 누게안티 주는 거꽈?

#1 게민 그 새각시 오민 상 출릴 때.

@1 새각시상에 그거 둑세기 세 개를 주는 거꽈?

#1 응.

@1 근데 엇이난 반 짤란 영 어펑 주는 거라.

#1 엇인 집이는 반 짤르고 이신 집이는 세 개 놓고 겅 헤여.

@1 새각시칩이?

#1 그추룩 살앗어.

@1 새각시상에 둑세긴 무사 꼭 올립디다예? 보난예.

#1 무시거?

@1 둑세기.

#1 게 몰라. 거 무사 올리는디 똑 올려.

@1 꼭 올려예. 근데 세 개를 올리는구나.

#1 응, 세 개, 세 개. 세 개 허는디 그 엇인 집인 가민 하나 짤랑 두 개 어프민, 하나 짤르민 두 개 뒈잖아. 또 ᄒᆞ나 곶인 거 놓민 세 개 겅 허여.

두부

@1 두부도 미리 헤살 거 아니꽈?

#1 두부? 두부 옛날 우리헐 땐 두부 벨로.

@1 삼춘네 결혼헐 땐 안 헤수과?

#1 그 전에, 그 전에 허는 건 봣어. 그 전에 그 집이서 막 ᄀᆞ레로 곧앙.

@1 삼춘은 그렇게 안 헤 봔?

#1 안 헤 봣어. 우리집인 안 헤 봣어.

@1 응.

#1 이렇게 짤랑 그 두부 이렇게 짤라근에 아까 거 거시기 무 채소 잇잖아, 그것에 영 놓곡 이거 영 놓곡 헤근에.

@2 두부영 같이?

#1 게민 이것이 접시, 이것이 접시에 무우 논 거라이. 게민 이레 두부를 짤라 놔. 엠드레 이쪽으로. 요쪽으론 무우 채소 놓고 게민 이거 우이 영 놓곡. 겅 헤영 헤여.

@1 아. 거기다가 두부를 거기 같이 놓는다고?

#1 응, 두부를 ᄒᆞ나 더 논다고.

@1 건 잘사는 집인?

#1 잘사는 집이, 돈 잇인 집이.

@1 아, 겅 헌 딘 두부를 ᄒᆞ나 추가로 놓는구나.

#1 돈 엇인 집이 시집가민 두부도 못 먹어. 돈 이신 집이 가야지.

@1 아니 그 궤기 정반 이수게, 궤기 주는 디 두부영 수웨영 ᄀᆞ치 안 놔주고? 요즘은 두부영 수웨영 ᄀᆞ치 주던데.

#1 지금은 그 두부를, 잘, 이지금은 막 ᄒᆞ나에 막 많이 담앙 막 많이 담앙 주잖아. 겐디 그땐 세 개, 세 개. 겐디 신부상에 그보단 쪼끔 더 주주.

갈리

#1 영 저 갈, 갈리옌 헤근에 영 ᄒᆞ꼼 걸게 썰어근에 영 걸치곡, 그땐.

@1 갈리는 뼈다귀 이신 거꽈?
#1 뻬다귀 엇인 거.
#2 저 불 놔 불게, 불 놓게.
@1 뼈다귀 엇인 거.
#1 뻬다귀 엇인 거.
@1 건디 무사 갈리옌 골암서?
#1 갈리에 거 영 길게 써니까.
@1 아, 갈리에 거 길게 써니까.
#1 그 저 쒜가 잇나, 꽝이 이시나 헌 거 아니.
@1 꽝이 이신 거 아니? 우린 꽝 이신 것만 갈비옌 곧는디.
#1 거 안 놔도.
@1 꽝 엇인 것도 갈리구나.
#1 엇인 것도 갈리.
@2 엇인 것도 갈리, 거기가 맛잇구나.

도감

@1 그다음에 그 잔치허젠 허민 사름도 빌어삽니께. 궤기 써는 사름도 빌어사고.
#1 빌어사주게.
@1 그 사름 무신거옌 골읍니까? 도감?
#1 도감.
@1 도감 한 명만 빌믄 뒈어? 잔치 허젠 허민.
#1 도감허고 궤기 영 놓는 사람은 그 처, 뭐, 뭐옌 헌다마는 거. 궤기 영 놓는 사름 뭐꽈? 일름, 일름 엇주. 청객[천격]이엔 헌 건 옵서 갑서 허는 사름ᄀᆞ라 청객. 들어옵서 이레 앚입서 헌 사름, 그 사름 청객이고. 도감은 궤기 써는 사름이 도감이고 그 궤기 놓는 사름은 기냥 아무나 헤여. 그디 권당이민 다 헤여.
@1 짝도감? 들어본 적 잇어마씨?
#1 짝도감은 써는 사름이 짝도감인디 그 짝도감으로 골아도 뒈어. 짝도감으로 골아도 뒈어. 겅 골아도 뒈어.

솟밋할망

@1 밥허는 사름은 안 빌어도 뒈어?
#1 밥허는 솟밋할망.
@1 솟밋할망도 빌어야 뒈어.
#1 꼭 빌어야 뒈어.
@1 무사 꼭 빌어야 뒈어?

#1 밥을 헤살 거 아니.
@1 아무나 밥헤지지 안헤?
#1 아무나 못헤.
@1 무사 못헤?
#1 잘못 뒈곡게. 밥이 잘못 뒈주게. 잘못 뒈어.
@1 하영 허젠 허민.
#1 이지금추룩 잘 뒈는 솟디 허지 아녀고, 불 숨앙 허는 거라 부난에 잘허는 사름은 잘허는 디 못허는 사름은 못헤여. 못허민 밥이 잘 안 뒈잖아. 겨고 쌀밥만 허는 게 아니고 보리쏠 놓곡 좁쏠 놓곡.
@1 사름덜 막 하영 멕이젠 허민 밥도 막 하영 헤야 뒈켜예. 훈번만 헹 뒈지 안허큰게. 훈번에 끗나지 않겟네?
#1 밥허는 거? 아이고 쏠 멧 말씩 허여. 게난 멕, 멕 알아? 멕. 그 멕에 밥 퍼. 보리쏠 숢앙 그것에 헹 담아놔근에 그거 거려 놓곡 경헹 밥 허곡. 보리쏠 숢은 거 놓곡 좁쏠 놓곡 헹 솟 궤민 물르레 놔근에 헤여.
@1 보리쌀 잘 안 익으니까.
#1 보리쏠 훈 번에 좁쏠에 노민 안 뒈지게. 게난 숢앙 멕에 펑 놧당 게난 그 보리쏠 놓고 좁쏠 놓곡 헤근에.
@1 풋은 안 놉니까?
#1 곤쏠?
@1 풋, 풋.
#1 풋도 잇이민 놓고, 엇이민 안 놓고.
@1 아, 엇이민 그냥 좁쏠에 보리쏠만.
#1 응. 엇이민. 잘허는 집인 허고 곤쏠은 엇어.
@1 곤쏠은 엇어. 새각시 밥만.

새각시밥

#1 새각시밥 곤밥허고. 거민 저디 앚이민 막 얻어먹으레 가근에, 막 흑 이것에 흑 쳐부믄 이거 줘도 먹어. 다 할라 먹어.
@1 밥만 얻어? 밥 말고 궤기도 줘? 아니민 밥만 줘?
#1 궤기 이서야 주주, 엇이민 안 줘.
@1 곤밥만 훈 덩이, 훈 숟구락.
#1 곤밥 훈 숟구락 이레 주민 그것이 그추룩 맛좋아. 그거 얻어먹으레 저 무뚱으로 강 얻어먹으레.
@1 삼춘도 가 봅디가?
#1 가 봣주게, 얻어먹으레.
@1 누게 결혼헐 때 가옵디가?

#1 손 영 허민 이레 줘. 영 거령 흔 숟구락 주민 그거 먹엉 와 불어. 궤기 엇어.

@1 삼춘 시집올 때도 이디 왕 보난 오칩이 아이덜 왕 막 손?

#1 비 오라 노난 우리 집인 올 수가 엇어. 비가 너미 와 노난. 얻어먹으레 올 아이가 엇어. 비 크게 와부난.

@1 막 비 오는 날 결혼헷구나.

#1 막 비 완.

이바지

@1 혹시 삼춘 결혼허기 전에 이버지, 이바지 허는 거 헤낫수과? 이바지가 무신거꽈?

#1 이바지옌 헌 건 저 집이서 이디 아져, 시집가면은 시집이서 이레 뭐 아져오주게. 도세기 다리 ᄒᆞ나 허고 쏠 흔 말허고 술 흔 뒈허고 겡 져와.

@1 언제 져 와?

#1 시집가는 뒷날.

@1 시집가는 뒷날.

#1 가는 뒷날 신랑칩이서가 경 신부집이 아져와.

@1 아, 그게 이버지꽈?

#1 응, 거 아져와, 아져오민 또시 이디서도 그디 가져가, 뒷날?

@1 또 가져가?

#1 그거 말고, 이디 우리, 엇이민 안 아져가고 이시민 아져가.

@1 거난 신랑집이서 신부집이 아져가민 신부집이서 또 신랑집이 보내?

#1 그건 먹고.

@1 가져온 건 먹고.

#1 권당들 영 헹 먹고.

@1 새로 또 다른 거를 보내?

#1 응. 게난 그거 갈 거를 궤기 잡앙 도세기 잡앙 놔 둬, 놔 둬. 짤라 불지 아녕, 짤라 불지 안헹 놔 둬.

@1 사둔집이 갈 거 따로 놔 둬. 그게 결혼식 다음날인 거지예, 그거는?

#1 신랑 다음날, 신부 다음날 허민 삼 일이주게, 잔치가. 신랑, 오늘 가민 낼사 신부허고 신랑허고 올 거 아니? 또 이디 오랑 흔 번 자사 갈 거난 세 번. 사흘 뒈어, 사흘.

@1 거난 칠일을 헌덴 헙디다, 잔치를. 흔 번 잔치허젠 허민 칠일 필요허다.

#1 삼일, 삼일.

@1 삼일. 무사 도세기 잡는 날, 가문잔치.

#1 가문잔치가 도세기 잡는 날.

@1 아, ᄀᆞ튼 날. 그다음엔 신랑집이서 잔치 신부집이서 잔치.

#1 신랑칩이서 잔치허민 신부칩이 ᄀᆞ찌 허여.

@1 신랑집이서 신부집이 갈 거 아니꽈? 신랑허고 신부가 다음날.

#1 신부칩이서 신랑칩이 오민 걸로 끗.

@1 아, 돌아오면 끗.

#1 삼 일, 삼 일.

@1 삼 일.

#1 게민 그 그거 이바지 가졍 간 사름은 와야 뒈주게. 신랑 내비둬, 신부 내비둬 와야 뒈고 거난 거 젤 궂어. 져 가곡, 나도 져 가낫어.

@1 삼춘도 져 가난? 누게 헐 때?

#1 이 친족, 져 갈 사름 엇이민 져 가야주 어떵? 할 수 엇이 져 가야 뒈어.

떼께와 트럭

@1 삼춘, 삼춘은 시집올 때 가마 탕 왓수과?

#1 비 오난 차 탕 왓주. 트럭.

@1 그때도 트럭 이시나? 이실 때?

#1 트럭 잇언게. 어디 간사 빌어와신디 빌어왓언게.

@1 어디 강 빌어옵디가?

#2 ○익이 하르방 아덜이 ○남이라고 우리 동창이라. 게니까 오늘 가문잔치 날인디 낼 꼭 비올 거 같아. 비 오민 옷 젖일 생각허민 어떵 비 맞이면서 장가를 가나, 나만 걸어갓어. 그땐 물 헹 뒈께로 새각시 모셔올 땐디 건 다 빌어왓어. 빌어왓는디 나만 무조건 서구포 내려갓어. 내려간 그 ○익이 하르방안티 절허고 나 낼 장가가는디 낼 꼭 비 올 거 같으니까 차 빌려줘야 뒈쿠다. 아 그렇지, 빌려주지. 겐 뒷날 잔칫날은 우리 오춘이 서구포 살아. 겡 그 사름허고 헨에 그, 그 차, 아져왓주게. 겐 차로 허니까 신예리 이디 신예리 잔치 세 밧디, 우린 흔 밧딘디 우시 왓당 가민은 또 돌아, 집이 가는디 비가 너무 오니까 못 간 사둔집이 다 잣다 허여. 우리는 그것이 차로 허니까 아무것도 관계 엇고.

@1 ○익이 하르방은 막 부자꽈?

#2 제주도 일등 부제. 남주고등학교 희설헌 하르방이라.

@1 무신 이꽈, 성이 뭐?

#2 강씨. 강○익이 하르방이라고 도지사도 헤낫어. 겐 나가 잘 알지. 학교 뎅길 때 어릴 때부터 잘 아니까, 간 절을 허니까, 나 낼 장가를 갑니다, 아이고 그래? 차 빌려줘야, 주야지 딱.

@1 아, 경 헹 차로 결혼헷구나. 다 옛날엔 말 타고, 가마 타고 헹 결혼헷덴. 떼끼 타고 떼끼에 곧읍니까?

#1 떼께.

@1 떼께, 떼께 타고.

#1 떼께에 그 저 세숫대야허곡.

@1 요강허곡.

#1 요강허곡 그 떼께 소곱에 놓곡 겅 허여.
@1 떼껜 어떵헌 떼께꽈? 사름이 영 들릅니까? 아니민 말로.
#1 말로 시꺼, 말에. 시껑 못 와 버청.
@1 신예리서 여기까지 올 거난예.
#1 영 만들앙 사름 앚게 만든 거난에 말에 앞에 ᄒᆞ나 두에 ᄒᆞ나 말 두 개라야 뒈어.

하인

@1 말은 누게가 이꺼?
#1 하인이 잇주게, 이끄는 하인이 잇어.
#2 동네 그.
#1 이불 지는 하인이 잇고, 그거 이끄는 하인이 잇고.
@1 하인도 두 사름은 잇어야 뒈켜예?
#1 두 사름.
@1 결혼허젠 허민예?
#1 두 사름 꼭 와.
#2 동네 하인이 살아.
@1 동네 하인은 멧 명 정도 잇어낫수과, 이 동네는? 한 명만 잇는 게 아니? 두 명도 잇어?
#1 하인, ᄒᆞᆫ 서너 명 잇어낫어.
#2 ᄒᆞᆫ 집, ᄒᆞᆫ 집 식구 다 잇지. 게민 결혼헐 때 그 사람이 다 헤.
@1 ᄒᆞᆫ 집 식구민 아방허고 아덜허고 어멍허고 이렇게.
#1 메누리허고.
#2 메누리허고 다 잇어, 식군 다 잇어.
@1 메누리허고. 그 사름네가 다 하인?
#2 응.
#1 다 하인.
@1 그 헤난 사름 지금도 잇수과?
#1 죽어 빗주, 다 그 사름덜.
#2 무사, 우리 동네 허단 사름덜 엇어.
@1 다른 디 다 이사 가 불언?
#2 딴 디 가 불고 죽어 불고, 이젠 없어. 그런 사람 엇어.
@1 어떤 사름이 그런 거 허는 거꽈?
#1 엇인 사름, 엇인 사름, 불쌍헌 사름. 그 사름네 밥먹는 디 이름은 하배청.
@1 하배청은 뭐라?
#1 여기서 잔치허면 여기서 밥을 못 먹고 저 창고, 저 창고에 그런 디서 출려근에 먹곡 그디 갓당 먹곡 허여 하인이. 거난 그 사름네 밥 먹는 그디ᄀᆞ라 이름이 하배청. 그 이름이 하배청. 게난 저 집 일름이 하배청이 아니고 그 사름네 다니는 디가 하배청. 건디 그 사름네 쌍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디 엇어. 너무 엇이난 거난에 저 일년에 좁쌀 알지? 좁쏠허민 그거 일 년에 ᄒᆞᆫ 말 받아가고, 보리 허민 보리 받아가고 그거 받아당 먹을 걸로. 잔치 ᄀᆞ뜬 거 허면은 그디서 그디 삯 주면 그거 허고 잔치 안 헤도 거 ᄒᆞᆫ 말은 줘야 뒈어. 게난 일 년 두 말 줘야 뒈어. 보리 ᄒᆞᆫ 말, 조 ᄒᆞᆫ 말. 줘야 뒈어.
@1 그믄 마을 사름덜 다 ᄒᆞ꼼씩 걷엉 그 사름 주는 거라?
#1 ᄒᆞᆫ 말씩, ᄒᆞᆫ 말씩. 받으레 다녀.
@1 받으레 다녀.
#2 그 사름덜이 받으레 뎅깁니다.
@1 그 사름네가 마을 일을 다 헤 주는 거꽈?
#2 응.
@1 겅 허는 대가로 마을에서 돈을 다 주는 거라.
#1 거난에 뭔 회의가 잇주게, 회의가 잇이면 이런 저 뭐 요령 잇잖아. 요렁 이렇게 흥글멍 이름, 이름 ᄀᆞᆯ으멍, 나 누게 왓수다, 무신 회 보레 옵서, 무신 회 보레 옵서, 질로 영 다 알아들어지게 다니곡 헤여. 게난 안 줄 수도 엇고 다 줘.
@1 마을 일을 다 보는 사름이구나예.
#1 마을 일을 다 보니까. 게난 막 수고, 막 수고헌 사름이주게.

족두리접

@1 혹시 그 족두리접, 가마접 영 허는 말도 씁니까?
#1 가마접?
@1 가마 같은 거예, 떼끼나 아니민 족두리 같은 거를 마을에서 빌려주고 영 헤마씨? 건 어디서 빌엉 와?
#1 나 빌어보지 안허난 몰라, 원.
@1 어디 강 빌엉 오는 거꽈? 족두리영 사모관대영.
#2 우리 동네는 냇고랑치 잇어. 그옆이 요 밑에 거기 이렇게 집, 쪼끌락헌 집 짓언 거기 놓고 그디서 가져가고.
@1 누게가 관리헤 그럼 그건?
#2 관리허는 사름 엇어. 앗다 놓고 동네 사름이 다 허니까.
@1 서상효 사람들은 다 그디 거 빌려당 허는 거꽈?
#2 응. 그디 거 앗당. 부락에서 만들아 논 거.
@1 잔치가 겹치믄 어떵 헤? 서상효에서 잔치가 두 집이 잇어. 거민 어떵 헤?
#2 몰라, 거 어떵 헷는지 야튼 허는 건 ᄒᆞᆫ 밧디라.
@1 그디서 갓다근에예.

#2 요 밑에 ○건이네 집 엠에 그기서 헷어.

@1 결혼식 전날 신랑이 신부집이도 갓다옵니께, 안 갑디가?

#1 안 가.

#2 나 안 가왓어.

제례 문화

@1 안 가왓어. 다음날 아침이 신부 둘레만 간? 신부 둘레 삼춘 아침이 신부 둘레 갈 거라예, 경 헌디 아침이 세벡이 일어나근에 제도 지냅니까?

#1 제 안 지내, 우린. 제 지내는 사름도 잇지. 막 고기 궈 놓고 막 제허곡 허는 집 잇어. 겐디 우리 오칩인 안 헤. 그걸 안 헤 아무것도 안 헤.

@1 그믄 아침이 일어낭 옷 입어근에.

#1 응, 그자 옷 입엉 출령.

@1 그냥 출령 새각시 데리레 가는 거라.

#1 그자 밥만 먹어. 출령 제허고 그런 거 엇이. 겨고 이런 만약에 우리가 제사 돌아오면 숭눙도 올리곡 막 허주게. 겐디 이 우리 오칩은 거 안 헤.

@1 숭눙도 안 헤?

#1 아니 숭눙 올리민 ᄂᆞ리왕 던지곡 허주게.

@1 응, 잡식.

#1 겐디 우리 오칩은 나가 우리 양칩은 경 아년디 왕 보난에 밥허곡 국허고 영 올리민 그거 내리와 불민 숭눙 올려. 겐디 이딘 안 헤. 영 앗당 올렷다근에 국허고 밥허고 ᄀᆞ찌 ᄂᆞ려오주. 그자 앗당 케우리는 거 엇어.

@1 케우리는 게 엇어?

#1 문제 그런 거 엇고.

@1 문제도 엇고.

#1 아무것도 안 헤.

#2 우리 오칩은 안 헙니다.

@1 오칩은 안 헤마씨?

#1 몰라, 다른 딘 헴신디 몰라도 이 우리 오칩인 안 헤.

@1 이디 상효 오칩은 안 헤.

#1 잘도 간단허게 젤 허여. 거난 거 숭눙도 그 내리오는 사름이 남저덜 내려오잖아. 그 아이덜이 그대로 먹으멍 아져와.

@1 (웃음)

#1 겐디 난 처음엔 난 양칩이난에 그거레 ᄆᆞᆫ 이것이 숭눙이민 이레 ᄆᆞᆫ 젭아놔근에 베끗디 강 지붕드레 던지주. 경허는 걸 봐낫지. 거난 이딘 오난에 남저가 ᄂᆞ려오는디 ᄂᆞ려오단 물 먹으멍 아져와. 숭눙을. 게난 다 먹읍디가, 나 아졍 감수다 이 식이야. 우리 오칩은 안 헤. 아무것도 안 헤. 게난 밥 먹읍, 제 헐 때도 이디 야 그런 말은 안 허주마는 오면 문 요만인 올앙 놔둬, 문을. 구신이 올 거다 허영. 문 요만이 이디 딱 바톼근에 열지. 열앙, 방문도 열아, 요만이. 들어갑서 허는 식으로. 게믄 밥 먹읍디가 허영 갑서 허영 가당 문 탁 더껑 아무것도 아녀. 이거 밥국 올리는 거뿐. 아무것도 안헤. 이 집이 오칩 다 겅 헤.

#2 문제옌 헌 거 엇어.

#1 문제 엇고 겐디 보통 이디는 상 출령 문제 허잖아. 그런 거 이딘 엇어. 아무것도 엇어.

#2 간단허주.

금기사항

@1 삼춘, 날 받으민 결혼식 날 받으민 신랑신부 이건 허지 말라 허는 거 이수과?

#1 결혼허지 말라.

@1 아니, 결혼날 받으민 나예, 다음달에 결혼헐 거라. 게믄 이번 달엔 뭐 누구 죽은디도 가지 말곡 뭣도 허지 말곡 허는 거 엇수과?

#1 그런 거 엇어. 이 오칩은 이상헌 집. 그런 거 엇어.

@1 그믄 날 받아신디 누게 죽엇젠 허민 그디 가도 뒈어?

#1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난 몰라.

@1 허지 말렌도 안 곧고.

#1 응.

청첩장

@1 청첩장은 이젠 막 청첩장도 만들잖아예. 삼춘네 헐 때 그런 거 헤낫수과?

#1 안 헤낫어.

@1 안 헤난.

#1 돈으로 영 ᄒᆞ꼼 줫주.

@1 아니, 이날 결혼헴수다, 영 헹근에.

#1 안 헤.

@1 안 헤.

부조

@1 부지는?

#1 부지 게메 돈으로 주고정 헌 사름 봉투허곡.

@1 옛날에 돈 말고 쌀로도 헤낫수과?

#1 쌀은 여자.

@1 아, 남자는 돈.
#1 남자는 돈, 쌀은 여자.
@1 쌀은 여자만. 얼만이. 삼춘 결혼헐 때 얼만큼씩.
#1 막 하영 헌 사름 두 뒈. 족영 헌 사름 흔 뒈. 쏠, 그 뒛박 잇잖아, 그런 걸로. 남저는 부짓돈으로, 부짓돈으로. 경허는 거.
@1 쏠은 보리쏠 아니믄 곤쏠.
#1 것도 생각이라. 곤쏠 헤가는 사름도 잇고. 그 집이 막 가까운 집인 또 쏠 흔 말썩 헤가는 디 잇고.
@1 아, 흔 말도 허고.
@1 청첩장은 삼춘네 아덜헐 땐 헤난 거 닮지예? 아덜 풀 땐.
#1 아니, 몰라 나. 안헌 거 닮아.
@1 아덜 풀 때 허지 안헤수과? 청첩장.
#2 몰라, 그런 거.

약혼

@1 결혼허기로 헷당 설러 부는 경우도 이십니께.
#1 게 그런 거 막 잇는, 잇어도 것도 몰라.
@1 봐 보지도 안 허고.
#1 응.
@1 삼춘네 결혼헐 때 약혼식 헷수과?
#1 에, 그런 것도 엇고.
@1 그믄 아덜덜 헐 땐 아덜덜 풀 땐 아덜덜 약혼식 헷수과?
#2 안 헷어.
@1 약혼식은 안 헤 봔?
#1 우리, 우리만 저 무시거 제 두 번, 젠가 무시거 그거 뭐엔 글아, 거 두 번 헷어. 육십 뒈면은 환갑잔치 허잖아.
@2 금혼식, 금혼식.
#2 팔십, 팔십. 팔순잔치.
#1 팔십 뒈민 또 진갑잔치 허잖아.
@1 거 다 헙디가?
#1 응, 두 번 헷잖아, 우리.
@1 아, 삼춘네 두 번 잔치헨?
#1 응. 두 번 헷어.
@1 아, 삼춘네 옷도 게난 신랑신부 옷 입고? 건 아니고 한복?
#1 아니고, 그냥 이녁 입구정 헌 거.

@1 아니, 옛날 결혼헐 때 옷추룩 저 족두리 쓰고 이런 건 안 허고.
#1 아, 그추룩 안 출련. 거 안 쓰고 그대로. 그대로 기자 저 호텔에서 헨에 밥 불렁 먹고 영 뱅뱅 영 돌아 앚아근에 노래 불르곡. 간단히.
@1 아덜덜이영 손지덜이영.
#1 응, 아덜덜, 손지덜. 겐디 그때는 육십이난에 막 어리잖아. 우리가 어리잖아. 지금은 늙은이 중에 늙은이 아냐.
@1 이제 구십에 흔 번 더 헤야주마씨.
#1 구십이민, 팔십만 허민 팔순잔치만 허민 뒈어.
@1 구십도 한 번 헤야지.
#1 에에, 두 번허민 뒛어.
@1 세 번 헤야지.
#1 그때ᄁᆞ지 죽나게.
@1 아이고, 아니우다게 삼춘 낼모리 구십아니꽈? 지금 구십이네.
#1 두 번 허민 그만헐 거.
@1 아니, 구십에 흔번 더 헤도렌 헤.
#1 헤 보렌 안 헤도 허젠만 허는디 난 말아. (기타 잡담 생략)

홍세함

@1 삼춘 홍세함은 무신거꽈?
#1 홍세함이엔 헌 건, 시집가곡 장게 가젠 허민 남저가 여저신디 헤가는 거주게. 게민 요것이 홍세함이민 저런 박스라이, 저런 박스에 저거에 멩주나, 돈 놓고, 돈 놓고 저거에 헤근에 담아근에 하인이져 가. 그런 거라 홍세함.
@1 멩지도 놓는 거?
#1 멩지도 놓고. 난 겐디 멩지 저 사둔.
@1 미녕 아니고 멩지?
#1 미녕으로 오는 딘 잘 엇어. 거난 족은, 족은똘 ᄑᆞ난에 멩지 두 빌허고 돈허고 왓어라. 게난 멩지 두 빌을 싹 푸답헨에 보내질 아녀고 푸답헨에 옷 헤놧어. 저승옷 헤놧어 나가, 똘 것을. 그것을 이제 푸답헤지는 사름 실 때 헨에, 난 못 헐 거니까 이거 헤 도렌 헨에, 그 옷 허는 사름이난 옷 헨에, 이름 딱 썬에 우트레 노멍 영 헷다 허난에 몰라. 후젠 어멍 죽어 불민 우리 어멍 경 글안게 헐 거라. 겨곡 보통 저 오민 보내주게, 친정에. 친정에서가 오잖아이. 홍세함이엔 헌 것이. 오면은 그 나가 만약에 메누리 어멍이면 걸 보내어. 겐디 난 안 보내고 그걸 푸답헷어. 푸답헨 옷을 헤놧어.
@2 다시 돌려 보내지 않고?
#1 응, 돌려 보내지 안허고.
@1 미녕으로 온 디는 그걸로 보선 만들앙 테왓덴 헙디다.

#1 난 그런 건 안 헤 보고.

@1 그런 거 안 헤 보고. 나 헐 때는 애기 기저귀 하라고 시렁목 닮은 거.

#1 그런 것도 허주게.

@1 그거 와십디다.

#1 난, 저 메누리신디도 이지금 잘 옷덜 안 허잖아. 겐디 우리 쌍둥이 풀아신디 그 좋은 베로 사 놓고 그 애기지성귀허렌 그거 사 놓고 헨에 메누릴 줘어, 나. 손지를 영 헨 주젠 헤시난에 느가 알앙 이거 마탕 옷을 허든 말든. 난 나가 헹 주젠 헤신디 야네덜ᄁᆞ진 나가 허젠 헤신디 못허난에 느 허라 허난에 받아 간게, 좋은 베로.

@1 거난 그 홍세함엔 꼭 미녕만 놓는 게 아니구나예. 멩지도.

#1 돈만도 노메, 돈만도.

@1 돈만도 놔. 돈은 얼마나 놩은에 보냅니까?

#1 건 흔이 엇어. (기타 잡담 생략)

예장 검사

@1 삼춘 예장 썽 가민 옛날에는 신부집이서예, 잘못 쓰민 다시 썽 오렌도 허곡 헤낫덴 헙디다?

#1 게 잘못 쓰민.

@1 게난 삼춘은 잘 썽 갓수과?

#1 게난 우시를 잘 헹 가야지, 우시를.

@1 삼춘은 잘 썽 간?

#1 게난 그디서 받음에 목적이라. 쪼금 잘못헤도 뒀다 헹 들이모는 사름이 잇고 또 물 우이서 또 쓰는 사름 잇어. 거난에 들이모는 사름이 최고여게. 그날 간 거 어떵 말이니, 거.

@1 집이 가렌도 못 허고.

#1 나 막 겅 헤져. 아이고, 아명 잘못허고 드나 그냥 들이몰아야 게 조켜. 겅 헤져.

@1 말 타근에 가민 삼춘은 말 안 탓주마는 그거 예장 쓴 검사헐 동안 다 계속 말 우에서 내리민 안 뒈?

#1 안 내려, 못 내려.

@1 못 내려.

#1 그거 들렁 간 사름만. 그 이거 홍세함 영 들렁 방에ᄁᆞ지 아져강 무뚱에 사는 사름, 그 사름만 ᄂᆞ리는 거, 다른 사름 못 ᄂᆞ려.

@1 그 사름 하인은 아니고? 우시? 우시간 사름.

#1 우시, 우시. 게난 우시가 신랑 우시는 막 똑똑헌 사름 가야 뒈어. 막 똑똑헌 사름, 글 잘 알곡 헌 사름. 새각시 우시는 아무나 가도 뒈고. 신랑, 신랑 우시는 막 똑똑헤사 뒈어. 게난 사름 골령 보내곡 경 허여.

@1 똑똑헌 사름으로.

#1 글이라도 알아야주게. 날추룩 멍청헌 거 보냉은 내려보지 못헹 올 거 아냐.

@1 결혼식 못 헹 돌아와?

#1 응. 어떵 말이니게.

@1 신부 둘앙 가야 뒈는디.

#1 어떵 말이냐. 잘 쓰렌 허민 잘 써지느냐? 하인도 쓴덴은 헤라마는 경헤도.

사돈대위

@1 삼춘 사돈대위허는 건 어떵 허는 거?

#1 무시거?

@1 사돈대위?

#1 사돈대위 허는 거. 잔치 끗나민 그 무시거, 무시거 하간 거 졍 갈 때 사둔이 ᄀᆞ찌 따라가주게. 거난 그게 사돈대위. 사둔 가민 밥헤 놓고.

@1 언제 한다고?

#1 오널 잔치민 신랑신부 자당 갈 때 ᄀᆞ찌 가.

@1 신부칩이로 가?

#1 응, 신부칩이. 우선 신부칩일 가는 거주게, 신랑칩이서가.

@1 그믄 신랑칩이서 신부칩이 가민 그디서 허는 게 사돈대위?

#1 응 그것도 사돈대위고, 또 그디서 사돈허고 와 불주게. 게난 그디 사돈은 아니 온 거 아냐. 뒷날은 또 와, 신부네 집이서가.

@1 신부 아버지하고 신부 친척들이?

#1 아버지허고 친척 경 하영 아니. 아버지 ᄒᆞ나허곡 그 무시거 이마진가 뒤마진가 헌거 ᄒᆞ꼼 져근에게.

@1 아, 경헹 신부집이 다시 와. 아, 신랑칩이?

#1 신랑칩이.

@1 그믄 그것도 사돈대위.

#1 그거 다 사돈대위. 게민 거 갈 때는 신부허고 신랑은 안 가고. 그, 그거 졍 온 사름허고 아방만 가. 어멍도 아녀고. 그것이 사돈대위.

신랑상

@1 결혼식 당일날 아까예, 예장 써 가지고 들어갓어예, 신랑이 통과헤 가지고 들어간. 그믄 새서방 상 받을 거 아니꽈?

#1 상 받주게.

@1 새서방상. 우시도 ᄀᆞ찌 들어강 밥 먹고?

#1 우시는 이디서 들어간 사름은 못 가고 그디서만.

@1 거난 그디서, 신랑 우시가 완.

#1 혼 사름, 혼 사름.
@1 혼 사름만.
#1 혼 사름만.
@1 우신 혼 명만 갑니까?
#1 사름 저짝으로 주인이, 주인 우시가 받아들이주게. 주인이. 주인이 받아들이는 거난에 앚곡 저 하인이 바끗딜로 오랑 혼 사름 앚아. 게, 세 사름 앚는디 혼 사름은 우시가 아니야, 하인이야, 하인. 베끗디 문 저끗디 앚인 사름은 하인. 안쪽으로 앚인 사름은 대반 경허주.
@1 대반은 신부집 친척?
#1 신랑집 친척.
@1 신랑집 친척. 지금 신부집이 갓어.
#1 신부집이 가면은 그 시국이라, 그 식이라. 그디서 나온 사름이 우시라.
@1 나온 사름은 신부집이잖아.
#1 게메, 게민 그디서가 우시.
@1 신부 우시. 이 사람은 신부 우시. 신랑 말 타고 같이 온 사름이 신랑 우시. 그다음에 신랑 우시는 한 명만?
#1 한 명. 아, 둘리 가, 둘리 만약에 가주게. 우시가 둘리 가도 상 받으레 혼 사름밲이 안 가, 그서 나온 사름만. 이디서 둘리 간 사름은 따로 저 창고 닮은 디 그레 청헹 그기서 밥 먹고. 그서 나온 사름은 혼 사름.
@1 응. 그믄 신랑상 따로 우시상 따로 출려 줍니까?
#1 우시상 따로 신랑상 따로. 신랑상 몬여 들르곡, 주곡. 우시 저 아니, 우시상 몬여 주고 신랑상 두 번째, 하인상 세 번째, 경 헤여.
@1 응, 차례가.
#1 상 들러 놂을.
@1 상 우에 올리는 건 무신거 무신거 반찬 헹 줘?
#1 반찬 막 ᄉᆞ못 최고 허주게. 궤기도 이만이 싸곡 ᄉᆞ못 이만이 싸곡 밥허곡 국허곡 허민 대반이 이거 헤근에 그디 거령 ᄒᆞ나, 두 개, 세 개 놓고 국도 세 번, 모든 거 ᄒᆞ꼼 썩 놔근에 이 상 알르레 영 둬. 영 놔. 경헤야 신랑이 밥 먹는 거.
@1 아, 신부만 허는 게 아니라 신랑도 경 헤?
#1 신랑도 헤. 우시가 다 헤여.
@1 신부가 허는, 신부 대반이 허는.
#1 신부 대반이 허고. 신랑은 신랑 대반이 허고, 경 다 헤여. 겐디 거 옛날이나 헴주 지금 안 헴서. 지금은 ᄀᆞ찌 허주.
@1 지금 안 하지. 예 맞아.
#1 겨고 저 식당에선 ᄀᆞ찌 먹언 설러 베라. 거 막 좋아.

@1 맞아. 좋아.
#1 막 좋아 나 거.
@1 응.

시어머니가 해 준 인주치메와 저고리

@1 겡 그다음에 신랑이 신부 데려근에 신랑집드레 갈 거 아니꽈?
#1 신랑이? 신부 데령 신부집에 가주.
@1 신랑집이. 신랑집이 갈 거 아니? 그때까지 신부는 어떵 헹 잇어?
#1 지네 집 방에.
@1 집 방에, 머린 어떵허고 무신 옷 입엉.
#1 그디서 시어멍 헤 준 옷 입는 거주게. 그때 갈 때ᄁᆞ지.
@1 아니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헌 거 입고.
#1 처음에 입엉 가민 그디 가민 벳겨둬근에 그디 시어멍 헤 준 옷을 입어. 게난 그거 또 그디 또 돌아올 때ᄁᆞ지 그 옷을 입어.
@1 시어멍 헤 준 거?
#1 응. 거난 존 옷 헤 주민 존 옷 입엉 가고, 궂인 옷 헤 주민 궂인 옷 입엉 가고 경 허는 거.
@1 아, 거난 삼춘은 시어머니가 무신 옷 헤 줍디가?
#1 나, 인주치메 헤 주난 인주치메 입엉 가고.
@1 인주치메, 저고리는?
#1 저고리도 인주저고리, 인주치메에.
@1 인주치메저고리. 하얀색으로?
#1 기자 하얀색으로게. 겐디 그때만 한 번 입어봔 어떵 헤신디 몰르크라.
@1 막 좋은 건디 어디. 아끼다근에.
#1 한복을 잘 안 입엇주게, 일만 허당 보난.

건지머리

@1 거난 삼춘 결혼헐 때 머리는 누게가 올려줍디가?
#1 무시거?
@1 건지는 누게가 헤 줜?
#1 건지 옄는 거? 어멍, 우리 어멍. 친정 어멍이.
@1 건진 어떵, 어느, 머리 어디 이시난 헙디가? 누게 머리로?
#1 머리, 어멍 머리. 어멍이 머리 워낙 존 할망이난 머리 헨 잘 놧단 그 머리 헨에 이레 올리고, 어멍 머리로.
@1 어멍 머리로 어떵 헹 건지 헤? 나 머리허고 영 어떵 연결헤?

#1 영 헤근에 영 이디 훈착드레 올리고.
@1 훈착드레 영 올려?
#1 응, 훈착드레.
@1 그다음은 이거 흔들리지 안허게 허젠 허민 어떵 헤?
#1 거 무시거 졸라매는 거 잇주게, 이멍거리.
@1 이멍거리. 이멍거리 졸라매어.
#1 이거 영 건지 영 헤놔근에 그다음 일로 영 헤근에 딱 무꺼. 거 벗어지지 아녀게. 벗어져 불카 부덴.
@1 화장도 ᄒᆞ꼼 허여?
#1 에에, 화장 어디 시난.
@1 그런 건 안 허고. 장옷은 ᄒᆞ나 입고 ᄒᆞ나는 쓰고?
#1 장옷 쓰곡 장옷 입곡. 장옷 빌린 거, 장옷 빌어사 입어.
@1 누게안티 빌어?
#1 써, 써.
@1 쓰는 건 누게안티 빌리는 거라?
#1 어멍 거주게, 어멍 거.
@1 어무니 거. 어무니 시집올 때 거.
#1 응, 어멍 거 놔두난, 어멍 거. 어멍 거 쓰곡 나 거 입곡.

신부상

@1 경 헹 신랑집이 들어갓어예. 그믄 이제 신랑집이 들어가민 신부상을 받을 거 아니꽈? 신부상에는 신랑상보다 더 좋은 거 하영 출려 줘?
#1 에, 비슷헤여. 그 집이선 최소한 잘허젠 허주게. 신부집이서나 신랑집이서나 다 잘허젠 ᄆᆞ음은 먹어, 경허주.
@1 신랑상 신부상을, 신부상 곶인상이엔 헙니까?
#1 응, 곶인상.
@1 무사 곶인상이라?
#1 하영 출리니까. 많이 출리니까 곶인상.
@1 겡 신부가 이제 그 집이 영 들어갓어예. 마당에서 사진도 찍고 영 헤?
#1 이지금은 허주, 전이 옛날은 안 헷주게.
@1 그믄 그냥 신랑집이 들어오민 끗?

대반

#1 요디 오면 이디 대반이 잇어이. 대반이 오른짝 발 ᄆᆞᆫ여 들르렌 헤여. 딱 이디 오민 문에 오면 그 신부신디 허는 말이 오른짝 ᄆᆞᆫ여 들릅서. 이런 지팡 넘을 때도 오른짝 들릅서 막 크게 골아 것도. 못 알아들으카 부덴.
@1 무사, 무사, 오른짝?
#1 몰라, 대반이 겅 골아, 오른짝만 들르렌.
@1 아, 그게 더 좋은가 보다예.
#1 오른짝 들릅서, 오른짝 들릅서. 건 대반이 나왕 허는 거난. 대반이 나와근에 신부도, 신랑도 만약게. 게난 오른짝 들릅서, 오른짝 들릅서 헤여.
@1 대반은 어뜬 사람이 허는 거꽈?
#1 대반이 그디 시민 동세도 허곡 엇이민 아무라도 똘도 허곡 헤여.
@1 똘도 허여, 메누리 아니고?
#1 ᄇᆞ딘 친척 엇이민. ᄇᆞ딘 친척 엇이민 똘도 허여.

신부상

@1 경 헹 들어왕 신부상 받앗어예. 게믄 밥 막하영 먹어도 뒈어?
#1 세 번, 딱 세 번 집어먹으믄 안 먹어.
@1 왜? 배고픈데.
#1 몰라.
@1 이것도 밑에 거령 밑에 가지껭이에 거령 놓고?
#1 그건 말쩨 이레 영 놔근에 더펀 보내라, 그냥. 저디 간 거 어떵헌 중 몰라, 나. 그 이것이 ᄆᆞᆫ딱 비어 불 거 아냐게. 혼 숟구락썩 줘 불곡 허민 사발에 아무것도 엇주게 비어 불엉. 고기도 엇곡 허민 그 고기 석 점허곡 밥 거려놩 이디 낭알에 놔난거 그레 사발에 놩 더프곡 고기도 놔근에 그대로 보내어. 게난 거 보낸 거 어떵 헌 중 몰라.

새각시상의 국

@1 삼춘 국은 무신 국 끌려근에 줘, 새각시상에 국은?
#1 국? 엇인 집인 그냥 허곡, 게 아니민 소고기 허곡, 바릇고기 허곡 허여.
@1 바릇궤긴 무신거 헤? 무신 바릇궤기.
#2 솔라니.
@1 솔라니?
#1 메역 놓고 헤근에.
@1 메역 놔? 놈삐 놔?
#1 메역 안 논덴 허는 사름도 잇고.
@1 메역은 무사 안 논덴 헤?
#1 미끄러진덴 허멍. 무만 놓젠 허는 사름은 무만 놓고.
@1 결혼헐 때도? 시험볼 때 아니고.

#1 겅 헤여. 겅 허는 사름은 겅 허고 아무거나 허는 사름은 아무거나 하고.

뒤풀이

@1 밥도 다 먹고 다헨. 그다음엔 뭐 헤? 옷 갈아입을 거 아니? 시어머니 헤 준 옷 입고 그다음. 뭐 신부, 신랑 친척들안테 인사헤?

#1 아니. 또시 저낙밥 주주게. 저낙밥 주민 그 저낙밥 먹어.

@1 그믄 끗?

#1 그땐 배고팟주게. 저낙밥 먹어.

@1 밥이 막 놀고 헙니까? 밤이 신랑 신부영.

#1 놀고.

@1 뭐 허멍 놀아?

#1 그자 막 노래 불르멍 놀주, 무신.

@1 장단도 치곡 막.

#1 응, 허벅 장단.

@1 허벅 장단 치고. 신랑도 ᄀᆞ치 놀고 신부도 ᄀᆞ치 놀고.

#1 겅 헤여.

@1 친척들이영 아니민 친구들이영?

#1 친구덜 오주게, 친구덜. 친척덜은 무신. 신랑 친척덜, 저 친구덜.

@1 막 신랑 발창 두드리고 허는 것도 헤?

#1 이거 무껑 허는 영 사름 말만 들엇주, 나 허는 건 안 봔. 이거 영 무껑 이런 드레 영 무껑.

@1 테레비엔 봐신디 나도.

#1 이거 영 ᄯᅳ리는 건 말만 들엇주 ᄒᆞ는 건 안 봣어.

@1 삼춘 안 헤 봅디가? 삼춘 친구들도 안 헤 봔? 그런 짓궂은 친구들 엇구나.

겹부조

@1 이딘 부주헐 때 어멍은 어멍신디 허고 아방은 아방신디 부주허지예?

#1 응, 부주헐 때 어멍은 어멍신디 허고 아방은 아방신디 허고.

@1 삼춘 아는 사름이 아덜 풀암저 허민 여자 삼춘은 그디 여자 삼춘안티 부주헤야 뒈고 남자 삼춘은 또 남자 삼춘안티 부주헤야 뒈고.

#1 겅헤여.

@1 우리는, 아니 제주시는 한 사람만 허민 끗.

#1 게 그거 좋은 거.

@1 이딘 겅 안 하잖아. 따로따로예.

#1 따로따로 헤.

@1 돈을 얼만이씩 따로따로 헙니까?

#1 만약에 오만 원이민 오만 원.

@1 오만 원씩, 오만 원씩 헤근에 그 집이 십만 원을 줘야 뒈는 거라.

#1 경 허는 거. 겨고 이제 만약에 똘이 영장이 낫다. 게민 이제 그디 메누리 그 저레 밀려동 똘신디 부주헹 말앙 걸로 끗.

@1 메누리안틴 안 헌다고?

#1 메누리안티 안 헤.

@1 똘안티만 허고.

#1 그자 이녁 간 사름안티만 주는 거. 메누리만 봉은 메누리만 줭 똘 안 주곡 경허는 거.

@1 다 알아, 메누리도 알고 똘도 알아.

#1 게민 두 개 줘야지.

@1 그니까 두 개 줘야지.

#1 두 개 줘야지. 게난 오만 원 들 거 십만 원 들어.

@1 그믄 여자 삼춘도 두 개 주고, 남자 삼춘도 두 개 주고 이렇게?

#1 남잔 보통 ᄒᆞ나. 보통 ᄒᆞ나 남잔. 겐디 그디 절허는 디도 상드레 부지 안 놩 그 상제 주주, 남잔. 겐디 여자는 만약에 너이가 알앗다. 겐디 거 오만 원짜리 네 개 들어. 그게 문제라.

@1 남자는 경 안 허는디.

#1 남자는 하나민 뒈는디.

@1 남잔 상부준 안 헤?

#1 상부지 허는 사름은 상부지만 끗. 그자 다른 디 부지허는 사름은 다른 걸로 끗. 오만 원이민 십만 원이민 십만 원 ᄒᆞ나 담앙 걸로 끗.

@1 겅헤도 삼춘도 그 집이 형제 다섯 명인디 다섯 명 다 알아. 게믄 어떵 헤? 다 받앗어.

#1 게민 다.

@1 다 줘야지.

#2 안 가 부난 몰라.

돈 부조

@1 언제부터 돈 헌 거 닮은꽈?

#1 돈 헌 거 닮수과?

@1 부지를 쌀로 안 허고 돈으로 헌 게.

#1 나 하영 시집 간 오래 여라 해 살앗저. 여라 해 살안 헷어.

@1 아이덜 결혼할 때는 다 돈으로 헷주예? 받앗주예?

#1 그때 쏠 ᄒᆞᆫ 말썩 받아낫주게.

@1 그때가 언제라?

#1 나 똘 처음 풀 때난.
@1 그때 쏠로 받안?
#1 다른 사름 오는 사름 봉지에 쏠 ᄒᆞᆫ 말 담앙 헤낫어.
@1 그때까지도. 삼춘 큰딸이 몃 살?
#1 큰똘 지금? 아이고 멧 살이엔 ᄀᆞᆯ으민 뒐 거니. 쉰, 쉰다섯이.
@1 아니라, 지금 스물두 살에 결혼, 스물세 살에.
#1 아니 가이가 족은 동생이영 ᄀᆞ뜬 도세기 헤치주게. 거난에 ᄒᆞᆫ 칠십 멧 ᄉᆞᆯ 뒐 거니. 마흔다섯, 쉰다섯이난.
@1 오십오에다가 십이 더하면 육십칠. 육십칠. 칠십 넘엇수과?
#2 아니.
@1 아니. 육십칠.
@2 도세기 헤치면은 육십칠.
@1 띠동갑이꽈? 큰아이영 막내영.
#1 막내영 띠, 돌아온 동갑.
@1 오십구년생, 오십구년생예.
#1 마지막 아덜이 쉰여섯.
@1 다섯, 다섯.
#1 다섯 닮아.

재혼

@1 혹시 결혼 두 번 허는 사름들도 옛날에 잇어낫수과?
#1 잇어낫주게.
@1 그 사람도 결혼식 헤?
#1 헨게.
@1 옷도 다 입고? 멘사포 쓰고?
#1 겅 헤라.
@1 옛날도? 요즘엔 허는디.
#1 여자는 어떵 허는 건 몰른디, 우리 신효 우리 아시 아덜이 두 번 풀앗주. 견디 그짝 헤라. 식 허고. 거난 그 총각안티 총각이 아니주마는 아가씨안티 가는디 어떵 헐 거냐. 아가씨네 집이서가 걸 헤 내렌 허민.

결혼 순서

@1 혹시 결혼헐 때 무사 아까 아시 먼저 풀앗덴 헷수게. 옛날 어른들은 성 먼저 순서대로 가야 뒌덴 헙디다?

#1 경 허주게. 옛날 경, 나도 그것이 막 좋아. 경 헌디 이상케 그추룩 뒈언게. 아시는 선생이 두 개난 이건 선생 ᄀᆞ뜬 학교서 막 살아 노난에 어쩔 수가 엇고, 성은 기냥 이디서 그대로 허난에 그 저 새각시집이서가 못 풀아, 안 풀아줜. 성 잇어 부난.
@1 그딘 성 잇어 부난 안 헤 주고?
#1 성 잇어 부난 안 헤 주고, 우린 뒈는디. 게난 우리도 아시 문여 풀고 그딘 성 문여 풀고. 경 헨게.

결혼 후 분가

@1 삼춘네 결혼 처음 결혼 헹 왓을 때 시어머니영 ᄀᆞ치 살안?
#1 시어멍이영 ᄀᆞ찌, 멧 년을 살앗주.
@1 멧 년을 살앗수과? 삼춘 군대 갓다 올 때까지.
#1 군인 강 와도 ᄀᆞ찌 살앗주, ᄯᅳ로 살아본 적이 엇어.
@1 몃 살 뭥, 씨어멍 죽을 때ᄁᆞ지 ᄀᆞ지 살앗수과?
#1 ᄀᆞ찌 살앗주게.
@1 계속 모시고 살안. 할아부지가 독자꽈? 혼자?
#1 혼자. 게난 할망도 혼자, 아덜도 혼자, 혼자난.
@1 삼춘이 막 고생헤시크라.
#1 데껴불 수가 엇어.
@1 데껴불 수가. 삼춘이 막 고생헤시크라 게믄.
#1 에, 고생허멍 말멍. 할망도 고생헷주게.

신혼여행

@1 삼춘 결혼헌 날, 결혼헌 날이나 그 다음날, 요즘엔 막 신혼여행도 갑니께.
#1 신혼여행 우리 그런 거 엇어.
@1 어디 천지연이라도 ᄒᆞᆫ 번 갓다오지 안헨?
#1 한번도 그런 거 엇어.
@1 삼춘 뭐헙디가?
#2 나 그런 거 몰라.
@1 아니, 할머니 데려근에 좋은 디도 가곡 헤야지.
#2 그런 거 몰라.
@1 그런 신혼여행 가곡 허는 거는 똘덜 헐 땐 헙디가? 큰똘 헐 때는 헷수과? 언제부터 신혼여행이엔 헌 게 생겨신고?
#1 큰똘헐 때 헷주게. 큰똘 간게.
@1 그때 갑디가?
#1 겐디 쌍둥이 나노난 쌍둥이가 우리 돌아주고 헤 줘사 갓주. 경 안허민 갈 수가 엇주 아덜.

@1 아덜, 거난 큰아덜이 젤 우에꽈?
#1 큰아덜. 아니 똘이 우이주게. 똘이 두 개가 우이라. 게난 그 아이들은 지네 냥으로 신혼여행 갓다오고. 그 애기 안 난 때난에 아무 생각 안헤신디 아덜은 애기 두개 훈번에 나 부난에.
@1 거난 두 개 난 다음에 결혼헤수과? 아덜은.
#1 난 다음에 난 막 영 걸어 다녀사.
@1 겅 헤야 결혼식 올련. 아 결혼식을 늦게 헷구나.
#1 애기덜 너미 이만이 헐 때 못 허크라라, 버쳔. 나가 버쳔. 거난에 저디 집 신랑덜 노는 집 따로 헤 놓고 헨에 애기 이디 나만 방에 아무도 못 오게 헨. 밤이 좀 안 자민 뒷날 울엉 못살아. 이제 겅 헤난 거 닮지도 안허고.
@1 이제 손지가 멧 살인데, 결혼허난 훈 서른 살 뒀수과?
#1 서른 넷인가? 서른 넷. 두 개 다 장게갓지.
@1 혹시 이 동네서 합동 결혼식허고 영허는 거 헤낫수과? 옛날에.
#1 합동결혼식 허는 거 안 봣어.
@1 안 봣어.

결혼식장과 사진사

@1 결혼식장은 어디 결혼식장 잇어낫수과? 옛날에.
#1 우리? 서구포 막 하선게.
@1 똘 결혼헐 때 어느 결혼식장에서 헨?
#1 거 믄 잊어비엉 골아지크라?
@1 서귀포에 결혼식장 잇어난?
#1 서귀포에.
@2 삼춘네 결혼하실 때 사진을 찍젠 헤신디 못 찍은 거마씨? 아니민 처음부터 안 찍으신 거마씨?
#1 우리? 비 오난 못 헷주게.
@2 찍으레 다 와신디 못 찍은 거마씨?
#1 응.
@1 사름은 빌언? 사진산 빌어난?
#1 빌어오지도 아녓어. 비 오라 부난.
@2 그때도 사진은 찍는 때엿지예 삼춘네 결혼헐 때도예? 그때 사진찍는 사름은 이 동네 사름마씨?
#1 아니, 서구포서 빌어왓지게.

사주고남

@1 삼춘 사주고남이엔 헌 말은 무신 말?
#1 사주 어떵?
@1 사주고남.
#1 사주고남이엔 헌 거 잇주게.
@1 무신거꽈?
#1 그것이게 사주가 조냐, 궂이냐. 고남이엔 헌 거 그 말. 둘이가 사주가 맞이냐 안 맞이냐 헌 것이 고남.
@1 삼춘넨 궁합도 좋덴?
#1 좋덴 허난 구허레 뎅기고 헌 거.

결혼 생활

@1 삼춘, 이제 결혼헌 지 멧 년이나 뒛수과?
#1 아이고.
@1 스물두 살에 결혼헨에 이제.
#1 스물두 살에 결혼허난에 이거 구십 뒈난에게.
@1 게난 멧 년이라 이거. 육십 년, 육십팔 년. 낼모리 칠십 년 뒈크라.
#1 겅헐 거. 게난 결혼헤난 거 잊어비언.
@1 겅헤도 이제 생각허민 그때 막 고와나실 거 아니꽈?
#1 존 것도 몰르고 일만 허단 보난 이지금게. 그자 검질메곡 배고픈 밥만 먹어지민 살아질 거 닮아라게. 배고팡, 배고팡 못 살아. 이 사름은 배고픈 거 몰른덴 헤도 난 배고팡 살지 못헤여. 이디 살다근에 만약에 친정에 갈 일이 잇다. 밥을 안 먹엉 가는 거라. 집이 강 그디 강 얻어먹젠, 나가. 그추룩 살앗젱 허난.

과거와 현재 결혼식의 차이

@1 삼춘 옛날 결혼식하고 지금 결혼식은 많이 달라졋잖아예?
#1 하영 달라졋주게.
@1 젤 크게 달라진 게 뭐 닮아마씨? 뭐가 젤 하영 달라졋수과?
#1 먹는 거.
@1 먹는 거.
#1 먹는 거, 출리는 거 많이 달라졋주게.
@1 이제가 더 좋아?
#1 아메도 좋은 거지.
@1 뭐가 좋아?
#1 모든 거 행동이, 행동이.
@1 옛날이 더 좋은 것도 이실 거 아니꽈?
#1 아이고, 엇어. 존 거 ᄒᆞ나토 엇어. ᄒᆞ나토 엇어.
@1 이젠 새각시 둘레도 안 오고 그냥 결혼식으로 바로 가는데 새각시 둘레 오는 게 좋은 거.

#1 이지금 그런 거 둘레 안 뎅기난에게.
@1 옛날은 둘레 가신디 이젠 안 가잖아예. 안 가는 게 좋아? 둘레 가는 게 좋아? 어떵허꽈?
#1 군인 강 오래 살아부난 무신.
@1 아니, 경 헤도 결혼식날, 잔칫날. 잔칫날.
#1 잔칫날 거 혼 번 가는 거 무신, 알아?
@1 거난 그거 이젠 안 허는디 그거 허는 게 좋으꽈? 안 허는 게 좋으꽈? 몰라?
#1 아녀는 게 좋지.
@1 새각시상도 이젠 안 출려 줘.
#1 응.
@1 것도 괜찮아? 어떵 안 헤?
#1 좋아.
@1 간단헹 좋아?
#1 응, 간단헹.

신부 혼례복의 변천

@1 옷은 옛날에 삼춘은 건지헤신디 족두린 언제부터 썻수과? 누게네부터 족두리 씁디가?
#1 족두리 안 써봣주게.
@1 거난 삼춘네 동생이나 누게 족두리 썽 결혼헌 사름도 잇지 안헤?
#1 무시거 이디 영 허는 거ᄀᆞ라 뭐라? 족두리 말고.
@2 멘사포.
#1 멘사포.
@1 언제 멘사포 써신고? 언제부터 멘사포 헷수과?
#1 몰라 야튼 홀 때마다 멘사포 헨게.
@1 이제는예. 삼춘네 헐 때는 멘사포가 엇어낫지예?
#1 족두리만 허고 건지만 옆져낫주게.
@1 건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족두리 헨? 순서가.
#1 경헨.
@1 옷은 계속 장옷.
#1 장옷, 장옷 입곡 쓰곡.
@1 그 뭐, 뭔 안 헤. 테레비에 나오는 신부 입는 옷 이수게.
#1 그거 안 헤.
@1 그거 제주돈 안 헤 봣수과?
#1 안 헤 봣어. 게난 거 장옷 ᄒᆞ나 입고 ᄒᆞ난 대가리에 영 써. 게난 장옷이 두 개라야 뒘. ᄒᆞ나 뒤날 아져가고.

@1 뒷날 어머니안티 갖다줄 거?
#1 응. (기타 잡담 생략)

암창개와 사혼

@1 혹시 암창개옌 헌 말 들어봅디가?
#1 아니.
@1 남자가 결혼허기로 헷당 군인 가근에 안 완. 결혼허는 날까지.
#1 그런 것도 잇어?
@1 응. 경 허믄 여자 혼자 그냥예, 그 집이 가근에 결혼헹 산덴.
#1 나 저 신예리서 영 헌 건 봣어. 그날 헐 건디 군인 가난 못 완. 거난 결혼헐 땐 우시덜만 간 새각시 둘아오고 밤이사 완. 경허는 건 봣어.
@1 그거 암창개엔 안 굴읍니까? 뭐옌 곧는 말 엇어?
#1 경 굴안게. 군인 간 못 온 거난 홀 수 엇주. 오기로 헨에 잔치를 헷는디 어둑어도 못 오난 우시덜만 간 둘아완.
@1 이름은 엇고예.
#1 응.
@1 결혼을,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시키는 것도 이수게, 사혼.
#1 응, 잇어. 그런 거 잇어.
@1 봐 보진 안 허고. 혹시 결혼에 대해서 제가 다 물어봣는데 이런 건 안 물어봠저게 이런 것도 이신디 헌 거 엇수과?
#1 나 몰르크라.

신부 이동 수단의 변천사

@1 결혼식에 대해서. 아덜덜 결혼헐 때나 똘 풀 때나 재미진 얘기 엇어낫수과?
#1 엇어.
@1 주위에 결혼식 헐 때나 삼춘 결혼헐 때나 특별하게 재밋는 거 엇어.
#1 응.
@1 떼끼는 삼춘 떼끼는 언제까지 헹은에 엇어졋수과? 삼춘네 멧 살때까지?
#1 언제ᄁᆞ지 헨 엇어진 걸 몰라.
@1 삼춘 동생, 여동생 잇어?
#1 여동생 많이 잇주게.
@1 여동생 결혼헐 때도 다 떼끼 탕 헨?
#1 아니 그 떼께 타단에 어느 날 엇어젼에 차 탄 허드라고.
@1 몃 번째 동생 결혼헐 때 차 탄 헷수과? 누겐 떼께 타고 누겐 차 탄?

#1　나 밑에 동생이 네 개주게. 네 갠디 두 개 말고 그 아래 사름은 다 차 탓어.

@1　세 번째 동생은 나이가 멧 살이꽈?

#1　세 번채, 팔십둘, 팔십둘.

@1　지금 팔십둘. 아 지금 팔십둘 난 삼춘은 차 탕 가고예.

#1　게난 건 차 타고.

@1　그 전엔 떼끼 탕 가고.

#1　그루제 죽어분 사람은 팔십ᄋᆞ슷에 죽어신디 작년 재작년에, 게신디 뭬께 탓어.

@1　떼께 탄? 뭬께?

#1　뭬께.

@1　뭬께. 삼춘은 뭬께. 삼춘은 뭬께 맞아마씨? 뭬끼?

#1　뭬끼.

@1　떼끼꽈? 뭬끼꽈?

#1　뭬끼, 뭬끼

@1　뭬께, 뭬끼 두 개 다 써?

#1　아니 무주건 우린 기자 재기 곧는 걸로 뭬끼, 뭬께 헷어.

@1　뭬끼, 뭬끼.

@2　데끼라고 들은 거 같은데.

@1　미용사가 머리 올려주고 이렇게도 헷잖아마씨? 집이 와근에. 혹시 이 동네 그런 미용사 헤난 사름 엇인가?

#1　몰르크라, 나.

@1　똘덜 풀 때는 미용사가 집이 와근에 헤 줜?

#1　우린 그런 거 몰르고 우리 동생들.

@1　동생들 결혼할 때는?

#1　동생들 지금 팔십둘. 난 아니부떠.

@1　그때 어떵헤신디? 미용사가 집에 완?

#1　미용사가 집이 완, 둘 난 아이부떠. 그전에는 그런 거 엇고.

@1　팔십둘 난 아이부터는 차로 결혼허고.

#1　미용사 오고.

@1　미용사 오고 멘사포 쓰고.

#1　그런 거 쓰고 또 식장에 가도 ᄉᆞ못 언주와 줭 막 옷 잘 헤 주곡.

@1 팔십두 살 난 삼춘도 경 헷구나예.

#1 경 허드라고.

5.

한림읍 금악리 김춘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11월 2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김춘자

제보자 정보

@1 일름이 어떵 뒘수과?

#1 김춘자.

@1 예. 몃 년생마씨?

#1 삼십육 년 구월 이 일.

@1 구월 이 일.

#1 이.

@1 이. 삼십육 년생인 거예. 이거 호적 나이랑?

#1 똑같애.

@1 똑같애예. 삼십육 년 구월 이 일. 원래 고향이 어디꽈?

#1 고향이 금악.

@1 금악.

#1 금악인디 이 동네가 아니고 저 웃둥네. 이제 잃어버린 내 ᄆᆞ을 동네. 이 ᄆᆞ을 저 ᄒᆞ꼼 동떨어진 저 우쪽에 그 이시돌러레 가민 금악오름더레 올라가는 그 질 그 밑에.

@1 맞은편에.

#1 예, 맞은편에.

@1 게난 그기가 옛날에 금악리 웃둥네엿구나. 그때 그디 사람덜 살아나신디 이젠 안 살암지예.

#1 그때 삼십 명 살단에 사삼 때 다 내려가난 그거 끗으로 여기 왕 살암주. 그 사람덜이 이 부락에서 살암주.

@1 그라예.

#1 그 동네 밀어 불엇주게.

일제강점기, 어린 시절의 기억

@1 밀어 불언예. 거난 그 동네 헹 그디서 태어낭 크기는 죽장 그디서 커수꽈?

#1 열세 설 나도록 거기서 낳고, 그디서 크고. 공부는 하나토 못허고. 그때 시절엔 우리가 옥안에 ᄒᆞ꼼 뭣을 말이라도 알아듣게끔 옥안 보니까 그 일본 사람덜이 오란 주둔허멍 살멍 헤난 거ᄁᆞ장은 다 알아. 그 일본 군인덜 오랑 우리 우녕팟 바로 뒤에 막 큰 소낭밧이 잇엇어. 게난 그 소낭밧디 군인덜이 주둔허영 살멍 거기서 죽으면 그 소낭 끄창 돌 다근에 화덕허영 사람 걸쳉 알로 우로 그 소나무 끊엉 막 더펑, 그 사람 캐우는 거 우리 얼마나 멍청헤시민 그 사람 케우는 걸 구경을 갓어. 애기 업고.

@1 금악리 사람을?

#1 아니, 자기네 그 부대에서 죽으면, 죽으면, 죽으면 그냥 그디서 케와 가지고 그 케울 때에 이 배 까질 때 팡 허민, 그 소리 듣젠 아기 업엉 거기 강 구경허레 갓주게. 그 사람 케우는 거. 그 얼마나 멍청헤시면. 사람 죽는 게 뭣인지 사는 게 뭣인지도 몰른 때.

@1 모를 때니까 그렇게 구경 간 거지.

#1 게난 그추룩 헤영 케왕 돌 싸근에 그 재 놩 그 우터레 그 군번덜 탁 탁 쓰멍 말톡 박으민 그거 끗. 말톡 박앙. ᄉᆞ삼사건 완 보난 그것도 하나토 엇어졋어.

@1 게난 그거는 사삼사건 나기 전이.

#1 전이.

@1 일본 군인 시대에 일이구나예. 게난 그 죽은 사람이 금악리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1 아니, 아니. 일본 군인덜 와도 사람에 해 주진 안 허연. 하근 거 공출허렌. 그 무쉐 그릇거튼 거 믄 공출 안 허민 자기네 집 더듬엉 가져가는 것뿐이주, 사람에 헤치진 안 헷어.

@1 경헷엇던 거예. 경허난 그거 봐난 기억이 잇구나예.

#1 으, 그거.

@1 학교는 못 뎅겨신게예.

#1 학교는 그때 일본 시절이난 오빠덜은 다녀도 우리는, 여자덜은 공부 필요엇덴 허멍 아바지가 안 시켜 준 거지.

일곱 오누이의 둘째 딸

@1 형제는 어떵 뒘수꽈?

#1 성제는 일곱 오누인디.

@1 일곱 오누이. 남자 몃?

#1 남자 세 개, 여자 네 개.

@1 삼춘이 몃 째라, 몃 번째라?

#1 세 번채. 셋똘.

@1 셋똘이라수꽈?

#1 셋똘, 게난 새로 난 똥 마자기 개도 안 먹는덴 아바지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얘기했어.

@1 다시 한 번 골아 줍서.

#1 새로 난 똥 마자긴 개도 안 먹나고. 엿날에 똥을 싸면 개가 체얌 거는 막 맛잇엉 먹어도, 시 번째 나가면 똥이 만허니까 그거 개도 안 먹나 식으로 그렇게 말헌 거야. 새로 난 똥 마자긴.

@1 첫 번째는.

#1 큰오빠고, 언니고, 다음 오빠고, 네 번채 나도 셋똘로 취급헌 거. 똘이니까.

@1 그니까 오빠, 언니, 오빠가 잇어예. 그리고 나서 삼춘이 잇구나예. 그민 계속 금악리에 살아수꽈, 웃둥네에서 난 일로 시집오멍?

소개(疏開)와 남의집살이

#1 금악리에 기자 나는 금악리에 부모덜은 시난 난 열여섯 설에부터 모실포 놈의 집이 살레 가 가지고 그디 강 두 해 살안.

@1 으, 이 년.

#1 두 해 사니까 그기서 그 열여섯, 열시 설에 소까이[11] 강.

@1 소까이는 어디로 가수꽈?

#1 멩월로.

@1 명월예.

#1 멩월로 가난 이젠 또 두 해 이시니까 고린동더레 가근에 살라 허는 거라. 요 알 부락에.

@1 예, 고린동 알아지쿠다.

#1 거기 막 금악 사람덜 다 담아 놓고 성 둘러 놓고 허난 이젠 거기서 그 열여섯 살 나난 것도 처녀엔 훈련도 받으레 나오라, 입초 서레 나오라.

@1 입초 사레.

#1 헐 거 다 허는 거라. 밤이 강 죽창 들으고 강은에 입초 사당 순경은 시간마다 막 도는 거라. 졸암시카 부덴. 경허민 그거 암호 써근에 누구냐 허면, 그 죽창 들으고 누구냐 허면 무슨 나무엥을 허든 돌이엥을 허든 그 암호 탁 굴으면 그게 아, 이 사람은 폭도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허멍 그 입초를 삿주게.

@1 게난 열세 살에 명월 강 이 년 살고, 고린동에 가 가지고 열여섯 살까지 살고 경 열여섯 살에, 여기 금악, 금악은 자꾸 와낫지예.

#1 금악은 왓닥 갓닥 허주.

@1 겅 헹.

#1 그 놈의집 살레도 안 갈 건디 어머니가 이젠 어디 강, 요즘 사름은 조엔 헤도 몰라. 그 조풍뎅이 체, 체를 ᄒᆞᆫ 가마니 가졍 와 가지고.

@1 맞수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1 할머니영 ᄀᆞ치 강 골아 오라 허난, 난 체 골아 오렌 허민 난 바당물에 빠졍 죽어불젠. 허난 그게 어무니가 죽으렌 허멍 막 때린 거라. 때리난 이제 헐 수 엇이 그 고린동 서문으로 나강 막 울멍 동서남북 막 베리단 보난 모실포로 베려진 거라. 아 저 오름 부락에는 금악 사람덜이 멧 아이가 강 사는디 나가 저 오름엘 가면 나가 그 아이덜을 춪을 수 잇다 헤 가지고 ᄒᆞᆫ 열 신 뒌 때 모실포 그 길로 바로 걸어간 거라. 그 오름만 보멍. 게난 그 오름에는 이제 또 군인덜이 막 재건허영 살았어. 막 재건허영 살아도 군인 없는 길쪽으로 이젠 모실폴 걸어갔어. 걸어간 금악에 할머니가 이제 세 개 살암젠 말은 들언 이제 그 할머니 일름은 아난 일름 굴으난 그 할머니 사는 디 ᄀᆞ리쳐 준 거라.

@1 그 할머니는 원래 금악 사람마씨?

#1 으, 금악 할머닌디 거기 남편 봉강 간 할망.

@1 게난 그 할무니 이름 거느령 그 사람 찾앙 가수꽈?

#1 으.

---

11) '소까이'는 일본어 'そかい(疎開)'에서 온 말로,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이라는 의미다.

@1 아이고, 똑똑헤수다게.

#1 열여섯 술이니까 공부 못 허고 헤도 뭐 뒤테레 물러사는 뭣이 엇엉, 악착거치 나는 살겠다 허는 생각만 헤 노난 그 할머니신디 가난 야, 느 무사 이디 완디 허난, 나양, 밥허영 체밥 먹젠 허난 목이 걸엉 못 먹엉 나 놈의집 살레 와수다, 허난 놈의집은 요즘은 누게가 둘앙 사느닌. 이젠 그 할머니ᄀᆞ라 조반만 멕여 줍서 헨 조반 먹엉 오널랑 질 우쪽으로 누비고 널랑 질 알쪽으로 누비고. 날 둘앙 삽센. 날 둘앙, 게난 계속 아이나 둘쿠과, 아이나 둘쿠과, 허멍 올렐 걸으지 안헷어? 그냥 계속 허단 사흘 채는 이제 넴겨 ᄀᆞᆯ아야지 다 ᄀᆞᆫ젠 허민 못 ᄀᆞᆯ아. 사흘 채는 이제 그 모슬포 바로 경찰서 욮이 집이 큰 점빵이 잇엇어. 그 할마니가 그때 훤 칠십은 난 때난, 삼춘 저 아이나 둘쿠과, 허난 둙은 허켜마는 어떤 아이고? 허난 나우다 허난 베려 보난 밥도 굶곡 옷도 이상케, 머리도 ᄉᆞ못 아인 땐 머리도 이만큼 헤 노난 두루에ᄀᆞ치 헹 강 상 나우다 허난, 영 베려 봉 아이고 느 우리 집이 아홉 식구 밥 못 허켜, 어려 부난 못 허켜. 아이고, 나도양 아홉 식구 영 살멍 나 밥도 허고 물도 질어오고 빨래도 막 헤수덴 막 ᄀᆞᆯ아 가난 이젠 둘앙 살 거추룩 이젠 헤 가난 막 자랑헌 거라. 나대로 나 막 자랑헤 가난 아이고, 느 말허는 게 ᄋᆞ망졍.

@1 ᄋᆞ망져신게.

#1 둘앙 살켜 허난, 이젠 그 할무니가 이젠 둘앙 강 곤썰에 보리썰에 놩 영 허영 밥 허고 반찬이랑 영영 허렌 시기난 그까지 거, 집이선 나무도 허여 오고 벨 거 다 허여신디 그것사 못 허여게. 방 다끄고, 빨래허고.

@1 간단헌 거예?

#1 간단헌 거. 그까짓 것. 게난 일주일 딱 허난 야, 느 ᄋᆞ망지게 잘헴저. 저 월급 얼마나 주민 살티? 허난 삼춘 나 월급 하나토 안 받으쿠다. 나 멕영 살려만 줍서. 나 스무 설 때ᄁᆞ장 멕영 살려만 주민 월급도 하나 안 받으쿠다, 허난 그땐 막 문지[12] 허는 거라. 아바지 시냐, 어머니 시냐? 예 예, 다 오빠덜이에 다 싯수덴 허난. 경 헌디 공분 게난 허연딘? 허난, 공부도 안 헤수다. 야, 어떤 부모가 느 닮은 아기 공부도 안 시기고 이추룩 내놔시니. 그 사름덜은 모른 거라. 원토백이고.

@1 원래 모슬포 사람예?

#1 사삼이 뭣산디 모른 거라.

@1 원래 모슬포 사람이니까.

#1 이젠 경 허난 이젠 막 ᄒᆞ꼼 둘앙 살멍도, 허여도 나믄 점빵도 강은에 무시거 풀아 도렌 허민 풀고 두고.

@1 아, 모슬포서 점빵 허는 사람이라수꽈?

#1 으, 게난 모슬포서 이등 부제칩이 간 거라, 나가. 얼마나 복이 좋아시민.

@1 그 사람 누군지 일름은 알아지쿠과?

#1 하이튼 성만 알았어. 차씨엔.

12) 여기서 '문지'는 '질문'의 의미로 말한 듯하다.

@1 차. 그 집은 식구 한 집마씨?

#1 그디도 아들 니 개에 똘 시 개에 경 난 집이.

혼담이 오고 가자 부산으로

@1 아, 그 아들 삼춘안티 결혼시키젠 헷던 그 집이구나?

#1 으. 겨난 열여덟 나니까 처녀가 뒈어 가난 막 잘 먹고 어떵 처녀ᄀᆞ치 보인 셍이라.

@1 으, 예쁘게 보엿지. 여뻐졋지.

#1 그 남저 삼춘이 아기야 이제랑은에 나 느 둘앙 살단 그냥 내불지 안허켜. 아버질 강 ᄀᆞ리치라. 경헌 거라. 아버지는 고린동서 이만, 딱 이만헌 디서 대 식구가 살고 밑에.

@1 움막집.

#1 으. 밑에 보릿낭 꼴곡 함바집에 사는디.

@1 함바집.

#1 그 어른 둘앙 왕 우리 아바지는 인물도 춤 좋고 남자 닮아난 아바지우다게. 경허난 얼굴은 좋앗주마는 왕 사는 거 보민 도세기 만이도 못 사는 거라. 도세기 만이도. 게난 그게 무서와 가지고 동네 할머니 푸는체 장시, 물 뜨레 가멍 오난 푸는체 젼 집 앞으로 넘어감시난 할머니, 할머니 허난 산, 아이고, 느 어디 살암시, 허난 나 이 집이 살암수다게.

@1 금악 할머니가 지나가 가난.

#1 으. 아이구, 저양 나 사는 디 가근에 우리 어머니네 몬 아판 죽어 가멍 자의 엇이민 못 사는 집이난 자의 집이 보내 도렌 ᄀᆞᆯ아 줍서, 허난 기여, 그런 말 못 ᄀᆞᆫ느냐. 할머니 ᄯᅮ란 왕 조반 잔뜩 멕이고 주인신디 말도 존 어른이난 그자 팔팔 ᄀᆞᆯ아 가난 아이고 홀 수 어수다. 나 와 가난 그 어멍 아방이 막 울언. 너무 섭섭허연.

@1 시집보내젠 헤신디, 메누리 삼젠 헤신디.

#1 게난 그 말 아이 ᄀᆞᆯ아시민 난 멧 해 더 살 거주게. 결혼만 안 허여시민. 그 결혼이엔 헌 건 그냥 ᄀᆞᆯ아 가난 머리빡이 ᄀᆞᆫ작 일어산 아이고, 나 이 집이 살단 무신, 겁난. 결혼이 뭣인디.

@1 그 집이 아덜 마음에 안 듭니가?

#1 군인 가 불언.

@1 아들은 엇어난?

#1 엇언. 군인 갓젠. 셋아덜이 군인 가고, 큰아덜은 풀안 안거리 살고 경허고 또 나영 갑장 아가씨는 중학교 뎅겸고. 경허난 딱 들어가난 자식덜신디 뭐엔 ᄀᆞᆫ느냐 허면 사는 아이엔 절대 불르지 말앙 일름으로 딱 불르고.

@1 어이구.

#1 날ᄀᆞ라 임제네ᄀᆞ라 삼춘이엥 말앙 어머님, 아바님이엔 불르고 경허렌 딱 시긴 거라.

@1 좋은 집이어신게.

#1 으, 막 좋은 집이. 첨, 그 어른네 좋은, 죽어도 좋은 디 갈 거.

@1 글후제 소식 못 들어봐수꽈?

#1 부끄로완. 이디 살멍 막 고생헤난 **이랑 말앙 여기 와지건 왕 들리곡 허라 허여도 장서를 그때 모실포 뎅기멍 드러 헷주마는 그레 베리민 아는 사름이나 베려지카 부덴 곱안 다녓주. 곱안.

@1 부끄러완.

#1 어느 저를에 그디 감이랑 말앙 잘도 존 어른덜. 그 어른덜도 막 못 살안에 허난 고구마 ᄒᆞᆫ 가멩이 ᄀᆞ정 부산 강 그 고구마 다 구멍 ᄑᆞ난 두 가멩이 나완, 두 가멩이 다 구멍 ᄑᆞ난 시 가멩이 나완. 경허멍 부제 뒌 어른덜게. 겨난 그 이승만 박서 때도 돈이 화폐 교환허렌 허연, 그때.

@1 화폐 바뀔 때.

#1 허렌 허난 이제 돈이 그 어른네 아무만이뱅이 못 바꾼다 허난 남은 거라, 돈이. 돈이 하영 남은 거라. 이십만 원. 그때 이십만 원이 지금은 얼만지 모르크라. 이십만 원은 알고 돈 세어 보지도 아녀고 ᄒᆞᆫ숨 쭤우멍 이거 가졍 강 어무니 아부지네 빗 싯건 빗이라도 물어 붑센 허라. 이것을 남으니까 데껴 불지도 못 허고 가졍 강 오렌 허연 그 돈 아부지네 완 그 돈으로 살렷주게. 체 범벅 아이 먹언에.

@1 이십만 원 받안 온 거마씨?

#1 받아당 어무니 아부지네 안네 뒁 오라 헤연. 경허연 그 돈도 그냥 주고 완전 춤.

@1 경헹 이 년 살앗지예, 그기서 이 년 산 거라예. 경헹 열여덜 살에 여기 와신게.

#1 예, 고린동[13] 완.

@1 고림동 완.

#1 고린동 오난 ᄯᆞ로 입초도 사라, 훈련도 받으라. 또 경헌 거라. 또 경허난 경 허단도 어떵 허연 금악을 재건덜 허영 오난 또 금악서도.

@1 몃 살 때 금악을 온 거꽈?

#1 그때가 ᄒᆞᆫ 스무 설이나 열아홉 설이나 그, 그 정도 뒈언 오란에.

@1 그때는 전체적으로 금악이 재건헌 거예.

#1 예. 성 둘런에, 이 금악 반착만 성 둘런 그 안네서 그자 입초도 사고 순경덜 사는 디 강 검질도 메고. 매날 그 훈련허는 거. 뒤으로 돌아, 옆으로 가 허멍. 그 훈련을 받아사 폭도덜 오민 죽이는 그.

@1 경헹 살단 결혼은 몃 살에 헌 거마씨?

#1 이젠 그때는 어떵 허냐 하면 동네 처녀 하나가 부산을 간 거라. 부산 가난 그게 어떵 어떵 허멍 인연이 뒈멍 뒈멍 허영 부산 간에 이젠 또 일 년 살단, 일년 살단 이제 실 공장에 들어강 실 잇으는 기술도 배와지고 실 뽑는 기술도 배와지고 허난.

@1 부산 살 때는 실 공장.

#1 이제 대구서 또 모집이 온 거라. 모집이 오난 이젠 아이고, 쪼꼼이라도 존 디, 큰 디 가사 돈도 ᄒᆞ꼼 낫게 벌겟다 헨 이젠 사표 썬 놔둰 그 모집 온 딜 훤 마흔 사름이나 이상.

@1 부산에서예.

13) '고린동'은 명월리 고림동을 말한다.

대구 방적공장에서의 생활

#1 겐 대구 가난 이젠 완전 ***덜 아니. 실 끗만 잇음만 허연 방적에 탁 들어가난 공장이 차랑차랑 저 추룩 헌 디 들이치난 북 찌를 충도 모르고 기계 ᄃᆞᆼ길 중도 모르고 헌, 허여 노난 헐 수가 엇인 거라. 다 이젠 빠꾸 시견 다 차레 오르렌 다시. 견디 이제 유생이엔 헌 어른허고, 나보다 세 설, 네 설 우인디 그 언니허고 나허고 두 사람만 싹 빠 분 거라. 이 처녀 둘랑은에 일주일만 시겨 봐근에 보내켄 허연.

@1 이 유생이는 제주도 사람마씨?

#1 이 ᄌᆞ끗디 사름.

@1 아, 금악리 사람 게민 이 사람 연으로 부산 갓던 거꽈?

#1 예, 예. 그 사람으로 ᄒᆞᆫ ᄋᆞ남은은 더 가 완.

@1 성은 뭐꽈?

#1 박○○이.

@1 박○○예.

#1 아, 지금 서월 살고 잇어.

@1 삼춘보다 몃이나 위꽈?

#1 네 설.

@2 삼십이 년생.

@1 아, 서울 살고 잇어마씨.

#1 서울서 이제 치매 걸렷덴. 그 국회에서, 남편은 국회에서.

@1 일허고?

#1 일허고 허단 이젠 어떵어떵 허멍 잘 안 뒈어 가지고.

@1 예. 겐 두 사람이 남안. 두 사람이 남으난.

#1 남으난 이제 일주일 동안 기술을 배완 베 짜면 이 공장에서 살 거옌 허난에, 일주일 동안 배와 보켄 허연. 그거 사흘 허난 다, 그거 꼬리빡 탁 들이치곡 그 ᄃᆞᆼ기는 거만 탁 탁 탁 탁 ᄃᆞᆼ기난 그거 무신 기계로 찰각찰각 허난 베틀을 ᄋᆞ덥 개를 준 거라. 이쪽에 니 개, 이쪽에 니 개 허민 그 베틀에서 이젠 실 끗만 털어지민 탁 잡아근에 그 실 끗 맺어 뒁 살리민 또 살아나곡 허난. 사흘 허난 통과뒈언 춤 월급 타곡.

@1 그 기계 네 개 줘 가지고 한 사람이.

#1 체얌은 네 개 줫단 말쩬 ᄋᆞ둡 대를 준 거라.

@1 게난 그 ᄋᆞ둡 대를 한 사람이 관리헌 거마씨?

#1 예. 게난 그거 얼마라도 관리허는 거.

@1 게민 이 기계는 이거 넣는 것도 다 자동으로 뒈는 거니까.

#1 그냥 그 실 다 뒈면 기계 탁 죽영 딴 꼬리빡 그레 톡 놩 톡 살리민 자기대로 드러 짜지는 거난. 게난 이런 고리덴 허고, 광목 허고 그거 짜다가 일 년 뒈난 이젠 기술자 뒈어 가난 상공장에 올라가라 허

는 거라. 비단 짜는 딜. 비단 짜는더레 올라 가민 월급도 곱배기 주곡 이젠 헐 거난 그레 올려 줄 거라. 올려 주난 일주일을 짜난 어멍 아판 다 죽어 감시메 금방 내려오라 허는 전보가 간 거 아니?

@1 그 대구에서, 방적에서 얼마나 산 때꽈?

#1 얼마 살지도 못헷주. 훤 반 년 사나마나.

@1 육 개월. 이제 기술자 다 뒈신디예, 다 배웡예.

귀향 후 결혼

#1 예. 다 뒈고 월급도 올려 주고. 다 뒈니까 그 고리덴 광목 이런 거 짜단 저 이 층에 가면은 비단 짜는 거. 거 옛날에 그 비단 옷덜 양단덜 그런 거 짜렌 헹 일주일을 짜단 어멍 문 죽어 감시메 금방 ᄂᆞ려오렌 허난. 완 보난 날짜 다 받고 잔치허젠 날 거짓말 허연 부른 거 아니.

@1 결혼 날짜 다 잡아 논 거.

#1 다 잡아 놘 일주일 앞둔 거라, 결혼. 게난 그게 매날 운 거라, 매날. 게도 결혼허영 가라 헌 때는 광목 한 통 내어 주고 큰 다락 하나 사 주고, 방적에서 그렇게 헷주. 것도 하나 못 타고 그냥 금방 둘아와시난, 어멍 죽엉 묻어 뒨 또 가젠 와신디 경 잔치날 잡으난 매날 울어가난 이젠, 막펜지를 잔치 아시날사 막펜지 ᄀᆞ져가난 이제 권당덜 모다졍 그 밥덜 막 먹언. 먹으난 이제 동생이, 나보다 일곱 설 밑에 동생이 이젠 차반에 밥이랑 국이랑 궤기랑 문 거려완, 언니 일어낭 밥 먹어 허난 발로 그냥 그 차판 다락 두루 차부난 그냥 구들 안에 문딱 털어젼. 그 여기 신랑칩이서 우시덜도 막 댓 남저가 가고.

@1 밖에 잇는디?

#1 으. 안네 잇엇주게, 안네. 밥덜 먹으멍. 경허면 나가 결혼을 안 시키겟다 헌 뭣으로 막 땡깡 부린 거라. 경허여도 기어이 결혼을 시긴 거. 시견. 경허난 결혼허영 가기로 막 허난, 결혼허영 어떤 남자가 여저 보낼 남저가 잇어.

@1 방적공장에.

#1 겨난 그 나이 줄연 놔부난 군대를 안 가 왔어.

@1 남편이.

#1 군대 안 가오난 스물다섯 이젠.

@1 몃 년생이꽈, 신랑은, 남편은?

#1 나보단 ᄒᆞᆫ 설 밑에난.

@1 ᄒᆞᆫ 설 밑에?

#1 으.

@1 삼십칠 년생. 성함이 어떵 뒈마씨?

#1 안.

@1 안.

#1 안○원.

@1 안씨, 예.

#1 그처록 나가 이제 남편이 ᄌᆞ끗디 와 가민 집이 가 불켄 허멍, 문 ᄋᆞᆯ앙 집이 가 불젠 허민 나 아무치도 안 허크라게. 걱정허지 말아. 나 아무치도 안 허크라.

@1 결혼헹도 경 헤수꽈?

#1 씨누이 ᄃᆞᆯ안에 구둘을 ᄒᆞᆫ 구들에 눴어.

@1 (웃음)

#1 다섯 설 밑에 시누이를. 경허민 친정에 가면 이제 오빠도 밧거리에 살곡 허난 ᄒᆞᆫ저 시집이 가라, 시집이 짓 몰민 이젠 마지 못허영 오랑은에 ᄒᆞ를밤 살젠 허민 ᄌᆞ끗드레 와 가민 난 집이 가젠 허민. (웃음) 말째 애기 나멍 살, 그 큰아덜이 게난 스물싯에 와도 스물ᄋᆞ섯에, 나 눠진 중도 모른디 그 스물ᄋᆞ섯에 큰아덜 난 거. (웃음)

@1 아. (웃음) 스물세 살에 결혼헹 스물여섯에. 그민 그때까지도 신랑이랑 잠 안 잔 거?

#1 안 잔 거. 매날 와 가민 집이만 가 불젠 허고 그 머리에 그 방적이 딱 써지난 남편이엔 헌 사름은 눈에 보이지도 안헌 거라. 와 가민 막 밉기만 허고 그냥 막 신경질만 나고 그처록 허멍. 그 아덜은.

@1 방적공장이 경 재미집디가, 힘들지 안헙디가?

#1 뭐가 힘들어게. 이녁, 그 나는이 이제라도 걷는 거는 얼마라도 걸어질 거 같애. 그 꽝이 게벼우난 그렇게 튀어 뎅김이 잘 튀어 뎅기민, 나 책임자덜신디도 첨, 이쁜 짓.

@1 잘헷구나.

#1 잘허연. 일만 열심히 허민 눈에 드는 거 아니?

@1 맞아. 겐 눈에 들엇구나예?

#1 으. 겨난 그디 못 간 거 이제도 막 꿈에도 허곡 막.

@1 그게, 그거 못 간 게.

#1 이제도 가민 나는 그거 헐 수 이신디 그 생각이 이제도 나는 거라.

@2 막 재미낫구나게.

시집살이

#1 게난 그 아덜 난에 열사흘 만이 군인 가 분 거 아니. 영장 나왕. 게난 군인 가 부난 이젠 그때부턴 시어무니가 매날 밧디 애기구덕 지고 매날 밧디 끗엉 가는 거라. 매날. 게난 나 삼십삼 키로꺼장 나가 봔.

@1 줄언.

#1 줄곡 하근 거 눈으로 볼 수가 엇엇주게. 먹을 것도 변변치 안허지, 애기 ᄃᆞᆯ앙 속 타지. 시할머니 두 개, 시어멍, 시아주방 그렇게 헹 ᄒᆞᆫ 집이 오 년, 만 오 년을 살단 보난 남편이 제대허연 온 거라. 날ᄀᆞ치 고생헌 사람.

@1 아이고, 고생헤수다.

#1 처년 때 고생허난 시집와도 그 고생. 게난 난 요즘거치 행복헌 때가 엇언 ᄉᆞ못. 아이고, 나 살단 보난 영 행복헌 때가 싯구나. 왜 영 나가 행복허지? 요즘 그렇게 들어.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1 예. 결혼에 관한 거 하나씩 ᄎᆞ근ᄎᆞ근 여쭤보젠예. 우리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막 연애 결혼허잖아예. 옛날에도 그런 연애 결혼 헤나신가예?

#1 아이고, 엿날에도 우리 소까이 가지 전이, 사삼사건 나기 전이 웃둥네 사름도 두 사름이나 연애 걸언 갓어.

@1 아이고, 연애 걸언 갓어.

#1 그 앞이 올레에 영덜 사난에 두 사람이 연애헤영 간 사람.

@1 그렇게 눈 맞으민 어른덜이 허락헤수꽈, 연애헹?

#1 게.

@1 삼춘은 이 남자 삼춘을 알아난 거꽈?

#1 몰라, 몰라. 몰르니까 결혼허젠 와 보난 남편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난 건지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우리 아바지가 그 안씨 집안에 사람덜이 다 어질고 좋다 허는 식으로 이 안씨 집안에 풀켄 그 지랄이라.

@1 거난 중매헌 건게.

#1 중매허연.

@1 누게가 중매헤수꽈?

#1 안칩이서.

@1 게민 옛날에 그 중매는 남자 집이서가 영 사람을 구허는 거꽈, 여자 집이서?

#1 으, 남자 집이서. 남자 집이서 어느 집이 처녀가 좋은 처녀 잇다 헤 가지고 남저 집이서 멧 번 가. 훈 세 번, 네 번이나 막 그냥 두루메기 입으멍덜 새벡이 가근에 허민 저 하르방은 뭣 허레 왐신고 허단 보민 날 구허레 오는 거라. 경 훈 번은 아바지 무사 경 나 못 풀아 먹언에 헴수과? 나 이제도록 체 범벅 먹으멍 살아신디 나 ᄒᆞ꼼 크도록 내불지 안허영. 여잔 스물 넘으민 아무 필요도 없어. 스물 전이 결혼헤사지. 그추룩 허멍 제기 풀아만 먹어 불젠 허난 이제.

@1 그건 삼춘 멧 살 때 일이꽈?

#1 그거 스무 설 때주게.

@2 금악 왔을 때.

#1 스무 설 안 넘기켄 허멍.

@1 그니까 방적 가기 전이예.

#1 이딧 사름 말아, 딴 사름, 딴 사름.

@1 아, 다른 디서도 중매가 와낫구나.

#1 아이구 멧 집이 허여난 이 집이 나가 곱안 ᄃᆞᆯ아난 가 분 거라. 언니ᄀᆞ라 차비허고 좁썰 두 말만허곡 허여 주면 나 방적에 강 벌어근에 갚아 내크메 차비 헤 줍센 허난 언니가 어멍 아방 모르게 뛰와 분 거라.

@1 언니는 시집간 언니예?

#1 으. 시집강 막 고생허여져 가난 아시라근에 빨리 결혼시기지 말젠 언니 차비영 헤 주난 이젠 부산 간 거주게. 부산 가난 그치록 살기도 좋고 이녁 노력허민 밥도 먹고. 견디 이디서 체 범벅 허영 삼 년, ᄉᆞ 년 묵은 보미 허영 범벅 허민, 그것도 ᄒᆞ루 해원 저 한라산에 강 삭다리 허영 지엉 오랑 그날 처냑 장, 뒷날은 한림 졍 가민 재수 조민 풀곡 못 풀민 그냥 내불어 뒁 오곡. 게난 그 체 범벅은 삼 년 ᄉᆞ 년 묵은 거 범벅 허면 입에 노민 ᄂᆞ려가질 안 허는 거라. 겨민 우이, 세 설 우이 오빠가 춘자야 범벅 씹지 말앙이 그냥 영 입에 놔근에 국을 사발채 화락 드르쓰면 그 국에 범벅을 ᄂᆞ려간다 허는 거라. 아무리 그렇게 허여도 약 먹는 식으로 먹어 노니까 입에 짜지멍 그 범벅은 안 내려가. 국은 내려가도. 그렇게 헤지니까 나가 도망가근에 방적 생활을 허젠 도망만 가젠 애 씨는 거주.

중매

@1 그난 스무 살 때 여기 살 때 방적 가기 전에 그 중매, 어르신덜 왓다 갓다 헐 때는 그때는 삼춘이 안 허켄 헤 부난 틀어진 거꽈, 아니민 뭐가 안 맞앙 틀어진 거꽈?

#1 나가 안 허켄 헤 부난.

@1 안 허켄 헤 부난.

#1 겐 이젠 나 안 허켄 헤 부난 그 남잔 일지후제라도 금악에 시집 못 가게 허여 불켄 허엿젠 허여도.

@1 어디 사람?

#1 그 사람 요디.

@1 그 사람도 금악 사람?

@2 누겐지도 아는구나.

@1 그 집이서도 삼춘 찍엉 이 여자랑 중매 넣어 줍서 헹 말이 온 거구나예?

#1 그 집이서. 아니, 아니.

@1 그 남자가?

#1 이 중매 사는 거는 그냥 자기네 집안에서 아 어느 아이는 좋은 아이다 허여근에 구허는 거주. 놈 빌엉 안 허여.

@1 집안 사람이.

#1 집안 사람이 골을 만헌 사람 엇이면은 동네 친헌 사람이라도 아, 그 처녀 ᄒᆞ꼼 말허여 주민 어떵 허코 허영 허는 거. 경허난 그 결혼헐 때도 경허난 그추룩 울멍 일주일을 다 끗나난 이젠 잔치를, 그 아시날엔 막 가문잔치덜 허영 막 먹곡 경 허여도 나는 울기만 허곡.

사주

@1 삼춘 결혼헐 때 사주 본 거 같수과?

#1 다 사주 보주, 이젠. 다 봐.

@1 사주 봐 주는 거는 누구안테 강 사주를 봅니까?

#1 건 어디 철학관신디덜 강 봉 오주게. 우리 집이 가면은 나이를 주면 나 나이허고 신랑 나이허고 가

졍 가근에 철학관신디 강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맞수겐 허영 강 날짜도 받고 이제 사주팔자도 판단허고.

@1 그민 여자가 사주.

#1 너무 쎄다 허면 그 물려 부는 거.

@1 결혼 안 허는 걸로예.

#1 으, 물려 부는 거.

@1 게민 사주 봐사 이 사람이영 이 사람이영 맞으난 우리 결혼허게.

#1 그때는 사주 안 맞으민 무주건 남편이 죽으나 무슨 사고가 난덴 허는 식으로 사주가 안 맞으민 결혼을 아니 시긴 거.

@1 게민 남자 집이서 여자 집이 사주 받으러 오는 날도 잇으쿠다예.

#1 게게. 난 날 난 시 구허레 가면 ᄉᆞ못 털지 안허영 비슷허게 말허면 난 날 난 시나 알으켜 줍서 허영 굴으면.

@1 중매 서는 사름이.

#1 으. 허영 그 날짜에, 남저 날짜에 가근에 날짜 받앙 왕 좋은 날 좋은 시에 결혼시키는 거.

@1 사주 받앙 오민 사주 보러 강 아예 날까지 받앙 오는 거?

#1 으, 다 받앙 오는 거.

@1 받앙 오는 거.

#1 어느 날 어느 시에 허민 조쿠과? 허면 그 날짜에서 멧 시에 출발허라, 멧 시에 이제 동관허라 그런 거 다 굴아 주난. 엿날 얼마나 까다로와, 결혼. 아이고.

여장

@1 그민 남자 집이 강 사주를 봐수다예. 둘이 사주 좋으난 결혼 날이영 시영 나완 게민 그거 적어진 거 여자 집에 가져오는 날도 잇잖아예.

#1 그거는 잔칫날에 그 함 잇잖아. 함에다가 미녕을 두 필 놓던지 광목을 흔 통 놓던지 경허영 이제 그것에 사주팔저 쓴 거허고 이제 결혼 예약허여 논 거허고 써근에 그 함 우이 놩 가면 여기서 그 신랑이 물 타근에 살랑살랑 신부 집이 신부 데리레 가면, 이젠 그 함부떠 여기서 그 신랑 칩이서 질 복 좋고 좋은 사름으로 함은 가졍 가. 가졍 가면 거기서도 함 받는 사름이 또 질 저 복 존 사름으로, 그 함 받는 사람도. 그민 딱 함을 받앙 함을 끌렁 보면 그 예장, 그것ᄀᆞ라 여문여장 들이던 임은 법정**나 살건마는 가다 오다 만난 임은 이 정으로 산다. 겨난 여장이라 허여, 여장.

@1 음, 여장예.

#1 여장을 이제 딱 보면은 그게 잘 써져시면 신랑을 빨리 들여근에 밥도 주곡 빨리 내치는데, 그 여장을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신랑을 그냥 무뚱에 흔 시간이라도 세와. 글자 잘못 써 왓젠. 그민 그 글자를 잘 써야만 또 신랑을.

@1 들일 거.

#1 으. 경 허여근에 신랑을 겨울에 쯤은 ᄉᆞ못 실려워근에 허여도 헐 수가 엇어.

@1 물 태운 냥 그냥.

#1 물 태운 냥 그 신랑 얼굴 못 보게 그, 허여난 거. 물 우이서 얼굴 못 보게 이렇게 들렀어, 이렇게.

@1 선제, 부채 영 잡앙예.

#1 신랑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들렁은에 허면 그 여장 잘 쓰면 고생 안 시켱 딱 받아근에 들여 놩 올라오렌 허고, 여장 흔 글자만 틀려도 그거 다 발루어야만 신랑을 불러 들이면.

@1 게난 그거 함에 놓는 거잖아예, 예장은예.

#1 으.

@1 그 함을 그냥 함이렌 불러수꽈, 홍세함이렌 불러수꽈?

#1 홍세, 홍세함.

막펜지

@1 미녕 놓고 그 예장 놓고예. 삼춘 그거 말고 혹시, 아까 삼춘 막펜지 굴안게, 막펜지엔 헌 건 뭐꽈?

#1 막펜지엔 헌 거 잔치 어느제 허쿠다 허영 마지막으로 얘기, 다 떨어지는 말로.

@1 그민 그 막펜지는 남자 집이서 가져가는 거꽈, 여자 집이서 가져가는 거꽈?

#1 남저 집이서.

@1 남자 집에서.

#1 아무 날 헐 거우다.

@1 아무 날 헐 거우다 헹, 그거 적어진 거를 여자 집에 가져올 거라예. 그때 올 때는 누게 누게 옵니까?

#1 그때는 그 막펜지 가져올 때도 훤 두 사름 아니민 세 사름으로 궨당 칩이서도 알만헌 그, 거기 가민 답변이라도 알만헌 사름으로 골라근에 흔 두 사름, 아니민 세 사름. 경헹 가민 신랑 칩이선.

@1 신랑 아방이영, 신랑 아방도 갑니까?

#1 예, 아방은 우선 가고.

@1 우선 오고.

#1 두 사름이나 흔 사름이나 데령은에 가고.

@1 경헹 신부 집이 올 거예.

#1 경허민 그걸로 끝 헐 거. 잔치 어느제 헐 거우다 허민 그날 그 이디서 간 소님 막펜지 가져 왓덴 허영 밥덜 허영 먹고.

@1 여자 집에서 밥 출리는 거.

#1 예. 게난 가멍 돗다릴 하날 가졍 가든가 신랑 집이서. 오널 밥허영 먹입센, 쏠 흔 말에 돗다리 ᄒᆞ나에 가져가면 그걸로 밥허영 신부 칩이선 권당덜 모여졍 밥먹고.

@1 그거는 막펜지 가졍 온 날 가져온 거 그날 헤 먹읍서 허는 거꽈?

#1 막편지 가졍 가멍.

@1 그때 가져 가는 걸 이바지렌은 안 헙니까?

#1 이바지엔도 허고, 막편지 가져오는 날을 그자 그렇게 허는 거.
@1 돗다리 ᄒᆞ나영 아까 쏠 ᄒᆞᆫ 말?
#1 쏠 ᄒᆞᆫ 말.
@1 그거 가졍 온 거예. 예.
#1 가졍 가민 그걸로 밥 허영 먹엇주게.
@1 게난 그 밥헤 먹는 날 삼춘은 이불 썽 울당 그 발로 차 불엇덴 허는 거구나.
#1 으.
@1 아까 삼춘안티도 밥 가졍 오난예.
#1 으.
@1 그때까지도 삼춘은 시집 안 가켄 헌 거.

가마

#1 으. 겨난 결혼허는 날 아침이도 눈물은 자랑자랑 허난 그 신부, 신랑 칩이서 여자 우시 하나 허고 남저 우시 두 개 허고 남저 집에 그 사름이 가면 여자를 화장시켜 데려와. 엿날도. 게난 우시 온 사람 화장시켱 둘앙 가렌 허난 난 그땐 난 화장 안 허영 궂덴 보내민 그대로 오켄. 화장 안 허영 가켄. 이젠 도끼는, 도끼가 아니고 그 도끼도 일름이 두 개라.
@1 가메가 잇고.
#1 가마. 도끼엔 헌 건 그, 가마엔 헌 건 널로 허영 집 짓어근에 영 이 우터레 영 놩 들르는 거고 도끼엔 헌 건 그냥 낭만 허여근에 곱게 포장 허영 영 둘러근에 허는 것ᄀᆞ라 도끼엥 허고.
@1 더 큰 건 가메가 더 큰 거예.
#1 가메가 ᄒᆞ꼼 든든은 허주게.
@1 든든헌 거예.
#1 든든헌 거예.
@1 게난 나는 그, 나 어느 책에 그거 그련 이.
@2 그림 그리는구나.
@1 그림 그렷덴. 뭬께.
@2 데끼, 데끼도 나오던데요.
@1 뭬께.
@2 어제는 데끼.
@1 아, 데끼. 삼춘 뭬께렌 안 헤수꽈, 도끼렌 헤수꽈?
#1 도끼. 몰라 도낀가 뒈껜가.
@2 삼춘 그림.
@1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허는 장면도 그려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 눈물이 자랑자랑 헌 것도.

@1 이거 손 심엉. 요거 누구 손 심엉 오는 거꽈, 애기들?

장옷

#1 몰라. 어느 것에 시? 여기도 영 옷을 써났어.
@1 장옷예.
#1 장옷.
@1 머리에예.
#1 장옷이렌 헹 여기 톡 써나신디 그건 안 기리고. 이것ᄀᆞ라 가마, 이거 가마. 도끼는 험벅으로만 허영 영.
@1 아, 우리 가마는 우이까지 나무로 헹, 널로 헹 집 짓어졍 잇어예.
#1 으, 으.
@1 그민 뒈끼는?
#1 뒈끼는 그냥 모기장ᄀᆞ치 허여근에.
@1 천으로만 둘러졍 잇어마씨?
#1 예, 예. 영 막대 허영 영 둘렁.
@1 아, 막대로 허영 천으로만 둘러졍 잇엉. 요런 천으로 헹 모기장추룩 둘러졍 잇엇구나예.
#1 하근 거 이쁜 걸로 허여근에.
@2 안넨 널이 잇고.
@1 밑에는, 밑에는 똑같고 우에가 틀리구나예.
#1 게민 그 이제 요강이렌 헌 건 그 엿날에는 먼 디 사람덜 들렁 가젠 허민 오줌이 ᄆᆞ려울 거 아니. 안네서. 경허면 신부가 어떵 그 옷 입고 헤여근에 아래 내령 오줌 싸져. 게난 그 도끼 안네서 오줌을 싸렌 헌 식으로 요강은 허영 도끼 안네 놓는 거.
@1 삼춘 올 때도 요강 놩 와수꽈? 아이고, 가까운 디 오는 디도 요강 놩.
#1 그래도 그게 법이 뒈어 가지고.
@1 아, 법이 뒈엉 그 요강 놩 완. 오줌 싸진 안헷주마는예.
#1 요디광 요디난. 벵디물광 요디 사이난.
@1 가차운 디라예.
#1 예, 예.

막펜지

@1 그민 우리 아까 막펜지 가져오는 건 결혼 며칠 전이 막펜지를 가져옵니까?
#1 그 막펜지 가져가는 것도 날짜 받안 아무날은 막펜지 가져가쿠다 허민 막펜지엔 헌 건 ᄒᆞᆫ 엇은 거. ᄒᆞᆫ 메틀 전이 날만 받아근에. ᄒᆞᆫ 덜 전이도 가고 메틀 전이부터 영.
@1 ᄒᆞᆫ 덜 전이도 가고.

#1 으, 그건 아무날 헐 거우다 허영 허는 거난 그건 상관엇이 가졍 뎅기는 거주.

@1 삼춘은 결혼 일주일 전이 그 전보 받앙 내려왓덴 헷잖아예. 그 내려온 날 막편지 가져와십디가 아니민?

#1 아니, 아니. 삼일 전이사 막펜지 가져왓주게.

@1 결혼허는 날 삼일 전이사.

#1 으. 경허난 더 울엇주게.

@1 더 울언.

#1 경 울면 아니 허는 게 마땅헌 거 아니. 웨 경 울어도.

@1 아니, 아니.

#1 결혼헐 때 울면, 시집가도 계속 운덴 허여도 남편이 잘나지는 못헤도 ᄆᆞ음씨가 너무 좋고, 좋은 사름이니까 얼굴에 눈물 한 번 안 씨어 봔 일생을 살단 가 불언.

@1 아, 막 좋은 사람?

#1 으.

@1 겐.

#1 돈도 엇고 이 시국에 아방 죽어 불고 허난 아무, 첨 돈도 엇으난게, 너무 순순헌 사름이영 살안.

@1 아.

@2 좋은 분.

@1 좋은 분 만나신게.

#1 게도.

@1 결혼 안 허켄 울고 불고 헤도.

#1 그 생각은 안 허고 지금도 후회 나는 건 처녀 생활 못 헌 게 질 후회.

@2 방적공장.

@1 방적공장, 방적공장.

#1 이 세상에 나근에 나에게 질 태운 돈이 그건 디다가 못 허니까 지금꺼장도 부모 원망을 막 허여지는 거라.

결혼 준비

@1 삼춘 옛날에 우리 결혼허게 뒈면 그 미릿 미릿, 삼춘이야 일주일 전이 왓주마는 다른 사람덜 보더라도, 언니나 동생덜 보더라도 미릿 미릿 결혼 준비를 영 허잖아예. 한복 만들어야 뒐 거고, 이불도 만들어야 뒐 거고. 삼춘 땐 어떵헤수꽈?

#1 나는 그래도 그 스물 전에도 계를 허엿어. 이 광목 ᄒᆞᆫ 통, 결혼헐 때 허는 거. 나무 허여당 그 낭 풀멍 그 돈을 ᄒᆞᆫ 덜에 얼마씩 처녀덜이, 그 또래덜 모영 허면 그 결혼허는 사람 ᄎᆞ례대로 결혼헐 때면 광목 ᄒᆞᆫ 통, 결혼헐 때면 광목 ᄒᆞᆫ 통.

@1 계를 헤수꽈, 접을 헤수꽈? 계렌 헤수꽈?

#1 으, 으.

@1 계예.

#1 으.

@1 멧 사람이 헤수꽈?

#1 ᄒᆞᆫ 일곱 사람.

@1 다 여기 금악리 사람들.

#1 예.

@1 다 또래들이꽈?

#1 예, 또래들. 갑장이 지금도 열 명 잇어.

@1 아, 삼춘 갑장이.

#1 그래도 엿날은 저 웃둥네광 이디 헤 부난 ᄒᆞᆫ디는 못 놀아도 지금도 갑장, 갑장 허멍 노인당에 가도.

@1 게난 삼춘 그거 지들커 헤당 풀멍 그 계에 돈을 냇구나예.

#1 경허멍 그 광목 결혼헐 때도 ᄒᆞᆫ 통허고 육지 간에 부산 간 때는 또 돈 벌어지니까 그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근에 양단 이불 우알 채를 산 고향더레 보냈어. 놔둠서 헹.

@1 미리 준비헹 놔둬신게.

#1 미리미리 준비 안 허민 안 뒈. 겨난.

@1 결혼 안 허켄 허멍 미리 준비는 다 헤 놩.

#1 엿날은 무조건 결혼은 허는 거난. 이거 법으로. 겨난 그 양단 치마저고리도 다 결혼허여근에 허면 입을 걸로 다 허고 결혼헌 때는 하얀 거 입지. 하얀 거 유둥 치마, 양단 저고리. 경허고 옷 두 불허고 이불 니 채, 광목 ᄒᆞᆫ 통허고 딱 그건 허연 어머니네 집이 보관시켜 둥 또 방적에 가근에 더 벌엉 왕 살젠 허단 보난.

@1 아, 결혼헐 건 다 준비헹 놔둬신게.

#1 으, 나냥으로, 우리 어무니네 요만이도 안 허영 보리썰 멧 말 들엇주. 잔치허젠 허난. 우리 집이 보리썰에 곤썰에 픗 숢안 잔칫날 밥을 허고 시집인 완 보난 허고 싶은 메누리 허난 막 옷도 최고 좋은 경도 양단으로 옷도 ᄒᆞᆫ불 허고 돗도 최고 큰 돗으로 하나 잡고 곤밥을 헌 거라. ᄉᆞ못 메누리, ᄆᆞ음에 든 메누리 헤지난. 나는, 우리 집이선 보리밥에 곤썰에 반을 허껑 밥을 헤신디 시집인 왕 보난 경 잘 출련.

@1 잘 출련. 엇은 살림에도.

#1 게난, 게난. (웃음)

@1 우리 보면은 이런 이불 같은 것도 그 옷감만 헹 보낸 거잖아예. 미리 만드는 날이 잇지 안허꽈?

#1 아니, 시집이서도 옷 만들앙 놔둬.

@1 만들앙 놔두고.

#1 만들앙 놧다근에 오늘 결혼허민 닐은 친정에 가젠 허민 이 옷 ᄀᆞᆯ아 입엉 가렌 허영 시집이 옷을 ᄀᆞᆯ아입엉 가는 거.

@1 삼춘 옷도 부산 있을 때 다 만들어진 걸로 헌 거꽈, 아니민?

#1 아니, ᄀᆞ음으로 헷다근에 여기 완 다 만들안.

@1 언제 멘들아수꽈?

#1 결혼허젠 허난 날짜 받은 후제사 다 한림 강 만들어 완.

@1 한림 강 만들어 완. 게민 한림에 옷 만드는 사람안테 메낀 거마씨?

#1 예, 메끼민 다 강은에 키 재곡 다 허영 놔두민 아무날 입을 거우다 허민 다 만들아 주곡.

혼수

@1 이불은마씨?

#1 이불은 집이서 허곡.

@1 집이서 허곡. 옛날에 그 이불 만들 때라도 만드는 날이 이십디다. 결혼 날 잡으민. 삼춘은 그런 거 따로 안 헤수꽈?

#1 그 ᄒᆞᆫ 삼일 전이 그자 영, 그 엿날은 사람 보멍 다. 홀어멍도 안 뒈고, 뭐 집이 뭐 상처라도, 큰 상처 나난 사람은 아니 허고 복 좋은 사람만 골령 이불도 허레 가고. 첨, 엿날은 무사 경 튿아지게사 살아신고.

@1 그거 바느질허는 사람 그렇게 복 좋은 사람 골령 헷어예.

#1 우리 친정어머니가 바농질을 잘 헤낫주게. 경허난 동네 총각 처녀 결혼헐 때민 다 우리 어무니가 옷을 헤낫어.

@1 아, 삼춘네 어무니가 옷 만드는 사람. 옛날에 그 미녕도 다 짜낫젠 헷잖아예.

#1 미녕도 짜고 저 멩주, 누에 허여근에 그거 뽕낭썹 톨아당 멕영 그거 제지낭에 막 올려근에 집 짓으민 다 실 뒈는 거 아니. 낭 우에 집 짓엉 허민 그걸로 실 뽑앙 멩주도 그 사삼사건 난 때 도꼬마리에 잇빠이 감앙 소까이 갈 때 가젼 간 우리 어머니, 거기 강 베틀 빌언 짠에.

@1 게난 어무니 헤난 거 봐나난 방적공장도 확확 알아차련 일을 헌 건게, 삼춘이.

#1 아니, ᄉᆞ못 멍청허진 안허지. 그런 거 저런 거 봐 나면. 무시거 같으다 허는 머리는 항상. 게난 ᄉᆞ못 멍청헌 것보단은 아무거라도 배왕 놔두면 어딘가 ᄒᆞ꼼썩 도웨는 디가 잇어. 게난 나 공부 못 헌 거뿐이주, 나 공부만 헤져시민 나 벨거라도 다 허켄. 아기덜 공부 안 헤 가면. 무슨 때문 공부 안 헴시닌?

@1 삼춘 한복이랑 이불은 어무니가 다 만들어 줘수꽈?

#1 예. 이불은 집이서, 옷이영 다.

@1 헌 거. 그 이불은 몃 채 헤수꽈?

#1 두 채. 이불 두 개, 요 두 개. 그것만 헨 왓주게.

@1 베게.

#1 베게 두 개.

@1 좌부둥도 헤수꽈?

#1 좌부둥 니 개. 헐 건 다 헷주게.

@1 그거 허고예. 꼴레이불 같은 거 그런 건 안 헨?

#1 꼴레이불 허고 하근 거. 요런 경대 허곡.

@1 아, 경대 허고. 또 혼수.

#1 그 허는 사름은 다락도 허여 오고, 난 다락 그런 거 안 허연. 화로 거튼 거 임시 오면은 필요헌 건 다 허연덜 왓주게.

@1 예.

#1 화로허고 경대허고 다락허고 허는 사름은 그렇게 허영 와.

@1 그때는 궤는 안 헙니까?

#1 궤도 허연 완. 나 저 마리에 잇어.

@1 궤 하나 헹 와수꽈?

#1 으.

@1 궤도 헹 완예. 다락은 다라 얘기헴지예.

#1 예, 예.

@1 대야예.

#1 오면 큰일 때에 떡 만드는.

@1 그민 그 다락은 옛날에 알루미늄 다락. 아이고, 그거 방적공장에 결혼헌덴 헹 내려와시민 줘실 건디.

#1 게난. (웃음)

@1 (웃음) 줘실 건디 광목 한 필이영예. 받지 못헹 섭섭허여.

#1 그것이 질 원져.

@1 원져. 찬장은 안 헤수꽈, 살레?

#1 그런 건 안 허고.

@1 그런 건 안 허고예. 이렇게 혼수 헹 왓구나. 치마, 치마저고리는 멧 불이나 헤수꽈?

#1 친정에선 다 두 불게. 기자.

@1 두 불. 아까 양단 치마저고리 한 벌 하고 헤영헌 게.

#1 헤영헌 게 시집올 때 입엉 오는 거 허고, 또 그 옷 벗어 둬근에 앚이민 또 그거 입곡 경허는 거.

@1 게민 헤영헌 거가 아까 유둥이꽈?

#1 유둥 치마, 양단 저고리.

@1 유둥 치마에 양단 저고리. 헤영헌 거 한 불에 양단으로.

#1 우알로.

잔치 준비

@1 우알로 한 거. 예, 그거 헷고예. 잔치헤 먹젠 허민 집이서들도 막 돼지영 음식이영 준비허잖아예.

#1 아이고, 돼지 ᄉᆞ못 부주덜 허여 온다, 물 질어 온다. 그때 물도 큰 부주. 잔치 큰일 칩이. 허벅덜 져

근에 물 질어당 허민 마당에도 한 ᄀᆞ득이고 도로미깡에 놩, 아무 집이도 큰일 허젠 허민 물이 질 필요헌 거난게. 메틀 일주일 전에부떠 아이고.

@1 그건 다 동네 사람덜이 도와 주는 거꽈?

#1 예. 밀어 가멍 드러.

@1 일주일 전서부터예. 미리미리들. 도세기도 막 미리 길러 놔사 헐 거 아니꽈예.

#1 예. 질루나 또 깝자기 허게 뒈민 우리 아바지넨 사단 헷주.

@1 아. (웃음)

#1 깝자기. 이디는 시할머니네 두 어른이 ᄒᆞᆫ 집이 사난 도세기 밥 잘 주난 그때도 그 백 열 키로. 그거 잡으난 막 소문 난.

@1 백십 키로. 큰 거예.

#1 막 큰, 저 수토세기 불 불란에 경 잔치허젠 그 돗을 질롸도 ᄂᆞ시 새각시를 구허지 못헷던 거라. 새각시 구허지 못허난 도세기 미리 질루와 부난에 저 새각시 구허지 못험덴. 이젠 도세기를 풀아 불겐 허난 도세기 이젠 장시 완 ᄑᆞ난 그 도세기가 집 낭 바깟더레 ᄂᆞ시 안 나완. 아명 두드려도 그자 고개 숙이고 그자 안터레만 막. 시할머니가 경 말헌 거라. 아이구, 얘야 무신 이유가 싯저게. 경 사람이나 짐승이나 경 나가지 말젠 허는 거 이제 경 내물민 무슨 죄사 받아질티 일지후제랑 풀게, 일지후제랑 풀게. 하도 이제 할머니가 허난 이젠 통시레 들이치난 일주일만이 나를 구헷다 허는 거라. 그 도세기가 구헷덴. (웃음)

@1 (웃음) 도세기가 구헷덴. 게민 그 도세기 안 풀안 잔치헌 거예.

#1 으, 게난 ᄑᆞ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라. 그냥 막 키와 놓고 뭣거치 잔치허젠 키와 노난 새각시는, 돗 질롸부난 새각시 구허지 못헴젠 누게 골으난 이제는 도세기 풀아 불겐 누게 골으난 도세기는 나가사 풀 거주게. ᄂᆞ시 집 낭 바끗더레 안 나가난 아이구 무신 이유가 시난 이런 짐싱도 영 헴덴 허영 이젠 돗통더레 그냥 디밀안. 게난 일주일만이 나가 구허엿덴.

@1 일주일만이 구허엿덴.

#1 게난 전설이라, 전설.

@1 아이고게. 그민 옛날에는 삼춘네 결혼헐 그때는 돗 ᄒᆞᆫ ᄆᆞ리민 뒈니까?

#1 그 너무 방덥 한 집이덜은 두어 ᄆᆞ리 잡앗주게. 게난 잔치를 남자덜 ᄒᆞ꼼 사는 집이는 일주일 전이부터 막 그냥 출리멍 모다지민, 너무 섭섭허민 미리덜 잡앙 먹당 보민 ᄒᆞᆫ ᄆᆞ리, 것사 문 먹어 불민 잔칫날 먹젠 또 잡는 집이도 잇고.

@1 두 머리까지도 허는구나예.

#1 우리 집이 나 풀 때엔 ᄒᆞ꼼만 헌 거 허여도 깝자기 잔치허난 그거난 충분 먹어실 거라. 몰르긴 허여, 나도 몰라, 나와 부난.

잔치 음식

@1 그지예. 몃 마리 잡아신디 몰라예. 그민 그 잔칫날 음식을 보게예. 도세기도 잡앗주마는 음식이 뭐 잇어나수꽈?

#1 아이고, 음식 출리고 출리는 게 뭐 뭐 잇어게. 그때 시절에는 그자 도세기 잡앙 그자 장물에 양념허영 내어 노민 그거 반찬이고, 그 ᄂᆞ물이나 무쳥 내어 놓고 몸차반 거튼 거, 콩ᄂᆞ물 거튼 거 그런 야채나 허엿주.

@1 하영 헤신게.

#1 바닷ᄀᆞᆺ 아니난 무슨 고기 반찬도 별로 엇엇수다게.

@1 아니, 돼지고기 반 잇고예.

#1 으, 그걸 큰 걸로 알앙.

@1 이거 젤 큰 거예. 이거에 간장에.

#1 예, 예.

@1 ᄂᆞ물 무친 거 잇고예.

#1 으, 콩ᄂᆞ물 거튼 거.

@1 ᄂᆞ물은 콩ᄂᆞ물이든 ᄂᆞ물이든 그거 잇고, 몸자반?

#1 몸차반.

@1 몸차반이 뭐꽈?

#1 몸 ᄲᆞᆯ아근에 참기름 놓고 하근 양념 놩 버무리민 놀몸이 그렇게 맛좋을 수가 엇어.

@1 아이고, 맛 좋쿠다.

#1 콩이나 보까근에 영, 미리 장물에 컷다근에 몸차반에 ᄒᆞᆫ디 영 영 허민 최고 반찬. 이제 지금도 나 몸 컨 놔둰.

@1 아, 맛잇으쿠다게. 게민 이거 반찬. 김치 같은 것도?

#1 김치는 동지ᄂᆞ물이나 싯당 허여 놔둠밲이 그때는 속 앚는 ᄂᆞ물이 엇엇주. 게노난 김치 ᄀᆞ튼 건 엇엇어.

@1 엇고. 혹시 지시 같은 건 안 올라갑니까? 지시, 마농지시 같은 거?

#1 어, 그런 건 허여.

@1 그런 거 허는 거예. 밥은 어떤 밥이꽈?

#1 밥은 경허난 나가 골앗주게. 신랑 칩이서는.

@1 곤밥.

#1 곤밥 허고 우리 집이서는.

@1 반지기밥.

#1 ᄑᆞᆺ 노민 이건 잔칫밥이난. 잔치는 그 ᄑᆞᆺ을 얼러사 뒌덴 허영 그게 구신 방지허는 거엔 허영 엿날 어른덜은 ᄑᆞᆺ을 큰일 허젠 허면 ᄑᆞᆺ밥을 허는 거라.

@1 ᄑᆞᆺ밥 허는 거라. 게민 삼춘네는 보리영 쌀이영 서껑 ᄑᆞᆺ밥을 헌 거고, 남자 집이서는 곤쏠만 놩 ᄑᆞᆺ밥을 헌 거라.

#1 게난 동네 사름덜 다 곤밥 허영 멕이고 우리는 신랑 신부 적시만 쌀밥 헤여근에 줘주게.

@1 신랑상, 신부상에만예. 국은 어떤 국 헤수꽈?

#1 국은 항상 그 뻬 우린 국. 돼지 뻬 그거 놩은에, 이제 두부는 ᄒᆞᆫ 메틀 전이서부터 콩 멧 말 ᄀᆞᆯ앙 그거 두부 허여근에 그 두부도 큰 반찬 뒈엇주게.

@1 그지예.

#1 그 두부 허여근에 ᄆᆞᆫ 몸차반에 허여근에 내여 노민. 국은 이제 그 뻬 우린 국 허영 몸 놔근에 그 ᄆᆞ멀ᄏᆞ룰 놩.

@1 몸국인게예.

#1 예. 신랑 신분 또 ᄯᆞ로 놈삐 썰어 놓고 생선 썰어 놓곡 허영.

@1 게민 잔칫날 몸국을 손님덜 안티 줍니까?

#1 예.

@1 아, 그믄 신랑 신부는 무수 썰어 놩 허고 손님들은 그냥 몸국으로 나눠 주는 거.

#1 어떵 높은 손님덜 그자 그 국.

@ 잔치 전날도 손님덜 오면 밥 먹잖아예, 가족들예. 그때도 몸국 헙니까?

#1 그땐 생성국, 틀리게 헤여근에.

@1 틀리게 허는 거. 다른 데는 꺼꾸로 ᄀᆞᆯ읍디다. 준비허는 날은 몸국 먹고 잔칫날은 생성국 헹 먹곡.

#1 그 잔칫날도 생성국 안 허여. 몸국.

@1 몸국으로 헤.

#1 신랑 신부만 그.

@1 생성국.

#1 궤기국 ᄯᆞ로 헤영.

@2 메역 안 놓고.

#1 우시상에는 그 몸쿡 안 올라가. 그 신랑 신부 먹는 걸로 다 곤밥이고 국이고 다 올라가.

@1 우리 고깃반에 보면 아까 두부도 헌덴예. 둠비렌 ᄀᆞᆯ아수꽈, 두부렌 ᄀᆞᆯ아수꽈?

#1 둠비, 둠비.

@1 둠비, 둠비. 둠비도 올라가고 고기 멧 점 올라갑니까?

#1 고기 석 점.

@1 석 점.

#1 우리 수웨는.

#1 수웨 ᄒᆞᆫ 점, 두부 ᄒᆞᆫ 점, 계란 반착.

@1 계란 반착은 숢은 계란.

#1 숢은 계란 헤영 딱 썰엉.

@1 아, 그것도.

#1 그건 잘 허는 사람. 안 허는 사람은 안 헤도 뒈고, ᄒᆞ꼼 생각헌 사람은 계란 허여근에.

@1 그것도 궤깃반 올라갈 거.

#1 게.

@1 예, 음식은 그렇게예. 우리 잔치허젠 술도 막 집이서 둠고 헤나신가예?

#1 옛날은 경헤낫주게. 옛날은 누룩 이녁 집이서 밀 갈아근에 밀 누룩, 밀 ᄀᆞᆯ앙 밀 누룩 허고 소주도 허영 놔두곡, 막걸리도 허영 놔두곡 허민 놀레 오는 사람도 거리멍 안네고. 그거 대접으로 그자. 소주도 다까근에 막 어디, 그땐 조사허영 왕, 조사허레 오민 다 곱졍 놧당 그 술 조사 막 와.

@1 게난 삼춘도 술도 영 빚어 보고 헤수꽈?

#1 아니, 어무니 허는 거 봄만.

@1 건디 여기는 밀로 누룩을 헤수꽈?

#1 밀 누룩이 그렇게 좋아.

@1 보리는 안 허고마씨?

#1 보리는 허여도 좀 ᄒᆞ꼼 새금지는 뭣이 있어. 약허여.

@1 밀이 더.

#1 밀이 최고. 밀 누룩이. 막걸리에던 뭣이던 밀 누룩 최고.

@1 밀 누룩으로 헷구나. 삼춘 밀누룩 만드는 거 봐 봐수꽈?

#1 우리 허멍 순다리 헹 먹곡.

@1 누룩은 어떵 만듭니까?

#1 누룩 그거 ᄀᆞᆯ아다근에 물 삭삭 버물엉 그거 너무 질게 허여도 안 뒈고 너무 ᄆᆞ르게 허여도 안 뒈고 꽉 줴어근에, 덩어리 질 정도로만 꽉 꽉 줴영 놔두면 그 누룩에 그 술이 돌젠 허민 노랑 빨강헌 그 꼿이 피어.

@1 으, 곰펭이 피는 거예.

#1 검엉허면 술 맛도 엇고 그 꽃 핀 누룩은 아무걸 헤도 맛잇어. 검엉허면 트멍 술이 궴은 허여도 맛이 덜 허여. 게난 그거 누룩 허는 게 질 물 맞게 잘허민 꼿이 불긋불긋허고 노릿노릿헌 그 꼿이 피어야 술도 돌아. 순다리 허는 것도 그렇게.

@1 순다리 헐 때도 그 누룩도 미리 만들엉 놔두민 그것만 담아 불민 뭘 거잖아예? 게난 누룩 만드는 거까지도 헤 봐수꽈?

#1 예게. 누룩은 거 아무나 허는 거.

사흘 잔치

@1 아무나 허는 거, 예. 그민 술도 미리 만들어 둘 거예. 잔치헤 먹젠 허민예. 옛날에 보민 우리 잔치허는 날 보민, 아니, 준비허는 거부터 봅시다. 잔치를 며칠이나 헙니까, 옛날에?

#1 엿날은 할망덜 ᄀᆞᆫ는 거 보민 일뤠 잔치엔 헷주게.

@1 일뤠 잔치. 어떵헹 일뤤고마씨.

#1 게난 몰라, 그건. 사흘은 멕여 논 거고. 게난 미리 미리 그냥 출리멍 출리멍 술 먹은 날 허여간에 일주일이 뒌 건가, 나도 건 모르크라.

@1 삼춘네 헐 때는 메틀 잔치를 헤수꽈?

#1 메틀산디 거 일주일 산가 뒁 가난 흔 사흘 울단 보난.

@1 흔 사흘 울단 보난. 보통 삼춘 동네에서 잔치를 이 금악리에서 며칠을 헙니까?

#1 보통은 사흘 허는 거주게, 사흘.

@1 으, 사흘 허는 거예. 사흘 허민 이 첫 번째는 뭐 헤, 이날은?

#1 잔치 아시날.

@1 이 날이 잔치우다예. 잔치 전전날은 뭐 헤?

#1 전전날은 하근 거 출리주게. 낼은 아시날이난 손님도 올 수 싯고 허난 다 출리는 거. 사흘 전이 마딱 출리는 거.

@1 게민 이 사흘 전이 이 날 도세기 잡읍니까?

#1 예, 예.

@1 예, 도세기 잡고 이 날은 손님 받을 거예.

#1 예, 예.

@1 이 날은 결혼허는 날예. 그믄 우리 가문잔치렌 허민 어느 날을?

#1 가문잔치는 아시날이주게.

@1 아시날 가문잔치라예. 무사 가문잔치렌 헴수꽈?

#1 그거 나도 그 법을 모르크라. 그게 가문잔치, 가문잔치 허니까 닐을 위헤영사 허는 건지 원, 가문잔치 그 뜻을 모르크라.

@1 이 날은 손님덜 왕 먹을 거잖아예. 잔칫날도 손님 받읍니까?

#1 잔칫날이 제라허게 손님 받아.

@1 잔칫날이 손님 받아. 가문잔치 날도 손님 받고.

#1 예, 예.

@1 그건, 그건 상관엇어, 아무날이라도.

#1 아니 여자 집에서는, 남자 집에서는 손님 받주마는 여자 집에서는 신부 나가 불민 그때도 손님 받읍니까?

#1 그때도 궨당이나 먼 궨당은 못 올 수가 이시난 소문들으멍 오젠 허면, 그건 흔도 끗도 엇인 거.

@1 아, 잔칫날도 손님 받고. 그거.

#1 그거 어떵 손님 몰라근에 그날사 온 손님 잔치헤 불어시메 갑서 허여져. 들여놔사주.

@1 우리 가문잔칫날 보면은 영 고기 마탕 써는 사람이 잇잖아예.

도감

#1 도감이렌 허영.

@1 도감이렌 헹. 그 도감은 누게가 허는 거꽈?

#1 도감은 거 아무나 허여. 궤기 잘 썰어지는 사람은 기자 도감, 도감 허멍.

@1 옛날에 그 도감 남자가 헤수꽈, 여자가 헤수꽈?

#1 남자가 헷주게.

@1 여자는 안 헷어.

#1 으, 여자 벨로 허는 거 못 봣어. 요즘은 여자덜이 험주마는 그때는 여자덜이 안 헷어.

@1 어쨋든 도감도 막 하는 사람이 계속 헙디다. 동네에서.

#1 아무나 안 허여.

@1 아무나 안 헤예.

#1 것도. 것도 ᄒᆞ꼼 연줴가 가. 돗 잡는 거렌 허영.

@1 연줴?

#1 ᄒᆞ꼼 나쁜다고.

@2 아, 신분이.

#1 돗 잡는 사람도 틀린 사람. 그 궤기 써는 사람도 영 못 사는 사람을 벌어 먹엉 살렌.

@1 도감안티 옛날에 잔치 왕 일 도와 줘 나민 아까 일쿰, 쿰 주고 헤수꽈?

#1 예, 예.

@1 게난 못 사는 사람 불렁 헌 거구나예.

#1 게난.

@1 그 도감 옆에 앚앙 반 놓는 사람도 잇잖아예.

#1 예.

@1 그 사람은 뭐엔 부르는 거 이수꽈?

#1 그 사람 엇어.

@1 예, 예. 옛날에 보면 그 도감 ᄯᅳ로 잇고 잔칫날 왕 음식헤 주는 할무니가 잇잖아예.

#1 밥허는 할머니들.

@1 밥허는 할망예. 그 할망을 불르는 일름은 이수꽈?

#1 아니, 그 할망도 엇고. 우리 집이 와근에, 왕 밥 허여 줍서. 영 못 골아. 우리 집이 왕 놀아 줍서. 성님, 성님 우리 아무 날 잔치헴서양 그날 왕 놀아 줘양, 허민 알아먹어근에 그 밥 허레 뎅기는 어른덜은 경만 골으민, 어, 알앗저. 아무 날? 예게, 허민.

@1 옛날에 솟밋할망이여 허는 말은 안 들어봅디가?

#1 솟 밋은.

@1 그런 건 안 허는 거예. 술, 술 담당헤 가지고 이 손님안테 술 한잔 드리라. 경헹 마탕 허는 사람도 엇고?

#1 엇고. 서로, 서로 기자 잔 드리는 거.

그릇제, 쏠제

@1 예, 예. 우리 잔칫날 보젠 허민 그릇덜이영 막 하영 필요허잖아예. 우리 집이 이신 것만으론 족을

거 닮은디 그때 어떵헙니까?

#1 권당덜토 ᄀᆞ져도 오고 ᄌᆞ끗디 사람 이시민 ᄀᆞ졍 오렌 허영 가져오고.

@1 그거 다 빌령 씁니까?

#1 빌령.

@1 마을에 그거 그릇들.

#1 그릇덜은 그때 시절에 그렇게 안 헷어.

@1 그 후젠 헷구나예.

#1 그 후젠 다 젯그릇이엔 헤여근에 몬딱 젭시, 장물 그릇ᄁᆞ장 몬딱 허멍 지금도 그건 다 잇어.

@1 맞아. 지금도 젯그릇이 이신가?

#1 예, 예. 싯수다.

@1 삼춘 결혼헐 때도 집이 막 천막 치고도 헤신가예?

#1 예. 천막 안 치민 집이 족아 가지고. 마당에 천막 쳐야 손님덜, 비 와도 좋고 벳 나도 좋고. 그 장막은 어디 이실 거라, 몰라도.

@1 그 장막도 빌려왕 허는 거 아니꽈예.

#1 부락에 있어야.

@1 부락에 있어야 뒈는 거예. 삼춘 혹시 이바지렌 허는 게 뭐꽈?

#1 이바지렌 헌 거. 이바지렌 헌 거 무신 육지 식으로 이바지 허는 걸 거라. 여기가 이바지엔 헌 게 나는 막펜지 가져 가는 게 이바지 아닌가.

@1 막펜지 가졍 갈 때 삼춘 아까 쏠이영 돗 다리영예.

#1 나 그것가 그거 같은데.

@1 그거 같애. 혹시 잔치 끝낭, 잔치 끝낭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뭐 음식 가져가거나 반대로 뭐 엇어나수꽈?

#1 그건 끝.

@1 끝.

#1 잔치 넘으면 끝.

@1 뭐 가져가는 거 엇어난예. 혹시 옛날에 여자 집에 막 못 살아예. 못 사니까 남자 집에서가 돼지 한 마리 보내고 쏠 ᄒᆞᆫ 가멩이 보내멍 이걸로 잔치헹 먹읍서 허는 것도 잇어나수꽈?

#1 예, 예. 셔낫어. 그 새각시는 아깝고 새각시 집이선 뭐가 엇곡, 잔치헐 힘이 어수다 허면 돗도 ᄒᆞᆫ 마리 가져가고.

@1 그걸 이바지렌은 안 ᄀᆞᆯ아나수꽈?

#1 몰라, 그것ᄀᆞ라 이바지렌 허여나신가.

@1 몰라예. 어쨋든, 어쨋든 보내는 건 잇어난예.

#1 예. 그렇게 허긴 허여.

@1 아까 그릇제 같은 거 잇어낫덴 헷잖아예. 그거는, 그릇제 생긴 거는 언제 영 생겨신고예? 삼춘 때는 아니라예.

#1 아니, 아니. 그 그릇은 생기건 디가 훤, 훤 오십 년 넘었어, 그릇.

@1 칠십 년대 뒝. 삼춘 아들 풀 때는 그릇제 잇어낫지예?

#1 예, 예.

@1 그땐 헤난 거. 혹시 삼춘네 그 가마접 같은 거는 잇어나수꽈? 아까 도끼나 가메.

#1 그거 부락에 잇엇주게.

@1 부락에 잇어난예.

#1 부락에 영장, 죽은 사람 모셔가는 것도 잇고 결혼허는 것도 잇고 부락에 그거 다 허영, 집 ᄄᆞ로 허여근에 다 허연 놔둬난. 견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1 지금은 그게 엇어진 거.

#1 병원에 강 죽으민 글로 허영 헌 지 후젠 엇어.

@1 예. 그 쏠접 같은 것도 잇어나수꽈?

#1 쏠제.

@1 예, 쏠제.

#1 잇엇어. 보리썰 두 뒈. 잔치헐 때민 보리썰 두 뒈썩 모으는 거.

@1 동네 사람덜이.

#1 경허민 제 허여근에 잔치 때 뒈나 소상 때나 모아근에 밥 헤영 먹곡 헤난. 제, 제를, 그때는 모든 제를 다 허였어, 그때는. 무신 다나모시도 안 들어봣주마는 말도 다나모시여 무슨 제여 제 엇인 일이 하나토 엇어낫주게.

@1 뭐.

#1 못 사니까 그냥 놈신디 도움, 서로서로 영 허멍 살젠 허난게.

신랑 신부 주의 사항

@1 산제도 이실 거고예. 산소 만드는 것들이영, 쏠제영 그런 거 다 잇어난 거. 우리 결혼허기 전이 신부나 신랑안티 이런 거 멩심허라 허는 거 잇어나신가예? 예를 들면 다음 달에 결혼헐 건디 너 이런 거 멩심허라.

#1 멩심은 그게 비린 거 보지 말렌은 항상 허주게.

@1 비린 게 뭐꽈?

#1 그 뭐가 잇잖아, 귀신이라도 허면은 그거 이녁 몸이 안 좋다는 거. 그거. 게난 도끼 나올 때는 그 도끼가 시집이 와근에 딱 문 앞이 세우면은 그디 권당이 소금 ᄒᆞᆫ 사발 가졋다근에 그 신부신더레 막 뿌려.

@1 아, 소금을.

#1 도끼는 이제 마리, 지방더레 탁 노민 신부가 오른발부터 모녀 디디라 헤근에 오른발부터 영 디뎌 가민 소금을 그냥 신부 머리레 짝 짝 뿌려. 풋허고 소금허고.

@1 기분 나쁘겠다. 아니마씨?
#1 귀신 따라 왐시카 부덴.
@1 아, 귀신 따라 왐시카 부덴.
#1 옛날은 그건 떨어지지 안허여. 지금도 헴실 거라. 몰라도.

결혼 소식 전하기

@1 따라오지 말렌. 우리 요즘은 결혼날 영 잡으민 언제 언제 결혼헴수다 헹 편지덜 영 보냅니다예. 청첩장이렌 헹. 삼춘네 그런 거 엇어낫지예.
#1 에이구, 그때 머리덜이 웨 경 좋앗는지 월력 하나 엇곡 뭐 신문 하나 엇곡 허여도 식게 멩질도 어느날 그자 딱, 무신 큰일도 어느날 허민 딱, 그 머리에 그게 하나 안 잊어불어. 요즘은 곧 골은 말도 요레 적지 안 허민 거 뭐렌 골아신고.
@1 잊어불어.
#1 잊어불어.
@1 우리도 경헴수다. 잊어불어.
#1 잊어, 잊어부는 거 백 프로.

혼사가 틀어지는 경우

@1 우리 옛날에도예, 옛날에도. 이 집이영, 이 집, 이 집 큰똘이영 이 집 큰아들이영 결혼헐 거다 헹 어른덜끼리 약속을 헤 놧어. 헤 놩, 헤신디 뭐가 잘 안 맞안마씨. 경 틀어지는 경우들도 잇어나수꽈?
#1 예게. 엿날은 그냥 그것에만 경 안 헤도 결혼허면 몃 해 만이 신랑이 딱 죽어 불던가. 뭐가 잘못 뒈민, 후회 날 일덜이. 그 잘 아니 헌 사람덜은 것ᄀᆞ라 멩살이엔 헤근에.
@1 멩살.
#1 멩살방이엔 헤근에 아니 올 디 와도 그렇고.
@1 어쨋든 그런 건 다 보는 거잖아마씨. 그 사주는 다 보는 거잖아. 봣는데도 경허는 경우덜이 잇어마씨?
#1 그것이 경 ᄆᆞ음대로 뒈지 안허는 집안이 잇주게.
@1 잇어예. 옛날에 약혼이라는 게 잇어나수꽈?
#1 예게, 약혼. 약혼 잔치, 약혼 잔치.
@1 그니까. 약혼 잔치는 어떵 헤수꽈?
#1 약혼 잔치는 대략 그자 어떵, 그 잔치는 안 헌 거 같아.
@1 밥 먹는 걸로 끝내신가?
#1 약혼허게 허영, 약혼이 그 막펜지 가져가는 거 아니라.
@1 아, 약혼예.
#1 난 그게 약혼이렌.

@1 경헨 약혼 잔치까지 헤신디, 밥 먹기도 헤신디 경헹 파토 나 부는 경우?
#1 그렇게 헹 파토는 안 나주게. 다 그때꺼장은 다 헐 일을 다 허고 이시난 이젠 딱 약혼허면은.

결혼 당일, 문전제

@1 우리 결혼식날 뒈수다. 결혼식날 뒈시난 남자 집에서 한 번 생각헤 보게예. 남자 집에서 맨 아침에 일어낭, 준비헹 여자 집에 올 거 아니꽈예, 시간 맞춰예. 남자 집에서 그 아침에 제지내고 뭐 헙니까?
#1 예, 다 허여. 문전제.
@1 문전제.
#1 게난 신부 집이서도 그건 다 허여.
@1 아, 신부집이서도 헙니까?
#1 으, 다 허여.
@1 문전제 지냉 언제 언제 뒈민 신부 집이 올 거라예. 신부 집에 삼춘 한 번 결혼 당일날 생각헤 보게. 결혼날 아침이 뭐 헹 이실 거꽈?
#1 뭐 헹 잇어, 아침이 신부 칩이서도 상을 출려 줘. 신부상. 그 밥 먹엉 앚아시면은 신랑이 데리레 가고.

신부 화장, 머리

@1 데리러 가기 전이 화장도 허고 머리도 하고 옷도.
#1 으, 겐디 난 화장 안 헤 부난 몰라.
@1 화장 안 헨. 머리는 어떵 헤수꽈?
#1 머리는 질롼 이까장 막 다앗단에 그 방적 생활 허젠 허난 이 총각 놈덜이 계속 그 머리 ᄆᆞ직아 부난 심통 끊어젼 이젠 파마헤 불엇주게. 파마허연.
@1 짤란?
#1 짤라 불언.
@1 얼만큼 짧게.
#1 저, 저 저정도. 시라시 빠마[14]로, 시라시 빠마 헤 불언.
@1 시라시 빠마가 어떤 거꽈?
#1 이레 탁 더꺼진 파마. 질게 헌 것ᄀᆞ라 시라시 빠마엔 헷주.
@1 이런 뽀글뽀글 파마가 아니고 단발로 헤 가지고 영 더꺼지는.
#1 으, 굵게 허여근에.
@1 그걸 시라시 파마렌 골안마씨?
#1 으.

14) '시라시 빠마'는 파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제보자는 단발 정도의 머리에서 굵게 만 파마라고 설명한다.

@1 그민 삼춘 영 파마 헹 이수다예, 단발머리로 헹 잇어예. 머리는 어떵헤수꽈, 결혼허는, 그 한복 입는 날?

#1 한복 입는 날은 그냥 영 빗어근에 쪽두리만 여기 톡 놧주게.

@1 아, 머리 부찌거나 올리거나는 안 헷구나.

#1 머리 파마 헤 부난. 안 허여근에 허면은 일로 쪽져. 쪽져근에 이제 머리, 긴 머리 허여근에. 파마를 그때는, 긴 머리 허여다가 이렇게, 나 머리로.

@1 으, 긴 머리로.

#1 이렇게 엿아.

@1 으, 엿아.

#1 엿아근에 이레 쪽두리 톡 이렇게 허영.

@1 나 머리로 다왕 일로 영 엿일 거꽈?

#1 영허영 허여낫주게. 이레 쪽두리.

@1 이 머리를 뭐렌 불르는 거 이수꽈, 무슨 머리렌 불릅니까?

#1 쪽진 머리엔 헤실 테주.

@1 쪽진 머리는 영 뒤로 헹.

#1 여지는 머리. 여지는 거, 머리 엿아. 머리 엿아. 이것ᄀᆞ라 여지는 거.

@1 여지는 거예. 여기만 여기 불룩허게 헹 여기 쪽두리 씌우는구나.

#1 여기 쪽두리 톡. 쪽두리는 여기 쪽두리 톡, 그 쪽두리는 요렇게 부리는 거. 요렇게 톡 씌우민. 아주 엿날은 쪽두리도 엇어낫주게. 우리 결혼허기 전이, 전이부터는 쪽두리도 엇언 이렇게만 허연 붉은 댕기 여기 톡 허연 허여낫주.

@1 그럼 삼춘은 이멩거리엔 헌 말 안 들어봅디가.

#1 그 이멩거리는 우리는 안 헷어.

@1 그민.

#1 안 헤근에 그냥 이거. 이거.

@2 건지머리?

#1 이거 여진 머리.

@1 이걸 건지머리렌도 안 헙니까?

#1 여진 머리.

@1 그냥 여진머리렌 허는 거예. 그민 만약 긴 머리는 자기 머리로 영 영 영 영 할 건디, 여질 건디 이거 머리 길지 않으난 머리 짤랑 놔둔 거, 똔머리예, 그거 영 부쳐 가지고는 안 헙니까?

#1 그것도 허여낫주게. 영 머리 짤라 분 사람은 그 진머리 영 놧당 이렇게 헷주,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허연. 그대로 그자 쪽두리만 톡.

@1 게난 똔머리 가져단 요렇게 헐 거예.

#1 경헌디 나는 그냥 그거 안 허연.

@1 그거 안 허영 그냥 쪽두리만 써 불언.

#1 그거 하근 거, 그거 저거 헐 뭣이 셔게. 똘이 매날 울어 노난 어멍네 잔치허멍도 하나토 이놈의 똘이 앞으로 어떻게 살젠 영 울기만 헴신고 허는 생각덜만 헷주.

@1 삼춘네 친구덜 결혼헐 때는 어떵 헙디가?

#1 친구덜토 그때는 요즘거치 막 친구, 친구 허멍 놀레 뎅기지 안헌 때고 허난 기자 하나 간 때 강 영 보고 허민 그자 그 조시[15]로 허고 나 넘어사난 이 차 타근에 결혼도 허고.

@1 그때 왜 화장헤 주러 오는 사람이나 머리 헤 주러 오는 사람은 엇어나수꽈?

#1 잇어수다.

@1 잇어수꽈.

#1 잇엉은에 날ᄀᆞ라도 머리 허고 화장시켱 돌아 가렌 허난 화장 안 헤영 강, 가렌 허민 가 불켜 헹 나가 못 허게 헹 안 헷주.

@1 화장허는 사람을 불러신디?

#1 여기서 우시 강 사람ᄀᆞ라 허렌 허영.

@1 아, 우시 강 사람ᄀᆞ라. 친척 중에서예. 미장원에서 불른 건 아니고예.

#1 아니, 그때 미장원이 어디 셔? 나는 방적에 가난 파마헤 노난 금악에서 나 일등으로 파마를 헌 사람. ᄁᆞ딱도 안 허영 이 부락을 지켱 사는 사람은 이 파마 하나토 안 헷주게. 우리는 육지 강 살젠 허난 그 파마를 안 허민 살지 못허게 뒌. 처녀로 위험헤 가지고.

신랑 신부 예복

@1 머리는 경헤수다예. 여기 여졍 잇는 거 긴 머리로 헤 가지고. 삼춘은 안 하고 쪽두리만 쓴 거. 여진 머리 안 허고 쪽두리만 쓴 거예. 옷은 뭐 뭐 입어수꽈?

#1 옷은 하얀 유둥 치마, 양단저고리허고 그 우에는 그 파란 그 도복.

@1 장옷.

#1 장옷 입곡, 또 장옷 하나는 또 이 족두리 우터레 영 허영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허영.

@1 쓰고.

#1 으, 쓰고. (웃음)

@1 (웃음) 그민 장옷이 두 개 잇어야 뒈쿠다예.

#1 두 개, 두 개.

@1 게민 두 개 다 장만헌 거마씨?

#1 아니, 다 부락에 있어요, 그거.

@1 두 개 다 빌린 거꽈?

#1 으, 다 그런 건 다 장치헹 놔두난 집이서 만들엇자 거 필요엇인 거난.

---

15) '조시'는 일본어 'ちょうし(調子)'에서 온 말로 '상태'라는 의미다.

@1 두 개 다 빌린 거. 치마저고리만 나 거.
#1 으.
@1 남자 삼춘은 뭐 입언마씨?
#1 남자도 마찬가지.
@1 도복 입언.
#1 남자도 도복 입고 그 우에 또로.
@1 한복 입고.
#1 똑 저ᄎᆞ록 허여, 저ᄎᆞ록.
@1 우에, 안에는 한복 입고 우에는 도복 입고예. 머리에 뭐 쓰는 것도 이실 건디.
#1 저거, 저거. 저런 거 써.
@1 신발도 다른 거 신어실 건디.
#1 신발도.
@1 허리에 뭐 차고예.
#1 신발도 그 검엉헌 거. 요새에 드라마 헐 때 보면 그 신 신잖아. 그런 신.
@1 그 신발은 어디 강?
#1 것도 그 옷에 아방 다 맞추완 잇어난 거.
@1 그거 마을에 다 잇어난 거.
#1 예, 예.

우시

@1 예, 그거 잇고예. 신랑이 삼춘을 데리러 왓수다예. 삼춘은 어디 앉앙 잇어나수꽈?
#1 구들에.
@1 구들에.
#1 구들에 앚이고 신랑은 또 큰 방에 우시덜 온 사람이영 ᄀᆞ치 그레 놔긴에 상 출령 글로 대접허고.
@1 우시 신랑 집이서 몃 사람이 완마씨.
#1 그건 이 집안으로 가. 혼 댓 사람 가면, 신부 집이서 하영 가면 거기서도 하영 보내고. 그렇게 허는, 다섯 사람 밑으로만 가곡 오곡 헷주.
@1 그민 우시 가는 사람은 주로 누게가 우시 갑니까?
#1 질 그 잘사는 사람, 복 존 사람.
@1 잘사는 사람. 그것도 잘사는 사람이 헤야 뒈.
#1 그것이 질. 우시 가는 사람 질 뽑아.
@1 보면 남자 쪽 사람 누구 가고 여자 쪽 사람도 가고 헤야 뒌덴 헙디다, 우시도.
#1 게난.
@1 웨가 쪽, 성가 쪽.

#1 신부 집이서 하영 가면 거기서도 하영 오고 그렇게. 간 만큼 거기서도.

신랑상, 신부상

@1 큰방에 우시덜 오난 신랑이영 다 ᄀᆞ체 헹 상 차려수다, 신랑상예.
#1 신부는 신랑 방에 안 가.
@1 안 가예. 그 시대에 신랑상에는 뭐 뭐 올라가는고마씨?
#1 그 출린 거 문딱 올라가주게.
@1 출린 거. 예를 들면 뭐가 출려졍 이신고예?
#1 무엇이든 하근 거, 잔치에 먹을 거 다 올라가고.
@1 특별허게 올라가는 거 어수꽈?
#1 특별허게 올라가는 건 엇일 거라.
@1 잔치에 먹는 거.
#1 몰라. 그때 ᄃᆞᆨ 헤신가?
@1 신랑상은 모르고 신부상에는 뭐 뭐 올라강 이십디가?
#1 신부상에도 마찬가지. 밥허영 영 게짓겡이 더꺼근에, 놋그릇에 게짓겡이 더껑 계란이여, 무신거여 그자 하근 거.
@1 ᄃᆞᆨ도 안 올라 가십디가?
#1 ᄃᆞᆨ 못 봣어.
@1 못 봣어. (웃음) 거기.
@2 너미 울언.
@1 너미 울언 거기 신경이 안 간예. 아니 왜 삼춘이 신부상 받았을 때 밥숟가락 게짓겡이 걸엉.
#1 그건 질, 집안에서 나이도 하고 잘사는 분으로 대반 걷음이엔 허여근에 ᄌᆞ끗디 앚앗다근에.
@1 대반 걷음이엔 헤?
#1 대반 걷는 거.
@1 음, 대반 걷음.
#1 신부 먹기 전이 그거 톡톡 허게 걷어근에 상 알러레 톡.
@1 그거 무사 걷엄수꽈?
#1 몰라 무신 귀신사 모셔신디. 그건 사람마다 다 헌 거. 사름마다 다. 밥 모녀 세 술 톡톡 거려 놔근에 그디 멧 가지 그레 놔근에 상 알러레 톡 놧당.
@1 톡 놔. 그다음 신부 밥 먹읍니까, 거려 노면.
#1 게난 ᄒᆞ꼼이라도 안 먹으민 안 뒌덴 허멍 그거 혼 적 먹어나근에 내불민 그 밥은 또 그 새각시 밥 얻어먹켄 그땐 아기덜 업으멍 안 업으멍 창문에덜 왕 막 새각시 보젠덜 막 사민 그 밥을 혼 숟가락썩, 혼 숟가락썩 손데레 다 거려 노는 거라. 게민 그 애기 업은 사람이영 안 업은 사람이영 드러덜 그 밥 먹엉, 그 밥 얻어 먹젠, 그 곤밥.

@1 곤밥 얻어먹젠.

#1 그런 거. 그게 질 무시것에 나온 거. 오죽 배고파시민 그 밥 ᄒᆞᆫ 숟가락 얻어먹젠 그디덜 베롱베롱허게 애기덜 담아졍.

@1 그라예. 이제 밥 다 먹엉 그다음 뭐 헐 거꽈, 삼춘?

#1 뭐 허여, 그럭 저럭 허영 어두우민.

@1 옷 갈아입지 않아?

#1 어두우민 이젠, 옷 ᄀᆞᆯ아입고 잘 생각허민 이젠 ᄆᆞ음이 ᄒᆞ늘만인 허고.

@1 아이고, 막 자기 싫엉.

#1 이 날이 어느제민 붉을 건고, 그 생각. 겨난 나는 스물서너이 나도 옥지 못헌 셍이라. 하여튼 나 생각만 허멍. 남이랑 아멩 헤실카, 나만 좋아시민 헌 생각만 들엉 막 신경질만 나는 거라. 게도 나를 ᄃᆞᆯ앙 살아시닌 이상허여.

@1 삼춘은 신랑을 결혼날 처음 본 거꽈?

#1 예게. 아니, 막펜지 가져갈 때 봣주게.

@1 막펜지 가져올 때 남자도 와수꽈?

#1 으, ᄀᆞ치 완.

@1 아, ᄀᆞ치 완. 그때 보고 결혼허는 날 보고. 보난 얼굴 보난 마음에 안 듭디가?

#1 안 들언. 키도 나만이밲이 안 허고. 그때 나는 그래도 육지 근처라도 가근에 좀 이 옷이라도 하나 입고 살앗주마는 금악 본토베기덜 그때꺼장도 밥도 부른 밥 못 먹는 시절에, 그래도 장게는 보내젠 허영덜 그 굶으멍도 그 장게를 보내젠. 경허난 ᄆᆞ음에 든 게 하나도 엇엇주게. 뭐 속이 존 거 궂인 건 모를 거고. 게난 무조건 안 허켄만 헌 거주. 그래도 ᄒᆞᆫ 세상 살단 가. 나 신랑만이 존 사람도 엇고.

@1 지금 생각허민.

#1 신랑은 그때도 하근 디 새각시 중매 허여도 얼굴도 궂다, 지레도 족다 허멍 아무 사람도 결혼 안 허연. 아, 나가 결혼허연 살아가난 이 사름만이 존 사람도 엇고, 이 사름만이 곤 사람도 엇어. 경 나를 불룬 거라덜. 게난 왜 전이덜 우리 하르방신디 결혼덜 안 허영 나 살아가난덜 창지 아판 헴시냐 허멍덜, 막 우시게 허멍.

@1 아, 남자 삼춘이 여러 군데 중신을 넣어신디 다 거절헌 거마씨.

#1 으.

@1 겐 삼춘안티 온 거라. 겐 경 불러워허멘.

#1 이제꺼장도 불러왕. 나 아덜 네 개 낳고 똘 ᄒᆞ나 낳고, 재산 일루곡 헹 살아가난 매 사람이 불러완.

혼례일 신랑 신부의 이동 수단

@1 그 남자 삼춘, 삼춘 데리러 올 때 ᄆᆞᆯ 탕 와수꽈?

#1 게 ᄆᆞᆯ 탕.

@1 ᄆᆞᆯ 탕. 남자 삼춘 ᄆᆞᆯ 탕. 그리고 삼춘은 도께?

#1 으, 저 가마.

@1 가마.

#1 가마 탄에 허엉 허주게. 그 체얌 띠울 때 허~ 엉~ 헤여근에 가마 들렁.

@1 가마는 멧 사람이 들릅니까?

#1 두 사람. 두 사람. 먼 디는 ᄆᆞᆯ 헤여근에 가끼 메왕 ᄆᆞᆯ로 가지마는 이 동네난게 요디광 요 새난 할망 하르방이 부락에 일 보는 사름으로 그런 일은 헷주게. 게난 나이도 하고 허난 아이고 버쳔. 아이고 댕님덜 나 도웨여 줍서, 도웨여 줍서. 우시 간 양반덜은 내불민 큰일 나. 새각시 내불민 큰일 나 허멍

@1 가마 떨어지민.

#1 아이고, 댕님덜 도웨어 줍서, 댕님덜 도웨어 줍서, 경허멍 허난 우시 간 사람덜 ᄒᆞᆫ디 들렁 왓주게. 그날은 눈 오란 여기 포장도 안 헌 때난 벌겅헌 ᄎᆞᆫ흑이 다리에 막 그 우시 간 사름덜은 걸엉 오젠 허난, 막 눈 오고 헌 날 결혼헨.

@1 막 질퍽질퍽헤 부난 길이.

#1 길이 그 포장 안 뒈낫주게, 그땐. 포장도 안 뒈고 집도 짓언에 마리, 마루도 안 놘에 그냥 일로 영 가민 영 털어진 마리로 저 구들에 걸어가고 허젠 허난 뿔이 이만이 나도.

@1 집 다 안 짓어진 디 간 거?

#1 다 안 짓어젼. 우리 하르방 그 소 물 멕이레도 그 벵디물 가민, 그 벵디물 바로 ᄌᆞ끗디 우리 집인디 날 보이민 더 결혼 안 오켄 허카 부덴 소 물도 딴 디 강 멕이ᄀᆞ렌. 자기 안 보이게.

@1 자기 얼굴 봐 가지고 싫어허카 부덴.

#1 으.

@1 남자 삼춘이?

#1 으, 경허멍 ᄀᆞᆯ아낫어.

@1 아, 결혼날 잡고 나서, 안 오켄 허카 부덴.

#1 맨날 울엄젠 소문은 나고 아이고, 이 처녀가 살고 못 살고 결혼만 헹 가시민 허는 생각만 먹어져렌. 경 그 생각허고 하근 디 자기 안 주니까 막 그 살아져 가난 나신디 날 나무령 결혼 안 헌 사름덜 다 날만이 못 살암저. 그렇게ᄀᆞᆽ장 ᄀᆞᆯ앗어.

@1 아, 경 ᄀᆞᆯ아난마씨. 아이구야. 우리 그 영 들렁 간 사람은 하님이렌 안 불러나수꽈?

#1 하님, 하님.

@1 하님 불런 난 거예.

#1 게도 곧기 좋덴 기자.

@1 뭐렌 불러나수꽈, 사람들이 부를 때?

#1 일 보는 어른이엔 헷주.

@1 일 보는 어른이렌, 하님이렌 안 불르고. 우리끼리 헐 때 그냥 하님이렌 부르는디. 아까 하님이 댕님들 도웨 줍서?

#1 으. 게난 훈디 그거 부축헤영 들러 줍센 헌 말이주게. 자기네가 그거 버쳉 내불어 짐직허난. 나를 경 버친 거라. 도끼, 그 가마 무게 허곡게, 나 무게 허민 할망 하르방이라 노난. 질은 막 나쁘지.

@1 게난 그 여자도 들러마씨?

#1 예. 여자 앞이 들르고, 남자는 뒤에 들르고 경헹 와 부난 나 헌 땐. 몰라, 딴 사람 헐 땐 어떵 헌 지 몰라.

@2 가족이난예. 그 하님덜이 가족으로 같이 이시난. 여자가.

@1 게난 여자도 들렀구나.

#1 경헤사 자기네 하영 벌어 가주게.

@1 겅헹 벌어갈 거난예. 삼춘은 사진은 안 찍엇덴 헷지예.

#1 아이고, 사진 출리고 하근 거.

@1 그런 거 못 헌 거예. 거난 신랑 집이 내리난 그냥 방으로 들어간 거꽈?

#1 예.

@1 우리 신부 칩이 가마 탈 때 보면 마당까지 나강 탄 거꽈, 아니민?

#1 아니, 마당까지 걸어갈 필요 엇어. 그냥. 대문 지방에 영 노면 글로 걸어가. 오른발부터 모녀 디디렌 헤여근에. 탈 때도 오른발부터 허라, 내릴 때도 오른발부터 디디라.

@1 가마가 안쪽까지 들어와 가지고 대문에서.

#1 대문.

@1 대문에서 그렇게 탄 거라예. 내릴 때도 경헤수꽈, 남자 집에 강도?

#1 예, 예.

@1 대문까지 가 가지고 뭐 헌 거예.

#1 사진 찍는 사람은 마당에 세와근에 사진 찍곡 헷주마는. 바로 들어가는 건 그냥.

시댁, 처가 친척들께 인사

@1 우리 삼춘 영 남자 집이 강 밥 먹고 옷 갈아 입으민 남자 집 어른덜안티 절허고 경 안 헙니까?

#1 절은 뒷날, 뒷날꺼장은 절 허주게.

@1 뒷날.

#1 뒷날 잔치 넘은면은 그 권당덜이 다 와. 넘어 나면 옵센 다 모시민 다 오면은 그때는 한복 입고 헤여근에 다 절헤.

@1 뒷날 권당덜이 다 집에 옵니까?

#1 예, 예.

@1 그때 절헐 거. 신부 집에 와 가지고 신랑이 또 인사허거나 그건 언제 헙니까?

#1 그 신랑도 마찬가지.

@1 언제.

#1 신랑은 그, 그때가 신랑은 절을 그 잔치 때 가근에 몬, 이건 아무여, 이건 아무여 헹 절허면 걸로 끗헌 거 같애.

@1 잔치 때 헹예.

#1 예.

사돈간 인사

@1 혹시 사둔덜끼리 서로 인사허고.

#1 인사허는 건 또 사흘만이 사돈 칩이 춪아가.

@1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서?

#1 남자 집이서.

@1 여자 집에 춪아가. 사흘 만이.

#1 예.

@1 게민 그거 춪아강 그때도 밥헤 먹고 헙니까?

#1 경헹 강 인사헤 뒁 오는 거. 무사산디 그 귀찬허게 그걸.

@1 게민 그거를 뭐렌 굴으는 건 어수꽈?

#1 엇어, 엇어.

@1 혹시 사둔열멩[16]이나 사둔대회 험저 그런 거 안 헙니까?

#1 오늘은 사둔님네 집이 강 올 거여 허민 거 끗이주.

@1 그민 여기서, 남자 집이서 몃 사람이나 갈 거꽈?

#1 그건 뭐 훈이 엇이난. 훤 서너 사람 가민 뒈어.

@1 서너 사람. 신랑 아방.

#1 신랑허고 신랑 아방허고 친촉이나 하나 가민.

@1 아, 많이는 안 가는구나예.

#1 예게. 그디 강.

@1 신부 집이서도 그만큼 준비헹 이실 거고예. 음식도 준비헹 이실 거고예.

#1 으레 사둔님네 올 거렌 허영 친촉덜토 왕 앚곡.

@1 그건 사흘 후제 허는 거. 게민 우리 결혼날 잔치가 다 끗낭 신랑 집이서예. 밥 다 먹어지고 허민 삼춘 옷 갈아입고 헹 그 후제는 아무 것도 안 헤.

#1 안 허여.

@1 안 어혀.

#1 갓닥 왓닥 그자, 갓닥 왓닥 허여.

@1 갓닥 왓닥을 어디 갓닥 왓닥?

#1 친정에도 갓닥, 신랑도 또 나 아니 와 가민 춪으레 가고.

@1 그냥 그 날 친정 간 분 거.

---

16) '사둔열멩'은 사돈끼리 하는 인사를 말한다.

#1 잔치 넘어 불면 다음부터 뭣 엇어.
@1 아니, 잔칫날 그날 저녁에.
#1 잔칫날 저녁에?
@1 으, 잔칫날 그날 오후에.

잔칫날 저녁 뒤풀이

#1 그때는 신랑 칩이서 그냥 새각시 데령 왓젠 동네 젊은 청년덜 막 모여졍 노래 안 허민 신랑 꺼꾸로 돌아메고.
@1 그거 헤수꽈, 놀아수꽈? 그날 밤이?
#1 예. 노래, 신부 노래 안 허민 신랑 꺼꾸로 돌아멩, 경 실퍼도 노랜 허여사.
@1 삼춘도 노래 헨마씨?
#1 허는 체 헤사주. 어떵.
@1 그때는 신랑 친구들만 옵니까, 신부 친구들도 옵니까?
#1 아이고, 신부 하근 거 다 모여들어. 경허민 집이 벌러지게 ᄉᆞ못 노래허고 춤추고 북 장구 두드리멍 막, 그날사 막 놀아.
@1 삼춘 족두리 쓴냥 이신 거?
#1 다 벗어 뒁.
@1 벗어 뒁 앉안 놀안. 삼춘도 노래 불르고. 혹시 노래 안 헴덴 신랑 발창 때리고.
#1 그난 안 허난 이젠 저 돌아메영 발창 때리켄, 게난 때리기 전이 아메케나 불러 불엇주게.
@1 그민 막 밤 늦도록 경 놀당덜 갑니까?
#1 아니, 혼 열 시, 열혼 시 뒈민 끗나 불어.

첫날밤

@1 게민 이제는 신랑이영 신부영 둘이만 남아수다예.
#1 게난 시누에 데령 두 덜 동안 살앗덴 허난.
@1 게난 안 잔, 시누이 데령?
#1 혼디 혼 방에 눠주게.
@1 아이고게.
#1 시누이영 나영 눅곡 신랑은 발에 눅고.
@1 아고게.
#1 경헹 두어 덜 살아가난 신생이랑 저 방에 가라 허난 알아수다 허난 나두 게민 혼디 가불주 헹 가 가난 확 심엉 ᄃᆞᆼ경 나 무사 저 사람 어떵 허젠 헴서. 무사 그추룩 헴서, 경허멍. 하두.
@1 하두 경헤나난.
#1 게도 난 남저 그 뭣을 몰라 가지고. 너미 너미 뭐 헤진 셍이라.

@2 두린 때.
@1 아니, 스물셋이민 먹을 만큼 먹엇주게. 말덜도 들어실 건디.
#1 겐디 나가 그 방적 생활만 그 생각만 나멍 신랑이고 아무거고 이건 원, 그 생각만 난 거 닮아. 지금 꺼장도.
@1 우리 옛날에도 결혼헐 때 부주 허고 잇어나신가예.
#1 예, 다 부주.
@1 부주, 뭐로 부주 헤수꽈? 돈으로 부주 헤수꽈?
#1 그 처녀덜, 처녀덜끼린 돈으로 허고 어멍덜은 친촉 집인 보리썰 ᄒᆞᆫ 말. 보통 놈의집인 두 뒈 경허멍. 나 바구리 잇어. 그 바구리.
@1 ᄀᆞ는대바구리예.
#1 그것에 보리썰 두 뒈, 포대기 똑 꼴아근에 놩 가.

재혼하는 사람들

@1 우리 옛날에 보면 두불 결혼허는 사람덜이 잇엇지예.
#1 예.
@1 어떤 사람덜이 두불 결혼헤신고예?
#1 그 두불 결혼허는 사람은 별로 결혼헌 거 안 닮아.
@1 안 닮아.
#1 그냥.
@1 그냥 ᄀᆞ치 살아 분 거?
#1 그냥 데려당 살아 분 거. 푸대 썸 허당 살아 분 거.
@1 푸대 썸이엔 헌 게 뭐꽈?
#1 푸대 썸이엔 헌 건 살림 사는 사람이 엿날 양반덜 ᄆᆞᆯ 탕 살랑살랑살랑 가면 그 ᄆᆞᆯ 탕 뎅기는 사람 그렇게 불르는 여자덜이 잇엇주. 우리 시할마님도 웨시할마님인디 저 고내에 살아신디 이 금악에 질 일등 부제 하르방이 ᄆᆞᆯ 탕 글로 넘어가멍 아메도 ᄒᆞ꼼 궨당 시난에 어떵 신ᄀᆞ라 살림 사는 할망 데려단 우리 시어머님 낳고 헨 살안. 옛날은 그렇게 쎈 사람이 각시덜 헹 살안.
@1 으?
#1 옛날은 놈 살림 사는 사람도 돈만 하민 양반덜은 그렇게.
@1 불렁예. 각시로 들영 산 거.
#1 게난 ᄒᆞᆫ 놈의 각시가 아홉 차꺼장 헹 살앗젠.
@1 게난에. 돈 이시민 경.
#1 옛날은 더 무법천지로 살아난 거 닮아.

신혼살림

@1 삼춘은 결혼헹 신혼집은 그냥 시집이 들어왕 산 거꽈?

#1 시할마님 두 개, 시어머님, 시아주방 경 모션.

@1 시할마님이 무사 두 개꽈?

#1 저 친정어무니가 친정어무니, 저 시어머님이 어머니 갈 디 엇이난 혼디 산 거.

@1 아, 시어머니에 친정어머니까지 같이 살고 잇어난.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 할머니 두 분 또 누구 같이 살앗어마씨?

#1 시아주방.

@1 시아주방.

#1 시누이.

@1 시누이.

#1 으.

@1 시아주방 하나, 시누이 하나. 겐 삼춘네 부부, 이렇게 살고예.

#1 부부가 아니고 신랑 군인 가 부난 나 혼자만 애기영.

@1 아이고, 애기영.

#1 산 철이주. 다섯 해를 혼디 산 거라.

@1 신랑 돌아오난 따로 따로 살림 차려수꽈?

#1 신랑 돌아오난 한라산에 강 낭 비어단 아시 집 짓어 줘 둰 우리만 산 거.

@1 아시 집 지어 줘 둰, 남자 삼춘이?

#1 예.

@1 아.

#1 우리 잘도 고생헌 사람예.

@1 그때 한라산에 강 낭 비어당 직접 집 짓어다고마씨.

#1 예. 군대 간 오란 훤 사흘 집이 사나마나 허연 그디 강, 한라산에 강 살멍 낭 비어단에.

@1 그때 결혼헐 때 삼춘 뭔가 예물을 받거나 반지를 받거나 그런 건 안 헤수꽈?

#1 아이고, 어느 절에.

@1 어느 절에. 요즘은 막 결혼허민 여행도 가예.

#1 그런 것도 엇고.

@1 그런 것도 엇고 맞수다. 옛날에 우리 여기 동네 사람덜이 혼디,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허는 게 아니고 ᄀᆞ치덜 결혼식 올리고 그런 것도 잇어나수꽈?

#1 엇어.

@1 엇어낫어예.

#1 옛날은 그런 거. 그런 거 엇어나수다.

@1 혹시 다른 거 여쭤 볼 거 있나요.

@2 없습니다.

@1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6.

대정읍 무릉리 김옥출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11월 2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김옥출

제보자 정보

@1 삼춘 성함이 어떵 뒘수꽈?

#1 김옥출.

@1 예. 몃 년생마씨?

#1 삼십구 년 삼월 이십일 일.

@1 삼십구 년.

#1 이건 주민등록으로 허는 거 아니라?

@1 예, 예.

#1 삼월 이십일 일.

@1 진짜는 다르꽈?

#1 으?

@1 원래는 언제꽈?

#1 뭣을?

@1 이거 주민등록으로 물어보는 거예.

#1 주민등록 멘근 거? 멘근 거 알아지커라?

@1 아니, 아니. 원래 생일이영 주민등록 생일이영 ᄀᆞ트꽈?

#1 나. ᄀᆞ튼 셍이란게. ᄀᆞ치, ᄀᆞ치 이어 가는 거 보난.

@1 으.

#1 엿날 어멍덜이 잊어불어신디 모르크라. ᄀᆞ치 기자 헌 대로만 헤 감주게.

@1 예. 삼십구 년생예.

#1 삼십구 년 삼월 이십일 일.

@1 예. 어디서 태어나수꽈, 고향이?

#1 으?

@1 원래 어디꽈? 원래 여기서 태어난마씨?

#1 원래 여기서 태어난 거.

@1 여기 무릉리.

#1 여기서 태어난 여기, 히여뜩헌 말 ᄀᆞᆯ으민 뒈어?

@1 예. 뒈어.

#1 살단 우리 어린 때, 막 어린 때.

@1 그 말이 더 좋아마씨.

#1 이 평지동이엔 헌 더레 이서 가서 부모네가, 게난 그디 강 살단.

@1 이딘 무슨 동네꽈?

#1 이건 좌기동. 무릉2리 이건 좌기동.

@1 예.

#1 겐 평지동이렌 헌 더레 간 살앗어. 사난 이젠 ᄒᆞ꼼 살단 보난 이 살아난 디 시집온 거라, 또. 살아난 디. 경도 허카이?

@1 똑같은 집이?

열여덟 살에 결혼

#1 집이, 집도 ᄀᆞ튼 디. 게난 잘도 나냥으로도, 우리 어멍 아방네덜이 잘도 재미지다 헤여져. 경 허연에 완 사는디 ᄒᆞᆫ엇이 뭣 엇인 딜 시집와진 거라. 열여덟에 시집을, 어떤 하르방 두 어른이 나들어. 메틀. 싯당 ᄒᆞᆫ 번.

@1 저디 평지동 살 때예?

#1 평지동 살 때. 무사 저 어른덜이 나들엄신고 허단 보난 나 구허젠 경 뎅겨난 거 말짠 보난. 그추룩 헤연에 이젠 시집을 가렌 허난 막 울멍, 나 잘도 울멍 시집 아니 가켄. 저 제주시 넘은 조천이렌 헌 디라이. 그디 옹기 장시 가는, 평지동이난 평지동 옹기 허주게. 게난 그 어른에, 아이구, 삼춘 나 가근에 질그릇이영 풀크메 나 부쪄 줍서, 헨 그 어른덜신디 장시 부떤 갓어. 부떤 가난이 허벅ᄀᆞ튼 망데기 영 지민 그 젊은 사람이 지난 보민 오죽 뭣 헤게. 게난 막 곱덴 허멍, 확 모녀 풀아. 그 사람들 보다, 졍 간 게.

@1 아, 삼춘 젼 간게.

#1 으. 경 헤난 거 잊어불지 안헤게. 그추룩 허멍 이제 살단 아멩헤도 시집을 어멍이 보내젠 이제 오난에 시집가산덴. 어멍 ᄀᆞ리친 디 아니 가민 비 온 날에 베락 맞넨 산디 뭣이엔 ᄀᆞᆫ는 거라, 어멍이.

@1 (웃음) 다시 한번, 부모가 ᄀᆞ리친 디 안 가민.

#1 부모가 ᄀᆞ리친 디 아니 가민 젬 받앙 하늘에서 베락 털어진덴. 게난 가산덴. 게난 어리난게 들음밲이 어떵헤게. 게난 막 울멍 시집가난. 게난 시집가난 이거 ᄀᆞᆯ을 말 아니라도 ᄀᆞᆯ아졈서. 난 그땐 이 사름을 저디 사진 저디덜 싯주마는 ᄒᆞᆫ엇이 ᄆᆞ음에 안 들어낫어. 시집이 뭣산디 어린 때난. 경허연 허난 아, 이젠 시집갈 걸로 부모덜이 예약헤 부난 글도 난 하나토 몰라난, 학교 안 허연. 이젠 신랑은 고등학생이라, 대정 고등학생. 그때.

@1 결혼할 때 신랑은 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라난마씨?

#1 으, 졸업 안 헤영 삼 학년 때.

@1 그럼 나이는 삼춘이랑 어떵 뒙니까?

#1 ᄒᆞᆫ 설 우이.

@1 남자 삼춘이 한 살 우이예.

#1 ᄒᆞᆫ 설 우이. 경 헤근에 허민 이제 그 남저가 공일날마다 나신디 와이. 드러 오는 거라. 경 허민 난 오민 만나지 말젠 막 허여도, 버둥키멍 만나지 말젠 곱아 불어도 똑 만낭 가켄 허멍 허여근에, ᄇᆞ딘디난게. 걸엉 가곡 걸엉 오는 디난. 똑 만나 가곡 허멍 헤 가난 헐 수 엇이 부모네 말을 이제 들어살로구나 헤영 시집을 갓어이. 시집을 이제, 나 히여뜩헌 말 영 ᄀᆞᆯ아도 뒈?

@1 너무 좋아.

#1 시집을 헹 가난 저 시누이덜이 너이라이. 우이 시누인 하나뿐이고 아래 시누이허고 서이 허난 시집가난 ᄉᆞ간 구들엔게 요 방엔 우리 자렌 허고 요 방엔 임제네 자민 그 시누이덜이영 ᄆᆞᆫ딱 ᄒᆞᆫ 방에 부모네 자민 오죽 족을 거 아니라.

@1 방 두 개난.

#1 으, 두 개난. 경허난 난 ᄆᆞᆯ로레기 봉강, 끈 봉강 이디 딱 무끄고 헤근에 이젠 시누이덜ᄏᆞ라도 오랑 허고, 처음은 시누이덜ᄏᆞ라 오랑 이디 ᄀᆞ치 자게. 경허난 ᄒᆞᆫ 닷새 아니민 나흘 자져실 거라. 경허난 시어멍이 것덜 그 시누이덜 불러단 막 욕 헌 거라. 그디 강 자지 말렌. 겐 말쩬 보난 막, 막 재미지메. 게난 막둥이 시누이가 무사 우리 자는 디 안 왐디 허난 어멍이 경 욕허영 그디 강 자민 너네 죽이켄. 경 허멍 헷젠. 경 허난게 어떵 헐 거라. 경허난 이제 우리 두가시만 눈 거 아니라. 누난 끈 봉가당, 서방이영, 남자영 ᄀᆞ치 누민 아기 밴덴 말은 듣곡, 그땐 분시 몰란. 겐 이제 사름덜은 ᄋᆞᆨ아근에 허주마는 그때 몰라라, 난. 영 헤영 딱 무꺼근에.

@1 뭐를 무꺼?

#1 ᄆᆞᆯ로레기로 무꺼근에.

@1 ᄆᆞᆯ로레기가 뭐꽈?

#1 끈게, 끈.

@1 끈을 ᄆᆞᆯ로레기렌 헐 거?

#1 옷 벳기지 못허게, 서방.

@1 게난 영 헤영.

#1 영 올리민.

@1 바지 올리민.

#1 영 옷 올령 영 옷 아이 벗게 딱 무끄민.

@1 여기 무꺼 분 거라.

#1 남전 벳기젠 막 허곡 난 안 허젠 막 허곡, 어떤 땐 막 울곡. 경허멍 허단도 ᄂᆞ시 ᄂᆞ시 젼에 이젠 첨 서방이영 눔 시작헷주게. 경허난 이 아기도 하영 난 하영 엇곡 그추룩 허연에 이제 영 살아온 거, 나.

@1 아이고게.

#1 잘도 나 뭣 허게 살앗어. 눈물 지멍 살앗어.

@1 그거 하나씩 하나씩 여쭤 보쿠다.

#1 재미져, 나 진짜.

제보자의 삶

@1 일단 무릉에서만 계속 살앗구나예? 다른 디, 다른 ᄆᆞ을은 안 가 보고마씨?

#1 으?

@1 다른 데는 안 가 보고마씨? 육지 물질 가거나?

#1 그런 딘 안 강 그자 저 놀러 갈 때만, 구경만 뎅견. 이디만 ᄀᆞ만이 산 거.

@1 여기만 ᄀᆞ만이 산 거예.

#1 저 이 집 더 뒤에 살아낫주. 저 안거리 저펜 뒤에. 우리 그디 살단 또 이 밧을 이 밧 우리 살안, 우리 시어멍네 살안 이디 집 짓언에 살단 이제 저디 우리 살단 뭣고 아덜, 큰아덜이 이제 저 큰아덜이 육지 살단 아방이 가 부난, 아방이 가 부난, 쉰아홉에 아방이 갓어이.

@1 아버지, 남자 삼춘 쉰아홉에.

#1 으.

@1 여자 삼춘은 쉰여덜에?

#1 으. 그추룩, 그추룩 허연에 허연 살단 아덜이 이젠 서울 살단, 이젠 이디 완 살, 아무라도 이디 완 살라 허난 완 살켄 헨 사난 이젠 난 ᄀᆞ치 살젠 허민 ᄒᆞ꼼 뭣 헐 거고 아이고, 요 창고레 방 하나 꾸미어근에 살켄 헨 이거 이녁 냥으로 영헤영 요디 시아주방 사단 방 영 꾸명 난 이디 살암고, 아덜네 저디 살암고, 살멍 어디 집 하나사 헤질 테주 헌디 경 못 헴신게. 겐 기냥.

@1 좋수다게. 이디.

#1 겐 그냥 이추룩 살메.

@1 원래 이디 창고 헤난 디꽈?

#1 으, 이디.

@1 좋은게.

#1 이 땅도 산, 산.

@1 산.

#1 땅 하영 산 막, 겨곡 밤이 아기 재왕 둘 훤허민 두세 시간은 똑 밧디 강 일헹 왓어, 나만. 막 울멍. 무사 경 울어젼게. 어떠난산디.

@1 결혼헤 가지고?

#1 결혼허영 살젠 허난 훤엇이 엇은 집이고 허난.

제보자의 자녀

@1 애기는 몃이꽈?

#1 으?

@1 아기는 몃이꽈?

#1 아기 멧 개꽈?

@1 예, 멧 개꽈?

#1 아기 남은 열 개 난디 다섯 개. 그추룩도 하영 나느냐? 나냥으로도 어이엇어, 나냥으로도.

@1 아덜 멧 개, 딸 멧 개?

#1 이제 아덜 시 개, 똘 두 개. 제주시 살암주게.

@1 지난번에 우체국 다니는 따님 얘기 헤나수다.

#1 나 잘 못 들으크라, 말. 크게.

@1 지난번에 우체국 다니는 따님 얘기헤낫다고.

#1 우체국 살암주게, 허염주게. 가이.

@1 아직도.

#1 으. 가이네 우체국이 그 어느 동넨가 허여도 나 모르크라. 그 큰뚤은 가네 가게, 서방이영 두가시가 ᄐᆞ로 헴서. 신제주 허곡 이제 그 어디고, 서방은 신제주 허고 각신 저.

@1 동광 우체국 헤신디.

#1 이펜이 무슨 동넨가 허는디 그 하근 거게. 저런 테레비여 뭣이여 요새 나는 그런 것덜 ᄑᆞ는 가게덜.

@1 아, 아.

#1 그디 가민, 일름 알앗당 강 골으민 ᄒᆞ꼼 싸게도 사질 거라.

@1 예, 경 허쿠다.

#1 나 영 골앗주게. 야 느네 ᄑᆞ는 것덜 요새 젊은 사람덜 강 보민 구경헐 만허여. 우리 몰라. 멍청이라 노난 모른디 이제 아는 사름은 ᄒᆞ꼼 싸게도 헤질 거라이. 예게, 넴기지 안허젠 허민 싸게 헤사주. 헨게.

중매

@1 게난 이제 삼춘 결혼헤난 얘기를 물을 건디, 삼춘 열여덜에 결혼헷어? 이 남자를, 남자 삼춘 어떵 알앙 결혼을 허게 된 거꽈?

#1 어떵 헹 알안?

@1 예.

#1 하르방 둘이가 우리 집이 매날 오는 거라.

@1 그 하르방은.

#1 메칠에 ᄒᆞᆫ 번. 게난 나 구허레 오는 거.

@1 그 하르방은 어디 하르방마씨?

#1 하난 우리 씨아방. 하난 이제 우리, 나에로 권당 하르방. 경허난 그 우리 권당 하르방 둘곡 허연에 온 거.

@1 시아방이?

#1 으, 씨아방. 난 구허레 온 처레 ᄒᆞ꼼도 몰랏주게. 어리난. 경 허연 말짠 보난 경 구허레 뎅겨난 거.

@1 게난 삼춘네 집 왕 그 시아방이영 권당 하르방이여 이 집 똘 우리집 줍서, 헌 거구나.

#1 경 헌 거주게게.

@1 경 헌 거. 그 하르방이 중매를 선 거꽈?

#1 중맬 헌 거, 중매. 난 김씨주게. 우린 고씨고. 게난 김씨 우리 하르방이 권당이난 그 고씨 하르방 우리 씨아방이난 이제 둘앙 와근에 우리 부모덜신디 골은 거주게. 난 분시 몰르난 어리난 곧지 아녀고. 겐 말젠 보난 나 구허레 경 뎅견.

@1 어떵 허난 삼춘을 구허레 경 온 건고예? 어디서 봐 가지고?

#1 우리 처음 이디 사난, 밧을 이 동네 벌어낫주게. 우리 친정어멍네. 이디 벌당 우리 평지동더레 이서가 불엇주게. 경허난 밧 벌레 뎅기멍 봣주게.

@1 게난 밧디 온 거는 봐낫어예.

#1 게난 밧디 요 먼문동이엔 헌 디 밧디 오민 그 우리 시아방네 뛜 어른이 부뜬 밧이라. 나 일허는 거 보멍 ᄀᆞ만이 상 베리곡, 베리곡 허난 난 어떵 허난 저 어른은 날만 베렴신고 경만 헷주. 경 허단 보난 그추룩 구허젠 경 헨 헌 거게.

@1 아, 마음에 들언.

#1 으, 경 허연. 경 허연.

@1 일허는 거 봐 가지고예.

#1 으, 일허는 거 봉.

@1 게난 삼춘 어릴 때 일도 막 잘헤나수꽈?

#1 막 난 일 잘허여. 놉 빌어근에 옛날에 호미로 보리도 비곡, 무시거 허주게. 경 허민 놉덜 ᄒᆞᆫ 줄 비어 감시민 난 두 줄 비곡 멍에에 강 싹 돌곡. 어떠난 재언게, 재언. 막 이 요자기도록 잰 사람이엔 막 허여난. 나 일 가는 딘 아니 가켄도 허곡.

@1 무사 안 가켄.

#1 일을 나가 재는 따문.

@1 아, 일 잘헤 부난.

#1 못 허는 사름은. 어떠난산디 경 재여젼게게. 경허민 이제 밤이 아기 젓 멕이고 서방 눅지곡 허여 뒁 ᄒᆞᆫ두 시간은 둘 훤헌 디 강 똑 밧디 강 일허영 뒨 완 잣어, 아무도 모르게.

@1 그 둘밤이?

#1 둘밤이.

@1 아오야, 혼자만 강?

#1 밧덜은 가깝주게, 우리 경허난이 난이 영 ᄀᆞ만이 누민 막 어이끔사리 엇이메. 나 잘도 재미지게 산 사름. 이제 이런 말 아기덜ᄏᆞ라도 몬 아이 ᄀᆞᆯ앗어. 큰뚤은 ᄒᆞ꼼 ᄀᆞᆯ아져신가. 경 저 아무것도 엇은디라도 부지런허민 살아진덴. 경 경 ᄀᆞᆯ아낫어.

@1 경 열심히 일허난 시아방이 마음에 들엉 찍엇구나예. 야이 며느리 허젠예.

남편이 써 준 연애편지

#1 으, 경 허연 막 뎅겨난 걸 난 요멘이도 몰라. 경도 멍청허카 어렷주마는이. 그땐 시집갈 생각도 아녀곡게. 겨곡이 ᄒᆞᆨ꾼가 무시거 아이 뎅기난 글을 하나토 몰랏주게, 난이. 경 허난 난 일후제 아기 나건 이 공부에 대헤영은 어느꺼지라도 애기덜은 시기주, 헤여낫어. 완전 그건 뭣 헤낫어.

@1 멩심헹 잇어낫구나.

#1 완전. 경헌디 이제 에이고 첨, 이제 이제 공부헴서, 이제. 이제 이 한글 하나토 몰라낫어, 나. 거난 그 서방도 고등학교 때난 그 연애펜질 썽 주는 거라. 연애편질 썽 날 주는 거라. 그 구헌 때. 경 허민 그걸 받으민 나가 익어질 거라? 누게 베와 줄 거라. 거 몬딱 ᄀᆞ만이 묻어 놧단 이 넹중에랑근에 왕 시집왕 살아가건 이걸 어떵 허주게. 그추룩 허여근에 몬딱 영 허멍 싸멍 곱젼 놔둬낫어. 경 헌디 어느 헤에 이 동네 물, 비 완 물 이디 떠낫어. 이디 떠난에 그때 시집갈 때 입어난 옷이고 뭣이고 그런 것도 몬딱 젖엉 다 네껴 불언.

@1 아이고, 아깝다. 그건 뭐엔 쓴 거 아직도 모른 거?

#1 모른 거, 글 몰라 부난 모른 거.

@1 어떵 헤.

#1 경 허난 이젠 아이고 이제 이거 아기덜랑은에 나가 아멩 동녕질을 허여도 공불 시기주 헌 ᄆᆞ음을 막 헤젼게. 경헌디 또 아기덜은 허여져게. 그 ᄆᆞ음대로, 나 ᄆᆞ음대로이.

@1 게난 결혼헐 때 신랑안티 이거 뭐옌 쓴 거꽈, 헨 안 물어 봐수꽈?

#1 그런 것도 아니 물어 보고 기냥 난 글 모른 할망이난에 이제 다 놧당 낸중에 한걸헌 때랑 이제 배우켜 허단 보난 어느 해엔 물 들언 똑 이디 떠난, 이디. 영 우리 저 동산 쪽엔 ᄒᆞ꼼 물 야프난에 이제, 저 엿날은 그 뭣고 비료 ᄀᆞ튼 거 사젠 허민 반장 허여근에, 동장허고 반장허영 각자 돈을 받주게이. 돈을 받는디 우리 집이 하르방은 또 책임을 하영 써난. 책임 안 써난 게 엇어. 키도 족고 뭣 헤도 몰멩허진 안헤신ᄀᆞ라.

@1 공부헤나 부난 다 시킨 거주, 마을에서.

#1 경 허연 이젠 돈을 각자 매집이 받으난 돈이 ᄒᆞᆫ 아름 뛜 거 아니라. 그걸 나 구기로 이 돈을 어떵헤 여근에 바찔 동안은 잘 가냥허리 허연. 항아리 소곱에 요만이 불 이신 항아리 소곱에 그 돈 다 담안에, 나 그때 생각 잘헤난. 그 우터레 보리 비완, 보리. 보리 비와 불민 돈인줄 모르주게, 영 보민. 경헤연에 곱져 뒨 그 해에 물을 이만이 뜨는 비 온 거라. 경허난 이제 저 펜 동산 뒌 물 아이 든 집이 갓주게. 간 그디 간 싯단 이디 완 보난 광란, 살지 못험직 허여. 겐 아메도 집이 가겐 헨. 밤이 막 영영 ᄉᆞ못 허멍 허연에 그 돈을, 물을 떠남신가 어떵헴신가 봐난 기억도 잊어 불지 안허여, 이제도.

@1 아이고.

#1 경 허연에 낸중엔 그 돈 다 파내언에 몰리완에 첨 허여낫어. 경 허난 우리 신랑은 머리도 잘 썻젠, 나신디. 경 안 헤시민 그 돈 다 일러먹엇주게, 물에.

@1 아, 경 헤실 건디. 게난 돈은 안 일러 먹엇구나예.

#1 안 일러 먹엇주. 다 그 항아리 소곱이 놩 우티 곡석 비와 부난에 물은 들엇주마는.

@1 떠내려가진 안헤연.

#1 흘러가진 안헤연. 경 헌 적도 션, 이디.

개인사

@1 그거는 그렇게 물 들도록 비 와난 거는 삼춘 몃 살 때쯤이꽈? 시집간 애기 난 때?

#1 시집간에 아기 더러 난 때 거라. 난 때 거라, 난 때.

@1 삼춘 한 스무 살 때쯤 아닌가, 스물한 살?

#1 게고제고 스물두 설에부떤가, 스무 설인가 스물두 설에부떤가 아기 낭 서른둘꺼지 나실 거라.

@1 그럼 사라호태풍 때는 아니네. 경허난.

#1 게난 일 년에 하나씩 애길 밴 난 거라. 죽어 분 아긴 네껴 불고, 아기 곧 죽엉 네껴 불민 그 또꼬망에 아기 배고 헨게, 어떠난 산디. 나 잘도 불쌍허게 살안, 웨지 안허난 허주.

@1 아구게.

#1 진짜.

@1 다섯 갤 일러 불어시난 불쌍헌, 뭐 헌 거주마씨.

#1 왜냐허면 아기 난에 딱 삼 일 잇어근에 머리 몸 곰젼 구덕에 눅지민, 그날 처녁부터 울민 뒷날은 가불곡, 가 불곡. 경허난 경 허여 가난 아방은 군인 가 분 거라. 이 놈덜, 군인 아이 나와도 벗덜토 가가고 허난 지원행 군인 가 불고. 이거 골은 말 아니라도 히여뜩헤근에 막 골아졈신게. 씨어멍은 술 먹어근에 놈 부끄롭덴 막 허덴. 시아방은 또 아이고, 나 메느리 안 허영 나 똘이엔 골으켜. 낸중엔 살암시민 느 즉신 다 싯나, 싯나. 시아방은 경 안심시견게. 경허난 기가 경허멍 경 정 살단 보난 서방이 군인 가 부난 이젠 그땐 점 허레 뎅겻어. 점 허레 이디도 점쟁이 싯젠 허민 가곡 저디도 점쟁이 싯젠 허민 가곡, 몰르게 이건. 아무도 몰르게 기자 소문 들으멍 들으멍 허여근에. 그땐 차도 흔 엇이 엇이난 걸으멍. 허난 가는 디마다 부처님을 잘 믿엉 법당을 잘 믿어사쿠다. 부모네가 이런 것을 ᄒᆞ꼼도 안 헤 노난 이제 다 아기어멍 우이 그 뭣이 허여 노난 아기어멍이 법당엘 잘 뎅겨사쿠다. 겐 그때부터 법당에 뎅겸주게.

@1 공들이렌 허는 말이구나.

#1 공들이렌 말, 공들이렌 법당에게.

@1 예.

#1 경헤여근에 살단 보난 이제 죽을 나이 뒈언.

@1 아이고게, 고생헤수다.

#1 나 잘도 재미지게 살앗어. 이추룩 산 사람 엇어.

중매해 준 궨당

@1 게난 그 중매 설 때 어른 두 분이 한 몃 번을 우리 집에 왓다 갓다 헙디가?

#1 멧 번을 왓다 갓다 헷주. 메틀에 흔 번, 잊어불만 허민 또 오곡 오곡 그추룩. 흔 일 년 뎅겨실 거라게.

@1 일 년을 뎅겨실 거라. 그 옛날에 어쨋든 중매 서게 뒈면 중매 허는 사람이 잇잖아예. 그 중매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중매를 헤신고예. 중신 서는 사람?

#1 중매헌 사름.

@1 예.

#1 중매헌 사름은게 우리, 나에로 김칩이 하르방게.

@1 게난 우리 궨당 뒈는 사람이 헌 거.

#1 우리 궨당 뒈는 사람이 헌 거.

@1 삼춘 헐 때는 그 사람이 헌 거예.

#1 으.

@1 옛날에도 그런 거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이 잇어나수꽈?

#1 으,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도 셔실 거라.

@1 그 삼춘은 김씨 하르방은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이라수꽈?

#1 안 허는 사름. 아무 것도 안 허는 사름. 경헤도 아메도 우리 씨아방 뒈는 어른이영 ᄀᆞ튼 연걸이고 ᄌᆞ끗디주게. 경허난 자꾸 요 아일 구헤 도렌 허난 자꾸 가곡 헌 거 아니라이. 경헤실 테주.

사주

@1 경헨 중매 서 줍서 헹 얘기가 뒌 거라예. 그믄 우리 집에서도 허락허고 허젠 허민 여자 사주도 주고 허잖아예?

#1 무시거?

@1 사주, ᄉᆞ주. 여자 집이 사주 받으레 오지 안헙니까?

#1 술?

@1 아니, 아니. 사주, 사주.

@2 몃 년.

@1 몃 년 몃 월생.

#1 그런 것도 다 허여실 테주게. 우리사 몰르주게. 어린 때라 노난.

@1 몰르고.

#1 으, ᄒᆞ꼼도 몰라, 어떵헌 거 그런 건.

막펜지

@1 으. 그믄 삼춘 막편지 허는 말은 안 들어봐수꽈?

#1 막펜지 ᄀᆞ져 왓주게. 막펜지도.

@1 막편지는 누게가 가져오는 거꽈?

#1 막펜진 그 시누이 쏠도 놓곡 고기, 산디도 놓곡 허연 젼 와낫어.

@1 아, 시누이가 젼 완.

#1 으, 시누이가 와난.

@1 시누이만 옵니까?

#1 아니, 그 시아방네영.

@1 누게, 누게 와.

#1 그 구허는 하르방이영.

@1 그민 시아방이영.

#1 구허는 하르방이영.

@1 구허는 하르방이영.

#1 씨아방이영 씨누이 하나허곡, 경 허영 그거 가졍 오랑 밥상 출령 들러가렌 허젠 허난 난 들러가지 안헷주게. 들러가지 안허난 우리 어멍은 막 나신디 달래는 거라, 달래멍 저 씨집 아이 가도 좋으난 저 밥상을 들러가라, 들러가라 헤도 나 ᄀᆞ딱 아이 들러강 저 바껏디 강 어떵 낭 트멍에 딱 곱아 부난 막 우리 어멍 왕 날 ᄯᅮ리멍 그 밥상을 들러다 뒁 씨집 아이 가도 좋으난 밥상을 들러다 도라, 들러다 도라. 나 똘 들러다 도라, 들러다 도라. 막 달래는 거라게. 게난 울멍 눈물 확확 씰어 두고 헹 그거 들러갓주.

@2 직접.

#1 잘도 재미져.

@1 그거는 며느리감 뒈는 사람이 들렁 가는 거꽈?

#1 밥상은 메누리가 들렁 가는 셍이라. 곧 온 때난게. 엿날이난게, 엿날은.

@1 그거 들렁 강 삼춘은 ᄀᆞ치 밥 먹거나는 안 허고마씨?

#1 들러다 뒌만 왓주게. 나왓주게, 난.

@1 나완.

#1 나와 불엇주게, 들러다 뒌만. 경헌디 씨누인 또 부엌에 ᄀᆞ만이 앚앗고 말짠 보난에.

@1 시누이도 거기서 ᄀᆞ찌 밥 먹는 거 아니?

#1 밥 먹는 건디 밥 먹지 안허영 ᄀᆞ만이 앚안, 이제 우리 친정어무니영 ᄀᆞ찌 앚앙 먹언, 말짜엔.

@1 아.

#1 난 드러 씩 씩 울멍 밥도 안 먹고. 경헨 이제 이제 시누이네, 시아방, 세원 하르방 가 불엇주게. 가 부난 우리 신랑 뒐 사람은 아니 간에 말짠 막 나신디 달래는 거라. 아메도 남자가 욕은ᄀᆞ라이.

@1 신랑도 ᄀᆞ찌 와나수꽈, 그날?

#1 ᄀᆞ찌 와낫주게. ᄀᆞ찌 완 밥헤 놀 때에, 경허멍 헌디.

@1 게민 그때 처음 만나 거예. 삼춘 그 남자 처음 본 거예?

#1 게메. 경헨 그루후젠 공일날 돌아오민 오고 보민 시간 시민 오고 드러 헨게. 경허민 난 재기 가 불렌만 경헤낫어.

@1 남자는 삼춘이 마음에 들엇다예.

#1 아메도 경 허난 경 헤실 테주. 나만 가지 말주 헤낫주. 경 헤난 거 닮아.

@1 삼춘은 무사 남자 마음에 안 듭디가. 난 그때 생각에 난 글도 모르고 혹교도 안 허고 헷주마는 나가 무사 이 사름신디 가코, 막 경 허여난. 경허단 우리 친정어멍네가 부모 ᄀᆞ리친 딜 아니 가면은 너 어디 걸어 뎅기당 비 온 날인가, 벳 난 날인가 베락 털어진덴, 너 우이. 경허난 부모 ᄀᆞ리친 말은 똑 들어야 헌덴. 경 허난 어린 때난 어떵헐 거라, 아니 들어져?

혼담 성사 후 결혼까지 기간

@1 겅헹 그 막펜지 가졍 오고 나서 얼마만이 결혼 날짜를 잡은 거꽈?

#1 막펜지 ᄀᆞ졍 왕 ᄒᆞᆫ 댓덜 뒈엉 가실 거라. 요름에 ᄀᆞ져오란에 동짓덜에 가난에.

@1 언제?

@2 여름에.

@1 여름에 가져왕 동짓덜에 시집간 거마씨?

#1 으. 오래언. 경 허난 자꾸 나신디 나둠도 허연. 경헤도 난 ᄒᆞᆫ엇이 만나주질 안헷주.

@1 어쨋든 막펜지 가져오난 집안끼리는 다 결혼헌 걸로 헌 거잖아예.

#1 으, 경헌디 난 똑 그게 아니라근에 기자, 뭣 몰라 노난 분시 모르난. 요새 사름추룩 욕아게. 욕질 안 헤 노난.

@1 어무니는 밥상만 들렁 가민 시집 안 가도 좋덴 헤신디.

#1 으, 좋덴 허난 그걸 고장들엇주게.

@1 고장들어신디.

@2 거짓말.

#1 고장들언에 그 말만 들엇주게. 경허연 첨. 경 허난 결혼헤연에 아기도 확 확 죽어 가난 이거 나 시집가켜 아니 가켜 헤여나 부난 줴 받안 나가 영 허염신가. 나 속으로 막 경헤난.

@1 혼자만 생각헌 거지예, 그건예.

#1 으?

@1 혼자만 경 생각헌 거지예.

#1 으, 나만 생각헌 거주게. 나만.

사주

@1 남자 삼춘이영 여자 삼춘이영 궁합 봣덴 헙디가, 사주?

#1 사주 어떵?

@1 봣덴 헙디가? 서로 좋다, 나쁘다 허는 거.

#1 아, ᄉᆞ준 어떵 안 허덴 그때부터도. 경허고 어디 영 들어도 뭣 허덴 골아근에. 궂덴은 안 헤도. 경헤도 너미 어린 때 뭣 몰르게 시집보내젠 헤 부난 나가 뭣 모르게 뭣 헤졋주.

@1 사주는 누게가 본 거마씨?

#1 점 허는 건?

@1 예.

#1 점 허는 건 어디 책 보는 하르방신디 강 봣주게.

@1 삼춘네 건 누게가 본 건진 몰르지예?

#1 으, 우린 몰를 처레주게.

@1 몰른 처레.

#1 그디서가 날 보곡 다 그디서가 허여 노난.

@1 아, 그거는 남자 집에서가 보는 거꽈?

#1 으.

@1 여자 집에서 ᄯᅮ로 보거나는 안 헷어예.

#1 으. 그런 걸 안헤 봔, 일절.

결혼 준비

@1 일절 안 헤 봔. 게난 이제 결혼 얘기가 오난 이제 동짓덜에 결혼헐 거라예. 날 나서예. 그 사이에 무슨 준비를 헙니까?

#1 준비는 무슨 준비헐 게 셔게. 기자 요새추룩 하간 거 헴시민 허주마는 그때사 그추룩 헷어게. 무신 거 다라 거튼 거여, 솟 거튼 거여 무신 그런 거 하나썩 준비허엿주.

@1 아, 솟도 상 놔두는, 미리 장만허영 놔두는 거?

#1 아니, 시집가게 뒈민 그거 사근에 시집가는 날은 ᄋᆞ정 가주게.

@1 게난 삼춘이 그거 미릇 장만헤수꽈?

#1 ᄇᆞ디어 가난 삿주게, ᄇᆞ디어 가난.

@1 ᄇᆞ디어 가민 그날 입을 옷도 헤살 거고.

#1 으, 옷도 허고, 옷도 이제 나 입을 옷은 이제 궨당이 허엿어, 집이서. 허연 첨 입곡 이디 시집왕 헌 건 누게 헌 것도 모르고 헌디 그걸 나갈 ᄀᆞ만이 놧당 낸중에라 뭣 허주 허단 보난 물 들엉 다 끗어가 불언.

@1 아, 그때 물 들엉.

#1 으, 경 헷주게. 나 잘도 잘 보관헹 놔둬난. 견디 막 나 울어낫어. 물에 네껴 불게 뒈난.

결혼 예복

@1 게난 무슨 옷을 입어나수꽈?

#1 유동 치메에 양단 저고리에. 그추룩 허여근에 이제 속치메 하나허고 경허여근에 입어낫주게.

@1 하얀색으로 다?

#1 으?

@1 하얀색 치마저고리?

#1 으, 하얀색. 새각시 건 하양 거 입엉 가.

@1 그거 한 불만 장만헌 거꽈?

#1 ᄒᆞᆫ 불만 입언, 우린.

@1 으, 한 불 장만허고.

#1 경허민 또시 시집이 오민 허여 주주게, 옷덜을.

@1 한불 헤 주는 거예, 씨어멍이예. 씨어멍이 헤 준 거는 그것도 유동이꽈, 아니민 멩지로 헤십디가?

#1 멩지가 아니고 양단일 거라, 양단.

@1 양단으로 헌 거예.

#1 으, 양단.

@1 시어멍 ᄒᆞᆫ 불 헤 준 거?

#1 으, 시어멍 ᄒᆞᆫ 불 헤 준 거 양단 치메저고리.

@1 우리 결혼허기 전에 그 치메저고리 만드는 것도 누게 아무나 헌덴 안 헙디다예. 복 좋은.

#1 으, 아무나 헌덴 안 허여. 나 시집갈 때 치메저고리 헌 사름은 우리 김칩이 궨당인디 어떠난 막 경, 이제 아흔 거자 낫어. 욜로 이레 쓸려 불언. 일로 이레 쓸련에 불언 이제 제주시 어디 병원에 살암서.

@1 지금?

#1 경도 허는가이, 경 건강허당도.

@1 요새사, 지금도 살아 계신 거마씨?

#1 ᄒᆞᆫ 멧 덜 뒈언 아프건디 경헌디 좋지 안헴신게.

@1 좋지 안헴서.

#1 견디 정신은 어떵 안 허연. 영헹 이거 쓰지 못허연. 이디 영 돌아온 때도 영 보민, 뭐 멕이민 오물오물 먹긴 허곡. 경헌디 나이 들어근에 그런 병 걸리민 성공을 못 허는 거 닮아. 아메도.

@1 그 사람이 옷을 만들어 준 거꽈?

#1 그 사람이 옷 만들어 줜, 난.

@1 삼춘도 시집갈 때쯤이면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인디.

#1 경헌디 아메도 ᄒᆞ꼼 그런 걸 잘허여신고라. 난 아이고, 이 어른 어떵 이 옷을 헤신고 헤낫주게, 난.

@1 그 사람이 헤 줫덴 허는 얘기는 들엇구나예.

#1 그냥 미승으로도 안 허고 손으로 헷주게.

@1 그때는 손으로 다 헐 때난예.

#1 손으로덜.

이불 준비

@1 시집가기 전에 이불 허젠 허민 그거 이불 허는 날도 잇덴 헙디다.

#1 이불 어떵?

@1 이불 허는 날?

#1 으, 이불 허는 날 봐. 짝 맞은 날.

@1 짝 맞은 날. 어떤 날이.

#1 열흘이민 열흘, 이틀이민 이틀, 이제 사흘은 짝글르지 안허여이. 닷새도, 오일도 짝글르고. 이틀이나 나흘이나. 열흘 넘으민 열흘이나 열이틀이나 그 사흘광 영 허민 그 짝글른 날은 안 헌데 허주게. 이 옷이고 뭣이고 다. 이 새각시 헐 때 허는 건 짝 맞은 날.

@1 짝 맞는 날 ᄒᆞ루 정헹 그날은 이불 허는 날 헙니까?

#1 이불 허는 날, 짝 맞은 날 허여근에 ᄒᆞ주. ᄒᆞ꼼 미릇 허는 사름도 싯주게. 짝 맞은 게 엇이민. 짝글르게 뒈민.

@1 그때도 영 도와주레 오는 사람이 이십니까?
#1 권당덜 왕 다 헤 주는 거, ᄀᆞ찌.
@1 ᄀᆞ찌 헤 주는 거.
#1 옛날엔 권당덜 왕 ᄀᆞ찌 헤 주는 거. 아무날 이불 허노나 허민 왕 허여.
@1 왕 이불 헤 주고 우리는 밥헤 멕이고.
#1 으, 밥헤 멕이고. 경허는 거.
@1 그 이불 헐 때도 바농 아무나 잡으민 안 뒌덴 헙디다.
#1 그것도 낸중에라 가난 내불엇주만마는 처음은 잘사는 사름으로 ᄒᆞ꼼 복좋게. 아기고 서방이고 잘사는 사름으로 허영, 허여 도렌 허여낫주게. 옛날에.
@1 옛날엔예.
#1 으, 이젠 뭣 허여도.
@1 그 이불허는 날은 요거 영 꼬메는 것만 헙니까, 아니민 소게 장만도 다 헤나수꽈?
#1 소게 장만은 이녁냥으로 강 클 태우는 디 강 멩글아 왕. 멩글아 오는디 그것도 짝 맞은날 허젠 허주게. 짝 맞은 날 가근에, 뒐 수 시민.
@1 예.
#1 짝 맞은날 허여당 놧당 또 짝 맞은날 아무 날은 이불 허젠 헴시메 와근에 허렌. 경허영 허는 거.
@1 게민 소게 태우는 거는 어디 클 허는 디가 잇어나수꽈?
#1 소게 태우는 딘, 소게 태우는 클에 가근에게 이녁냥만썩이라도 강 허여 오고게.
@1 이 무릉에서는 어디 강?
#1 으?
@1 이 무릉에서는 어디 강?
#1 소게 태우는 디?
@1 예.
#1 모실포나 저 고산이나.
@1 거기 가민 태우는 디가 잇언예.
#1 태우는 디가 셩. 경허난 그추룩. 모실포 주로 가곡 고산도 하영 가곡 경허주게.
@1 삼춘네도 그 시절에 여기 이불 허젠 멘네 질루는 집들이 잇어나신가예?
#1 멘네 이녁네 냥으로 갈앙.
@1 갈앙.
#1 갈앙 멘네 타다근에, 막 ᄌᆞ르지민 타당 놧당 밤인 그걸 까. 깡 영 영 웨로 까사야 허는 거난. 경헤여 근에 헷주게.
@1 게난 삼춘도 집이서 질른 멘네로 헌 거꽈?
#1 으. 멘네로 헌 거주게. 경허난 뒐 수 시민 이디 사름 멘넨, 소겐 존 거라. 그냥 집이서 다 허난.
@1 게난 집이서 다 질른 멘네로 헹 그 솜, 집이서 다 탕.
#1 탕.
@1 그게 헹 놔뒀당.
#1 허영 놔뒀당 이젠 그 물레로 씨 곱 갈랑 불랑, 집이서 불랑, 이제 또 허게 뒈민 그 소게 태우는 디 가근에 가근에 경허주. 경허난 이 똘 ᄀᆞ지민 아이고, 멘네 갈아사컬 갈아사컬 막 걱정헤지는 거란게.
@1 그지예.
#1 경허영 그걸 허엿단.
@1 이불 헹 보내젠 허난.
#1 으, 보내젠 허난.

멘네 농서

@1 게난 멘네는 이불 헐 멘네는 삼춘네까지도 여기서도 갈아낫구나예?
#1 여기서 갈안. 이거 다 우리 냥으로 갈앙 헌 거라. 똘덜토 다 집이서, 난 요번에 똘 ᄒᆞᆫ 채 이불 주멍야, 이건이 요새 소게 닮지 안허영 집이서 멩근 거난 저 그냥 ᄀᆞ만이 잘 놧다근에 어디레 누게 주지 말앙 더끄렌. 경허멍 이불 하나 줘 불엇주.
@1 게난 삼춘도 시집 왕 멘네 농서를 헤나수꽈?
#1 우리?
@1 예.
#1 아이구, 멘네 허곡 말곡게.
@1 허곡 말곡. 몃 살 때까지 멘네 농사를 헤수꽈?
#1 멘네 갈아근에 드러 풂도 허고.
@1 풂도 허고.
#1 옛날엔 경헹 멘네 사레도 뎅겨낫어.
@1 삼춘 몃 살 때까지 그 멘네를 갈아나수꽈?
#1 아, 갊은 그건 기자 시집간에 사난 ᄒᆞ꼼씩은 ᄒᆞ꼼씩은 도로겡이 헤근에 굴룬 걸로 갈주게. 갈앗다근에 멘네가 비싸주게, 비싸. 저 사레 뎅기는 사름이 셔낫어. 경허민 그걸 풀아불엇주게. 풀곡 허단 이제 이녁이 쓰게 뒈난 그때부떤 열심히 허영 ᄒᆞ꼼 널리 갈아근에 ᄒᆞᆫ 닷말지기쯤 갈민 하영 나와.
@1 경헹 누구 똘 풀 때 그 멘네로 헨마씨?
#1 으. 경헷주게. 다. 똘 풀 때 다 허곡 그 사돈네도 다 ᄒᆞᆫ 채 헤 주주게, 그 이불을. 경 그 소게로 다 헤줫주게.
@1 사돈네 보낸 것도 그 멘네로 헌 거라예. 그민 큰딸 풀 때도 그렇게 멘네 헷고, 족은딸 풀 때도 그걸로 헤수꽈?
#1 허고.
@1 아이고, 막 늦게까지 멘네 헷구나.
#1 난 막 멘네 오래 갈앗어, 오래.

@1 오래 갈앗어. 그 똘들 풀 때 뒈서는 다른 집이서는 다 사당 헷덴 헙디다마는.

#1 사당 허는 집도 싯주게, 사당 허는 집도.

미녕 차기

@1 삼춘 혹시 삼춘은 그 멘네 질룅, 멘네 키왕 거기서 실 뽑앙, 실 뽑앙 그 실로 옷감, 미녕 차는.

#1 미녕 차는 거, 미녕.

@1 그것도 헤 나수꽈?

#1 으, 미녕 차낫주게.

@1 으. 미녕은 시집오기 전이 차나수꽈, 시집온 후제도 미녕 차나수꽈?

#1 미녕 시집오기 전이도 미녕덜을 허여낫주게. 경헌디 난 미녕 찰 충은 몰라난. 몰른디 시집온 후제사 미녕 차는 걸 우리 시어멍이 영 허영 그 불 살라근에 멘네 저 미녕 멩그는 걸 허연게 경허난 그거 보멍 그때 배완. 경허난 날ᄀᆞ라 막 눈치 좋덴 헤낫어. 빨리 배왕 잘헴덴.

@1 영 보난 안 헤나신디 확 허난예.

#1 으, 허영. ᄀᆞ리친 대로 멧 번 안 허영 허여나난. 겨난 우리 ᄒᆞ꼼 우리 영 전이 ᄒᆞ꼼 뭣 허젠 허민 재어난 셍이라. 겨난 미녕도 영헹 착착 허는 거 허민 하영 헤지주게. 겨민 날ᄀᆞ라 하영 헴젠 허멍 쉬엉 허렌 경 ᄀᆞᆯ아.

@1 미녕도 차낫구나예.

#1 으, 미녕도 차난.

@1 그럼 이 동네에서 멩지도?

#1 멩지 허는 건 엇언.

@1 아, 여기 미녕만.

#1 멩지 허는 건 엇어. 저 서광 우리, 서광은 우리 웨간디 그딘 간 보민 멩지 헤낫어. 거난 건 가당 ᄒᆞᆫ 번썩 보난 어떵 헤난 걸 몰라. 멘네 막 여기서 드러 허여나난 알아지고.

혼수 이불 장만을 위한 과정

@1 그 우리 멘네 키웡 이불 만들젠 허민예, ᄎᆞ ᄎᆞ ᄎᆞ ᄎᆞ ᄀᆞᆯ아보게마씨. 멘네는 씨는 언제 뿌립니까?

#1 멘네 씨?

@1 으.

#1 밧디 뿌리는 거? 봄에 뿌려근에 이제 ᄋᆞ름 내낭 검질 메어 가당 가을 들어가민 그 도로기 ᄋᆞᆯ아근에 경 케주게. 경허민 그땐 탐 시작허영 이젠 그걸 ᄆᆞᆯ류와근에 이제 씨 ᄇᆞᆯ르는 물레엔 헌 게 셔낫어.

@1 씨 ᄇᆞᆯ르는 물레예.

#1 영 허영 이거 물레민 기계레 영 대영 영 영 돌리민 씬 이레 나오곡.

@1 앞더레 나오고.

#1 그 부각헌 건 뒤터레 가고.

@1 뒤로 가고.

#1 경허영 허여 놩 말짠 또시 그 소게 멘드는 디 ᄀᆞ져강.

@1 부각허게 나온 거 영 모다 놧당.

#1 으, 모당 놧당.

@1 소게 멘드는 디 가져가민 거기서 태우멍.

#1 거기선 기자 이추룩 영 멘들아 줘.

@1 영 네모나게, 납작납작허게 나온 거 헹, 그거 나오민 이거 몃 층으로예. 크기 재 가지고 만들어 줄 거.

#1 경허영 얇게 허젠 허민 얇게 허고 뚜겁게 허젠 허민 뚜껍게 허고.

@1 크기도 길고 허고.

#1 으, 경허는 거.

@1 경 허는 거예. 게민 요거까지는 그 소게 태우는 디서 만들엉 오민 집이 왕 이불 만들 때는?

#1 이불 만들 때는, 소게 멘들앙 이불 만들 때는 크게 허젠 허민 그디서 나온 대로 영 허고 ᄒᆞ꼼 족게 허젠 허민 요 영 헹 잘라 뒁 요펜 건 무신 방석을 멩그나 무시거 아무거라도 멩글고 또시 이불 이레도 영 헤근에 시꺼근에 허민 허여지주게. 영 바농으로 시껑, 소게라도.

@1 시끄는 게 뭐꽈?

#1 시끄는 건 바농으로 영 찔렁 이펜더레 영 허곡게. 주는 거게, 영. 영 부찌는 거, 부찌는 거.

@1 요거 약간, 요거 한 장 놓고 요거 한 장 놓고, 요거 한 장 놓고 헹 시껑 이제는 이불포 씌울 거꽈? 거죽 씌울 거예?

#1 거죽으로, 경허영 시렁목으로 쌍.

@1 아, 맞아. 이거 시껑 이제 시렁목으로 다 쌍.

#1 다음은 험벅, 이녁 ᄆᆞ음에 든 험벅, 기지 봉강 멩글 거.

@1 경 헹 이거 영 쌀 거예. 여기 곱닥헌 걸로 허고, 보통 뭐로 헤수꽈, 여기?

#1 으?

@1 이불포는 보통 뭐로 헙니까?

#1 이불포는 그 허는 것덜 시난 사단 헤부난 모르크라. 옛날엔 멩글아나신디 모르크라. 우리 시절꺼진 사단 헤실 거라.

@1 사단 헤실 거라예.

#1 ᄑᆞ는 거 션. 이불 칩이 강 보민.

@1 삼춘 시집갈 때도 집이서 이불 다 멘든 거라예.

#1 집이서 이불 멩근 거주게.

혼수 물품

@1 이불 멧 채를 헤수꽈, 삼춘. 시집갈 때?

#1 이불도 하영 허민 기자 보통 시 채.

@1 예.
#1 시 채 허민 보통. 경 안 허민 보통 두 채도 허는 사람 싯곡, 시 채 허염실 거라. 시 채.
@1 이불 시 채는 다 나가 쓸 거 아니민 시어멍 시아방.
#1 시아방네 쓸 건 뚜로 허곡게. 이녁 씰 건 게고 제고 시 챈 허엿어. 거자, 몰라 그건 그자 어떵 헌 거 모른디 보통은 보민 시 채.
@1 삼춘 시 채 헷구나.
#1 시 채 기자.
@1 시어멍 시아방 거 뚜로 허고예.
#1 시어멍 시아방 뚜로 허지 안 헹 혼 채만 헹 감주게. 혼 채만.
@1 예. 이불 시 채 허고.
#1 이제도록 허여도 이불 두 채 헤간 딘 못 들엇어. 기자 시어멍네 줄 건 기자 혼 채. 시아방이고 시어멍이고 시집이 줄 건 기자 혼 채. 이녁 헤 가는 건 기자 시 채고 그 너머고 허고.
@1 이불 시 채 허고 이제 베게는 멧 개 헤수꽈?
#1 베게도 두 개 허는 사람 싯고 굴루이 혹꼼 더 허는 사름 싯고 경허난 그건 혼이 엇는 거.
@1 자부동도 허고?
#1 으?
@1 자부동도 허고, 방석?
#1 방석도 허곡게.
@1 방석 멧 개?
#1 방석도, 방석도 거자 짝 맞게 헐 거라. 혼 오섯 개나 여덥 개.
@1 아이구, 하영 헤신게.
#1 경 안 허민 혼 열 개도 허는 사름 싯고.
@1 아이구, 하영 헤신게. 그렇게 이불허고 혼수 다른 건 뭐 헤수꽈?
#1 다른 건 뭣 허는 건 혼엇이 모르큰게. 그런 것덜만 허난.
@1 삼춘 벗들이영 계 헤영 시집갈 때 뭐 헹 갓덴 헤신디.
#1 계에서?
@1 예.
#1 그건 그 계에서 지정헤영게 무신 찻잔도 허게 허민 허고. 기자 그런 종류로 허여근에 처음 계원에서 이녁 뒌 대로 경허영 허난 건 혼이 엇는 거.
@1 뭐 헹 가수꽈, 삼춘은?
#1 우리 시집갈 때?
@1 예.
#1 우리 시집갈 때사 경 뭣덜 헷어 뭣 허지 안 헷주. 그 다라, 그 쒜 다라도 이만이 헌, 식게 멩질 때 메 푸는 거엔 헹 그런 그 다라도 허고. 나 시집갈 때 그 화리가 션게, 저 과수원에 창고에 오져가선게 엇언. 이제 야이덜ᄀᆞ라 들어보젠 허멍. 나 시집갈 때 헌 정동화리엔 헌 거. 요만이 헌 거. 그건 생전이라도 써질 거주게. 아이 경헌디 이제 나 들어보저, 들어보저 허멍 들어보지 안허영. 요 창고에 ᄀᆞ만이 놔둬나신디.
@1 오널랑 들어봅서.
#1 아니 못 들어봔. 경허난 원 누게 줘 불어신가. 원 어떵헤신고 나만 경 허염주.
@1 게난 시집갈 때 이불 세 채허고 정동화리 헹 가고.
#1 이제 메 푸는 식게 메 푸는 저 뭣고.
@1 다라.
#1 다라. 그거 허고.
@1 희영헌 다라예. 알루미늄 다라예.
#1 으, 희영헌 다라게.
@1 또 뭐 헤수꽈?
#1 다라 저디 셔. 그런 거 기자 허고 무신것고 사발도 사지 기리우민 두어 개 사고.
@1 사발도 상 가고. 아까 솟도 사고.
#1 솟 그런 것도 기자 사고. 하영은 안 사도 혼 두어 개썩 무시거.
@1 요강 헤수꽈?
#1 요강은 허는 거. 잘도 알암저.
@1 상도 허고마씨?
#1 상도 사주게, 상. 밥상.
@1 삼춘 이불상도 헤낫덴 헨예.
#1 으, 이불상.

친목

@1 그거 친구덜이영 ᄀᆞ치 헌 거 아니?
#1 친구덜이영 ᄀᆞ치 헌 거. 정동화리허고, 이불상허고.
@1 친구덜 몃 명이 ᄀᆞ치?
#1 저 영 멧 사름이 허영 계 허영, 계 허영 그냥 동기간추룩 영 허영 돌아가멍 갈 때 허영 그추룩.
@1 삼춘 친구들이영 몃이 여기 막.
#1 아이구, 허여낫어. 이거 나. 이거라, 이거. 이것이 요기 와난 건디 이젠 이디 와 불엇어. 세 개라낫주게 이건. 경헌디 이 사람네 하난 육지 강 이제 어떵 허는 걸 모르고 하난 이제 제주시에 살아도 막 아팜젠 허고, 하난 나고.
@1 몃 사람이 헌 거꽈, 그거?
#1 서이 헌 거. 서이가 언니 동생 허연에.
@1 겐 페적 헤난 거예.

#1 요자기도록 막 션게 이젠 엇엄신게. 먹 굴아근에 바농을 콕 찔렁 확 홅어. 경헹 처음은 막 ᄆᆞᄉᆞ왕 못 허크라고. 건디 서이만 앚안에 우리 허여낫어.

@1 재미지게 살아신게.

#1 경허연 살단 보난 이제 다 늙엉 이추룩.

잔치 음식

@1 게난 잔칫날 막 돌아와 가민 잔치에 먹을 것도 집이서 막 장만헤 놓잖아예. 옛날에는 뭐 뭐 잔치에 준비를 헤신고예, 음식들?

#1 음식 준비,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둥비둥헐 거라. 이젠 하간 거 하 노난에 뭣 허는디 그자 그디가 그딜 거라.

@1 그디가 그디. 뭐 헤수꽈?

#1 기자 그 모멀썰 허여다근에 그 묵 모멀묵, 청묵 그거 주로 허고. 청묵도 그거 모멀썰 멧 말 사당 허젠 허민 잘도 공들어낫어.

@1 그지예, 그거 다 물에 담강 막 일엉.

#1 그치록 허영 그거 허곡, 또 이 두부거튼 것도 허는 사름은 쪼금 허곡. 저 문어, 문어 허여.

@1 잔칫날 문어도 헙니까?

#1 잔치에 문어.

@1 메께라.

#1 몰라, 우린 저 큰아덜 풀 때만 문어 헤실 거라.

@1 큰아들 풀 때 말고예 삼춘 시집올 때.

#1 아, 나 시집올 때.

@1 그때 걸로 생각헤 보게마씨.

#1 나 시집올 때 헌 건 뭐 무시거 허지 안헷어.

@1 그때 거를 먼저.

#1 청묵은 그때부터 허엿어. 엿날이난.

@1 이 동네 청묵도 다 다른 집도 헤낫수꽈?

#1 아니, 모물쏠 사단 집이서 이녁 냥으로 허주.

@1 게난 삼춘 결혼헐 때 말고 삼춘 친구들 결혼헐 때도 청묵들 헨마씨?

#1 청묵 허는 디도 싯고 아니 잘 엇어, 엇어.

@1 어떵 삼춘은 청묵 헷구나예.

#1 으, 우린 청묵 허연.

@1 청묵 허고 또 뭐 헤수꽈?

#1 으?

@1 청묵 허고 또 뭐 헤수꽈, 음식? 청묵 허고 돼지고기도 했을 거고.

#1 청묵 허고 돼지고기 허고 ᄃᆞᆨ도 멧 개 허고 이제 기자 그런 거주, 그런 거. 그게 그런 거주.

@1 음식을 한 번 생각을 헤 보게예. 삼춘 신부상에, 삼춘 받아 본 신부상에 뭐 뭐 올라 이십디가?

#1 뭣 뭣 올랏는지 이제 알아지크라, 이제. 그디가 그디 아니라.

@1 그디가 그디.

#1 그디가 그디주게. 벨헌 거. 이젠 벨헌 거 싯주마는 그땐 벨헌 거 엇어낫어.

@1 기억나는 거 어수꽈, 삼춘 결혼헐 때 올라간 거?

#1 올라간 거 벨 거 엇어.

잔치상

@1 그믄 그날예 삼춘네 결혼헐 때쯤 잔치상 보게예. 손님 먹는 잔치상예. 거기에는 뭐 뭐 올라갈 거꽈?

#1 잔치상에. 잔치상에도 뭣 헌 거 엇일 거라.

@1 우선은 궤기.

#1 궤기여 무신 콩ᄂᆞ물이여 그런 것들 허여근에 허곡 다른 거 훤엇이 엇어.

@1 궤깃반에는 궤기 멧 점 올라갈 거?

#1 다섯 점썩은 놤실 거라. 순대 말앙.

@1 예, 궤기 다섯 점.

#1 으.

@1 순대 올라갑니까?

#1 순대 ᄒᆞᆫ 점썩 똑 놔.

@1 순대 ᄒᆞᆫ 점 놓고 둠비 ᄒᆞᆫ 점 놓고?

#1 으, 둠비. 둠비 노는 허고 아니 노는 디 허고.

@1 아까 청묵은 ᄯᅳ로 놉니까, 여기 궤깃반에 놉니까?

#1 ᄐᆞ로 놓는 집도 싯곡 ᄀᆞ치 놓는 집도 싯곡. 건 훤이 엇은 거.

@1 그럼 궤깃반에는 궤기 다섯 점 둠비 ᄒᆞᆫ 점, 순대 ᄒᆞᆫ 점 올라갈 거구나예.

#1 경허고 또 건 엿날에 경헷주, 이젠 고깃반에 둠비 안 올라가주게, 이젠 다 ᄯᅳ로 이젠.

@1 맞아.

#1 이젠 모든 게 노고록헤 노난 옛날엔 다 ᄀᆞ찌만 헷주마는 경헤낫주게.

@1 이제는 노고록헷구나예.

#1 그때도.

@1 게난 삼춘 옛날 걸로 먼저 생각헤 보면, 어쨌든 고깃반 이거 올라갓어예. 삼춘 시집갈 때라예. 이거 고깃반 올라가고 밥은 어떤 밥이라수꽈, 옛날.

#1 밥은 하양 밥 허여. 잔칫집인 흰밥을 안 허주게. 똑 ᄑᆞᆺ을 노나 뭣 허는디 신랑 신부 밥은 똑 흰밥을 허는 거라. 옛날엔 흰밥 허고 기냥은 ᄑᆞᆺ을 노나 보리쏠이라도 하나썩 서꺼근에 허여낫주게. 경허민 기자 그땐 밥 어려운 때난 그 새각시 밥 먹당 남으민 빌어먹젠 손덜 영 헤근에 영 헤낫주게.

@1 곤밥 ᄒᆞ꼼 줍서, 곤밥 ᄒᆞ꼼 줍서.
#1 경 헤난.
@1 경 헤난예. 밥은 곤밥 올라간 거고, 흰밥 올라간 거고 국은 어떤 국이라수꽈?
#1 국은 기냥 메역국 허영 기자 생성 허영 허는 딘 생성 다듬앙 놧다근에 국허고 기자 경 안 허민 소고기 그거 놔근에 허고.
@1 소고기 헐 때는 메역 놩 헐 거?
#1 메역 놩, 메역 놩.
@1 무수 놩은?
#1 무수도 놓는 디 싯곡 메역도 놓는 디 싯곡 건 훤이 엇는 거 영 보민.
@1 손님 상은 여기 풋밥에 여기 무수 놩 혹은 메역 놩 국 끓일 거예.
#1 으.
@1 반찬은 궤깃반 이수다예. 간장 잇지예.
#1 간장 싯지.
@1 그다음 다른 반찬 뭐 이수꽈?
#1 김치 싯지.
@1 김치.
#1 이제 그디서 또시 무신 시금치 ᄀᆞ튼 거 그런 거 ᄒᆞ는 디 그런 거 허곡게 안 허는 딘 안 허곡 반찬도 ᄒᆞᆫ엇이 엇어낫주게, 엿날에.
@1 맞아. 이거면 손님상 다 뒌 거예.
#1 으.
@1 옛날 보멍 그렇게 잔칫날 돗국물에 몸 놩.
#1 몸 놩, 몸 놩.
@1 그거는 언제 끌려 먹는 거꽈, 몸국.
#1 그건 그 잔치날도 보민 몸국 끌려 먹는 디가 잇어. 그 꽝 뭣 허영 딸렷다근에. 그추룩허곡 기냥 뭣 헐 때도 그치록 허고. 그디가 그디 그것도.
@1 게난 몸국 잔치날 먹는 디도 잇구나.
#1 으, 잔치날 먹는 디도 잇어.
@1 잔치 전날 먹는 건?
#1 잔치 전날도 먹곡 그날도 먹곡 허는 디가 잇어. 이 집안으로 따랑 그건, ᄒᆞᆫ이 엇는 거 그건.
@1 이거는 삼춘 때우다, 아들 풀 때.
#1 으?

아들 장가 보낼 때의 잔치상

@1 아들 풀 때예. 좀 시간이 지낭 아들 풀 때 잔치상에 올린 거 생각헤 보민 고깃반은 똑같을 거꽈?
#1 고깃반은 ᄀᆞ틀 테주게.
@1 ᄀᆞ틀 거. 그다음 뭐 올랑 이수꽈?
#1 우리 이디 아덜 풀 때 헤난 거?
@1 예, 아덜 풀 때 헤난 거. 이 문어도.
#1 문어, 문어 저 어디 한림 강 문어 사 와낫어, 우리.
@1 문언 어떵 반찬 헌 거마씨?
#1 문언 이제 야, 그 문어 이제 나 생각허민 이제 잘도 몸서리난다. 이만이허게 사 오난 그거 다 우리 두 동세가 다 잡안에 숢앗주게. 숢앗단 궤깃반 논 때 썰엉 놩.
@1 숙회.
#1 경 허난 잊어불어지지 안허여.
@1 문어 막 하영 상 완?
#1 그때 멧 ᄆᆞ리 상 왕. 저 한림 간에, 동세가 우리 동세가 한림 사름이난 한림 이모네가 줍수난 글로 부탁헨에 사 와낫주게.
@1 역불로 헌 거구나.
#1 역불로 간 사단.
@1 그민 그 문어 내놓는 거 이 무릉리 동네 다른 집덜도 경 나와나수꽈, 아니민 삼춘네만 특별허게 헌 거꽈?
#1 문어 경 허는 집이 엇어, 엇어. 우리, 우리만 경 헌 거 닮아.
@1 특별허게 헌 거라.
#1 경 허영 하영 이 작산 거 어떵 헐 건고 허단 보난 다 먹음도 허고. 첨, 경 사 줘난 어른 요번에 돌아간에 부주허멍 헷주게, 첨. 저 우리 동세 이모라낫주게. 게난 한림 부탁헹 그거 허젠 허난 조그만이 공든 거라게.
@1 그니까 역불로 헤신게예, 그거 먹이젠.
#1 으, 경헌 거.
@1 게민 아들 헐 때는 고깃반에 문어도 나오고 밥이랑 국은 ᄀᆞ트꽈?
#1 밥은게 기냥 풋 아니 놩 밋밋 밥 헤실 거라.
@1 그때는 그냥 곤밥예.
#1 으.
@1 풋 안 놩예. 국은 어떤 국?
#1 그땐 영 손 받앙 밥 빌어 먹는 사람도 엇고게. 엿날 우린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1 맞아예. 국은 어떤 국들 헤신고, 아들 풀 때?
#1 국은 그냥 놈삐 국사 헤신디 미역 국사 헤신디 모르켜.
@1 모르고. 반찬은 어떤?
#1 놈삐국 대부분은 허긴 허여.

@1 소고기 놩, 생선 놩?

#1 아니, 잔치 때에 그런 거 혼엇이 아이 놩 그냥 헤실 거라.

@1 그냥 다시 물에.

#1 으.

@1 소고기국 그런 거 혼엇이 안 헹예. 반찬은 뭐?

#1 반찬은 그냥 이디 숭키 허는 것덜 기자 나오민 그런 거 허영. 벨다른 게 엇어.

잔치 전 도세기 준비

@1 엇어난예. 경헹 헐 거. 아들 할 때는 그 음식예. 우리 잔치허젠 도세기도 미릇 질뤄야 뒐 거잖아예.

#1 질롯주, 이젠 사단 헴주마는. 엿날은 도세기 질루왕, 도세기 혼 마리로도 못 헤영 더 허젠 허민 잘도 복잡헤낫어. 이젠 기자 돈만 주민 사 왐주마는.

@1 삼춘 시집갈 때는 도세기 멧 ᄆᆞ리 잡앗덴 헙디가?

#1 그건 모르큰게.

@1 삼춘 집이서 길른 도세기 잡아수꽈?

#1 질룬 도세기, 그땐 다 질룬 도세기. 우리 갈 때 다 질른 도세기. 겨민 저 도세긴 잔치에 잡을 거엔 경허멍. 경헤난.

@1 (웃음) 인사헐 거라예. 나 잔치에 잡을 거엔. 아들 장가보낼 때는 도세기 집이서 질른 거꽈?

#1 우리.

@1 아들, 큰아들 장가보낼 때.

#1 집이서 아니 질롸 봔.

@1 아, 그때는 사단 헨?

#1 으, 사단 다.

@1 그때 멧 ᄆᆞ리 상 와수꽈?

#1 멧 ᄆᆞ리 헌 것도 모르고 그냥 궤기칩으로 불러단에 먹엇주게.

@1 그때는 이미예.

#1 전인 질롸근에 멧 ᄆᆞ리 잡앗저, 어떵헛저, 헷주마는 우리 시절꺼진 그런 사람 엇어 다 궤기칩으로 맞촨 다 기자.

그릇제 등 친목회

@1 음 게난. 우리 삼춘 결혼헐 때 옛날 잔치헤 먹젠 허민 그릇도 막 하영 잇어야잖아예. 그 그릇덜 어떵 헤신고예.

#1 그릇은 그 친목회 허여근에 친목회, 동네 친목횔 허여근에 이제 그디서 돈 어느만썩 내어 놩 그릇을 사주게. 그릇을 국그릇이여, 반찬 놓는 그릇이여 ᄆᆞᆫ딱 사근에 이제 소임도 허고 재무도 허고 허영 책임을 씨왕 그거 메껴근에 일 년썩 마타근에 그 그릇을 운영허엿주게.

@1 게난 삼춘 시집가는 그 시기에도 그런 그릇제가 잇어나수꽈?

#1 그 시절에도 그런 제가 잇어난. 친목회 헤근에.

@1 친목회예. 친목계렌 헤수꽈, 무슨 그릇접이여 헤수꽈?

#1 아니. 친목회엔 허여.

@1 친목회예.

#1 친목계엔도 허고 친목회엔도 허고 경허여난.

@1 그때 그릇은, 삼춘 시집갈 때라예. 그때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수꽈? 사기그릇이라수꽈, 아르미늄 그릇이라수꽈?

#1 나 시집갈 때도 사기그릇은 ᄆᆞᆫ 삭아지진 안헤실 거라.

@1 잇엇주마씨.

#1 그냥 사기그릇도 허곡 그냥 쒜그릇도 허곡 경헌디 그루후제 그자 쒜그릇만 헷주.

@1 맞아, 맞아.

#1 경헌 거.

@1 게난 삼춘 시집갈 때도 사기그릇으로 헹 접이 잇어낫구나예?

#1 으, 셔난. 사기그릇. 엿날에. 경허단 말짜엔 쒜그릇 나오난 막 좋안 헷주게.

@1 집이 잔치허젠 허민 천막도 쳐사잖아예.

#1 천막도 쳐사고 족족헷어게. 이제, 이제 잔치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 엿날은 메틀을 역 벌여근에. 저런 창고도 반찍 청소허고 하근 디 다 청소허고, 장막도 멧 개 치고.

@1 장막.

#1 장막.

@1 게민 그 장막도 어디 강 빌령 와사쿠다.

#1 장막도 동네 계가 싯주게. ᄆᆞ을에. ᄆᆞ을에 싯곡 계 허영 허곡 경허난 ᄆᆞ을에서 그거 허여당 허고 엇인 딘 어디 강 빌어오긴 헴실 거라. 겐디 이디서 그냥 동네서만 셔난, 동네.

@1 게민 그 ᄆᆞ을에 있었던 건 장막 계렌 헤신가예?

#1 장막계, 일름이 장막계.

@1 장막계예. 그거 헌 거.

#1 천막인가, 장막인가 몰르켜, 그것도이.

@1 계렌 헤수꽈, 접이렌 헤수꽈?

#1 계엔 허연, 계.

@1 계렌 헨.

#1 계 천막 닮다, 계 천막. 계 장막.

@1 우리 옛날에는 잔치헤 먹젠 허민 상도 하영 잇어얄 거 아니?

#1 상도 그 친목회에서.

@1 그릇이영 ᄀᆞ치?

#1 으, 그릇이영 ᄀᆞ치 상도 멧 개. 이제 족은 새각시 상도, 족은 상도 멧 개 경헤여근에 기자 큰 상 주로 허곡 족은 상 시 개나 두 개나 경헹.

@1 족은 상은 동그랑헌 요런 족은 상?

#1 아니, 영 네모난 족은 상.

@1 네모난 족은 상. 큰 상은 어떤 상이꽈?

#1 큰 상은 그냥 요새 밥상게 영 헹.

@1 큰 거. 삼춘 결혼헐 때는 그렇게 큰 상이 잇어나수꽈?

#1 게메 나 결혼헐 때 큰 상이 셔나신가, 어떤가 모르켜이. 큰 상이.

@1 아니라예.

#1 엇어난 거 닮아. 그냥 영 아래 놩 밥덜도 먹고 헌 거 닮아 그때 시절엔.

@1 맞아예. 그런 것도 잇어나고.

#1 말쩨라 가난 상덜이 나완 헷주. 밥 그냥 아래 놩 먹엇주게.

@1 아래 놩 먹엇어예. 신부상 받을 때는 혼자 상 영 줍디가, ᄀᆞ치 큰 상에 줍디가?

#1 혼자 상 영 헹 줫어, 우리 갈 땐. 큰 상에 뭣 허여난 셍이라.

대반

@1 혼자 준 거예. 신부랑 신부상 받을 때 여기 신부 잇고, 옆에 앚은 사람 잇지예. 거 누구렌 부릅니까, 옆에.

#1 게메 거 잊어불엇저이.

@1 대반 앚을 거?

#1 대반. 맞아 잘 알암신게.

@1 그 대반은 누게가 헙니까?

#1 잘 알암신게. 대반은 이 동세 뒈는 사름 시면은 동세 허고 경 안 허면 그디 ᄇᆞ딘 삼춘이나 누게. 대부분 동셀 앚져사.

@1 동세. 웃동세예.

#1 우잇동세.

@1 동세를 앚질 거?

#1 대반. 대반 거 잘 생각헴저.

@1 맞아. 그민 나는 앉아 잇고 여기 대반이 이실 거. 거민 나 상이영 대반 상이영 ᄀᆞ치 줍니까, ᄐᆞ로 ᄐᆞ로 줍니까?

#1 ᄐᆞ로 주주게. ᄐᆞ로. ᄐᆞ로 주민 이젠 그 대반 어른이 신부 숟가락도 심져 주고 먹으렌.

@1 먹으렌. 밥 먹을 때 가짓겡이 열엉 밥 혼 숟가락 거령.

#1 거령 톡 어디레 영 놔두난에. 건 모르크라, 첨. 그 뜻은 것도.

@1 무산고예.

#1 그 밥 거령 톡 논 거 셔이.

@1 예, 밑에예.

#1 생각 다 헴저이. 나보단 더 생각 잘 헴신게.

@1 삼춘이 옛날에 ᄀᆞᆯ아 줘난 거마씨. (웃음)

#1 (웃음) 잊어불엄신게.

@1 겅헹 가짓겡이에 거려 논 거.

#1 으.

@1 겅헹 나도 밥 먹고 앞에 잇는 아이덜 ᄒᆞ꼼 줍서.

#1 겅헌 거.

@1 경헌 거.

#1 그땐 곤밥덜 기리와근에 영 손 허영 저 무뚱에덜 밋밋 사민 못 빌어 먹은 사름은 우는 아이도 셔낫어.

@1 기라.

#1 거난 아이고 자인 밥 못 빌어 먹엇저, 뭐 헷저. 야, 그런 시절도 첨.

@1 우리 한쪽에는 대반이 앉앗어예. 한쪽에는 누게가 앉입니까?

#1 ᄒᆞᆫ쪽에는 대반 앚고 ᄒᆞᆫ쪽에는 또시 그디 그 궨당 앚일 거라, 누게. 아무라도 영.

@1 벗덜도 ᄀᆞ치 앉읍니까?

#1 벗덜도 앚곡게, 벗덜도 첨.

@1 그민 벗덜도 다 상.

#1 그 새각시 벗이 앚인다, 첨 벗이. 생각헹 보난 그 ᄌᆞ끗디. 경허민 ᄀᆞ치 상덜을 받앗주.

@1 벗덜도 다 ᄯᅳ로 ᄯᅳ로 상 줄 거?

#1 으.

@1 상 줄 거예.

#1 생각 잘헴신게.

하인, 도감, 솟밋할망

@1 우리 잔치헤 먹젠 허민 도세기를 잡을 거 아니꽈예. 그 도세기는 누게가 잡읍니까?

#1 도세기 잡는 사람 빌어당 잡아낫주게.

@1 으. 도세긴 아무나 잡는 거 아니마씨?

#1 도세기 아무나 그땐 아니 잡아낫주게. 경허난 도세기 잡는 사름이 셔낫어, 동네도 셔 낫어. 하인이엔 허멍 그 사름신딘 헤낫어. 경허민 그 사름 빌어단 잡아낫주게.

@1 그민 그 사람 빌엉 잡으민 그 사람안티는 일쿰을 줘살 거꽈?

#1 줘사, 줘사.

@1 줘살 거예.

#1 잡은 갑을 줘낫주게.

@1 예. 도세기 그 사람아피 맡기고, 잔치날 보민 그 궤기 써는 사람이 잇지예.

#1 궤기 써는 사름, 궤시 써는 사름도 ᄄᆞ로 싯고.

@1 예. 그 사람은 뭐렌 불러수꽈?

#1 궤기 써는 사름은 그냥 보통 아무라도 허영 썰어도렌 허민 썰엇주게. 잡는 사람만 뭣 허영.

@1 아, 잡는 사람만 따로 정헤 가지고.

#1 으, 잡는 사람만 뭣 허영 써는 사름은 그디 첨 어디 친헌 사름이나 동네 뭐 또 잘허는 사름이나 ᄒᆞ꼼 허렌 허여근에. 허민 그 수고헌 뭣을 줘주게.

@1 그 사람안테도예.

#1 으, 줘주게.

@1 게민 그 사람 도감이렌 불를 거지예.

#1 도감은 궤기 써는 사람 도감, 도감.

@1 그지예. 도감예.

#1 경허민 다, 낸중엔 뭣 ᄀᆞ져감주게. 몰라, ᄀᆞ져감실 거라. 난 다 ᄀᆞ져가난. 쏠을 더러 허영 ᄀᆞ져가나 아무거라도 섭섭 안 허게 ᄀᆞ져가사 다음 ᄀᆞᆯ을 땐 또 쉽게 헤 붑센 헤지주게.

@1 동네에 도감 허는 사람 정헤졍 이십디다예?

#1 으, 동네도 도감허는 사름, 궤기 써는 사람 셔낫어.

@1 그 사람아피만 막 부탁을 헨게예. 그 사람아피 일쿰으로 쏠을 주든.

#1 일쿰까지 줘신가?

@1 아. 일쿰꺼지는 아니고.

#1 그 밥허는 사름도 줘낫어, 밥허는 사름도.

@1 그 밥허는 사름은 뭐렌 불럼수꽈?

#1 뭣이엔 불럼수꽈?

@1 예.

#1 뭣이엔 불러 일름이 셔?

@1 그 사람 혹시 솟밋할망 허는 말 이수꽈?

#1 으, 솟밋할망이엔은 허여, 솟밋할망. 생각 잘 헴신게. 솟밋할망.

@1 게난 그 도감이랑.

#1 그런 사름덜은 이 임제가 그 생각을 허여 줘사주게. 섭섭 안 허게, 섭섭 안 허게 헤 불어사 뒈주. 이 아무것도 누게 영 줘근에 섭섭허겔 말아사는 거. 경헤사 냉중에 이녁 뭣이 돌아오는 거주. 몰라게 그추룩 허난 우리 생각엔.

@1 맞수다.

#1 겐 놈보단 ᄒᆞ꼼이라도 더 주젠 헤지주게. 이 뭐 빌엉 허여도.

@1 혹시 옛날에 그 고기 써는 도감 말앙예, 그 도감 옆에, 고기 썰민 반에 영 ᄒᆞ꼼씩 ᄒᆞ꼼씩 놔야잖아예. 그런 사람도 ᄐᆞ로 잇어나수꽈?

#1 그런 사람은 ᄐᆞ로 엇엇어.

@1 엇엇어예.

#1 그냥 이녁 이녁끼리 영 허여근에 아이고, 궤깃반 ᄒᆞ꼼 놔 줍센 허나 경허민 ᄀᆞ찌 노는 거주.

@1 ᄀᆞ찌 노는 거예. 그민 또 옛날에 잔치헤 먹젠 허민 술도 막 만들엇잖아예.

#1 술?

@1 예. 술 만들앙 그 술 마탕 허는 도감도 잇어나수꽈?

#1 술 마타근에 술.

@1 뭐 여기에는 술 드리라, 여기 멧 병 가져가라 그런 술도감이엔 허는 사람도 잇어나수꽈?

#1 으, 술도감이엔도 허여낫어.

@1 아, 허여낫어.

#1 술도감.

@1 삼춘네 시집갈 때도 어쨋든 술 다 집이서 만들어나지 안헤수꽈예.

#1 집이서덜 헷주, 집이서. 견디 나 시집갈 땐 나 어려 불언 시집 아이 가켄 울만 허여나난 원 하근 생각, 그 낸중에 영 보난 알암주, 몰라낫어. 시집 안 가켄 드러 울만 허멍 난 허엿단 보낸 거라 노난.

이바지

@1 아, 기구나. 삼춘 혹시 이바지렌 허는 게 이수꽈?

#1 어?

@1 이바지.

#1 이바지. 그 무시거 헌 사름.

@1 어.

#1 헌 사름.

@1 이바지가 뭐꽈?

#1 이바지가 헌 건 무신 새각시옷 허는 사름인가?

@1 새각시옷 헌 사람인가?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신랑 집이서 신부 집더레 쏠이영 돼지고기영 술이영 혹시 보내기도 헙니까?

#1 보내주게. 보내여. 경허민 어느 만이 ᄀᆞ져 왓어라. 어떵 헷어라덜 ᄀᆞᆯ아낫주게.

@1 게민 그거 보내는 건 잔치 전이 보내는 거꽈, 잔치 후제 보내는 거꽈?

#1 잔치 전이 보냄실 거라, 잔치 전이.

@1 무사 보내는 거꽈?

#1 으?

@1 무사 보내는 거꽈, 그건?

#1 건 무사 보내는 건 모르크라. 그냥 인사로 보내는 거 아닌가. 인사로 보냄주게.

@1 인사로 보내는 거. 우리 아까 삼춘 그 막펜지 가졍 올 때 시누이가 쏠이영 돼지고기영 놩 정 왓덴

헷잖아예?

#1 으.

@1 그거 말고 또 보내는 거랏수꽈, 아니면 그걸 가리키는 거꽈?

#1 그걸 ᄀᆞ정 오민 그냥 비와 뒁 그레 뭐 놩 주는 사람 싯곡 그냥 보내는 사람 싯곡 헐 거라.

@1 게난 그거 가졍 오는 거 잇고 또 쏠이나 돼지고기를 가졍 오는 건지 묻는 거마씨. 두 번 가졍 오는 거꽈, 흔 번만 가졍 오는 거꽈?

#1 흔 번 가져왐실 거라.

그릇계, 가마계

@1 삼춘은 그때 시누이가 가졍 온 거예, 쏠이영 돼지고기영. 예. 우리 옛날에, 옛날에 아까 그릇제는 잇엇덴 헷잖아예.

#1 그릇제.

@1 그릇계예.

#1 그릇계.

@1 그거는 잇어낫지예. 천막계도 이렇게 잇어낫지예.

#1 천막계도 싯는 딘 싯곡 엇는 딘 엇고. 이 그릇젠 어느 마을이든 거자 실 거라예. 친목회렌 헤근에.

@1 친목회렌 헤 가지고예. 삼춘은 가마 탕 시집온 거꽈, 구루마 탕 온 거꽈, 걸엉 온 거꽈? 시집올 때?

#1 우린 그냥 차 탄 왓주게, 차.

@1 아, 차 탄 완. 어떤 차?

#1 으?

@1 트럭?

#1 추럭 닮은 차 탄. 경헨 왓주.

@1 경헹 온 거. 그 삼춘은 치마저고리 입엇잖아예. 여기 뭐 썻지예.

#1 멘사폰가 헌 건가.

@1 족두리 안 헤수꽈?

#1 족두린가 멘사폰가. (웃음)

@1 멘사포 썻는지, 족두리 썻는지 모르크라.

#1 나 그거 모르크라.

@1 모르크라. 남자 삼춘은 어떤 거 입어수꽈?

#1 남자 삼춘도 그냥 흰 저 멩지 바지저고리 입어선게.

@1 멩지 저고리바지 입고 우이 도포 입어수꽈?

#1 으, 그거 영 입엇어.

@1 허리에 영 차고.

#1 으.

@1 머리에 영 쓰고.

#1 머리에도 쓰고.

@1 쓰고. 그런 거는 어디 강 빌려 오는 거라신고예.

#1 그걸 모르크라.

@1 예, 예. 그랬던 거.

#1 어디 빌리는 디 셔실 테주.

@1 예. 경허는 거. 맞아. 맞아.

#1 집인 엇어나난.

결혼 전 주의 사항

@1 맞아, 맞아. 집이 엇어나난예. 우리 옛날에 영 결혼할 때 뒈민 이런 거 멩심허라 허는 거 잇어나수꽈?

#1 멩심헤야 허라.

@1 신랑 신부.

#1 그런 것도 못 들은 거 닮아.

결혼 소식 알림

@1 못 들은 거 닮아예. 우리 결혼허게 뒈민 우리 똘 언제 언제 풀암수다, 나 언제 언제 시집감수다 허는 걸 동네 어른이나 권당덜안티 알려야 뒐 거잖아예. 삼춘네 때는 어떵 알려신고예?

#1 어떵헤신고?

@1 예, 어떵 권당덜안티 영 ᄀᆞᆯ아신고?

#1 그냥 권당덜신디 영 ᄇᆞ딘 권당덜신디 ᄀᆞᆯ앙 놔두민 다 알앙덜.

@1 소문 소문 헹

#1 소문 소문 허멍게. 경헴주게.

@1 요새추룩 청첩장이엔 헌 거.

#1 게메 그런 것도 엇어나고.

@1 엇어나고예. 혹시 아덜 풀 때는 그런 것덜 잇어낫수꽈?

#1 뭣 헌 거?

@1 청첩장이렌 허는 거, 우리 아덜 결혼헴수다 헹 영 보내는 거. 아덜 풀 때는 잇어나신가?

#1 건 우리, 냉중에사 셔실 거라게. 우리 헐 때 엇어낫어.

@1 우리 옛날에도.

#1 그자 입으로만 ᄀᆞᆯ앙.

@1 그지예. 입으로만 ᄀᆞᆯ앙. 우리 옛날에도 결혼허기 전에 약혼 같은 것도 헙니까?

#1 약혼. 약혼 잔치 헴젠이. 약혼, 약혼 말은 들어낫어. 겐디 우리 헐 때 약혼 말도 못 들은 거 닮아.

@1 그민 삼춘네 후제꽈, 전이꽈? 약혼허고 헌덴 헌 거?

#1 약혼헌덴 헌 말 그 후제사.

@1 후제사예. 삼춘네 그 후제 약혼헤신디 약혼은 다 헨예, 약혼잔치영예, 건데 뭐가 안 맞안. 남자영 여자영 뭐가 안 맞앙 이거 파토 나거나 경도 헐 건가예?

#1 뭣 헌 거?

@1 이거 약혼헤신디, 결혼허기로 다 약속헤신디.

#1 파토 나 분 거?

@1 예. 동네에 그런 사람도 잇어나수꽈?

#1 그런 사람 엇어. 엇어. 이 상동넨 엇인 거 닮다. 시민 다 소문 들엉 알아질 건디이.

@1 그지예.

#1 그런 건 엇은 거 닮아.

결혼 당일, 문전제

@1 삼춘 우리 결혼허는 날 한 번 생각헤 보게예. 결혼허는 날이우다예. 남자 집이서는 결혼허는 날 아침이 제지내고 헙니까?

#1 집이선 제 지내엄주게, 다. 다 지냄실 거라. 그건 새각시 칩이고 새서방 칩이고.

@1 아. 새각시 집이고, 새서방 집이고. 아침이 문전제예.

#1 아침이 문전제.

@1 그 문전제.

#1 몰라, 요새 거 안 허는 딘 안 헴신가. 옛날엔 다 헤실 거라.

@1 옛날엔 다 헷어. 삼춘 시집올 때도 다 헌 거 닮수과?

#1 허엿주게. 다 허엿주.

@1 아덜 풀 때도 허여수꽈?

#1 아덜 풀 때도 허고.

@1 그 문전제에 뭐 뭐 올립니까?

#1 문전상에도 벨다른 거 셔게. 기자 잔치 때 출린 거 허고 과일 거튼 거 놓곡 그자 절허는 거난.

@1 그냥 절허는 거. 저기 만약 여자 칩이서 똘 풀 때 문전제 허게 뒈민 그 똘 문전제에 절허고 헐 건가예?

#1 뭣 허고 헐건가?

@1 절.

#1 여자가?

@1 여자가.

#1 여잔 절헐 필요 엇고 그냥 주인만 허는 거주게.

@1 아들, 장가가는 남자는 절헙니까. 남자는 절하고 여자는 절 안 허고예.

#1 으. 여잔 절헐 필요가 엇주게.

우시

@1 자, 남자 집에서 여자를 데리러 갈 거우다. 남자 집이서 여자를 데리러 가민 몃 사람이나

#1 멧 사람 가는 거 그건 ᄒᆞᆫ이 엇지 안허카. 두 사람 아니민 ᄒᆞᆫ 사람 ᄀᆞ치 가는 거 아니?

@1 그민 신랑 가고, 여기 ᄀᆞ치 가는 사람을 뭐렌 불르는 이름이 잇지예?

#1 으, ᄀᆞ찌 가는 사름, 벗허영 둘이 가는 디도 싯고, 혼자 가는 디도 싯고.

@1 아, 이거 우시렌 헐 거꽈, 우시?

#1 우시, 우시.

@1 신랑 가고.

#1 보통은 ᄒᆞᆫ 사람 갈 거라?

@1 누게가 가, ᄒᆞᆫ 사람?

#1 그 신랑에 ᄇᆞ딘 사름 아무라도.

@1 ᄇᆞ딘 사람예.

#1 그디서 누게 느가 ᄀᆞ찌 가라 헹 가는 거난.

@1 느 우시 가라 헹 ᄀᆞᆯ을 거예. 그민 갈 때 우리 함도 져 가는 사람도 잇잖아예.

#1 함? 게메 함은 어떵 험을 모르켜이, 첨.

@1 가마 들렁 가는 사람도 이실 거고. 삼춘은 트럭 탕 왓주마는 옛날 데리러 갈 때 남자 ᄆᆞᆯ 탕 가게 뒈민, 여자 데령 오렌 가마 영 들렁 가는 사람도 이실 거고, 함 졍 가는 사람도 이실 거고.

#1 게메 그런 거 말만 들엇주, 모르커라.

@1 모르커라예.

#1 말만 들엇주.

@1 함 혹시 여기에 하인이 함 졍 감신가?

#1 경헴주게, 그땐.

@1 그땐예. 이 함을 혹시 홍세함이렌 ᄀᆞᆯ읍니까?

#1 무시거엔 ᄀᆞᆯ읍니까?

@1 홍세함.

#1 홍자함?

@1 홍세함.

@2 홍세.

#1 것도 모르고.

@1 모르크라. 기민 이 함에는, 신랑이 가져가는 함이우다예. 이 함에는 뭐 뭐가 들엉 이수꽈?

#1 그런 걸 모르큰게 우린 그런 걸 아니 노난에.

@1 아니 노난.

#1 우리 시절엔 그루후제도 안 헌 거 닮아.

신랑상

@1 음, 남자가 신랑 집이 도착헹예, 남자가 신부 집이 도착헨예. 그럼 신랑상을 받을 거우다예. 신랑상 밥, 밥 다 먹으민 그 신부 집이 어른덜안테 절허고 헙니까?

#1 절허주게. 인사 다. 허는 디 허고 몰라 안 허는 디 안 헐 건가. 인산 헐 거라, 다. 인사 헐 거라예.

@1 처음에 신랑 들어올 때 이 함에 거 뭔가 열어 본덴도 헙니다. 문서 든 거.

#1 올아 봄직 허다 나 생각도.

@1 으, 열엉 뭐 볼 거 문세를예.

#1 으, 그디 뭐 헌 거.

@1 적어진 거.

#1 으, 적어진 거 보젠.

@1 으.

#1 그디 마튼 사름이.

@1 마튼 사람이. 마튼 사람은 누가 마트는 거?

#1 흔이 엇주게. 아메도 그디서 그 집안에서 사름을 뭣 허영 허는 거난.

@1 이 문세 봥 글자 잘못 뒈시민 들이지 안허고 헌덴도 헙디다마는.

#1 몰라. 것도 모르크라.

@1 것도 모르크라예. 이제는 신랑이 신부 데령 나올 거예. 신랑이 먼저 나옵니까? 신부 데령 영 나옵니까?

#1 보민 ᄀᆞ찌 영 나오는 디도 싯고, 대부분은 거자 ᄀᆞ찌 영 나올 거라.

@1 ᄀᆞ찌 나올 거라예.

신부 화장

#1 삼춘은 준비헹 신랑 올 때 기다릴 거잖아예. 아까 치마저고리 입엇고, 유동 치마저고리 희영헌 거 입엇고 이 머리에는 족두리 안 써수꽈?

#1 쪽두리 써신가 말아신가 모르켜. 쪽두리 그때 시절엔 쪽두리 똑 써난 것도 닮고.

@1 화장 헤수꽈?

#1 화장도 헌 거 닮고.

@1 헌 거 닮고. 머리는 어떵 헌 거 닮수과?

#1 머리는 기냥 영 무꺼져실 거라, 무꺼.

@1 무껀. 우리 테레비 보다 보민 머리 영 빙빙 올령.

#1 으, 그런 것도 싯주게.

@1 그런 거 싯지예.

#1 경 머리 올림 자락은 안 헌 거 닮아.

@1 안 헌 거 닮고. 그냥 무껑.

#1 으, 무껑, 무껑.

@1 여기 족두린지 면사폰지.

#1 면사폰가 족두린가 거 쓴 것도 닮고. 쓴 것도 닮고 거 확실허지 않고예.

@1 거난 거 화장헤 주고 머리헤 주는 건 누가 헤 줘신지 알아지쿠과?

#1 화장허고 뭣 허는 거?

@1 어.

#1 그땐 그 우리 이모도 셔나고 뭣 허난에 이모네 헤실 거라, 이모네.

@1 화장은 헤진 거 같은디예.

#1 이모네가 셔나난.

@1 이모네가 셔나난. 경헹 이제 나와수다. 남자랑 트럭, 차를 탓잖아예.

#1 으?

결혼사진

@1 신랑이영 차를 탄 거예. 동네 올레까지 걸엉 나와수꽈?

#1 걸엉, 영 마당꺼지 걸엉 나와져신가?

@1 걸언 나완.

#1 경허연 차 타져실 거라.

@1 차는 요새 트럭 같은 거꽈, 아니민 택시 같은 거꽈?

#1 게메 그때 어떵 헤진 거 모르켜이.

@1 남자랑 옆에 앉안?

#1 영 무신 소곱에 가메에 그런 것에 앚아진 것도 똑 닮곡.

@1 가메 탄 간. 트럭 아니, 가메 탄 거 같애.

@2 뭬께?

@1 뭬께? 트럭?

#1 어떵 헌 거 모르켜.

@1 좋수다. 좋수다. 기억 안 나멘. 신랑 집이 왓던 건 기억 나멘마씨?

#1 으?

@1 신랑 칩이 도착헨예. 사진 찍어난 건 알아지쿠과?

#1 사진 찍어난 건, ᄂᆞ련에 마당에 산덜 사진 찍어신디.

@1 차에선가 가만에선가 ᄂᆞ련.

#1 ᄂᆞ련.

@1 마당에 산 사진 찍언예.

#1 사진 찍언 들어가난디.

@1 아, 사진을 먼저 찍엉 이제 방에 들어간 거.

#1 경헌 거 닮은 거.

@1 경헹 이제 밥 다 먹어수다. 밥 다 먹은 다음에 옷 갈아입언마씨?

#1 이디서 허여 준 옷이.

@1 이디서 헤 준 옷.

#1 골아입엇주게, 첨 골아입언.

@1 그다음 어떵 헤수꽈, 뭐 헤수꽈?

#1 으?

@1 옷 골아입엉 그다음 뭐 헤수꽈?

#1 옷 골아입언 그냥 ᄀᆞ만이 앚앗주. 겐 어두완에 이젠 놀레덜 막 완에 이젠 막 놀게 뒈난에 이제 소리 안 허민 신랑 돌아멘덴 헨에, 막, 어떠난 소릴 나 못 허여나신가. 안 허여 부난 막 신랑 돌아메젠 허연 이제 말쩬 요 바끗더레, 마리레 나간에 소리허는 체 허난 막 박수덜 치멍 그냥 어떵 안 헷어.

@1 그날 밤이 벗덜이 다 놀러 온 거마씨?

#1 경헌 거주.

결혼 날 저녁 뒤풀이

@1 그거는 신랑 벗덜만 놀러 옵니까, 신부 벗덜도 놀러 옵니까?

#1 요 평지동, 나 이 동네 살아나고 허난 기자 이 동네에, 평지동에 사람덜 기자, 벗덜이주게, 벗덜.

@1 벗덜.

#1 야, 우리 벗덜, 우리 갑장덜 잘도, 우리 이 나이 뒈건 멋지게 살게 헤낫주게. 경헌디 문딱 가 불언.

@1 아이고.

#1 하나 셔, 이제. 잘도 재미지는 거이.

@1 재미지는 거. 게민 그때는 뭐, 뭐 먹을 것덜 먹으멍 노래 불르멍, 장구 치는 사람도 잇고마씨, 그 놀 때?

#1 우리 갑장덜?

@1 저녁이 놀 때, 결혼헌 날 저녁이 놀 때.

#1 저녁에. 저녁에 그땐 그 허벅 장단. 허벅 헤근에 영, 영.

@1 두드리고예.

#1 그 북도 하나 셔낫어. 겐 것도 두드리멍 놀고. 난 막 비치롬만 헤낫주게. 겐 소리 안 허젠 헤나신궈라 돌아메젠 막 허난 아메도 ᄒᆞ꼼 뭣이엔 허여진 셍이라. 게난 어떵 안 허연.

@1 게난 신랑은 매 맞진 안헷구나예.

#1 으. 매 맞진 안 허여.

@1 매 맞진 안 헨.

#1 에구 막 매 맞고 돌아메고 허여. 재미져게, 그땐.

@1 게민 이젠 다 끝나수다. 다 노는 것도 다 끝난예. 이제 그다음엔 뭐 헐 거꽈?

첫날밤

#1 그다음에 끝나난게 다 집이덜 가주게. 집이덜 가난 이젠 어떵헐 거라게. 기냥 눠 잘 거 아니라.

@1 첫날밤, 첫날밤?

#1 첫날밤이고 뭣이고 눠 자젠 허난 난 시누이덜 돌아단 눴주게. 첫날밤에.

@1 (웃음)

#1 경허연 시누이덜만 욕 들렷주게, 시어멍안티. 그디 강 눴젠.

@1 그디 강 눴젠.

#1 ᄒᆞᆫ 메틀 처냑을 눴주게. 나 막 왕 누렌만 허난. 아니 우리 누는 구둘에 둘이뿐이고 시어멍네 누는 구들엔 저 시누이덜 서너너 개허고 그디 시아주방 싯곡 식구가 요라이주게. 겨난 줌을 자질 거라. 겨난 메틀을 눠 가난, ᄒᆞᆫ 나흘산디 눠실 거라. 시어멍이 경 욕 허여분 셍이라, 똘들신디. 그루후제 부턴 아니 잔. 우리만 잔 거라. 겨난 난 끈 봉강 무꺼낫주게. 옷 벳겨 불민 아기 생겨 불카 부덴. 경 허단 봐도 지는 거란게. 아이구, 사는 게 첨.

@1 게난 첫날밤은 결혼허는 날 보낸 거 아니구나예. 며칠 후제 보낸 거구나예.

#1 누게네가?

@1 삼춘. 남자 삼춘이영 줌잔 거는 메칠 후제사 경 줌을 잔 거구나예.

#1 으, 으. 경헌 거. ᄒᆞᆫ ᄒᆞᆫ 일주일도 넘어실 거라. 막 둘이만 눈 때도 싸우멍 옷 안 벗엇주, 나. 재미져, 진짜 첨. 경도 헤지카.

혼례 다음날 신부의 집 인사

@1 우리 잔치가 다 끝나민 친정집이 인사 가는 건 언제 갑니까?

#1 친정집이 인사 가는 게 잔치 뒷날게.

@1 뒷날. 삼춘이영 남자 삼춘 둘이만 갑니까?

#1 아니, 이디선 시아방네영 산디 누게 가실 거라. 경헹 인사헤 뒨에 그디서 식사허고 뭣 허여 뒨 와 불고, 우리 두가신 저물앙사 와져신디 그디서.

@1 아, 기민 같이덜 갓구나. 권당이영예. 그럼 그렇게 가근에 여자 집이서도 거기 친척덜이영 몃 분 계신 거예. 사돈끼리 인사헙니까, 그날 가민.

#1 인사허는 셍이라.

@1 그거를 뭐렌 불르는 거 이수꽈?

#1 으?

@1 그거를. 그날, 결혼 뒷날 사돈칩이 가 가지고 사돈끼리 서로 인사허고 허는 걸.

#1 일름 모르크라. 기냥 인사허는 거.

@1 인사허는 거예. 혹시 사돈대회 헴저, 사돈열멩 헴저.

#1 사돈대회 허레 왓젠 기자 영.

@1 사돈대회허레 왓젠예. 겐 서로 인사헐 거예. 옛날에 우리 삼춘 웨딩드레스를, 여기 면사포 헤신디

그건 몰라예.

#1 어떵허고?

결혼식

@1 여기 쪽두리 써신지 면사포 써신지 그건 잘 모르크라예.

#1 으, 잘 모르크라.

@1 연지 곤지 헤수꽈? 그것도 잘.

#1 막 화장은 허엿어. 허연게.

@1 으. 허연게. 손에 영 꽃 들르고도 헤수꽈?

#1 손에 꽃 들른 거? 손에 꽃 들러져신가?

@1 거 모르크라.

#1 것도 잘 모르고.

@1 모르고.

#1 똑 꽃 닮은 것도 ᄀᆞ져져난 것도 닮고. 확실히 모르큰게.

@1 옛날 삼춘 결혼헐 때도 우리 그 집이 가 가지고 결혼허게 뒈민 사진 찍기 전에 누구영 누구영 결혼헴수다 헤근에 주례라는 거 잇어나수꽈?

#1 주롄 셔낫주, 주례.

@1 삼춘 주례 잇어난마씨?

#1 주례엔 헌 말은 들어난, 자꾸.

@1 그 말은 들어난. 삼춘 결혼헐 때도 마당에서 주례가 이 사람이영 이 사람이영 결혼헴수다 헤 가지고 말허고 그런 거 잇어나수꽈?

#1 으, 경은 허여난.

@1 경은 허여난. 그민 경헹 주례가 인사허고 여기서 사진 찍고예.

#1 사진 찍고. 주례 맞아, 주례야.

@1 그때 누게가 주례를 선 거 닮수과?

#1 아이고, 게메 것도 모르켜이.

@1 음.

#1 그때 궨당덜이 하노난 뭐.

@1 게민 마당에서 막 뭐 헤수다예.

#1 마당에서, 마당에서 막 헤여난 안네 들어가멍 헤신디.

@1 마당에서 뭐 헤여난, 내리자마자 마당에서 뭐 허여난 안에 들어간예. 그민 그때 뭐 결혼헐 거난 주례가 이시민 사회 보는 사람이라고.

#1 말 곧는 사람 셔낫어.

@1 말 곧는 사람 셧고예. 혹시 부신랑, 부신부 허는 사람도 옛날에도 잇어나신가예?

#1 그런 것도 셔나고. 경헌디 누게 헌 걸 모르켜.

@1 누게 헌 걸 모르크라.

#1 궨당덜이 하 부난에 그때에 당시엔.

부조

@1 옛날 우리 결혼헐 때 잔치허민 그때 막 부주허고 그런 거 잇어나신가예?

#1 부주, 이녁신더레 부주 허는 거?

@1 음.

#1 부주 허는 건 ᄒᆞᆫ엇이 엇어난 거 닮아.

@1 이녁신더레 허는 거, 신부신더레 허는 거예.

#1 어려 노난이.

@1 어무니네안테, 궨당안테 뭐 쏠 가져가는 거 그런 건 잇어나신가?

#1 어느 때 쏠을 ᄀᆞ졍 가?

@1 예를 들면 우리 똘 ᄑᆞ는 어무니안테 궨당이 이모든 아니면 큰어멍이든 잔치헐 때 보탭서 헹 쏠 ᄒᆞᆫ 말 가져가고.

#1 그때 시절에, 그때 시절에도 쏠 ᄋᆞ져 뎅이는 사람 똑 셔난 거 닮다. 부주 말앙 돈 대신 허는 거주게, 거.

@1 돈 대신 허는 거. 아니, 삼춘 시집감덴 허난 이모가 뭐 옷 한 벌 헤 주고, 저기 남자 쪽에 큰어멍이 옷 ᄒᆞᆫ 벌 헤 주고 그런 건 엇어나수꽈?

#1 그런 것도 셔난.

@1 그런 거 셔난. 삼춘도 시집가난 시어멍이 옷 ᄒᆞᆫ 불 헤 줫잖아예.

#1 으.

@1 그거 말앙 다른 궨당이.

#1 그런 건 허여 주고.

@1 다른 궨당이 한복을 헤 주거나 아니민 미녕을 ᄒᆞᆫ 필 주거나 경헹 부조로.

#1 그런 건 엇고 부주 돈으로 ᄒᆞ꼼썩 헤져실 거라, 아메도.

두불 결혼

@1 예, 돈으로예. 우리 옛날에도 삼춘 결혼헐 그때도예 막 두불 결혼허는 사람들도 잇어나신가?

#1 두불? 두불 결혼허는 사람 셔낫주게. 겐 두 번 시집감저, 두 번 장게감저게.

@1 경 헤나수꽈?

#1 그런 사람 셔낫주게.

@1 두불 장게 갈 때도 영 잔치허고 헙니까?

#1 잔치허는 사람도 싯고 요새추룩, 요새도 잔치허는 사람 셤주게.

@1 맞아.

#1 이 동네도 어느 때 시에, 이 동네 사람인디 잔치헤실 거라. 두불 풀안. 겨난 그때도 그건 기자 그런 대로. 옛날이나 이제나.

@1 옛날에 삼춘 시집갈 때 뭐 가락지라도?

#1 그런 것덜 엇엇어.

@1 엇어낫어예.

#1 으, 엇어난.

결혼반지

@1 우리 요즘은 결혼헌덴 허민 막 여행 간덴 허잖아예, 신혼여행.

#1 으, 신혼여행이. 신혼여행도 엇어나고.

@1 그 후제라도 남자삼춘이영 어디 강 반지 맞추고 그거 안 헤 줍디가?

#1 그런 것도 허여 주켄 막 허여도 나가 안 허켄 허고.

@1 아고게.

#1 그런 셈은 막 신 사람이라. 첨, ᄒᆞ꼼 키 족은 게 숭이주. 킨이 나영 사민 기자 비둥비둥허여, 키가 좋아. 경허난 난 저 외가에 가민, 우리 외가칩이 가민 저 서방이 족덴 허카 부덴 영 굽어낫어. 서방이, 족은 서방 헷젠 허카 부덴. 어린 때 어떵 허난 그런 생각을 난게게.

@1 아이구야.

#1 경허고 살안 보난 이 모든 게 못 허는 게 엇인 사람이라난. 견디 이 술을 너미 잘 먹언, 술을. 경헤 부난 재기 간 거 닮아. 책임도 아니 진 책임 하나토 엇주게. ᄆᆞ을에고 **에도 다 일름 셔실 거라. 요 번에 때꺼지.

@1 삼춘 연애헐 때 연애 편지 썼덴 허난, 거난 참 자상할 거 같애.

#1 게난 경헌디 거 ᄒᆞᆫ 번 못 봐근에 뭣 헤 부난.

@1 그 연애 편지를 몃 장이나 받아나수꽈, 몃 번이나 받아나수꽈?

#1 그 결혼허염저 헌 후제 기자 졸락졸락 ᄋᆞ라 번 한 댓 번 받아져실 거라. 겐 영 싼에 저 엿날 그 무신 마리에 널 움직이는 디 그 널 들렁 영 그레 곱젼 놧단 그 ᄒᆞᆫ 번은 비 왕 그레 물 온덴 허는 말을 들언에 비 막 들어와 가난 아이구, 이것도 뭣 헐 건가, 그 시집갈 때 입어난 옷이영 허영 다 헤연 놔두난 ᄆᆞ딱 비 완에 뭣 헤 불엇주.

시집살이

@1 게난 시집왕 살림은 여기 시댁에 왕 산, 들어왕 산 거꽈? 시집이 들어왕 산 거꽈?

#1 난 시집왕 나만 안 살아 봔. 시어멍네영 안팟거리에 쭉 살안. 경허영 살단 이젠 시어멍 모녀 돌아가 부난 시아방 십이 년을 ᄃᆞᆯ안 살안.

@1 아이구.

#1 ᄃᆞᆯ안 살멍 첨 나 잘헌 사람 이 동네 사람 알다시디 날 닮은 사람 엇일 거라. 그추룩 허여도 시아방 신디 막 착허덴 말만 들으멍 살앗주게. 어떵.

@1 잘헷구나.

#1 아메도 못 허진 안 헤신ᄀᆞ라이. 경헨에 이젠 십이년 만에 시아방 돌아가 불언. 이젠 또 나만 ᄒᆞ꼼 살단 이젠 또 자네 왕 살켄 허난 아방 가 부난, 시아방 죽엉 ᄒᆞ꼼 싯단 서방 죽어 부난 ᄒᆞ꼼 시난 자네 왕 살켄 허난 저디 살렌 헤 둰 이디 왕 사는 거. 게난 난 나만 살아보지 안허연. 게도 난 ᄒᆞᆫ 번 그 식구덜신디 낫 붉어 본 적이 엇어.

@1 아이구.

#1 모든 거라도 다, 요 먹는 거라도 하나 줄 거 두 개 안네 불민 좋을 거. 요 무시거라도 영 허민 좋을 거 허멍 살아가난 완전 첨 몬 늙언. 게난 난 똘덜ᄏᆞ라도 ᄀᆞᆯ아져. 절대 이 그냥 첨, 놈광 놈은 살당 보민 ᄃᆞ타도 질틴 몰라도 이녁 혈육[서륙]에서 절대 뭣 허지 말아. 이녁이 ᄒᆞ꼼 손해 가 불민 막 존다. 음식도, 음식 중에도 ᄀᆞ뜬 음식이라도 질 맛존 거랑 그 놈 주곡, 그것에서 ᄒᆞ꼼 나쁜 거랑 이녁 먹곡, 경헌 ᄆᆞ음 먹엉 살아사 잘살아진다. 나 경 곧주게, 매날.

@1 멩심허쿠다. (웃음)

#1 아니 똘들 와도 경 곧주게. 게난 시어멍 시아방네영 막 신 똘도 싯주게. 게난 ᄒᆞ꼼 애석헌 일이 셔도 느가 춤아 불민 낸중엔 그 덕이 느신디 또 돌아오는 거여. 경허난 절대 나이 어멍추룩만 허영 살라, 살라 허영 나 경 ᄀᆞᆯ앗주게.

@1 게민 똘은 경 허쿠다 헙니까, 아니민.

#1 아니 똘은 체얌은 아이구, 어멍 닮은 사람이 어디 셔. 영허다근에 이젠 알아수다게, 알아수다게. 경 ᄀᆞᆯ아.

@1 게난 시집왕 시어무니나 시아부지안테 막 섭섭헹 헌 거는 엇어나수꽈?

#1 섭섭헌 것사 무사 엇어게. 셔도 나가 이걸 모든 게 다 나 우이 나 복력 팔자다, 허영 나가 춤아 불주. 에이구 잘도 뭣 헌 것도 셔.

@1 기억나는 거 뭐 ᄀᆞᆯ아 봅서.

#1 에이, ᄀᆞᆯ아 봣자 소용 엇곡, 완전 뭣 허여도 나가 기자 모든 게 나 복력, 나 팔자다, 경 세어 불민 뒈어.

@1 남자 삼춘안티 섭섭헌 건 엇어나수꽈?

#1 남자 삼춘안티, 남저도 원체 페라운 사람이난 어떵헐 거라게.

@1 아, 페라운 사람이라수꽈?

#1 완전 페라운 사람.

@1 막 자상허게 잘헤 줫잖아. 편지도 경 쓰고, 연애편지도.

#1 그추룩은 허여도 왁 허민 ᄀᆞ딱 못 허는 사람. 경헤도 놈 알건이 ᄒᆞᆫ 번 싸워 보지 안 헨. 저 집이 싸완 경헌 말 들어보지 안허연.

@1 싸우지 안헨.

#1 나가 춤아 불민.

@1 아이고게.

#1 겨곡 막 이녁이 답답허민 밧디 강 이녁만 일허멍 막 노랠 불러 부는 거라이. 이녁냥으로. 노래 불르당 보민 또 막 울어져이. 우는 노래도 잇지. 경 막 울당 보민 해도 지곡, 낮도 뒈곡 허영 밥 먹으로 와 가민 거 꺼지고. 경허멍 살당 보난.

@1 혼자 풀엇구나. 혼자.

#1 으, 혼자 허고 혼자 풀고.

@1 아이고, 어떵헤.

@2 경허민 홧병 나는디.

#1 경허난 동네 사람덜토 보통 나 아는 사름은 아이고 저 성호 어멍 닮은 사람이 어디 셔게. 영 골아. 난 나냥으로도 경 허영. 경허난 아기덜ᄀᆞ라도 절대 시부모네영 시누이영 궂지 말라이. 궂지, 궂지 말젠 허민 이녁이 ᄒᆞ꼼 애석헌 거 춤아 불민 뒈는 거여. 경 곤주게.

@1 음.

#1 경허연에 첨 살아 완.

@1 게민 남자삼춘안티 결혼헹 살멍 막 고맙게 느껴지는 건 뭐가 이수꽈?

#1 뭣 허는 거?

@1 고맙게. 고맙게 느껴지는 거. 남자삼춘이영 결혼헹 살멍 아이구, 이건 잘헤졋구나.

#1 그건 나가 무시거 불편헌 점 셔근에 허영 춤으민 그게 춤은 게 너미 고맙덴 허여게. 경허난 그 말 들어가민 더 춤아지는 거라.

@1 아, 남자 삼춘이 삼춘안테 영 춤으난 고맙덴 헤, 말은 헤 줫구나예.

#1 으.

@1 자상헌게.

#1 경허연. 경허연 첨 이거 열여덟에 시집완 이거 이제도록 살아도 ᄀᆞ딱 누게영 궂어 보질 안헷저, 나 이제도록 살아도.

@1 게도 열여덟에 시집왕 저기 쉰여덟까지 살아시난 사십 년은 ᄀᆞ치 산 거우다예. 사십 년 ᄀᆞ치 산 거.

#1 성질은 막 페라와도 첨, 그런 건 ᄒᆞ꼼 알아 줘. 겨난이 이 사름 사는 게 영 살아 보난 아무것도 아닌디. 생각헤영 보민. 게난 이녁이, 저 사람이 ᄒᆞ꼼 불편허다 헌 때 이녁이 ᄒᆞ꼼 춤앙 놔두민 새로 새로와지는 거.

형제자매

@1 삼춘 형제는 몃이렌 헤수꽈?

#1 우리 형제?

@1 으. 삼춘네 형제.

#1 형젠 오래비 두 개, 아시 두 개. 너 오누이로구나, 우리. 아니, 다섯 오누이로구나. 경허난 아시 하난 미국 간 살암고, 아시 하난 서울 살암고.

@1 오래비 둘, 아시 둘?

#1 으, 아시 둘.

@1 삼춘은 몃 번째?

#1 나 쳇 번째.

@1 쳇 번째난 남자 동생 둘, 여자 동생 둘예.

#1 으. 경허난 다 육지 살암주게, 야네. 오래비도 서울 살암고. 요 샛아신 미국 간 살암고. 막둥인 서울 살암고. 겨난 이 일 못 허고 놀아졈시민 서울도 강 막 뭣 허고 헐 건디 이젠 이 어디 오몽을 못허연 안 뒈크라. 잘못 허영 뎅기당 비들락허민 뭣 허여근에.

@1 맞아마씨.

#1 나가 그걸 무사 느껴시닌 전이 우리 ᄉᆞ춘 동세영 이 ᄆᆞ을에서 막 여행덜을 가주게. 갈 때 ᄀᆞ치 가민 그 ᄉᆞ춘동세가 잘 못 걸언. 아이구 영 차에 ᄂᆞ령 보민 그 성님은 저만이 떨어지고 우린 또 돌아와근에 그 성님을 둘앙 가곡 헤근에 차에 올리곡 헤나난 그때부떠 아, 이거 이녁 몸을 빨리빨리 움직 못 헐 때 놀레 뎅기지 말아살로구나. 경 ᄆᆞ음을 먹어젼게. 그추룩 헤젼게.

@1 피헤 안 끼치젠만 헴서, 삼춘은.

#1 난 그추룩만. 무사산디.

결혼 전 연애 경험

@2 삼춘 남자 삼춘이영 결혼허기 전에 삼춘 좋덴 쫓아뎅기는 남자들은 엇언마씨?

#1 못 들으켜. 뭣이엔?

@1 삼춘 시집오기 전이예, 동네에서 삼춘 좋덴 쫓아다니는 남자덜 엇어나수꽈?

#1 아이고, 이 사름 구허엿저, 허여 부난이 완전, 이 동네 사람도 막 셔난, 이 동네 사름도. 저 사름신디 가젠 허난 이제 뭣 헷젠. 그추룩 헹 막 헤여난게.

@1 게난 삼춘 열여덟 살에 시집온 거민 친구들이랑 생각허민 일찍 온 거지예?

#1 어떵 헌 거지?

@1 열여덟 살에 결혼헷잖아예. 그때 친구덜 시집간 사람 잇어나수꽈?

#1 시집간 사람 엇어난. 아무도 엇어난.

@1 그니까 삼춘이 맨 모녀 헌 거지예?

#1 나가 질 모녀 간.

@1 질 모녀 간. 큰딸 젤.

#1 그난이 평지동에서도 시집간 후제도 막 장난으로 골아 불어. 이제 ᄀᆞ뜬 연걸이난에 이녁 구허젠 이 사름 이름 불르멍 모녀 구헤 불엇젠 허곡. 막 아메도 꿈 꿔난 사름이 ᄋᆞ라이 셔난 셍이라.

@1 게난 한 스무 살 뒈민 뭐 헤실 건디, 일찍 가 불언.

#1 경허고 이디 우리 오래비, 오래비 뒐 처렌가. 오래비가 서울 뭣 헌디 허영 누님 시집보내젠 허난 그추룩 가 불엇젠 막 곧고.

@1 아, 오래비도 누구안티 소개시키젠 헤신디.

#1 으, 서울 사름신디. 대학교 그때 나왕 졸업허민 훈 번 누님신디 가젠 허단 보난 경 재기 헤 불엇젠 허멍 막 골아.

@1 삼춘은 공부 안 시켜신디 오래비는 대학까지 시켜수꽈?

#1 똘이라 부난 공부 안 시긴 거 닮아, 우리 어멍네가. 옛날이라 부난.

@1 오래비는 대학교까지 시켠?

#1 대학교까지 허연.

@1 아이고.

#1 똘덜도 고등흑교꺼지 다 허연 다른 똘덜은.

@1 아시들은. 삼춘만 공부 안 시켠?

#1 나만 못 시견. 저 뭣고 아시덜은 막 곽곽허멍 어멍신디 대들멍 아메도 흑교 허켄 허고 나도 또시 공부헤산덴 막 나가 후회허는 따문 허고 허난에 그추룩 다. 이녁 배울만이덜 배완. 견디 난 이 글을 하나토 몰라낫주게. 연애편지 썽 준 것도 익을 충 몰란에. 이제 일 못 허연에 베려 가난 한글은 거자 알아졈서, 이제.

@1 삼춘.

#1 게난 늙어도 한글은 뒈는 거.

@1 게난 삼춘 어무니안테 나 무사 공부 안 시켜수꽈, 섭섭허진 안 헤수꽈? 골아보진 안 헤수꽈?

#1 무사 안 허여게. 완전 섭섭헷주게. 울멍, 울멍도 헤낫주게. 경헌디 우리 친정아방이 우리 욕안 보난 아픔만 헨게, 아픔만 허난 농촌에서 아방은 드러 아팡 고 고 허고 어멍만 일허젠 허고 허난에게 이 흑교 허고 안 허고 헨에 뭣 헤 분 거 닮아. 경헌 거.

@2 첫 번차니까.

#1 견디 이제 아시덜토 무시거엔 전화오민 나 공부헴저, 저 책 익엄저, 경 골앗주.

@1 아시덜은 중학교꺼지 헤수꽈, 국민학교만 헤수꽈?

#1 아니 고등학교꺼지 허연.

@1 아시덜도 고등학교꺼지 허고 오래비들은 대학교까지 허고.

#1 으. 경헌디 아메도 그 살아올 때 뭣 헌궈라 우리, 난 못 보내연. 견디 못 가게 헤도 왁왁 허멍 가사 뒈는디 난 경을 못 헤난 거 닮아. 견디 난 이제 아시덜ᄀᆞ라도 전화 오민 야, 늙어도 글은 알아졈저게. 이녁아피 한글은 놈 주지 안허영 알아지켜게. 경허민 아이구, 언니 잘헴수다, 잘헴수다. 경 골으멍 헴주게.

@1 예. 또 질문 잇습니까?

@2 없습니다.

7.

성산읍 신양리 김옥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4월 1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김옥자

해녀로 일한 경험

#1 이제 육십 년, 육십오 년 전에 헤난, 우리 물질허멍 제주도 뱅뱅 다 섬 아냐게. 그때에 어떵 헤신 허믄 그 말을 나가 모녀 굴아 주마.

@1 좋수다.

#1 왜냐면 나가 해녀기 때문에. 그때는이, 고무신 샤, 무시거 이샤게. 저 속곳허고 물적삼허고 속곳 입언에 물질 헐 때 아냐.

@1 맞수다게.

#1 경헨 허난 ᄒᆞ루에 물에 세번 들어세. 강 불 초다근에 또 ᄒᆞᆫ 오 분 강 또 물질헤여근에 나와근에 또 무신 양말을 신어시냐, 장갑을 쪙 헤시냐. 물적삼허고 속곳만 입언에 허고. 쳇 번은 물적삼도 안 입언 속곳만 입언 헷저. 겡허멍 헐 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물질 허멍 나가 열세 살부터 물질을 헤신디 물질허단에이, 이제 ᄎᆞᄎᆞᄎᆞᄎᆞ 열세 설에 ᄒᆞᆨ교 강 오민 더우민 이거 바로 우리 이 집이, 이 집이서 시집을 왓저, 나가.

@1 예.

해녀 공연, 방송 출연 경험

#1 저디서, 이디서 처음 우리가 살아나신디 저쪽으로 이서가신디 또 시집을 오난 이 집을 온 거라. 겡헨에 물질을 간, 갈 때에 이제 저 신랑 보고 양, 애기 둡서양. 그때는 남저가 제주도 안에서 남저 헐 거는 이제 잠대 들엉 농사헐 때 밧 갈아주는 거허고, 우리 이제 각시덜 갯것이 가 불민 애기 돌아주는 거 ᄒᆞᆫ 거뱎이 엇엇어게. 무신 지금사 서울 못지 안 허게 다 직장 잇이난 노는 사람이 엇주게. 경헌디 물질을 가멍 애기 둡서 허난에 자꾸 빈입에 애기만 돌렌허고 소주라도 ᄒᆞᆫ 펭 사다 주멍 먹으멍 애기라도 돌렌 허주 허멍 허난에. 나가 이젠 애기를 춤 빌엉 돌젠 허난 소주를 ᄒᆞᆫ 평을 사다 준 거 아니. 사다 주난에 그때는 ᄉᆞ랑헌 구덕에 애기구덕 헤여근에 흥글엇어. 몰라, 젊은 사람덜도 알 건가. 몰라.

@1 애기구덕 봐낫수다.

#1 애기구덕 봐낫어? 영 ᄉᆞ랑헌 거.

@1 나도 거기서 커실 거우다.

#1 응. ᄉᆞ랑헌 구덕에이. 겡헨에 이제 애길 이젠 흥글엉 재우렌 허멍 제우 애기 갯것이 강 올 동안 돌렌 헹 놔두난 저 갯것이 간 완 보난이, 애긴 어퍼젼에 애기구덕에서 울당 울당 줌들엇고, 신랑 뒌 사름은.

@1 술 먹엉 줌자고.

#1 그자 드러누원 원 천지 몰르게 헹 잠시난 갯것이 강 오난 그걸 보난 용심이 안 날 거냐. 일려서, 이거 뭐 허는 짓이꽈? 애기 잘 돌렌 헨에 술이영 사당 줜 놔두난 이거 애기는 이거 구덕 소곱이서 어퍼졍 울당 울당 자고 당신 이거 이거 허는 것이 무시거우겐 허멍 허난에이, 날 주룩허게 ᄯᅮ리젠, 각시를, 존소리 헴젠. 주룩 헤근에 ᄯᅮ리젠 허난 그때에 이제 춤 나가 허는 말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엇덴 헨에 나가 노래를 불럿어, 그때이.

(노래) 물로 병 병 도랑 섬에 삼시 굶고 물질허여. 한 푼 두 푼 모인 금전 정든 임 술값으로 다 들어간다. 당신은 술만 자시고 놀기만 하여도 살건마는 이 내 몸은 추운 물살에 두루박 생활이 웬말이요.

#1 왜 때려 혼 말은 나가 이젠 존소리 헴젠 나 주룩허게 뚜려 가난 나가 도망가면서 허는 소리가.

(노래)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당신이 나를 왜 때려요. 옷 버물면 옷 빨아 주고 배고프며 밥 지어 주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에 밤 자리까지 재와 주고. 당신이 나를 왜 때려요.

#1 허난 그말 끝에 나가 너를 뚝 때릴 적에 아프라고 때렸느냐 사랑에 넘쳐서 뚝 때렸으니 조금도 섭섭히 여기지 말라. 이거를 나가 니네신디 이거 노래ᄁᆞ지 불러 주는 건 나가 영화제를이, 서울 간 영화제 허는 디 참석헷고이, 또이 그것이 서울 간에 우리 영화제 헌 것이게. 그것이 반응이 좋안에 이제 영도서 초청을 허는 거라. 겐에 또 영도 간에 나게 서방이 영도서 버스 운전을 허당 죽은 지가 이게 오십삼 년 뒈세게. 나가 서른셋에, 이제 서른셋에 홀로 들언이, 애기 아들 둘, 똘 둘 ᄉᆞ남매를 다 키원에, 이제 손지ᄁᆞ지 스물네 개여. 그 애기, 너 오누이에 난 애기들이. 경허멍 세상을 이제 살아 오난 부산이엔 허민 나가 몸서리 낭 갈 생각이 어신디 그놈의 영화제 따문에이, 오십삼 년만이 영화제 따문에 영도를 가와세. 간 보난이 영돗다리, 우리 부산 살 땐 영돗다리가 들러야 객선도 넘어가곡 헤낫저. 게난 지금은이, 영돗다리가 어디 곱아벳언에. 완전이 다리가 새로이 난에이, 완전이 크게 꼬불꼬불허게 막 다리가 나지곡 헨에. 경헨에 그때도이, 나가 무대에 올라간에 노래 불르고 이걸게 나가 설명헨에 허는 땐에이, 아니 우는 사람이 엇어. 다 손수건 가졍 다 울고이, 육지 사람덜이라도이, 그 노래 불르고 나가 이제 설명을 헤 주는 걸 들엇단이, 아니 우는 사람이 엇언에. 나가 무대서 내려 오난 날 보듬고 고생허면서 춤, 살아 왓젠 허멍이 막 그추룩 헤라게. 영도는 가난 이제 제주 해녀가 나옵니다, 허난 나 이 노래부터 모녀 나오는 거라. 경헨 저 나 영화제 가온 책이 두 개 다 잇저.

@1 아이고예, 좋습니다.

#1 겡헨에이, 겡헨 헷기 때문에 나가 이거 해녀로 헨에, 나 이 바다가 터전이고이, 애기 사 남매도 바당 때문에 키웁고, 나가 일본 저 사도, 북해도ᄁᆞ지 물질허레 뎅겨시녜게, 나가. 북해도도 네 번 가 왓저. 저 저 일본도. 오사카로 이제 대판으로 저레이. 경허멍 물질을 허멍 헤난 그 고생 허멍 살아온 걸이, 시방 나ᄀᆞ치 고생헌 사람이 엇다. 경허당 보난에 이추룩 테레비에도 나오곡.

@1 유명인이 뒛수다. 이제는예.

#1 이제 경헨에게 고생을 헷기 때문에이, 날 춪아오는 거라. 경 안허민 날, 무시거 허레 이 할망을 춪아 오느니. 거난 요자기도 일본서 오란에게, 우리 촬영허레 완에이.

@1 일본에서도 촬영허레 와십디가.

#1 응. 일본서 완에이.

@1 아이고. 해녀 촬영하는 거.

#1 계장 똘허고, 계장허고 나허고, 나는 물에 안 들언에 계장허고 계장 똘만 물에 들고 나는 이제, 계장은 똘로 생각허고 이제 계장 똘은 손지로 생각헨에 이젠 잡아 온 물건을 나가 이젠, 이걸 잡아 오면은 이거를 이제 깨어근에, 돌로 깨어근에 칼로 썲ᄁᆞ지 다 헤연, 해섬도 헨에 다 썰언에 겡헹 초장에 찍어 먹으면 제주도에 해녀들이 잡아 온 음식 중에 제일, 뭐 탈도 없고 이제 금방 잡아 와서, 이제 알다시피 좀수들은 막 물에 들 때라. 경허난 탈도 없고 이제, 이제 제주도 해녀들을 춤 해녀 하나 벌어서 세상을 이제, 애기고 서방ᄁᆞ지 다 키우멍 살앗젠. 경허멍 그런 첨 인터뷰를 헤 주멍 헷저게. 경헨 헨에 요자기도 일본서 오란에이 첨, 취재헹 가세.

@1 게난 삼춘이 말씀을 재밌게 잘 허난예, 영 인터뷰허켄 허는 사람들도 하영 왐수께.

#1 (웃음) 근디 다 게 아멩헤도 이젠 젊은 사람들이 첨 허주. 이젠 나이가 들어 노난이.

@1 아니, 아니. 우린 옛날 거 들으러 온 거. 옛날 거. 옛날 게 더 좋은 거. 요새 것들은 젊은 사람들도 알고예, 우리 몰르는 거 기록헹 놔두젠 허난 들으는 거.

#1 거난 시방 나 말헌 거 있지이, 노래허곡 헌 거. 그거 진짜 저이 우리 제주도는이, 해녀 없는 디가 없잖아. 거난 일본 사람이 완 요번이 촬영 허멍 나신더레 경 골안. 어떻게 해서 제주는 이렇게 해녀가 많아요, 경허연. 아, 제주는 당신네가 제주 올 때는 섬인 중은 알고 오는 거 아니녠. 뺑뺑 돌아가면서 다 물이고 이제 뺑뺑 돌아가면서 해녀 없는 부락이 엇덴 골으멍 헨에 첨, 헤연 촬영을 헷저마는이. 게난 일본사람덜토이, 나도 초청헨에 첨 일본 저 거시기ᄁᆞ지 그 읍사무소로도 초청헨에 일본을 가왓고, 이제 그 읍장네영 다 ᄀᆞ치. 겐에 한공희 씨가 살 때에, 국회의원 뒐 때에이, 첨 안 가본데 엇이 나도 첨 뎅겻저게, 일본도. 일본은 가민이 물에도 들엉 보민 똑 제주 바당이나 마찬가지라. 근디 일본은 가근에이, 붉은 성게가이, 이제 잇어. 겐 붉은 성게를 세숫대야로 하나 잡으민이, 돈도 세숫대야로 하나.

@1 아이고.

#1 막 붉은 성겔이, 일본 사람덜은 경 알아줘녜게. 경헌디, 규칙이 딱 지켜진 거는 이녁이 성게를 사면은 성게만 딱 잡아야지 전복이 가 가민 이레 이만썩 헌 것이 탁 탁 부터도이, 그걸 못 허게.

@1 안 봐. 하면 안 돼.

#1 못 허게.

@1 불법이라.

#1 거난 혼 번은이, 야, 우리가 서이가 가신디, 야, 저거 ᄒᆞ나 터근에이, 옷 소곱에 곱지켜. 곱졍 강이, 술작 사감 몰르게 옷 벗을 때랑 옷 소곱에 곱졍 강 우리 저녁에랑 썰어 놩 전복밥을 헹 먹게. 경헨에이 ᄒᆞ나 혼번 옷 소곱에 곱졋단이, 저 옷 벗을 때는 그 기간장 보지 안허는 디서 우리가 옷을 벗지 아녀냐. 게난 벗을 때 술쩨기 옷 소곱에 앗앙 완에 밥헐 때에 썰어 놘 밥헹 먹어낫저.

@1 아이고. (웃음)

#1 (웃음) 경허멍 저 우리 일본은 멧 벤 가왓저. 오사카에서 초청헨에 읍사무소에서도 가 오고.

제보자 정보

@1 예, 예, 예. 그건 나중에 또 듣기로 허고예, 오늘은 결혼허는 거 물어볼 거라예. 겐디 처음서부터 하나씩 물어 보쿠다예. 저 삼춘 이름도 알고, 아들딸 아까 몃 개 있는 건지도 아는디 요기 담아야 할 거라 부난, 삼춘 성함이 어떵 됨수꽈?

#1 성함이 김옥자.

@1 아, 예. 몃 년생이시꽈?

#1 지금 나이로는, 원 나이로는 팔십일곱인디 이제 주민등록 상으론 사십 년이 뒛어. 삼십구 년생인디이.

@1 원래는 삼십구 년생예.

#1 응. 경헌디 사십 년생으로 뒛주게.

@1 응. 기구나예. 삼십구 년생. 어디서 태어나수꽈?

#1 나가 남도 이 집이서 나고 이제 시집도 이 집으로 또 온 거라.

@1 아?

#1 우리 부모네가 육지여게.

@1 예.

#1 육지난 육지서 이서 완에이.

@1 육지 어디마씨?

#1 저 벌교.

@1 벌교에서 들어온 거.

#1 벌교에서 우리 어멍네가 살단에, 우리 큰아버지가 김녕을 살앗저게. 큰아방이 김녕 사난에 큰아방 따란에 우리 아버지도 이제 같이 여기 오고, 또 우리 외삼춘도 이디서 완에, 육지인디 이디 완 살아낫저게. 저 술장사 허멍. 살아난 따문에 기자 결련 결련 외삼춘이영 우리 큰아방이영 따란 오단 보난에 우리가 이디, 우리 낳기 전이 이디 왓어. 우리 어멍네가. 난에.

@1 아버지 결혼헌 후제예?

#1 응게. 결혼헨 나, 우린 안 난에. 저 낳기 전에.

@1 응.

#1 겐에 김녕서 이제 완 살단에 이 신양이 온 후제 이제 우리 아버지네가 처음 이 집을 빌언 완 살앗어이. 경허단에 저짝 동동네엔 헌 디 간에 저 집을 이제 새로 그땐 빌지 안현에 삿어. 산에 이제 그디 간 사난 우리도 이젠 그디 간 거 아냐. 간 건디 아, 시집은 오게 뒈난이, 이디가 고잡칩[17] 허민 훤허게 안다게. 이제, 이제 저 고잡칩이 어디꽈, 허민 원 다 알아 이딘. 거난 이젠 고잡.

@1 이 동네 고잡에서 온 사람이 이집뿐이랏수꽈?

#1 응, 우리 집뿐.

17) '고잡칩'은 '고잡'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로, '고잡'은 수산2리의 옛 이름이다.

#1 우리 두 동세, 우리 시아주방이영. 거난 우리만 이디 오난 고잡칩이엔 허민 안다.게난 우리 첨 시집을 오게 뒈난 우리 외삼춘이 그때 완 보난에 저 이장을 헴서라. 이 부락에서. 이장을 헴시난 우리 외삼춘도 광산김씨고, 우리 아버지도 광산김씨라. 경허난이, 서로 이제 오난에 육지서 와도이 ᄀᆞ튼 광산김씨엔 헨에이, 궨당 궨당 허멍 이제 이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잘 챙겨주고이, 이제 처음 오민게 오죽 곤란허느냐게. 배급 주는 것도이 똑 챙경 주젠 허곡이. 그추룩 허멍 그땐 배급 타멍 살아세게. 경헹 허난이 경헨 첨 산건디, 그 외삼춘이 날 소개헌 거라. 이디가 우리 외삼춘 제일 족은누이, 누이 집이라낫어. 경허난 우리 외삼춘 이제 제일 막넹이 동생 메느리로 나가 왓주게. 고잡칩이. 거난 우리 그 외삼춘, 우리 시어멍이 제일 우리 외삼춘으로 헹 막넹이 여동생인디.

@1 외삼춘이엔 허민 어무니에.

#1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멍.

@1 아, 시어머니.

#1 시어멍 오라방.

#1 경허난 이젠.

@1 시어머니에 오라방이 누구라?

#1 시어멍에 오라방이 이제 우리 아버지네가 육지서 이디 이사 오난 이장을 헴서렌, 이디서. 이 부락에서.

#1 겡허난에 성이 광산김씨라.

#1 경허난 이제 궨당 궨당, 광산김씨난에 궨당 궨당 허멍이 우리가 이제 이추룩 제주도에 이서와도 이장이 잇은 따문에이 이런 처음 왕사 무신 아무것도 엇이난게 곤란헐 거 아냐게. 게난에 배급 타멍 먹엉 살 때난에 그 이장이 경 배급도 챙겨 주고.

@1 게난 시어머니 성이 광산김씨꽈?

#1 김씨, 응. 우리 시어멍도.

@1 근데 저기 우리 삼춘네 아부지도 육지서 와신디 광산김씨난 경 여기서 이장 허멍 경 챙겨 주신 거예.

#1 응, 거난에 그 우리 외삼춘이 소개헨에 누이동생 메느리로 날 오게시리 헌 거라. 겐에 이제 우리 외삼, 우리 시어멍이 고잡을 시집을 갓어. 고잡을 시집을 가신디 이제 고잡서 살단에 이젠 우리 시아방네가 이디 이서오게 뒈난 이디 완 사는디 아이, 날 이제 외삼춘이 소개헨에 이제, 우리 저 조케 메느리로 허게 허켄 허멍 지네 여동생 메느리로 날 이제 소개헌 거라.

#1 경헨에 날 이제 고잡칩이 시집을 온 거여게.

결혼 시기, 시집 식구

@1 게난 여기 왕 살당 시집온 게 삼춘 몃 살 때 결혼을 한 거마씨?

#1 결혼이게, 나가 열아홉 설에 왓저게.

@1 열아홉 살에.

#1 열아홉 설에 완에이, 이제 열아홉 설에 결혼을 헤신디 이제 서른셋에, 서른셋에 서방이 부산서 운

전허당 갑자기 돌아가게 뒌에, 겡헨에 이제 버스 운전을 헷저게. 동래 온천서 이 서면 가는 버스도 헤나고 겡헨 헤신디게, 기자 갑자기 심장마비로 자당 죽어 분 거라. 우리 신랑이. 겡헤 부난 나가 이제 혼자 사난. 우리 시아방이 아들 죽어 베도게 그렇게 메느리한테 효자여게. 나 바당에 강 오민이, 메느리 오민 배고픈덴 허멍 왕 보민이 밥 다 헤근에이 밥 출령 야, 고무옷 내불라. 옷 내불라 나 헤왕 널크메. 밥 먹으라, 밥 먹으라, 허멍이 그추룩 허고.

@1 시아부지가마씨?

#1 우리 시아부지가.

@1 시어머니는 엇어낫수꽈?

#1 시어머니는게, 게메 나 안 골암샤게. 열아홉에 시집완에 서른셋에 죽어 부난.

@1 아, 시어머니가 서른셋에 돌아가신 거.

#1 셋에 죽어 비언. 응, 서른셋에 죽어 불고 난 이제 거시기 서른셋에 서방 죽어 불고. 시어멍 죽거니 언만 엇엉 또 서방도 죽어 비언. 거난 시아방이영 ᄀᆞ치 헨 살아세게.

@1 아, 그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곧 남편이 돌아가신 거구나예.

#1 응. 기여게. 경헨 허난에게 우리 시아방이 이제 아들 죽어 분 거보단도 나 혼자, 젊은 사람 어떵헹 살렌 헨에이, 게나건 물에 들레 강 오민 다라 두 개 앗으곡이, 모살에 보다근에이 가민 일로부떠 들민 섯으로 광어로 가오리로 문어로 오분작으로 테왁 망사리, 망사리에 입빠이[18] 차사 나가 나나 세. 게민 다라 ᄒᆞ나에 못 담으민 우리 시아방이 다라 두 갤 앗아근에 일로 헤근에 ᄂᆞ려왕 모살에 왕 기다려.

@1 게난 저기 물질허멍 영 먹고 살앗구나예.

#1 어게. 나가 곧지 안헴샤. 거난 나가 바다가 터전이고이, 밧농서 헌 걸로는 아이덜이 첨, 공부 ᄀᆞ르치기 힘들어.

#1 겡헤도 나 혼자 벌멍 물질허멍 그 애기들 대학교 다 시키고게, 허멍 다 키완 시집 장게 다 보내고 헨에 헤연 살아세게.

@1 게난 시댁이 고잡이라도 고잡에 강 산 건 아니고 죽장 여기.

#1 응. 이디 완. 시집오난 우리 시아방네가 모녀 이디 이서를 나 시집오기 전이 이디 이서완 살아 부난 외삼, 나가 이제 첨, 어릴 때도게, 아멩 밉게 안 봐신고라이, 그 우리 시외삼춘도게, 그렇게 이제 막 저 조케 메느리로라도, 조케 각시로라도 헤 가켄 허멍이, 그걸 날 이제 소개시킨 거라. 누이동생안티. 겡헨에 이젠 첨, 허난 첨 동네서 시아방은 나가민 메느리 자랑, 난 시아방 자랑, 그추룩 허멍이, 오민이 시아방이 서방은 죽어 벵 엇고 시어멍도 엇고 허난 시아방을 의지헨 살아세게.

@1 그니까 시아부지도 메느리 의지헹 살아신게마씨.

#1 응. 기여게. 나 완에 시아지방 두 개 다 풀아, 시누이 두 개 다 풀아. 나 완 보난 큰 시누이 두 개, 젤 큰 시누이 우로 두 개만 시집을 간에 알로 두 개는 시집도 안 가고, 시아지방은 하나토 장게도 안 갓어라. 두 개, 두 개. 아덜이 몬딱 헨 삼 형젠디, 큰형 죽어 부난에 이젠 샛시아지방허고 족은시아지방 나가 다 잔치헨에.

@1 거난 남자 삼춘은 위로 누나가 둘 있고, 남자 삼춘 있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1 우리, 나가?

@1 응. 남자 삼춘?

#1 우리 저, 시삼춘이?

@1 예, 예.

#1 아니, 우리 저디 이장허는 시삼춘?

@1 아니, 아니, 삼춘이 시집간 남편이.

#1 시집간 거시기에 거기 게메 나가 큰아덜이고, 나 밑에 이제 아들 두 개, 딸 두 개.

@1 우에 누나는?

#1 우에 누나 두 개.

@1 예. 맞수다.

#1 겡헨에 헷어네게. 저 누나 두 개는 나 시집오기 전이 시집갓고, 게난 시방 난산리 제일 큰 시누이가 이제 난산리 시집을 가신디 서방허고 각시, 우리 시누이허고 세 설 난 완 보난, 시집오난 우리 시어멍 허는 말이 세 설 난 손지가, 손지허고 그 사삼에 올라간에 굴 소곱에이, 간 살단이, 서이가 다 죽게 뒌디 애긴 어떵 헨 총을 안 맞안 애긴 안 죽연에 시누이 허고 시누이 서방만 총으로 쏘완 죽이고, 애기 세 설 난 건 그 똘라졍 베롱허게, 어디 사람 말소리만 나민 엄마, 엄마 허멍 그 산 채로 울멍 댕경, 영 가민, 저거 내쫓으라, 내쫓으라. 저거 내쫓치지 않으민 우리ᄁᆞ지 죽나 허민, 내쫓아 불민 딴 디 가민 엄마, 엄마 허멍 세 설 난 것이 돌아뎅기멍 기추룩 허난 세 번찬 가난에 저거 살려 놩은 우리도 죽나. 저 죽이라, 죽이라, 돌멩이로 입 막안에이, 세 설 난 거 죽여 벳어. 사삼에. 경허난이, 우린이, 사삼에 간 죽은 중도 몰랏저게. 겐디 우리 시어멍이 완에 허는 말이, 나 시집오난. 그 콩콩콩콩 천징을 걸련에이, 홧병으로이게, 할망이 지침만 허멍 헨에 살단에 나 시집완 얼마 엇언 죽어 베세게. 몃 둘 안 살안. 게난 이제 무사 영 헴수꽈, 허난에 세 설 난 거, 그 경헤도 지금이난 사삼으로 알암주, 그땐 사삼 생각을 안 헨, 안 헤세게. 지금 이제.

@1 맞수다, 맞수다.

#1 응. 게난 그자 경헹 죽어신가만 나가 헤신디 우리 시어멍은 얼마나게, 그 세 설 난 거, 어멍 어멍 돌아뎅기당 그 입으로, 돌로 입 막아근에 죽여 불 때, 죽여 벳젠 허난에 오죽 거 화가 날 거냐. 게난 우리 시어멍이 벵 난에 그 벵 고치지 못헨에 죽엇저게.

부산 왕래

@1 삼춘 다른 디 강 살아 본 이수꽈? 부산 강 좀 살앗구나예.

#1 응. 부산, 신랑이 부산 버스 운전을 허난 오멍 가멍 헤세. 시아방이 살아 잇어 부난 시아방이영 애기들이영게. 경허난 기자 임시 강, 저 서방신디 가구정 허민이, 아부지, 애기영 ᄀᆞ치 헹 애기들이영

18) '입빠이'는 일본어 'いっぱい'에서 온 말로, '가득'이라는 의미다.

보멍 살암십서. 가게 뒈민이, 서방 보레 가젠 헤민이게, 고사리, 그땐 가멩이로 저, 구부리 헤근에이, 물른 고사리 받아근에이, 겡 헤근에 강 부전시장에 강 넹기고.

@1 아, 장사헷구나.

#1 장사헷주게.

#1 또이게, 물에 들어근에 홍삼 잡으민이, 해섬 잡으민이, 그걸 해섬 헤근에 지름통에이, 해섬 그 청깡에 그거 해섬덜 받아근에 서너 깡썩 헹 가 오곡.

@1 그 해삼을 생물로 아니면 물령?

#1 아니게.

@1 지름통에, 어떵?

#1 그 저, 무시거니? 청통 있지 아녀냐게? 깡, 깡으로 만든 그 통에 저, 해섬을 이제 서너 통썩 그거 이제 해섬 줌수들안티 ᄀᆞ치 물질 허멍 야, 나 해섬 나이, 부산 가멍 상 가켜 헤근에 그땐 어촌계도 엇엇고 수협도 엇어나세게. 그때. 거난, 경헹 허고게, 고사리 또 미깡. 미깡 동네 사람헌티 부탁헤근에 이제, 저 나 강 풀앙 왕 돈 안네쿠다 헹 외상에 헹 앗앙 강이, 이제 상훼 강 넴겨근에이.

@1 장사꾼인게 완전.

#1 거난, 거곡 우리 어머니네가이게, 그축 곤란헹 살아도이, 다 이 동네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엇어나세, 그때. 경헤도이게, 날 국민학골 보낸, 동남 이십육 회 졸업생이여마는. 게도 야, 국민학골 보낸에이, 허난 눈을 트난이, 경허난 그 장사라도.

@1 계산 헤지는 거라예.

#1 기여. 계산 헤지고 눈으로 글도 써지고 허난에 그 장사를 헌 거라. 겅 아니민 헤지느냐. 아이고, 야, 야.

@1 맞수다. 맞수다.

#1 경허멍 첨, 저 살아와시녜게. 거난 강 오민이, 우리 시아방은이, 감 동안이라도 족은메느리안티 밥, 나 오기 전에 저, 그적에 족은며느리안티라도 강 밥 ᄒᆞ꼼 얻어 먹엄십서 허민, 내불라, 나대로 헹 먹켜. 겅허멍이 나 강 와도 족은며느리안티 밥 ᄒᆞᆫ 때를 안 먹어. 똑 당신냥으로 헹 먹곡. 이제 나 오민, 나가 헤 주민 나 밥을 먹어도이, 이제 ᄀᆞ치 사는 며느리한테 신세 끼치주, ᄯᅳ로 사는 며느리한테 안 허켄 허멍이, 경허멍 당신대로 밥도 완 보난 ** 먹고. 첨, 시아방은 날 믿고 난 시아방 믿고이, 서방 엇이난 어떵 허느니.

@1 경헹 살아온 거.

#1 응, 경허난 시아방안티 애기 맡겨 둰, 그 일본으로 북해도ᄁᆞ지 물질허레 다 뎅기고게, 어디 새섬으로 남해지방으로 나 육지 안 가본 디가 잇이냐.

@1 게난 부산 강도 막 오래 몃 년씩 살고 그건 아니지예?

#1 아니, 아니.

@1 그냥 왓다가 며칠.

#1 응. 강 신랑 보구정 허민 강 장사헹 이녁 차비나 끼령 뎅기젠. 경허난 오멍 가멍 차빈 안 들잖아. 나가 가근에 장서헹, 가민 그거 강 넹기민 돈 받아근에 차비 허고. 그추룩 허멍.

시외삼춘의 중매

@1 게난 신랑은 시외삼춘이 소개헹 결혼을 헷덴 헤신디, 시외삼춘이 중매를 선 거라예.

#1 응, 기여게. ᄀᆞ튼 궨당, 궨당 허멍, 광산김씨엔 허멍이, 겡 우리 아부지, 친정아방안티 간 막 꼬셔 놘 날 이제 이디, 지네 동생 메느리로 날 오게 헌 거라.

@1 겅헹 소개허난 그 남편을 얼마만이 소개헤 줘 영 결혼을 허게 뒌 거꽈? 오래 영 만난 거꽈, 아니민 소개헹 바로 결혼을 헌 거꽈?

#1 아니. 그때이, 나가 저 이디 결혼헤실 때는 신랑이 군인 갓어라.

#1 군인 갈 때에 이제 날 소갤헤 줜 허난.

제보자의 남편

@1 남편은 몃 살 위마씨?

#1 네 설.

@1 네 설 위.

#1 지금 구십하나여, 살아시민. 난 팔십일곱이난에.

@1 남편은 삼십오 년생이꽈?

#1 누게?

@1 남편.

#1 남편이 경 뒈실 거주게. 지금.

@1 삼십오 년, 삼십육 년?

#1 나보다 네 설, 저, 우이난.

@1 본 나이로 네 설예. 호적 나이로 네 설 위꽈?

#1 네 설. 기자. 그땐이 네 설 위로만 헨에 헤세게. 돼지, 돼지띨 거라.

@1 남편 돼지띠예. 삼춘은 무슨 띠마씨?

#1 토끼띠.

@1 토끼띠. 예.

#1 겅헹, 군대 가 부난.

#1 군대 갓는디, 이제 군대 간 휴가 오난에 그 우리 시삼춘이 이제 아무디 이제 첨, 아이 착한 아이 ᄒᆞ나 말 헹 놔둬시난 그 선을 보렌. 거멍 군대 간 이젠 오멍 나 집에 이시난이 군복 입언에이 날 보레 온 거라.

#1 겐에 보레 오난이, 얼굴은이, 우리 친정어멍들은 얼굴은 보난에 이녁 똘 저, 얼굴 주는 것보단 이제 곱질 안 허덴 허멍이, 사름 하나 봥 주는 거주. 얼굴은 봥은.

@1 무사 삼춘 막 겅 고운디.

#1 아니게. 우리 신랑이.

@1 아, 신랑이.

#1 신랑이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네가 허는 말이. 막 이디서 저디서게 나 그 처녀 때이 연애허겐 헨에이, 훈 댓 밧디서 막 헤낫저. 겡헤도게 젤 얼굴은 제일 빠져. 경헤도 우리 아버지가이게 그 궨당 뒌 사름이 완에 육지서 오란에 그 이녁 도움을 줘다 헨에이, 뒐 수 이시믄 딸이라도 줘근에 공을 갚으자 헨에 날 이제 이 고잡칩일 보낸 거라.

#1 경헨에 결혼은 헹 보난 사름은 진짜 다 우리 시아방도 좋고, 시어멍도 좋고이, 저 우리 신랑도 막 사름이 고정꼬정헌 게 막 좋다게. 경허고.

혼담이 오고 간 이후 결혼까지

@1 게난 얼마나 영 만난 거마씨?

#1 만나는 건 군대 뎅겨 부난이, 오래 못 만낫저. 겔혼허는 해에, 겔혼허는 해에 제대헨 왓어. 제대헨 오란에 이제 겔혼을 헷주게.

@1 제대헹 오난 바로 결혼헌 거마씨?

#1 응 저 겔혼, 저 그 전에 날짜를, 겔혼 날짜를 우리 그 시삼춘이 유식헌 어른이난이, 날짜ᄁᆞ지 야이가 제대허민 이제 멧 년도에 제대헐 거난에 멧 년, 멧 술 뒐 때 이젠 결혼홀 거ᄁᆞ지게, 딱 당신이게 날을 이거 지퍼 놧단에 이제 택일 보는 사람한테 간에이, 그추룩 제대허건이 결혼허게시리게, 저 터를, 저 거시기 택일을 봐 왓어녜게.

@1 아, 이 시삼춘이.

#1 응. 겡헨에, 겡헨 어떵 허느니게. 택일을 봐 오난에게 헐 수 엇이 이제 시집은 온 거 아니냐.

@1 게난 중매 얘기가 나오고 나서 휴가 왔을 때 남자 삼춘이 삼춘 얼굴 한번은 봉 강 거라예.

@1 그 후제 몃 달 후 정도 뒈난.

#1 어. 몃 번 봣어.

@1 몃 번 봣어?

#1 응. 몃 번 봣어. 그 후로게, 휴가 올 때마다 저 자꾸 봣주게. 게난 난이, 베낏더레 우리 부모네가이, 여자들 베낏드레 나 먹으믄 안 뒌덴 허멍이, 우리 집에 왕 보민 보게시리 허주게 딸 베낏더레 끗엉 나가거나 허진 못허게 헤. 절대.

@1 아, 집이 보러 와수꽈?

#1 응. 우리 집이 보민 뒷방에 가근에 와근에 뒷방에 강 서로 만낭 얼굴이라도 보렌 허고 경헨 헷주게.

@1 뒷방에 남자랑 여자랑 둘만, 새각시 여기 둘만 들여 놘?

#1 응. 들여 놩 보안 가렌 허주기게. 어디게, 둘앙 나가겐 허나. 저 그때는 처녀 때 애기 베민이, 내쫓아 비어, 내쫓아 비어. 지금은이, 세상이 좋은 때난 만나고 지네 첨, 결혼허기 전이도 임신도 뒈엉 허주마는 그땐 경 안 헤낫저게. 막 허고 우리 친정 부모도 엄중허주마는 그 우리 시삼춘네도 엄중헤여.

@1 거난 집이 왕 봉 가렌 헌 거구나예.

#1 집이 왕 봉 가렌 허고.

@2 집이 왕, 둘이 방에서 뭐 얘기해?

#1 둘앙 나가게랑 못허게.

@1 연애도 헷수다예. 중매 헹예.

#1 연애는 무시거.

@1 그래도 집에 왕 얼굴이라도.

#1 집 완 얼굴만 봉 강 거주. 봉 가고이게, 오민이게, 그땐 무시거 헤 줄 것 이시냐. 감자나 쳥 주곡이.

#1 지금ᄀᆞ치 먹을 것이 그때 잇어샤게. 기자 농서허는 것도 조 갈곡, 감자 놓곡, 보리 갈곡, 콩 갈곡 경 헷주게.

@1 게난 결혼허렌 헤 가지고 이 남자 삼춘을 처음 보난 삼춘은 마음이 어떵 헙디가? 마음에 듭디가?

#1 난이 마음에가 엇어. 이녁허고 만나는 ᄉᆞ나이들은 다 얼굴이 잘생겻주게. 거고 나영 동갑짜리고 나보다 훈 설 우이고 헤도이게, 훈 설이 범띠여. 경헤도게, 그 아이덜토게, 진짜 나신디 시집 못 오란이게, 진짜 헹펜 엇이 헤낫어.

@1 아, 게난 남자 친구들이 잇엇구나, 동네에예.

#1 응. 잇어 노난에 이제 제기 결혼이라도 헤근에 안 철리게 허젠 우리 시삼춘도 경헨 제기 날 택일도 봔에 겔혼을 이제 시켜 분 거주.

@2 연애도 하셧구나.

@1 아니, 학교 다니니까 아멩헤도.

#1 학교 뎅일 때난게. 동창들이영게. 그때는이, 국민학교 들어갈 때이, 아홉 설에 들어간 사름, 일곱 설에 들어간, 열 살에 들어간 사름, 나이 이 구별을 안 헨에 국민학교 들어가나세. 초등학교도. 게난 시방 우리영 지금도 우리 노인회에 우리 동창들이 멧 사름 잇저마는이, 나보다 세 설 밑에 사름, 두 설 밑에 사름 경혀, ᄀᆞ튼 동창이라도. 게난 나가 제일 나이가 하. 동창 중에. 지금 노인회서 나 부회장 역할을 마탕 잇어도이, 젤 이제 노인정에서도게, 나가 동창 중에 나이가 제일 하.

@1 겅헹 남자 삼춘 제대허멍 바로 결혼을 헤진 거구나예. 우리 옛날에 그 결혼허젠 허민 사주도 보고 헤실 거 아니우꽈?

사주, 택일

#1 사주? 아, 거난 택일 볼 때에 사주영 청근에 이제 보는 거 아냐게. 경허난 이제 사주 보멍 결혼 날짜ᄁᆞ지 봐근에이, 좋으면 기자 경 재기 헤근에 결혼을 허게끔 날 택일을 봐 와 부는 거라. 사주 강 보고.

@1 사주 강 보고. 이 시삼춘이 다 가졍 강 사주도 보고 헤신게.

#1 응. 다 시삼춘도 경허고이, 우리 시아방도 그런 거에 대헹은이, 잘 헤여. 이 사주 보곡 허는 거를이게, 우리 시아방은 벱지 못헤도이 그거 멧 설로, 멧 설, 띠를 또 막 말을 헤네게. 띠, 띠. 경허난이, 우리 시아방도게, 나가 ᄀᆞ만히 생각을 허민이, 난 토끼띠고 돼지띠고 허난 궁합이 맞아.

@2 네 설?

#1 응. 맞으난이, 우리 시아방도 그자 당신깐에도 저 어디, 하천리, 아, 신천리. 신천리에 날 택일 보는

사람이 잇어낫저.

@1 아, 신천리에.

#1 그디ᄁᆞ지 시아방이이, 날 택일ᄁᆞ지 보레 가난 셍이라라게.

@1 그믄 이 신천리에.

#1 그 어른 죽어실 거여. 날 택일 보는 사름.

@1 혹시 이름은 알아지쿠과?

#1 몰라, 나.

@1 신천리에 보는 사람예. 이 사람은 결혼 날만 보는 거꽈, 아니면 다른 것도?

#1 사주도 봐.

@1 사주도 보고, 또 다른 거?

#1 사주 이제 사주도 보곡이, 결혼 택일도 헤 주곡이, 경헹 허는 사람이라라게. 저, 나가 그 결혼헌 후에 이제 우리 시누이 결혼시키젠 허난 나도 날 택일 보게 그디ᄁᆞ지 가왓어.

@1 아, 그민 이 사람안티. 기구나. 그럼 이 사람이 땅 보고, 묘지 보고 그런 것도 허는 사람이꽈?

#1 그거는이, 이 땅 보고 거시기 허는 거는 우리 시조케가 이제, 우리 저 성님 똘 시아방이 날 택일도 보곡 ᄉᆞ주고 보곡 허는 사람이 태흥리에 잇어낫저. 거난 그 태흥리서도이게, 그 헨에, 헨 보난에 막 ᄉᆞ주도 좋고 궁합이 맞수덴 저 결혼헌 후제, 경허멍 나 가난에 책 봔에 경헨 골아라게.

@1 게민 이 신천리 사람이 정시인 건 아니꽈?

#1 정시도 기라.

@1 정시도 기라?

#1 응, 정시도 기.

@1 정시도 기면서 택일도 허고 ᄉᆞ주도 보고 허는 사람예. 정시렌 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꽈?

#1 난 정시 허는 건이, 집 짓을 때이, 집 짓을 때 그 택일, 그 택일 허고, 그 땅도이게, 그 땅에 대하여근에 집을 짓젠 헤민 그 땅 안에 그런 이제 그 거시기가 정시 보는 것이 있는 셍이라라게. 경헤신고라이게, 그 땅에 집 짓어근에 좋은 거, 궂은 거 그거 다, 그걸 알아보고 허는 사람이란게.

@1 기구나예. 옛날 보니까 왜 신랑 집이서 여자 집에 중매 선 사람이 사주 보젠 허민 여자 날을 받앙 가야잖아예, 그 생년월일예. 그때 올 때 날 받앙 가젠 오멍 이렇게 방문할 때 그런 것도 하나의 행사가 이십디다마는 그런 건.

#1 건 난 몰라.

@1 몰라, 몰라예.

#1 그건 몰르고, 그자 나 시집가는 거는 그자 우리 첨, 외가집, 우리 외시삼춘이 이제 들언에 게나건허고 우리 아버지네가 육지서 오란 혜택을 많이 주고, 이제 궨당, 궨당 허멍이, 첨 ᄀᆞ튼 종씨난에이, 궨당이엔 허곡이,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네들을 막 협조를 막 헤줘어게. 게난 우리 친정아방도 그자 가리지 아녕 기자 그 사름 공을 가프젠 똘이라도 주어근에 헌 거.

@1 주켄 허멍 헌 거예. 게난 날 잡앙, 결혼 날 잡아 가지고 그 결혼 날짜 적어진 종이 가졍 오는 날, 그런 날 잇어난 것도 모르쿠과?

#1 아이, 택일 그거.

@1 택일 헌 거. 가져오는 날

#1 가젼 오는 것도 그때 헤라게.

@ 헤라.

#1 그런 택일 헤어근에 헤 오민 메칠날 이제 ᄉᆞ지 봐근에 택일ᄁᆞ지 헤 아졍, 그걸 앗엉 와근에 영 메칠날 헐 걸로 헹 택일 봐 왓수덴 헌 거, 그런 거시기도 저 본 적이 잇어.

택일 후 여자 집 방문

@1 그건 누게가 가졍 옵디가?

#1 택일?

@1 택일 헌 종이.

#1 종이?

@1 언제 결혼헐 거우다, 헌 거.

#1 언제 결혼헐 거우다 헌 건 우리 시아방이.

@1 시아버지가 그거 들런 완?

#1 응, 시아방이 그때 들런 완에, 그땐 다 어려 불고, 다 이제 또 우이 시누이들은 다 시집가 부난, 우리 또 시아주방도 다 총각덜이고 허난에 우리 시아방이 그 택일은 헨에 그 저 거시기 우리 처남이헤 주난, 처남이 헤 주난에 겡헨 앗엉 완에 그날 완 밥헹 먹고 헨에.

@1 아, 그럼 이 집에 오니까 이 집에선 밥 출영 그 사돈 뒐 사람 밥 멕이고 헌 거마씨?

#1 우리 집이 간에.

@1 예. 우리 집에 가난.

#1 우리 집이 간 저 동동, 우리 친정에서 택일 헹 와시난에 밥 이제 헨에 저 출련 안네고 헨에 먹고 헹 갓주게.

@1 그믄 이 시아버지가 가졍 온, 시아버지가 뒐 사람이 가졍온 종이를 뭐렌 불르는 일름은 엇어낫수꽈?

#1 건 난 몰라, 그때는.

@1 혹시 삼춘 막펜지 허는 말 들어 봣수꽈?

#1 무시거?

@1 막펜지?

#1 건.

@1 안 들어 봔예. 삼춘 혹시 사주고남 허는 말 들어본 거 잇수꽈?

#1 것도 몰라.

@1 몰르고예. 어쨌든 시아부지가 와낫어예. 종이 들렁예.

#1 어. 게건. 그거, 저 택일 들러아젼에.

@1 그때 시아부지 조름에 다른 사람은 엇이 혼자만 온 거?
#1 응. 혼자만.
@1 아, 혼자만.
#1 혼자만. 무사 혼자만 와시민 그땐 우리 시어멍이 죽을 때난게. 죽어 불 때난이, 혼자만 우리 저 거시기 나 서른세 설에 시집을 오고, 서른세 설에 시어멍도 죽곡 헷저게.
@2 서른세 살에 시집을 완?
@1 아니, 아니. 서른세 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누구 서른세 살에 시집온 거꽈?
#1 나가 서른셋에.
@1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1 아, 나가 서른셋에 시어멍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완 보난에 나 시집올 때ᄁᆞ지는 살앗어. 나가 서른에 시집왓구나. 서른 전에. 스물 멧에 왓어, 시집을.
@1 열아홉에 시집온 거 아니고?
#1 열아홉에.
@1 예. 열아홉에.
#1 열아홉에 시집을 오난 이제, 열아홉에. 아니여게. 열아홉에가 아니고.
@1 늦게 왓수꽈?
#1 스물에 시집을 와져신가. 오난에 완 보난에 우리 시어멍이 캉캉캉캉 허멍 헤연에 나영 ᄀᆞ치 일 년을 못 살앗어. 경헨에 시어멍이 돌아가시난게.
@1 아, 게민 시어머님 일찍 돌아가셔신게.
#1 응. 인칙, 인칙. 인칙 돌아가셧어.
@2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시고, 남편분이 서른셋에.
#1 서른셋에 우리 신랑이 저 서른셋에 돌아가셧주게, 죽엇주게. 나 저 거시기 서른, 아, 우리 신랑은 서른일곱에 돌아가고. 난 서른셋에 서방이 죽어 벳주게.
@1 예. 삼춘 서른셋에 남편은 서른일곱 살 때 돌아가신 거.
#1 게난 나가 이 집을 짓을 때도 신랑 운에 짓젠 헨에, 죽어 베도 이제 서른아홉 운에 나가 이 집을 짓엇어, 이것도.

택일 석 달 후 결혼

@1 게난예. 게난 결혼 날짜를 받앙 와신디, 오늘 결혼 날짜를 잡앙 왓수다예. 결혼 날짜를 잡앙 왕 얼마 후에 결혼 날짜 후로 영 잡앙 와십디가. 오늘 받앙 와시민.
#1 오늘 저 받앙 왓이민 엄만 안 현에 결혼헷저게.
@1 얼마 안 헹.
#1 택일, 택일 앗앙 완에 엄만 엇언에 겔혼헷어. 아멩 헤도 ᄒᆞᆫ 서넉 덜 뒈신가.
@1 아, 서넉 달. 그 사이에 남자는 제대헐 거고 계산헹 잡앙 왓구나예. 그믄 우리 날 잡앙 와시민 이제 서부터는 결혼 준비를 헤살 거 아니꽈예.
#1 기여게.

혼수

@1 삼춘은 결혼허젠 허난 뭐 뭐부터 준비를 헤수꽈?
#1 준비허는 건 이불. 이불 이제, 첨, 이불 허고이게, 쪼끌락헌이 저, 무시거니 단스 새끼. 옷장, 옷장. 단스가 아니고. 함, 무신 옷 담는.
@1 궤 아니우꽈, 궤?
#1 궤도 헷주마는 함도 하나 마직헌 걸 헷어. 영 열앗다가 찔렷다가 허곡.
@1 서랍장 같은 거?
#1 응. 그거 ᄒᆞ나에 궤에 헨 시집왓주게.
@1 서랍장을 헷수꽈?
#1 응. 이불 허고.
@1 이불 허고. 또 다른 건 뭐 헤수꽈?
#1 딴 건 무시거 안 헨 왓어.
@1 게민 이 궤랑 서랍장은 사실 거고.
#1 어.
@1 돈 줭예?
#1 응. 우리 친정 어멍네가 거 사 줜. 궤도 사 주곡, 서랍장도 안 헤젠 헤신디 임시 가근에 이제 궤에 허민 문 열앗다가 줌갓다가 허민 아이들이라도 우리 옷이라도 벗엉 임시 놓젠 헤민 기자 더꺼다가 열앗다가 임시 놀 거 헨에 쪼끌락헌 거 삿주게. 그때도. 경헨에 사고게.
@1 그민 그때 이런 궤영 서랍장 사젠 허민 어디 강 사살 거꽈? 다 잇어낫수꽈, 동네에?
#1 동네에 엇엇저.
@1 어디 강?
#1 동남이, 동남에 거 궤 멘드는 디도 잇어낫고, 이제 동남 허곡, 동남 어실 땐 시에ᄁᆞ지 강 맞춰주.
@1 아, 강 맞춘 거예. 삼춘은 어디강 맞춰수꽈?
#1 우린 동남 간 맞춰어.
@1 동남 강 맞춴예.
#1 동남 간에 기자 사 온 거주. 만들어 논 거.
@1 맞수다. 맞수다예. 그민 이불은 집이서 만들엇수꽈?
#1 이불은이, 솜 헤단에이, 우리 친정어멍이 솜 헤단에 시라목 헨에 솜 싼에, 겐에 저, 그걸 이제 집이서 어머니가 문딱 만들언에이, 이불게 두 채를 만들언에이, 겡헨에 헹 줘라게.
@1 이불 두 채.
#1 거난 이불 두 개, 요 두 개.

@1 요 두 개. 배게는?

#1 배게 두 개.

@1 방석 같은 건?

#1 저 자부동도 두 갠가 그때 헷어.

@1 헷어예. 그믄 그거는 친정어머니만 만든 거꽈? 그거 이불 만들 때 권당들 왕 도와준 거꽈?

이불과 한복 바느질

#1 아니, 아니. 친정, 우리 친정에 올케가 막 바느질도 잘 허곡이, 동네 사람이 다 우리 아지망신디 와근에 바느질도 멩글곡 이제, 한복 ᄀᆞ튼 것도 다 만들어 가곡 허는, 두루막까지 다 만들어 그 우리 아지망이.

@1 아주망이렌 허믄 그 올케는 어떵 뒈는 처레마씨?

#1 우리 큰오빠에 이제 큰올케는, 우리 큰오빠가 각시가 둘이라. 거난 큰어멍은 무시거 아무것도 헐 중 모르고 밧이 농서밲인, 강 밧디 강 검질 메는 거, 때 헤 먹는 거밲인 모르고, 우리 족은 아지망이 일본서 살단에 이 제주 완에 혼자 살앗어게. 겡헨에 어떵헨 그땐이, 사삼 때여. 그때도. 경허난 성 싸근에이, 성, 우리 부락에 다 불탄에 부락으로 뱅뱅 다 성 싼에 살아나세게. 겐에이 폭도들 들카부뎬이, 문 알라 그 들어오는 입구에 문 ᄌᆞᆼ가근에 헹, 가젠 허민 낮이민 강 열어주고, 어두워 가민 문 ᄌᆞᆼ가 불곡 헤낫저. 폭도들 실 때난.

@1 맞수다게.

#1 경허난 그, 그때 어떠난 우리 오라방이 입초 사레 뎅기단이, 어떵 헹 우리 족은 아주망을 건들연. 겡헨에 알안에이, 헨에 거난 우리 족은 올케가 난 아기가 멧 개니. 용○, 용○이, 용○이, 용○이, 용○, 용○이, 아덜만 ᄋᆞ섯 성제.

@1 아이고.

#1 ᄋᆞ섯 성제. 우리 큰 올케가 아들 다섯 개 ,똘 세 개. 거난 오빠 하나가 아들이 열 ᄒᆞ나. 게난 지금도 이 선거 헐 때 뒈민 나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엇나. 조케덜이 다 이제, 다 놈이 베랑 엇어. 다, 조케들 다, 다 겹쳐 놓곡 헤 노난.

@1 그믄 이 큰오빠의 작은각시 뒈는 이 올케가 영 바농질허는 사람이꽈?

#1 바농질허난, 이불 허는 거나 무시거나 우리 어머니도 잘 허주마는이, 우리 올케가 바느질쟁이여게. 완전 바느질헤근에이게, 동네 옷은 다 와근에 만들어 가곡, 품 받으멍. 돈도 바농질헹 꽤 벌어.

@1 그문 이 올케가 이불 헤 준 거예. 친정 어머니영 ᄀᆞ치 헹 이불 만들어 준 거예.

#1 응. 돈은 우리 어멍이 솜 사는 거나 무스거나 다 주민, 만드는 거는 족은 아주망이영 이제 우리 어멍이영 ᄀᆞ치 만들어근에.

신부 예복, 치마저고리

@1 아, 만든 거예. 게민 삼춘 그때 결혼헐 때 입을 치마저고리 입엇수꽈, 웨딩드레스 입엇수꽈, 뭐 입엇수꽈?

#1 치마저고리 입엇주게.

@1 그것도 만들어 줫수가?

#1 응. 다 만들어 줜.

@1 다 만들어 줜.

#1 응. 새각시 입을 땐 그 저 우이, 것ᄀᆞ라 장옷. 장옷ᄁᆞ지 다 우리 아주망이 만들언.

@1 그믄 그 치메저고리예, 치메저고리 삼춘은 뭐로 멘들엇수꽈, 치메저고리?

#1 우리 헌 때이 멩지론 일단은 ᄒᆞᆫ 불 헤 놓고이 또 양단, 겡도 양단이여, 무신 양단이여 헨에 옷도 첨 멩지옷ᄁᆞ지 서너 불 우리 아주망이 멩글안 헨 와졋주. 시집갈 때.

@1 게민 옷 잘도 하영 헹 왓수다.

#1 게. 서너 불 헷주게. 게난 이디 오난에 또 이제 시어멍 뒌 사름도 이제 옷 헨에 헤 주고. 저 거시기 그땐이 형제간이 한, 지금도 지금은 옷을 경 널어져 노난 헴주마는 그땐 옷 헤 주는 것이, 그것이 큰 부지라낫저.

@1 기지예.

#1 기여게.

@1 그럼 생각헤 보게예. 삼춘 결혼할 때 입엇던 멩지 ᄒᆞᆫ 불, 그거 친정어무니가 ᄒᆞᆫ 불 헤 주고예. 아까 양단으로도 친정어무니가 몃 불 헤 줘수꽈? 한 불, 두 불?

#1 두 불.

@1 두 불. 친정어머니가 두 불 헤 주고예.

#1 저, 멩지옷꺼지 세 불 헷주게.

@1 세 불. 친정어무니가 세 불 헤 주고. 시댁에서는.

#1 시댁에서 우리 오난에 우리 시어멍이 ᄒᆞᆫ 불 헨 주고.

@1 ᄒᆞᆫ 불 헤 주고.

#1 그땐 시어멍만 헤 줘라게.

@1 시어멍만.

#1 다 나가 큰메느리라 부난이, 저 우이, 저 거시기가 엇어 부난에.

@1 게민 멩지 치메저고리 이거는 저기, 결혼허는 날 입는 거예.

#1 멩지는 이제.

@1 뭐로 입엇수꽈?

#1 그날 입어 나민, 벗엇당 그건 이제, 왜 멩지로 헤서 옷을 헷느나면, 이거는 그때 입어 나민 이녁이 죽어갈 때ᄁᆞ지 걸 놔둿당 죽을 때 또 그걸 입어근에 죽어갈 땐 그거 입어근에 저 매장 허멍 헤나세게.

@1 게난 이 멩지 치마저고리도 호상옷 허젠 멩지로 헌 거구나.

#1 응. 기여.

@1 우에 장옷도예.

#1 어, 기여게.

@1 이거 호상옷 허젠 이걸로 입엉 헌 거.

#1 거난 멩지는이, 나중에 사름이 썩엉 무시거 헤도이, 멩지는이, 사름은 썩엉 쳐져도 멩지옷은 천리 허당 보민이, 멩지옷은 그대로 ᄀᆞ만히 이시메. 나가 천리를 몃 번 우리가 나가 허민이, 그 멩지옷은 이, 멩진 잘 안 썩어. 안 썩는 따문에 멩지옷을 죽음의 옷으로 헤근에 옛날도 헤난 셍이라라게.

@1 썩어 불렌 멩지옷으로 허는 거 아니꽈?

#1 아니, 아니. 야, 뻬는 안네 건 살이 다 쳐져도 멩지옷은이, 천리헐 때 보난이 뻬에 그자 바삭하게 부턴 잇어라.

@1 아, 기꽈. 나는 썩어 불렌.

#1 아니, 아니.

@1 흙에 잘 돌아가렌 허는 건 줄 알아신디.

#1 아니, 아니.

@1 아니구나예.

#1 아니라라, 거 영 보난. 거난 밑에는, 밑에는 이제 썩으난 처지난에 허곡 우이는게, 멩지옷 그대로 바삭헌 냥 잇언에.

@1 기구나예.

#1 거 천리 헐 때 보난 경 헤선게.

@1 맞수다. 그 결혼헐 때 입은 멩지는 무슨 색깔이랏수꽈?

#1 그자 누루롱헌 거, 그자 멩지 요새 이디선 지금 나는 멩지나 마찬가지. 막 헤영헌 것이 아니라 약간 누리룽헌다게, 멩지가. 그축 헌 거난. 헤영헌 거는 그것이 저 좋은 멩지가 아니라. 헤영헌 거는, 건 발래고 이제 그거에 첨, 하양 거 저 하양케시리 헤영 무시거 허젠 헌 사름이 무시거 허주. 죽음의 옷은 헌 건 그자 멩지 색으로 그냥, 그냥 헨에 저 허곡, 저 장옷은 물 들영, 파랑헌, ᄑᆞ리롱헌 물로 들여근에 장옷도 멘들곡 헤라.

@1 게난 멩지나 장옷 허젠 헌 건 멩지 치메저고리 장옷 허는 것도 저기, 멩지로 허는 거난 그건 상 헌 것과? 그 멩지는.

#1 멩지는 산 헷주게, 응. 멩그는, 멩긂은 우리 족은아주망이 다 멩글안 헤 주고.

@1 멩글고예. 맞수다. 양단은, 양단 치메저고리는 무슨 색깔로 헷수꽈?

#1 그땐 저 요자, 요번이ᄁᆞ지, 요 멧 년 전이부터 그걸 놔둬나신디 집 치우멍 우리 메느리가 이거 필요 어시난 다 이제, 다 쓰레기 담안.

@1 아이고, 그거 다 유물일 건디. 시집올 때 입은 거예.

#1 응. 거멍 엿날 말 허지 맙서. 지금 저 집이서 헌 옷 입도 안 헙니다. 왕 무꺼 주는 사람 오라근에 지네냥으로 지네 옷 멩글앙 와근에 다 입져근에 무끈덴 허멍이. 아, 요샌 겡헴주게. 거 무끄는 사람들이 오라근에이, 돈 받으멍 지네 옷값이영 다 받아, 그축.

@1 맞수다, 맞수다.

#1 거난 엿날식 허지 맙센 허멍 경.

@1 거난 그것도 헷고. 시어멍이 만들어 준 양단 치메저고리도 어떤 색깔인지 알아지쿠과? ᄀᆞ튼 색?

#1 ᄀᆞ튼, 저 그자 양단에 헤근에이, 색이 기자 약간 불그룽헌 거 잇고이게, 벨 경 막 색이 무신 기자 잇 다근에 빤짝이 든 건이 빤짝빤짝헌 것도 잇어. 겡헨 헤라마는 그자 거의 건줌 ᄀᆞ타, ᄀᆞ타.

신랑 예복, 바지저고리

@1 ᄀᆞ타예. ᄀᆞ타예. 삼춘은 치메저고리 입엇고 신랑은 뭐 입어신고, 그때마씨?

#1 저 거시기. 조선옷[19] 입언. 양복을, 지금이난 양복 입엄주. 그때는이, 조선옷을 입언에이, 두루막 ᄁᆞ지 다 헨에 입젼 헤라.

@1 두루막까지 입고예. 그 조선옷은 그건 남자 집에서 자기네가 입는 옷으로 허는 거라예.

#1 게. 이녁네 집이서, 시집이서 이제 옷을 다 멩글앙 놔둔 거주. 거난 그건 그때 입어 나민 놔뒀당 제서 헐 때마다 그거 꺼내근에.

@1 그 옷을 입은 거?

#1 저, 두루막 꺼내근에 그 우터레, 아무걸 입어도 두루막은 걸쳐사.

@1 그니까 저고리 바지 입고, 두루막 걸치고. 남자 삼춘 사모관대도 헤수꽈?

#1 그때 사모관대가 헤진 철인가 몰르켜.

@1 두루막까진 입어난 건 알아지겟고?

#1 응. 두루막ᄁᆞ진 입은 건 알아. 경헌디 사모관대가 헤져신가 몰르커라. 다 우리 사진에 몰라, 이신가.

@1 사진 있지예. 결혼사진예.

#1 겔혼 사진 어디 이실 거여.

@1 이따 찾아 보쿠다. 말 다 끝나민예.

#1 기여.

@1 한번 찾아 보게. 사모관대 헤신지 그냥 두루막까지만 입엇인지예.

#1 그 사진에 찍은 거는 양복 입언 찍은 것 이실 거라.

@1 아, 양복 입언. 그믄 양복 입언 결혼헷구나.

#1 아니, 저이, 두루막이영 입언단에 벗어 둰에 양복도 입언에 헤라.

@1 아, 경헤수꽈?

@2 사진 찍젠 양복 입은 거마씨?

#1 아메도 경헤신고라이, 우리 시어멍이 다 멩글안에. 거난게 멩글안 허난에 장게보낼 때 멩글앙 입지젠 조선옷이영 두루막이영 다 만들어 논 거 아냐게. 거난에 죽어 분 후로도 나 한복이영 나 두루막이영 다 잇어낫저.

@1 게난 신랑옷은.

---

19) '조선옷'은 '한복'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1 아방 죽어 부난에 나가 몬딱 공동묘지로 간 다 술앗주.
@1 게난 남자 옷은 남자 집이서 장만허고, 여자 입을 건 여자 집에서 장만허고.
#1 경 헷저.

신양리에서 한복 바느질했던 사람

@1 경 헷엇던 거라예. 근데 시어멍이 여자 치메저고리 한 벌은 메느리 줄 걸로 헤 가지고 또 장만허는 거구나. 게민 그 치마저고리는 다 누구 그거 멘드는 사람한테 메꼉 허는 거지예?
#1 응. 메꼉 헴주게.
@1 삼춘은 아까.
#1 나는 우리 올케가 이시난에 올케가 ᄀᆞ슴만 헤당 내 불민 우리 올케가 다 멩글어 주난에 허고.
@1 멘들어 주난.
#1 이 동네 옷은 다 우리 아주망이 멩글아낫주게.
@1 아, 그믄 그 아주망 여기 신양리 살아낫수꽈?
#1 어 살단 작년, 재작년이 죽어사. 아흔ᄋᆞ섯에 죽엇저. 우리 아주망.
@1 아이고. 그믄 신양리에 그.
#1 머리가 좋앙이, 그축 나이가이 아흔ᄋᆞ섯 뒈도이.
@1 그럼 신양리에 그렇게 치마저고리 바농질허는 어르신은 그분밖에 엇어수꽈?
#1 아니, 또 ᄒᆞᆫ 사름 잇어낫저. ᄒᆞᆫ 사름이 또 잇어낫저마는 우린이, 아지망이 옷을 경 만드난 딴더레 옷은 앗앙 뎅겨보질 안 헷주게.
@1 아, 다른 집도 있긴 헤난예.
#1 응. ᄒᆞᆫ 집이 잇어낫어. 옷 만드는 사람.

양장사

@1 이 분이 여자건 남자건 치마저고리, 저고리 바지는 다 만들엇고, 남자 아까, 남자 어른 양복도 그때 잇어난 거 닮수다예.
#1 응. 거난 우리, 나 생각엔 사진에 양복도 잇어낫어.
@1 그때 여기 신양리 사람들 양복은 어떵 만들어신고, 누게가 만들어신고.
#1 에, 건 맞촷주게, 어디. 양제점에 간에 맞촷주게. 거 양복은 이녁 집이서 바느질 허는 사람도 양복은 잘 아니허주게.
@1 그지 못 허는 거라예.
#1 응. 한복 ᄀᆞ튼 건 허는디. 거난 양제점 간 맞촷어.
@1 양제점 어디 잇어낫수꽈?
#1 동남도 잇어낫어. 그때.
@1 동남에 잇어낫수꽈?

#1 양제점 잇어낫어.
@1 아, 그 시대에 동남에 잇어난예.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겟지예.
#1 몰르켜게.

혼수

@1 예. 모르는 거. 자, 이제 그럼 이불도 준비헷고 혼수 헐 것도 준비헷수다예. 이불 예단들도 준비헷수다예. 우리 신랑 신부가 시어멍 시아방 줄 거는 뭐 따로 준비 안 헙니까?
#1 그때는이, 시어멍 시아방 줄 거, 그거 준비를 안 헤라.
@1 아, 이불도 따로.
#1 응, 안 허여.
@1 이녁들 것만예.
#1 그때는이, 기자 이녁 첨 이녁 시집가는 똘 직세만 허주 시어멍ᄁᆞ지 저 이불 안 헤 주메.

잔치 음식 준비

@1 이제 잔치 돌아와 가민 며칠 전서부터 음식들도 준비헐 거잖아예. 그건 어떵.
#1 음식 헐 때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 식당으로 헨에 허난 헴주마는 그때는 집마다 이녁만썩 다 허민, 기자 보리쌀에이게, 저 ᄑᆞᆺ, ᄑᆞᆺ 헤근에 숧아근에 기자 쏠은 ᄒᆞᆫ 방울썩 넣곡이 다 보리밥, 반보리밥이주게. 그축 헤근에 밥도 허곡. 고기는 돼지는 이녁 집만썩, 이녁 시집이선 시집이대로 두 머리 잡든 세 머릴 잡든 허곡. 우린 식구가 많아 노난 우린 세 머리, 두 머리는 보통으로 잡앗저.
@1 그때 세 머리, 두 머리는 하영 잡은 거 아니꽈?
#1 우린 형제간이 하 노난. 형제간이 하 노난이, 이제 족은, 샛오라방도 이 동네 포구식당이라고. 저 포구, 요디 커피숍 저끗디 저 거 식당 잇저게. 포구식당. 그디도, 포구식당이엔 헴저. 거, 거시기 그 포구식당이로구나. 그 식당에서도 우리 샛오라방이주, 그디가 두 번째 오라방. 오라방이 세 갠디 오라방 하난 군대 간 그때 죽고 이제 이신디, 그 오라방도 이제 첨, 그디 허난이, 오라방덜토이게, 도세기 세 머리 잡으민, 오라방도 ᄒᆞᆫ 머리썩 거 당헤 주곡 헤낫저.
@1 그때는 도세기 허젠 허더라도 다 집이서 질러실 거 같은디.
#1 응. 집에서 질루와도 여라 머리를 질루와지느냐게. 허당 보민이, 이녁 질루와근에 저 거시기 잡을 때도 잇고이, 부족허민 이제 그 형제간덜 거시기 헌 딘 도세기 ᄒᆞᆫ ᄆᆞ리썩 당헤 주멍 헷어.
@1 아, 그민 그 집이서 길르는 거 영 헹 이거 잡아당 잔치허라, 경 헷구나예.
#1 기여. 기여. 질러 주멍 헷저.
@2 형제간이.
@1 응, 형제간이. 거난 잔치헐 때 뒈 가민 도세기도 멩심 헹 질러사쿠다예.
#1 기여게. 도세기 꼭 질롸주. 통세에, 통세에 도세기 안 질룬 통세가 이시냐? 똑, 똑 집 하나민 통세도 하나 잇곡게. 거난 무신, 변도 다 도세기가 다 먹엇어. 그땐 똥돼지, 똥돼지 허멍.

@1 맞수다. 맞수다.

#1 기여 지금은.

둠비

@1 나도 어릴 때 봐낫수다게. 게민 돼지도 준비허는 거고, 밥헐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제 둠비 허젠 허민 그것도 준비헤살 거 닮은디. 뭘 준비해야.

#1 무시거 헐 때?

@1 두부 허젠 허민. 두부 같은 것도 허지 안헷수꽈?

#1 아니, 두부도이게, 그땐이.

@1 으, 둠비.

#1 두부도 저 거시기, 이 우리 어멍넨 이제 콩으로 헹 두부를 잘 만들어낫저, 그때도. 아니, 가정에서 먹을 것도 두부 기자 어떵 헹이 정ᄀᆞ레 이세이, 그 장콩을이, 물에 불령 놔뒁당. 정ᄀᆞ레서게, 앚인ᄀᆞ레에서 이렇게 ᄀᆞᆯ앙 헤 가민 그 물이 나오잖아. 그걸 막 젓어근에이, 똘라근에이 저 ᄀᆞᆯ라앚져 놧다근에 그걸로 쒕 두부 멩글아라게. 경헹 우리 어머니네는 두부를 경 잘 멩글아낫저, 그때도. 콩 ᄀᆞᆯ아근에. 겅 콩 물에 둥강 정ᄀᆞ레에 ᄀᆞᆯ앙. 경헨에 난 그건 알아져.

@1 그건 알아져예. 거난 그것도 잔치 메칠 전서부터 막 준비헐 거 아니마씨? 반찬 해 먹을 거, 음식 할 것들.

#1 음식 헐 건이, 그때는이, 반찬이엔 헌 건 짐치허고.

@1 것도 미리 담가살 거고.

#1 간장 헤근에 고기 찍어먹을 간장 ᄀᆞ튼 거. 막 반찬 여러 개 안 헤낫저. 도세기 찍어 먹을 간장 메와근에이, 그거 허곡이 짐치 허고. 그자이 딴 건 벨로 나 알 건이, 벨게 무신 특별허게 반찬 멩글진 안 헷어.

잔칫국

@1 거난 생각해 보게예. 잔치 때 먹어난 게예. 아까 보리쏠에 폿 서끈 밥에. 국은 어떤 국 헤수꽈?

#1 국은이, 그땐 메역으로 국은 낄려신디, 메역 헤다근에 이 앞이서 자꾸 뜯어온 메역들이 이시난 그거에 기자 헹 이루꾸에이 헹도 낄이곡. 경 안 허민.

@1 아이고, 미역만 놩 이루꾸 다싯물에?

#1 다시물에도 헹 낄리곡이게. 또이 저 바닷고기 ᄀᆞ튼 거 놩 낄리진 안 헷저.

@1 그때.

#1 바닷고기 ᄀᆞ튼 건 안 허고 컬컬허게시리이, 기자 헐 걸로 헤근에이.

@1 돼지고기 놩?

#1 응? 돼지고기도 안 놔라. 국 허는디. 거난이 이땅 콩ᄂᆞ물이나 국에 이제 헤근에 허고, 메르치는 딸려근에 이제, 그 국물에 허민 좀 비릿내도 안 나고 컬컬허주게. 경허난 경헤근에 헷주. 우리 알건인 바닷고길 낄리거나 무시거나 허여 보진 안 헷어.

@1 몸국은 언제 먹는 거꽈?

#1 몸국은 돼지 이제 국물, 숢아난 국물에 몸국 허고 이제 그저 ᄂᆞ물덜 무지러 놩이, 경헨 몸국은 그때 낄령 먹어낫저.

@1 그거는 그럼 몸국은 잔치 전날 먹는 거꽈?

#1 도세기, 가문잔칫날.

@1 가문잔칫날.

#1 가문잔칫날 도세기 숢아 나민 그 물에 몸국을 낄린다.

@1 잔칫날은 몸국 안 먹읍니까?

#1 안 먹어 봣저.

@1 안 먹언.

#1 근디이, 그 후에는이 잔칫날도 몸국 먹는 사람은 잇어라마는이, 우린 경 안 헷저.

@1 맞수다. 도세기 잡는 날만 먹엉예.

#1 도세기 잡는 날만 헤근에 낄려근에 저, 잔칫날은 아니 먹언.

@1 맞수다, 맞수다. 맞수다.

#1 거고이, 무수에도 서껑 메역에 낄리고. 메르치 숢아난 국물에. 경헹 허주게. 무시거 잔치엔이, 무시거 이런 **에 거나 무시거 노민이, 지름기 이신 건 잘 안 헤낫저.

@1 맞수다.

#1 게난 놈삐에 무수에 이제, 첨 놈삐에 메역에 서껑도 낄리고, 콩ᄂᆞ물도 이따근에 놓는 사람은 놓곡 헹 경허멍 헤라.

궤깃반

@1 경허멍 국 끓인 거예. 밥 뒀고, 국 뒀고. 반찬으로 먹을 건 뭐 잇어낫수꽈? 아까 궤깃반 있고예.

#1 궤깃반 허고 간장 허고 짐치.

@1 그거뿐 엇어?

#1 응. 그거밲이 안 헷저.

@1 마농지시도 안 허고?

#1 응. 그땐이 마농지시도 잘 안 헤라게.

@1 안 헹, 그냥 달랑 이거. 그민 궤깃반에는 뭐 뭐 들어갓수꽈?

#1 궤깃반에? 궤깃반엔게 궤기 그자 썰엉 술로 저 그자 조근조근 지름이고 술이고 기자 썰어근에 기자 그거에 기자 멧 점, 기자 댓 점썩 노나 서넉 점썩 노나 헤근에 간장허고 그자.

@1 궤기만 들어갑니까, 궤깃반에?

#1 응. 무시거 들어가?

@2 수에는?

@1 수에.

#1 순대. 순대 그거 썰어근에 그거 ᄒᆞᆫ 점썩.

@1 둠비?

#1 둠빈 안 놔라. 그땐 둠빈 안 놘에이, 순대 숢앙이, 순대 ᄒᆞᆫ 점썩 헤근에 썰엉 고깃반.

@1 아, 여긴 잔칫날에 둠비 안 헷구나예.

#1 응. 안 헷어.

@1 게민 반찬은 그것밖에 엇어.

#1 그거밲이, 짐치. 짐치 담으민 짐치에 간장에 돼지고기 헤근에. 경헌 거밲이 반찬 엇어라.

접 그릇

@1 음식도 그거 영 준비허믄 뒐 거고예. 우리 잔치 헤 먹젠 허민, 막 그릇들이영 막 하영 잇어살 거잖아예. 그런 준비는 어떵 헤신고마씨?

#1 그릇은이, 접으로이, 접으로 헤근에이, 그릇을 잔치에 빌려당 허민이 어만썩 주곡 헹이, 그 접 그릇이 잇어. 경허믄 그디 가근에 빌려다근에이, 접 그릇으로 헤근에 빌어당 허곡 헤낫저.

@1 그 아르미 사발 나온 후제에?

#1 기여.

@1 접 그릇.

#1 접 그릇으로.

@1 삼춘 결혼헐 때도 그런 접 그릇이 잇어낫수꽈?

#1 어. 기여게. 접 그릇이 이신ᄀᆞ라이, 접으로 헨에, 헨에 그거 저, 그걸로 세 받으멍 허는 사름이 잇어낫어. 친목으로 헤근에 경허민 그디 가근에 빌려당 헤나근에 다 써나근에 앗다 주멍 값 물곡 헤멍 헤낫어.

@1 접으로 헹 헷고. 쟁반들도 거기에 다 딸린 거예?

#1 응. 기여.

@1 집이 천막 같은 것도 치고 헤낫수꽈?

#1 천막은이, 잔치에는 잘 안 쳐라. 영장에는이, 천막을 경 치는디, 잔치에는 나가이게, 비 아니 오난 것산디이, 그땐이, 낮이 비 아니 온 땐 천막 안 쳐. 기자. 우리도이 잔치 이디서 헨 헤신디 천막 쳐 보지 안헷저.

@1 가끔 사진에 보면 결혼사진에 보면 올레에 예쁘게 소낭이영 대나무영 헹 요렇게 장식.

#1 그거이, 장치허는 것도 그거 허는 디가 허주. 왜냐하면이, 이제 그거 장치허는 것도 학교 선생이나 그때, 그 당시에는 학교 성생이나 좀 뚜렷헌 이제 첨 무시거 헌, 특별헌 사름이 그거, 저 거시기 헤도, 그 올레에 막 그 꽃남, 꽃덜 헤당 꼿으고 솔문 헤당 치곡 헤영 허는 디도 잇어라마는 우린 경헌 건 안 헤 봣저.

@1 게난 삼춘네 결혼헐 때도 그런 거 잇어낫수꽈, 그 후제 그런 거 생긴 거꽈?

#1 그 후에도 헷주마는 그때도, 그때도 저 잇어낫어. 잇긴 잇어나신디 우린 잔치헐 땐 그런 거 안 헤 보난에.

도감, 솟밋할망

@1 그런 건 안 헨예. 우리 잔칫날 보면 도세기 잡는 건 아무나 다 잡는 거꽈? 동네 사람들이 다 허는 거꽈?

#1 응. 동네 사람들이 다 모다들엉 방상들이 다 강, 우린이 이 모살에 저 서꺼물에 돌 이신 디, 그디 강 근에 기자 기실여근에이, 그디서 기자 다 잡앙 앗앙 오고 이제 헌다. 거난이 도세기 잡는 거는 이신양, 우리 이디는 이 서꺼물드레 강 많이 잡아. 그디 가근에.

@1 물 이시난예.

#1 응. 물 이시난에 강 물 지치멍 쭌물 질어당 괄락괄락, 기실여 놩 막 칼로 벳기멍 기실여 논 거 막 거시기 허멍, 긁으멍 헤여근에 잡앙 그디서 잡아온다게.

@1 그 잡는 건 동네 사람들이 ᄀᆞ치 잡아도 우리 잔칫날 고기 써는 건 아무나 허는 거 아니렌 헙디다. 누게가 헌덴 헙디다.

#1 나가 도감은 하영 헷저게.

@1 (웃음)

#1 지금은이 이 동네선 거이게, 도감헐 땐 고기 ᄒᆞ꼼 썰어 줍서, 썰어 줍서 허민이, 것도 고기 써는 것도 요령이 잇어사주게. 거난 고기도 썰민 앞다리 뒷다리 서꺼 가멍 썰어 놔야 이제 골고루 이제 반에 놀 거 아니냐게. 경허난이, 그거 도감도 아무나 못 헌다. 도감도게 고기 거시기를 알아사. 알멍 이제 지름만 놔도 안 뒈주게. 거난 이 목도리 ᄀᆞ튼 딘 지름이 많아. 겨난 살코기영 저 지름이영 기자 그 고기 부위마다, 부위로 다 이제 썰어근에 헹, 서꺼근에 경헹 반에 놓고 수에도 기자 썰어근에 우터레 ᄒᆞ나썩 놓고. 이젠 ᄒᆞ나썩 놓지도 안 현다. 이제는 정반에 ᄯᅳᄅᆞ 순대대로 놈주마는 그때는 ᄒᆞᆫ 점썩 그자 그 고기 우터레 놔나세게.

@1 게난 삼춘 도감 일도 헤신디 언제, 몃 살 때부터 도감 일을 헌 거꽈?

#1 아이고, 그건 늦게 헤세게. 애기 나멍 사난, 이 동네서 사난게.

@1 동네 잔치 헐 때.

#1 응. 사난이게 벗덜 집이영 가근에 잔치 먹으레 가민 ᄀᆞ만히 앚앙 설거지를 헤도 허고 ᄀᆞ만히 잇느냐. 기자 메끼는 건 나신디 메낀다.

@1 아, 뭐든 잘 허는 어른이난.

#1 도감 헙서, 도감 헙서. 응, 허여근에이 첨, 특별히 도감은 우리가 강 잘 허주게.

@1 게민 도감 허는 건 아멩헤도 책임 졍 허는 거고 애쓰는 거잖아예.

#1 기여게.

@1 겅헴덴 고맙수다 헹 나중에 뭔가 사례 허는 거 이수꽈?

#1 기여게. 저 헤여 나민 나중엔 고기가 부족허민 허카 몰라 게도 고기도 ᄒᆞ꼼 헹 놓고 그 사례를 헤

준다게.

@1 음식으로예.

#1 응, 음식으로게. 음식으로. 무신 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1 맞수다, 맞수다.

#1 동네서 돌아가멍 허는 거난게.

@1 게난 잔칫날 보민 영 고기 마탕 허는 고기 도감이 잇고, 그 술 같은 거 영 딱 마탕 담당하는 사람도 잇수꽈, 옛날에?

#1 아니, 엿날에는이, 고수루로 헤근에에 술을 빤 잔치를 헤세게. 이제 저 나 시집 완 보난에 우리 시누이가이게 부억에서 무시걸 헴서. 거 무시거 헴시니, 허난 저 밥 쉰다리로, 쉰다리 만들언양, 이거 술 빠젠 저 고수레, 고수레 앚젼에 술 빼젠 헴수다. 우리 시아방이 소주를 잘 먹어. 잘 먹으난에 아버지 주젠. 게난 거 엿날엔 쉰다리 멩글잖아. 쉰다리로이게, 그걸로 이제 술을 막 뺀다게. 고수레, 돌아가멍 다 이제 밀ᄀᆞ루로 부쪄근에이 고수레 이신 훈쪽으로만 거 짐으로 세엉 나오는 것이, 것이 이제 소주라. 경헨 뺀에 헤멍 헤신디 엿날엔이 하영 고수레로 빤에이, 잔치에 저, 하영 썻저게. 술 빼어 놘에.

@1 거난 술 뺑 경, 지금이야 소주 잇고 맥주 이시난 뭐 그냥 놓는 대로 먹주마는 옛날에는 아무한테나 술을 막.

#1 기여. 막 권허지 안혓저. 기자 오민 기자 이녁 체면에 훈 잔썩 비와 주곡 이제 비왕 먹으렌도 허곡 헌디 보통으로 봉은 이제 저끗디서 집안에 사람이 비와 주곡 먹읍서, 먹읍서 헹 비와 준 거.

@1 거난 그 술을 마탕 담당허는 사람이 잇어신가마씨? 건 누게가 허는 거꽈?

#1 그건 이제 당 집이, 이녁 집이 애긴 못헌다게. 방상에 사름이 경헹 오민, 손님 오민 경 술이영 앚다 노멍 먹읍센 헹 허곡 허주. 지금ᄀᆞ치 경 널어 놩 먹진 못 헤낫저게 그땐.

@1 맞수다. 맞수다. 옛날에예.

#1 도세기 잡을 때도 기자 술을 고소리 빤 거 훈 뒈 앗앙 가근에 기자 도세기 잡는디서 간덜이영 썰어 놔근에이, 경헹 먹곡 헤낫저.

@1 맞수다. 옛날에 영 잔칫날 음식들 막 하영 헐 때 부억에 영 음식을 책임 졍 허는 그런 역할을 헌 사람들도 잇어나신가예?

#1 어, 잇엇저. 그 밥도이, 밥허는 사람도이게, 물도 잘 맞춰야 뒈고이, 그 밥허는 사람도 요령이 잇어사. 그거이, 한 밥은, 이녁집이서 기자 아멩이나 족은 밥은 뒈는디, 한 밥은게 그거 다 물 맞추와근에 쌀에 맞게시리 헤사, 맞촤사 할 거난 물 맞추는 사람이 제일 중요허다게. 경헹이 불 숨아근에, 그땐 검질 불을 숨안 헤세. 무신 연탄을 숨아샤게. 저 그땐 그자 검질, 촐 불도 아이고, 조칩 헤다근에, 보리칩으로 밥허젠 헤민 ᄉᆞ못 눈물 콧물 다 내멍 경허멍 밥허멍 헤낫저.

@1 그믄 그거 대장이 잇어시컨게예? 거기 음식헐 때 밥 허고 허는 사람이.

#1 으게. ᄀᆞ치 허민 수눌멍 헌다게. 우리도 빌엉 헤나민 다음에 헐 땐 강, 우리도 ᄀᆞ치 가근에 불도 숨아 주고, ᄀᆞ치 저 밥허는 거, 물도 ᄀᆞ치. 거난 살림 사는 사름은 보통으로 이녁 집이서 밥헹 먹은 사람은 한 밥은 아니라도 맞촹 헤 먹어난 사람덜이니까 그런 디도 가민 엔간헌 건 다 맞촹 헤여.

@1 엔간헌 건 다 맞춰 헤여.

#1 기여. 그땐 가메로 밥도 헷저게. 솟으로 안 헹.

@1 그니까. 가메솟에 영 밥허젠 허민, 물 맞추고 허는 거나 반찬 허는 거나 책임질 사람으로 옛날에 그거 음식 허는 할망, 솟밋할망이렌 허는 말이 잇어낫수꽈?

#1 기여게. 저 그런 할망이 잇어낫저. 저 부억에 들어근에 왕 밥헐 때, 왕근에 빌엉 허는 사람이 잇엇어. 그 사람은이게, 저물앙 밥을 허민 이제 허다 못헹 쏠로라도 그 품앗일 줘저게. 품을.

@1 그지예.

#1 어. 경헷저.

@1 그난 그 솟밋할망이라는 말도 들어 봣구나예.

#1 기여. 솟밑에 그 저 정지, 부억에 들어근에 밥허는 사름이, 그때도 빌엉 허는 사람이 잇어낫어.

부조

@1 잇어낫어예. 우리 옛날에예, 그 결혼허기 전에 남자 집이서 여자 집이 이거 가졍 강 잔칫날 이걸로 잔치 헤 먹읍서 헹 쏠이나 뭐나 보내는 거.

#1 응. 엿날엔 경 헷저. 쏠 훈 말도 들렁 강이, 부지로 돈을 안 형. 그때는 쏠도 헤근에 훈 말썩 헤근에 앗앙 강 주곡 ᄇᆞ름구덕에 담앙 가근에 부지 앗아 왓수덴 헹 앗앙 강 잔치허는 디 쏠로도 앗아 가낫어, 그때.

@1 쏠로도 앗아 가난. 남자 집이서 여자 집이마씨? 여자 집이서 남자 집이?

#1 아니. 친구네 집이라도, 친구네 집 동네 집이라도 돈으로 주지 안현에 그때는 쏠로 하영 줘어.

@1 부주 허는 거라예?

#1 응. 부주 허는 거.

@1 잔치 헤 먹으렌예.

#1 응, 잔치 헤 먹으렌.

이바지

@1 삼춘 그거 말고 혹시 이바지렌 허는 거 잇어나수꽈, 옛날에?

#1 이바지는 사둔집이서 사돈집이 앗아가는 거ᄀᆞ라 이바지렌 허주게.

@1 기구나. 사돈집이면 남자 집, 여자 집? 어느 집이서 어느 집이 가져가는 거?

#1 저이, 남자 집이서 여자 집이 앗아 가민, 여자 집이서도 무심허지 못 헤영, 넘어나도게 그 메느리한테 보내어. 시집이도.

@2 결혼한 후제?

#1 후제.

@1 그민 남자 집이서 여자 집이 보내는 건 전이 보내는 거꽈?

#1 응. 전이 이바지엔 헤근에 잔치허기 전에 보낸다.

@1 뭐 보냅니까?

#1 거난 그때 생각으론 이제 도세기도 ᄒᆞᆫ 마리썩 몰아 가고. 이제 그 난 쏠 주곡 안 주곡 허는 건 모르켜마는, 이바지엔 헤근에 돼지를 이제 남자 사돈네 집이서 여자 사돈네 집이 이바지엔 헹은에 돼지도 ᄒᆞᆫ ᄆᆞ리썩 앗다 주고 헷어.

@1 앗다 주고 헌 거. 그민 여자 집에서는 잔치 끝난 후제.

#1 게난 여자 집이서는 이제 그거 받앙 헤낭 아멩헤도 그디, 저 거시기 그 아들네 집이서 똘네 집이 앗아 가는 거 아냐게. 아들네 집이서. 거난 똘이 메느리 뒈니까 허당 지네 집이서, 친정에서 무시것이 많이 이시민 또 시집이도 앗아 가곡 헷어.

가문잔치

@1 넘엉도예. 경헹 결혼 준비를 헷수다예. 이제 결혼 준비를 허난 결혼헐 때가 뒌 거, 결혼헐 때가 뒌 거. 전날 가문잔치 헤 먹고예. 가문잔치가 뭐꽈, 건디?

#1 거난에 나도, 사흘을 역벌인다. 도세기 잡는 거, 도세기 잡는 날 ᄒᆞ루, 가문잔칫날 ᄒᆞ루, 또 이제 원 잔치는 지금은 식 허는 것이 원 잔친디, 그땐이 가문잔치 허고 또 잔치헤도 막 쪽두리 쓰멍 헹 허젠 거 벨도로이 잔치를 또 ᄒᆞ루 더, 가문잔친 먹는 날이고, 손님도 가문잔칫날 받고.

@1 받고 게난.

#1 그 잔칫날은 이제 식 허는 식으로 이제, 첨 쪽두리 쓰곡 헤근에 저 엿날엔 구루마로도 시집가고, 가메 대신이 구루마로도 탄에 시집가멍덜 헷저. 우리 동네에.

@1 게난 잔치를 삼일을 헌 거라예. 도세기 잡는 날.

#1 기여.

@1 가문잔치.

#1 원 잔치.

@1 원 잔치. 잔칫날예. 보게예. 도세기 잡는 날은 도세기만 잡을 거꽈? 음식 준비들 헐 거?

#1 도세기 잡는 날 도세기 잡아 놩 그디 또 일가들은 또 그디서도 술도 ᄒᆞᆫ잔 먹곡, 먹곡 허주게. 먹는 날에, 그것도게 방상들 먹는 날이라.

@1 먹는 날.

#1 도세기 잡으민 궤기 잡아 놩 그자 어떵 아이 먹느냐, 먹엉 그때도막 간덜이영 썰언에 술도 벌여 놓곡 허메.

@1 도세기 숢기도 허고.

#1 도세기 숢고게.

@1 순대 허고. 음식도 준비허고.

#1 가문잔칫날도게 돗국물로 헤근에 몸국 끌리는 디도 잇곡, 또 경 안허민 이제 몸국 안 끌리민 이제 메역국, 잔칫날ᄀᆞ치 메역국 그냥 허는 디도 잇고. 무수에 서껑.

@1 게난 이거 먹는 날이우다예. 이날 동네 친구들도 동네 손님들도 오고 방상들도 다 왕 이날 먹는 날헐 건디, 혹시 이날 저녁이 옛날에도 신랑이 신부 집이 오거나 그런 거 헤낫수꽈? 우리 언니 시집갈 때는예, 전날예.

#1 저이, 저 가문잔칫날.

@1 응. 가문잔칫날.

#1 가문잔칫날 신랑이게, 이제 거 인사차로 오는 거라. 완에 수고들 헴수덴 헤근에 와근에 인사도 허곡 헹 그 엿날도 경 헤낫젠 헌다게.

@1 삼춘 때도 경 헤나수꽈, 아니믄 그 후제 일이꽈?

#1 우리 헐 때는이, 이제 나도 오래 부난 잘 몰르켜마는, 이제 저 우리 그 신랑이 가문잔치, 도세기 잡는 날 말앙 가문잔칫날. 게나건허고 완에 인사도 허고 수고헷수덴 허멍 인사헌 적이 잇어.

@1 아, 인사헤나수꽈? 그때도?

#1 우리 신랑이 오란에 인사헤라게. 그때. 거난 그 우리 시삼춘이 보내신고라. 경헨에. 거고 또 이디 오래 안 살안에 잔치도 허고 허난에게 우리 저 역불로 강 인사라도 허곡 수고 헴수덴 강 ᄀᆞᆯ으렌 헤신고라. 두린 ᄆᆞ음이주마는 완에이, 왓어라게. 완에. 완에 수고헴수다 허멍 완에 인사헤 뒁 강.

@1 그때 뭐 가졍오지는 안 허고마씨?

#1 안 가졍 왓어라.

@1 인사만 헌 거, 어른들한테.

#1 우리 이 저끗디고 허난게.

@1 신랑만 오는 거꽈, 누구랑 ᄀᆞ치 오는 거꽈?

#1 전인, 딴 디는 친구들이영 온덴 헤라마는 우린 신랑만 왓어라.

@1 신랑만 왕 그냥 고생헴수다 헌 거예.

#1 우리 신랑은 이디 오래 안 살아부난 친구도 베랑 엇어. 경허난에 기자 이녁 혼자 완에 오라방들신디 수고헴수덴 허멍 왕 ᄀᆞᆯ아 두곡 헨에 가라.

@1 응. 그런 거예. 이젠 잔칫날 손님들 다 받앙 끝낫고. 저기 가문잔칫날예. 이제 잔칫날 뒛수다. 이날 아침이. 신랑 집이부터 생각허게예. 이날 아침이 신랑 집이서는 뭐 헙니까?

결혼 당일 아침, 제

#1 저이 아침 인칙 손님 오기 전에 인칙 헤근에 제지내어. 저 초상, 초상들안티게 ᄀᆞᆯ음은 그 집이도 초상 어신 집이 이샤게? 경허난이, 상 출려 놩 이제 새서방이 새서방 집이서 새서방이 큰절 허고, 그디서 상 촐려 놩 큰절 삼배를 큰절로 세 번 허곡 헤근에이, 경헤영 제지낸다.

#1 신랑 집이서.

@1 신랑 집이서 제지냅니다. 그민 제지낸 다음엔 뭐 헐 건고예?

#1 제지낸 다음엔게 이제 첨 밥덜이나 먹곡 헤아졍, 밥 먹기 전에 제지내어.

@1 밥 먹기 전에.

신부의 집으로 이동

#1 제지내나근에 밥덜토 먹곡 헤 낭 이젠 집이서 이제 첨, 가멜 타나 물을 타나, 그땐 엿날엔 물도 탄에 장게가세게. 가까운 디는 이제 첨, 구루마로도 허곡 이제 헷저마는 가메도 헤근에이, ᄉᆞ나이들이 남자 친구들이게 신랑 칩이, 신랑 칩이서 남자 친구들이 가메를 앗아근에 가근에 새각시 집이 강 가메로 저 시집더레 모셔오곡 헤낫저.

@1 아, 친구들이 가메를 들르는 거꽈?

#1 전인 굽서들토 헤나세.

@1 급서예.

#1 부락에 굽서 **허고 이 굽서들이 허곡 헤나신디, 험도 헌디, 굽서가 못 헐 때는 친구들이, 신랑 친구들이 간에이, 가메로 간에 신부 모셔 오멍 헤낫저.

@1 삼춘은 가메 탓수꽈, 걸엉 갓수꽈?

#1 우리? 가메 탕 갓저.

@1 신랑들이, 친구들이 들렁 완마씨?

#1 아니.

@1 누가 들런?

#1 굽서.

@1 급서.

#1 급서가 헨에 완에. 가까우난게, 우리. 가까우난에이, 욜로 요 새난 가까우난에 가메 탄에 들렁 이제 굽서영. 굽서만 헤샤게 그 또 친구덜토 ᄀᆞ치 헨에 경헨 ᄀᆞ치 그 가메로 헨에 와낫저.

@1 게민 신랑은 물 타고마씨? 걸엉, 신랑은 걸엉?

#1 신랑은이 그때 물 탓저.

@1 물 탄?

#1 우리 집이가이, 우리 아버지가, 이디 시아방이 그때도 물을 질롱 구루마 헤영이, 절로, 우리 시아방이 경 노래를 잘 헤낫저. 절로 구루마 몰앙 노래 불르멍 오민이, 동네가 먼 디서도 알아듣게시리 헤영 허곡, 테우리라낫저. 물테우리.

@1 아, 경허난.

#1 우리 시아방은 막, 첨 노래도 잘 허고. 테우리라근에이, 이 동네 밧 못 가는 사람 우리 시아방이 다 가르쳣저게. 모살에서 잠대로 다 가르쳐 주곡 헌다.

@1 게난예, 신랑 집이서 제지냉, 친구들이영 급서영 가메 들렁 여기 왓수다. 여기 도착허민, 물 탕예, 여기 도착허민 신부 집이 올 거 아니꽈예. 어떵 헐 거꽈, 그다음에?

#1 신부, 저 신랑이 강 새각시를 이제 가메로 헤영근에 굽서영 둘아 오민 이디서 이제 신부상을 출려 주지 안허느냐게.

결혼 당일 아침, 신부 준비

@1 우선은 신부 집에 온 거예. 그민 신부는 아침이 일어낭 뭐 허고 이실 거꽈? 신부는?

#1 시집이 오랑?

@1 아니.

#1 저, 친정에?

@1 자기 집에서. 아직 신랑 도착허기 전에. 나는 집이서 뭐 헐?

#1 거난 이녁이 이제 이디 오젠 허난게 그 준비를 허주게.

@1 무슨 준비가 헤야 뒐 거라?

#1 준비헐 거는게, 거시기 밥도 ᄒᆞᆫ 직 거려 먹고 그디서, 이디 시집이 오젠 허민 시집왕도 먹주마는 아침 인칙 헌 디도 잇고, 또 시간이 늦엉 낮 뒈는 시간도 잇나. 저 새각시 돌아 오는 시간이. 게난 시간에 것도 나가는 거난. 겡헹 허영 허고. 그동안에 이제 신랑 오도록 이제 밥도 먹곡 준비, 이녁도 준비를 헤여. 신부가. 경헹 신랑이 왓다 허민 이제 신랑이 왕 밥상 받아 나민 이제, 가메로 이젠 그땐 ᄀᆞ치 오는 거주. 신랑은 물 타고 새각신 가메에 타곡.

@1 예. 신부 준비허는 거 보게예. 옷 입엇수다. 삼춘 치메저고리 입엇덴예. 치메저고리 입고.

#1 장옷 입고.

@1 장옷 입고. 장옷 입기 전에 얼굴도 어떵 뭐 허지 않아수꽈?

#1 무사, 구루무 불랏주게.

@1 구루무 불르고.

#1 동동구루무엔 헹 구루무 불라낫저.

@1 구루무 불랑, 여기도 뭐 헷수꽈? 여기 연지 곤지도 뭐 칠허고?

#1 저 우리 겔혼헐 땐이, 기자 구루무허고 분 불르고, 기자 구루무 불라 놩 기자 분 기자 탁 탁 탁 헹은에 불르고 이 입술, 입술은 기려낫저.

@1 입술 기려난. 그건 자기대로 허는 거꽈? 누게가 왕 헤주는 거꽈?

#1 왕 벗덜이 헤 줘.

@1 벗덜이.

#1 벗덜이 오민이, ᄀᆞ치 벗덜이 헤 준다. 경 안허민 이녁 이제 벗덜이 아니 올 때는 이제 언니나 동생도 ᄀᆞ치 와근에 헤 주고. 나 저, 우린 세 설 몯이 동생이 이시난에 이제 우린 아지망도 우리보단 두 설 우이 아지망 잇고 벗덜이 우린 하다게. 경허난 와근에 ᄀᆞ치 왕 화장도 ᄀᆞ치 허고, 벗덜이 왕 새각시 밥 출릴 때 왕 ᄀᆞ치 시집가기 전에 친정이 왕 밥도 ᄀᆞ치 새각시덜이영 먹고 헤여.

@1 그민 화장은 벗들이 영 헤 주고, 삼춘 머리는 안 올려수꽈? 머리는 어떵 헹 헤수꽈?

#1 파마헷주. 그때. 엿날도 파마 헷저. 그땐이, 파마를 지금ᄀᆞ치 안 형이, 그땐이 미장원이 파마허는 디 가민이, 막 젓가랑 닮은 거로이게, 막 지져근에 벵벵 감으멍 헤낫저.

@1 젓가락 닮은 걸로. 게민 여기 지금 막 뽀글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우에 뭐 쓴 거마씨?

#1 응. 멘사포 쓰고게.

@1 멘사포 썬.

#1 지금은 멘사포 쓰듯이 그때는 쪽두리 써근에, 쪽두리 써근에 헤세게, 그때는.

@1 쪽두리 쓰젠 허민 머리 ᄄᆞ로 다른 머리, ᄄᆞᆫ머리 부쳉 영 올리거나 겅 안헨?

#1 경 안 헷저. 우린 경 안 헷저. 쪽두리 쓸 때이게, 나는 시집갈 때 막 머리가 질언 이만큼. 나 머린이, 막 질어낫저. 경허난이, 그거 쪽두리 쓰젠 허난 머리 헨에이 벵벵 몰안 이 쪽두리 우터레 머리 놔난 쪽두리 썻어.

@1 그민 그 머리 올리는 건 누게가 헤 준 거 아니마씨?

#1 아니, 거난 그디 형제간들이 헤 주나, 경 안허민 벗들이 헤 주나 경 헤 줘저게. 새서방 오기 전이, 출릴 때. 준비허멍.

@1 삼춘네 결혼할 즈음에, 벗들 결혼헐 때도 이런 화장허는 거나 머리허는 거 이런 거 손보는 사람은 엇어나수꽈?

#1 아니, 잇긴 잇어나신디. 그때는이, 손보는 사람이 완 보지 안헹 이녁대로 다 헷저게.

@1 이녁대로 다 헤연

#1 이녁들이 헷저.

@1 머리 올리는 것도예.

#1 그때는 쪽두리 쓰난에이, 무시거 올리곡 대곡 안 허여. 그자 헤근에 영영 무꺼근에 그자 영 놩 쪽두리만 영 쓰민 뒈낫어.

@1 옷 입고, 쪽두리 쓰고 헹, 삼춘 어디서 기다려수꽈, 신랑?

#1 신랑 오도록 방에서, 큰방에서 기다련.

@1 큰방에서 기다련.

#1 큰방에서 기다렷저. 게난 새서방 오난에, 새서방 왓젠 허멍 허난에 이젠 그 큰방더레 새서방도 ᄀᆞ치 오난 난 이제 뒷방더레 완에 잇단에.

@1 곱아 불 거예. 새서방 볼 거 아니지예.

#1 뒤에, 저 뒷방에 와낫어. 옆방에. 저 새서방 왐젠 허난 큰방더레 새서방을 와살 거 야냐게. 그디서 밥 먹을 거난에. 겐 옆방더레 난 완에 헷단에, 이젠 밥 다 먹언 나사난 이젠 새서방이 출발헐 시간 뒛젠 헹 나와 가난 그때사 이젠 그 굽서가 경헨 나옵센 헨 나완 가메 타곡 헷어.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

@1 경헹 가메 탄 간 거. 삼춘은 여기 뒷방에 이시난 잘 모를 건디, 그때 대충 분위기를 생각하면 신랑이 여기 도착헤수다. 말 탕 잇어예. 말 탕 이시민 어떵 헙니까? 그냥 들어옵센 헙니까, 옛날에?

#1 올레 오민, 말을이게, 저 거시기 내려. 내리렌 헤여사 내려. 그때도. 그때도이게, 말 탕 새서방이 올 거 아냐. 오민이, ᄆᆞ음냥 내리도 못헤여. 그때 집안에서 신랑 내려 허민 이제 그때사 내리고. 이제 경헹 헤낫주게. 이 신랑 ᄆᆞ음냥 왕 탁 내리진 못헤낫저게.

@1 신랑 내리기 전에 뭐 본덴 헙디다예, 신랑.

#1 응. 무시거 그거, 무시거 헨에 읽고이, 앞이서. 신랑, 그 축ᄀᆞ치. 그추룩 헤라게. 경헨 그것도 나도 봣저.

@1 신랑 뭐 가졍 올 거 아니꽈, 올 때, 함?

#1 함. 앗앙 와. 함 앗앙, 굽서가 그건이, 굽서가 그건이 왕 받으곡이게, 가정 오민. 그디서 이디 엿날엔 굽서가 지엉 와낫저.

@1 졍 와난 거예.

#1 우린 가까우난에 굽서가 완 졍 와낫어.

@1 그 함에 안에는 뭐 들엉 이신고예?

#1 그 안넨이, 그 택일이멍 그디 문세에이, 그 ᄆᆞᆫ딱 무신 문서가 들엇어라.

@1 문서가 들엇어?

#1 문서가 들엇언게. 택일에. 경허난 나도 그건 아니, 저 무시거 헷저마는. 그거 함에 무시거 남시녠 허난에이 그 저 문서가 다, 그디 다 들어 잇젠 허고이 이제, 또 그 함 졍 올 때에이, 그 완에 함이 도착헷저 허멍 헐 때에이, 함은이 아무나 받지 안혀.

@1 누게가 받읍니까?

#1 그거는 그 집안에서 어른이.

@1 어른이? 어른이 받앙 그 함에 문서를 볼 거구나예.

#1 아멩헤도 보는 거주게. 함에 거, 앗어냉 그걸 읽는 거난.

@1 읽는 거난예. 경 읽엉 제대로 뒈사 내립센 헐 거.

#1 경헤라게.

@1 내립센 헹 이제 누게가 구들에 안내허쿠다예.

#1 응. 경헹 허면 함 헹은에 그거 봐근에 내리렌 헤사 내려. 신랑대로 모녀 확 내리지 못헤여.

@1 혹시 그거 봉 뭔가 잘못 뒈시민, 신랑을 돌려보내기도?

#1 돌려보내는 건 안 봣저마는, 돌려보내는 건 안 봣저마는 경 함 앗앙 오난에 함에 거 앗아 낸에 무시거 익어라게.

@1 이제 신랑 내령 방에 들어왓수다. 여기 안방, 여기 안방에 들어가렌 헐 거꽈? 큰방에?

#1 큰방에.

@1 큰방에. 큰방에 들어가난 거기에는 상이 출려졍 이실 거라예.

#1 응. 상이, 신랑 오민 상 딱 출려졍 잇어. 그민 안으로 가근에 신랑이 들어강 앚아.

신랑상

@1 신랑상에는 뭐 뭐 올라갑니까?

#1 신랑상에도 기자 우리 거 먹는 거 기자 올라가라. 올라가고이게, 고기도이, 막 썰지 안현이, 갈비 차 영 얍게 까깡에이, 갈비로 헨에 헹 올라가고, 이 우리가 보통 사람 먹는 거 막 줄게 썰진 안헤라. 게난 그디 허당 신랑상에 먹다근에 남으민 그디 들러리로 온 사람이 그거이 쌍도 가곡이.

@1 아, 음식 남은 거 쌍 가도 뒙니까?

#1 응. 신랑 먹당 남은 거, 거 들러리로 온 사람들 그땐 쌍 가라게.

@1 우리 신랑 집이서 신부 집이 올 때 아까 들러리로 온덴 헤신디, 신랑 집이서 신부 집이 올 때 누게 누게 옵니까? 신랑이영, 아까 집서가 가메 졍 올 거고 친구들도 ᄀᆞ치.

#1 응. 신랑 친구도 ᄒᆞᆫ 명이고 두 명이고 헹 오고. 근디 여자는 잘 아니 와라. 남저, 남저들만 둘이곡 기자 헤근에 두어이 오는 생이라라게. 저 신랑 ᄀᆞ치 친구들.

@1 친구들. 친구들 오고 권당덜은 안 올 거꽈? 권당덜은 안 옵니까? 우시, 우시?

#1 우시 와. 우시는 온다. 우시 오고, 친구덜 두어이 오고. 여저덜도이게, 오는 디는 여저도 이제 무시거 헌디 여저는 보편적으로 안 오고, 우시엔 헌 거는 그 신랑 집안이 종순, 종순이 와라. 종순 뒌 사람이 이제 우시를 헨에 완게. 경헹 사돈대회 헐 때는 그 첨 그디서 오란에 종순도 헨에 왓고 또 저 사둔대회 헐 때는 신랑 형이나.

@1 아, 예. 그민 그게 신랑 아침이 올 때 다 ᄀᆞ치 오는 거마씨?

#1 아니, ᄀᆞ치 아니 와. 우시만 ᄀᆞ치 왕.

@1 우시만 ᄀᆞ치 오고.

#1 우시만 이제 그 집안에서 종손이 오는 셍이라라게. 경헨에.

@1 우시는 몃 사람이 오는 거꽈? 신랑이영, 우시는 몃 사람이 오는 거?

#1 신랑허고, 친구 이시민 친구허고 저 신랑 쪽에서 기자 서이 아니민 너이.

@1 아, 그렇게만 오는 거꽈?

#1 경 헤라.

사돈대회

@1 아까 삼춘 사돈대회렌 ᄀᆞᆯ아신디예, 사돈대회는 뭐꽈?

#1 사둔대회는 결혼식날.

@1 잔칫날?

#1 응. 잔칫날에 사둔대회 헐 때는 신랑, 신랑 아방허고이 신부 아방 허고, 여자덜은 아니 오고게. 그디 형 잇이민 형 허고. 경혀근에 술상 받앙이, 결혼식 날 저 사둔대회 허는, 별도로 허는 디는 경형완에 헨에.

@1 아, 그민 옛날에 결혼헐 때도 삼춘네도 사돈대회 같은 걸 헷수꽈?

#1 아, 사둔대회 허주게.

@1 아, 그믄 여자 집에서 허는 거라, 남자 집에서 허는 거라?

#1 남자 집이서 허는 거주.

@1 아, 남자 집이서 하는 거. 그민 일단은 남자가 왓수다예. 우시랑 헹 서너 친구들랑 헹 서너이 왕 여기 앉안예, 큰방에예. 신랑상은 아까 받앗고. 그 신랑상은 다.

#1 그 신랑상에 대반이 또 잇어.

@1 대반, 예.

#1 응. 그 집 안에서 동서 뒌 사름이 대반으로 하영 앚나게. 이제 성 각시나 이제, 저 거시기, 이 경 안 허민 이제 만약에 처가칩이 드는 거 아냐? 처가집이 들민 동서 뭘 사름 왕 앚든가. 경 헤라.

@1 남자가예.

#1 응. 남저가.

@1 신랑상에는 남자가 대반으로 앉는 거고.

#1 경헨게.

@1 그민 신랑 옆이 대반이 앉고. 그다음 친구들도 거기 ᄀᆞ치 앉을 거꽈? 우시도 앉을 거고.

#1 저 우시도 왕, 그디 왕 앚고게, 저 그 친구도 왕 ᄀᆞ치 왕 앚아.

@1 ᄀᆞ치 왕 앉앙예.

#1 게난 상을 신랑상 노민 또 상이 또 들어오게 뒈어. 경허민 그때 완에이, 저 거시기 우시는 이제, 하튼 신랑은 신랑상만 출려 놔.

@1 아, 예.

#1 출려 놓고, 우시상에 이제 친구상이영 ᄀᆞ치 헤근에 또 ᄒᆞᆫ 상 출려 놓고 경 헨에 대화헹게.

@1 아.

#1 대반허고 신랑은 ᄀᆞ치 앚고.

@1 아, 신랑이영 대반은 ᄀᆞ치 ᄒᆞᆫ 상에 앉고. 우시들은.

#1 우시허고 친구들 ᄀᆞ치 앉고.

@1 우시하고 친구들은 별상. ᄀᆞ치, 따로 차릴 거예.

#1 경헨 헤라.

신부, 신랑의 집으로 이동

@1 경 이제 밥 다 먹엇수다. 이제는 신부 집에서 나갈 거예. 누게가 먼저 나갑니까?

#1 신부 집이서?

@1 신부 집이서 신랑이 나갈 거예. 신부는 그때 ᄯᆞ라갈 건가? 어떵 헐 건가?

#1 저, 신부 집이 오라근에 갈 때에?

@1 갈 때에.

#1 저 어디.

@1 신랑 집이 이제 가살 거 아니꽈?

#1 그땐게, 게메 가메 타고 갈 거주게.

@1 가메 타고 갈 거.

#1 기여. 가메 탕 갈 거주게.

@1 가메 탈 거난 가메는 마당에 신부가 나강 탈 건가? 어디서 가메를 탈 거꽈?

#1 가메는 마당에 잇인 거난, 하튼 우시가, 우시가 이제 그 새각시를 모셩 그 가메 잇인 디ᄁᆞ지 강 가

메에 앚지주게.

@1 아.

#1 경 허민 급서들이 이젠 ᄀᆞ치 헤근에 들러근에 이젠 가.

@1 예. 들렁 강 이젠, 이젠 강 신랑 집에 강, 도착헤수다.

#1 신랑 집이 가근에 이젠 상 받게 뒈민 것도 여자도 우시가 잇어. 우시가 잇고. 또 친구덜토 가는 친구들이 잇나게. 여자 친구, 저 신부덜 친구도. 겡헹 가근에 허민 대반 허고 그디도 가민 새각신 ᄒᆞᆫ 상 받고, 친구 허고 이제 우신 또 ᄀᆞ치 또 ᄒᆞᆫ 상 헹 차리고 경헤여.

신부상

@1 새각시 상에 대반은 누게가 앉읍니까?

#1 새각시 저 대반 앉는 거는, 시집이 간 거 아냐게. 그디 동서가 잇이민 동서가, 큰동서가 앚아.

@1 아, 큰동서 뒈는 사람이 앉을 거예.

#1 큰동서가 엇이면은 이제 첨, 그 집안에서 누굴 이제 정헤근에 대반이라도 앚으렌 허는디 이제 큰동서가 잇이믄 큰 동서가 앚아. 대반을.

@1 들어가 보난 새각시 상도 출려졍 잇일 거 아니꽈예.

#1 기여게. 거난 새각시 상도 강 출령 잇이민 대반이영, 새각시 앚아 나민 대반이영 강 ᄀᆞ치 앚고. 그 저끗디 또 우시 허곡 이제 친구, 여자 친구덜, 새각시 친구 가민 이제 친구영 ᄀᆞ치 또 ᄒᆞᆫ 상 헹 앚곡.

@1 새각시 상에는 뭐 뭐 올랑 이십디가?

#1 아이, 마찬가지.

@1 마찬가지?

#1 마찬가지. 그자, 그자 궤기도 신랑상에 올르듯이 얇게 썰어근에 갈비로, 갈비로 허여근에 질게 헨에 올리고. 이제 또 임시 먹을 거는 이, 저 그디서 또 이런 뭐니, 고기를 ᄒᆞ꼼[ᄒᆞ꼴] 살코기로 좀 잘게 썰어근에 경형 또 별도로 또 놓곡 경 헤라.

@1 신부상에 ᄃᆞᆨ ᄒᆞᆫ 마리 올라간덴 헙디다.

#1 저 ᄃᆞᆨ도 올라가.

@1 ᄃᆞᆨ세기는마씨?

#1 응? ᄃᆞᆨ세긴, ᄃᆞᆨ세긴 나 올라간 거 안 봣저. 근디 ᄃᆞᆨ은 올라가. ᄃᆞᆨ은 통차.

@1 통차. 아.

@2 먹어져?

#1 경허난 나가 곧는 말 아냐? 그거 줄게 썰어사게 먹주게, ᄒᆞᆫ엇이. 또이, 신부가이, 거난 이녁 신부 뒌 사름이 ᄒᆞᆫ엇이 먹지도 못헌다게.

@1 맞아.

#1 국이영 밥이영 기자 거령 먹당 숟구락 놀 거주. 경허민 그거 헹 오민이게, 상에 헌 거, 받당 남은 거 ᄆᆞᆫ딱 쌍 가메.

@1 아니, 옛날에 신부상 들어올 때 밖에서 영 영, 아이들 영 영 헌덴 헙디다.

#1 거난 그때는이, 새각시 그때는 곤밥, 곤밥 허멍이.

@1 맞아.

#1 밥이게, 그때는 곤밥, 곤밥. 곤밥이 경 쉬웁느냐게. 거난 그걸이 숟구락으로이, ᄒᆞᆫ 숟구락썩 그거 받아 먹젠이, 막 애기들이이, 막 그 새각시 그 상 잇인 저끗디 오랑 막 곤밥, 곤밥 허민 거 거려 주는 사름이 잇어. ᄒᆞᆫ 숟가락썩.

@1 누게가 거려 주는 거꽈, 대반이?

#1 아니. 대반 말앙도, 대반도 거려 주는 때도 잇어. 대반 말앙도이게, 거기서 거, 거시기 밥 먹어난 거를 와근에 동서가 이시나 이제 그디 누게가 완에 거려 줜에 우리도 얻어 먹은 적이 잇저. 받아 먹은 적이 잇어. 새각시, 새각시 밥, 새각시 밥 허멍. 곤밥, 곤밥 허멍.

결혼사진 촬영, 집안 어른들께 인사

@1 이제 밥도, 새각시 밥도 다 먹언예. 밥 먹은 후제는 뭐 헐 거꽈?

#1 밥 먹어난 후에? 밥 먹어난 후에는 사진 찍주.

@1 아, 밥 먹은 후제 사진 찍을 거?

#1 응. 밥 먹언에이, 밥 먹기 전에 이제 완에 상 받아 나난 나강 가족사진 다 찍곡 그축 헤라. 엿날도 경 헤낫저.

@2 누구 주례 같은 거 잇엉 영 인사시키고 영 안 합니까?

#1 응? 무사게. 사둔 인사 시키고 어른 그디 잇이민 어른덜 가근에 인사시키고 허주게. 신랑도 마찬가지. 신랑도 가민이, 이제 그, 그 집이 어른이 잇이민 그 뚠 방에 출려놔도 가근에 그디, 전인 삼방에 잇어도 헷저게. 산방에 자부동 끌아 앚아근에, 끌아 앚져 놩 신랑이 나와근에 절도 허곡.

@1 게난, 게난 신부 데리러 갈 때 신랑이 그디 어른들한테 절허고 헙니까?

#1 어게. 절헤여. 절 헤낫저.

@1 게민 신부가 왕도 어른들한테 절을 먼저 허는 게 아니고 밥 먹는 거 먼저?

#1 저이, 그때는 여저들은 절을 잘 안 헷저게. 응, 남저는 신랑은 가민 어른들한테이, 우선 절헹 상 받아 나민 나와근에이, 절도 허곡 헷주마는 신부는 절 허는 거 나 안 봣저.

@1 게난 우리 궁금한 게 뭐냐면 옛날에 보면, 텔레비전 보민 결혼헐 때 여기 상 ᄎᆞ려 놩 남자는 여기 서고, 여자는 여기 성 서로 영 절 허고.

#1 그거는 옛날 그 응, 그런 식도 잇어낫저.

@1 삼춘네는 그거 아니라예.

#1 우린 안 헤낫저. 그거. 저 남자영 여자영 ᄀᆞ치 맞절 헤근에 허는 것도 헤낫어. 건디 우린 그건 안 헤봣저.

@1 그건 안 헤 봔예? 이 동네에서 경 절 허는 거 봐낫수꽈? 나는 텔레비전에서만 본 거 닮은디.

#1 나도 안 봐 봣저. 나도 거 안 봐 봣저게.

@1 게난 여자는 오자마자 우선 신부상에 들어강 신부상 받앙 밥 먹을 거.
#1 기여.
@1 밥 먹어 나민.
#1 기여 사진. 가족사진.
@1 사진 찍을 거. 가족사진 찍을 거. 그믄 옷은 언제 갈아입읍니까?
#1 아니, 그 옷은 그대로 입고, 장옷은 벗지.
@1 장옷은 벗어.
#1 벗어. 장옷은 벗엉 사진 찍을 때 뒈난이, 그 저 신랑쪽에서 그 처음 무시거 헐 땐 장옷을 입언에 저 거시기 헤라마는 사진 찍젠 허난 우이 장옷은 다 벗어라. 한복으로만 입언에.
@1 그냥 한복만 입고 우이 장옷은 벗은 거. 여기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
#1 있는 거, 있는 거.
@1 있는 거. 거민 강 사진 찍엉 왕 그다음 뭐 헐 거꽈, 사진 찍엉 오민?
#1 저 시집이 강?
@1 응. 시집이 들어강 이제 밥 먹고 밖에 강 가족사진 다 찍엇수다. 그다음은 뭐 헐 거꽈?
#1 어, 들어와근에 이젠 그땐이 웃어른덜안티 누게 이건 누게여, 이건 누게여 그디 동서 뒌 사름이이 다 소개시켜 줘. 허민 경헹 새각시가 강 굽박굽박 다 인서허고.
@1 인서헌 거, 사진 찍고 왕예. 시집 식구들한테 인사헐 거.
#1 저 웃어른들, 할망 하르방덜 웃어른들안테영 그 방상에 종손덜이영 다 왕 앚으민 인서 시켜.

사돈대회

@1 아까 사돈대회엔 헌 건 언제 헐 거꽈?
#1 사돈대회는 이제, 저 다 풍십이 틀려라게. 사돈대회 허는 거는 결혼허기 전에 사돈대회 헤근에 이제 허는 사름이 있고, 겅 안 혀고 결혼헌 다음에 이제 그 인사 못 헌 사름들이, 이제 종손들이영게 못 헌 사람들 있잖아. 그축 허민 결혼헹 넘은 그 잔칫날도 허는 사람이 잇엉게.
@1 거난 삼춘 헐 때는 언제 헤수꽈, 사돈대회를?
#1 사돈대회를?
@1 사돈끼리 인사허는 거를?
#1 우리 사돈끼리 인사허는 거는 우린 사전에 다, 다 아는 사름 사돈이고 허난 우린 사돈대회를 안 헨에, 안 헨에, 우린 기자이, 이디서 ᄀᆞ트민게 저끗디서 자꾸 보곡 허난게 우린 사돈대회 안 헷저. 안 헨에 헤도 이제 그 먼 디 살아 불곡 헌 사돈들은이, 몰른 사름은 사돈대회를 헤사주게.
@1 아, 기라예. 삼춘네는 굳이 그거 안 헷구나예.
#1 응. 우린 안 헷저. 사돈대회.
@1 삼춘 혹시 사둔열멩이렌 허는 말도 씁니까, 그 말은 안 들어 봔?
#1 안 들어 봣저.

@1 여긴 사돈대회렌 허는 거예, 예. 인사하는 거예. 삼춘 혹시 ᄀᆞᆭ인상이렌 허는 말은 들어봐수꽈?
#1 ᄀᆞᆭ인상? ᄀᆞᆭ인상이 그 의미가 무신 말이니?
@1 아니, 안 들어 본 거민 그냥.
#1 안 들어 봣어.

홍세함

@1 안 들어 본 거예. 예. 우리 아까 삼춘 남자 집에 올 때 함을 들렁 오잖아예. 그 함을 홍세함이렌 ᄀᆞᆯ아난?
#1 응. 홍세함. 응. 홍세함이엔 헤낫저.
@1 그 홍세함이렌 헤난예. 그 홍세함에는 뭐 뭐 들어낫수꽈?
#1 아, 게난 나 생각엔 그 소곱엘 안 보난 몰르켜마는, 홍세함이엔 헌 건 홍세함 들렁 와민 그거 열안에 또 무시거 영 보는 것이 잇어라. 경허난 나가 이런 서류 ᄀᆞ튼 거이, 그 거시기를 담안에 온 거 아닌가, 나가 그 생각을 헷주.
@1 아, 그민 삼춘 홍세함 속에는 서류만 들어 잇엇구나. 거기 뭐 저기 멩지천, 미녕이영.
#1 저 거시기, 저 무시거 홍세함에이, 엿날에는 그 멩지, 멩지 ᄒᆞᆫ 필도 담곡이, 홍세함에. 거난 그 홍세함에 멩지 담아진 거는 건 놔뒀다가 두고두고 놔뒀당이, 나중에 죽을 때 꼭 어디 그걸 쓰게 뒈어 그거를.
@1 아, 놔뒀당.
#1 그 멩지함에 담아난 멩지는이, 그거 첨, 유리허게 쓸 걸로 헨에 그걸 함에 담은 거 아냐게. 거난이, 저 그 삼베 이세이, 삼베도 담는 사람은 삼베도 담아. 삼베는 왜냐하면 삼베는 헷다근에 나중에 중간에 사용을 못 허면 놔뒀당이, 이제 그 집안에서 사름이 죽으민이, 그 삼베로 무꺼. 경헨에이, 그런 유리헌 걸로 헨에 함에 담고, 저 서류도 담고.
@1 게난 멩지 잇인 건 신랑 옷도 헹 입혓덴 헙디다마는.
#1 아니, 신랑 옷도 헹 입히는 사람은 입혀. 경헌디 멩지옷은 우린 구태여 거 다 시집가고 장게갈 때는 멩지옷으로 ᄒᆞᆫ 벌썩을 다 헤 줘 부난 우린 구태여 그건 안 헨에 막, 나도 멩지로만 그자 오래 놔둬, 삼베하고 놔뒀단에 그 저 거시기 우리, 그때가 우리 시아방 죽을 땐가, 우리 시아방 죽을 때 그 삼베로 앗안 헨에 매장헷저.

신부 환복

@1 그민 이제 신부가 여기서 웃어른들한테 인사허고 허민 다 끝난 거꽈?
#1 아이, 인사허민 끝나주게.
@1 끝난 거. 우리 인사헐 때 보면 결혼할 때 여기 뭐 썻잖아예. 인사헐 때는 이거 쓴냥 헐 거꽈? 옷도 그냥 입은냥?
#1 인사헐 때는 다 끝나근에 그거 다 벗엉 한복만 입곡.

@1 그지예.

#1 경헹 인사헷주게. 쪽두리 헌 때는 그 거시기 헐 때만 쓰고.

@1 사진 찍고 나면 벗어 불어.

#1 사진 쩍어 나민 벗어. 그 쪽두리는. 경허민 쪽두리 벗어 분 다음에 인사헐 때는 인사허주.

@1 게난 인사헐 때 다른 디서 들으난 나는 시집올 때는 친정어무니가 헤 준 옷 입엇잖아예, 여기 인사헐 때는 시어머니가 헤 준 옷 골아입엉 헌덴 헙디다.

#1 건, 아니.

@1 그건 아니?

#1 그건 아니.

@1 그건 아니, 그냥 입어난 옷 헌 거?

#1 입어낭 입고, 이제 친정에 올 때는 그 시어멍이 헤 준 옷, 그거 골아 입엉 친정에도, 겔혼헤 나민 또 친정에도 오지 아녀냐게, 사위영. 인사허레 올 때에 거, 저 시집이서 헤 준 시어멍 헤 준 옷 입엉 오메.

@1 게민 여기서 인사할 때는 머리에 헌 것만 뺑.

#1 벗엉, 사진 찍어 나민 헹 벗어 둬근에 어른들한테 인사허는 거.

@1 그민 그날 잔치 끝나신디 끝나민 저녁에 뭐 ᄄᆞ로 벗들이랑 놀고 헙니까?

#1 그땐이, 여러 저 벗들이 하민이, 막 잔치 끝에에 막 놂도 허고 헤낫저게. 헷저마는 이 근라는 어디 경 헴샤? 이 근라는 절대 경 안 헤낫저. 전에는이, 막 벗덜이 경 좋앙 무시거 허민 잔치에 왕 넘어나민이, 막 왕 놀곡, 저 삼방에서 춤도 추곡 허멍들 막 또 잔치를 헤낫저.

@2 삼춘 때는?

@1 삼춘헐 땐?

#1 응? 나, 우리 헐 때는, 나 헐 때는 친구는 이제, 아니 와도 워낙 형제간이 하 부난 형제간덜이 기자 모여 앚앙 기자 밥만 먹엇주, 무신 놀거나 허진 안헷저마는 저 거시기, 친구들 한 딘 막 놂도 헌다게.

신붓집 인사

@1 응. 거라예. 삼춘 때는 그민 그날 어른들안티 인사허난 끝난 거구나예. 그민 친정에 인사허레는 언제 가수꽈?

#1 게메. 친정에 인서허레 갈 때는 나가 곧지 안헴샤게. 잔치 끝낭 둣날은.

@1 둣날?

#1 둣날 이제 갈 땐 시어멍 헤 준 옷 입곡, 헤영 신랑이영 가근에, 이제 일 잘 넴겻수다 헹 신랑이영 가근에 가시어멍, 가시아방안티 강 절 허곡. 이제 그 벨도로 가근에 또 강 인사헤여.

@1 다음날예.

#1 응, 다음날. 끝난 다음에.

@1 그때 먹을 것도 들렁 가수꽈?

#1 아니. 그디 가민, 친정에서 저 친정에서 사위 먹을 거영 다 이제 올 중 알앙 준비헤여.

그릇접, 쏠접 등

@1 뒷날 강 인사를 헌 거. 예. 아까 물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삼춘 헐 때 그릇제가 잇어나신디예, 옛날에 이거.

#1 그릇접, 그릇접 헤여근에 잇언.

@1 그릇접, 그릇접.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족두리 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가마도 매집이 없잖아예. 하나, 마을에 하나 잇어가지고 빌령 허는 거잖아예.

#1 무시거, 가메?

@1 가메.

#1 저, 사름 타는 가메?

@1 응.

#1 그거는이, 이제 가마는 ᄒᆞᆫ 부락에 ᄒᆞ나 헴실 거여게. 저 잔치헐 때만 갖다가 허는 거라 부난 것도 허영 허민 건 부락에서 그땐 전화도 엇어근에 이제 전화도 엇일 때 아냐게, 그땐게. 거난 그자 부락에 헤근에 그런 창고에 가메 ᄀᆞ튼, 거 잔치에 헐 때 허는 가마를 이제 우이 천 안 씌운 냥 그냥 놔둿다근에 잔치허게 뒈민 우이 천 씌와근에 빌려 주어.

@1 남자들 입는 사모관대는 어떵 헤신고마씨?

#1 사모관대는 게메 원칙은 사모관대는 잔치헐 때 장게갈 때 써낭 벗는 거주게. 경헌디 벗어낭 다음에 이제 무신 저 일 날 때마다 그 사모관대를 써나셍게. 응, 경헌디 지금은 그런 것이 엇다게. 그때는.

@1 그때 그거 빌령허는 거꽈? 아니민 자기 거라수꽈, 사모관대가?

#1 사모관대가이게, 그 가메에 ᄀᆞ치 따라 오는 거. 응, 경형.

@1 ᄀᆞ치 따라 오는 거. 남자들 사모관대 허게 뒈민 신는 신발이영.

#1 신발이영.

@1 신발이영 ᄀᆞ치예.

#1 ᄀᆞ치, 가메영 ᄀᆞ치덜.

@1 그민 옛날에 그거 쏠접 허는 것도 이수꽈?

#1 엿날이사 다 쏠접 헷주게.

@1 쏠접 다 헷지예.

#1 응. 쏠접 헤근에 잔치허게 뒈민 그 쏠 타근에 저 잔치허곡 헤나셍. 그땐게 쏠이 경 에려와나셍게. 이런 조 ᄀᆞ튼 거, 보리 ᄀᆞ튼 거는 헨에 우리 제주에는 헷주마는. 육지선 모르켜게. 근디 제주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자 보리, 조 그런 것만 허멍 살아셍. 피 ᄀᆞ튼 거.

예비 신랑 신부 주의사항

@1 게난예. 우리 결혼 영 날짜 나오민, 신랑이나 신부안티 이거 멩심헤산다 헹, 저기 조심허렌 허는 것들이 잇어나수꽈, 옛날에 어른들이?

#1 아니, 친정어멍이 시집은 가근에 이제 헹 살젠 헤민 이제 시어멍 시아방 말을 깊이 들엇당 그거를

꼭 지키렌 허는 말은 헤낫저게. 거곡 친정어멍이 이제 똘, 시집가는 똘신디 시키는 말이라. 이제 저 시어멍 시아방이 무시거엔 곧는 걸, 그걸 헛 듣지말앙, 깊이 들엇다근에 어른덜 허는 대로, 허렌 헌 대로 그 집에 강은 그 집 **를 따라 가야 뒌다. 그런 이제 친정 부모가 이제 똘, 시집가는 똘신디 시겻어, 그때.

@1 시켯어.

#1 나도 우리도 우리 어머니네 시겨라.

@1 응. 그난 그 집 식을 따르라.

#1 어. 그 집 식을 따르렌.

파혼

@1 음. 경 헷엇던 거예. 그 옛날에도예, 이 집이영 이 집이영 결혼헐 거다 허는 거 얘기 허당 뭔가 안 맞앙 우리 말게. 경헹 설러 부는 일들도?

#1 난 그건 몰르켜.

@1 몰르켜예.

#1 그건 몰르켜. 그건이, 왜냐하면 사전에 ᄉᆞ주팔잘 다 거 날 보레 가근에 보앙 와근에 허는 거 따문에 이제 그거는 난 잘.

@1 거난 날 잡으민 영 허는 거랏어예, 예. 판내지 안헹.

#1 기여. 응.

@2 게민 ᄉᆞ주 나쁘민 안 하는 경우도 잇어마씨?

@1 응. ᄉᆞ주 보레 강.

#1 거난 만약에 ᄉᆞ주 보레 강 ᄉᆞ주가 나쁘면은 그디서 ᄉᆞ주가 안 좋수다 헤근에 곧으민이, 그 남자쪽에서도 그 여자를, 한테 결혼 안 시키젠 허는 디도 잇어낫저. 거난 결혼허기 전에.

@1 결혼허기 전에 날짜 나오고 그런 거 없이.

#1 ᄉᆞ주 보레 갓다근에 나쁘덴 허민.

@1 안 허는 거예,

@2 그때도 잇어낫구나. 그런 거는.

결혼 알림

@1 우리 경헹 날짜가 나와수다예. 날짜가 나오면 뭐 권당들안티도 알리고, 저기 멀리 있는 권당들안티도 누구네 언제 결혼헴수다 허는 거 알려야잖아예. 옛날에는 그거 알리는 거는 어떵 헤나신고? 요즘은 막 청첩장도 잇고 헌디.

#1 겨난 그때는 저 알리는 것이 지금ᄀᆞ치 이제 청첩장도 헨에 무시거 허고 전화[전나]로도 휴대폰으로도 전화[전나]헹 알리곡 헤신디 그때는이 전화[전나]도 없고 무시거 허난이, 역불로 곧으레ᄁᆞ지, 우리 잔치 헴수덴 헹 역불로 권당들신딘 곧으레도 가 왓저게.

약혼식

@1 그지예. 곧으레 가는 거예. 우리 요새는 결혼식 허기 전에, ᄒᆞ끔만 더 허쿠다예. 약혼식도 허는디, 옛날에 약혼식 허는 것도 잇어나수꽈? 결혼허기 전에. 우리 여기영 저기영 약혼헷저 허는 그런 말도.

#1 거, 우리 시집갈 때는 약혼식 허는 거는 엇어낫저.

@1 엇어낫어예.

#1 그 중간에, 우리 시집간 후에는 그런 약혼헷저, 약혼식 헷저 그런 말은 들어신디, 우리헐 때는 기자 부모들 가라 허민 가사. 경 멩령 복종을 허난게, 어떵.

@1 맞아, 맞아.

#1 이녁이 연애헹 딴디 가구장 헤도이, 부모가 이디 가산다 허민 가야 뒈어.

부주

@1 우리 게도 친구도 결혼헌덴 허민 부주헐 거고. 아까 동네서야 쏠도 부주허곡 막 헷주마는 친구들 결혼헌덴 허민 부주도 허고 헷잖아. 옛날에 어떵 헤수꽈?

#1 응?

@1 옛날에 부주 같은 거.

#1 거난 부주 허는 거, 그땐 돈이 에로우난게, 나 곧지 안녕샤? 잔치헴젠 허민 기자 일가에서도 쏠 헤근에이, ᄇᆞ른 거, 푸대 헤근에 쏠 헹 오랑 이거 저 부주 헨 앗아 왓젠 허민 기자 그거 비와 놩근에덜 모다놩 잔치허는 디도 하낫저게.

@1 그거는 일가에서 허는 거고. 친구끼리 뭔가 부조허는 건 엇어나수꽈?

#1 부지 허는 거는이, 돈으론 몰라. 돈으로는 허는 거 그때 헤신디 우리 시대엔이, 그런 돈이 엇어 부난 부지 허는 거는 안 헤 봣저. 친정, 우리 친구들이 왕 허민 잔치허는 디 왕 부름씨허곡 ᄀᆞ치 음식 ᄀᆞ튼 거라도 ᄀᆞ치 헤 주곡 막 날라 주곡, 심부름은 헤 주어신디, 부지 허는 건.

@1 친구끼리 그런 건 없었구나. 이제는 막 부지허민 답례품도 주곡 헙디다예.

#1 기여. 기여, 기여게. 이젠 경 헴저.

@1 옛날엔 그런 건 잇어나수꽈?

#1 엇다. 엇어.

재혼

@1 엇다. 엇어예. 맞수다. 맞수다. 우리 요즘은 두불 결혼들도 막 잇엇잖아예, 옛날에도 두불 결혼 막 이십디다예, 하십디다예.

#1 저 두불 곌혼허는 거는 게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근에 곌혼을 헷다. 허민이 남저가 남저가 잇다근에 저 딴 여자를 봐 아졍 뎅겨 부민이, 경헤근에 이혼허는 수가 하근에 이제 두불 결혼ᄁᆞ지 허는 사람들이 잇엇저게. 그때도. 그때도 경헨에 우리 아주망도 경헨에 족은 우리 아주망도 경헨에 우리.

@1 건들어 부난?

#1 응. 우리 오빠한테 또 두불 결혼헌 거라. 본데 일본서 살앙 결혼을 헷주게. 경헹 일본서 살안 겔혼허난 뜻이 안 맞안.

@1 여기 와 분 거.

#1 이레 와 분 거라. 경헨.

@1 게민예, 이 두불 결혼헐 때도 겅 잔치를 헙니까?

#1 에에, 우린 경 안 헤 봣저.

@1 경 안 헷어예.

#1 저, 우리 집안에서만 밥헹 먹엉 저 거시기 허고 형제간들만 모다들엉 헹 먹엇주. 잔치허거나 허진 안헷저.

결혼반지, 신혼여행

@1 삼춘 결혼헐 때 사진은 찍엇인디 뭔가 가락지라든지.

#1 가락지 우린 원 가락지 받아보지 안헷저.

@1 요즘은 결혼허민 어디 놀러 간덴 여행 간덴도 허잖아예, 그때 그런 거 잇어?

#1 엇어, 엇어.

@1 엇어, 엇어.

#1 그땐 거 어디 그거 이시? 엇다.

신혼집

@1 게민 결혼헌 후제 살림은 뚜ᄅᆞ 차렷수꽈? 아니민 시집이 그냥 들어와수꽈, 어떵헤수꽈 살림은? 어디 ᄎᆞ려수꽈?

#1 시집왕?

@1 응 시집왕.

#1 시집왕 ᄀᆞ치 살앗주. 시어멍네영.

@1 시어멍네여예.

#1 기여. 시어멍네영 뚜ᄅᆞ 살다근에 만약에 이제 첨 동승이 하민, 이제 어멍네 허곡 뚜ᄅᆞ 이제 집이라도 장만헤 주민 뚜ᄅᆞ 이제 큰 며느리는 뚜ᄅᆞ 나간 살앗주게. 살민 그디 시누이들이영 장게갈 시아주방들이영 이신 때는 시부모덜이 건 알앙 허민 우린 기자 도와줌뿐.

@1 맞아예.

#1 경헷주.

혼인신고

@1 맞아, 맞아. 겅 결혼허민 어디 강, 구청에 강, 어디 강 신고를 헤사잖아예. 그 신고는 바로 결혼헤 나민 강 신청서를 내신가, 옛날에?

#1 엇다게. 혼인신고도 안 형 사는 사람 그땐 천지라.

@1 천지라.

#1 기여. 그땐이, 혼인신고도 안 현 막 살다근에 애기영 막 나 놔근에 혼인신고도 허곡. 그땐이, 바로 바로 혼인신고 ᄀᆞ튼 것이 엇어낫어.

결혼사진

@1 삼춘 결혼헐 때 사진 찍엇잖아예. 그때 누게 불렁 찍은 거 알아지쿠과? 어디서 불렁 찍은 거?

#1 사진 저 거시기 헐 때는, 우리 헐 때는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우리끼리는 그걸 몰라신디, 이제 그 중간에는 동남 사진관이 잇엇어. 사진관에서 불렁 허곡, 신랑 집이 완 찍어 준 것이 아니곡 그디 간 사진관에 강 두가시만 늘 찍엇주, 가족들끼리도 못 찍엇저. 경헨에 기자 이녁 집안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잇이민 그거 헨에 집안에서 찍엇주. 집에.

@1 삼춘 결혼헐 때는 누게가 찍은 거라?

#1 아, 우리 겔혼헐 때는 이제, 그 우리 오라방네가, 오라방네가 친정에서 사진 찍은 거는 오라방네가 완에 사진 그 거시기 불런. 경헨에 불런에 찍어 줜에 찍엇저.

@1 어디서 불른 건 모르고?

#1 동남, 동남 불런에.

@1 동남.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고예? 예. 고대유라는 사람 안 들어봣지예?

#1 누게?

@1 고대유.

#1 고대유?

@1 응, 대유.

#1 몰라.

@1 동남 사진 찍는 사람.

#1 응. 건 몰라.

@1 아, 예, 그건 모르고예?

#1 뭐 그 사람넨 죽어실 거여.

@1 여기까지. 오늘 고맙수다.

8.

안덕면 화순리 박영추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9월 12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 **제보자**: #1 박영추

결혼사진

(식사 중 말씀, 잡담 생략)

#1 보기 싫은 그 초가집 끝에 펭풍으로 영 가려근에 기냥. 아이고.

@1 가려신게.

#1 우리 때도 막 저 멘사포 쓰고 막 헷주게.

@1 사진 막 여러 장 찍엇수다.

#1 경헤신디.

@1 삼춘 면사포 찍어신게. 스무 살 아니꽈? 스무 살에 결혼한 거.

#1 으. 요짝에 저 찍은 건 열아홉에. 이짝에 혼자 영 독사진에.

@1 독사진 아니고 누구랑 둘이 찍은 거.

#1 그때도, 그때도 거 처녀 때 처녀가 별로 안 뒌에 시집가 불언게.

결혼 적령기

@1 어떵 스무 살이면 그때 다 갈 때꽈?

#1 아니, 아니.

@1 일찍 간 편이꽈?

#1 너무 일찍 간.

@1 너무 일찍 간.

#1 흔 늦으민 스물 서너, 스물셋이 제일 적기에 가신디덜 나는 ᄒᆞ꼼 인칙 가 불언.

@1 무사? 무사 집이서 시집가렌 허난 그냥 가 불언마씨?

#1 응. 나 막 물질 배완, 그때 물질 쪼끔 배완 물질 영업 가젠 헌디 어무니가 저 시집강은에 가도 뒌덴 헹.

제보자 소장 결혼사진 확인

@1 아니, 여기 결혼사진이 세 장이 이신디 이거 다 다른 사람인게.

#1 뭐가?

@1 결혼사진. 다 다른 사람이 세 개가 잇어. 신랑 신부가. 삼춘만 있는 게 아니고.

#1 아니, 아니. 나. 그 구식으로 찍은 건 나주게.

@1 아, 구식으로 찍은 게 삼춘.

#1 응. 그 신랑 신부 나.

@1 맨 위에 거. 이땅 밥 먹으민 물어보쿠다예. 이거 신식으로 찍은 건 누게꽈? 아, 삼춘, 구식으로도 허고 신식으로도 헤수꽈?

#1 아니, 아니, 아니.

신부 머리

@1 아무튼 세 개가. 아, 이거 있다. 구식으로 잇다. 독사진도 잇다. 이때 머리 같은 거 누게가, 이땅 물을 거우다마는예.

#1 머리? 그때 미용사가 잇엇주.

@1 미용사 누게가 왕 헷어?

#1 그때 어디 모실포서 왕 하는 사람이 잇어낫어.

@1 모슬포서 여기 와 가지고 사는 사람예.

#1 미용사질 허는 사람. 미용사 차련에. 그땐 불 파마.

@1 불 파마. 화리에 찔렁?

#1 아니, 아니.

@1 어떵.

#1 쇠로만 뒌 기계가 영 이신디 영 집게 닮은 것에 양쪽으로 숫, 요만씩 헌 숫 영 불에, 불 헌 거 이레 놔근에 은박지로 머리에 영 감아 놩 그 불 헌 걸 찍형.

@1 아, 머리 은박지로 감아 놩.

#1 겅허여근에 그자 움직도 안허영. 금방 금방 뒛주. 겅허난.

@1 겅헹 파마헤도 오래 갑디가?

#1 오래 갓주게.

제보자 소장 기타 사진 정보

@1 아고, 놀러도 막 다녀나신게. 삼춘 남자 집이서만 결혼사진을 찍어수꽈, 여자 집이도 강, 삼춘네 집이도 강 찍어수꽈?

#1 집이 아니고 대부분은 여행 강 찍었지. 여행 강.

@1 아니, 결혼식 때.

#1 결혼식 땐 집이 강 찍엇주게.

@1 친정 가족들이랑도 찍은 거예. 사진 보난.

#1 그땐 사진사가 흔치 안 혀민 막 한번 초대허젠 허민 어려와근에.

@1 한번 불르젠 허민 돈 하영 들엇지예.

#1 으.

@1 아이고, 원피스 입엉 참 곱수다. 놀러 강 찍은 거.

#1 나 막 여행을 좋아헤근에 그 처녀 때에도 경허주마는 시집간도 단체로도 막 여행 허고 경허고 우리는 특히나 저 해녀로 대부분은 해녀로 여행을 잘 가근에.

@1 해녀로 어디 어디 가 봐수꽈, 물질은?

#1 물질은 한 번. 저 경상북도 영일군에 거기 거기 혼 번 간 오난 시집가 불언.

@1 아, 웨방 물질 한번 가 오난.

#1 응. 한번 간.

@1 게난 무사 집이서 시집가렌 서두릅디가?

#1 응. 어무니가 그디 뎅이당 육지 시집가카 부덴.

@1 그런 사람들 잇엇지예.

#1 응. 응. 경허곡 막 그 갓다 온 친구덜이 막 우리 그 주인네 총각이 잇어신디 난 그걸 무심코 그냥 막 잘헤 주난 그자 친오빠추룩 오빠, 오빠 허곡 막 허단 보난 그 사름은 그게 아니랏어게.

@1 마음 잇엉. 마음 잇엉 잘헤 준 거지.

#1 마음에 들언 잘헤 준 걸 몰란에 헤신디. 경헌디 또 다르게 허지도 안현. 경헌디 우리 저 친구덜 요 앞에 온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막 골아 불언. 우리 어무니신디.

@1 아, 누게 잘 헤 줫덴.

#1 주인네 총각이 막 영춘이 ᄆᆞ음에 들언에 헴수다, 경.

@1 이거 다 삼춘이꽈?

#1 요것만 나.

@1 요거? 요것도 삼춘예.

#1 응. 응. 그건 시집간 후제.

@1 이거는 처녀 때. 아이고. 아니 이런 사진덜 막 찍는 게 그때 유행이랏수꽈?

#1 아이고 첨. 그거 그냥 막 생각헨 찍엇주. 그 사진관에.

@1 여기 세 사람도 요거 삼춘예.

#1 아니, 아니, 아니. 건 나 엇어. 나 엇어.

@1 엇어?

#1 그건 친구 언니덜.

@1 사진관에 강.

#1 응. 사진관에 간 찍엇주.

@1 처녀 때 찍은 건 몃 살쯤 뒌 거 닮수꽈?

#1 거 열아홉에.

@1 열아홉에. 아이쿠야.

#1 육지서 찍은 거 거. 청아, 청아엔 헌 그 마을에서.

@1 이런 거 한장 찍젠 허민 얼마나 줘신고예?

#1 몰라.

@1 이건 결혼헤 가지고 바로마씨? 한복 입엉 찍은 거.

#1 응. 결혼헌 후에.

@1 아이고, 이건 몃 번째 아이꽈?

#1 건 조카, 조카.

@1 아 조카.

#1 응. 나 애기 안 난 때.
@1 거난 너무 예쁜.
#1 우리 저 샛동서네 큰딸. 난 우이로 아들 둘 나고 그다음 딸 나난.
@1 이건 이땅 보멍 또 물어 보쿠다예. 아이고, 놀러 막 잘 다녀신게. 아이들 결혼사진들이영. 아이고.
#1 겐 시집간? 게난. 직원은.
@1 직원은 시집 안 강 혼자 살암수다.
#1 응. 아이고 시집가.
@1 게메예. 놓쳐 부난.
#1 더 나이 들민.
@1 놓쳐 부난.
#1 후회스러워.
@1 아이고, 어떵 나중에 현대식으로도 영 사진도 찍엇수다. 놀러 강 헌 거꽈?
#1 응. 놀레 간.
@1 이거 남편마씨? 아니, 여자구나.
#1 여자, 여자. 우리 남편은 막 일찍 죽어 불언.
@1 맞아, 삼춘예. 맞아, 맞아. 이건 일본 강 일헐 때다예.
#1 일본 강 주방에서 일헐 때.
@1 일본 강 몃 년이나 살아진 거꽈? 육 년, 지난번에?
#1 응. 막 어펑 살긴 육 년인디 갓다 왓다 허긴 헌 십 년.
@1 아들 완전 잘 생겼다. 뚤도 완전 곱고예. 아이고, 국회도 갓다 와수꽈?
#1 으, 국회의사당에, 우리 저 해녀회장 때.
@1 아, 해녀로.
#1 고○부? 고○부 국회의원 때에 우리 저 무신 막.
@1 한복 곱게 입엉. 중국도 갓다 오고.
#1 아, 중국 흔 열 번 가 완.
@1 아이고, 어떵 중국을 경.
#1 해녀로게. 해녀로. 해녀 여행으로 매년 감주게, 매년. 금년도 갓다 오고.
@1 금년도 갓다 오고마씨?
#1 금년은 홍콩, 심천, 마카오.
@1 아이고, 나보다 더 여행을 하영 다녀신게. 삼춘이.
#1 아이고, 하영 갓주게. 우리가 하영 갓주. 작년엔 저 라오스. 재작년엔 저 태국. 매년 가.
@1 그민 비용은 ᄒᆞ끔 돈 내는 거꽈, 다 보조헤 주는 거꽈?
#1 우리 저 흔 삼 분의 일 부담헤.
@1 삼 분의 일 부담헤예. 게도 어디라.

#1 백오십만 원 들엄시믄 우린 오십만 원.

제보자 정보

#1 박영추.
@1 예. 생년월일은마씨?
#1 사일 년.
@1 사십일 년생.
#1 사십일 년. 공오.
@1 예. 사십일 년생. 몃 월 며칠 생일이? (민감 정보 생략) 다 말허지 말고 몃 월 몃 일이꽈?
#1 오 월 오 구. 오 구. 잘 모르켜.
@1 알앗수다. 이땅.
#1 자, 이거 봐이. 사 일 공 오.
@1 사 일 공 오.
#1 이 팔.
@1 이 팔. 오 월 이십팔 일. (민감 정보 생략) 거난 사십일 년 오 월 이십팔 일생인게예. 원래 고향은 어디꽈?
#1 화순.
@1 여기 화순예.
#1 화순 곤물동네.
@1 이 동네는 무슨 동네렌 부릅니까?
#1 이거 중동네.
@1 이거 중동네. 게민 곤물동네에서 낭 중동네에 시집와신게예. 학교는 뎅겨져수꽈?
#1 학교 잘 못 다년. 그때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니단 다 못 다년. 설러 불언.
@1 중퇴한 거. 몃 학년까지 헨마씨?
#1 한 이 학년까지.
@1 이 학년까지 공부헨예. 다른 데 강 살아 본 경험이 육지 물질 한 번 왓다 간 거 하고 그리고 일본 강 멧 년을 살앗어마씨?
#1 일본 갓다 왓다 헌 건 헌 오륙 년 허단 거기 강은에 숨어 산 건 육 년 살안 완. 육 년.

주업

@1 이디 살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헤수꽈?
#1 밭에.
@1 밭에.
#1 농사정은에 허곡 또 저기 바다에 가곡.

@1 바다에 가고. 바닷일 하고 밧일 허고예. 농사는 어떤 농사지어수꽈?

#1 보리, 조, 고구마. 그때는 그거주. 귤도 엇엇고.

@1 삼춘 논농사도 헤 봅디가?

#1 논농사도 헨. 우리 시집에는 요 동네에서는 부자집이엥 헤근에 논도 쪼끔 저 물려 주난에 버슬엉 살안.

결혼 시기

@1 예. 결혼은 몃 살에 헤수꽈?

#1 결혼은 스무 살에.

@1 스무 살에.

#1 스무 살에 가난 어디 가 보지 못헨 그냥 꾸준히 살앗주게. 살아신디 애기 아빠는 결혼허자마자 군인 간 삼 년 살아 불고.

@1 아이고 결혼허자마자 군인 가 분 거.

#1 예. 경헌디 그때에 나가 애기 베어젼게. 안 베어시민 참 좋아실 건디. 아니, 좋아실 건디게.

@1 무사마씨?

#1 처녀로도 못 살아 보고게. 그냥 그 군인 간 틈에 어디 육지라도.

@1 아, 갓다 올 건디.

#1 강 뎅이멍 구경도 허곡 헐 건디.

@1 물질 갈 건디예.

#1 응. 애기 잇어 부난 못 강 그냥 그 군인 강 아빠 오기 전에 애기 난 키우단 보난 삼 년 그땐 이빠이[20] 살아야 왓어.

@1 군인 가 가지고예. 아니, 무사 스무 살에 경 일찍 시집을 가수꽈?

#1 어무니가 막 가렌 허는디 어떵 헤.

중매

@1 그민 이 저기 남자 삼춘을 어떵 알앙 시집간 거마씨?

#1 알앙 헷어게. 중매 헹 갓주게.

@1 누게가 중매 헤수꽈?

#1 중매 그 동네난에게. 우리 뒷집에 삼춘이.

@1 거난 남자도 어쨌든 화순 사람인 거?

#1 게. 게.

@1 남자는 이디 사람이꽈?

20) '이빠이'는 일본어 'いっぱい'에서 온 말로, '가득'이라는 의미다.

#1 이 동네. 요 동네. 이 중동네.

@1 중동네 사람.

#1 우린 저 곤물동네.

@1 곤물동네. 거난 중동네에서 곤물동네에 시집왓어예.

#1 예, 아니주게. 곤물동네에서 중동네로 시집왓주. 요것이 우리 집 아빠 군인 간 때. 군인 간 때.

@1 아이고. 군인 간 때.

#1 요때 스물둘.

@1 완전 잘생겻수다.

#1 스물두 살 때.

@1 아들이 아빠 닮았구나.

#1 예. 큰아들 똑 아빠 닮안.

@1 어. 긍게. 큰아들이 그 얼굴이 잇수다.

#1 요건, 요건 결혼 때에.

뒷칩이 삼춘의 중매

@1 결혼 때에. 이따가 물으쿠다예. 그 중매는 누게가 서수꽈?

#1 중매는 우리 뒷칩이 삼춘이 우리 큰시누 시아부지라. 경허난에 우리 시아버지허고는 사돈끼리. 나는 또 그 우리 뒷칩이 삼춘은 저기 우리 아버지하고는 저 육촌간 형제라나신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신디 족은년이랑은에 안인터 우리 사둔네 족은아덜신디 저 시집보냅서 헤연.

@1 아, 미리 어른들끼리.

#1 경헨에 약속을 헤연에 나신디 막 우리 어머니가 달래고.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살앗어. 우리 아버지가 일본 간 지, 나 낳자마자 일본 가 부난에 저 혼자, 우리 어머니는 사 남매를 키우멍 살아신디.

@1 아, 아버지는 일본 강 살고마씨?

#1 예. 그때 당시엔 경헨 살아 부난 저기 우리 어머니신디 그 삼춘이 막 여기 시집을 보내렌 허난 우리 어머닌 그 저 좀 부자집이고 예를 들민 ᄒᆞ끔 나노라 헌 집이랏어게, 우리 시집이가. 뭐 초대 이장도 하르부지는 허고, 우리 샛시아주버님은 초대 조합장도 허곡.

@1 아, 잘사는 집이구나.

#1 경허난 우리 어머닌 혼자 초라하게 애기도 키우곡 홀어머니가 그추룩 헌 집이서 사돈을 허겐 허난.

@1 옳거니 헹.

#1 응, 옳거니 첨 잘 뒀저 허연. 그때는 돈도 돈이주마는 또 학교도 경 막 하영 허는 것도 생각 안 혀고, 예를 들면 양반 그런 집이 사돈 허민 잘 헷젱 허주게. 게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게 막 시집을 나가이레 보내젠 허난, 난 아이고, 어무니 나 시집 안 가젠, 안 가젠. 어리석어 노난. 겨난게 시집가근에 게 뒷날 안 살아도 좋으난 시집가라, 시집가라 막 달래난 게민 시집가근에 게민 물질 영업 친구들이영 ᄀᆞ치 가젠. 겐 그땐 이 도민증이 잇엇어, 도민증. 지금 ᄀᆞ트민 주민등록증.

@1 맞수다.

#1 도민증 다 지서에 바쪈에 외출 갈 걸로 물질 갈 걸로 다 외출증을 받아 놓고 헤연 시집갓주게.

@1 아, 도민증 있을 때 외출증도 받아야 육지 나가집니까?

#1 받아야 가주. 받아야 가.

@1 아, 육지 물질 가젠 그것도 다 받아 놔신디 그냥 시집가 분 거.

#1 예. 우리 친구들이영 다 ᄀᆞ치, 거기 강 누구영 누구영 ᄀᆞ치 살 걸로 헤연 만딱 다 멤바를 다 짜 놔신디 시집보내난 그냥 난 못 가난 나 대신 우리 친구 동생이 간에 ᄀᆞ치 나 이름으로 헤엿젱 허멍 헨게. 경헨 시집가난 애기 잇어 부난 어디 못 가고.

결혼 전 신랑 정보

@1 우리 남자 삼춘을 시집가기 전에 영 영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온 후제 멧 번이나 봐수꽈? 얼굴은 미리 알아나수꽈?

#1 에. 게. 알아낫주게. 국민학교 때 같이 뎅기난.

@1 아.

#1 같이 뎅겻어. 경헌디.

@1 ᄀᆞ튼 나이마씨?

#1 ᄒᆞᆫ 살 우에.

@1 ᄒᆞᆫ 살 위에. 예.

#1 경헌디 그 연생으론 두 살이나 우에 뒌 사름.

@1 아, 삼십구 년생이구나. 예.

#1 경허난 그 알앗주마는 가까이 지내지는 안헷주게. 막 이제 ᄀᆞ뜨민 막 연애헤근에 가냐 오냐 허주마는 경도 안 허고 또 성질이 완전 남자 다왕 영 고자고자 여자 보민 영 영 허지 안 혀는 성질. 우리 집 아빠는. 에고, 시끄로와게. 영 허영. 시집가근에 ᄀᆞ치 우리 친정에 가도 나 먼저 갈 테니깐 나중에 와 영 허영 자기만 와 불고.

@1 아이고. 막 다정하지 않았구나예. 그런 거 막 섭섭허지 안헙디가?

#1 아니.

@1 아니.

#1 섭섭 안 허주.

@1 아니, 그래도 영 남자 삼춘 얼굴 그때 막 잘 생겨낫잖아예.

#1 아유, 너무 그냥 이만이 크고 성질도 우락우락 허영 막 눈도 크곡 허민 술도 막 잘 먹고 허민. 안인터 양○중이 허민.

@1 안인터.

#1 안인터. 거 동네 이름이 안인터. 경허민 놈덜이 ᄒᆞ끔 어이고. 이런 식으로 ᄒᆞ끔 허엿어게. 거 이 음성도 막 크고. 또 이 풍채도 막 크곡 허난. 소소히 누게가 영 다정하게 허지 안혀. 경헨에.

@1 거난 막 친구들이 안인터 양○중이랑 결혼헷저 허난 막 불러워허지 안 헤수꽈?

#1 아니주게.

@1 아니라?

#1 경 헤신디 말아신디 알아져게.

@1 알아져. (웃음)

#1 겨난 영추 느 거, 우리 신랑은 경 우락부락 허난 아이고, 영추 니 ○중이신디 시집가근에 살아지카? 무사 못 살믄 말주, 무신. 그걸 ᄒᆞ꼼도. 살면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경 살코 또 안 살민 또 어떵 허코 그런 생각이 안 난, 어련. 난 막내로 그 곧 스무 살, 곧 나는 일 월달에 시집가난 열아홉이나 마찬가지주게.

@1 그렇구나.

#1 겨고 나 저 이거 이 날짜를 잘못 놧주. 원칙으론 저 십이월 생이주.

@1 해는 같고예. 십이월 생예. 아, 사십일 년 십이월 생.

#1 게. 아니주. 사십 년 십이월 생인디 올련 놔 불엇어게. 우리 어무니가.

@1 사십 년 십이월 생인디.

#1 게. 경헌디 사십일 년 오월로 놔 불엇주게. 경헤부난 헌디 따지민 나가 저 한 살 밑에.

@1 남편보다예. 남자 삼춘보다 한 살 밑에.

#1 남자보단 두 살이나 밑에. 우리 남편은 이월달에 나고, 이월달에 나고 난 십이월달에 나난. 경헨 허연 살단에 그자.

@1 우리 그렇게 저기 어른들끼리 야이영 야이영 결혼시키자 영 말 나오민 막 ᄉᆞ주도 가져가고 뭐 허고 헙니께예.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게.

#1 그 어무니네끼리 헷주 무신.

@1 어무니네끼리. 그쪽도 어무니네 어무니영예.

#1 우리 어무니 허고 이디 시아버지네끼리.

@1 예. 그민.

#1 우리 어무니 여자로 나도 거 배우진 안헤도 참, 우리 친정 하르버지네도 좀 의젓헌 어른들이난 우리 어무니도 가정교육은 그추룩 받으난 경 함부로 다짜고짜 막 허지 안혀난 우리 시아버님도 우리 어무니 대허기를 그냥 막 예의 잇게 막 잘 헤낫어.

혼담, ᄉᆞ주

@1 응. 게난 남자집에서 이렇게 혼담이 왕 이 똘 우리 집 줍서. 헹 얘기가 나오민 ᄉᆞ주도 가져가고 헙니께예.

#1 응. 가져가고 다 헤실 테주.

@1 아, 삼춘 그거는 잘 모르고.

#1 모르주게.

@1 아, 몰라.
#1 게. 부모덜끼리 허난.
@1 ᄉᆞ주 가지레 오는 날 집이 와난 거 그런 기억은 어수꽈? 남자 집이서 ᄉᆞ주 가지레 오고.
#1 가지레 오민게 뭐 밥허여근에 그때는게 쌀밥이 제일 아니? 쌀밥허고 고기국 끓이곡 헤영 대접허주게.
@1 ᄉᆞ주 가지레 온 날도 밥 멕입니까?
#1 경 헤실 테주.
@1 아, 건 잘 모르는구나.
#1 처음 만날 땐 안 형 멕인덴. 견디 사주단지 가져가곡 다 헐 때는 이미 다 약속이 다 뒌 후에난게.
@1 사주 가졍 강 날짜 나온 거 가졍 집이 올 때.
#1 그때 그때 허연 먹여실 거라.

혼례날 잡기

@1 맞아예. 그때 허연 먹여실 거라예. 경 우리 영 얘기가 나오고 결혼식 날 잡은 게 한 그때 생각해 보면 한 몃 달 후에 영 날을 잡아진 거 닮수꽈?
#1 날 잡는 건 한 오 개월쯤 흘러신가.
@1 아, 오 개월쯤 흘런예.
#1 아시해에, 아시해에 약속을 헤연 오 개월쯤 허난 정월달에, 음력 정월달에 결혼헷어, 우리가. 게난 좀 추운 때에. 경헌디. 그때는 참, 아이고 이거 헌 육십 년, 육십오 년, 육십칠 년 뒛주마는 그때에 첨 낙후 뒈엇주. 차가 택시 거튼 것이 엇엇주게, 그땐. 어디 시내엔 잇엇주마는 이런 촌에는 엇이난 결혼허젠 허민 그 저 도께나 가마에 허여신디 우리 집, 우리 시집이선 저 항만대 군인들 사는디 산방 앞이 그때 항만대엔 헌 군인 부대가 잇엇주게. 거기 간 재무시 차를 빌엉 완.
@1 재무시가 뭐꽈?
#1 큰 군인 차.
@1 아, 군인 차.
#1 요새 거트민 트럭. 그거 빌어단 타신디 곤물 우리 집 강 우리 태왕 덜커덩덜커덩, 그때는 포장도 안 현 길에 요디ᄁᆞ장 완. 우리 시집 들어가는 길은 족안. 그 차가 못 들어갓주게. 게난 멀리서 이제 내려근에 걸엉 들어간. 골목길에. 걸언 들어간. 아이고. 경헤도 그게 그자 당연히 경헌가 헤연 허엿주, 무신 불만을 허나 뭐 허민 어떵 헐 거라. 겨난 이게 지금 나가 아프리카 그 난민들 막 도와 주세요 허는 사람덜토 우리는 막 저 사람들 어떵 헹 살암신고 헤도 그 아이들은 그런대로 젼뎌.
@1 경 사는 거난.
#1 안 젼디믄 어떵 헐 거라. 죽음밖에. 게난 우리도 그런 때가 잇엇주게. 우리나라도. 우리 어무니네 땐 그추룩 헨 살앗주.
@1 맞수다.
#1 우리 시할머니가 흑 ᄌᆞ베기 먹어낮ᄀᆞ렌 허난 오죽허민 경 헤시카.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잇엇어. 경허영 점점점점 발전이 뒈언에 외국 다 물물교환을 허난 살앗주.

막펜지

@1 삼춘 혹시 막펜지렌 허는 거 들어봅디가?
#1 응.
@1 그게 뭐꽈, 막펜지?
#1 막펜지는 사주단지 다 찍어근에 가져오는 거주게.
@1 가졍 오는 거. 저기 남자 집에서마씨?
#1 게. 그 결혼날짜도 다 허곡 헤근에.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가져올 때 그때에 음식을 차령 대접헤.
@1 기라예. 기라. 막편지 가졍 올 때.
#1 경헌 셍이라.
@1 막펜지 가져올 때 남자 집이서는 멧 사람이나 오는고예?
#1 한 서너 사람 왓겟지.
@1 서너 사람.
#1 그 시아버지 뒈는 분허고, 거기 가까운 친척분 하나허고, 또 신랑 뒐 사람허고. 그추룩 왓겟주. 아멩헤도.
@1 게민 이제 막펜지 가졍 오민 날짜가 다 나온 거잖아예.
#1 나온 거. 게.
@1 게민 이제서부터 결혼 준비를 헤살 거잖아예.
#1 게. 게.

혼수 준비

@1 결혼허젠 허민 뭐 뭐를 준비를 헤살 거꽈?
#1 아이고, 결혼 준비허젱 허민 그때에는, 결혼 준비허젠 허민 광목을 막 미리 미리 결혼 오레 허는 사람덜은 그 광목을 통채로 상 저 물에 강 막 뽈앙 숢앙 모레에 강 막 널엉 바레어 가민 이추룩 하얗게 뒈주게. 경헌디 난 그럴 여유가 엇이 홈치 그 바렌 직광목이 아니고 옥광목을 산에.
@1 아, 그 바레지 않은 건 직광목이렌 헤수꽈? 바렌 건 옥광목?
#1 직광목은 사민 그거 막 뽈아긴에 막 숢곡 막 저 모레에 강 널엉 바레곡 헤야 하얗게 뒈주게. 경헌 다음에 또 막 뽈앙 풀 허영 막, 막.
@1 두드리멍.
#1 다듬이질허영 두드령 반반허게 영 허는디 난 경헐 저를도 없고 또 경헐 힘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옥광목 흔 통 사민 이불 세 개, 요 세 개. 베게 그 이불에 맞게 베게 여섯 개, 자부동 여섯 개. 그추룩 헨에 헨 갓주게.
@1 아, 그민 직광목보다 옥광목이.

#1 비싸주게.
@1 비싸시쿠다예.
#1 거 다 공력 잇이난.
@1 경헹 그런, 그런 시간 안 드난 그냥 이걸로 사 분 거예.
#1 예. 예. 겅 헨.

혼수 이불

@1 무사 이불을 세 채를 한 거꽈?
#1 그때 당시엔 보통 세 채 헨.
@1 아, 보통 세 채 헨.
#1 보통 세 채 허난 우린 막 못살아도 어머니가 그 우리 언니덜은 두 채썩 헤 줘도 난 또 막 생각헨 부자집이 또 보내곡 허난.
@1 그니까. 기죽지 말렌.
#1 남 웃기지 말젠. 그냥 그 두 채는 새 솜으로 막 허고. 한 채쯤은 그냥 이 우리 어무니가 더프던 솜이영 막 줏어 모앙은에 그자 형식만 세 채로 만들안에 가신고라 난 거 시집온 후에 거 더프단 그냥 데껴 불고. 게난 우리 어무니신디 아이고, 막 생각허믄 애처로와게. 그냥 어머니가 형편 따랑 허주. 무사 이추룩 허여신고 헌 생각에.
@1 아이고, 게도게 막내딸 잘헹 보내젠. 기죽지 말렌.

혼수 물품

#1 경허영 그때에 또 잘사는 집이선 궤, 궤도 두 개 허고 뭐 미싱, 책상 그런 거 다 헤 줘신디 우리 어머니는 경헐 능력이 엇이난 게도 궤 하나 허고 책상.
@1 책상 헤수꽈, 아니민 거울 화장대 헤수꽈? 책상?
#1 책상. 책상 허고 화장대는 요만헌 거 헷주게. 조그만헌 거 화장대. 그거 헤 주고.
@1 책상은 공부허는 책상마씨?
#1 앞이 영 받아 앚앙 화장대도 놓곡.
@1 아, 예.
#1 응. 그거. 그거 헤 주곡.
@1 요강은 안 헤수꽈?
#1 요강 다 허주. 요강 기본.
@1 요강 기본.
#1 요강 허고, 세숫대야 허곡 또 집에서 쓰는 다라. 그땐 저 이모노[21] 다라.

21) '이모노'는 일본어 'いもの'에서 온 말로 '주물(鑄物)'이라는 뜻이다.

@1 이모노 다라.
#1 그거 큰 거 우리 친정에서 저 우리 고모가 다라 하나 헤 주고. 또 우리 옆집 삼춘 아이고, 족은년 저 어린 때 우리 아기도 ᄒᆞ꼼씩 봐 주고 허난에 세숫대야 하나 사주고. 막 여기저기서 도와 줜게. 우리 어머니 혼자서 그축헨 경헨 도와 줜 허연 오고. 그때는 요강 허영 올 때는 요강에 쌀을 하나 숨빡 채완 줭게. 경허민 결혼허영 뒷날 아침엔 이걸로 밥헙서 허영.
@1 요강에 잇인 걸 가졍 밥헙서.
#1 새 요강이난게. 경헹 드리믄게.
@1 아. 무사 요강에 쏠을 담암신고.
#1 몰라. 부자로 살렌 걸 테주.
@1 그게 부자로 살라는 의미인 거라예.
#1 경헨게.
@1 결혼 다음날 그걸로 밥헤 먹는 거.
#1 예.

이불 허는 날

@1 우리 이불 세 채 헷덴 헤신디, 시집가젠 허민 이불 허는 날이 ᄯᅳ로 있잖아예.
#1 ᄯᅳ로 잇어. 미리미리 ᄒᆞᆫ 일주일 앞에 헤여근에 그때는 시집오는 날 시꺼 왓주게. 쪼꼼쪼꼼 살아 가난 많이 채리난 미리 이불 시꺼 가는 날을 헤신디 우리 때는 그날 같이 시꺼 완.
@1 삼춘 같이 시꺼 완, 결혼하는 날예. 아, 삼춘 올 때 이불도 같이.
#1 올 때 응. 같이 오면 이불이 먼저 오면 거기에 앉은 그 이 대반이엔 허민 나 손우에 동서가 옆에 안지주게, 밥 먹을 때. 게난 그분이 이불도 받아근에 벡장에 딱 지어 놓고. 경허민 아이고 이불도 세 채여 베개도 멧 개여 허멍 사람들이 막.
@1 그니까 그런 거 다 입에 오르는 거라.
#1 경허젠 우리 어무닌 그 어려운디 기냥. 에이구.
@1 그 이불 허는 날 누게가 왕 이불 헙니까?
#1 동네 사람들.
@1 동네 사람들. 그 이불 꼬맬 때도 아무나 꼬매는 거 아니렌 헙디다.
#1 게메 경 허연게. 그땐게. 아이고. 그땐 경 허민 복 좋은 사람들. 남편도 잇곡 애기도 잇곡 부자로 잘 사는 사람덜,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긴에 첫 바농을 끼민 나중에는 좀 경 안 현 사람도 같이 허고.
@1 아, 예. 그 사람이 첫 바농을 끼는 거라.
#1 응. 나도 시집가난에 누게 우리 친척의 분이 "야, 영춘아 느 우리 이불 허는 날 왕 ᄀᆞ치 헤 도라." 허난 난 뭣도 모르고 "예.". 겐 나가 그때는 복이 뭔지도 몰랏지. 어리곡 헌디. 그분들이 잘못이지. 겨난 가난에 "먼저 허라, 먼저 허라." 바농 주난 바농 끼언에 허기 시작허난 문딱 모다들언 헌 거라.

난 것도 모르고. 경 허연 헤신디 그거 다 부절 엇은 짓. 나 이 ᄒᆞ끔 더 살아시민 남편 죽어 불어시민 그런 망신 복이 어디 셔.

@1 아니, 그때는 남편 죽기 전이난게 복 좋은 거렌 헷지. 부잣집 헹 잘 살고 잇인 거난. 경헹 부른 거주 마씨. 우리 그 바농 꼬메는 경 헷지마는 옛날에는 솜 같은 것도 이불 허는 날.

#1 솜, 거 솜 노는 어른덜은 첨 나이든 분덜. 춤 복 좋게 잘 사는 분덜. 나이든 분덜 왕 다 노메.

이불 솜 준비

@1 삼춘 시집갈 때까지도 우리 솜들 막 심엉 멘네들 심엉 직접 한 솜들이라수꽈?

#1 예. 심엉. 우리도 나도 저 시집가젠 허난 미리, 미리부떠 우리 어무니가 금년 멘네 갈앙 ᄒᆞᆫ번[ᄒᆞᆫ뻔]에 막 못 허난 허여다긴에 바싹 물령 씨 안 깡 그대로 바싹 물루왕 그땐 비니루 엇이난 도라무깡에 담아긴에 놔뒁당 한 삼 년쯤 모아 논 솜.

@1 아, 한 해 한 걸로 모자르난.

#1 응. 모자라난. 우린 밧, 큰 밧이 엇이난. 경허난게 쪼끔 쪼끔 모아 논 거 허엿당 이제 시집가게 뒈민 또 그거 다 내왕 바싹 벳에 물루왕 이 씨 까는 기계로.

@1 예. 멘네 불르는 물레.

#1 물레엔 헹 물레. 물레에 돌령 거 씨 다 깡. 또시 그거 다 물루와근에 저 솜 태우는 디 가근에 태와근에 복삭허게 태왕 우리 어무니하고 나하고 모실포 등으로 졍 강. 무겁지 안현 거난 헤도. 젼 간 태완 오란에 놧단 이불 헷주게.

@1 그 태우는 데 가면 얇게 다 밀멍 영 만들어 줍니까?

#1 예. 예. 헤 줘게. 막 나오는 대로 남자 분이영 진 창대 아져근에 기계에서 나오는 대로 볼 볼 볼 볼 물아. 건드리지 안 형 솔 솔 솔 솔 물앙 싹 헤영 한쪽더레 다 놧당 나중엔 저 그때는, 지금도 거주게. 솜 싸는 얇은 천.

@1 시마지 천.

#1 시마지 천, 거기서가 풀아 줘. 경허민 그거 그 솜 태우는 사람들이 싹 페와긴에 이불을 처음 만들어 주주게.

@1 아, 게민 솜 태우는 디서 속 싸는 디까지는 헹 오는구나예.

#1 예. 경허고 가졍 왕 집에서도 허는 사람도 잇곡. 경헌디 돈 줘 거기서 헤영 와 불어야 속 펜안허주게. 거기서 일단은 그 남자 분이 잘헨게. 그 차근차근 솜 한쪽더레 다 헤 뒁 나중엔 그 시마지 다 만들어 논 거 싹 페왕 그 얼마나 크게 헙니까, 작게 헙니까 허민 그자 우린 크게 헤야 뒈언 신랑이 막 크난. 게, 크게 대 키엔 허난 그것에 맞추왕 그 사람이 싹싹 만들아근에 탁허게 내치민 우린 또 거기서 시침 허주게. 중간중간. 시침 헤영 탁 개영 졍 왕 놧다근에 이불 허는 날은 그자 탁탁 내 놩 그자 천만.

@1 그민 이불 허는 날은 막 날력 드는 건 아니다예. 그것만 놩 밑에 거 놩.

#1 경헤도, 경헤도 막 사람들이 하영 왕 그 그 뭐 일당 받아 가는 건 아니고 부주로 막 오주게.

@1 예. 도와 주러.

#1 와근에 그자 저 밥이나 헤영 멕이고 허민 뒈는 거난. 그추룩 헹 헨.

@1 우리 아까 솜 태우는 기계가 공장이 잇어나신디 그런 솜 태우는 공장은 옛날서부터 잇어나수꽈?

#1 옛날서부터 아멩헤도 잇어나난 경 헤실 테주.

@1 삼춘이 막내잖아예. 언니들 시집갈 때도 다 그디 솜 태우는 공장에 강 헹 와수꽈?

#1 경 헤실 테주. 그건 건 물어보진 안헤도 옛날부터 솜 태우는 게 이시난 허엿주.

@1 그 왜 집에서 혹시라도 어릴 때라도 솜 널엉 뭐 영 대나무 같은 거 툭툭툭 때리는 거.

#1 아니, 경헤낫덴. 난 거 그거 말만 들엇주. 어디선가 ᄒᆞ끔 본 적은 잇어. 대나무 영 헌 거에 길게 헌 걸로 막 솜이 말르난 햇빛에서 놘 착착착착 ᄯᅮ리난 그게 북삭허게 페와젼. 기계가 아니고. 그축헨에 이불 헤낫젠 말 듣고 거 ᄒᆞᆫ번 본 적 잇어. 경헌디 우리가 큰 후엔 그거 못 봔.

이불 세 채 장만 이유

@1 예. 삼춘 이불 세 채 한 이유가 이거 세 채가 삼춘네가 쓰는 거꽈, 아니민?

#1 우리가 다 써 그때는. 시어머니네 드리는 거 엇엇어. 그 후에 좀 이 시상이 개방 뒈어 가난 흔전허난 시어머니 드리는 거, 우리 아들네 잔치헐 때 그때야, 육십 년대 나야, 육십 년대 아니지 육십 년대 더 뒈야.

@1 삼춘네가 결혼한 게 삼춘 사십일 년생이니까 딱 육십 년정도 일 거 같으우다.

#1 육십 년 초반에 시집완 그해에 아기, 우리 아들 낳주게.

@1 그 해에 아들 난마씨? 아들 몃 년생이꽈?

#1 육십 년생.

@1 육십 년생. 아.

#1 큰아들.

@1 육십 년 몃 월생마씨?

#1 십일월 사일날.

@1 맞은게. 그민 결혼허자마자 애기 들어섯구나게.

#1 응. 경헤 불언. 게난 그 육십 년대 뒈어 가난 ᄒᆞ끔씩 그냥 개방 뒈어도 아직도 멀언. 우리, 우리 큰아들이 국민학교 한 삼 학년, 한 사오 학년 뒈난 밭에 가멍 동민아, 물 질어당은에 물 질어당 항 ᄀᆞ득지라. 영 헤뒁 뎅기곡 헤낫주게. 경헌디 육학년 땐 뒈 가난에 저 동네에 공동 수도가 생겻어. 예, 이제 왕 생각헤 보민.

@1 예. 육학년 때.

#1 예. 경허민 강 왕 보민 그 오 학년 사 학년, 오 학년 때는 지네 동생들 데리곡 막 먼 물을 스피깡으로 져근에 항 ᄀᆞ득이고 막 헤낫주게.

치마저고리 장만

@1 예. 삼춘 아까 이불은 경 장만 헷고예, 치마저고리도 시집가젠 허난 장만헤수꽈?

#1 치마저고리. 우리 집에선 하얀 치마저고리 허민 그때 당시에 저기 잘 사는 집이는 유동치마 양단 저고리 하얀 걸로 헤영 새각시 하얗게 입엇주게. 경헹 가신디 우린 어무니가 잘 못살고 여의치 못하난 뽀뿌린[22] 치마 저고리 하얗게 입어근에 그거는 싸게.

@1 그거는 나이롱인가.

#1 나이롱. 예를 들민.

@1 양단 아니라예.

#1 양단 아니. 예를 들민 광목 천 그 기지나 비슷헌 거주게. 뽀뿌린 치마저고리. 대부분은 이 촌에선 그거 입언 헷주게.

@1 예. 하얀 거예.

#1 하얀 거. 하얀 치마저고리.

@1 그민 시집가기 전에 그거 하얀 치마저고리 한 불만 준비헌 거.

#1 예. 한 불.

@1 한 불.

#1 한 불 허민 시집가민 시집이서 양단 치마저고리. 남색 치마에 분홍 저고린가 헤 줘게. 경허민 우리 집이서 그거 입엉 시집가민 거기 가근에 상 받아긴에.

@1 경헹 갈아 입는 거.

#1 응, 거 다 상 받앙은에 다 상이 물리면 그 옆에 앉은 동서가.

@1 대반이.

#1 응. 대반이 이거 입엉 왓던 거 다 벗으렌 헤영 벗어 둬근에 시집서 헤 준 거 입주게. 경헹 뒷날 친정 갈 때도 그거 시집서 헤 준 거 입엉 가고. 또 동서도 한 불 헤주고 친척덜토 한 불 헤 주고 시집이서. 시누이덜토 손우이 시누이들 한 불 헤 주고. 그땐 옷으로 선물을 헤 줫주게.

@1 그민 한복 여러 벌 뒛다예. 시집이서 헤 준 게예.

#1 아이고 그때는 뭐, 아이고, 옷이 열 불이엔. 아이고, 스무 불이엔, 친척 많은 집은. 막 그축 헨. 나도 한 예서일곱 벌 뒛주게.

@1 그때는 우리 메느리가 시집갈 때 우리 시어른들 치마저고리 헤 주는 것도 엇어수꽈?

#1 엇언. 엇어.

@1 자기 것만 한 벌 헤 가믄 둼는 거예.

#1 그 후에 그 이 삶이 좀 윤택헤 가난 시어머니 옷도 헤 줨저 뭐, 시어머니 이불도 헤줨저 헷주 그때는 단지 이 새각시 것만.

@1 게민 새신랑 새서방 바지저고리는 그거는 그 집에서가 그냥 알앙 허는 거꽈?

22) '뽀뿌린'은 명주실, 털실, 무명실 따위로 날실을 가늘고 촘촘하게 하고 씨실은 굵은 실을 이용하여 짠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평직물인 '포플린(poplin)'을 말한다. 주로 무명의 것을 이르며 와이셔츠나 여성 복지용으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1 그거 안 헤 준 거 닮아.

잔치 음식 준비

@1 안 헤준 거 닮아예. 그냥 그 집이서 알앙 헤 줄 거. 우리 잔치허젠 허민 음식도 미리 준비헤야잖아예.

#1 예. 미리. 아이고, 미리 허는디 그때는 단지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큰 거주게. 술허곡 돼지고기 차려야 둼는디. 우리 어무니는 혼자난 돼지를 사다근에 미리 잘 멕영 키우곡 살 찌와야 둼는디 우리 어무니 밤이 저 감산리 우이엔 헌 디 강 저 암퇘지 말고 수퇘지로 사당 그 불을 까야 막 잘 크고 살 찐덴 허난 동네 사람 빌어단 불을 까난 그날 밤 오꼿 죽어 불언.

@1 아고. 잘못 깟구나.

#1 아이고, 죽어 부난 우리 어무닌 아이고 놈덜 웃엉 어떵 허코. 기자 놈 웃는 것이 이건 큰 재앙이라. 경허난 그거 동네 사람신디 야, 이거 곶당 잡아 먹으라덜 헹 줘 둰 뚜시 간 사단에 그냥 막 잘 멕영 막 고구마도 막 주어당 삶앙 멕이곡 허멍 키와근에.

@1 역불로 막 잘 멕엿구나게.

#1 잘 멕여야주게. 아이구, 경 먹을 거 엇이난게. 사람 먹을 것도 엇는디. 경헤영 멕영 키왕 잡아긴에 그 헌디 우린 또 부잣집 아닌, 고깃반도 요만씩 요만씩 허고 잘 사는 집은 이만씩. 경헌디 우리 친정에선 잘 못사난 쪼끔씩 헤신디 시집인 완 보난 막 이만씩 헌디 막 영 옆에 보난 지지미 닮은 고기를 막 놘. 견디 그때는 돼지에 충이 일엇어게, 충이. 경허연 우리 시집인 큰 돼지 두 마리를 잡아신디 하나엔 충이 들언. 경헤도 그거 다 다듬아 뒁 먹으면 사름엔 저 어떵 안 현 거렌. 게난 그거 다 다듬아 둰에 ᄆᆞ말 가루 허연에 탁탁허게 전을 부쳔. 경헨에 놧언게. 그 그냥 보통 돼지 겅 안 현 거 두 겹 놓곡 그 전 부친 거 하나 놓고. 경허멍 막 푸짐허게 허여주난 아이고, 부잣집이난 돼지고기도 막 훍게 썰어신게. 우리 친구덜 같이 완. 아이고, 첨 시집가신디 말아신디 원.

@1 게도 부잣집 시집가난게.

#2 어려 노난게. 분시 몰란게.

@1 거난 친구들 사이에서는 맨 먼저 간 거꽈?

#1 맨 먼저 간. 먼저 가난게, 우리 친구덜토 다 ᄀᆞ찌 따라 가고. 동네고 허난. 경헨 헤낫주게.

잔칫술 준비 일화

@1 게민 우리 미리 준비허는 거는 돼지만 미리 준비허민 뒐 거.

#1 돼지허곡 술. 술도 거 어디 강 무신 하꼬[23] 술을 허여 오는 거 아니고 자기가 허영 술 다까근에 추니에 담앙. 나도 그때 어무니가 술 허여 노민 방에 잠자는 방에야 빨리 삭혀근에 술이 둼난 이런 항아리 서너 개 놔근에 술 담안. 그민 술 조사 오카 부덴 가슴이 조마조마.

@1 아, 그때 불법이라 부난.

23) '하꼬'는 일본어 'はこ(箱·函)'에서 온 말로 상자, 궤짝, 함 따위를 말한다.

#1 예. 경허영 헌디 저 그거 허여근에 또 그거 큰 가마에 다까 주는, 그 술 빼어 주는 디가 잇어. 경허민 밤이 그 항아리에 거 허벅에 질엉 져 가근에 그거 강 빼어 왕 허민.

@1 아, 그민 술 담을 때 우리 누룩 헤 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만 담아당 부글 부글 부글 궤민 그거 집이서 고소리에 헹.

#1 고소리에도 허곡. 그거 헌 건 우리 어무니가 두 추닐. 추니라고 잇어. 그 저 술 담는 추니로 두 갠 그추룩 간 허여, 빠 오고 ᄯᅮ시 그걸로 족을 거난 ᄯᅮ시 집이서 담안 항아리에 술 한 도가지[24] 담안 집이서 밤이 나가 우리 친구 허고 밤이 영 앚아근에 술 다깜시난 이수꽈, 이런 식으로. 아고 누게꽈, 영 헨 보난 순경이 탁 온 거라. 아고게, 아고게. 요놈의, 요놈의 처녀덜. 우리 뒷집의 친구허고 나허고 앚안 막 시집가민 어떵 형 살코 나 시집가민 살지 안허커라. 이런 식으로 막 곧당 보난 경 와시난 우리 그 순경은 우리 뒷집 또 뒷집 우리 삼춘네 집이 사는 사람이라, 밧거리 빌엉. 경헌디 거 알안에 슬그머니 온 거라, 그 사람이. 요놈이 처녀덜 이거 다 고소헤 불켜 허난 아이고, 아이고 어떵 헙니까, 어떵 헙니까 아이고, ᄒᆞ꼼 봐 줍서게, 봐 줍서게. 시집가젠 허난에 야이 술 다깜수게게. 이거 아이고, ᄉᆞ뭇 돈 엇이난게 사지도 못허곡 허민 나신디 잘 멕이민 고소 안 혀주게. 게난 잘 멕이쿠다. 무시거 먹쿠과, 무시거 먹쿠과 허멍 막 경 허난 그 사람은 술도 안 먹곡 우시개로 골암노렌 허멍 순경이주마는.

@1 동네 사람이난 봐 줘신게.

#1 자기네 지서에서 자기네 집더레 가단 들어왓고렌 허멍 빨리빨리 헤근에 흔적도 엇이 싹 허게 치와 불렌 허연.

@1 아이고, 고마운 사람이여.

#1 매날 보는 사람이곡게 뒷집이 사난게. 경헨에 그거 또시 ᄒᆞᆫ 추니 허연에 세 추니 허연에 영 세완 놔두난 어머니허고 나허고 밤이 영 자는디, 우리 어무니가 퐁퐁퐁퐁 허는 소리가 나. 거 이상허다. 와 닥탁허게 우리 어무니가 나간게마는 안방에 그땐 초가집 안방에 이 황덜이영 막 논 디 검질을 영 보리낭을 꼴안 술 추니를 세 개 영 나란히 세와 놔두난 하나가 싹 드러누원 거 비와지는 소리, 술. 아이고, 겨난 그때 안 갔어야 허는 시집을 간 거라. 돼지도 경 헤영 죽어 불엇지, 술도.

@1 아, 그게 다 징조우꽈?

#1 술도 영 헤영 반은 비와져 불언. 아이고, 어떵 헹 좋고, 어떵 헹 좋고 허난 어무니 그추룩 저들지 말아근에 술 저 허지 말아, 영. 술 안 혀도 뒈느냐 헹. ᄒᆞᆫ 추닌 급허난에 다시 강 만들지 못허난 사단에 그 잔치헷주게. 경허멍 헤신디 그거 하나하나 잊어불지 안혀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생각허민 춤말로 애처로와. 경헤연 나 시집간 후에도 어무니 어무니 나 살아지믄 어무니 살리쿠다 영 허멍 막 헤도 살려졋어.

@1 아니, 게도 나중에 들어왕 모셧덴 허지 안헤수꽈? 어무니. 잘헷주게.

#1 게. 그것사 자식의 도리로 헷주, 뭐 무신.

24) '도가지'는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을 말한다.

잔치 그릇, 물품 준비

@1 그니까. 그니까 모셩 살앗덴 허난. 우리 그런 것도 잇지만 막 그릇들도 필요하고 옛날에 천막도.

#1 그릇덜은 그때 당시에 게메 그릇은 어떵 헹 헤신고? 그릇덜 그때에 사기그릇으로.

@1 맞아.

#1 사발, 사기그릇으로 허곡. 아이고, 그땐 밥 먹어나민 시치는 법도 엇엇어게. 그냥 먹어난 그릇 그냥 헤다근에 숟가락은 시쳐도. 국 먹어난 사발, 밥 먹어난 사발 또 그냥 펑. 허곡 헤도 그게 더럽다거나 뭐 어떵 허지 안헷주게. 보통 다 경 허는 거난. 그런 식으로.

@1 아이고. 게민 그 사기그릇도 우리 집이 잇인 것만으로는 모자랏어예.

#1 아니주. 다 동네에서 다 빌어당, 다 빌어당,

@1 기라, 사기그릇. 상도 빌령 오고?

#1 상도 다 빌령, 동네에서 다 가져 오주게, 다. 다 동네에서. 우리 동네는 또 식구치룩 모드락허게 곤 물동네난 그 동네 집에서가 다 잇는 물건은 다 가져완. 또 놈의 집이 나민 우리도 경 허고. 서로 수눌으멍 그 무슨 보상 엇이게. 경허난 그자 식구치룩 살앗주게.

@1 삼춘 시집갈 때도 집이 막 천막 치고도 헤져수꽈?

#1 천막, 마당에 천막 쳔.

@1 마당에예.

#1 이 방 족으난 앚질 못허주게. 경허민 마당에 천막 쳐근에 멍석 꼴앙, 상이 잇이카 그냥.

@1 아, 그 손님들 상 없이 그냥 음식 먹읍니까?

#1 예. 경헌디 저 우리 헐 때는 그 이 저 바구리, 풀ᄇᆞ른바굼지 군데군데 어펑, 진 널판 헤다근에 영 걸쳐 노민 상 대신. 경헨 헨게, 그건 알아져.

@1 아, 긴 상 만들어신게.

#1 만들엉. 만들엉. 경헹 그레 그자 경허민 기자 얼른얼른 먹엉 일어 사 불민 거기 앉앙 또 먹고. 천막 안에서. 거 아래 보리낭 막 꼴아근에 멍석 싹 꼴안. 뭐 자부동[25]이 이시카, 멍석에 앉앙. 겨난 그 시대가 경허난 사람덜이 당연히 영 헐 거라 헤영 그걸 더럽다거나 어떵 허지도 안헷주게. 아니 먹으민 죽을 건디 경헤도 먹어야주.

그릇제

@1 게난 삼춘 때는 그릇제 같은 거는 엇어낫구나.

#1 게, 우리 시집간 후에. 시집간 후에 이 친척덜끼리 모이던가 아니민 모임 허여근에 그릇 헤영 삭 내는 거. 겡 처음엔 사기사발로 허단 그거 없이 허연.

@1 사기사발 헐 때도 그릇제 헤낫구나예.

#1 그릇제 헷주게.

25) '자부동'은 일본어 'ざぶとん(座布団·座蒲団)'에서 온 말로 방석을 말한다.

@1 처음에는예.

#1 그릇제 허연 사기사발 빌어단 허고, 또 그후에는 또 이모노. 스뎅도 아니 이모노 사발 허단 그거 치와둥 스뎅. 스뎅 허당 이젠 끝나 부난 다신 안 허여.

도세기 추렴, 도감, 솟밋할망

@1 그치예. 이젠 집에서 안 허난. 우리 도세기 잡는 사람들도 벨도로 잇어신가예.

#1 예. 그 이 저 뭣고, 큰일 때에 잡는 사람은 마을에서 일 보는 사람이 잇어신고라 그 사람 빌어당. 경허곡 그냥 그 재미로 동네에서 모임헐 때는.

@1 추렴헐 때.

#1 아무나, 같이 대어 들어 들언덜 잡곡 헨게.

@1 우리 잔칫날 보민 고기 써는 사람이 있잖아예.

#1 예. 그 사람도 빌어당.

@1 그 사람은 뭐렌 부릅니까?

#1 도감.

@1 도감예.

#1 그 사람은 일당 줭.

@1 아, 도감은 일당 줘.

#1 그 사람은 적이 보거나 어떵 허지는 안헤도 그 사람한테는 일당 줘야. 그때는 보리쌀을 한 말 주던지 그 서속으로 허주, 돈 같은 거는 안 허여. 경허곡 잔치 먹으레 오는 사람덜토 돈 같은 거는 안 허고 보리쌀 한 뒈.

@1 부주로.

#1 한 뒈나 두 뒈.

@1 부주예.

#1 부주로.

@1 바람 들어가 부난 기침 나왐수다, 멀리.

#1 경헤여근에 허영게마는 저 그때는 돈이 참 어려완.

@1 게민 그 도감은 여자가 헙니까, 남자가 헙니까?

#1 남자.

@1 여자는 안 헙니까?

#1 여자 안 형게, 남자.

@1 남자가예.

#1 남자가 허민 친척덜 중에 누게 아무랏자 같이 앉아근에 고기 썰어 논 거 반에, 정반에 노는 거는 아무라도 같이 영 거들고.

@1 예. 우리 음식허는 그거 전문으로 허는 사람도 잇인가예?

#1 그때 그 밥허는 할망, 솟밋할망. 솟밋할망 빌어 오민 그분도 쌀을 한 말 주든지 일당 줘야주.

@1 아, 그민 어쨌든 잔치 때 일허는 사람들 다 불러오는디 도감이랑 솟밋할망은 돈 주는 사람.

#1 예. 예.

@1 나머지 사람들은마씨?

#1 그냥게. 그냥 수눌어 가멍.

@1 수눌엉.

#1 물 같은 거 막 져다 줘도 그자 동네에서 수눌엉 그냥. 우리 집에 왕 막 헤 주민 그 집이 일 나민 우리도 강 헤 주고 같이 수눌으멍.

@1 그 도감이 고기는 딱 마탕 누구 나갈 거, 한 반 나갈 거 챙기잖아.

#1 예. 경허민 막 못 쓰게 막. 족암직허다, 이 집에 손님이 얼마만큼 올 거 알앙. 경허민 막 헛뒈게 거이거 노는 사람이 이거 하나 더 먹어 영허민 그축 허지 말렌, 경 인심 쓰지 말아. 돼지고지 족으메 이런 식으로.

잔칫술 대접

@1 단속헴구나예. 술도 영 마탕 역할을 허는 사람이 잇어수꽈?

#1 응. 예. 술은 보민 이 딱 술 추니 옆이 앉앙 친척이.

@1 친척이.

#1 예. 앉아근에 영 주전자레 비워 주민 술 따르는 아이덜이, 친척에서 젊은 아이덜이 허주게. 경허민 요레 한잔 따르라 영 허민 또 영 허곡 허민. 그거는 과히 경 허지 안 헤도 거 먹는 사람덜토게 경 막 하영 먹젠 안 허주게.

이바지

@1 아, 예. 혹시 삼춘 이바지렌 헌 거 들어봐수꽈, 이바지?

#1 이바지가 뭔지 잘 몰라도 이 시집가근에 시집에서 우리 친정더레 돼지 잡으민 흔 다리, 다리 하나 허곡 술 그땐 뒛병, 뒛병으로 하나 허곡 쏠 한 말 허곡 그 새각시 둘레 오는디 거 친척이나 누게 그 집 식구가 정 와긴에 이레 우리 어무니신더레 만약 드리민 우리 어무닌 그걸 받아드려근에 걸 같이 그날 먹주게.

@1 아, 거 잔칫날 새각시 둘레 올 때 가졍 오는 거마씨?

#1 응. 경 헨게.

@1 아, 거 이바지인게마씨.

#1 그것이 이바지엔.

@1 이바지라. 혹시 삼춘네 때에는 왜 신부 집이 막 못 살민 신랑 집이서가 돼지도 주고 쏠도 줭 이걸로 잔치 헤 먹읍서.

#1 그런 건 엇어. 그런 것 엇어.

@1 그런 건 엇어난예. 둘레 올 때 줘난 거.
#1 그 쏠 한 말 허고 술 한 뒈 허는 건 다 부자집이든 가난허든 다 그건 그 의무적으로 경 보내는 셍이란게.

도께

@1 이바지를예, 보내는 거예. 삼춘은 트럭 탕 와신디 그 삼춘 결혼할 때 가메 탕 시집간 사람들도 잇어나수꽈?
#1 가마 타는 건 촌이난 잘 모른디 도께[26]라고.
@1 도께. 응. 응.
#1 도께 탕 가는 건 우리 ᄒᆞ꼼 봔. 우리보단 이전에 사람들.
@1 아, 이전에 사람들예.
#1 응. 우리 어린 때에 보민 그 도께에 앉은디 청년덜이 거 들렁, 들르곡 또 물에, 먼 거리 가는 건 물에 이 그 물 우에 그 도께를 올려노민 물이 바들랑 바들랑 허민 그 물을 잘 운용허는 사람이 딱 허게시리 그걸 잘 헨게.
@1 말 ᄒᆞᆫ 마리에 도께를 올립디가?
#1 물 ᄒᆞ나에 아니지.
@1 두 개에? 앞뒤로?
#1 물 두 갠가 네 갠가 헤실 거라.
@1 두 개인가, 네 개인가.
#1 우리 그거 막 둘, 우리 막 올라사멍 구경헤 봣주. 경헌디 거 우린 그거 우리보다 우리 어린 때 보난 우리보단 더 우엣 어른덜 우리 어머니네 시집갈 때에 헤낫주, 아메도.
@1 삼춘 때에는 다 자가용.
#1 차로. 차로 가든지 가까운 거리는 걸엉 가던지.
@1 아, 걸엉. 삼춘네도 걸엉 갈 거리 아니라수꽈? 가까운 거리.
#1 걸엉 못 오주게. 저 곤물서 요 안인디. 트럭으로 영 와 놘에 골목 안엔 걸언들 갓주.
@1 가메영 아까 도께영 어떵 틀리꽈?
#1 가마는 우린 잘 안 봐도. 이 테레비에 보듯이 근사하게 막 집처럼 만들아근에 방울도 달아메곡 거기 오색 그런 뭣도 둘아메곡 허영 멋지게 헌 거고, 도께는 그냥 만들안게. 그냥 나무로 헤연에 영 사각형으로 허연 딱 딱 베로 무껀. 무껀에 이거 임시 영.
@1 우에 영 지붕 잇지예? 그것도예, 들어가게예.
#1 임시 영 들어가게 영. 겨난게 영 나무로 영.

26) '도께'는 말이나 소를 이용한 가마로, 결혼식 때 신부가 타는 '독교'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떼께', '뒈께' 등 발음이 다양하게 실현된다.

@1 나무로 세웡.
#1 이 큰 나무 영 사각형으로 영 긴 나무 두 개에 이걸 짜 놩 또시 이레 세우는 나무 영 영 사각형으로 세왕 또 이거 집 허는 거추룩 영 허영 다 그런 만드는 게 잇엉 어디 놧다근에 가곡. 영장 때도 경허주, 영장 때도.
@1 상여처럼.
#1 상여처럼. 경 헨게.

족두리접

@1 그민 우리 이 동네에 이런 가마접이나 족두리접 같은 건 삼춘네 시대에는 엇엇겟다예.
#1 거 무신 말이라?
@1 족두리접들. 왜 동네에 가마들 영 맡겨 놩 그거 빌령 오멍 쓰곡 그런 건 엇어낫어예. 엇어난.
#1 엇어난. 엇인디 아메도 어딘가 시난에 빌어 와실 테주게, 우리도.
@1 예. 맞아.
#1 미장원에덜 갈안 빌어완덜.
@1 삼춘 족두리 안 썻어?
#1 족두리 썬.
@1 아, 요거, 요거. 이거 어디서 빌어 온 거 모르쿠과?
#1 잘 몰라.

신부, 신랑 예복

@1 장옷은 어떵 헤수꽈?
#1 장옷은, 장옷도 이거 다 빌려 왓주.
@1 다 빌려 온 거.
#1 이거 아메도 이거 미용사가 다 헤실 테주. 미용사가 다 헤실 거라.
@1 이 족두리도 미용사가.
#1 이거 화장도 시켜 주고.
@1 예. 미용사가 헌 거.
#1 족두리고 뭣이고, 다. 이 관복도 다.
@1 관복 이거는, 이거 남자 삼춘이잖아예. 집이 옷을 입은 거 같애. 이건 집이 옷. 삼춘 때는 관복 안 입엇수다. 이거는 집이 두루마기랑 구두 신어신게.
#1 어. 맞아. 맞아. 경헤신게.
@1 치마바지.
#1 관복도 족두리도 허영 빌려주는 디가 어디 실 거라. 그때 당시에.
@1 그때 당시에. 게난 그거는 접으로 헹 헷덴 헙디다. 다른 동네에서는. 계, 계. 쏠 접 허는 식으로.

#1 맞아, 맞아. 관복도 입은 거 봣어. 거 허리띠 허곡 헹 멋지게 헌 거. 견디 우린 그거 안 헤신게.

@1 그거 안 헨예.

#1 도복 입언 헤신게.

결혼 전 신랑의 신부집 방문 여부

@1 예. 우리 잔칫날이라든지 영 준비허는 날 신랑이 신부집이 오거나는 안 헷지예?

#1 안 헨.

@1 옛날에예.

#1 우린 동네난 미리 가끔 가근에 야, 사진 찍으레 가카.

@1 남자가 와난 가끔?

#1 경허민 부끄로왕 에, 사진은 무신 이런 식으로.

@1 에, 가지.

#1 안 간게.

@1 안 간.

#1 겐 나중에 후회헤 봣자 소용 없지.

@1 아, 게도 영 사진 찍으러 가카 헹 말도 걸고 헷다예.

#1 응. 동네난게.

약혼

@1 그 시대에 뭐 약혼허고 그런 건 엇어낫어예.

#1 약혼도 헤실 테주, 허는 사람덜은.

@1 허는 사람은. 삼춘은 어떵 헤수꽈?

#1 안 허연.

혼례 당일 신부 준비

@1 안 헤연. 자 우리 결혼날이 뒈수다예. 당일이우다예, 결혼 당일. 아침에 일어나민 삼춘은 어떵 헹 이실 거꽈?

#1 어떵 헹 잇어.

@1 아침이 일어낫수다. 신부집이라예, 결혼 당일.

#1 경허민 이 저 신랑 들어오는 거 보민 귀인 벗어진덴 허영 안방에, 그 방이 단독이난 안방에 영 잇이민.

@1 방이 여러 개가 아니난예.

#1 예게. 안방에 잇다근에 그 어디 신랑 들어왕 상 받은 후엔 또 어디 옆집에 친척네 집이를 가나 방 하나 빌어근에 미용사가 와근에 화장시켜 주고 머리도 잘 허곡 헤근에 경형 집이 와근에 ᄀᆞ치.

@1 미용사는 그날 오는 거꽈, 전날 오는?

#1 그날 아침에.

@1 그날 아침에 와. 머리는 저기 맨 먼저 머리부터 헤 줍디가, 화장부터 헤 줍디가?

#1 머리 출리곡, 난 단발머리라시난게.

@1 그때 단발머리라난예. 그민 여기에 가짜 머리 붙이곡 안 헤수꽈?

#1 안 헨.

@1 안 헨. 단발머리만 그냥 뒤로 헤신게예.

#1 게, 게.

@1 미리 파마 하거나도 안 헤수꽈?

#1 파마. 잔치를 헤연 파마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파마 헤낫주게.

@1 단발머리에 파마를 헌 거.

#1 단발머리에 파마 허연.

@1 그민 머리는 막 꼬거나 올리거나 안 헤신게, 그냥 머리에 영.

#1 영 빗어근에 그자 영 이마 띠 헤여근에 족두리 이레 씌우난.

@1 족두리 씌우고. 화장은 연지곤지 영 바릅디가?

#1 예. 게.

@1 예. 그면 그날 아침에 왕 미용사가 화장헤 준 거예. 경헹 안방에 잇엇수다. 자, 신랑이 먼저 들어올 거잖아, 신랑집이서 신부 데리러 오면예. 신랑은 옛날에 신랑집이서 나올 때 제 같은 거 허는가예.

#1 허는 집인 헌덴. 겐디 우리 시집이는 그런 거 안 헤.

우시

@1 그런 거 안 헤. 경 헹 신랑집이서 신부 데리러 왓수다. 누게, 누게가 옵니까? 멧 사람이나 옵니까?

#1 그 돼지고기영 져 온 사람 하나 허고.

@1 그건 여자?

#1 여자. 또시 저.

@1 그건 우시가 졍 와수꽈, 하인이 졍 와수꽈?

#1 그 먹을 거 져 오는 거?

@1 어. 졍 오는 거.

#1 하인이니 뭐니 안 형 그 집 식구끼리 누구 시누인가 누가 져 와실 거라. 경허고 또 저.

@1 그건 이바지 졍 온 거라예. 먹을 음식예.

#1 경허고 또시 저 저 들러리론 우리 샛동서가 왓일 거라. 경허고 우리 대반으로는 우리 큰동서가 앚곡. 식구끼리 다.

@1 게민 저기 삼춘 집에 올 때 시집이서가 여자 셋이 온 거?

#1 여자 둘이.

@1 여자 둘이. 남자는.

#1 아니, 여자 둘인가 셋인가. 하여튼 셋이 아니 둘일 거라.
@1 둘이 오고예.
#1 우리 동서허고.
@1 이바지 졍 온 사람이랑 그다음.
#1 그거 허고 신랑집에선 신랑 친구들이영.
@1 신랑 궨당은 누구?
#1 궨당은 몰라. 남자덜끼리 몰라.
@1 남자덜끼리는 몰라예. 여러 사람 오기는 헷지예. 신랑상을 받아수다.
#1 게.
@1 신랑상을 받앙.

신부 출가 준비

#1 신랑상 받아 불민 난 나와긴에 가근에 준비를 헤야주게, 혼저 ᄀᆞ찌 따라 가젠. 경 헹 헤 부난 뭐 몰르주게.
@1 놈의집 강 헌 거꽈, 삼춘은?
#1 우리 옆집이서.
@1 옆집이 강.
#1 옆집 삼춘네 집이서, 우리 다 동네난 궨당이주게. 바로 옆집 삼춘네 집이 강 그 경 헤렝 막 또.
@1 시겨.
#1 시기곡게. 우리 집 왕 허라, 허라 영 허민 바로 영 마당 건너가민 기난 거기 강은에 화장시경. 또시 살짝 들어왓다근에 나갈 땐 ᄀᆞ찌 신랑 먼저 대문으로 나가민 나도 나가근에 ᄀᆞ찌.
@1 신랑이 삼춘 이신 디 영 데리러 오진 안허여?
#1 안 현게.
@1 안 허여. 남자가 먼저 강 차 탕.
#1 같이 우리 그 같이 들러리로 간 사람이 같이 인도허영 영 차 태우고 경허는 거주.
@1 예. 그 들러리로 간 사람은 삼춘네 쪽 사람이라예. 남자 쪽 사람이 왕.
#1 남자 쪽 집. 남자 쪽. 경허고 우리 쪽 사람도 갓주게. 우리 쪽 간 어른 요 어른. 우리 저 팔촌 아주망 뭴철. 친척.
@1 겅 뭴철. 게민 이제 가난 남자집에 차 탕 갓수다예. 여자집에서는 몃 사람이나 가수꽈?
#1 여자집이서 이 사람들 다 간. 친구덜도 가고. 요 사람은 들러리로.
@1 들러리로 가고.
#1 예. 지정헌 사람이난 가고. 이것덜은 다 동네 친구덜. 이거 이거 다.
@1 어느 거?
#1 이거 다. 요 사람덜은 이거 저 저 웨방서 온 친구 언니덜. 요건 우리 같은 동네에서 같이 커난 친구덜. 이 사람덜은 요 사람덜토 친구덜. 요 사람덜은 친척들이난 앞에 앉고.
@1 그민 여기 잇는 사람들은 다 신부쪽 사람들마씨? 이거?
#1 아니, 이거 신랑 친구덜토 있고. 이거 신랑측 사람덜. 이 남자들은 다.
@1 아, 남자들은. 신랑쪽 사람 신랑측 친구들예.
#1 응.

제보자 소장 사진 속 인물 확인

@1 자, 사진을 보난 이거는 신랑 신부이고 이거 삼춘이고, 요거는 누게 사진.
#1 그건 우리 시누이, 작은 시누이 시집갈 때.
@1 이거는 작은 시누이. 삼춘보다 늦게 시집가수꽈?
#1 예, 나 완 오레 산 후에.
@1 작은 시누이. 이거는.
#1 이거는 이건 우리 조카. 큰 동서 딸.
@1 큰동서 딸 결혼할 때.
#1 큰동서 딸 결혼헐 때. 이것도 그 아주 막 나 시집완 오렌 후에.
@1 아, 게민 삼춘 다음에 요거, 이거 예, 그리고 이거는 더 오렌 후에.
#1 나 시집와근에 애기 나근에 혼 대여섯 살 뒌 후에.
@1 어느 게 삼춘이꽈?
#1 나 이디 엇어실 거라. 애기 가젼에 뒈 부난 안 찍언. 요건 우리 큰아덜.
@1 아, 큰아들 들어잇어, 여기에. 큰아들이 이거 한 육십오 년 정도 뒛겟다예. 큰아들 다섯 살 그정도 뒛겠다.
#1 예. 다서여섯 살 때예, 맞아.
@1 다서여섯 살 때. 이거는 한 일이 년 후에?
#1 이거는 응, 경헌 셍인게. ᄀᆞ만 셔봐.
@1 그민 여기 시부모님들도 이시쿠다.
#1 예. 이건 우리 시아버지 요건 시어머니.
@1 모자 쓴 게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1 여기 나 시집갈 땐 그 엄헌 시할머니도 잇엇어.
@1 어느 거꽈?
#1 이 할머니, 요 할머니. 그때 당시에 이 할머니 한 팔십난 돌아가셔신디.
@1 게민 이 할머니는 누게가 뭴 철이꽈?
#1 이 우리 시아버님 어머니. 이건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할머님, 우리 큰동서 요거는 들러리로 우리 친정의[에] 삼춘, 뒷집이 삼춘. 이 삼춘이 나를 중매헌 삼춘.
@1 아, 이 삼춘이 중매하신 분. 아, 예. 여기는 누게가 뭴 철이꽈?

#1 거기는 우리 큰 시고모 아들.
@1 여기가 여기가 큰 시고모 아들.
#1 외사촌.
@1 안경 쓴 사람은마씨?
#1 건 우리 큰시아주버니.
@1 큰시아주버니. 여기는?
#1 그거는 우리 친정 외삼촌.
@1 아, 그민 여기 우시 간 사람도 같이.
#1 응. 우시 갓주게.
@1 우시 간 사람도 같이 사진 찍엇다예. 그민 이거는 가족사진이고, 이거는 친구덜이영 찍은 사진.
#1 아니, 이건 예, 예. 친구들이영 사진 찍언.
@1 요렇게 두 장 찍고 아까 신랑 신부 사진 찍어신게.
#1 예, 예. 경헨.
@1 아, 예. 사진은 총 멧 장 찍은 거 닮수꽈?
#1 몰라.
@1 몰라. 이렇게 영 찍은 거. 이따가 영 확인을 헐 거고예. 그 사진은 어디서 불렁 찍언마씨?
#1 사진관이 잇엇주게. 그때도. 그땐 요 안덕에도 사진관이 잇엇어.
@1 안덕에 사진관 잇어수꽈?
#1 예. 잇엇어.
@1 화순에.
#1 예. 화순에 사진관 잇엇주게.
@1 무슨 사진관인지는 몰라예.
#1 모르컨게. 잘 생각 안난.

혼례식 절차

@1 모르커라. 예. 우리 삼춘이 신랑집이 도착하민 집이 먼저 들어갑니까, 사진 먼저 찍읍니까?
#1 집이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엉 들어가주.
@1 예. 차에서 내리민 다 모영 사진을 찍을 거.
#1 다 준비헹 놧다근에 그 신부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근에 들어가주.
@1 사진 보난 뒤에 펭풍 세웡예, 영 사진 찍은 거라. 마당에서 우리 서로.
#1 마당에서.
@1 마당에서. 우리 마당에서 서로 영 절하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엇어예. 들어가멍 사진만 찍을 거. 이제 사진 다 찍엇수다. 그다음엔 뭐 할 거마씨?
#1 사진 찍으민 방에 들어강 상 받주게. 상 받으민, 또 상 받은 다음에 옷 갈아입으민 걸로 끗 헤여근에 다 각자 나강 심부름 허곡 새각시는 ᄀᆞ만이 그자 구석지에 앚앙.
@1 우리 새각시 가 가지고 시어른들한테 큰절허고 막 그런 거 어수꽈?
#1 아니 허여. 엇어. 그때에는. 안 헤실 거라. 아니, 아니, 아니 절 허여신가. 아니 헷어 절. 기억 엇어. 경허곡 또시 저 그때는 무신 요 돈으로 답례를 주나 뭐 허지도 안 허고 허난.
@1 그런 것도 엇어.
#1 엇어실 거라.

신부상

@1 신부상 영 보난 뭐 뭐 올라와 이십디가?
#1 뭐 올라와, 그냥 기자 국, 밥, 요 예를 들면 계란, 계란 다섯 개 경허민 그 사람덜이 막 둑세기 하나 주라, 둑세기 하나 주라 막.
@1 문밖에서.
#1 예. 문밖에서 허곡. 또 콩나물 접시에 허여근에 영 올리민 그 전 지졍 우에 톡 더끄곡. 경허고 그날은 돼지고기 올라오고 뭐 거주. 무신 전을 막 지졍 올리나 그런 것도 엇이. 또 닭, 닭 올라와실 거라, 닭.
@1 ᄒᆞᆫ 마리. 온차예.
#1 예. 게믄 거 찢어근에 쪼끔씩 막 나눠 주고.
@1 문밖에 이신 아이들.
#1 또 고기도게, 돼지고기도 갈리로 막 이만이 ᄒᆞᆫ 사라 올리고. 겨민 그거 만약 접시에 밥 쌀밥 ᄒᆞᆫ나허고 고기 하나 걸쳉 것도 막 어떵 막 친척이 잇는 아이덜만 얻어 먹고.
@1 삼춘 가지껭이에, 가지껭이 열엉 영 한 숟갈 거령.
#1 경허연게.
@1 그건 무사 경 헴신고예?
#1 그거 몰라, 그거 몰라도 그 대반 앚은 어른이 밥 ᄒᆞᆫ 세 숟가락 영 영 놓고, 계란 하나 놓곡, 고기 하나 놓곡 헤영 상 아래 놧다근에 그건 나중에 그 신랑 신부 모셔온 사름 가져가실 거라. 경 헤영 준 덴 말이 셔.
@1 그 신랑 신부 모셔온 사람은 하인 말고?
#1 하인.
@1 하인예.
#1 하인.
@1 이불 졍 오곡 헌 사람이지예.
#1 예. 겨고 만약에 도께, 도께로 허민 그 사람이 물을 좌우 허는 사람이주게. 경허민 그 사람은 그런 좋은 일 허곡 무서운 일을 헤도 ᄒᆞ끔 쌍스러운 사람이엥 허엿어, 그때는. 허민 싸울 때에 막 니영 나영 싸울 때 야, 나 뭐 너네, 우리 부모 너네 집에 간 물 아가리 들럿더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아주 막 나쁜 사람으로 쳐. 쌍스러운 사람으로. 경헌디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도 잇엇주게. 경헌디

그 사람은 일천 궂은 일은 다 허여. 천샘이 천샘이라고. 그 사람을 막 잘 받들어 쭤직헌디 ᄒᆞ꼼 적이 봐.

@1 낮췽. 낮췽 봐에. 천샘이라는 게 무슨 말마씨?

#1 그 이름이 건가 몰라도. 천샘이 천샘이 허더라고 그 사람한테.

@1 그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1 예, 이름이 건가 몰라.

홍세함

@1 남자집이서 신부 데리러 갈 때 홍세함이렌 들어봐수꽈?

#1 응. 함 가져간게.

@1 함 가져간덴. 그 안에는 뭐 들어 잇인고예.

#1 그때 당시엔 뭐 뭐 아무것도 안 놧일 거라. 사주단지 든 거 가져강 그것에 담앙 가민게, 열아근에 그거 앗아내엉 그 우리 친정 집이서 제일로 나이 많은 분으로 글 꽤나 읽은 분이 그거 봐근에 우리 집 가문의 내력을 다 쓰는 모냥이라, 그것에. 경헤영 오케이 헤영 그자 허주 돈을 놓거나 뭐 허지도 안혀고. 뭐 백지에 실에 그런 거 놓넨. 멩 길게, 복 잇게 살라고 그냥.

@1 뭐 멩지 한 빌 뭐 그런 것도.

#1 어. 그런 것도 논덴 첨. 맞아, 맞아. 그런 거 노나 광목을 한 통 놓든지 옷감을 논덴. 경헌디 우린 몰라. 뭐 놔신지.

@1 아, 그거 모르쿠과?

#1 나 잘 생각 안 남신게.

@1 그거 뭐 광목 같은 거 들어 이시민 첫 멩질에 버선 멘들엉 궨당들 나눠 준덴도.

#1 아니.

@1 그런 거 안 헤 봐수꽈? 뭐 들어 있는지 몰라예.

#1 뭐 들어신디 몰라, 나는.

사돈열멩

@1 사돈열멩이렌 헌 것도 이수꽈?

#1 그건.

@1 언제 헙니까?

#1 다음날 허는가.

@1 다음날, 예.

#1 다음날 헐 거라. 새각시허곡 새서방하고 친정에 갈 때에 새서방 아방이, 어멍은 안 가곡 아방이 같이 친척덜 두 분허고 따라가긴에 사돈님 수고 많앗수다, 영 형 서로 인사허는 걸 거라.

@1 아, 경헹 신부집에서는 밥 멕이쿠다예.

#1 게, 게. 밥헤영 대접허곡 허영 가 불곡 또 신부덜은 거기서 하룻밤 장 시집이 오곡.

대반상

@1 기라예. 삼춘 아까 새각시상 받을 때 새각시상만 따로 줍디가 아니면 대반이영 다 ᄀᆞ치 큰 상에 차려 줍디가?

#1 우리 헐 땐 따로 주주.

@1 따로 줜. 대반상 따로 새각시상 따로.

#1 따로, 따로.

@1 그 옆에 ᄯᅡ라간 사람들도 다 따로, 따로?

#1 따로. 아니 따라간 사람덜은 같이. 같이 허고 나, 저 새각시상 하나, 대반상 하나, 들러리상 하나. 세 개만 따로따로 허영 나머지 친구덜은 큰 상에 같이, 같이.

혼례식 뒤풀이

@1 삼춘 신랑 집이 갈 때 친구들 하영 ᄯᅡ라가수꽈? 그민 경 상 받으민 친구들은 집에 갈 거 아니민 ᄀᆞ치들 놀러 갈 거?

#1 놀러 안 가지. 다 집에 가지.

@1 그때는 들러리 놀러 가고 그런 거 엇어낫어예. 그날 밤이.

#1 밤이 막 놀주게.

@1 놀주. 그민 그 친구들도 같이 놀 거 아니?

#1 같이 동네난 왓주게.

@1 뭐 허멍 놀아수꽈?

#1 그 허벅 장단 치고, 나상 춤추고, 노래 불르곡 경 허연.

@1 그때는 신랑 친구 신부 친구 다 모영?

#1 응. 경허연. 동네 사람들 다 모여낭.

@1 아,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낭?

#1 예. 늙은 사름이나 젊은 사름이나 새각시 친구고 새서방 친구고 다 모양 막 마리에서 그냥 춤추곡 노래허곡 헷주게. 경허민 새각시도 노래허여, 노래허여 허민 노래허곡.

@1 삼춘도 노래헤수꽈?

#1 게. 노래 헷주게.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허라 허믄 허엿주게.

@1 노래 잘 헤낫구나.

#1 잘은 못 허고게.

@1 못 허고예.

#1 이녁 헤여지는 데ᄁᆞ장.

잔치 음식과 잔치 준비

@1 옛날 잔치 때 음식은 뭐 뭐 나와신고예.

#1 그냥 그냥게. 돼지고기, 김치 무시거, 김치 이제추룩 맛좋게는 안 헤도 김치허곡게 간장. 그거주게.

@1 반찬 저기.

#1 반찬 엇인다.

@1 ᄂᆞ물 무침 같은 것도 엇고?

#1 아니, 아니.

@1 그냥 김치랑 돼지고기 그거? 간장.

#1 그것도 엇엉 못 먹어신디.

@1 밥은 어떤 밥이라나수꽈?

#1 밥은 보리쏠, 곤쏠, 팟 놔긴에, 반반 허는 집도 있고. 또 잘 출리는 집인 그자 삼분의 일 보리쌀 놓고. 막 경허민 잘 출렷젱 허영 허곡 헌디 대부분 보리쌀이 많이 들어갓주게. 경헨. 경헤도 춥 잔치 밥은 맛잇엇어.

@1 잔치밥은 맛잇엇어.

#1 그 잔치밥 거릴 그릇도 엇엉. 막 밤새낭 밥을 허주게. 밤새낭. 밥을 막 큰 가마에 막 밥을 허민 그거 펏다근에 내일 먹일 건디 지금은 뭐 플라틱그릇들이 얼마만이 많은디 그때는 엇이민 저 멩텡이라고.

@1 으, 맞아.

#1 그 찝으로 여껑 만든 거. 그것에 첨 어리석게 천이 그 이불 아까 호청허는 그 얇은 천 잇이민 싹 빨아근에 딱 짜뒁 싹 깔앙 허민 좋은디, 그것도 엇엉 그냥 멩텡이레 푸민 나중에는 그 찌끼 부텅 나와. 경허는 디도 잇곡. 베로 만든 바구니. 그것에는 좋주게. 바구니에 막 펏다근에 허고. 경 허멍 헤신디 난 왜 그추룩 천이 어려워신고.

@1 어려웟주마씨.

#1 그 천 싹 허게시리, 우리 어머니, 저 우리 어머니 젊은 때 일본 간 막 살아나난 올 때에 꼬리짝이라고 큰 꼬리짝 두 개에 그냥 이빠이 천.

@1 구덕 같은 거 큰 거예.

#1 천을 그냥 버드나무 그걸로 짠 고리짝이라고 잇엇어. 걸로 이빠이 두 개를 딱 그때는 옥광목 ***는 그런 면 종류 그 천을 막 하영 가젼 오난 우리 옷도 우리 막 클 때ᄀᆞ장 그거, 그 천으로 헤 줘 입어난 생각난.

@1 어무니 직접 만들어줫구나예.

#1 어무니가 만들언.

@1 혹시 어무니 일본에서 방직공장 다녓덴 헙디가?

#1 공장에 다년.

@1 아, 공장에 다년.

#1 예. 공장에 다니난 우리 아버지는 왓단에 또 가 불고 어무닌 우리 키우멍 사는디 사지 안허영 그 천으로 치마저고리 팔월이고 쇼가쓰[27] 멩질이고 허민 그걸로 만들앙 입졋어. 우리 치마저고리.

@1 어머니 바농질 막 잘 헤시쿠다.

#1 난 못 허고게. 우리 어무니가 허연. 경허민 그 천 하난 우리 어무닌 그 잔치 때에도 제일 얇은 천으로 싹 물에 빨안 딱 짜 둬 싹 페왕 멩텡이 굽에 끌앙 밥헤나민 거 아무치도 안허주게. 경헨 허연게 마는 아유, 어떤 집인 강 보민 그냥 퍼근에.

@1 그 멩텡이 거 다 부텅 밥 나올 거.

#1 예. 부텅 나와도 근냥 그걸 떼멍 다듬으멍 먹엇어. 겨난 이제 아프리카 그 난민덜 허는 거 아이고, 저거 어떵 살암신고 헤도 닥치민 다 살아. 닥치민 다 살아.

혼례식장의 변화

@1 맞아, 맞아. 우리 삼춘 때까지는 집이서 결혼헷잖아예. 글후제 예식장들에서 나오난 언제부터가 영 예식장들 가수꽈?

#1 아무튼 육십년 대 초에 시작헷주, 뭐. 우리 갈 때도 아마 도회지렌 경 헤실 거라. 식장에.

@1 삼춘 친구들 중에는 예식장에서 헌 친구들 이수꽈, 엇어?

#1 잘 생각 안 남신게, 집에서 다.

@1 생각 안 남서예. 그때는 어쨋든 다 집에서라예.

#1 거의 다 헌디 그때에 차리는 거를 그 신식으로 헐댜, 구식으로 헐댜 허민 신식으로 허켕 허믄 멘사포 ᄀᆞ튼 건 허연 간.

@1 그 멘사포 정도가 신식인 거라예. 아까 그 육십오 년대에 결혼헌 사람도 멘사포였으니까예. 그거 신식.

#1 예, 그것이.

@1 게민 이 사람 아까 조카 그분 결혼할 때도 집이서 헌 거잖아예.

#1 예. 집이서 헌 거.

@1 집이서 헐 때 뭐 주례가 있거나 사회가 있거나.

#1 아니, 엇어. 엇어.

@1 그런 거 엇어예. 그냥 마당서 사진만 찍어.

#1 그냥 사진만 찍어. 거난 그 이 족두리 안 썽 멘사포 쓰는 게 신식이랏주, 뭐 주례 허곡 그런 절개를 안 출련게. 마당에서.

@1 게민 부신랑 부신부 허는 것도 잇어나수꽈?

#1 부신랑 부신부 허는 건 엇주게.

@1 엇어.

#1 게. 그 만약에 신랑측에서 저 우시 가는 것이 부신랑. 저디선 들러리 오는 것이 부신부. 그런 식이주.

---

27) '쇼가쓰'는 일본어 'しょうがつ(正月)'로 정월을 말한다.

우시와 들러리

@1 예. 우시는 거의 누게가 우시를 헙니까?

#1 저 우시는 그 시집 쪽에서도 외가에서 한 분 저 본가에, 친가에서 한 분.

@1 게민 친구들은 우시 축에는 못 낄 거라예.

#1 안 혀주게.

@1 그민 그건 들러리렌 헐 거꽈?

#1 건 그냥 친구덜 놀레 간 거.

@1 그냥 친구들.

#1 들러리로 간 거는 이거, 이 사름이. 이거 우리 친정 쪽에서 친척 아주무니가 간 거. 우리 올케가 간 거. 시집 측에서는 아까 이 요 우리 동서 이 사람이 들러리로 강, 우시로 간 거.

@1 우시로 간 거.

#1 모시레 간 거. 또 이 사름이 또 친정 쪽에선 또 모셩 온 거. 그거주.

@1 아, 게민 이거 두 사람은 우시인 거라예.

#1 응. 우시. 들러리. 하얀 복 입엉.

@1 예. 이건 들러리.

#1 그 나머지는 친구덜로 다 간 거.

@1 누구는 우시렌 허고 누구는 들러리렌 헐 거꽈?

#1 시집이서. 아니, 아니.

@1 아, 같은 사람인게. 같은 사람인게.

#1 예. 같은 사람. 같은 사람.

@1 어쨋든 우시로 간 거.

#1 거 시집이서 간 거는 우시로 간 걸 테주, 아마도.

@1 들러리는 뭐꽈?

#1 들러리는 친정에서 시집더레 돌아오는 거를 들러리로. 들러리 가라, 들러리 가라 허여.

@1 그런 말을 했엇던 거. 우시랑 같은 개념인가.

#1 우리도 저 시집온 후에 친구 시집 가가난 친구 들러리로 가낫주게.

부조

@1 우리 옛날에는 부조나 답례 같은 건 어떵 헤신고예. 삼춘 결혼헐 때 부조가 잇어나수꽈?

#1 부조. 그 저 친구덜끼리는 잇엇주게.

@1 친구들끼리. 뭐 헤 줘나수꽈?

#1 돈으로 그땐 헨.

@1 돈으로.

#1 흔 이천 원씩.

@1 아, 예.

#1 막 이천 원은 하영 헤 준 거. 천 원도 그자 ᄒᆞ꼼 친허다 허민 천 원. 또 기자 ᄒᆞ꼼 막 친허다 허민 이천 원, 삼천 원.

@1 나가 결혼헐 거민 친구덜은 나한테 부주헐 거잖아예, 궨당에서가 나한테 부주 허는 건 엇엇지예.

#1 궨당에서 허는 건, 궨당으로 따로 허는 건 엇어.

@1 엇어예. 어머니안테는 헤실 거 아니? 쏠로 허든 부지로 허든.

#1 쏠로 헷지, 쏠로. 쏠로 다. 막 생각허민 곤쏠 흔 말. 그건 막 동서끼리난 경 허고 동네에 친척은 보리쏠 두 뒈. 그런 식으로.

재혼과 죽은혼서

@1 옛날에 두 불 가는 사람들도 막 잇어낫지예.

#1 얻엉 가는 사람덜.

@1 얻엉 가는 사람.

#1 얻엉 가는 사람 헤도 우린 나이 어려 부난 잘 몰라. 그런 사람이 흔허지 안혀주게.

@1 아, 흔허지 안헤수꽈?

#1 응. 우리 알기로는 흔허지 안현게.

@1 그 우리 예전에 누게가 돌아가시면 그 결혼하기 전에 누가 돌아가셧어예, 그민 남자 쪽에도 이런 사람이 잇고 여자 쪽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돌아가신 사람끼리 영 결혼시키자 이런 것도 잇어나수꽈?

#1 응. 그건 저 죽은혼서.

@1 죽은혼서.

#1 그런 사람도 잇엇어.

@1 그런 것도 막 ᄉᆞ주 다 본덴 헙니다.

#1 경 헌덴. ᄉᆞ주단지 다 허고 서로 사둔 맺으는 거 허여근에 그거는 그 막 동네 사람들 안 형 그자 식구끼리 제사 지내듯이 허는 셍이라.

결혼 전 주의 사항

@1 경 허는 셍이라예. 우리 결혼 날짜가 영 잡혓다 허민 뭔가 이런 건 멩심허라 이런 건 조심허라 헹 어른덜 곧는 거 잇인가예.

#1 그거 몰라, 잘.

@1 그런 거 몰라예. 삼춘 결혼할 때 친구들이라도 결혼헹 어디 놀러갓다 오켜, 지금 얘기하면 신혼여행이라예. 그런 사람도.

#1 그런 것도 몰라. 엇어.

예물

@1 엇어예. 삼춘 결혼헐 때 신랑이 뭔가 가락지라도 하나 헙디가?

#1 아니.

@1 그땐 엇엇어예. 나중에라도 뭔가 헤 줍디가?

#1 나중에 반지 헤 줘.

@1 이거 헤 준 거꽈?

#1 장게가근에 군인 간 온 후에.

@1 군인 강 온 후에라도 막 빨리 헤 준 거우께.

#1 군인 간 온 후에 헤 줘. 거난 난 또 거 바당에 뎅영 물질 막 허난 시계 사 줫주. 시계.

@1 남자 시계 사 줘? 물질헨 번 돈으로?

#1 그땐 이 시계 흔허지 안헌 때난에 이 반지 허여 주난 아이고, 나 결혼헐 때 난 어리석언 못 헤 주난 하나 헤 주커라 헨.

@1 그민 이거 애기 몃 살 때 이 반지?

#1 이거 아니고, 그건 우리 딸 줘 불엇주게. 서 돈 헤 주난에.

@1 애기 몃 살 때 그 반지 헤 줍디가? 큰아들.

#1 애기 한 다섯 살쯤일 거라. 군인 간 오고 헤가난게, 군인 간 삼 년 살안 와난.

@1 예. 맞수다.

#1 경헨 헤 줘신디, 난 또 시계 사 주카 하난에 에, 내불어 나냥으로 사주, 헤도 게도 사 영 헨에 하나 사 줘, 꼉 뎅겨난.

제보자 소장 사진 확인

@1 우리 화순에서 공동, 합동 결혼식 같은 거.

#1 그런 거 못 봐 봔.

@1 그런 건 못 봐 봔예. 이제 사진. 여기까지 헹예, 글아신디 몃 개만. 몃 개만 영 여줘 보면. 이게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찍은 거예.

#1 응. 가족사진.

@1 가족사진.

#1 예.

@1 요거는 아까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앞에 애기들은 누게꽈?

#1 이건 다 조카들.

@1 조카들. 요 사람이 요 사람이 중매 선 사람?

#1 예. 예. 예. 우리 친정에 뒷집이 외삼, 첨 저 삼춘.

@1 삼춘.

#1 우리 아버지하고 저 육촌 형제뻘.

@1 요거는 누게렌 헷더라?

#1 거는 우리 큰동서.

@1 큰동서.

#1 예. 시집이 큰동서. 요거는 들러리 갓다 온 샛동서.

@1 샛동서.

#1 이거는 친정에 이건 저기 육촌 아줌마.

@1 여기는 누구라마씨?

#1 건 친정에 외삼춘. 우리 어머니 오레비. 요건 우리 큰시아주버님일 거라. 예. 시집이 우리 큰시아주버니.

@1 여기 양복 입은 사람은?

#1 거는 저 우리 큰 시고모 아들.

@1 큰 시고모 아들.

#1 사촌.

@1 뒤에 누구 잇수다. 키 큰 사람.

#1 영 헤 봐. 요건 우리 셋아주버니.

@1 옆에는마씨?

#1 거는 우리 친구.

@1 친구, 친구도 들어잇구나.

#1 외방에서 친구 요 둘이가.

@1 아, 둘이가. 여기.

#1 요 사람은 요 사람 각시. 우리 외사촌 동서.

@1 예. 그민 요거는 친척들이고.

#1 요거는 친구들.

@1 여기 여자 쪽 친구들 남자 쪽 친구들. 이게 육십 년이우다. 아까 요거는 요게 먼저, 요게 먼저다.

#1 요거, 요거 비슷할 거라. 요거는 육십오 년도.

@1 아까 아들 잇인 게 어느 거꽈?

#1 아, 거 그거, 그거.

@1 이게 아들 이신 거. 이게 먼저.

#1 이게 먼저.

@1 이거 시동생예. 여자. 여기.

#1 시누. 시누. 작은시누.

@1 시누 보낼 때. 그민 이 집은 누게네 집이꽈? 이건 남자네 집인게.

#1 이건 사계. 우리 시누, 아니주, 우리 집에서 찍은 거주. 이거 저 우리 집에서 찍언 간 거주.

@1 아, 그민 그때는 여자 집에서도 찍엇다예.

#1 찍어신게. 찍엇어.

@1 삼춘은 삼춘 집에서 찍은 건 엇어?

#1 엇어. 엇어. 우리 집에선 안 찍어.

@1 그리고 이거 후제는.

#1 이것도 우리 집에서 찍은 거. 이 집에, 이 집. 이건 우리 조카.

결혼 후 생활

@1 삼춘 결혼헹 시댁에 살아수꽈? 시집이 살아수꽈? 할머니영?

#1 응 시집이 살안.

@1 시어머니영예.

#1 시집이 살안.

@1 할머니영 시어머니영예.

#1 시집이 산디 저 시집이 집이 여러 채난 큰 안그레는 시어머니, 또 이짝 동녁거레는 큰동서네, 알녁거리는 샛동서네.

@1 아, 다 모영 살안마씨?

#1 서녁거레는 우리. 경헌디 나오면 마당은 다 같이.

@1 지금 경 살렌 허민 못 살 건디.

#1 못 살 건디 그래도 막 우리 시아버님이 엄허게 교육을 잘 시켱 절대 쌉는 일 없이.

@1 그민 삼춘은 결혼허난 남편은 군인 가 불엇잖아예. 경헤도 처음부터 시댁에 들어강 살아수꽈?

#1 예. 예.

@1 그민 삼춘은 어느 쪽?

#1 게민 제일 서쪽에 한쪽은 소양간, 한쪽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마루 요만큼 헌 거 거기 우린 제일 작은 집에 우리 작은 아들이난 살고. 또 이 앞 집엔 마당은 같아도 앞집엔 우리 샛동서. 샛동서네 두 부부가 아기 그때는 나고, 하나 나고 헨 살고, 또 들어오는 데 큰 집은 큰동서. 경헤도 거기에는 집은 커도 그거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큰집 짓은 안거리에는 시아부지네. 헨에 네 채에서 다 각각 살앗주, 일도 같이 허고.

@1 일도 같이 허고. 밥도 같이 헤 먹읍니까?

#1 아니, 아니. 밥도 다 따로 헤 먹고.

@1 따로 헤 먹고예.

#1 경 허연 살아신디 난 작은메느리로 가난 동서덜안티나 시부모안티나 막 사랑받으멍 살안.

@1 아, 기구나예. 삼춘 아까 아들이 요 아이?

#1 예. 요 아이. 저기 치킨 허는 아들.

@1 요건 누구꽈? 안경 쓴 사람.

#1 건 큰시아주버니. 큰동서 요건 두 부부.

@1 큰시아주버니, 큰동서. 좋수다. 고맙습니다.

9.

성산읍 고성리 강재문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4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강재문

제보자 정보

@1 삼춘 성함이 어떵 뒘수꽈?

#1 강재문.

@1 예. 생년월일 어떵 뒈멘마씨?

#1 사십일 년 오 월 십칠 일.

@1 사십일 년.

#1 오 월 십칠 일.

@1 요거 호적에 올라간 나이지예?

#1 아니, 아니. 호적에는 사십이 년으로 뒈어 잇어.

@1 아, 호적에는 사십이 년으로 뒈어 잇는 거예. 원래 고향이?

#1 원래 고향이 여기 성산, 여기 요 수산.

@1 수산?

#1 예. 바로 요, 바로 우에. 바로 우에 수산.

@1 수산에서 태어낭 언제서부터 여기 고성에?

#1 여기 고성에 결혼헤 가지고 여기 살았으니까 저 이, 육십 년대 말.

@1 육십 년대 말. 그니까 결혼 헤 가지고. 결혼은 몃 살에 허신 거꽈?

#1 결혼, 스물다섯에.

@1 스물다섯에 결혼허신 거예. 그때서부터 여기 내려왕 사신 거구나예. 학교는 어디까지 헨마씨?

#1 학교는 저가 학교를 다니진 못했어요. 저, 에, 사삼사건 그니까 우리가 게서 사삼사건, 저희 아버지가 함덕 지서장 지금 요거 지금 나가 저 중앙회 임원이라, 지금. 저 행안부. (친척 이야기 생략)

#1 초등학교 졸업헷는데 네 군데서 졸업헨, 네 군데. 제일 먼저 북국민학교. 그다음 동국민학교, 그다음 저 이, 그 이 제주시 저 어디 수산 와 가지고 졸업헤 가지고. 제일 모년 함덕. 저희 아버지가 함덕 지서장으로 잇엇거든. 겐 함덕초등학교 곧 일학년 입학쯤 헤 가지고 그때 사건 돌아가시니까 사건, 사삼사건 나 버리니까 후에니까 오 월 십삼 일날 돌아가셧어. 겐 그 후에 북국민학교 다니단, 또 동국민학교 다니단, 또 어머니가 그땐 못 사니까 어머닌 육지로 물질 나가 버리니까 할아버지 한테 수산 와 가지고, 수산서 졸업헷어. 졸업은 초등학교만 졸업헌 거야.

@1 수산초등학교 졸업한 거구나예.

#1 예. 게도, 게도 혼자만 고학으로써 무시거 허면서 그냥 그럭저럭 헤서 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잇지.

@1 기라예. 저기 무슨 일 허멍 살아수꽈?

#1 아, 우리 여기 지금 에, 지금 식당 저 우리 아들이 허고 잇는데, 그 우리 허당 다 아들 물려, 저희 어머니가 와서 식당을 허고.

@1 물질허단 돌아완.

#1 지금 삼 대가 식당 허는 거지, 삼 대가. (일부 개인 정보 생략)

@1 삼춘 그럼 육지서 살아낫구나예.

#1 예. 서울.

@1 몃 살에 강?

#1 열일곱 살 때 가 가지고 뭐 이 초등학교 졸업헤 가지고 한 이 년 잇당, 그때 사라호 태풍이여 뭐니 뭐 굉장히 뭐 뭐 먹질 못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게니까 기냥 육지를 갓지, 육지덜 갓지.

@1 열일곱 살에?

#1 열여섯 살에, 열여섯 살 그 십일 월달에.

@1 열여섯 살 십일 월달에 강.

#1 그때부터게, 계속 육지서 이 생활 저 생활 다 헷지.

@1 어디 강 살멍마씨?

#1 제일 모년 부산으로 가 가지고 부산서 가서 빵 공장에서, 빵 공장 헷지. 또 그다음은 또 서울 올라가 가지고 서울서 식당에서 식당 기술도 벱고.

@1 아, 경 헷던 거구나예. 거민 언제 내려와수꽈, 다시 제주도에?

#1 제주도에 결혼헤연, 결혼헤연. 결혼 딱 헨에.

@1 아, 스물다섯에 결혼헤 가지고. 그민 십 년을 서울서 산 건게. 다른 디서 산 건게예.

#1 십 년예. 십 년 충분히 살앗주. (이웃과의 대화 생략)

@1 그민 한 십 년은 다른 데 강 살당 온 거예?

#1 예, 예. 십 년, 십 년 충분 살앗주.

@1 스물다섯에 결혼헤 가지고, 아이는 멧이꽈?

#1 아이 육 남매.

@1 육 남매.

#1 아들 둘, 딸 넷.

동창과 연애 후 결혼

@1 아들 둘, 딸 넷인 거. 삼춘 스물다섯에 결혼헷덴 헤신디 누게, 어떵 헹 연애헌 거꽈? 중매헌 거꽈?

#1 아, 근데 원래 반, 반은 연애. 초등학교 때부터 좀 알고 좋아허고 그랬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안 허니까. 게고 우리 또 친구들, 내가 서울 객지 생활허면서도 편지들은 왓다 갓다 헸으니까 그러면서.

@1 연애헌 거꽈?

#1 예. 그러면서 좀 알아 가지고 친구가 아멩헤도 결혼허게 됴니까 나 이제 결혼하니까, 누구하고 결혼할 거니까 친구를 통헤서 편지를 갖다 주고 오고 그랬엇지.

@1 아, 결혼할 때 됴난 그냥 내려와 불엇구나. 내려왕 여기 왕 그냥 식당헌 거마씨?

#1 어. 식당 헌 거. 이런 사업 저런 사업도 헤 봣는데 좀 손해도 많이 가고 그랫주마는 결과적으로 식당을 헷지.

@1 삼춘 농사는 안 지어난마씨?

#1 농사도 저 그 젊었을 때는 포부도 크고 밀감 묘목을 헷는데 한 칠십 만 본을, 밀감 묘목을 대대적으로 헤낫거든, 크게. 겐디 싹 싹 망헤 벴어. 왜 망헷냐믄, 망허지 않을 건데 칠십 딱, 내가 묘목을 탱자나무를 그 묘목도 어디서 삿나 하면 광주, 그 김천갑에 원예고등학교가 있어. 거기서 그 이 울타리용으로 다 묘목 심어 놓은 거 그걸 대한통운 배 하나 빌어 가지고 배 한 밸 시꺼 왓다고. 묘종 요만씩밖이 안 허는 거. 그런 거 한 배 시꺼 완. 게서 칠십 만 본을 헤 가지고 손해, 그때 손해 안 갈 건데 마침 한일회담이 정상화가 됴 버리니까 김종필이가 일본 가서, 일본서 거 막 묘목이, 공짜 묘목이 막 들어와 벳거든게. 그냥 밀감 묘목이. 게난 그축 헤서 망헤 벳지.

@1 아, 기구나예. (개인사 생략)

결혼 전 사주 보기

@1 결혼허젠 허난 게도 사주 같은 거 보지 안헤수꽈?

#1 아, 사주 봣주게. 게 봣는데, 봣는 건 그때 뭐 이렇게 헤서 결혼허켄 허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가서 봐 왓지. 봐 왓는 거지. 거 정시엔 헌 것이 그 동네 일가에, 보통 일가에도 영헹 그런 거 보는 사람도, 또. (개인 정보 생략)

@1 아, 수산 강칩이.

#1 예. 수산 강칩이.

@1 게난 그 사주를 집안 어르신이 본 거꽈?

#1 예. 집안 어른, 집안 어른. 우리 보는 그, 그렇게 그 봣던 어른들이 옛날에 서당도 허고 서당도 글도 가르키고 그렇게 헷잖아요. 그런 분들이 봣지, 기냥.

@1 아, 그민 아까 사주라는 거 본 게 정시도 사주 보는 사람이고, 그 서당 같은 거 허는 사람들도?

#1 예. 게난 정시를 허젠 허면은 일단은 학문이 있어야 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는 거주.

@1 그민 삼춘 결혼하실 때 사주 보셧던 분 성함이라든지?

#1 아, 돌아가션. 우리 집안에 지금 살았으면 백 한 이십, 백삼십 살쯤 강승보 씨라고이.

@1 그 어르신이 봐준 거라예. 게민 그 어르신이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사주를 다 보는 사람이꽈? 집안 사람들?

#1 다 그렇게 걸 영업적으로 막 그렇게 허지는 않고 그냥이 워낙 유식하고 그렇게 헤서 헤 노니까 기자 헤 달라민 그렇게 헤 주고 그랬엇죠.

@1 그때 사주 볼 때는 뭔가 영 사례비 같은 거 안 줘도 됴수꽈?

#1 예. 그땐 사례가 안 줫죠. 사례가 안 주고 딱 이런 건 있어요이. 그런 건 또 알아야 뭘 건데,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결혼허거나 날짜를 봐 주잖아요. 봐 주면, 돌아가실 때 날짜 봐 주면은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 대소상 다 하거든. 겐 그때마다 그 봐 준 거 대상 때민 무슨 떡이나 허곡 고기나 좀 허곡 겐 그레 가져가곡.

공정

@1 그렇게 가져가는 음식을 뭐렌 불러난 거 알아지쿠과?

#1 저 그게 뭐옝.

@1 공정[28]마씨?

#1 아, 공정. 공정 공정인데 결혼헐 때나 그런 때, 거 가져가는 게 별거 아니여. 지금, 것도 생각헤서 가져가는 거지.

@1 게난 그거 봐준 값으로 영 경 헹 보내는 거잖아예.

#1 예, 예. 또 묫자리. 게난 옛날에는 참 거이, 근데 아무리 자기 좋은 밧이고 뭐고 잇어도 묘 쓰는 게 우선이라. 거 허가도 안 받아. 그 주인한테. 무조건 다 써 놓고 나중엔 묫자리 그 대금을, 묫자리는 대금을 물러도 무신 하이고, 대금 족다, 크다 하질 못헤, 옛날에는. 그대 다 그것도 공정으로 헤근에 묫자리 거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헤서 거 잊지 않고 똑 그런 게 우선 공정, 우선 가지.

@1 게난 결혼헐 때도 영 사주 본 사람한테 음식들 헤 가지고 갖다 주고 헷구나예.

#1 예. 그렇게도 똑 그렇게만, 집안일 헌 건 그렇지 않은데 집안 않은 디는 뭐 그럴 수도 있엇지, 그건 인사니까. 여기도 지금도 결혼허면은게, 저 허면은 어디 외국이나 여행이나 갓다 오면 인사하고 그런 식이지, 게난.

혼례 장소 꾸미기

@1 음. 맞수다, 맞수다. 삼춘은 결혼은 집이서 헌 거꽈?

#1 예. 집에서. 이거 집에 그 아까 어디 가시?

@1 아까 사진 봣수다.

#1 저 집에 저기 저기 그 마당에 마당에. 게도 우리 집안에 젊은 사람덜이 대나무덜 막 첨 잘라단에 영 헨 헤 놓고 그렇게 헷어.

@1 아, 마당에 장식도 헷구나예.

#1 예. 대나무, 대나무.

@1 긴게마씨.

#1 요기 대나무덜 이렇게 잘라서 대나무 막 잘라서 이렇게 영 헤 놓고 이거 평풍.

@1 예. 사진 찍는 앞에 그렇게 헤 놧구나예.

#1 에. 요거 요거 대나무, 왕대 잘라당에 대나무.

@1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요런 대나무로 소나무나 대나무로 올레 들어가는 그 앞에도 장식헤나신디.

#1 예. 그 원래 대나무가 아니고 소나무. 소나무로 헤근에 그렇게도 헷는데 우린 그렇게는 안 혀고 그렇게 허는 집들이 많이 잇엇수다. 게난 그건 친구덜. 친구덜이 알아서 그 와서 뭐 놀고 허면서 헐 거 없으니까 그거 헤 주곡 헷주.

@1 삼춘 세대 때는 요렇게 장식들을 헷구나예. 그 전 세대에 보면 삼춘보다 우에 사람들 결혼할 때도 이렇게 소나무나 대나무로 막 장식하고?

28) '공정'은 장사를 치를 때 지관 등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대가로 보내는 떡이나 고기 따위의 음식을 말한다.

#1 막 경허지 안헸어.

@1 안 헷어예.

#1 그냥 뭐이 옛날에 그 솔잎, 그 저 소나무 문 세우고 그런 것덜은 쪼금 그 현대가 뒈 가는 거.

@1 그치예. 옛날에 그 사모관대 입고 그럴 때는 그거 우리 솔잎 세우고 그런 거 안 헷지.

@1 게민 삼춘 이렇게 삼춘 집에서 결혼할 때 집 앞에 막 천막 치고 그렇게?

#1 아, 천막들은 치지. 그때 천막 친 건 여기 안 나왓네.

제보자의 결혼 시기

@1 예. 안 나왓네예. 그런 건 한 거. 어쨌든 집에서 결혼하신 거예. 그때 삼춘이 결혼하시는 그 시대쯤에도, 보니까 육십 년대 후반쯤 뭘 거 닮은디.

#1 예. 육십오 년도에 우리 결혼헷지.

@1 아, 육십오 년도.

#1 예. 육십오 년도에 결혼.

@1 예. 육십오 년도인데 그때 여기 고성에 예식장이 생겻수꽈?

#1 아, 그때 안 생겼어.

@1 그때 안 생견.

#1 그때 안 생견. 육십 한 칠팔 년도에. 그 사람도 영 헨 막 돌아다니면서 예식 이렇게 집이 가서 허고 돈도 좀 벌고 모앗다가 예식장 처음 짓은 거, 여기.

사진사 고대유와 한봉칠 씨, 동남예식장 정보

@1 그난 예식장 처음 짓은 게 육십 칠팔 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마씨?

#1 아까 그분이 아까 저.

@1 다시 한번 골아 줍서.

#1 고대유. 고대유.

@1 고대유 씨예.

#1 예. 고대유 씨.

@1 예. 지금 살아 계시면 이분이 몃 살 정도?

#1 지금 살아 계시민 정확한 나이는 모르겟는데 지금 한 구십 아니, 구십두 살, 그렇게 뒛어.

@1 삼춘보다 막 우에는 아니구나.

#1 막 우인 아닌디 내보단 한 열 살, 열 살은 아니고 일고여덜, 여덜 살 그 정도. 그 정도 뒛을 거라.

@1 아, 그 정도 우에 분? 그분이 사진 찍으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 분이꽈?

#1 응. 막 그 계속, 게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 사람 오도바이가 잇엇어. 오도바이에 그 카메라 그 사진기 시끄곡 뒤에 시끄곡 헹 돌아다녓지.

@1 기구나. 여기 고성 동네는 이 사람이 찍은 사진들이 하쿠다예?

#1 예. 예. 그 사람이 제일 많아. 그, 그때 사진 그거밖에 없고 그 이전에가 아까 한봉칠이라는 사람 그.

@1 예. 이거 이전에 한봉칠 씨.

#1 예. 성산, 성산. 그 고대유 씨가 그 사람한테서 배워 왓어.

@1 어쨋든 이 한봉칠 씨도 원래 여기 동남 사람이꽈?

#1 예. 아니, 성산, 성산.

@1 성산 사람?

#1 예. 저기 고대유 씨도 원래 성산리 사람.

@1 아, 성산에서 하당 여기 여기 차린 거. 예식장은 동남에 차렷덴.

#1 예. 동남예식장. 지금 저 여기 삼육구 병원 찰린 그 자린데.

@1 아, 기꽈? 그 자리에 잇어난. 거기 예식장 이름은 무슨 예식장이랏수꽈?

#1 그디가 예식장이 동남, 동남예식장인 거 같애.

@1 동남예식장?

#1 동남예식장인 거 같애. 정확히 모르, 동남예식장인 거 같애.

@1 동남예식장예. 이 예식장이 동남에 하나밖에 엇어나수꽈?

#1 예. 엇어난. 하나도 하나도 잘 안 뒛지. 그냥 그 당시 무신. 또 이 예식장 잇어도 예식장에 왕 허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혹시나 오는 사람 잇고, 또 이땅 또 결혼허고 사진이나 왕 찍고 또 그렇고 또 이 예식, 그때는 그런 문화가 그렇게 안 뒈엇기 때문에 예식문화가 막 게서. 게서 집에서 허고 게서 그 후에 조금씩 헤서 변헨 예식장 완 허고 헷지. 요기 생긴 다음에 그다음엔 세화리도 생기고 했었어.

@1 아, 여기 먼저 생기고 세화리 생기고예. 그믄 이 동남예식장은 언제까지 잇어난 거 닮수과?

#1 저디가예, 부인이 돌아가실 때가 그때까지 예식을 헷는데, 그때가 한 팔십 년도, 팔십 년도 초까지 헸을 거 같애.

@1 팔십 년도 초까지.

#1 예, 부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부니까 계속하다가 못헤 가지고 그랬었어요.

@1 그믄 삼촌네 가족 중에는 누게 이 동남예식장에서 결혼헌 사람은 어수꽈? 아는 사람들 중에.

#1 아니, 그때 그 모르겟는데, 근데 결혼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생각이 그 후대는 거의 다 예식장으로 다 완, 뭐 제주시여 뭐여 허는 따문에.

@1 자제분들은 여기 안 헷지예?

#1 우린 여기서 안 헸어.

@1 여기 안 하고. 동생분들이나 누구네도. 저기 사촌, 조케?

#1 아니, 동생분들 다 시에서 헤 버리고 우리 애들은 저기, 저기 수협에서. 수협에도 그 예식장이 있어 가지고.

@1 예. 건 나중에 생긴 거잖아예.

#1 나중에 막 생견. 나중에.

@1 그지예. 예. 예. 게민 우리 동남에 여기 사진 찍는 분이 한봉칠 씨 있엇고, 고대유 씨 있엇고 다른 사람은 엇어나수꽈, 사진 찍는 사람?

#1 그추룩 그 영업적으로 그렇게 해서 허는 사람은 엇엇어.

예장

@1 엇어난예. 이 두 분인 거라예. 그리고 우리 아까 예장 쓰는 거, 예장 쓰는 거는 누게가 헤수꽈?

#1 아, 예장 쓰는 거 게난 그게 저 이 본인이 쪼금 헤서 쪼끔 그 쓸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원래 본인이 써야 뒈는 건데, 거 대리로 써 주는 건데, 그 집안에서 써 줘, 집안에서. 형제간이든지 뭐 집안 어른이든지 뭐 거 좀 헤서, 집안에서가 써 줬지, 예장은. 예장은 약속이니까 결혼, 그 약속게. 약속 그런 거 써 주는 거 내용은 그걸 그렇게 헤서 집안에서덜 거의 다 썼어. 게난 근래에 오다 보니까 한자도 잘 모르고. 게서, 게난 다 한자로만 다 써야 뒈기 때문에.

혼례복

@1 맞수다. 맞수다. 맞수다. 삼춘은 뭐 입엉 결혼헤서마씨?

#1 아, 나 양복 입언. 이거 이거. 양복 입언에.

@1 양복 입언예. 이 양복은 어디서 장만한 거꽈?

#1 아, 이거 양복은 나 서울서, 서울서 딱 헨 맞춰. 서울서 맞췻어. 이거 진짜 서울서 을지로, 옛날에 을지로 큰 양복점에 유명헌 양복점.

@1 이건 결혼헐 때 입젠 역불로 맞춘 거꽈?

#1 예. 결혼할 때 맞춰.

동남의 양장사 김석보 씨

@1 아까 말씀이 여기도 양복 만드는 사람이 잇엇어예.

#1 어. 있엇지. 게난 아까 와이프영 그 김도원 씨라고 그 석보 씨.

@1 김석보 씨.

#1 그 사람 석보 저 본명이 도원이라. 이름이, 이름이 두 개야.

@1 아, 김석보렌도 허고.

#1 석보가 호적명이고.

@1 호적명이고. 김.

#1 도원.

@1 도원.

#1 예 도원.

@1 예. 그믄 이분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천구백 년대생. 아주 아주 할아버지 뒐 거예.

#1 예. 예. 할아버지.

@1 거난 이분이 어떵 양복 만드는 일을 헷어마씨?

#1 아니, 게난 그 그때 옛날에는 양복을 그 옛날에는 제주도에는 양복 입은 사람도 없고, 양복 모르고. 근데 제일 어릴 때 일본 갓거든게. 일본 가서 양복점에서 게난 그 최고 기술로 배운 거지, 아주 기술로써. 일본서 배와 가지고 와 가지고.

@1 겅 일본에서 배웡 그 사람 여기 돌아왕 양복 허는 일을?

#1 응. 일본 돌아오고 막 집도 부자고 아주 요즘은 양복쟁이, 양복쟁이 뭐 헤도 그 그때는 굉장이 큰 직업이, 아주 큰 직업으로 생각헷거든게. 그런 게 직업.

@1 예. 게난 이분 집에서 양복을 영 만들엉 헤신디.

#1 아, 집에서. 양복점 이름도, 그 점이라고 양복점 그 간판도 없고.

@1 간판도 없고예.

#1 소문나니까 이제 동쪽에 이 뭐 이 구좌쪽, 세화쪽, 이쪽에서 다 와서 옷도 맞추고 그랬었어요.

@1 여기 와 가지고 헤낫구나.

#1 예. 그랬었어. 게난 또 옷을 어떻게 잘 만드냐면 그 우리가 양복 만들 때 가봉이라는 거 잇잖아이, 가봉을 안 헤. 안 헤도 딱 맞게 만들아. 옷 뭐. 그렇게 만들안에.

@1 이분 혼자만 일헤나수꽈?

#1 거의 다 혼자 하고 아주머니, 그 부인이 있을 때 부인이 같이 영 뭐 헌 거, 일반 뭐 손봐 주고 꼬메는 거 그런 거 헤 주곡 헌데 가봉을 안 헤. 그렇게 헤도 옷이 딱 맞게 만들어 오는 거야.

@1 이분은 언제까지 이 양복 일을 헤신고예?

#1 양복, 양복 일은게 그 후제에는게, 해방됀고 그 후에 뭐 여기 사삼사건도 정리됀고 또 육이오 나고 그축 헨 그 후에는 이제 쪼끔씩 이 저 이 변화가 됀 버리니까 또 모든 게 이제 또 구가다[29]가 됀 버려. 게난 그 후엔 뭐 가방도 허곡 말이야, 양복하나 만들젠 헤도 굉장히 힘, 일단 힘들게 만들질 안 헤, 옷을. 게도 딱 맞아.

@1 게난 그런 거 기성복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양복 만들어수꽈, 이분?

#1 예. 계속 만들었어. 게고 미승도 지금도 그 신가라[30] 미승이라 헤 가지고 굉장히 비싼 미승이에요. 지금도 그 미승 지금은 어디 갓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승도 그 멧 십 년을 써도 달아지지도 안허곡 허는 미승이라고 헤 가지고 그 미승 회사도 일본서 망헤 벳다고 그러는데이, 팔지 못허니까 한번 만들어서 나간 것이.

@1 아, 워낙에 튼튼하니까.

#1 예. 잘 만들어 노니까 미승. 그런 미승이 거기 딱 있었어. 게난 거 지금 박물관에나 가야 뭘 미승덜인데.

@1 아, 그런 어디 간지 모르고예.

#1 어디 간지 모르지, 겐 돌아가셔 불고.

29) '구가다'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구식, 구형의 의미다.
30) '신가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신형, 신식의 의미다.

@1 이분 언제 돌아가셔마씨?

#1 돌아가신 지가 우리 큰 애가 한 열 살 때 돌아갔으니까 한 오십 년 됏네.

동남 한성라사 한공숙 씨

@1 오십 년 됀, 돌아가신 지. 천구백 칠십 년대에 돌아가셔신게예. 예. 예. 겅 그 후제 양복집들이 생겻덴 헷잖아예?

#1 그 후제들은 양복집 여기저기 많이 생겻지. 그때 간판도 부트고, 뭐 무슨 나사, 그땐 나사라고 이제 딱 들어간.

@1 아까 한성라사. 한성라사 헷던 분이 누구라마씨?

#1 아, 저 한성라사 헷던 분이 여기 저 한공숙, 한공숙.

@1 이분은 여기 분이꽈?

#1 예. 여기. 원래 여기.

@1 이분은 어디 강 그 일을 배운 지는 모르고마씨?

#1 아, 지금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1 여기 살고 계신 분이꽈? (구체적인 주소 생략)

#1 아, 가게? 가게 그디 그디서 양복점 계속 헷는디 나이 들고 허니까 이젠 설러 불엇지, 치와 불엇지.

@1 설러 분 거예.

#1 거기가 지금 무슨 무슨 마트인가 무신 이십사시 마트인가 뭐 지금 허고 있을 거여.

@1 예. 알겟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2 아니, 없습니다.

@1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10.

제주시 일도1동 문순애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5월 2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미진, @2 권미소
- **제보자**: #1 문순애

출장 화장

@1 미장원에서 가근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 삼춘 본인 결혼할 때도 어떵 헷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1 나는 칠십삼 년에 결혼헷고.

@1 거난 그전에 옛날에는 차도 없고예.

#1 차 없언. 그 저 길이 요만이 헤 가지고 옛날 버스, **헌 버스. 그거 흑탕물. 길이 다 흑탕이라. 그디서 다글락다글락 버스 타근에 낼 결혼이다 허믄 오늘 가곡. 저녁에이.

@1 거난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예.

#1 경헤근에 어떤 디 가믄 고팡에서 화장허렌 헤.

@1 거난, 거난, 거난. 그거. 그런 말 듣고 싶어.

#1 왜냐믄 밖에서 허믄 부자로 안 산덴. 고팡에서 화장헨 옛날 그 초롱불, 등핏불. 그거 싸 가지고 그냥 그 고팡에서, 그냥 항아리들 잇는 고팡에서 컴컴헌 디서.

@1 그거 듣고 싶은 거, 그거. 우리 옛날 말예. 옛날 살아난 말.

#1 근데 그 시대에는 나밖이 없을 거야, 제주도에서.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화장헌 사람은 나밖이 없을 거라고.

@1 거난 그거 물어 보고정 헌 거고예. 우리는 제주도 말로 골아 주는 거 좋아헤.

#1 제주도 말로 곧주게.

@1 게난 표준말 쓰는 거 아니고예, 제주도 말로예. 막 옛날 헤난 거.

#1 겐디 어떵 허난 저 제주의 소리에서 어떵 허난 작년, 이천일 년도에 완 헤 갓는데.

@1 우린 이제야 봔. 우리는 이번에는 결혼, 작년에는 뭐 출산, 재작년에는 돌, 돌쳉이. 이렇게 종류별로 사람을 만나서 옛날 헤난 말을 기록허고 책으로 만들고 헴주마씨.

#1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나가 제일 선밸 거라. 아니 어디 하나 또 잇긴 있어. 나보단 한 살 우에 사람.

@1 아, 어느 동네꽈?

#1 근데 잘 모르커라.

@1 삼춘 저희가 차근차근 삼춘 옛날 헷던 거를 물어보면 알아지는 것만 골으면 뒈예. 몰르는 건 기억 안 남저 허민 넘어갈 거예.

#1 아니, 게난 어느 멧 년 전부터 헐 거?

@2 아주 옛날.

@1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좋아. 요즘 건 필요 엇고.

미용실 보조

#1 육십 년대부터 나가 미용실을 헷으니까.

@1 그믄 그때 얘기를.

@2 아, 그 전에. 미용실 하기 전에 시다바리[31] 하던 그때부터.

#1 시다바리, 시다바리부터 시작헷지. 육십 년, 오십팔 년인가 오십 구 년도부터 시작헹 시다바리를 헷거든. 시다바리로 했을 때 동문통 이 로타리가 길이 버스 하나 다니고 흑탕길이라. 그리고 저 고랑, 비 오민 내려가는 고랑. 게민 밤에 걷당 그 고랑에 빠지믄 다쳐. 그런 식으로, 버스도 몽클락헌 버스, 이제ᄀᆞ치 크지도 안헤. 그런 버스 똑 하나 가면 하나로 겨우 넘어갈듯 말듯헌 질을, 좁을 길로. 우리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얘기허카?

@1 차근차근 제가 물어 보쿠다예. 그믄예, 그거에 맞게 대답헤 줍서예.

#1 지금 조잘조잘 이거 소통의 고수, 그거 또 연합 뉴스. 지금 네 군데서 왓단 헨 가신디.

@1 완전 유명한 삼춘이네. 연예인이네.

#1 게난 이천일 년도에, 이천이십일 년도 이 년도에 그 유퀴즈에서 전화 왓더라고. 백만 원 줄 거니까 오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안 갓지. 근데 이젠 오렌 허믄 가지.

제보자 정보

@1 삼춘 이름은 뭐마씨?

#1 문순애.

@1 문순애 삼춘예. 몃 년생?

#1 사 삼년.

@1 사십 삼 년생

@1 올해 나이가 몃 살 뒐 철이꽈?

#1 팔십두 살.

@1 팔십두 살. 무신 띠?

#1 염소띠.

@1 염소띠민 양띠주예?

#1 양띠.

@1 원래 주민등록상에도 이 나이?

#1 응. 이 나이.

@1 옛날 어르신들은 막 올령 쓰고 내령 쓰고 막 헷더라고마씨.

#1 근디 난 그것이 그건, 옛날 할머니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자 어무니가 헤 준 그대로.

@1 게난예. 원래 고향은 어디?

#1 아부지 고향은 오라동인데, 오라동에선 낳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동문통. 이제 제일교, 동국민학교, 동초등학교 그 동네. 그 동네서 나고 그 동네서 크고. 동국민학교 또 팔 회로 졸업하고.

@1 아, 팔 회.

#1 팔 회. 동국민학교 팔 회.

---

31) '시다바리'는 일본어 'した ばり(下張り·下貼り)'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1 그믄 학교는 중학교도 갑디가?

#1 예. 중학교도 나왓고.

@1 어느 다녓수과?

#1 우리 옛날에는 그 저 송죽학교라고 있었어. 그디서 우리 시대는이 중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게 살앗어. 옛날 우리 그 국민학교 때는이 체밥을 먹고 살앗다고. 그냥 그 체라는 거는 그 보리, 보리, 방앗간에서 까까 나면 그 체 나오는 찌꺼기. 그거 제일, 제일 마지막 나오는 걸로 그걸로 먹어서 사는 사람이 많앗다고. 그때 우리 국민학교 시대는.

@1 그냥 보리체엔 골읍니까?

#1 응. 보리체.

@1 뭐 다른 말 곧는 건 없고?

#1 게난 보리체. 그리고 그때는 뭐 무수밧에 가 가지고, 밧에 가 가지고 무수 다 캔 밧에 가서 그거를 이석 줏어 와.

@1 아, 이석 줏어 와.

#1 다 쪼끌락, 쪼그만 쪼그만 한 것덜 그냥 내버리는 거. 주인이 하고 나민 내버리는 거를 그걸 헤다가 쌀이 힘드니까. 그니까 그걸로 밥도 헤 먹고. 또 배추, 배추 이제 뿌리가 이만이 크믄 배추 캐고 난 다음 나면은 그 뿌리, 그것이 파다가 그걸로 또 삶아서.

@1 건 무신거렌 골아?

#1 그냥 뿌리.

@1 그냥 배추 뿌리?

#1 배추 뿌리지. 그리고 또 무수, 무수 그 이삭 줏어 오지. 주인이 다 캐고 남은 찌꺼기덜. 요만씩 요만씩 헌 것덜.

@1 그거 줏어당 밥헹 먹고예.

#1 그것도 밥도 헤 먹고. 또 바다에 가서 톨, 톨 헤다가 그걸로도 밥헤 먹고. 근데 요즘 달래니 냉이니 밭에[바테] 그때는 밧에[바세] 농약도 안 칠 때고 그때는 순 거름. 사람 퇴비. 그걸 썩혀 가지고 밭에 주고. 그땐 농약도 없엇고, 비료도 없엇고, 시대가 너무 어려와 가지고.

@1 게난예.

#1 퇴비 헤 가지고 그거 이제 걸름 말려 가지고 밭에 가서 뿌리니까 밭에 가무는.

@1 아니마씨.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은하수 미용실

@1 이거 은하수 여기서 배완?

#1 여기서 내가 배완. 이 미용사가 기술이 그렇게 좋아.

@1 아, 이거 제주시?

#1 제주시. 지금 어딘가 하면은 동초등학교 가기, 밑에. 동초등학교 가기, 밑에 옛날길 요만이밖이 안

할 때. 흑탕길, 흑탕길. 완전히 그때는 도로 포장이 없었어. 다 흑. 다 흑.

@1 게난 이 삼춘은 돌아가셧지예.

#1 아이고, 돌아가셧주게. 지금. 나 이십 대 뒈기 전에 배와신디 이 사름이 그때 삼십 가까이 뒛주게, 나이가.

@1 이 삼춘이 겅 유명하다는, 못살게 구시는 삼춘이꽈?

#1 예. 이 막 삐얌 때리고.

@1 시다가 버티지도 못헤?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그만두고?

#1 여기서 내가 기술 배울 때 저 그 노루물, 지금 산짓물에서 허벅으로 물, 물 지어다가 대바지로 지어다가, 그때는 수도가 없을 때. 수도가 전혀 없을 때 그때 그 산짓물에 가서 물 지어다가 밥을, 살림을 다 살아 줫어. 항아리에, 미장원 항아리에 물을, 수도가 없으니까 물 질어다 그딜 놔야 머리도 빠마 허멍 감지고 거기도 밥도 헤 먹곡. 무척 고생헷거든, 이때. 그때는 막 발달이, 수도도 없엇고 겨우 전기나 쪼끔씩 잇엇고. 전기 잇는 데도 얼마 안 뒛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 허면서 전기 만들어 줫고, 그전에는 전기가 없엇거든.

@1 이거 멧 년도쯤이꽈, 게난?

#1 이것이 육십년 뒈기, 한 오십 한 칠팔 년 전.

@1 삼춘 그 기사에는 육십일 년부터 미용헷덴 써져선게마는.

#1 어. 육십 일 년부터 인제 미용사가 뒛지.

@1 아, 미용사가 뒌 게 육십일 년.

#1 응. 그리고 여기서 한 이 미용사안테 한 이 년 이상 배왓고.

@1 응. 스승님이네이.

#1 스승님, 스승님.

@1 그때 당시 제주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낫구나.

불파마

#1 유명도 하고, 그때는 미장원이 별로 없었어. 미장원이 별로 없고, 기저 멧 곤데. 나가 금방 들어갈 때 불파마 하고 잇더라고. 이거 불, 불. 이 속에 다 불 들어갓어.

@1 그 불 들어갓덴 허는 게 어떤 거꽈? 어떵 허민 불이 들어가?

#1 아, 불살라진 불게. 지금 그 저 어디 가면 저 삼겹살집 가면은 그 이제 뚱글뚱글 헌 숫이 나오지. 그런 재료로 요만씩 하게 만들어. 요만씩 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또 그 요만씩 한 거 하나씩 들어가게끔 찝게. 요런, 요런 찝게, 요런 찝게 헤 가지고 요기가 그 요만헌 통을 하나씩 달아 놔. 게서 이쪽 하나.

@1 거기다 숫을 놔?

#1 응. 요디 불 하나 놓고 여기도 불 하나 놓고 빙빙 말아 가지고 여기서 똑 꼽아. 머리에 이렇게 딱 꼽아. 거믄 이것이 말라야만이 그땐 오이루 빠마, 오이루 빠마라고 헤서 이걸 똑 찍어서 말르면은 파마가 뒈고, 미용사가 서투러 가지고 잘못헤서 이걸 머리가 타불 수도, 너무 오래 뒈민 머리가 타 불엉 머리가 그냥 딱 엇어져 불어.

@1 아이고, 아이고.

#1 그렇게 헤 가지고 헷을 때 이거 불파마, 이거. 이거 이거 불파마 이거. 내가 금방 들어간 때 이디 불파마 하고 잇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그래서 내가 얼마 안헤서 이 파마가 없어져 불었어. 내가 들어가서.

핸드파마

#1 그래서 핸드파마. 인제, 저.

@2 플라스틱 감는 거?

#1 이런 파마 기구가 나완에 핸드파마로 헤 가지고.

@1 지금 거영 똑같네.

#1 아니, 저 이거는 요즘은 이 기계가 안 나와. 이거는 이 파마 없어지면서 이 기계가 나왓다고. 이 기계가 핸드 파마라고 헤 가지고 요걸로 그 약 발라 가지고 요즘 식으로 헷고, 그다음에 요것이 나왔어.

@1 그건 이름이 뭐라?

#1 이거 롤, 롤.

@1 롤?

#1 이거는 깡 롯드[32], 이거는 프라스틱으로 뒌 거니까 인제 그냥 굵은 롯드. 이거보단도 이렇게 굵은 것도 잇고. 그래서, 헤서 육십일 년도, 육십일 년도 뒈니까 나가 미용사를 뒈 가지고 인제 한 칠십 년도에는 내가 미장원을 차렷는데 이제 종업원으로 잇다가 찰려 가지고 미용을 헷지. 내가 찰려 가지고.

동화 미장원

@1 요건 어디꽈 요건? 동화 미장원.

#1 동화 미장원은 이건 지금 어디냐믄 산지천. 산지천에 아니, 동화 미장원, 관두청[33] 지금 함흥냉면 그 자리. 함흥냉면 자리 이거.

@1 삼춘 그디서도 일헤낫수과?

#1 거기서도 일헷지. 미용사로 있었지.

@1 아, 여긴 미용사로?

#1 응. 미용사로 있엇고 또.

@1 어느 게 삼춘?

---

32) '롯드'는 파마를 하거나 컬을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마는 막대를 말한다. 규범 표기는 '로드'이지만 여기서는 제보자가 발화한 대로 옮겨 적었다.

33) '관덕정'을 잘못 발음한 듯하다.

#1 이거. 이거.
@1 밖에 멋쟁이가 삼춘?
#1 응.
@1 선글라스 낀 거 닮아.
#1 응.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옛날 영춘 빵집, 영춘 빵집 알아져?
@1 예. 예.
#1 그 자리.

백조 미장원

@1 이건 무신 미용실이꽈?
#1 이거는 백조 미장원이라고 헤 가지고. 이거는 나가 미용사로 잇고 얘는 시다고.
@1 게믄 순서대로 허민 은하수 허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여기 헨? 이게 먼저, 어느 게 먼저?
#1 이거, 이거 먼저.
@1 이게 먼저, 그다음 요거, 예. 백조.
#1 그리고 아니, 저 이거 제일 그 사진이 못 찾아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없더라고.
@2 이거는 육십팔 년쯤인가요? 오십팔 년?
@1 이게 오십팔 년쯤인 거 같고, 요거는 육십 년대 초반인 거 같애. 칠십삼 년에 여기를 차렸으니까 육십 년대에 미용사로 일하실 때인 거 같아요.
#1 신문 어디 갓지?
@1 안 보이는데 여기가, 연탄한 거 아니죠?
@2 연탄 맞네요. 연탄에 고데기.
#1 응. 연탄.
@1 연탄 고데기.
#1 연탄, 연탄. 연탄, 연탄 헤 가지고 고데 했을 때. 이거 연탄.
@1 응. 이건 삼춘 언제쯤이꽈? 요 백조 미용실이꽈?
#1 이거 다음, 이거 다음, 그다음에 이거 다음 아, 이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이제.
@1 이것도 백조?
#1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1 백조 미용실에서 한 건 아니고?
#1 백조 미장원에 했을 때도 연탄에 헷고.
@1 아, 게믄 요건 요디서 헌 거고, 요건 요디서 헌 거고 요렇게 헷네, 순서가.

신부 화장

#1 이거, 이거 내가 신부 화장.

@1 신부 화장헤 준 거.
#1 이거, 이거 한복 입엇어. 이때는 한복 입어서 결혼할 때.
@1 맞아.
#1 이때는. 이때가 어느 땐가 하면은 육십 년도 지나서.
@1 육십 년 지나서. 삼춘 미장원 차린 다음에? 차리기 전에?
#1 아니, 차리기 전에.
@1 어. 차리기 전에.
#1 차리기 전에 육십, 육십 한 중반쯤. 육십 년대 중반쯤이고. 이거 같은 사람이고. 이거는 칠십 년. 칠십 한 일이, 칠십일 년도 이 년도.
@1 단발머리 유행할 때네.
#1 그때는 이거 드레스 입어서 헷고. 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사십 년 안 됐어. 이거는 팔십 년도. 팔십 년도에 이거는 사진. 이거 내가 신부 화장헷고.
@1 이거는 현대식이네, 완전.
#1 응, 현대식. 팔십 년대니까.
@1 그니까. 요거, 요거 삼춘 요거. 요건 언제? 요거?
#1 이것이 육십 년, 육십 한 중반쯤.

금미 미장원

@1 응. 이거 뭐 허는 사진이꽈?
#2 이것도 미용사. 나도 미용사, 이건 시다, 야이도 미용사라. 이건 친구고.
@1 아, 그냥 친구 놀레 완.
#1 응. 친구 놀레 왓다가 이거 미장원에서 찍은 거거든. 이것이 연탄. 이거 연탄.
@1 연탄?
#1 어. 연탄 이거 고데 할 때.
@2 삼춘이 어느 거마씨?
@1 젤 앞에?
#1 응, 이거, 이거.
@1 연예인이네. 젊었을 때 한 미모하셧네. 요거는? ᄀᆞ튼 디?
#1 응. 이거는 같은 덴데, 이것도 한 칠십 년 뒈기 전에.
@1 응. 어느 미용실이라, 그건?
#1 이것이 아, 이것이 연탄이네. 이거. 이거 연탄.
@1 응. 아까 그 연탄.
#1 연탄 화로. 이건 고데기 꼽앗고.
@1 그믄 백조 미용실인가?

#1 아니, 아니.
@1 삼춘네 미용실은 아니지예? 이거 옥천 미용실은 아니지?
#1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옥천 미장원일 때다. 옥천 미장원.
@1 아, 옥천 미장원일 때?
#1 응. 옥천, 옥천, 아니.
@1 찰려근에?
#1 차리기 전에 나가 잇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금미 미장원 헤 가지고 지금 제일교 농협은행, 농협 그 자리 집 이실 때.
@1 그딘 무슨 미용실이라낫어?
#1 그디는 저 금미 미장원.
@1 금미 미장원.
#1 금미 미장원 헤 가지고 헷을 때. 금미 미장원.
@1 옥천 미용실 차리기 전이구나예.

옥천 미용실

@1 이건 옥천 미용실인게.
#1 이거는 내가 찰렷지.
@1 그니까.
#1 이거는 나가 차린 거. 옥천은 거 내가 다 차린 거고. 이것도 내가 미장원 찰려서 할 때고.
@1 요것들이 옛날에 헷던 거고예?
#1 아니, 이것도, 이것도 옛날에.
@1 흑백 사진 헐 때는 옛날 삼춘이 차리기 전이고. 칼라 사진은 차린 다음인 거 닮아예. 근데 칠십 년대도 칼라 사진이 잇긴 허구나예.
#1 칠십 년에도 있엇지.

칠십삼 년 결혼

@1 삼춘 몃 살에 결혼헨?
#1 서른 살에.
@1 게믄 몃 년도라? 칠십 삼 년에 결혼헷네.
#1 칠십 삼 년도에.
@1 아. 미장원은 결혼헹 찰련, 아니면 결혼허기 전이 찰련?
#1 찰리멍 미장원 헷지. 찰리면서 결혼헷주. 찰리면서 결혼헨.
@1 아, 거난 결혼도 칠십삼 년, 미용실 출린 것도 칠십삼 년예?
#1 예.

@1 요것도 아까 그 신부네에.
#1 이거, 이거, 이거.
@2 그러면은 드레스는 칠십년대부터 입언마씨?
#1 칠십년 전에부터 입었지.
@2 아까 요거는 한복 입을 때가 육십 년대 중반.
#1 육십 년대 중반 정도 됀 때. 이거 육십 년 중반 이거 한복 입언 찍은 거. 이거 삼성혈이라. 삼성혈.
@2 이거 삼성혈.

예식장

@1 삼춘, 제주시는 예식장이 어디 잇어난? 무신 예식장?
#1 중앙 예식장, 럭키 예식장 또 아이구, 예식장이 중앙로에 잇엇고, 또 요기 저 지금 저, 호남새마을금고에 그 동네이 잇엇고, 또 동국민학교. 동문, 동문국민학교 서쪽으로 보면은 지금 옛날 그 일본덜 살던 사람 사택, 거기도 아이고 그디가 무신 예식장이더라. 잊어버렷다. 그디 예식장 중에 제일 오래 됀 예식장. 또 중앙로 그 저 중앙 예식장. 근데 그 사장이 지금 여자가 돌아가셔 불었어.
@2 남자 사장님은 계시구나.
#1 아니, 아니 다 돌아가셧주.
@2 이제 앉앙은에.
@1 저쪽 강 앉앙 하게마씨.
#1 나와?
@1 책으로만. 책 만들 거.
#1 책만 만들 거. 인터넷도 허고?
@1 인터넷도 하고 책도 나오고.
#1 인터넷도 나올 거?
@2 우리 홈페이지에.

학력

@1 아까 학교 송죽학교 나왓덴 헤신디 그게 중학교예.
#1 중학교.
@1 그건 어디 잇어난 거마씨?
#1 저 서문통. 그냥 그 집이 지금 엇어져 불엇저마는.
@1 어느 동네?
#1 개발, 개발됀 불엉 엇어졋주마는, 그 지금 그디 뭐가 됀 불어신고 모르켜.
@1 제주중학교?
#1 제주중학교 아니라.

@1 아니, 그디 가기 전이. 가구 집 허는 디?

#1 서문통이, 서문통으로 쭉 가면은 그디가 지금 뭐 뒀는지 모르겟다.

@1 그믄 요기까지 다닌 거? 아니면 고등학교도 갓수가?

#1 고등학교는 입학만 허고 못 헷고.

@1 어디 입학헷단에?

#1 상고, 상고. 그때는 상고가 있을 때. 상고는 어디 있었냐믄 지금 저 서문, 서문시장 지나서 그디 향교. 그디가 그디가 그때 상고. 그 주변이 상고라낫거든.

@1 상고? 여상?

#1 아니, 아니. 상고. 여자 남자 공학허는 디.

@1 제주상고 이런 거?

#1 제주상고. 그디가 상고라낫거든.

@1 영평으로 이사 간 디?

#1 영평으로 이사 간. 그디 잇다가.

@1 겡 그디 입학만 헷단에 그만둿구나예.

#1 응. 못 다녓지.

미용일 시작

@1 응. 게믄 언제부터, 몃 살 때부터 이 미장 일은, 미장원 일은 시작헷수과? 미용 일은?

#1 내가 열아홉 살때부터 시작을, 열아홉 살, 열여덟 살인가 아홉 살부터 시작헷는데, 저 여기 인제 종업원으로 계속 잇다가 칠십 년 둬 가지고 미장원 차렷고 뭐, 그다음부터 내가 칠십 년대부터 미장원 차리면서, 차리기 전에부터 미용 봉사는 다녓고, 봉사는 모실포 천사 보육원이도 다녓고. 그 봉사 다닌 데 다 얘기헙니까?

@1 아니, 아니, 삼춘. 우리 봉사한 거 별로 안 중요하고 결혼허고 미용실 헌 거만 물어볼 거. 게난 어떵 허난 미용사를 허게 뒈수가?

#1 아, 우리 우리 시대는 돈벌이가 전혀 없었어, 뭐 할 것이 없었어. 그냥 뭐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제주도에. 길도 그냥 다 흑탕길이고. 아무것도 헐 것도 없고 헤 가지고 그때는 양장점허고 미용을 헐 때. 그때는 양장점들이 많아 가지고 양장점을 굉장히 선호했어. 미용은 아주 천한 사람만 허는 걸로 알앗지. 그래서 나는 미용을 택헤 가지고 꾸준히 하니까 미용을 한다 하면은 사람을 천허게 여기더라고. 그 당시에.

@1 근데 무사 시작을 미용헙디가?

#1 그때는 할 것이 없었어.

@1 무사 양장 안 하고?

#1 양장은 내가 별로. 그리고 우리 중학교 동창이 미용허는 아이가 있었어. 중학교 동창 아이가 나를.

@1 ᄀᆞ치 허겐?

#1 응, 같이 미용을 배워라. 나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 지금 죽어 버렷지마는 가이 권유로 헤 가지고 미용을 시작하게 뒛지.

기술 배우기

@1 어디 강 배웁디가?

#1 아까 그 독한 사람.

@1 독한 사람. 무신 미용실이지, 그디가?

#1 은하수 미장원.

@1 은하수 미장원. 그디서 처음 배왓구나예.

#1 거기서 삼 년을. 근디 거기는 들어가면 두석 달이믄 다 나와. 주인이 독헤 가지고. 근데 나는 그 수도물 없을 때에 그 허벅으로 물, 대바지로 물 질어다가 그디 살림을, 항아리에 부어 가지고 살림을 다 살아 주고. 멘스대꺼지 다 빨아 줬어. 그러면서 기술을 배운 거, 옛날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허믄 기술을 배울 수가 엇어. 일단 그디로 보조로 들어갓다 하면 그디 살림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가서 배와. 옛날엔 그렇게. 그랬어, 미용이. 뭐 나뿐이 아니고 딴 사람도 미용 들어갓다 허면 그디 살림을 다 살아 줘야 뒈. 살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와 가지고 자기 눈치껏 기술을 배왓는데 거기서 삼 년을 잇언 내가 기술을 익숙허게 다 배원. 그 원장이 기술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원장 기술을 내가 다 배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인제는 미용사로 취직을.

@1 원장 일름은 혹시 생각남수과?

#1 뭐?

@1 그 원장. 은하수 원장.

#1 아이고, 기억 안 나.

미용학원

@1 이름 기억 안 나? 혹시 미용 학원도 잇어낫수과?

#1 영주학원. 제주학원.

@1 그건 언제 생겻수과?

#1 내가 미용 들어가기 전에 제주, 제주학원이라고 하나 잇더라고. 제주학원. 이 노타리 잇엇어, 그 학원이. 근데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학원을 못 들어갔어.

@1 학원은 있엇는데.

#1 있엇는데, 제주학원이라고 있엇는데 로타리에 있엇는데 그디는 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미용실로 들어가서 보조하면서 기술을 그 한 군데서 삼 년을 내가 완전히 배와 가지고 그다음에는 인제 취직을, 이제 미장원에 이제 미용사로 취직을 헤 가지고 이제.

@1 삼춘, 제주미용학원이 이디 옥천 목욕탕이영 관련 잇덴 헙디다마는.

#1 아니, 아니. 지금 옥천 모욕탕이 없어졋지마는 그 건물은 그냥 잇수다.

@1 건 어디꽈?

#1 지금 저 제일교 사거리. 지금 옥천 다방으로 뒈 있을 건데.

@1 아. 그디가 옥천 모욕탕 건물이꽈?

#1 그디가 모욕탕 건물. 그 앞에는 상가고 그 두에는 모욕탕. 그 건물이 지금도 살아있어. 거기서 미장원을 차리면서 옥천 모욕탕이니까 우리 집 아빠가 에, 옥천 미용장으로 하라.

@1 아, 삼춘이 처음에 거기서 헷구나예.

#1 그디서 옥천 미장원으로 그냥 헤서 헤 온 게 여태까지 이거 육십 년 동안을 계속.

@1 이 자리는 몃 년?

#1 구십일 년도에 여기 완.

@1 아, 구십일 년도에 이 자리에 온 거고. 아까 제주미용학원이 옥천 미용실, 옥천 목욕탕에 뭐 딸이 미용허단에.

#1 아니, 아니. 관계없어.

@1 관계엇어?

#1 아무 관계없어. 모욕탕 하고는 아무, 나도 관계가 없고, 학원도 관계가 없고. 거는 단지 모욕탕 이름을 옥천으로 헤서 헷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미장원을 차리면서 그냥 옥천으로 하자. 그래서 옥천으로 헷고.

미용사 자격증

@1 겡 처음에 삼춘은 미용사 자격증 같은 것도 시험 봐?

#1 아이고, 시험 안 보면은 자격증 없으면은 우리 시대에는이, 미장원 찰리믄 자격증 없으면 미용을 못 찰렸어. 미용을 못 찰려.

@1 그믄 몃 년도에 그거 딴 거꽈?

#1 육십 년도에 땃지.

@1 육십 년도에.

#1 육십 년도에 땃지.

@1 그믄 은하수 미장원 간 다음에?

#1 은하수 미장원은 보조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배울 때고.

@1 이디서 나올 때 땅 나온 거라?

#1 아니, 아니, 거기서 나와서 미용사로 취직을 헷지. 주인이 자격증이 있어서 차린 미장원을. 내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게서 거디 취직하고 다니면서 미용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 헤 가지고. 그때는 일 종, 이 종이 있었어. 이 종꺼지 땄어. 다. 일종 이종을 다 땄어 나가.

@1 일 종이 높은 거? 이 종이 높은 거?

#1 일 종이 높은 거.

@1 일 종이 높은 거? 일 종하고 이 종은 무신 거 차이꽈? 뭐 더 잘 허민 뒈는 거라?

#1 근데 그때도 그거를. 우리 일 종, 아, 이 종, 일 종을 땃구나. 일 종을 따 가지고 멧 년 후에 이제 이 종을 따야 제라헌 미용사로 인정을 헤 준다 헤 가지고 그서 이 종꺼지 나가 땃지.

@1 아, 일 종 먼저 따고 이 종 나중에 따고, 게믄.

#1 그거 이 종 없는 사람 많아. 그때 멧 멧 사람만. 옛날에 내가 이제 헷을 때 육십 년대 한 사람들만 멧 사람 땃지, 엇어.

@1 그러면 처음에 일종은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고.

#1 실기도 보고.

@1 필기 시험도 보고?

#1 필기도 보고.

@1 아이고.

#1 필기도 보고.

@1 필기, 실기.

#1 굉장히 어려왓어.

@1 실기는 무신거 봅니까? 파마 허는 거? 고데 허는 거?

#1 카트, 고데, 파마 마는 거, 실기 다. 또 필기는이, 우리 미용에 대헹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위생에 대해 나와, 위생에.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이 막 힘들었어. 미용에 대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위생에, 위생 관련헤난. 게난 그때는 위생 검사라고 헤가지고 시청에 위생과에서 미장원에 일 년이 세 번씩 검사를 와낫주게.

@1 그믄 이 종 딸 때는 일 종 딴 사람 중에서 어떵 뭐 경력이 몃 년 이상 잇어야 뒈는 거?

#1 경력 멧 년 잇어야. 그래야 이 종을 줘지.

@1 그땐 실기 다시 보지 않고?

#1 저, 봤어. 실기만 봤어.

@1 아, 그때는 실기만 봐 가지고?

#1 예.

@1 게난 삼춘이 제일 처음 딴 거는 육십? 육십 년?

#1 육십 년도에 땃고.

@1 육십 년에 땃고. 일 종은 육십 년에 땃고 이 종은?

#1 칠십 년도 초에 땃지.

@1 미용실 찰리기 전에?

#1 찰린 후에.

@1 아까 칠십삼 년에 출렷덴 허난 그 이후에 땃네예.

신부 머리, 화장 예약하는 방법

@1 게민 이제 저희가 그 옛날 결혼할 때 얘기를 좀 물어 보크라예. 결혼식 허젠 허민 옛날에는 삼춘한

티 나 결혼헐 거난 나 머리 어떵 헤 줍서 영 허젠 허민 차도 잘 없고 전화기도 엇일 땐디 어떵 행근에 와근에 예약을 헙니까?

#1 아, 손님들이 와 가지고 이제 미장원에 와. 나 언제 결혼하니까 와서 화장[하장] 헤 주라. 경허믄 그믄 내가 하겟다고 헤 가지고 제주시는 아침에 일찍 가서 저, 가면 뒈는데, 시골 같은 데는 미용사가 시골엔 미장원에 별로 없을 때. 제주, 촌에는 미용사, 미용실이 한 군디, 두 군덴데 그런 애들은 화장을 못 헤. 촌에서 찰린 애들은. 기술이 없어 가지고. 게서 나는 화장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머리도 잘 하고. 막 옥천 하면은 머리도 잘하고 미용도 잘하고. 소문이 나 가지고 신부 화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완.

출장 미용사

#1 경허믄 시골 같은 데는 내가 버스로, 버스로, 저녁 버스로 가 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 자 가지고 아침에 화장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왓는데, 미장원에 왓는데 거다 보면 아침에 화장허고 버스도 뭐, 멧 시간에 하나씩 ** 때라낫어. 교통이 안 좋을 때라 부난. 경허믄 오면은 오후가 뒈 불어. 화장허고 끝낭 오면은 오후가 뒈 불어. 겨고 또 어떤 때는 가면은 이 북촌, 북촌은 화장하레 가니까 고팡에서 화장을 헤. 고팡에서. 고팡에서 화장허렌 허연에 그 등핏불. 등핏불 싸가지고 고팡에서 화장을 헤낫주.

@1 무사 고팡에서 화장허렌?

#1 고팡에서 화장헹 나가야 부자로 산덴. 그런 그런 전설이 잇더라고. 그디는.

@1 어두워근에 어떵 얼굴도 잘 못 보는디.

#1 아, 경헤도 등핏불 싼. 그때는 전기가 별로 엇일 때난, 게. 그것도 등핏불도 거 황송헌 거지. 호와, 호와 헤근에 영 헤근에 그디서 허영 나가고. 또 그때는 미용사들이 식 끝나고 상 받을 때까지 신랑집이 가 가지고 멘사포 벗겨 주고 한복 입혀 주고 와야 뒈, 미용사가. 그런 역할까지 안 허면 안 뒈. 우리 시대는이. 경허믄 이제 아침에 화장헤서, 고팡에서 화장헤서 나강은에 이제 신랑 신부 헤서 나가면 미용사가 다 멘사포 긴 것도 다 걷어 줘야 뒈고 식 끝나는 시간까지 다 미용사가 다 손을 봐 줘야 뒈.

@1 계속 화장도 확인하고.

#1 응. 고쪄도 주고. 경형 거디 면사포 쓴 대로 상을 받아. 신랑집에 가면 신부상 거하게 나와, 막 거하게. 그때는이, 이제 뭐 대반 받는 사람이, 대반. 대반 받는 사람이엔 헤 가지고 거기서 애기도 잘 킵고 부자로 살고, 남편하고 다 살고헌 사름이 부자로 사는 사름이 저, 새각시보다 상을 더 거하게 찰리더라고. 그 새각시 옆에 앉아. 거근에 별도로 헤 가지고 그 상을 받아.

@1 새각시 상 따로 대반 상 따로?

#1 따로 따로 따로. 경허믄 그때는 독세기, 독세기 그거 숢아근에 노면은이 새각시가 그냥 막 그때는 막 힘들 때니까 먹을 거, 곤밥이 힘들 때니가 새각시 밥 먹는 거 이렇게 애기들 보믄이, 새각시가 계란 애기덜 주렌. 경허믄 계란은 다 애기덜, 또 그디 고기라도 주면 다 애기덜. 신부는이 그냥 영

봐근에 그 막 어린 애기들게, 오면은 다 줘 불어. 경허곡 또 우리는 미용사엔 헤근에이, 막 그냥 새각시 먹던 거 그냥 막 반 싸 주고 오면 가져오고. 경 그때는 그런 시대랏고.

송당, 태흥 출장

#1 또 손당을 화장을 나가 갓는디, 여기서 손당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때는 길이 요만이도 안 헤. 겨우 추럭 하나 넘어갈 정도로 길이 좁아. 길이 얼트랑탕 얼트랑탕탕 임신한 사람 내려불 정도로 와들랑 와들랑 경 헤근에 그디서 새각시 집꺼지 그 추럭을 그디서 보내 줘. 경허믄 그 추럭을 타근에 그디 가근에 화장을 허는디 소님들안테는 쌀하고 보리쌀허고 팟허고 섞은 밥, 새각시는 곤밥. 근데 새각시 밥 곤밥 헤논 거 보믄이, 불치가 막 잇어. 불치가. 왜냐믄 그때 막 어려울 때고, 막 내가 결혼허기 전에니까 육십 년대지. 육십 년대라. 검질로, 보리 낭땡이로 출로 밥을 허니까 부꺼가면 뚜껭 요렇게 헤 가믄 불티가 날라 들어가 부는 거라. 경허고 그때는 밥을 허고 나면 밥, 우에 밥 잘 익으라고 그 불치를 담앙 솟뚜껑 위에 놔, 뜨시렌. 우에 밥 잘 익으라고. 경 헹 나중에 어느 정도 한 십 분정도 잇이믄 그거를 다 내려와둥은에 밥을 허게 뒈믄 불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엇어. 경허믄 히영헌 밥에 불치가 잇어. 손당은 가니까 그런 식으로이 헷고. 또 어떤 딘, 저기, 저, 그디가 어디냐 하면, 태흥리?

@1 남원이?

#1 저, 저 그 동쪽?

@1 그디도 가봅디가?

#1 응. 아이고. 제주도 안 돌아다닌 디 엇주게. 그때는 미용사가 별로 없고 화장헐 사람이 엇어 부난 그냥 촌이고 어디고 다 갓지. 태흥리 그디는 화장헤레 가니까이 그디는 고기가이 그냥 이만이 허게 썰어, 하나가. 이만이 허게 썰어근에.

@1 돼지고기?

#1 돼지고기를. 넙적허게. 삼겹살. 삽겹살 이렇게 나오지? 그때에 그추룩 썰어. 경 쏢아, 쏢앙 그축 썰엉 그냥 그 정반에 탁탁 걸쳐. 그렇게.

@1 새각시상에?

#1 새각시상에고. 예.

@1 아, 갈비인가?

#1 갈비, 아니 아니. 그냥 돼지고기. 그냥 삼겹살. 그냥 삽겹살거치 길게 헤 가지고 그냥, 저 새각시 상에 그냥 탁탁 그냥 접시에 놩 턱턱 걸쳥 그냥 경 나오더라고, 그디는. 경허고 어떤 디는 가니까이, 새각시가 저, 방에서 화장허는 새각시덜은 쪼끔 그 풍습이 쫌 틀린 디고, 또 이 북촌 쪽으로는 가니까 고팡에서 헹 나오렌 허고, 또 손당은 가니까 밥이, 그때는 쌀이 힘든 때니까 보리쌀 또 팟, 쌀 반 반 서꺼 가지고 그걸 손님 대접하는 밥으로.

신부 화장

@1 거난 이제까지 신부 머리하고 화장은 몃 명 정도 헤진 거 닮으꽈?

#1 칠십 년도. 칠십 년대까지 헷고. 팔십 년대까지는, 팔십 년대까지는 팔십 년대 중반꺼지는 했어. 그 후에 그 후에 메이크업이라고 나와 가지고 이젠 미용사들이 화장을 못 헤. 메이크업 집이 별도로 잇기 때문에, 이젠 메이크업 집도 별도로 잇지 않으꽈예? 그것이 생겨 가지고 미용사들은 화장하는 거 싹 다 손 뗏지.

@1 삼춘은 게믄 화장은 어떵 배웠수과?

#1 화장? 어디 강, 그, 저, 어디 강 뱁는 게 아니고, 그 주인안테 내가 배울 때 주인안테 이제 화장은 요런 식으로 한다고 말만 들엇지.

@1 그냥 어깨 너머로?

#1 응. 어깨너머로 봣지. 어깨너머로. 나는 손매가 좋아 가지고 기술이 하나 보면 둘을 허거든. 그니까 이 미용은 소질이 있어야 뒈고, 추미도 있어야 뒈고, 자기가 이 미용을 싫으믄 절대 미용은 못 허는 거. 첫째 소질이 있어야 뒘. 하나 가리키믄 둘을 알아야 뒈. 그니까 나는 이 화장 하는 것도 어깨너머로 봣고, 또 주인이 뚜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봣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만 들어 가지고 그걸로 내가 연구를 하면서 화장을 내가, 신부화장을 그렇게 이쁘게 헷거든. 그래서 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신부 화장은.

출장 준비

@1 삼춘 게믄 이제에 북촌에 와 ᄃᆞ렌 헨에 갈 거라예. 그때 갈 때 가방에 무신거 무신거 담앙은에 갈 거꽈? 옛날 생각헤 보게예. 그때 가젠 허민 무신거 무신거 챙경 갈 거?

#1 고데. 화장품. 화장품. 이제 삔. 머리 올려야 뒈니까. 그거 허고 옛날 스프레이. 그거 밖에 뭐 가져갈 거 없지. 화장품은 뭐 하나로 열까지 그냥 다 뭐 눈썹 그리는 거, 입술 그리는 거 뭐 볼란지 부리는 거 그리는 거 문딱 가져가야 뒈고. 또 고데는 가서 고데를 헤야 뒈어. 게서 머리 올려야 뒈고.

@1 거난 고데기는 만약에 이거다 허민예, 삼춘. 이거 하나만 가졍 갈 거? 요거 두 개 이렇게?

#1 그거 두 개 안허믄 안 뒈지. 이거 두 가신데?

@1 이거 두 가시난 그럼 요것만 가졍 가민 뭘 거?

#1 응, 그거 두 개만 가믄 뒘.

불파마

@1 그믄 이건 거디 강 숫불로 할 거?

#1 숫불로. 화로에 불살라 줘.

@1 그믄 화로에 불살라 주민 야이만 담으민 뒈어?

#1 아, 이거 다 두 개 다.

@1 두 개 다. 담아.

#1 두 다 꼭거치 담아. 이거 잘못헤 버리믄이, 이거 만일에 이거를 불을, 다칠 아니? 이렇게 헤 봐. 그믄 이 열로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알아. 감각이. 이거.

@1 아, 이거 올라 오는 걸로?

#1 이렇게 탁 허믄 아 이건 뜨거웟다 하면이, 너무 달랏다 허믄이 수건에 물을 적져다 놔. 읖에. 이거, 이거 지금. 이거?

@1 물?

#1 물 놓는 거지, 수건에. 경허믄 거기서 탁 이제 식혀. 식혀 가지고 또 이것도 뜨거우믄 거기서 탁 식혀. 그래서 이걸로 빙빙 말고. 그다음 이거는 요걸 우에 가고 요렇게 헤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헤서 고데를 하지. 두 개다 다 안 달쿠믄 안 뒈. 고데가 두 개 다.

@1 달궈야 뒈.

#1 근데 이거 엇어진 지가 구십 년, 구십 일 년도에 엇어졋어. 구십일 년도에 엇어지고, 드라이가 나왓고, 매직 파마가 나왓고, 인제 요즘 세팅이 나왓고. 근데 이 머리를 하면, 내가 하면 보름도 안 풀어져, 한번 하면. 우리 시대는이, 막 흔허지가 않아. 학교 선생들 많이 왓어. 학교 교편 잡는 국민학교 선생들 나안테 단골. 왜냐면 나는 하면은 그때는이 모욕덜토 자주 안헤. 머리도 열흘이라도 안 감아. 이것이 풀어질까 봐. 나는 내가 한 머리는이, 보름도 안 풀어져. 어떻게 꽝 꽝 내가 잘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고데를 할려면 보통 두 시간 기다려야 뒘. 무시거 막 그냥 줄을 사 가지고.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처럼 뭐 하루에 한 번 굽고 이틀에 한 번, 아니, 이거는이 풀어질 때까지 머리를 안 감아. 근데 이거를 잘못 하면은 다음날 다 뒤집어져 부는데 이거 이거, 이거를 잘하지 안허면이 머리가 다 헝클어져 불어. 다음 날, 잠자고 나면. 근데 잘한 사람은 잇어갈수록 머리가 차분 차분 차분 헤가지고 참 예쁘거든. 이거 기술도 좋아야 뒘.

@1 게난 요거 두 개 챙경 갈 거구나예. 갈 때예.

#1 그거 두 개.

@1 그다음에?

#1 그때는 드라이가 없으니까.

@2 ᄀᆞ세는 안 가져간마씨?

#1 ᄀᆞ세는 필요엇지. 건 뭐 자르는 거 아니니까.

@1 머리빗은? 머리빗은? 종류가 하나민 뒈어? 여러 개 잇어야 뒈어?

#1 꼬리빗. 꼬리빗 하나하고 굵은 빗 하나하고 브러시 하나.

@1 아, 브러쉬 하나.

#1 것만 가져가믄 뒈지.

신부 머리

@1 게믄 신부 머리 한번 영 헤 주젠 허민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전날 강 대기헷다근에.

#1 거난 이걸로 말고 하다 보믄 한 이십 분은 걸리지.

@1 그냥 자기 머리만 허여, 아니면 ᄂᆞ미 머리 영 부쪄근에 헙니까?

#1 아니, 머리 속에, 짧은 머리는 올려야 뒈니까 가발. 가발 가져가서 가발을 부쪄서 머리 올림 머리

만들어 줘야 뒈.

@1 가발 영 쓰는 게 아니라.

#1 부찌는 가발. 부분 가발이 있어.

@1 여기 붙이는 거 뒤에.

#1 나 지금 어디 잇는디.

@1 결혼할 때 무사 무조건 머리 올려야 뒈? 아까 단발 머리도 잇고.

#1 결혼을 허니까 이제 어른이 뒛다고.

@1 겐디 단발 머리도 잇고 긴 머리도 이십디다. 사진에.

#1 네. 단발머리, 단발머리는 어쩔 수 없이 단발로 헤야지. 그때는 이것이 없으니까. 올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 시대는 이것이 안 나왔어.

@1 아. 아까 단발머리 신부 잇어낫수게. 그거는?

#1 그때는 이거 안 나왓어. 이건 안 나와난.

@1 이건 언제 나온 거라?

#1 이거는 칠십 년 중반 후에. 이거 나온 진 얼마 안 뒀어. 이거 팔십 년도에 이거 나왔어.

@1 그다음 아까 긴 머리도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 긴 머리도 이십디다?

#1 긴 머리는 또 내리고 싶으믄 내려도 뒈, 그거는.

@1 그거는 또 나중에지예?

#1 아니, 아니. 어. 건 나중에. 그 후에. 육십 년, 칠십 년 전에는 무조건 이제 단발머리는 어쩔 수가 엇지만 올리는 걸 많이 헷고, 나중에 칠십 년 후반, 중반 넘어서는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머리 고정하기

@1 삼춘 아까 북촌 갈 거 가방 챙겨신디예, 스프레이는 옛날엔 엇어나지 안헨? 언제쯤 나왓수과?

#1 스프레이 옛날에 잇더라고.

@1 육십 년도에도 잇어난?

#1 육십 년도에는이, 응, 육십 년에도 있었어. 흔허진 않고 힘들어. 육십 년도도 중반이 넘어사.

@1 게난 삼춘이 아까 미용사 자격증은 육십 년에 땃덴 헤신디 거난 그건 백조 미용실 잇일 때 아니예?

#1 백조 미장원에 잇일 때?

@1 응, 그때 딴 거 아니?

#1 백조 미장원 이실 때 땃일 거라.

@1 그믄 그때도 삼춘은 그때도 주인은 아닌디, 출장은 삼춘이 가? 그때부터 출장 나간?

#1 아, 미용 주인이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미용사가 가야지.

@1 아, 주인 안 가고 미용사안테 갓당 오렌 헤. 그믄 육십 년대 초반부터 출장 다닌 거네예.

#1 육십 년대 초반, 중반부터 다녓지.

@1 중반부터.

#1 응. 중반부터 다녓지.

@1 게난 그때부터 스프레이가 잇어낫덴 허는 말이라예?

#1 그때이, 중반은 없엇고 육십 년도 지나서 팔십 년, 아, 칠십 년도에 스프레이가 생겼을 거라. 그때는 우리, 나 기억으로는 스프레이가 없었어.

@1 엇엇일 거 닮아. 육십 년도에는.

#1 없었어. 응. 육십 년에 없었어. 내가.

@1 거민 머리 고정하젠 허민 그땐 무신 걸로 고정헤신고?

#1 저기, 저 그 남자들 ᄇᆞ르는 남자 ᄇᆞ르는, 찡그, 찡그, 그 남자들 멘짝하게 부찌면은 그 저 옛날덜.

@1 포마?

#1 포마, 뽀마든가 무시거. 그걸로 부쩟주게. 남자덜.

@1 크림 같은.

#1 아니, 그때 남자덜 머리 멘짝허게 헐려면 거 이름이 뭐, 찐 자 들엇어. 찐 자.

@1 찐 자 들엇어.

#1 그걸로 붙연에 멘짝허게 부쪄낫주게.

@1 게믄 삼춘 신부 머리허는 데 한 이십 분 걸리고.

@1 화장허는 데는 얼마나 걸려?

#1 화장허는 디도이 한 삼 사십 분은 걸려야 뒈.

@1 최소 한 시간 이상은예.

#1 한 시간 이상은 걸려야지.

@1 걸려야지예.

#1 머리허고 화장허고 헐려면.

@1 그럼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기 전에 화장 다 헤야 뒐 거 아니꽈예? 거난 밤이 새벽이 일어낭 헤야 뒈는 거라예.

#1 아이고, 캄캄헐 때 일어낭 헤야주게. 캄캄할 때 일어낭. 거기서 자면서 하니까.

@1 삼춘 저도 저는 구십 년대에 결혼헷는데 그때도 출장 미용헤 주셧거든마씨.

#1 그때도 거난 구십 년대도 저, 사람 미용사안테 부탁헨. 집에 와서.

신부 가족 단장

@1 집에 와 가지고 신부 화장도 헤 주고 헷는데 오셔 가지고 신부 어머니 머리도 헤 주고 신부 여동생 머리도 헤 주고.

#1 어. 다 헤 줘야 뒈.

@1 아, 삼춘네도 경 헤난?

#1 아고 헤 줘야주게. 다 헤 줘낫주게.

@1 다 헤 줜?

#1 그디 이제 신랑쪽에 갈 사름은 우시로 갈 사름은 다 헤 줘낫지.
@1 신부집에 간 거잖아. 삼춘은. 신부 화장 허레 간 거난예.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우시 갈 사름 머리를 헤 줜.
#1 다 머리를 헤 줜. 다 헤 줘야지.
@1 신부 어멍은 우시는 안 갈 거잖아.
#1 우시는 안 가지. 안 가도 이제 사진 찍게 뒈믄 다 헤 줘야지.
@1 신부 어멍허고, 우시 갈 사름은 한 두 사름?
#1 두 사람. 두 사람. 거의 어떻든 두 사람 가고 또 무시거옌 헨 또 혼 사람 가고 막 허더라고. 두 사람은 가. 두 사람은 으레 가. 우시로.
@1 게믄 신부 말고도 한 세 네 명은 머리 더 헤 주는 거구나예.

꼿뿌리

#1 예. 예. 그때는 꼿뿌리[34]도 잇어낫어. 꼿뿌리옌 헨에.
@1 꼿 뿌리는 아니? 화동?
#1. 응, 아니. 꼿 뿌리는 아이는이, 우리 오빠 결혼헐 때 있엇저. 우리 오빠 결혼 헐 때는 꼿뿌리가 잇어낫어.
@1 꼿뿌리는 아이가 하는 거, 아니민.
#1 애기게. 일곱 살쯤 뒌 아이덜게. 두 개 사. 여자 아이, 남자 아이. 둘이 헤근에 신랑 신부 앞에 사근에 영, 영 그, 저 색종이 잘라 가지고 영 뿌리멍.
@1 거 꼿뿌리엔 허는구나예.
#1 예. 우리 오빠 결혼헐 때는 그것이 있었어. 꼿뿌리가. 꼿뿌리엔 헤근에.
@1 오빠 결혼헐 때는 육십 년대꽈? 삼춘 아까 칠십 삼 년에 결혼헨예. 거난 그거보다.
#1 육십 년대주. 육십 년대.
@1 오빠 멧 살 우에 오빠꽈?
#1 나이 차이가 하주. 지금 그디 조카가 육십 멧 살이난에.

본인 결혼

@1 응. 삼춘, 결혼을 막 늦게 헷네.
#1 나 늦게. 그때는 노처녀.
@1 게난 서른 살 뒝 결혼을 헷네.
#1 게난 노처녀옌 헷주.
@1 무사 경 늦게 결혼헨?

34) '꼿뿌리'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앞에서 꽃을 뿌리는 화동을 말한다.

#2 아니, 저, 미용사로 그냥 육지도 서울도 간 살앗고 부산에도 미용사로 갔엇고.
@1 아, 다른 데도 강 미용헷구나.
#1 예. 서울에도 한 삼 년 있엇고 부산에서도 한 이 년 있엇고.
@1 아, 그건 백조 미용실 다음에?
#1 다음에. 아, 백조 미장원 다음에, 다음에.
@1 백조 미장원 다음에 서울 강 한 삼 년. 부산 강 이 년.
#1 거난 사 오 년 살앗지.
@1 경헹 서울 부산 잇당 돌아왕은에 그 다음에 금미 간 거? 아니믄 금미는 언제 헌 거라?
#1 금미 미장원은 그 후에 헷주. 그 후에. 금미 미장원은 나 결혼하면서 금미 미장원은 헷주게.
@1 아, 결혼허면서. 옥천 미용실 차리기 바로 전이?
#1 예.

북촌 출장 미용

@1 삼춘 아까 북촌 간 얘기 다시 허민예, 그디 강 머리 신부 어멍이영 다 헤 줫어예. 겡 또 결혼식 허는, 그땐 예식장에서 허지 안헤수게.
#1 그때 어느 회관에서 헷주, 회관에서. 촌에서는 어느 회관 헤근에 그디 허더라고. 그때는 예식장이 저, 제주시밖이 없엇기 때문에 회관에서 다 덜 헤여. 그때. 촌에서 가민 다 회관에서 결혼식 허더라고.
@1 신랑이 신부 둘레 오민, 신부 데령 가잖아예. 그믄 그 옛날에도 삼춘은 그 예식장에도 그치 간?
#1 아고 같이 강은에 신랑집꺼지 강 한복꺼지 싹 갈아입혀 놓고 온덴 허난. 미용사가.
@1 아니, 드레스 허기 전이. 한복으로 헐 때.
#1 한복으로 헐 때.
@1 그때도?
#1 거난 우리 때는이, 내가 화장 시켜근에 이제 신랑 멧 시에 온다 하믄 와. 경 허믄 이젠 거기서 마당에서 기냥 신부 신랑 받아들이는 음식 막 상 출련에 막 머리 더멩이 놓곡 헤근에 헌 다음에 들여 놔. 겡 방에 들여 노믄 신랑은 또 이디 왕 상을 받아. 저 신부쪽에 와근에. 큰 상을 받아. 그디서 멧 사람 따라 와 거기도.
@1 우시예?
#1 우시여 무신 셋아방이여 족은아방이여 허멍이 고모여 뭐 허멍 막 따라와. 거근에 오면 이제 거기서 신랑도 상 받고, 신부도 이젠 새각시집에서도 상을 받아. 다 멘사포 쓰곡 화장하고 다 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1 자기네 집에서.
#1 집에서 경 받아근에 이젠 시간 뒈면 이젠 신랑 신부 이제 마당에 나가. 경은에 손 영 잡아근에 이젠 차에 올라. 차에 올라근에 그다음에 이젠 회관을 가. 식을 허면 나는 그디서 그냥 멘사포도 사진 잘 찍게 잘 정리헤 주고 머리도 영 잘 다듬아 주고 어떵 화장도 지와진가 말아신가 헤근에 잘 헤 주고 사진 찍

게끔 내가 만들어 줘. 경 식 다 끝난 다음에 또 멘사포 쓴 냥 한복 입은 냥 신랑집이 올 거 아니라.

@1 아, 결혼식은 신부집 잇는 회관에서 헤?

#1 아니, 아니. 신랑 쪽에서 허지. 신랑 쪽에서 강 새각시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부터 헹 들어가는 거지. 식부터 헤근에 신랑집이 들어강 이제 신부집에서, 신랑집에서 이젠 큰 상을 받아. 큰 상을 받은 다음에 멘사포 쓴 냥, 한복 입은 냥 받은 다음에 이젠 밥을 다 칩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젠 그때는이 우리.

예단 한복

#1 그때는이 저, 옷으로 부자집은 한복을 막 여러 불 나오고 엇인 집은 한 두 불밖이 안 나와.

@1 신부안티 주는 거?

#1 신부안티 주는 것이 그거라. 신부안테 주는 부지가 한복 헤 주는 거. 그땐 한복이라. 우리 언니 헐 때는 부잣집이 시집 가난이, 저, 다섯 불이 나왓더라고. 겐디 어떤 딘 나가 신부 화장을 강 보믄이 두 불밖이 안 나온다. 너무 못 살아 부난. 친척들이 엇어 부난. 또 어떤 디 가난 열 불 나오는 디가 잇어. 거난 그딘 막 잘 사는 집안. 그난 그때는이, 한복이지. 딴 부지는 엇어. 새각시안테 주는. 거난 아이고, 그디 열 불 나완게. 막 부자집이 갓구나. 아이고, 두 불만 나완게. 그디는 못 사는 집이구나게. 한복으로 그 집안을 평가하더라고.

@1 거난 신랑네 큰어멍, 셋어멍, 족은어멍이 주는 거라? 그거를?

#1 경허믄 새각시는 부지를 어떵 헤 가는고 허면은 이제, 뭐 신랑 한복 한 벌 헤 주고 시계 하나 헤 주고 또 잘 사는 신부는 반지도 하나 헤 주고. 또 그 친척들, 시어머니안테 한복 하나 헤 주고. 또 그 때는 이불이라는 거는 엇엇어이. 한복 헤 주고. 또 시누이안테는 이제 잘 사는 신부 거트면 양장이라도 한 불 헤 주고. 또 그냥 고모나 이모나 뭐 이추룩 헌 사람들은 남자는 양말 한 컬레, 또 여자는 버선 한 컬레. 그것이 옛날 새각시가 헤 가는 부주라. 시집이 헤 주는 부주. 돈으로 안 줘. 게난 나도 시집 갈 때 큰시어멍안테 한복 한 불 헤 주고 시누이안테는 버선 하나씩 헤 줫거든. 거난 그때는 그추룩 헐 때. 게난 여자도 시집을 잘 갈 때 부잣집 가믄 한복 열 불 하믄 아이고 부자칩 시집 갓구나. 두 불 하믄 아이고, 엇인 집이 시집 갓구나. 경헹 평가를 허더라고. 그때는.

@1 그 한복은 멩지로 헌 거?

#1 아니, 아니. 그냥 그 만일에 뭐 셋어멍이 잘 산다 허믄 양단으로 헤 주고. 또 셋어멍이 못 산다 허면은 양단 말앙 싸구리로도 헤 주고. 게난 그때는 양단 나오는 집이 힘들어.

@1 제일 좋은 게 양단이라낫구나.

#1 제일 양단. 잘 사는 디가 양단이라. 베루벳도[35] 하고.

@1 베루벳도?

#1 베루벳도 하고 양단. 그것이 좋은 거 헹은에 그거 나오면 아이고, 그딘 잘 사는 집이구나. 또 못 사는 집은 저, 싸구리.

@1 싸구린 뭐라? 그냥 광목?

#1 광목 말고 잇어. 광목 말고도 그, 저, 양단 밑에 거 잇드라고.

@1 비단인데 ᄒᆞ끔 밑에 거.

#1 그걸로 헤 주고. 경 허여.

@1 유동 치메 이런 건 뭐라?

#1 유동[36] 치마도 괜찮은 거.

@1 아, 것도 괜찮은 거.

#1 응. 유동 치마도 그때 알아주주. 거난 유동 치마, 게도 유동 치마 잘 아네?

@1 들어봔마씨. 막 이런 거 들어보레 뎅기멍.

#1 응. 유동 치마, 양단, 또 하나 또 뭐 잇인디.

@2 비로도.

#1 비로도도 잇고. 비로도. 비로도도 잇고. 비로도도 한복 허믄 거 잘 사는 집.

보수

@1 게믄 삼춘 그디 강 일 박 이 일로 일하는 거네예.

#1 일 박 이 일이주. 그니까 하룻밤 자근에 헤야주게.

@1 게민 돈은 얼마나 받아낫수과? 그때 육십 년대에. 돈으로 받아신가?

#1 돈으로 받앗주게. 돈으로.

@1 그때 돈으로 얼마나 받아신고?

#1 아이고, 기억이. 만 원 받아신가 이만 원 받아신가. 경 헤실 거라. 아니, 만 원도 아니여. 만 원도 안 받은 거 닮다.

@1 그때 이디 왕은에 고데 허민 얼마 줘낫수과? 하루 이디 왕 파마 허나 고데 허나.

#1 파마 허믄, 파마 허민 오천 원. 이거 허는 것이 이천 원.

@1 고데 허는 거 이천 원.

#1 이천 원. 천 원. 경 받아낫거든.

@1 근데 하루 일 박 이 일 강 허민 만 원은 받는 거.

#1 응. 만 원 정도. 만 원인가 이만 원 받아실 거라.

@1 하영 받기는 헷네예.

#1 응. 것도 하영 받은 거주. 화장허레 가니까 그걸 받는 거주.

@2 쏠 한 말에 얼마헐 때마씨? 이때? 시세.

#1 쌀 한 말에 얼마 한 땐지 모르켜. 그때 쌀 한 말이 멧 천 원 갈 때라. 멧 천 원 갈 때.

35) '베루벳도'는 일본어 견직물의 한 종류로 '벨벳'을 말한다.

36) '유동'은 견직물의 한 종류로 '뉴똥'을 말한다.

신부 머리 유행

@1 삼춘 이게 머리도 유행이 잇잖아예. 육십 년대 유행허고, 칠십 년대 유행허고, 어떤 신부 머리가 유행헤나신지. 육십 년대는 주로 어떤 머리, 칠십 년대는 어떤 머리, 팔십 년대는 어떤 머리, 기억 남수과?

#1 육십 년대는이, 이제 뭐, 핸드 파마옌 허여근에 롤로 말앙 허는 파마허고 소도마께[37], 우치마께[38]. 소도마께엔 헌 거는 뒤집어정 영 허는 거. 우치마께는 안으로 영 집어 넣는 거.

@1 아, 씨컬 뭐 이거구나예. 이렇게.

#1 그땐 우찌마께, 소도마께.

@1 이렇게 이렇게.

#1 소도마께.

@1 이게 소도. 이 안으로 들어간 게 우찌.

#1 일본 말 아니? 그거?

@1 일본말인게.

#1 일본말을 많이 썻주게,

@1 음. 그건 그냥 머리 유행? 신부 머리 아니고 그냥 유행?

#1 유행, 유행. 유행.

@1 단발머린데 이렇게 한 단발머리, 요렇게 한 단발머리가 유행이엇던 거네예? 신부 머리는? 신부 머리는 쪽진 머리?

#1 거난 뭐 짧은 머리는 아까 단발처럼 내리지마는 긴 머리는 무조건 올렷지. 다 올렷지.

@1 그니까 올린 것도 밑에 이렇게 할 수도 잇고, 위로 올릴 수도 잇고. 중간으로.

#1 위로 올려. 이제는 밑으로 올리는디 그때 우리 그때 육십 년대 칠십 년댄 이만큼 올려야 뒈.

@1 여기 앞에.

#1 막 이 만큼 올려야 뒈. 위로꺼지. 그니까 그때 기술이 좋앗지. 이제는 뭐 떡 먹기지게.

@1 이젠 쉬워?

#1 쉬웁지. 이렇게 헤서 꼿송이처럼이, 바글바글바글. 진짜 옛날 그 머리는이, 굉장히 멋있었어, 이쁘고. 너무너무 멋있었어. 근데 요즘은이, 앞에도 신부머리도이, 이 만큼 살려야 뒈. 막 볼륨 있어 가지고. 살려 가지고 이렇게 헤서 요렇게 헤 줘야 뒈고. 얼굴 긴 사람은 또 이거 막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머리 이만이썩. 멘사포를, 관을 이 앞에 썼어. 머리 이렇게 올리믄, 올리믄 이거 유지헤 가지고 경헨에 머리 올렷거든. 요즘은 그냥 뭐 멘짝허게 헤 가지고 그냥 밑에만 쪽 쪄 가지고 뭐 관도 요 머리에 탁 부쳔 말앗는데 옛날엔 머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멋졋고, 우아헷고. 요즘은 우아헌 게 하나도 없어.

37) '소도마께'는 일본어로, 머리가 바깥으로 말린 형태를 말한다.
38) '우찌마께'는 일본어로, 머리가 안으로 말린 형태를 말한다.

올림 머리 순서

@1 삼춘 요기, 요기 이렇게 올릴 거라에. 머리를예. 거민 제일 처음 어떻게 뭐부터 헤마씨?

#1 무시걸?

@1 머리를 영 올리젠 허민 뭐부터?

#1 이거 말아야 뒈.

@1 이거부터 말아야 뒈?

#1 응. 첫째 이걸 말아야 뒈. 근데 이거는 머리, 바싹 말른 머리 아니믄 안 뒈. 축축헤도 안 뒈. 안 말아져. 드라이로 말려야지, 머리.

@1 드라이 엇인 때는 어떵헷수과?

#1 옛날에는이, 어떻게 말렷느냐. 연탄불 잇지? 화로 잇지? 불을 살랑이, 신문지. 신문지 헤 가지고. 옛날 신문지를이, 요기 이렇게 썻다고.

@2 신문지는 잇어마씨?

#1 만일에 손님이 이디 앉앗다. 화로는 여기 잇다. 손님 머리는 이렇게. 머릴 씨와. 이거 머리 씨와.

@1 아, 화롯불이 거기로 가게?

#1 그믄 이렇게. 이렇게 헤서 말렸어. 드라이 없을 때, 옛날에는.

@2 잘못하면 타겟는데.

#1 게난. 그니까 타지 않게시리.

@1 나 그디 앉아 보쿠다예.

#1 응 앉아 봐. 자, 이렇게. 이 불 여기 있어. 이렇게 헤서 말렸어, 옛날에는.

@1 그믄 그 열기가.

#1 열기로 이디 와.

@1 오, 열기가 안쪽으로 오게.

#1 이래서 이렇게 말렸어. 드라이 없을 때. 우리 시대는 그렇게 헷다고. 이 처음 나가 배울 때. 거난 이거는 상상도 못헐 일이지.

@1 게난예.

#1 거난 이 신문이 길게 필요했엇다고. 이거는 작아신디, 그 저 동아일보 가튼 건 크잖아. 이거는 오일 신문이니까 작은 거고. 그렇게 헤서 말렸어.

@1 게민 머리 다 바짝 말련예. 게믄 그 다음에는?

#1 겅헹 완전히 말린 다음에 고데를 헤야 뒈, 이거를.

@1 뭐 춧암수과?

#1 창호지. 창호지 아니민 안 뒈. 이거 지금 옛날에 나가 헷던 거 잘라 놔둔 건데, 이 창호지 아니면 절대 고데, 이것이 질기거든, 부드럽거든. 그니까 이거를 하면은.

머리 올리기 시연

@1 자, 다시 모델.

#1 일로 왕 앉아 봐봐.

@1 예.

#1 영 하면 저 고데.

@1 네 머리로 헤야겟다. 더 기니까.

#1 이거 헷다. 썻다, 이것도 딱 가름을 똑바로 가름을 타지 않으면 안 됨. 이렇게 헷다. 이렇게 헷다.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걸로 말아. 이렇게 말아.

@1 다음에 끼와.

#1 아고, 이거 하나 어디 가 불언?

@2 아래, 아래. 큰 거.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야야 됨.

@1 겡 잡고 있어야 됨?

#1 이렇게 허믄 뜨시게 열 맞추와서 이렇게 꼽아. 이렇게. 말아져, 똥글똥글 말아져.

@2 오케, 오케.

#1 그렇게 헤 가지고 이제는 이거 말앗다.

@1 빗 어디 갓니, 빗 어디 갓니?

@2 여기, 여기.

#1 이렇게 헤 가지고 말앗다 하믄 이것이 머리가 그냥 완전히 부드러워져. 완전히 부드러워. 그믄 후까시[39] 놔.

@1 아, 후까시 놔?

#1 응. 후까시.

@1 그 다음에?

#1 전체 다 후까시 놔. 그 다음에 이렇게 빗어. 경헹 머리를. 이거 허면 말을 잘 들어. 경허믄 이렇게 요렇게 헤서 이렇게 헤서 요렇게 헤서 이렇게 삔을 꼽아 줘.

@1 모양을.

#1 응.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헤서 옛날에는 머리, 올리는 머리 어떤 사람도 신부 아닌 일반 사람도 머리, 옛날에는 올리는 머리 막 많아낫거든. 요즘은 안 헌데, 옛날에는 가정주부도 어디 갈려면 다 머리 올려.

@1 드라이 헹 요기 살리고 이렇게예.

#1 그때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우로. 이렇게. 요즘은 요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우아헤. 너무 멋져. 게난이, 이 종이 아니면은 절대 이거를 못 헤. 창호지, 창호지. 옛날에 그, 저 문 발르는 거.

@1 문에 붙이는 거.

#1 이거 아니믄 안 됨. 이거, 이거. 이 종이 아니믄 절대 안 됨. 이거 옛날에 나가 이거 할 때 잘라 놧던 거. 이거 할 때 고데할 때 이거 잘라 놧던 거.

@1 오케, 오케.

@2 창호지 얘기가 나왓는데 이렇게 쓰는 거엿구나.

#1 구십 년대는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지면서 드라이가 나왓고, 또 불파마는 육십 년대에 없어졋고. 그 불파마는 잇다는 건 상상도 못 하지. 불에 놧다는 건.

@1 게난. 집게 안에 불, 숫을 놧다는 거잖아예.

#1 응. 숫 놘. 숫 놔 가지고 그 저 옛날 그 담배, 옛날 담배는이, 그 은박지를 놔놧더라고. 옛날 담배 곽에는 은박지를 놘, 봐 봔?

@1 아니마씨.

#1 안 봐 봣지? 이제는 그것이 없는데 옛날 그, 저.

@1 아, 담배.

#1 담배 속에 그 은박지.

@1 맞아. 은박지로 있었어. 맞아. 맞아.

@2 이거 삼춘네 건물이꽈?

#1 어.

@1 부자네, 삼춘.

#1 나 미장원 세 개 헤난. 신제주 두 개. 호텔 미장원도 두 개 헤나고. 종업원 다섯 여섯 데령 헤난.

@1 삼춘네 저, 남편이 부자가 아니고 삼춘이 일헤근에.

#1 나가 번 거. 이거 다 나가 번 거.

건제와 낭제

@1 아까 머리 영 올리는 그거 연습헷는데, 얘기헤신디, 막 옛날 할망덜은 결혼헐 때 머리 건지머리 헷저 막 영 헌 말 헙디다.

#1 그거는 안 헤 봣주.

@1 보기는 헤 낫지예?

#1 건제머리 허는 거 안 봐 봔. 그때 우리는 어린 때라 부난 건 모르고. 건 말만 들엇주. 게난 이젠 그 건제머리 허는 촌에 할망덜은 알지.

@1 그 옛날에는 아까처럼 진짜 사람 머리 가지고예, 그 건지머리 헐 때도 그 머리 놧뒁당 그걸로 헷덴 헙디다예.

#1 머리, 자기 머리 긴 머리 헷다가 뭐 죽어서도 그거 헹 가져가곡 이제 그걸 영 낭제할 때 낭제할 때

39) '후카시'는 일본어 'ふかし'에서 온 말로, 머리를 부풀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후카시', '후까시' 등으로 발음된다.

거 이어 가지고 틀어서 낭제하곡 헤낫덴.

@1 낭제는 어떵한 게 낭제꽈?

#1 영 헹은에 따와 지고 따와지고 비네 빙빙 돌려지고 비네 꼽는 거. 그걸 낭제주게.

@1 그것도 자기 머리 안 하고 다른 머리영 ᄀᆞ치 헹 헙니까?

#1 아니 머리가 짭거나 수 없는 사람은 딴 머리 헹 허더라고, 그거. 겨고, 우리 어머니 때 보니까 그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땐 그거 저 따와 가지고 영 헨에 영 헌 사진이 하나.

@1 그건 무신거엔 골아?

#1 게메 그건 모르주. 건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1 거난 결혼식 헐 때 아니고 그냥 평상시 때도.

#1 아니고, 평상시 때. 평상시 때.

@1 그믄 신부 결혼식할 때 머리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장식 같은 것도 헙니까?

#1 장식은이, 이제는 허여도 그때 육십 년대 칠십 년대 식은 엇엇어. 그, 저, 뭐 사극 나올 때 뭐 그추룩 그거는 헤도 우리 때는 뭐 장식이라는 거는 엇주. 그냥 수수허게시리 자기 머리로만 헤근에 관 쓰고 그거 뿐이주.

@1 그때 뭐 빤짝이나 이런 건?

#1 빤짝이는 그건 근래 와서 허는 거주. 빤짝이 허는 거는 얼마 안 뒛주게, 그거는.

신부 화장 순서

@1 그럼 화장할 때 화장 순서예. 화장허젠 허민 뭐부터 헹은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1 이제는 막 가지 수가 뭐 열 가지도 넘은 거 가트든데 우리 헐 때는이, 로션허고 구리무. 구리무가 있엇저, 구리무. 구리무 이제 로션 보고 이제 구리무옌 헌 거 닮아. 구리무. 그, 저 로션허고 구리무.

@1 로션하고 구리무는 다른 거꽈?

#1 로션은 물 닮은 거고. 근데 우리 그 육십 년대는 구리무만 있었어. 로션이라는 게 엇엇어. 육십 년대는. 그 구리무엔 헌 거는 그, 저, 콜드처럼 생긴 거주게.

@1 크림, 콜드크림처럼.

#1 응. 응. 그처럼 생긴 것이 구리무엔 헨에 옛날 나와난디 그자 그거 하나 불르고, 또 그다음에 환데션도 엇어낫어, 그때는. 분 그냥 그거 불랑 분 그냥 그 가를 분. 가를 분 그저 닥닥닥 두드리는 거. 그거지게. 분, 분, 요즘도 분 잇지 아녀, 무사?

@1 예, 잇수다.

#1 게난 그거게. 경 헤근에. 저, 또, 구지베니옌 헹 구지베니옌 헨에 루즈. 그거 발르고. 눈썹 눈썹 연필 허여근에 눈썹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눈화장이고 뭐고 그건 엇엇주게. 육십년 대는 눈화장 그런 거 엇엇어.

@1 여기 볼터치 대신에 어떵? 루즈로라도?

#1 루즈로 헤근에 칠헷지. 그때는 경 가지 수가 엇어나 부난, 육십 년대는 화장품이 경 막 이것저것 엇

엇주게.

@1 게난 삼춘이 그거 다 챙경 가정 가는 거 아니예.

#1 챙경 가정 가야주게. 나가 다 챙경 가야지.

@1 촌에서 그런 거 엇일 거난예.

화장품

#1 게난 옛날엔 그, 이제, 저, 선물을 신부안테 화장품 한 세트를 신랑이 생각허는 사람은 화장품 한 세트를 헤 주믄 막 것이 귀한 선물이라.

@1 그 세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라?

#1 세뜨 뭐 루즈 눈썹 그리는 거 구리무, 또 스킨, 분. 그거주게.

@1 일젠가? 국산도 나와나신가?

#1 그때 일산이 막 많앗고 국산도 잇어낫어. 국산도 잇어낫어, 그때. 게고 옛날 우리 어린 때문 둥둥 구루무엔 헤 가지고이, 둥둥 구루무. 둥 박박 영 북 치면서 풀레, 길가에 풀레 다니는 구리무 장사도 잇어낫어. 그것이 저, 기가 막히게 좋아. 겡은에 막 통에 담앙 다니멍 북 치면은 그냥 여자덜 구리무 줍센 허믄 통 가정 가믄이, 통 하나에 얼마.

@1 덜어 줘? 아니면.

#1 통에 덜어 주주게.

@1 아, 통에 덜어 줘.

#1 지엉 뎅기멍. 지엉 뎅기멍 큰 통에 지엉 뎅기멍 이녁이 통 가져 가면은 그디 얼만에치 줍서 허믄 그레 영 덜어줘낫주게.

@1 얼만에치 줍서 허민 아이스크림 덜어 주듯이 덜어 주는 거구나.

#1 옛날엔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 허멍근에 그냥.

@1 아이스께끼.

#1 아이스께끼 허멍 나무로 멘든 곽 하나 지엉 들렁 뎅기고 찰떡 장수도 찰떡, 찰떡 허멍 밤이민 다니고. 그것이 잇엇지.

신부 옷

@1 삼춘 헐 때는 전통 결혼식 전통 혼례식 이런 건 안 헷구나예. 장옷 입고 허는 건.

#1 어. 나는 그 시대가 벗어낫어. 육십 년대는 장옷 입는 건 엇어졋어. 한복 입는 것이 잇엇주.

@1 하얀 한복?

#1 어. 하얀 한복.

@1 하얀 한복에 면사포.

#1 응. 멘사포.

@1 면사포는 삼춘이 가정 가?

#1 아니, 아니.

@1 그면 어디서 구해?

#1 아, 멘사포 쓰는 거? 멘사포 빌려 주는 디가 잇어.

@1 예식장에서 빌려 주는 게 아니고?

#1 예식장에서 빌려 줘. 예식장에서 빌려 주믄 관허고 그때는 예식장에서가 드레스도 빌려 주고 관도 빌려 주고, 멘사포도 빌려 주고. 게난 그디 거 그 예식장에서 부탁허믄 그 예식장에서 허고. 나는 예식장에서 안 하니까 예식장에 빌어 갓지.

@1 예식장 걸 빌엉.

#1 응. 빌어. 겨고, 딴 디 그 촌에서도 만일에 회관에서 허게 뒈믄이, 예식장에 강 빌어. 빌어근에 가졍 가근에 돈 얼마 줘 빌어근에.

@1 미용사가 가졍 가는 건 아니고?

#1 미용사도 가져오렌 허믄 가져갈 수도 있어. 빌엉.

@1 빌어근에. 아. 그 면사포도 빌엉 가졍 옵서예, 영 허민 가졍 가는 거구나예.

#1 빌엉 가졍 가고.

@2 삼춘이 따로 갖고 있었던 멘사포는 엇어마씨?

#1 엇어. 엇어.

@1 따로 갖고 잇는 건 아니고.

#1 그때는 미용실에덜 멘사포곡 드레스가 엇엇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라 노난. 게고 그 후에도 뭐, 구십 년대도 저, 이천 년대도 미용실에는 없지. 그때부터 이천 년도부떤가 아마 구십 년도부떠는 그 메이크업이 나와 불엇주게. 메이크업 그, 저, 미용실이, 거난 미용실 미용사들은 화장을 딱 끊어 부난 막 그때 막 데모허고 헤낫어. 이제 메이크업 별도로 허가 줘 부니까. 그디서는 화장허곡 신부들 다 맡아근에 그냥 드레스 허고.

@1 나 헐 때도 미용사가 와서 화장까지 다 헤 줘.

#1 멧 년 전엔디?

@1 구십 팔 년도에 결혼헨.

#1 구십 팔 년도난 경 헷겟다. 구십 팔 년도.

@1 메이크업을 따로 한 게, 미용사안테 한꺼번에 헷는데. 그분이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엇나?

#1 아니, 메이크업 자격증이라는 건 엇고. 요즘, 이제 그 구십 년도부턴가는 그 메이크업 허가를 줘 불었어. 자격증 따 가지고. 그러믄 그디서가 메이크업헤 주고 화장 헤 주고 드레스 빌려 주고 게난 미장원에서 헐 수가 엇엇지.

마사지

@1 다시 얘기 할게예. 삼춘. 그 미용 어디 저기 송당이나예, 북촌에 출장, 내일 갈 거여 허민 삼춘이 그날 전날은 뭐 허민 안 뒈고 뭐 조심해야 뒈고 허는 거 이런 거 잇어마씨?

#1 엇어.

@1 그런 건 엇어. 그믄 신부는 내일 결혼식 헐 거다 허믄 화장허젠 허민, 화장 잘 먹게 허젠 허민.

#1 게믄 전화허주게. 콜드, 그때 콜드는 잇어낫어. 게난 콜드를 많이 듬뿍 발랑 잡서 허주게.

@1 아, 콜드를 듬뿍 발랑 잡서.

#1 응, 듬뿍 발랑, 많이 발랑 잡서 경 헤여.

@1 옛날엔 뭐 그런 화장품이 엇이난예.

#1 겨고 또 계란 마사지.

@1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계란.

@1 풀어근에?

#1 노란자만.

@1 아, 노란자만.

#1 노란자만 막 때려 가지고 그걸 이제 영 손으로 불라. 노랗게. 발른 다음에 가제를 덮어. 얇은 가제를. 겡은에 거 마를 때까지 기다려. 것이 마사지라.

@1 팩이네. 요즘 허는 팩예.

#1 요즘 팩이나 마찬가지. 그것이 마사지. 게난 신부덜이, 결혼 멧 일 앞두믄이, 와근에 미장원에 왕 그런 마사지를 헤 가메.

@1 아, 집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미장원에 와서.

#1 미장원에 와 가지고 이제 영 드러누면은 콜드로 미용사가 막 마사지 허고 피부관리 헌 다음에 계란, 계란 노란자만 영 때려근에 발라근에 계란, 저, 그 얇은 가제 더펑 마를 때까지 헤근에 가제를 싹 벗기면 딱 벗겨져. 경 헤낫주. 경헹 뜨신 물로 인제 저, 수건으로 헤근에 찜질헤 주믄 걸로 끗.

@1 건 한번만 허는 거꽈? 멧 번 와야 뒈는 거꽈?

#1 아니, 잇인 사람은 관심 잇인 사람은이, 멧 번 헤여. 한 메칠에 한 번씩.

@1 결혼하기 전에?

#1 응. 겐디 관심 엇인 사람은이, 또 촌에 사람덜은이, 또 구리무나 콜드나 듬뿍 발랑 이십서 허주. 그 마사지허고 헐 처지도 안 뒈고, 또 허지도 못허고 경 헷주게.

미용사의 보람

@1 아까 삼춘 몃 개, 갓던 재미잇는 얘기 헤 줘신디 그거 말고 또 일하면서예, 재미있엇던 일 아니면 좀 힘들엇던 일예, 이런 건 어떤 거 잇어신고마씨?

#1 이 미용 허멍? 미용 허멍 재미잇는 거는 뭐 나를 그냥 손님들이 따라 주고, 막 인정헤 주고, 뭐 잘헴저 칭찬도 헤 주고. 화장할 때는 화장 잘 헴덴 칭찬헤 주고. 또 이제 이 머리도 이제 막 딴 데보다 잘 한다, 마음에 든다, 딴 데 가면 마음에 안 들엇는데 헸을 때는 너무 보람이 허고, 이 손님들이 기술을 인정헤 주는구나 허고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고. 괴로울 일은이, 별로 엇엇어. 괴로운

일은 미용 허면서 뭐 특별히 뭐 내가 하기 싫거나, 아이고, 거 귀찮다 허거나 내가 왜 이거 후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전연 엇었으니까.

손기술

@1 삼춘 이 미용할 때 아까 손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헷잖아예.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술인 거 닮아마씨? 손, 손으로 하는, 삼춘은 이 미용말고도 손으로 하는 거 모든 거 다 잘 헤?

#1 나 다 잘 헤.

@1 뭐 만들기도 하고 자르기 뭐 이런 거.

#1 어. 양장도.

@1 옷 만드는 거나 뜨개질 허는 거나.

#1 옷 만드는 것도. 뜨개질도 최고. 나는 중학교 때 우리는 그때 십자수를 많이 놧거든. 게난 그때는이, 나 중학교 때는 십자수 헤근에이, 이불포 헤 가는 사람 또 이불 덮개, 방석, 베개.

@1 시집갈 때?

#1 응. 시집갈 때. 그거를 엄청나게 나가 신부 거 헤 줫저, 돈 받앙.

@1 거 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

#1 다른 사람 거 돈을 받으멍. 나가 중학교 때. 경헹 학비를 많이 벌엇지.

@1 아. 손재주가 그때부터 좋앗구나.

#1 거고 뜨개질. 뜨개를 너무너무 잘 헤. 지금도 입어 가는 저, 뜨개질 헌 거 딱 보믄이 딱만 봣다 허믄이 그냥 기억허면서 그냥 그 형을 그대로 만들어 내. 나는 손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 난 타고난 사람. 겨난 나 그 양장 학원도 다녀봣주게. 무조건 일등. 재단도 최고 잘헤. 한번만 말헤 주믄.

@1 눈썰미도 좋아야 뒈컨게.

#1 눈썰미도 좋아.

@1 그니까. 손기술도 좋아야 뒈고, 눈썰미도 좋아야 뒈고.

#1 눈썰미도 좋아. 나. 십자수를 나 저기, 그 그때는 이불포, 베개, 방석은 다 십자수 놩 광목으로 헤낫거든. 나 엄청나게 많이 헤연, 신부 거. 많이 놔주고. 또 뜨개질. 옷 짜 주고. 많이 헤 주고.

@1 손재주가 역시.

#1 손재주가 나는이, 너무 좋으니까 기술을 빨리 배운 거라.

직업병

@1 삼춘 그 미용사 하면 직업병이 왜, 손예, 막 손 막 벗겨지고 하잖아예. 삼춘 그런 건 엇어낫수과?

#1 벳겨지는 건 없는데 이, 이, 손가락 다 이거, 이렇게 비틀어졋지. 이거 이렇게 튀어 나오고 요렇게 튀어 나오고.

@1 요기 무사 영 뒈 불언? 손? 고데 하멍 하영 말아 부난?

#1 빠마허멍 영 고무줄 이디 탁탁 튀언.

@1 다친 게 아니고?

#1 다친 게 아니. 다친 게 아니.

@1 아, 다친 게 아니고 오른손이 그렇게 휘어 불언.

#1 그리고 이 고데만 할 때는이, 이디가 멍켕이 져 가지고 딱딱 헤낫거든. 이제 이것이 없으니까 이거 서러졋는데 여기하고 여기. 이거 고데할 때.

@1 잡는 데.

#1 잡는 데. 쒜 잡으니까.

@1 잘못헤근에 손 데기도 허지 안헤? 화상 입기도 하고.

#1 아, 화상도 입는데, 저, 조심헤야 뒈고 또 기술자덜은 경 화상 잘 안 입어. 그리고 또 서툰 아이덜은 이 고데허멍 머리 다 데 불어.

@1 이런 데 막 타고예.

#1 근데 나는 그렇게 덴 적도 엇고.

@1 요즘에는 파마약이 너무 독헤 가지고.

#1 그니까 장갑 끼고 하니까.

@1 경헤도 보면 손 막.

#1 막 꺼죽 벳겨져. 피부 나쁜 사람들은 그추룩 하주게. 근데 나는 그 육십 년대에는이, 이제는 장갑 있엇는데 그때는 맨손으로 빠마를 말앗거든. 장갑이 귀하니까. 나오질 안 하니까, 그 시대가. 그르믄이 하루에 일곱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빠마 말아나믄이, 여기가 다 헤사져.

@1 그니까.

#1 그르믄 밤에는이, 연고 발랑 장, 자야 뒈. 자근에 그거를 눅여. 경 그 다음에도 또 허면은 또 헤싸져. 그런 적은, 장갑 안 낀 때는 그축 헌디 요즘은 장갑을 껑 헤 부니까 손 망가지고 헤싸지고 그런 건 전연 엇고, 어떤 미용사도. 근데 옛날 고데 막 헐 때는 이디가 꽝꽝. 요기하고 꽝꽝. 게고 이거 자꾸 이 고무줄 빠마 허멍 고무줄 허니까 손가락이 다 비틀어 젼. 이디도 튀어 나오고. 이디도 튀어 나오고.

@1 다리도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플 거 아니?

#1 다리. 아프니까 수술헷주. 다리 수술헷고. 손 이거 퇴행성 관절처럼 뒌 다. 건디 퇴행성 관절은 아니.

@1 삼춘 나이 뒈믄 뭐 미용사 아니라도예, 퇴행성 관절염 오주게예.

#1 경 헐 건가.

직업으로서의 미용사

@1 삼춘은 미용일을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헷잖아예.

#1 아이고, 나는 후회 안 헤.

@1 다시 태어나도 미용사 허렌 허믄 허쿠과?

#1 예. 나는 허렌 허믄 허크라.

@1 다른 거 헤진덴 허믄 무신 거 허고 싶으꽈?

#1 딴 거 뭐 헐 것이 잇어? 뭐 헐 것이 없지. 이거는 내가 익숙헌 거니까.

@1 혹시 딸이 엄마 나 미용 배왕 나도 미용사 허젠 허민 시키쿠과? 허지 말렌 허젠?

#1 난 허렌 안 하크라.

@1 허렌은 안 하크라? 무사?

#2 나처럼 소질이 잇고 재주가 있으면 하는데 이거 뱁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욕심 내서 헤 놓고 헤 보니가 취미도 엇고 손매도 없고, 헤 봐도 늘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미용사덜 막 많고. 지금 미장원 출령 망허는 사람도 막 많아. 이 기술은 보통 오 년은 배와야 뒈. 일 이 년 배왕은 미용사가 뭘 수가 엇고 손님 머리 만질 수가 엇어. 양장점은 멧 달만 배우믄 뒈는데 미용은 눈 앞에서 머리칼 하나만 틀려도 안 뒈기 때믄에 자기가 완벽하게 뱁지 않은 다음에는 손님 머리 만질 수가 엇어.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요즘 삼사 년 헌 아이들이 미장원 찰려 가지고 지금 그만두는, 망헤 가는 디가 엄청나게 많지. 저 미용사 잇는 앞에선 지가 보조로 있으멍 자신 잇거든. 한 삼 년쯤 뒌 아이덜이. 아, 나 가믄 잘 뒈켜 찰려. 나와 가지고. 손님 하나도 없지. 왜냐믄 헤 보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뎅 아무도 안 오지. 그리고 미용은 아다시피 공짜로 헤 줘도 마음에 안 들믄 안 가는 거. 머리가.

@1 인상이 완전 다 달라지잖아예.

#1 아니, 공짜 헤 주켄 허믄 가젠? 마음에 안 들어도?

@1 믿어져야 가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용만큼은이, 공짜로 헤 준덴 헤도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디가 미용이거든. 그리고 양장점은 이게 비틀어져도 캄프라치[40] 시켜 줘. 눈 앞에서 안 헐 거니까 메꿔도 뒈는데 미용은 그렇게 할 수가 엇어. 정확하게 헤야 뒈니까 보통 미용사 이녁이 손님을 받을 수 잇다 하면은 오 년. 뱁는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러기 때문에 이건이 또 배와도 소질 엇이믄 안 뒈어. 소질이 잇지 안허믄 아니, 미용이 아니고 어떤 기술도 어떤 기술도, 나는 애기 키울 때, 아플 때 영 의사 강 봉 나이가 들어근에 허면은 그 원장을 믿엉은에 허는디 젊으믄 그냥 나와 불어낫어. 경력이 잇어야 뒈니까.

@1 경력이 잇어야 뒈니까.

#1 기술은 경력이지. 의사도 마찬가지라. 경험이 많아야 뒈, 의사도. 요즘 애숭이덜 이론으로? 이론으로 안 뒈. 의사덜도 이론으로는 절대 안 뒈. 게니까 경력을 싸지 안하면 절대 어떤 기술도 나는 안 뒌다고 난 생각헤.

미용사에 대한 인식

@1 삼춘, 옛날에 육십 년대 칠십 년대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옌 불러? 미용사엔 헨? 아니민 이제는 원장님이엔 허주마는 옛날엔 뭐옌 불럿어?

#1 우리 시대는이, 육십 년대는이, 주인보고 언니, 언니 불럿거든. 밑에 보조덜이. 언니 언니 불럿고.

40) '캄프라치'는 프랑스어 'camouflage'의 일본식 발음으로, 거짓 꾸밈, 위장, 은폐, 속임수 등을 말한다.

@1 손님은?

#1 손님들은 미용사, 미용사 헷지. 원장님이엔도 헤 본 적도 없고. 뭐, 저, 그냥 미용사, 미용사 헹 불럿주, 그 시대는. 어둑을 때니까. 원장님 허고 불르고 헐 때는 이거 한 팔십 년도밖이 안 뒈실, 팔십 년대부떨 거라게. 그 전에는이, 미용사, 미용사 불럿주게.

@1 미용사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아까 안 좋앗덴 헷잖아예.

#1 응. 안 좋앗주.

@1 근데 요즘은 되게 좀 인정헤 주잖아예.

#1 이제는 꺼꿀로 뒌. 양장은 이제는 한물 가 불엇고. 미용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미용이 굉장히 선호헤 주지, 지금. 전 세계가 다.

@1 언제쯤에 그렇게 바뀐 거 닮아마씨? 삼춘이 생각헤 보니까.

#1 그거이, 구십 년도? 구십 년도 이후에, 그 중에도 이후에 헷지. 그 전에는이, 미용 헤근에 별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헤 줬어.

@1 우리 원래 취지는 결혼헐 때 미용사가 무신 일을 헤신고 허는 거라낫주마씨. 그거 물어 보젠 온 건디 막, 삼춘 인생에 대헤서 막 물어 봐졈수다.

#1 게난게. 걸 물어 보주게, 뭘 물어 봠서?

신부 화장의 변화

@1 게난. 그믄 삼춘이 기억하기에 저기, 출장 가근에 미용헤 주고 헌 거는 칠십 년대까지? 팔십 년대까지?

#1 응. 아니, 저 나가 화장헤 주고 허는 거?

@2 신부.

@1 결혼식 헐 신부.

#1 아, 신부덜 머리 헤 주는 거? 칠십 년대까지는 가서 헤 줫지.

@1 팔십 년대는 안 헤 줜?

#1 팔십 년대는 것이 엇어져 불엇어.

@1 엇어져 불언예. 겅 헤근에 이제 촌에도 미장원이 많고 겅 헤노니까 촌에서도 인제 미용사들이 화장헤 주고. 그때부터, 팔십 년대부떠는 촌에도 미장원이 막 생겻거든.

#1 촌에는 안 가도 삼춘, 시에서라도예, 신부가 미용실에 와? 아니면 삼춘이 그 집이 가?

#1 아이고, 가야지.

@1 그니까. 그건 언제까지 갓수과?

#1 그, 저, 미용 그.

@1 미용은 안 헤 줘도. 머리라도.

#1 아니, 화장헤 주는 거? 아니면은 신부 헤 주는 거?

@1 신부 헤 주는 거.

#1 신부 헤 주는 거?

@1 신부 머리는 헤 주러 가야 뭴 거 아니? 그거는 제주시에 어디 아라동에 누게 시집 감저 허민 아라동에서 신부가 삼춘네 미용실 와근에 머리 헹 갑니까, 아니면 삼춘이.

#1 가야지, 가야지.

@1 삼춘이 그 집이 갈 거잖아, 아침 새벡이예.

#1 응. 가야지.

@1 그건 언제까지 갓수과?

#1 근데 그거는이, 칠십 년대꺼지 가고 팔십 년대는이.

@1 신부가 여기 완? 미용실에?

#1 아니, 미장원에 오질 안 헤. 왜냐믄 미장원에 앉앙 헐 데가 없기 때문에 미용 안 헤, 근디 그때는 팔십 년대까지는 갔어. 팔십 년대꺼지는 가고 구십 년도 뒈면은이, 메이컵가 생겨 불엇지.

@1 거난 메이크업 생겨도 머리는, 머리를 메이크업에서 헤 줘?

#1 어. 거 다 헤 주지. 아, 메이컵에서 몬딱 그니까 머리가 제대로 이쁘게 안 뒈는 거지. 멘짝 헹 귀에만 쪽 지어근에 허는 거니까. 가네들는 미용은 안 배왓기 때문에 화장만 배와서 그냥 거기서 드레스고 뭐고 다 돈이엔 허기 때문에 구십 년대는 미장원에서 안 왔어. 저, 미용사들이 그냥.

@1 겨난 삼춘이 기억하기에는 한 팔십 년대까지는 머리 헤 주러 가낫구나예.

#1 어. 가난. 신부 집에 갓주게.

@1 신부 집이 강예.

#1 갓주게.

@1 게난.

#1 가고, 사십 년, 사십 년, 사십 년, 필십 년대꺼지는 갔어. 팔십 년도꺼지는 우리 종업원이 그때 나영 헷던 아이 시집 가켄 허난 팔십 년도, 칠십팔 년도 결혼허난 나가 그디 간, 집이 간 화장을 헤 줫거든.

@1 난 구십 년대 결혼 헤신디도 우리 집에 왓덴 허난. 미용사가.

@2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라.

@1 화장도 헤 주고 머리도 헤 주고, 와서.

#1 게난 구십 년도, 구십 년도 이후에는 엇어실 거라.

@1 요즘엔 다 미용실이나 거기 메이크업 하는 대로 운전헹 가거든마씨.

#1 거난 구십 년도는, 까질 거라. 구십 년도까지고. 구십 년 이후에는이, 메이컵이 하나씩 둘씩 생겨 가지고 하면서 또 그 메이컵이 비싸다 하면은 또 불러서 가면은 한 사람씩도 가기도 하고.

본인 결혼

@1 게민 삼춘 결혼헐 때는 어떵 헤낫수과? 삼춘 머리는 누게가 헤 줜?

#1 나도 우리 집에서 헷지.

@1 게난 삼춘이 스스로 올련? 아니믄 누게 미용사가 왕 헤 줜?

#1 미용사가 와서 헤 주는데 인제 관 쓰고 뭐 허는 건 나대로 썻지. 미용사가 와서 헤 주긴 헤 주되 저, 웬만한 거는 나가 다.

@1 아, 헐 줄 아니깐예.

#1 나도 할 줄 아니까 그 관도 가위로 잘르면서 하나하나 그냥 멋잇게 붙엿지. 나대로.

@1 관도 붙이는 거꽈? 그냥 영 씌우는 거 아니?

#1 근데 씌워서 삔을 꼽는데 나는 그걸 하나 하나 잘라 불엇어. 꼿을 하나 하나 잘라서 군데 군데 군데. 좀 색다르게 험으로. 나 칠십 삼 년도에 헷으니까.

@1 게난예. 파마도 삼춘이 스스로 헨?

#1 스스로 헷는데 미용사가 손 봐 줫지. 집이 와서.

@1 칠십삼 년도에 결혼할 때 삼춘 누게안테 헤 ᄃᆞ렌 헌 거꽈? 친구 아니면.

#1 미용사 친구.

@1 미용사 친구.

#1 미용사 친구안테 헤 달렌.

@1 그 친구도 게난 미용사 차려근에 허는 아이?

#1 미용사, 미용사. 완전 미용사 차리고 허고 또 결혼헹 살기도 허고. 허연에 허든 미용사.

@1 맞아. 삼춘이 늦게 결혼허난예.

@2 아까 예식장 미용실 운영헷덴 헷어신디예, 그건 언제마씨, 삼춘?

#1 나가? 미용사?

@1 예식장에서 미용실도 운영하셧다고 한 거 아니마씨?

#1 아니, 아니.

@1 미용실을 세 개 운영헷다고.

#1 미용사 세 개 헷주. 미용실을 세 개. 신제주 두 개.

@1 신제주에 두 개.

#1 구제주에 하나 헤 가지고.

@2 이름은? 다 옥천마씨?

#1 여긴 옥천. 신제주는 호텔 안에니까 아일랜드 호텔 안에 미장원. 또 로베르호텔은 로베르호텔이니까 로베르 미장원. 헤 가지고 겅 헤낫주.

@1 로베로는 여기 말고 신제주도 잇어낫수과?

#1 아니, 아니. 그, 저, 어디. 신제주, 신제주. 아일랜드호텔 하나하고 또 그디는 미나롱, 미나노? 미나노 호텔인가 거기서 헷고.

신혼여행객 신부 머리와 화장

@1 호텔 미용실은 결혼식도 같이 헙니까?

#1 결혼식 하는 예식장이 잇고, 허는 데가 잇고. 그 미장원이 그 호텔 신부덜, 호텔 신부덜 호텔에 오민 다 신혼부부덜 오면 다 호텔에 자지 아녀게. 게난 그 손님덜을 받앗지.

@1 아. 신혼여행 온 신부. 그럼 그 신부들 신혼여행 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낭 머리 헤 ᄃᆞ렌 헤?

#1 아침에. 응 아침 다섯 시믄 가근에 열두 시까지. 신부덜 이제 찰령 나가. 그때는이, 구십 년대 저, 이천 년 뒈기 전에 구십 년도 때는이, 신부덜이 의무적으로 한복을 안 입으면 안 뒈더라고. 일단 여행 왓다믄 한복을 가졍 와.

@1 아, 신혼여행 올 때 한복을 가졍 와?

#1 무조건 그때는 한복을 꼭 입어야 뒈. 시대가 유행이 그거. 게난 한복을 입을 때 머리는 꼭 올려야 뒈. 또 화장도 헤야 뒈. 겡허믄 호텔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머리 하면서 화장을 헤 주는 거. 경헹 삼만 원씩 받았어, 그 당시에.

@1 그게 몃 년도?

#1 구십 년도.

@1 구십 년도 초에?

#1 초에.

@1 어. 한복을. 거난 웨딩촬영을 안 하니까 신혼여행 와서 그거를 하는 거구나.

#1 여기서 한복 입고 촬영을 하는 거.

@1 거난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웨딩촬영을 다 하는데 옛날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신혼여행 와서 찍엇구나게예.

#1 어. 게난 그 시대는이, 열에 열 사람 왕 한복 안 입은 사람 없고 머리 안 허는 사람이 엇어.

@1 한복 입젠 허믄 머리 헤야지. 거난 무사 호텔에 미용실이 잇인고 헤신디 거난 호텔 미용실이.

#1 게난 그때는 머리 하나 허믄 이십 분. 화장꺼지 허믄 이십 분이믄 헤 내쳐야 뒈. 손님이 한 열 명, 스무 명 그냥 막. 경헹 삼만 원, 삼만 원. 그때는 삼만 원도 막 큰 돈이라낫거든.

@1 그지.

#1 경 받으멍 또 화장 안 허믄 이만 원 머리 허는 건 받고. 경.

미용 가격

@1 머리허는 값도 요즘 아까 만 원 받읍디다예. 옛날에는 얼마부터 헹 받아난? 칠십삼년 처음 개업할 때 얼마 받아난 거 닮으꽈?

#1 칠십삼 년도에? 머리 잘른 거 이천 원 받아실 거라.

@1 처음 헐 때? 이천 원?

#1 빠마가 오천 원이난.

@1 파마 오천 원.

#1 오천 원, 또.

@1 고데 허는 건?

#1 고데, 고데 하는 거 이천 원.

@1 고데 이천 원.

#1 머리 잘른 건 천 원인가 받앗어.

@1 머리 잘른 거 천 원.

@2 고데가 더 비싸다예.

@1 응 고데가 비싼게. 그 다음에 파마하는 건 오천 원?

#1 처음에는 삼천 원도 받앗어.

@1 머리 빠마하는 거?

#1 응. 빠마하는 거.

@1 빠마하는 거 삼천 원도 헤난?

#1 응. 게난 지금 옛날에 오천 원 허영 못 받은 손님 이제도 잇어. 살앙 다녀.

@1 이젠 파마 얼마 헴수과, 이디?

#1 이만 원, 이만 오천 원.

@1 이만 원? 다른 디 가믄 십만 원 받는디.

#1 십만 원.

@1 거난.

#1 지금 싸야 오만 원이라. 막 막 막 싼 디가 삼만 오천 원. 나는 미용을 봉사를 오십일 년이나 헤 부니까 지금도 지금 저, 거동 못 하는 할망들 머리 잘르레 서비스로 가.

@1 예. 신문에 나온 거 막 봣수다게.

#1 어제, 요번에도 갓다 오고.

미용사 머리

@1 삼춘 머리는 삼춘이 헤? 어디 강 헤?

#1 미용사끼리 서로가 헤 줘. 미용사끼리. 근데 미용사끼리도 서로가 헤 주면 뒈는데 안 허믄 돈 줘야 뒈. 미용사도 돈을 줘야 뒈. 그냥은 공짜로 못 헤.

@1 삼춘이 또 보는 눈이 있어 가지고 아무 미용사나 헤 ᄃᆞ렌 허지 않을 거잖아.

#1 그렇지게.

@1 누게안테 강 헤 ᄃᆞ렌?

#1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미용사가 잇어.

@1 거니까. 누구꽈? 어느 미용실이꽈?

#1 아니, 지금 미장원 요번에까지 허단 그만둰. 아니 지금 놀암주게. 게난 지도 나 마음에 드니까 허고 가이도 지 마음에 드니까.

@1 서로 서로 헤 주기로.

#1 경 헷주게.

외지에서의 미용사일

@2 질문. 삼춘 부산하고 서울도 갓다왓잖아예. 미용 기술 배울려고예.

#1 아니, 미용사 뒈언.

@2 미용사 뒈언?

#1 뒈언에 미용사로.

@2 미용사로? 그때는 제주도에서 미용사 하기가 힘들어 부난 거디 강 헌 거꽈?

#1 아니. 그것이 힘든 게 아니고, 육지서 한번 미용이 어떤가 헹 알아보기 위헤서 갓지.

@1 무섭지 안헨? 혼자 간 거 아니?

#1 무사 무서와? 무사 무서와?

@1 여자 혼자 옛날에 못 가게 헷잖아.

#1 그때는이, 이제는 그것이 없는데 옛날엔 미용 ᄑᆞ는 재료상이 있어. 미용 재료 파는. 약 ᄑᆞ는 재료상이 있으면 거기만 갓다 하면 무조건 취직은 뒈. 옛날에는이, 그, 저, 아니, 그니까 칠십 년 전에지. 칠십 년 전에. 그때는 이 약 ᄑᆞ는 재료상이 막 여러 군데 잇이면 그 미용사 이어 주젠 허민이 미용사 구허민 재료상에 부탁을 헤여. 약 파는 데를. 게믄 약 파는 데 가면은 재료상에 가면은 나 미용사우다 취직헤 주십서 하면은 어디 갑서 어디 갑서 가르켜 줘. 그니까 그때는 취직하기가 쉬웠지. 재료상에만 가면은 무조건 미용사는 취직이 뒈니까. 미용사 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미용사 월급

@1 월급을 얼마 받앗수과? 육지 서울 강 살 때.

#1 얼마 못 받앗주. 얼마 받아져신가. 막 오래 뒈 부난 기억이.

@1 서울 살고 부산 살고 허멍 돈 하영 벌엉 와수과?

#1 벌진 못 허고. 저기서 저, 자멍 먹곡은. 게난 우리는 취직헐 때 잘 디를 헤 ᄃᆞ렌 허는 디를 취직을 헷거든. 경 허면은 하영은 못 벌고. 그저 나가 쓰멍 그저 쪼끔 용돈 쓰고 쪼끔 번 건 엇어도 쪼끔 벌엉 왓주.

@1 경 허단 무사 제주도로 다시 돌아완?

#1 아니, 인제 제주도 고향이니까. 제주도 와야만이 내가 미장원도 차려야 뒈고 하니까 경헨 왓지. 게난 서울서 인제 이디저기 다니면서 또 기술 익숙허고 또 더 색다른 거 뱁고. 게난 아, 제주도 가믄 내가 찰려야 뒈겟다. 제주도 왓지.

@1 찰려지겟다 헹 제주도 왓구나.

@2 한 개 더 질문이요.

@1 응. 계속 하십시오.

@2 신부집이 강은에 화장헤 줄 때 속눈썹은 안 붙여난마씨?

#1 아, 그때 속눈썹이 어디 서? 근데 저, 칠십 년대 이후는 속눈썹이 있엇지.

@2 거난.

#1 그때는 부쪄 주지.

@1 칠십 년대 이후에.

#1 이후에 한 팔십 년도 뒐 때. 팔십 년도 뒐 때는 눈썹 붙여 줫지. 근데 칠십 년도 안에는 눈썹이 엇지.

@2 뒛습니다.

중매

@1 삼춘 결혼헐 때는예, 누게가 중매 사 줘?

#1 아, 우리 집 손님이.

@1 어뜨난?

#1 ᄒᆞᆫ 이삼 년 단골 헌 손님이 나안테 허다가 자기네 사춘 오레비가 잇덴. 보니까 알뜰허고 살림은 잘 살 거 닮덴 헨에 중매헌 거.

@1 예. 무사? 남편분은 돌아가션마씨? 언제쯤에 돌아가션?

#1 이천이 년도에.

@1 삼춘이영 몃 살 차이?

#1 동갑.

@1 동갑. 그믄 남자 삼춘도 잘도 늦게까지 결혼 안 한 거네. 그 옛날에는.

#1 아, 저, 김녕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대학교ᄀᆞᆨ지 졸업헤연. 거난 경상도 말밖에 못 헤난. 겐 제주도 완에 공무원 시험 합격헨에 다니멍 허난에 늦어진 거, 결혼.

@1 어뜨난 경 늦게 결혼헤신고 헤신디.

@2 손님이 중매를 사 주셧구나.

남자 화장과 머리

@1 저희가 물어볼 건 다 물어봣는데 삼춘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것도 ᄀᆞᆯ아 줘야 뒐 건디 안 ᄀᆞᆯ아졋저게 허는 거 잇이믄 ᄀᆞᆯ아 줍서. 우리는 결혼헐 때 미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헤서 물어보러 온 거주마씨.

#1 미용사가 저, 손님안테 이 태도를?

@1 아니, 아니. 결혼할 때 미용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1 미용사는 뭐 결혼할 때 뭐, 뭐 화장허는 거는 거기서 내가 화장하겟다 하면은 주문이 들어 오면.

@1 삼춘, 옛날에 화장도 헤 주고, 머리도 헤 주고예.

#1 거난 의무적으로 가근에 그냥 이제 돈 받아 가지고 헤 주는 거주. 그 이상에는 엇지.

@1 이젠 무사 남자들도 화장헙니께, 결혼 헐 때.

#1 응. 남자도 다 하지.

@1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낫지예?

#1 엇주게. 남자는 화장 안 헤난.

@1 머리는 헤 줫수과? 남자 머리는?

#1 남자 머리는 이발소에 강 헷지. 이발소에 강 헷지. 누게 미용사가 헤 주지 안 헤낫주.

@1 맞아, 맞아.

@2 신부 친구들 화장도 헤 줍니까?

#1 아니, 아니.

@1 그건 안 헤 줘마씨?

#1 안 헤 줘, 안 헤 줘.

@2 서비스로. 이런 거.

#1 아니, 그런 건 엇고. 저, 그, 저, 신부집에 강 화장 그 집에 강 헷을 때 우시 갈 사람, 우시 갈 사람 머리 헤 줫주.

미용사의 미래

@1 혹시 뭐 미용사에 대헤서예, 앞으로 미래에도 미용사가 계속 있을 거잖아예. 이제 막 로보트가 대신 헌덴 허는디 미용사는 로보트가 대신 헤질 건가?

#1 로보뜨가 허지 못헤여, 미용은. 왜냐믄이 이 머리에, 이 머리 하나 하나를이 손으로 다 말아야 뒈기 때문에 로보뜨가 그축 헤지카. 로보뜨가 무시거 갖다 오고 갖다 오곡 허는 건 허더라고. 건데 로보뜨가 화장까지는 못 헤.

@1 못 헐 거 닮아예.

#1 머리는 하나 하나 일일이 다 떠 가면서 헤야 뒈고 또 잘라야, 머리 형 맞게 잘라야 뒈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잘라야 뒈고. 근데 머리만큼은 로보뜨가 안 뒐 거 닮아.

@1 또 얼굴형에 따라서예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가도 잇잖아예.

#1 그러니까 로보뜨는.

@1 대신 못할 거 같다예.

#1 어. 미용만큼은 못헐 거 닮아. 옷은 모르지, 옷은 재단만 헤 놓고 그냥 하면은 뒐지 몰라도. 로보뜨가 헤지카, 아무리 그 사람 형 맞게 어떵 말도 못 허고. 말 헤여? 말 허여? 로보뜨?

@1 이젠 로보트 말 허여. 이제 아마 제주도 말도 헐 거 닮수다. ᄒᆞ끔 잇이민. 몃 살까지 이거 하고 싶어마씨? 삼춘은.

#1 걸어지는 한까지는 헤야지. 내가 걸어지는. 왜냐면 돈은 못 벌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거동 못하는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헤 주는 맛으로.

@1 삼춘 젊음의 비결은 뭐마씨? 삼춘 누게가 이거 저 팔십 먹은 할망이엔 골을 거꽈? 아직도 ᄒᆞᆫ 칠십 댓 나신가 영 곧지 안헙니까?

#1 아이고, 아이고, 경 안 헤여. 나 나이 다 봐.

@1 아니라 완전 젊어 보여. 젊음의 비결은 무신거꽈?

#1 젊음 비결 나 아무것도 엇어.

@1 아무것도 엇어? 피부 관리는 뭐 헙니까? 피부 관리.

#1 피부관리도 나 전연 안 헤.

@1 타고낫구나.

#1 로션 스킨도 안 발라. 나 오늘은 이제 온뎅 허난에 로션 스킨 화운데이션 좀 발랏지만 것도 안 발라. 나는 피부 관리는 전연 안 헤.

@2 타고난.

@1 타고난.

#1 근데 피부도이 타고난 게, 타고난 피부를 가져야지, 아무리 가꾸왓덴 헤근에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거 닮아.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겟습니다.

11.

성산읍 고성리 정춘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4월 30일, 2025년 6월 2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정춘자

제보자 정보

@1 삼춘 성함이 어떵 뒘수꽈?

#1 정춘자.

@1 예. 멧 년 생마씨?

#1 사일 년.

@1 사십일 년생예. 그 호적에 올라간 나이영.

#1 같아.

@1 같아마씨. 사십일 년생. 저기 미용실 헷덴 헤신디, 우선은 가족 관계부터 먼저 물어 볼게요. 원래 고향이 어디꽈?

#1 여기, 여기.

@1 여기 어디?

#1 요기 요짝에. 질 건너 노인정 저쪽에.

@1 노인정 저쪽에. 무슨 동네마씨?

#1 거기는 요즘 중동네, 중동네 헷주게.

@1 옛날에 무슨 동네렌 불러수꽈?

#1 게메, 옛날 중동네. 요즘 도로명은 몰라. 거기 집이 없으니까 요즘.

@1 여기가 고성리잖아예.

#1 고성리 중앙로.

@1 중앙로. 그믄 옛날에도 고성이렌 불럿수꽈? 동남이렌 불럿수꽈?

#1 아이, 고성.

@1 고성이렌 헤난.

#1 고성리 동남동이라. 저거 다 고성.

@1 동남은 동남동이꽈?

#1 동쪽에 잇어 부니까 동남, 동남 헌 거지.

@1 아, 긴 거예. 그믄 여기서 낭 죽장 여기 살앗수꽈?

#1 예. 죽장 여기서 살앗주.

@1 어디 나가 본 적은 엇어?

#1 아니, 부산.

@1 부산 얼마나 강 살앗수꽈?

#1 그 미용 때문에 한 오년 정도 강 살앗주. 여기서 미용학원 헨에, 여기 동남, 이 시에서. 시에서 이디 미용 학원 헌 건 보난에 잇엉게마는, 멧 사름 혼 대 여섯 사름.

미용학원 수강

@1 미용학원을 다닌 거마씨?

#1 미용학원을 다녀야 허주게.
@1 몃 살에 미용학원을?
#1 열여덟에, 열아홉엔가 열여덟엔가. 열여덟에 뎅견 열아홉에 헨에 스물에 저기 나가신가 어떵 헤신가.
@1 열여덟 살 정도.
#1 열아홉 살 정도 닮아 붸어.
@1 열아홉 살 정도. 그믄 이때 미용학원이 시에 잇어낫수꽈?
#1 예. 시에 동문로타리에. 동문로타리 그 동문 저기 뭐 잇엇어. 동문 저 모욕탕 잇어낫어. 그 요즘 시장, 요즘 잇어. 그디도. 엇어져 벳주.
@1 그때 미용학원 이름이 뭐랏수꽈?
#1 제주미용학원일 거라.
@1 아, 제주미용학원.
#1 응. 제주미용학원일 거라.
@1 미용학원 다닐 때 얼마나 다닌 거마씨? 학원을.
#1 육 개월, 아, 일 년 다녓주. 일 년.
@1 일 년. 이게 코스랏수꽈?
#1 예. 그게 코스였지.
@1 이거는 이 제주미용학원은 언제부터 잇어난 건 알아지쿠꽈?
#1 게메 우리 멧 회라라마는 몰르크라. 나 저기, 어디 적어지긴 헷어라마는.
@1 사진에예. 우리 찾아보쿠다.
#1 이디 꼭 멧 회엔 적어신디 안 적어신디 모르켜.
@1 예. 삼춘 다닐 때는 미용학원에 사람은 얼마나 잇어난마씨?
#1 많진 안헸어. 우리 기에는 한 대여섯 명.
@1 아, 그거밖엔 안 둼?
#1 어. 우리 다닐 땐. 멧 기, 멧 기 헸으니까.
@1 그믄 그 강의를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 매날 갑니까?
#1 어. 매날 가야지. 일요일만 안 가고.
@1 일요일만?
#1 응. 학교 뎅길 때ᄀᆞ추룩.
@1 학교 다닐 때ᄀᆞ치 그믄 여섯 번을 간 거라, 일주일에?
#1 예. 여섯 번.
@1 가믄 저기, 하루 종일 합니까? 아니면 어떵 몃 시간.
#1 아니, 멧 시간 헤여.
@1 멧 시간?
#1 멧 시간 헹 다른 사람 그 다른 기에 온 사람도 허엿던 거 같애. 멧 시간이라.

저물앙은 안 헤.
@1 저물앙 안 허고. 게믄 낮전이만 허든지 경 헤신가?
#1 아침에 가는 거 같애.
@1 아침에예. 가 가지고. 그믄 육 개월 내내 매날 그렇게 강.
#1 예. 그거. 매날 가사. 그거 머리 허는 거 배왕 와사 놈의 머리를 헐 거 아니?

미용학원 수강 계기

@1 맞수다. 아, 경헹 학원을 다닌 거구나예. 어떵 헹 그 학원을 다니게 됀마씨?
#1 어떵 헨 우리가 공부를 못 헷지.
@1 학교 안 다녓수꽈?
#1 학교, 게믄 아들들은 대학교 시키고, 고등학교 시켜도 똘은 옛날에는, 나가 큰딸이고 헷기 때문에 아부지가 일찍 군인 간 전사헤 버리고 경허난 못 시켠. 아이고, 나 그 말 골아가난. (울음) 겡 국민학교뱀이 못 나왓지.
@1 게도 국민학교는 나와신게.
#1 국민학교, 국민학교 나와신디 이젠, 그 우리 때는 물질을 헷잖아.
@1 맞수다.
#1 바당에. 게난 물질은 쪼끔 테왁 간에 ᄒᆞ끔 헤 보긴 했어. 겐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도 춤, 옛날 어른이라도 좀 깨엇는지 몰라도 이제, 물질허레 가민 죽으레, 죽엇당 죽으레 가곡 살젠 나온덴 물질을 안 시키켄 헌 거라. 우리 딸, 아들 세 성제고 나 딸 하나난에 너무 안타까완 물질허지 말렌.
@1 아이고, 깨엉 잇엇인게.
#1 우리 어머니가 춤, 옛날에도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나왔어. 옛날에. 옛날에 국민학교는 그때 사 학년까지 헷단 허데, 옛날에.
@1 어머니가 국민학교까지 사 학년까지 헷다고마씨?
#1 예. 우리 어머니아피 글 배우고. 우리보단 글씨도, 우린 글씨가 궂는데 우리 어머닌 한자도 첨 잘 써났어. 붓글씨도 잘 쓰고.
@1 기구나예. 어머니 몃 년생이꽈?
#1 아이고, 뭐 알아지커라, 뭐 이제 한 백, 이제게 돌아가셔 부난에게.
@1 돌아가셔 부난예. 게믄 삼춘이 큰딸 하난디 몃 번째마씨?
#1 아, 나가 우에.
@1 맨 위에. 맨 위에, 그다음 남동생 셋이 잇는 거예.
#1 예. 예.
@1 아, 예. 경헹 어머니가 물질시키지 말렌 허난.
#1 어머니가 물질허지 말라. 그 죽으레, 죽으레 들어가고, 그 깊은 바당에 죽으레 들어가곡 살젱 나오곡 허는 거 허지 말렌. 태왁을 쪼끔 헨에 물질을 베왓주게이. 경허단에 이제 미용학교라도 가라. 그

막 얼굴 시커멍허고 무시거 허곡. 요즘은 물질 배와 놔시믄 좋앗주게이.

@1 맞수다. 맞아. 맞수다.

#1 경헌디 그때는 물질허는 것이 좀, 솔직히 그때는 좀.

@1 천허게 봣지.

#1 천허게 봣지. 육지 나가도이, 그냥 뭐 허고. 제주 사람이엥 허믄 알아주지도 안 허고. 육지. 경헷어. 경헨에. 미용학원 그거 뎅견에.

@1 그믄 어머니가 미용학원 뎅기렌 헌 거?

#1 어머니가 뎅기렌 헷지. 아무거나 너 허고 싶은 거 허라. 헤근에 게난 양재일을 허든지 그걸 허든지 허렌 허난 나가 미용허쿠덴.

@1 아, 양재나 미용이나.

#1 응. 그땐 그 시절이었어. 뭐 허면은 양재 재봉틀이나 미용학원 헤도, 나가 미용학원 허쿠다 헨에 가기 시작헷주.

@1 그민 여기서 제주시 가젠 허민.

#1 거기 강 하숙헷주. 하숙이 아니고 자취 생활 헷지.

@1 자취 생활.

#1 우리 동생도 저 그때 일고 나왓지. 일고 들어간 때 같이 간에 하숙허멍. 지금 남수각이엔 헌 디서, 그 동네서 헷어.

@1 맞수다. 남수각예. 물 잇인 디예.

#1 으.

@1 그 동네에서 헷구나. 그민 어쨋든 남동생 돌보고 허젠 허난 ᄀᆞ치 간 건게?

#1 응. 돌보고 무시거 기자 같이, 옛날에 혼집이 살아사주, 집 빌어져게? 집 빎도 무시거 헌디게.

@1 게난 남동생 밥헤 주고 도시락 싸 주고 헤시큰게마씨.

#1 도시락사 싸신디 어떵사 헤신디. (웃음)

@1 경헹 둘이 살멍 삼춘은 미용학원 다닌 거마씨?

#1 응. 그때 육 개월 닮다, 이제사 보난.

@1 육 개월예?

#1 응. 육 개월 닮다.

@1 미용학원 다닌게예?

#1 육 개월 닮아. 육 개월, 육 개월로 생각을 헐 거 닮아. 그때 옛날에 그 사라호 태풍 때여.

@1 예, 그럼 오십팔 년?

#1 응, 그 사라호 태풍 때.

@1 그 경인게예.

#1 그때, 그때. 우리 그디 간 막 사라호 태풍 헨에 그냥 뭐 널언 놔두난, 옷 널언 놔두난 막 불려나고 헤난 거 알아져, 사라호 태풍 때.

미용학원 수강 비용

@1 아, 그거 기억남서. 그믄 삼춘 보면 학원 다니젠 허믄 학원비를 내살 거 아니꽈예?

#1 어. 내사 뒈주.

@1 그때 얼마 정도 헤난 거 알아지쿠과?

#1 글쎄. 얼마 안 헤실 거라.

@1 얼마 안 헤실 거라?

#1 얼마 안 헤실 테주게. 그땐 옛날에 쌀 혼 말에 무신 이천 원, 삼천 원 헐 때난.

@1 게난 그거 학원비 내는 게 삼춘네 집에서는 부담스럽진 안헤낫수꽈?

#1 어떵사 헤신디 우리 어머니가 내어 주난에.

@1 내어 주난.

#1 다른 공부도 안 시켜 주난 그건 헤 줘사주. 아들들은 공부시키고.

@1 그니까. 아들 집세도 내살 거고예,

#1 예. 집세 내살 거.

@1 학교 비용도 내살 거고.

#1 경허난 우리 아버지가 그 육이오 때 간 돌아가셔 부니까 나 헐 때는 공짜가 안 뒛어. 우리 동생 헐 때는 그 유가족으로 헨에 학교를 면제헐 시기가 있었어. 게난 난 넘어 불고, 그 우리 때는 안 뒈고 우리 동생 헐 때 뒀으니까 나가 게난 우리 동생 밑으로 중학교 들어가젠 헌 거라. 경허난에 우리 동생이, 거 두렷주게, 그때도. 에, 누님이 나 밑으로 오민.

@1 아, 중학교. 그니까 어머니가 똘 중학교도 보내젠도 헤낫구나.

#1 보내젠 헤난. 겐디 나가 좀 멍청했어. 나가 그때 막 가젱 헤시민 갓주마는 것도 챙비헤근에이, 나 족은 아이곡 영 가는 것이 나가 막 가젱 헤시민 갈 수도 있엇지게. 어려와도. 어머니가 교육열이 잇이난에. 경 헤신디 나가 싫언 안 간 거라. 솔직이.

@1 아, 거난 뭐라도 허렌 헹 미용학원.

#1 응. 경헹 보낸 거주.

미용학원 졸업 후 부산행

@1 경헹 다닌 거예. 그 미용학원 다니당 육 개월 배우난 다 배워진 거꽈?

#1 그거는 다 뱁지 못하지, 그때는. 겡헹 육지 나간 거라.

@1 아, 그민 여기서 육 개월 졸업헹 바로 육지로 나간 거.

#1 육지 나갓지. 육지를 나간에 놈의집, 그때는 다 시다[41] 시다 했어. 그 미장원 가민 놈이, 그때는 요즘 ᄀᆞ추룩 그거 안 허고 그 쒜 닮은 고데 했어. 그 어디 허는 거 잇일 거라. 게민 그거 처음에는 나가, 처음에 가민 다 시다라. 처음 나온 사람은 미용학교 거 육 개월 거 나와근엥에, 학원 나와근엥

41) '시다'는 일본어 'したばり(下張り·下貼り)'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에 놈의 머리 마음대로 잘르지도 못허지게. 게믄 밑에서 배왓지, 멧 년을.

@1 그믄 육 개월 졸업헤 가지고 부산, 육지 가젠 허난 누게가 영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이수꽈?

#1 거기 아는 사람이 우리 삼춘 살았으니까 거디 가면 이제 그 재료상이 있었어. 미용 ᄑᆞ는 재료상, 요즘은 어떵 헤시냐. 미용 파는 재료상에 가민 취직헐 사람이 다 거기 모여. 어디 취직 헤 도렌. 미장원에서 구허는 사람이 잇지. 시다들 구허는 디.

@1 그믄 재료상이엔 헌 건 부산에 그 재료상.

#1 부산에 재료상. 미용 재료상. 거기에 다 취직헐 사람은 원, 일류 미용사든 뭐든 다른 그 집에 안 허고 싶으면 거기 가근에 어디 소개헤 주렝 허민 그때 다 소개헤 줄 때주게.

@1 아, 재료상에 강 잇이믄마씨?

#1 응. 경헨.

@1 아, 그민 삼춘도 그 재료상을 통헹 미용실 가게 뒌 거예.

#1 응. 미용실 간에 첨에 놈 시다 허단에 ᄒᆞᆫ 멧 년 배우난에.

@1 아, 기구나.

#1 경 헷저게. 이디저디 다녓지.

@1 아니, 학원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소개해 주고는 안 헤수꽈?

#1 여기는 그 좁은 지역에서 어디 미장원이 경 여러 개 잇어근엥에. 이 지역에 무슨 미장원이 멧 개나 잇엇어게.

@1 제주도는 그때 미장원 별로.

#1 미장원이 많이 없엇지게.

@1 없어난예.

#1 없엇지.

미용학원 교육 방식

@1 우리 그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선생님은 몃 분 정도 뒈나수꽈?

#1 아니, 한 사람이엇어. 그때는. 미장원이 족앗, 저 처음에는 멧 사람 아니엇주게. 양제나 뭐나. 경했을 거라. 한 사람인데 그 실기로 가르켜 주는 거라. 강의가 아니고 실기.

@1 응. 그냥 앉혀 놔 가지고.

#1 예. 이런 의자에 헤근엥에 그 연탄불 잇지이, 그 고데 허는 거. 그거 실기로 가르친 거라. 실기로.

@1 그민 실기 허젠 허민 모델 뒈는 사람도 잇어낫잖아예.

#1 모델도 서로가.

@1 서로가. (웃음)

#1 서로 자기 머리.

@1 서로 서로 헤 주멍 그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는 거구나예.

#1 예, 예. 요렇게 요렇게 헤. 잘헴저, 못헴저.

@1 한 사람씩 헤 보렌도 허고마씨?

#1 예. 예. 그렛주게.

부산에서 미용사일

@1 부산 가난, 이 재료상 가난 삼춘 바로 영 시다로 취직은 뒌 거마씨?

#1 예. 응. 응.

@1 가게는 어디 이신 미용실?

#1 가게가 막 여기저기 다녓주게. 대천동 대천 예식장이엔 헌 디도 다니고 거 경 헤여. 영, 영, 영. 예식장에도 다니고. 저 어디 알아지커라게. 영도 어디에도 있엇고. 요즘 국제시장 그 광복동 그쪽에. 치매 병원, 치매 병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커라. 요 멧 년 전꺼지 있었어. 치매 병원, 그 대천동 파출소 옆에엔 헹, 아무튼. 게난 국제시장 그 남포동 거리는 다 알아. 그쪽에 있엇기 때문에 멧 년 후에 가도 다 알아젼게.

@1 그믄 거기 가 가지고 몃 년을 산 거꽈, 부산에서가?

#1 오 년이엔 ᄀᆞᆯ으면 뒈. 오 년.

@1 오 년 정도?

#1 스물네 살에 제주에 들어왔으니까.

@1 아, 스물네 살에예. 여기까지는 계속 부산에. 한 미용실은 몃 군데 돌아다녓수꽈?

#1 게메.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

@1 여러 군데? 한 군데에서 제일 길게 잇어 본 건 얼마나 잇어 봔마씨?

#1 게메. 여러 군데 뎅겼으니까 한 일 년도 있어 보고. 왜냐, 왜 옮기느냐 허면은 여기에서 시다 허다근엥에 자기가 좀 올라가젠 허민 다른 미장원엘 가야 뒈어. 거기에만 있으면 자꾸 시다만 헐 거니까.

@1 맞아마씨.

#1 경헨 돌아다니는 거라. 그 뭐가 아니고. 여기서 허다근엥에 좀 기술 늘려면은 다른 디 가면은 중 미용실, 중 미용사 구헌다 허민 경헹 돌아다니는 거지. 그때는 그랬어.

미용사 단계

@1 거난 미용실에도 영 단계가 잇인 거라예.

#1 예. 예. 단계 잇주게.

@1 밑에서 그냥 시다 허당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1 경허영 저 제일 잘허는 사람, 처음에는 고데 가져 주는 사람 있어. 연탄불에 헹근엥에 미용사. 거 시다엔 허주. 고데 가져 주당 그다음은 또 만지게 헤어. 머리를 만지면은 또 그다음 단계는 제일 잘허는 사람 앞이 또 요즘 시아게[42]엔 헹 제일 난중에 손 봥근엥에 내보내곡 헷주게. 멧 단계 걸청.

42)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에서 온 말로 '마무리'라는 의미다.

@2 시아게 마무리.
@1 응. 마무리하는 거.
#1 마무리. 그랬지.
@1 게난 그 단계가 시다 헹 어느 정도 배워진 거 닮다 허민 그만 둉 다른 데 가고 경 헨.
#1 응. 그래 다른 디 영 헹, 다른 사람 미용허는 것도 봐야 뒈니까.

부산 대천예식장 미용실

@1 게난 아까 보난 어디 예식장에서도 일헷고 하고 말씀하시던데. 대천 예식장.
#1 대청, 대청예 식장. 그 국제시장 우에 있어. 국제시장 영 우에. 영주동 가는 그쪽에.
@1 그거는 예식장에 딸린 미용실이꽈?
#1 응. 예. 예식장에 딸린 미용실.
@1 옛날에는 경 예식장마다 미용실이 잇어낫수꽈?
#1 예. 있엇지. 잇는 디는 잇는데, 아, 미용실이 예식장마다 잇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에, 큰 예식장은 미용실이 딸련 있엇지. 다는 모르지마는 나도 옛날에는.
@1 그민 그런 미장원에, 예식장에 있는 미용실에서는 보통 우리 미용실 가면 주가 머리 짤르거나 파마허거나 하는 일이잖아예.
#1 예. 손톱 소제허고.
@1 아, 손톱도 미용실에서 헷수꽈?
#1 응 손톱도 미용실에서 헷지. 다 헷지.
@1 옛날에도 손톱 소제도 경 헷구나.
#1 응. 옛날부터 손톱 다 헷주게.
@1 미용실에서예.
#1 예. 옛날부터.
@1 그민 보통 미용실은 우리가 아는 미용실은 그거라예. 머리 짤르고 파마허고 허는 딘디, 예식장에 잇는 미용실도 주로 허는 일이 그런 일이랏수꽈?
#1 예. 그런 일이주게. 예식장이.
@1 아, 똑같애마씨?
#1 응, 겡 오면은 저기, 거기 오면 신부 화장 헤 주곡. 거기서.
@1 그치예.
#1 거기서 신부 화장허고, 그거 허고 예식장 딸린 미장원은.
@1 거난 예식장 딸린 미장원은 좀 다를 거 닮아.
#1 크지 좀.
@1 아, 큽니까?
#1 아무래도 크지. 아, 크지게. 아무래도. 미용사도 많고.

@1 아, 기구나예.
#1 미용사도 여 남은 사람씩 잇고 그랫지.
@1 게난 여기는 주로 하는 일이 결혼식 날 준비하젠 신부 화장하고 머리하고 허는 일을 할 거 닮아 가지고.
#1 여기허고 그기 큰 미용실하고 도의적으론 차원이 다르주게, 차원이 달라.
@1 그민 예식장에 딸린 미용실도 머리 잘르는 일이나 파마허는 일도 다 하고.
#1 화장헤 주고.
@1 화장허는 일도 허고. 그민 거기가 규모가 더 컨마씨?
#1 어. 그디가 훨씬 크주. 그런 덴 크주게. 그디는 그런 디가 경 아무나 가지도 못 헤.
@1 아무나 가지도 못헤. 삼춘, 그럼 대천 예식장 아까 갈아신디예, 여기서는 한 멧 사람 정도 일을 헤낫수꽈, 기억헤 보민?
#1 거긴 여남은 사람 했을 거라.
@1 여남은 사람들. 그믄 이거는 머리 허는 사람이 화장도 다 하고 헙니까? ᄀᆞ튼 사람이 헙니까, 아니면 약간 전문 분야.
#1 아니, 전문 분야가 따로 있엇겟지. 나도 그때는 큰 미용사가 아니엇기 때문에. 그 간 사람이 무신 경 크게 놀지 못헷주게. 중으로 헨에 기자 뭐 헷지, 거기는. 그 미용실은 그때 미용 협회장네 미용실이었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미용 협회장 헤난 사람, 여잔디.
@1 그 사람 미용실.
#1 응, 경헌 거 닮아.
@1 화장하는 사람은 약간 분야가 달라마씨? 머리허는 사람이 그냥 다 헤신가마씨?
@1 머리허는 사람이 다 한 거 같애. 나 정확하게, 예식장에 오면은. 그리고 다른 데서도 또 화장헹 오는 사람도 있어, 다른 미용실에서.
#1 화장헤서 오면은 여기서 뭐 헐 거라?
@1 뭐 헐 거라, 예식장이니까.
#1 아, 그 대천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이 다 여기서만 한 거는 아니엇구나. 다른 미장원에서 헹 여기서.
#1 응. 자기 단골 있으면은. 그런식 헷지, 옛날에는.

연애 결혼

@1 예. 그랫던 거예. 삼춘은 스물네 살 뒈난 제주도 온 거라예.
#1 결혼허젠 왓지.
@1 아, 그민 부산에서는 싱글일 때는 거기 그냥 살당 결혼허젠 허난 여기 제주도 내려온 거마씨, 스물네 살에? 결혼은 그믄 어떤 남자 삼춘 소개받앙 결혼을 헌 거?
#1 아니, 동네니까 우리 연애헷주게.
@1 연애마씨? 언제부터?

#1 여기 있을 때부터.
@1 여기 있을 때부터?
#1 여기 있을 때부터 연애 허난에 우리 어머니가.
@1 몃 살 때?
#1 어릴 때부터.
@1 남자 삼춘은 몃 살이꽈?
#1 나보다 두 살 우.
@1 두 살 우에. 그민 삼십구 년생인게예. 동네 오빠랏수꽈?
#1 오빠신디 어떵 헤신지 기자 옛날에 오빠옝도 안 헷어.
@1 안 헷어. 그냥 이름 부르멍.
#1 이름 부르멍 기자 자기 어떵 헹 눈 맞앗지. 우리 아방 좀 머리가 영리헤낫어, 완전.
@1 잘생겻고예.
#1 저건 지금 질어 부난 못생겻주, 진짜 뭐 헷주게.
@1 경헹 어릴 때부터 어떵 연애헷수꽈?
#1 어릴 때부터 연애헤신지 어떵 헤신지 좋으난에게, 연애허난게, 부모넨게 막 반대헷주게. 연애허는 중도 몰르게.
@1 삼춘 시에 강 살 때는 그때도 연애해젼마씨? 남자 삼춘은 여기 있는 거 아니랏수꽈? 어떵 연애헷어?
#1 어떵 연애헷어. 무신 먼 데 강 살앗젠 연애 못 헤여, 편지로. 동네난에게. 동네난게. 동네.
@1 아니, 동네난 동네에 있을 때는 연애하주마는 가끔 영 얼굴 보멍. 삼춘 시에 강 살아 불고, 남자 삼춘 여기 이시민 그때도 편지 주고 받고?
#1 응.
@1 부산 강 살 때는 어떵 헨?
#1 부산도.
@1 보러는 오고마씨?
#1 어?
@1 보러. 보러 오고? 남자 삼춘이 부산에.
#1 그때는 옛날에 그렇게 가지 못헷지. 요즘ᄀᆞ축 교통이 좋곡 돈이 잇어근에 그리 왓다 갓다 헤여?
@1 그믄 편지로만?
#1 어. 편지로도 헐 때 잇곡 안 헐 때 서로가 믿으니까 뭐 헷주. 요즘 ᄀᆞ추룩 무신 교통이 좋아근에 그 땐 배 탕만 다녓잖아. 비행기가 있엇주만 거 아무나 비행기 타져? 그 무신 호? 제주호, 무신 호산디 잇엉 그 제주호 경헹 왓다 갓다 헐 때난 경 다니지 못헷지.
@1 다니지 못헨예.
#1 군인 갈 때 ᄒᆞᆫ 번 만낫지.
@1 군인 갈 때 부산 들령 갑디가?

#1 휴가, 휴가 나올 때.
@1 휴가 나올 때 부산으로 휴가 왕.
#1 겅헷주.
@1 겅헹 따로 살아신디, 딴 디 살아신디 결혼 말이 나온 건.
#1 결혼은게, 서로가 믿으니까 나 결혼할 거로구나 서로가 믿엇지. 한 육 년 연애헷어. 육 년.
@1 아, 육 년. 결혼허젠 여기 제주도 내려와 분 거? 그믄 제주도 내려 오난 바로 결혼헷수꽈?
#1 어. 바로 결혼허젠 내려왓주. 메칠, ᄒᆞᆫ 달 전이.
@1 아, 그민 날짜까지, 편지로 다 주고 받고 헌 거마씨?
#1 게. 부모네들이 다 뭐 허난게.
@1 아, 부모님들이. 사주도 다 보고.
#1 응.
@1 그민 그때 사주 어디 강 보고 그런 건 잘 모르겟다예.
#1 건 어머니가 알주, 무신.

혼례 장소

@1 몰라예. 그민 결혼헷수다예. 삼춘 결혼은 어디서 헷수꽈?
#1 여기서. 이거 초가집이엇지.
@1 이 집터가 남자 삼춘네 집이라마씨?
#1 어. 초가집이여. 사 칸 집.
@1 사 칸 집?
#1 응. 사 칸 집. 저쪽에도 집 잇엇고.
@1 그민 이 결혼 사진이 이 집이꽈?
#1 이 집. 이 집 초가집이라 부난. 이거 초가집에 뭐 헌 거.

신부 혼례복

@1 예. 삼춘 치마저고리에.
#1 이거 치마저고리 입고 그건 사진이 엇인게. 우리 쪽두리 써난 헤난 건.
@1 이렇게 사진 찍고 쪽두리도 썻수꽈?
#1 응, 쪽두리를. 그때는 그런,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집이서 어머니들이 저 그 옛날 다 옷을 헤 줘. 한복. 그 저 장옷이엥 헹 다 헤 줘.
@1 맞수다.
#1 그거 헤 주난에 우리 어머니가 입어 보렌 헨에 게난 거 아무나 허진 안헷어. 다 허진 안헤신디 우리 친정에서만 그거 입언에 그디서 사진 찍은 거 잇어나신디 엇인게. 남자도 가근엥 이거 벗엉 그 사모관대 쓰고. 그거 벗어 둬근엥에 따시 이디 이거 입언 왓지.

@1 그민 그렇게 치마저고리에 장옷 걸쳥 남자 집에 온 거.

#1 아니, 아니, 우리 집에서만.

@1 집에서만 그렇게 입언, 이 집에 올 때는.

#1 이런 식으로.

혼례 주례와 사회

@1 이렇게 헹 온 거. 봅서,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신랑 신부이고 이 앞에 남자 두 분이 앉아 잇어예. 이 남자 둘은 누게꽈?

#1 이건 교장 선생이었어. 요 사람.

@1 게민 삼춘은 교장 선생이 있엇다는 건 주례가 잇어낫수꽈?

#1 아, 주례 있었지. 주례. 이거 사회 보는 사람. 요 사람도 유명헌 사람이라. 한○○이 선생이엥 헤근엥에.

@1 그럼 삼춘 봅서. 삼춘 전에들은, 장옷 입엉 시집올 때는 남자 집이 왕 사회 허고 주례허고 그런 건.

#1 그런 건 없엇지.

@1 엇어나십디다예.

#1 엇어, 엇어.

@1 근데 삼춘은 그런 거 헷다는 거네.

#1 아, 이건 신식이엔 헨 헌 거지.

@1 신식으로 헌 거. 봅서, 신식으로 헐 때도 집이서 주례가 영 서고 사회 보고 이렇게 손님들 허고 허젠 허민 어떵 장소가 잇어야 뒐 거.

#1 마당에서. 이 마당이 막 널러낫어. 옛날에 나 몰랏주마는 옛날에는 여기서 연극도 헤낫덴 헤메, 어른덜. 마당이 너르니까. 이 집은 조금 노프고 허난. 이 저디까지 마당이었으니까.

@1 막 널른 마당. 여기 부젯집이라낫구나.

#1 몰라. 옛날엔 부젯집이랏단 나 시집올 땐 아무것도 엇어난.

@1 아니, 어쨋든 그렇게 모여 가지고 하는 집이었으면.

#1 아, 그건 굴읍디다.

@1 동네 유지 집이엇다는 거잖아예.

#1 아, 그건 맞고.

@1 그건 맞고.

#1 우리 시아방네 유명헤낫주. 홍○○ 씨 허민 다 성산에서는 알아낫뎅 헙니다.

@2 아, 홍○○ 씨.

@1 예. 여기 홍씨 집안예. 그럼 보면 이 주례가 있었던 건 삼춘, 최근에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모습 생각헤 보면 주례는 가운디 서고 신랑, 신부 앞에 세우고 헹 영 주례가 막 말씀허고 허잖아예. 삼춘네 그거 다 헨마씨?

#1 예. 그건, 신식은 경헷주게.

@1 그민 신부 입장하세요, 신랑 입장하세요 그런 것도 다 헌 거마씨?

#1 어. 다 헌 거지. 게민 누게 손 잡안 들어가진 안허고. 그자.

@1 게민 입장은 동시에 헷수꽈? 따로 따로 헷수꽈?

#1 몰라, 어떵사 헤져신디.

#1 어떵사 헤신디 그건 모르고?

@1 동시에 헷겟지.

#1 동시에 영.

@1 어쨋든 입장하세요 헹 영 걸어 오는 단계도 다 거친 거예.

#1 거친 걸로 봐야지.

@1 거친 걸로 봥예.

#1 올레서 들어오멍 뭐 했을 거라, 사진 찍엇어. 올레 절로 영 들어오멍.

@1 손님들이 영 앉아 잇기도 헷수꽈?

#1 예. 앉아 있엇주게.

@1 앉아 잇고.

#1 옆에 상 봣주게, 상. 의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마당이난에게. 산, 산 봣주게. 다 산에.

#1 상 보고, 주례는 가운디 성 신랑 신부 세웡 말씀도 허고.

@1 예. 앞에. 경 헷주게. 사진 찍언 헷주. 앞이 저기 허고. 앞에 사근에.

#1 그 삼춘들 친구들 결혼헐 때영 영 생각헤 보믄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도 영 주례허고.

#1 예. 이런 식으로 헐 때는 주례 헷지.

@1 이런 식으로.

#1 우리 쪽두리 쓴 건 멧 사름 신부 화장 다녀 보지 못헷주. 게난 이런 거 헐 때는 다 주례 헷지. 옛날에도 헷지.

@1 그때 삼춘 결혼헐 때쯤 뒈난 다 영 주례 허멍, 집이서 결혼하더라도 예식장 안 가고.

#1 예. 안 가도 이추룩 헨.

@1 이추룩 다 주례 허멍 헷구나예.

#1 경헐 때 잇고 안 혀는 사람도 잇엇어. 강 사진만 찍을 때도 있엇고.

@1 그니까. 장옷 입엉 허는 사람들은 트럭 타멍 집이 왕 신랑 집이 오면 그게 결혼식이렌 헙디다예.

#1 경헷주. 와 가멍 이디 들어와.

@1 그런 사람들도 있엇던 거, 그 시대에도?

#1 예.

@1 아까 요거 주례 선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렌 헤신디 어디 교장 선생님마씨?

#1 여기 저, 어디 저 성산포엿는데.

@1 국민학교?
#1 예. 국민학교.
@1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쿠과?
#1 이름이 잊어버렸어.
@1 잊어버렷어?
#1 요 어른은 알아져. 이 근처 살아 있으니까. 한○○ 선생이렌 헹.
@1 한?
#1 ○○.
@1 ○○?
#1 ○○. ○일 거여. 지금 시에 잇어. 시에.
@1 한○○예, 이분. 신랑 친구꽈? 남자 삼춘?
#1 아니, 아니. 선배, 선배. 완전.
@1 선배님?
#1 완전 선배.
@1 이 사람이 사회를 본 거마씨?
#1 예.
@1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신랑 친구로 헹 부신랑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
#1 그런 거, 옛날에 부신랑 그건 없었을 거 같애.
@1 없엇어. 그냥 사회는 잇엇주마는.
#1 건 없엇지. 부신랑은 엇엇고 신랑 친구들이엥은 헤근엥에 갔엇지.
@1 친구로 온 건 아니고 그냥 사회로 온 거마씨?
#1 예. 초대헌 거.

혼례 사진 촬영 사진사

@1 이 사진은 누게가 어디서 왕 찍은 거 같수꽈?
#1 이거는 우리 저, 예식장 동남 예식장 있엇지.
@1 동남 예식장?
#1 응. 동남 예식장에서 완 찍엇지.
@1 동남 예식장에서 왕 사진은 찍은 거?
#1 예. 예.
@1 그민 삼춘 결혼할 때 예식장이 잇어난 거구나예.
#1 그 사진관만 있엇지, 사진관. 사진관 나가 잘못, 그 후에 예식장이 잇언. 사진관이 있었으니까.
@1 그니까 동남 사진관만 잇엉 여기서 찍고.
#1 예. 출장 와근엥에 찍언 간.

@1 출장 왕 찍고. 이 예식장은 경헹 그로부터 얼마 후제 생긴 거 닮수꽈?
#1 그후제 나가 이거 결혼헨에. 한 일 년 후에나 이 년 후에 생겼을걸. 일 년 후엔가. 일 년 후에 닮아. 나가 거기, 그 미장원에 간에 나가 뭐를 헸으니까.
@1 미용을, 머리를 헸으니까.

예식장의 미용실 운영

#1 미장원을 채렸으니까. 이 년 후에 같애.
@1 삼춘에 거기에 채련마씨?
#1 응. 그디 간. 그디서 헷지, 한 멧 년.
@1 그민 거기 동남 예식장에 결혼하레 오는 사람들은 삼춘 거청 간 거라예?
#1 예. 거청 가는 사람도 잇고, 또 다른 디서 헤근엥에 오는 사람도 잇고, 또 여기에 예식장에 오는 사람이 그다지 많진 않았어. 왜냐하면은 저기, 다른 지역에 난 미용 그거 신부 허레 갓주마는 서귀포도 가 불곡 다른 예식장 나강 허곡 형 강 예식장에 오는 사람도 잇고 사진 찍엉 기자 뭐 허는.
@1 예식장에서 안 헹 그대로 그냥 집에서 사진만 찍는 사람도.
#1 사람도 잇고, 예식장에 오는 사람도 잇고, 경 헷주.
@2 사진만 찍는 사람도 잇고, 식만 하는 사람도 잇고.
#1 경 그랫지.
@1 맞아예, 맞아예.
#1 경 헷저.
@1 좋수다. 좋수다. 좋수다 사진 이야기 이따 더 여쭤 보쿠다예. 그럼 삼춘 내려 왕 바로 결혼헷잖아예. 그민 결혼헌 다음에 미용 일을 바로 헷수꽈, 안 헷수꽈?
#1 한 일 년 이땅.
@1 일 년. 일 년은 집에서 그냥 놀안마씨?
#1 집이서 여기 막 제사가 많아. 우리 옛날에 막. 큰집이엇주게이. 종손. 가지 종손이라 부난 일 년에 제사 여섯 번씩 헷어. 게난 못 헷단에.
@1 어떵 헹 허게 뒌 거꽈?
#1 게난 경제적으로 놀긴 싫엇주게. 요즘 그 맞벌이, 아방은 그 저 읍사무소에 있었어.
@1 예. 공무원?
#1 옛날에 읍사무소가 아니고 멘사무소엿지.
@1 멘사무소 공무원이랏구나. 엘리트여신게.
#1 경헨 허난에 요즘 같으면 맞벌이지.
@1 맞벌인게. 예.
#1 맞벌이지. 경헨 헷주게. 시작헷주게. 놀진 못허고 일은 못 허고. 일은 잘 안 혀나 부난에 처녀 땐 열멧 설에 돌아뎅기단 보난 일을 잘 못 배왓주게.

어린 시절 밭일 갔던 일화

@1 그 일이렌 허는 건 물질 일이나 밭일이나.

#1 밧일이나.

@1 거구나예. 그런 일은 잘 못 허고예.

#1 못 허고 허난에.

@1 거난 어릴 때도 어머님네 그런 일은 막 도와 주거나는 안 헤낫구나, 삼춘은예?

#1 쪼끔 검질은 메낫주게. 검질 메레 가면, 검질 메레 가면 그 페렝이 잇잖여, 페렝이. 모자 썽 허민 휘딱 넘어나이, 바람 불민. 경허민 굴각지 알아져? 굴각지. 굴각지로 페렝이 상퉁이 탁 줏은 다음에 머리에 써 불민 페렝이가 다 고망 터주왐덴. 일허기 싫엉.

@1 일허기 싫엉 경헴덴 욕 듣고예. 맞수다. 맞수다.

#1 우리 고모가 나보다 훈 설 우이 고모가 잇어신디, 는 페렝이 남아나지 아녓저. 담 우이 앚아근에, 담 우이 앚앙 허당 페렝이 불려나믄 굴각지로 굴각지지, 굴각지로 탁 줏어당 머리에 썻뎅 허멍 허주게.

@1 맞수다.

#1 경헤낫저. 경 일을 안 헤나 부난 왕 일은 허진 못허고 이거라도 헤야, 배운 도둑질이 그거난 그거헤야 뒈켄 헨에 미용 시작헷주게, 동남서.

면사무소 앞 미용실 운영

@1 동남서. 게민 바로 여기 사진관 강 미용실을 차린 거꽈, 아니민 다른 디서 헷수꽈?

#1 다른 디서 쪼끔 허단에. 쪼끔 그 다른 그, 지금 옛날 요디 면사무소 잇어난. 동남 정거장. 서귀포 가는 정거장 앞에. 앞에서 홍○당 한약방이엔 헹 잇어난. 그디서 집 빌언에 훈 일 년인가 이 년인가 헤실 거라. 경 허당 예식장더레 왓어. 일 년쯤 허당, 멘사무소 앞이.

@1 면사무소 앞이예.

#1 딱 거기서.

@1 면사무소 앞이난 제일 번화가 아니꽈예.

#1 번화가지, 그리 동남.

@1 예. 그민 그 면사무소 앞이 차린 건 삼춘 몃 살, 스물다섯마씨?

#1 스물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쯤 차린 거 닮아.

@1 스물여섯 살쯤예. 차련. 혼자 일헷수꽈?

#1 혼자 헷지게. 그때는게. 시골에서사 누게 데령 허젠 헤져? 이 다음에 멧 사름 데련 저 시다 훈 사람 데령 헤낫주.

@1 나중에 시다도 데령 헤낫구나. 그민 이거 차리기 전에 부산 이실 때 오 년 잇어낫잖아예. 삼춘 우리 단계가 잇다고 헤신디, 시다 하당 중급 일 하당 영 영 영 영 올라가잖아예. 삼춘 최고까지 올라가수꽈, 아니면?

#1 최고, 거기서 육지서 최고까지는 솔직히 못 올라가지, 도회지니까. 겨고 오 년 헤근엥에 최고까지, 시다 헤근엥에 올라가지는 못헷주게. 건 솔직히 나 심정으로 그러니까 헷지. 여기 오면은 그게 또 여기 오면.

@1 최고가 뒈는 거잖아예.

#1 도회지에서 헤났으니까.

@1 그니까 보면 시다인 경우에는 머리는 못 만지고 영 고데기 내려와 주고 요런 것만 허는 거라예. 머리 잘르는 단계는 몃 단계꽈?

#1 머리 단계가 중 미용사 뒈면은, 중간 뒈면 잘라지주.

@1 파마허는 거는 단계는 몃 단계?

#1 건 중 단계 뒈면 다 같이 말지.

@1 머리 자르고, 이렇게 마는 거는 하는 거. 게민 상 단계 뒈면 마지막.

#1 마무리.

@1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게민 삼춘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상 단계까지는 헌 거마씨?

#1 예.

@1 그민 우리 미용실 차린덴 허민 보통 이 중 단계에서도 미용실 차리는 사람들이 이수꽈?

#1 잇지. 시골에는. 막 잘헤근에 허는, 그때 완 보난에 기자 경헹 배와 가는 거주게.

@1 배와 가는 거. 허멍예.

#1 응. 허멍 배와야주. 손이, 이런 거는 자꾸 연습허민 뒈는 거니까.

@1 맞수다.

#1 옛날에는이, 머리도이, 요즘같이 그 그런 고데기가 아니고 옛날에 우찌마께[43] 소또마께[44] 헷거든. 소도마께는 요렇게.

@2 뒤집는 거.

@1 어. 밖으로 뒤집는 거, 소또우다. 소또마께예, 밖으로 뒤집는 거. 우찌마께는 안으로.

#1 일본말이지. 겐디 그 소도마께 우찌마께 헌 것도 이 소도마께 허믄 이 뒈쓴 것이 일로 이만이 와야 뒈, 요즘 닮지 아녕. 이 짧은 머리를 헤 노민 참 이뻐. 요즘 안 보난이. 이 만큼 헹 이쁘주게.

@1 아, 테레비서 봐난 거 닮수다. 영 헹 굴러 가고 영 헹 말아지게예.

#1 이디, 이 짧은 머리 헤야 더 이뻐. 요즘 젊은 아이 이 추룩헐 때 헤 노민 알로만.

@1 내려와 불고,

#1 내려와근에 헤근엥에. 파마는 그런 식으로 헤서 이쁘는디 그 고데로 헹 헐 때는 이 짧은 머리 헹 허믄 욜로 영까지 이렇게 꼭 같이 이렇게 뒈어. 또 우찌마께 허민 욜로 영 헹 칭 지게. 요기 아래 불룩허게. 요즘은 일자로 내류왕 요기만 뭐 허는디 그때는 요기 영 헹 불룩허게 헤낫어.

---

43) '우찌마께'는 일본어 'うちまげ'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파마를 할 때 머리카락을 안쪽으로 마는 것을 말한다.

44) '소도마께'는 일본어 'そとまげ'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파마를 할 때 머리를 바깥쪽으로 마는 것을 말한다.

@1 기구나, 기구나. 경헹 스물여섯에 처음 미용실 차령 헐 때 손님들은 보통 어떤 손님들이랏수꽈?
#1 아니, 뭐 시골 파마허는 손님들이주게.
@1 파마허는 손님들.
#1 고데 허는 손님들, 처녀들 고데 허는 손님도 잇주마는게, 요즘 마찬가지주게이.
@1 파마허는 손님이영 고데 허는 손님이영 어떵 ᄐᆞ난 거꽈? 고데는 어떤 거고 파마는 어떤 거마씨?
#1 파마는 요즘 파마.
@1 요즘 파마예.
#1 거 요즘 식이야. 고데는 그걸로 그 쒜로 헤근엥에 영, 요즘 허는 식이나 마찬가지.
@1 고데는 열 파마인 거고.
#1 아니.
@2 뽄 부리는 데 하루 허는 거 고데 아니마씨? 하루만 헤근에 어디 누구 만나레 갈 때 일 있을 때 고데. 하루만 하는 거 고데. 요즘 드라이 같은 거.
#1 응. 응.
@1 예를 들면 고데 허면은 머리 감았을 때.
#1 머리 요즘 드라이허는 거나 마찬가지주게.
@1 아, 드라이하는 거나 마찬가지.
#1 드라이허는 거나 마찬가지. 어디 갈 때 이거.
@1 아, 드라이할려고, 볼륨 살령 드라이허젠.
#1 응. 그거 마찬가지. 파마허고. 요즘은 뽀끄는 거 파마 그거.
@1 응. 그거. 게민 어쨋든 고데 손님도 많고 파마 손님도 많고.
#1 예. 경 헷지.
@1 게민 남자 손님도 받앗수꽈, 그때?
#1 아니, 그때는 남자 별로 없었지. 그때는 남자 미용실 오는 사람이 없엇지.
@1 엇엇어예. 다 여자 손님들.
#1 어. 여자 손님만. 요즘이니까 헷지.
@1 그민 그때 문 열 때서부터 우리 저기 결혼허는 새각시들 화장도 헷수꽈?
#1 화장도 그 미장원에서는 안 헷지. 돌아다니면서 헷지.
@1 아, 미장원에 화장허레 오는 사람은 없고마씨?
#1 없지. 그 집에 가서 헤 줬어.
@1 집에. 그민 이때서부터 그 일은 헌 거마씨?
#1 응. 그때서부터.

신부 화장 예약

@1 아, 그믄 누게가 누구네 집이 결혼할 거렌 헤 가지고 화장헤 달렌 허는 소식은 어떵 들어옵니까?

#1 어떵 오주게, 와.
@1 미용실로?
#1 응 미용실로. 결혼허니까 헤 주렌 헹. 게믄 찾아 가는 거주.
@1 그믄 우리 미리 와 가지고 예약을 헐 거 아니꽈예?
#1 예.
@1 언제쯤 전에 와 가지고 영 예약을 잡을 거꽈?
#2 아, 메칠 전이라도게, 나 결혼헐 거난에 메칠날랑 와근엥에 신부 화장 헤 도렝 허주게. 게믄 가는 거주게. 게난 아시날 가, 어떤 때는. 먼 데는, 먼 데는 아시날 가고 경 안 헌 때는 아침에 가고.
@1 아침에 가고. 맨 처음에 헹 신부 화장 헤 줘난 집 기억남수꽈?
#1 몰르커라. 어디산지. 신부 화장 헤 준 사람도 얼굴도 몰르커라.
@1 아, 몰르커라?
#1 그 사람은 나 알암저마는 난 몰라. (다른 사람 결혼 관련 예민 사항 생략)

결혼 전날 출장 간 사례

@1 그민 만약에 전날도 갓덴 허는디 어떤 디는 전날 갓수꽈?
#1 먼 디는 전날 가지.
@1 먼 디. 예를 들면 제일 멀리 어디까지 가 봣수꽈?
#1 제일 멀리? 저 소섬. 소섬이 잠 자기 때문에, 하루 전날 가야 뒈, 거기는.
@1 그믄 거기 전날 강 전날은 헐 거 없잖아예?
#1 전날은 가믄예.
@1 뭐 헙니까?
#1 뭐 헐 건 없주마는 그디 친구덜예, 친구덜 뭐 머리 손 봐 주렝 허주게. 경 가면은. 올 때는 다 그 신부덜 헤 줘.
@1 아, 신부들 머리.
#1 신부들 머리까지 헤 줘.
@1 친구들예? 신부 친구들.
#1 신부 친구들.
@1 머리?
#1 응. 경헤연.
@1 그민 신부 화장은 그 당일날만 허는 거꽈?
#1 예. 당일날.

신부 화장 출장 준비물

@1 우리 가젠 허민 막 챙경 가살 것들 잇잖아예.

#1 요즘ᄀᆞ추룩 막 헷어? 옛날에난이, 기자 대충 헌 거 같애. 이제사 생각헤 보난.

@1 맞수다마는.

#1 요즘 같이 헤시믄 허지도 못허주게.

@1 그때 뭐 챙경 가나신고?

#1 무시거 화장품 그거주게. 요즘 같이 무신 이것 저것 헷어게? 그 눈썹 그리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밲이 더 가졍 갓어게?

@1 분 볼를 거.

#1 그런 거주게.

@1 눈썹 그리는 거.

#1 눈썹 그리는 거.

@1 입술도?

#1 루즈.

@1 루즈도 허고. 삼촌도 결혼헐 때 연지곤지 헷수꽈?

#1 에이, 연지곤지 그렇게 그 저 뭐 볼 연지, 요즘 화장 뽈그렝이 뭐만 터치허듯이 무신, 이 똥글랑하게 그런 건 안 헷지.

@1 아, 그런 건 안 헨예.

#1 이런, 이런 신식헐 땐 그런 건 안 헷지. 요즘이나 마찬가지.

@1 삼촌 한 거는 이 웨딩드레스에 요거 쓰는 그런 형태의 화장을 한 거라예.

#1 예. 우리 헐 때는.

신부 머리 손질

@1 그때 머리는 그때 대충.

#1 거의 다 올려 분 거 같애.

@1 예. 미리 파마는 안 헙니까?

#1 미리 파마. 그때 처녀들 미리 그 곱슬머리는 안 헷어.

@1 안 헷어. 그냥 머리는 올리기만 허고.

#1 올리는 사람도 잇고, 기자 안 혀는 사람도 잇고.

@1 면사포 씌우게 헐려고예?

#1 응, 멘사포 씌우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헷지, 이렇게. 이 앞더레 이런 식으로.

@1 이거는 앞이 영 허젠 허난 가짜 머리가 잇어야 뒈쿠다.

#1 가짜 머리 안 헤도 뒘. 이거 저 이거 후까시[45] 놔.

@1 아, 자기 머리로?

45) '후까시'는 일본어 'ふかし'에서 온 말로, 머리를 부풀려 풍성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1 자기 머리로 후까시 놓곡 이 머리 길면은 이거 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 올리는 거 모양을, 그거 만들어근엥에.

@1 다 자기 머리로 헙니까?

#1 응. 자기 머리로.

@1 아, 이 우에 올리는 모양이라는 건 영 영 영 돌려 가지고 올릴 수 잇게?

#1 응. 여기 올려. 영 헹 꽃 모양을 만들든지 요즘 아이들 올림머리거치 이렇게 헤서 경 헹.

@1 그믄 그런 머리 올리고 허젠 허민 그거 삼촌이 화장도 다 하고 머리 올리는 것도 다 하고. 시간 걸리쿠다예.

#1 시간 걸려.

@1 얼마나 시간 소요됩니까?

#1 신부에게만은 한 시간 정도 헤야주게.

@1 머리랑 화장이랑 다 헹?

#1 응. 그 정돈 걸려사 뒈주게.

@1 금방 뒘신게.

#1 게. 요즘거축 막 헷어게, 기자 경 헷주. 그런 식으로 헷을 거라.

@2 속눈썹은 안 붙여낫수꽈?

#1 속눈썹도 붙이는 사람 붙이고, 그때는 그다지 안 붙였어. 우리 헐 때도 속눈썹은 있었어. 그거 우리 헐 때 배와나긴 헤도 여기는 잘 안 헷지, 시골이니깐. 우린 요즘 같이게, 경 옛날이난게, 요즘 닮앗어게.

@2 그때 신부들 머리가 다 질어수꽈?

#1 다 긴 사람도 잇고 짧은 사람도 있엇지. 짧으믄 짧은 대로 헷고.

@1 짧은 사람들 머리 붙이진 안 헷수꽈?

#1 붙이진 안 헸어. 안 붙여도 얼마든지 관 씌웁는 건 허주게.

@1 그 삼춘은 예전에 우리 장옷 입엉 결혼할 때는 머리 올리젠 헤 가지고 댕기 머리 헹 영 올리젠 하면 가짜 머리도 붙영 헷덴 헙디다마는.

#1 아니. 난 붙연 헤 보지 안헷어.

@1 그런 건 엇어나고예.

#1 우리 멧 사람 그거는 안 헤 봣고. 긴 머리 허면은 영 이거 올려근엥에.

@1 다 자기 머리로만?

#1 영 헹 찔렁 핀으로 꼽곡 이거 영 걸치는 거 잇잖아. 이거 영. 그걸로 헹 무사게, 쪽두리 쓰민 영 비녀 우이 영 걸치는 거 잇잖여.

@1 그니까. 거난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화장 헤 주는 사람이 챙겨 가는 거 아니꽈?

#1 응. 챙겨. 비녀 거튼 건 챙겨 가.

@1 비녀 같은 거. 쪽두리 헐 때예. 헹 내리는 것도 허고예.

#1 쪽두리도.

@1 쪽두리도 삼춘네가 가졍 가고.

#1 응, 응. 경 헷지.

@1 이렇게 결혼할 때도 쪽두리도 쓰고 이 장옷도 입엉도 그런 것도 준비는 다 헷구나?

#1 그 집안에선 부모들이 그 장옷을 헤 줘. 시집갈 때는. 헤 주면은 그거 입는 사람 안 입는 사람 허주, 다 입지 아녀.

@1 아, 다 입지 안허여.

#1 응. 입지 아녀. 입지 아녀. 나난에 그거 챙견 헷주.

@1 혹시 그런 거에 따라 이 사람은 장옷 입엉 결혼헐 사람, 이 사람은 면사포 썽 결혼헐 사람 그거에 따라서 화장하는 거나 머리 하는 거나 ᄒᆞ끔 방법이 다릅니까?

#1 쪼끔 달라야지.

@1 어떵 다릅니까?

#1 어떵 달라게. 그 아멩 헤도 옛날식으로.

@1 연지곤지 하고?

#1 쪼끔 하고. 견디 나는 나만 헷주 다른 딘 몃 사람 안 한 거 같애. 이 쪽두리 쓰는 거를.

@1 아, 다 면사포만?

#1 응, 면사포만 헷지. 드레스 입은 사람 요거. 그때는 드레스 입은 사람 멧 사람이 없었어. 나도 드레스 입어근에 결혼하고 싶어신디 촌 할망들 욕 허카 부덴 안 입언 한복 입언 헤 부난 후회스럽덴 ᄀᆞᆯ아낫어. 그랬어. 나 결혼헌 후에 한 두어 사람 입엇지. 나 아는 사람. 게난 입는 중 알아시민 나도 입을 걸 헤낫주.

혼수

@1 아, 드레스를. 이 한복은 누게가 헤 준 거꽈?

#1 이거 나냥으로 헷지.

@1 한복 삼춘냥으로 만든 거마씨?

#1 아니게.

@1 장만한 거?

#1 장만헤야주게.

@1 아, 그 미용실 강 번 돈으로?

#1 아니, 미용실 아니라 시집가젱 허민, 그때는 시집가는 사람이 다 흰 한복 헤연게.

@1 그니까 친정어머니가 헤 준 건 아니마씨?

#1 친정어머니가 허든 자기가 허든 거는 자기 요량대로 아무튼 요즘 제주도 처녀들은 그때 물질허곡 자기 옷은 다 자기가 헷주게. 다 자기 시집갈 땐 다 자기대로 헷주.

@1 혼수도 자기대로?

#1 어. 자기대로. 부모도 헤 주는 사람 잇주마는 제주도 사람은 물질헤근엥에 가민 시집갈 때 헐 거 막 이불도 헹 오곡 막 헷주게. 나도 경 헷어.

@1 삼춘 혼수 뭐 뭐 헤수꽈, 이불 허고?

#1 그땐 이불 멧 채 허민 잘 헷젱 허주. 이불 세 채 허민 잘 헷젱 허곡. 이불 세 채. 허곡.

@1 베개도 허곡?

#1 어게, 베개 헤사주.

@1 같이 가는 거고예.

#1 또 화장대.

@1 화장대.

#1 또 이불장.

@1 이불장.

#1 그거 헷주. 그거 허민 잘헌 사름.

@1 하영 헤신게.

#1 미싱. 그거 허는 사람.

@1 하영 헤신게.

#1 그땐 또 찬장. 경 헷주.

@1 하영 헤신게마씨.

#1 아니, 못 헷젠은 안 헷주.

@1 맞아. 그 시대에.

#1 못 헷젠은 안 헷주. 이불장도 다 헹 가진 안헷어. 그때 헹 가는 사람도 많앗지마는 안 헨 사람도 많았어. 겡허난 나 헹 오난에, 저 그때 이불장 헹 가문 ᄒᆞᆫ 짝만 헹 가는 사람도 잇고, 양쪽 부친 사람도 있엇주. 겐디 난 양쪽을 부쳥 가난 잘헷젱 헤낫주.

@1 아, 예. 쌍으로, 세트로예.

#1 세트로.

미용 출장 준비물

@1 헹 간 거. 삼춘 어쨋든 출장가젠 허민 그 화장품이영 삔이영 뭐영 다 담앙 가살 거 아니꽈예?

#1 담앙 가살 거지.

@1 그런 건 뭐에 담앙 가낫수꽈?

#1 뭐에사 담아신지, 그 가방게. 가방에게, 들르는 가방에 담앙 갓주게.

@1 그런 미용 도구 출장용으로 요즘.

#1 요즘 거추룩 많지 안헷어, 그때는. 요만이 헌 거. 요만이 헌 케이스에 담앙 가민 그 루즈허곡 연필허곡 눈썹 그리는 것만 헹 가민 뒈주. 고데허고. 그것만 헹 가민 뒛주게.

@1 고데기는 그때는 전기 꼽앙 허는 거?

#1 아니지.
@1 어떵 헤수꽈?
#1 연탄에 찔렁 허는 거. 연탄 구멍에 찔렁 허는 거.
@1 그믄 저기 출장 가서도 거기서 불 헐 거 마련헤 달렌 허는 거꽈?
#1 으, 헤 줘.
@1 그때는 뭐 집집마다 연탄이 잇엇던 건 아니라예.
#1 그 저 뭐 숯불도.
@1 그치예. 화리에예.
#1 경 헹 잘못허민 거 조절 잘 안 허민 뭐 헤 불주게. 머리 카 불곡 허주게.
@2 경헹 짜르기도 허곡 헙니까?
#1 거기서? 거기서 짜르진 않지. 그날 짜르진 않지.
@1 그럼 그렇게 신부 화장 할 사람들이 미리 와 가지고 머리 올리고 할 거난 미리 미용실 왕 머리 손보거나 경도 안 헷수꽈?
#1 허는 사람은 헷주마는 요즘같이 미리 강은 안 헷지.
@1 안 헷어마씨?
#1 응. 안 헷지.
@1 요즘은 머리 올리젠 허믄 파마헤 둬야 머리를 올리기가 편허니까.
#1 요즘 같이 미용실 아시날 강 마사지도 허고 헷주마는 그땐 그렇지 안헷지게. 옛날이니까.

출장 미용사로 활동한 범위

@1 맞아예. 삼춘 영 출장이나 신부 화장을 한 멧 사람이나?
#1 알아지크라게.
@1 알아지크라게.
#1 그거 몰라.
@2 어떤 지역?
@1 지역은 아까 우도 갓다 오고 어디 어디 가 봣수꽈?
#1 우도, 온평, 신산, 난산. 성산읍은 거의 훈 번씩 멧 사람썩 다녓주게. 시흥리, 성산.
@1 성산. 다른 쪽에 남원 쪽에나 서귀포 쪽이나.
#1 아니. 그디는 안 가고 여기서 신부 화장 헹, 그때는 신부 화장 헤 주면은 신부 조름에 미용사가 따라갓지. 신부 화장 헤 주고. 그 드레스 이거 허면은 면사포도 헹 잘 벌겨 주고 요즘 예식장에서 허듯이. 그거 때문에 옛날에 따라다녔어.
@1 결혼식에?
#1 예.
@1 그것도 삼춘이 헷수꽈?

#1 응. 따라 다녓지. 거기 강 면사포 잘 씌와, 사진 찍을 때 잘 헤 주고 그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따라 다녔어. 남원이까지 갔다 왔어.
@1 남원리까지. 신부칩이 강 신부 화장 헤 주고 결혼식장에 가 가지고.
#1 응. 어디든지 가. 가는 디까지.
@1 남자 집에 신랑칩이 가는 데까지, 면사포 벗을 때까지.
#1 응, 다 헷지. 다 그랬어.

신부 미용사의 역할

@1 삼춘 나중에 보면은 웨딩드레스 입엇잖아예. 처음에야 면사포 쓰고 한복 입고 면사포만 썻주마는. 웨딩드레스 입을 때는 웨딩드레스 벗는 거랑 입는 거랑 그런 것도 도와 줍디가?
#1 예. 다 헤. 옷 벗는 거, 입는 거 다 도와 줘야주게. 그디 강, 그디 가면 이거 멘사포 벗을 거 아니? 벗으면은 그디 저 누구가 도와 주긴 헤.
@1 대반.
#1 대반. 그 사람이 도와 주지.
@1 맞수다. 대반 보는 사람이 한복 입는 거는.
#1 벗기는 건 나가 벗경 그걸 가져 와야주게. 드레스든지 이 멘사포든지. 이건 내 거니까.

제보자 소장 신부 예복 물품

@1 면사포도 삼춘 거고 드레스도 삼춘 거꽈? 동남 예식장 거꽈?
#1 드레스는 동남 예식장 거고, 이거는 나 거고.
@1 면사포는 삼춘 거고. 드레스는 동남 예식장에 한 몃 벌 잇잖아, 여러 벌 잇잖아예.
#1 여러 벌 그때는 여러 벌 엇엇어.
@1 다 똑같은 거 입엇수꽈?
#1 게, 게.
@1 아니 게도.
#1 멧 벌 엇어. 다른 디서 오는 사람도 잇고게, 입엉 오는 사람도 잇고 헸으니까 그때는 많지 않앗어. 두서너 벌 이시나마나.
@1 아, 기꽈?
#1 요즘 가추룩 무슨 막 경 헷어?
@1 보면 우리.
#1 도회지허고 또 시허고 여기 시골허고 틀리주게.
@1 그래도 드레스도 삼춘처럼 영 마른 사람도 잇주마는 ᄒᆞ끔 살집이 잇인 사람도 있잖아예.
#1 겐데 옛날에는 나 헐 때는 드레스 입은 사람 손 안에 꼽을 정도랏어.
@1 아. 많지 안헤?

#1 응 많지 않았어. 이거지. 다 이거지.
@1 다 이거. 한복에 면사포예. 자 봅서. 그럼 면사포는 삼춘이 여러 종류가 잇어수꽈? 아니면 하나로 다.
#1 나 하나.
@1 하나.
#1 하나.
@1 하나로.
#1 응, 옛날에 경허난 헷주게. 옛날에는 그랫다고.
@1 그믄 이거는 삼춘이 장만헌 거다예.
#1 나가 장만헌 거.
@1 이 면사포 어디서 장만헨?
#1 부산서 나 올 때.
@1 아, 미리 준비를 헹 왓구나.
#1 응. 미리. 미리 준비헷지, 부산서 나가.
@1 아. 얼마 줘 장만헨.
#1 몰라게.
@1 몰라.
#1 이거 저 뭐주게. 이거 뭐니, 뭐니? 이거 뭐옝 허느니? 옷 안감 놓는 거 그거 헤근엥에 영 뭐 부치는 거라 이거.
@1 그치예.
#1 망사 같은 거. 망사, 망사, 망사.
@1 망사 같은 거. 망사 길게 허고.
#1 질게 헤근엥에 이디 뭐만 레이스[레스]만 부치는 거라.
@1 레이스 부친 거잖아예.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꼿문양 요거 요거.
#1 이거는 별도로 사야지.
@1 이거는 별도로예. 근데 요거는 여러 개 잇엇지예?
#1 아니, 이것도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
@1 이것도 하나.
#1 응, 이것도 하나.
@1 그믄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 꼽고 이거 하고예.
#1 응, 그거주게. 간단하게. 요즘 닮아시믄 겅헹 뒐 거라. 옛날이니까 그렇지. 옛날엔 그게 다 다 그거였어. 이 시골에는.

신부 부케 준비

@1 게민 요거는 여기 미용실에서 준비허는 거우다. 신부들 보면 웨딩할 때 이렇게 꼿도 들르잖아예.

#1 예. 꼿도 잇지. 꼿도 있어, 나. 같이.
@1 것도 삼춘 거?
#1 응, 같이. 다 같이 같이 헤야지.
@1 같이 가는 거.
#1 신부는 신부만 있어야지.
@1 신부만 허는 거. 게믄 요 꼿보면은 남자들도 보면 이렇게 코사지를 달잖아예. 이거는 누게가 준비허는 거꽈?
#1 이거는 생화 같애. 나가 헌 건 아니.
@1 삼춘이 준비하는 건 여자 부케는 삼춘이 하는 거예. 그다음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들 신부들 부케 들젠 헐 때 장갑.
#1 장갑은 줘야 뒈예.
@1 이것도 삼춘 거?
#1 응.
@1 장갑이랑 여기 부케 든 거랑. 요기 잇는 건 다 삼춘 거라예. 보면 이 부케도 하나로 간 거꽈, 아니면?
#1 하나, 하나. (웃음)
@1 하나로 간 거? 아니 영 사진들 보난 부케 모양이 다 똑같은 거 같진 않읍디다게. 우리 어머니도 이런 요런 모양이우다예.
#1 아, 게난 요런, 똑ᄀᆞ친 않은데 사름마다 미용사마다 부케가 다를 거 아냐게.
@1 다를 건데 혹시 옛날에 이거는 맨날 쓸 수 잇는 만들어진 부케잖아.
#1 응, 그렇지.
@1 이거 말고 동백꼿 같은 걸로도 혹시 부케허고 혹시 헤낫수꽈, 생화?
#1 난 안 헤낫어. 우리 때는 안 헷지. 우리가 넘은 후제 헷지. 나 다닐 때는 안 했어.
@1 다 요런 걸로?
#1 이런 저 뭐 조화.
@1 만들어진 거로예. 조화 만들어진 걸로예. 그것도 삼춘이 들렁 다녔엇던 거.
#1 응. 그거지.
@1 예. 게민 어쨋든 결혼식 끝날 때까지 기다령 이거 다 챙경 돌아와야 뒐 거.
#1 돌아와야 뒈. 게민 어떵 돌아오냐면 그 신부 집에 간 사람이 그 차로 오잖아. 그때 같이 오지.
@1 태워다는 줫구나.
#1 올 때. 그 사람들 올 때.

신부 화장, 머리 손질 비용

@1 올 때예. 게민 겅헹 삼춘 비용은 얼마 받아수꽈?

#1 몰라. 얼마사 받아신디 옛날엔 많지 안헤실 거라. 나 그것도 기억 못 헤.

@1 아고게, 중요한 건디.

#1 못 헤.

@1 돈으로 받앗수꽈?

#1 돈으로 받앗지게. 돈으로 받지.

@1 어쨋든 하룻밤 자는 디는 쪼끔 더 받아신가, 그튼가?

#1 몰라. 똑같았을 거라.

@1 그 왜 ᄒᆞ룻밤 자는 디 가서는 신부 것만 헤 준 게 아니고 신부 친구들도 영 헤 줘잖아예, 머리.

#1 거는 기자.

@2 서비스?

#1 거 서비스. 서비스. 경 생각헷주. 그만큼 뭐 헷주게, 옛날에는.

@2 그때 막 놉 빌엉 일당에 비했을 때 얼마 정도?

@1 많이 받은 거꽈?

#1 응, 쪼끔 일당보다는 많이 받앗지게, 아멩헤도.

@1 일당보다 많이 받안예.

#1 응. 받앗주게.

@1 미용실에 왔을 때 손님 머리 하는 거랑 비교하면 한 멧 배 정도 뒈신고예?

#1 ᄒᆞᆫ 대여섯 배 뒈지 안헤시카?

@1 아, 출장가는 게. 우리 미용실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우다. 하루에 손님 멧 정도나 받아졋수꽈?

#1 게메. 그거 무싱거 알아져?

@1 막 바쁠 때도 잇어나실 거 닮은디.

#1 막 바쁠 때도 잇곡게, 엇일 때도 잇곡 허주게.

@1 엇일 때도 잇고.

#1 파마 손님 받곡, 고데 손님 많아도 고데 손님이 그 비용이 헐헤여. 이천 원. 이천 원. 옛날에.

@1 고데 처음할 때 이천 원? 파마는?

#1 몰라. 파마는 오천 원 받아져신가, 삼천 원 받아신가. 아무튼 경 헷어.

@1 고데는 금방 끗납니께, 시간이. 파마는 막 오래 걸립니께.

#1 응, 한 시간 넘어 걸리주. 걸리는 사람은 한 시간 더 걸리곡 허주게. 경 허주게. 요즘도 마찬가지니까.

@1 요즘도 마찬가지니까예. 그믄 그때 파마할 때 보면 요즘은 파마할 때 어떵 허냐. 머리 짤랑 요거 말앙.

#1 마찬가지지.

@1 마찬가지. 머리 짤랑 말앙.

불파마

#1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앞에는 불빠마엔 헌 거 잇어낫어.

@1 예. 알아지쿠다.

#1 알아져?

@1 어떤 거꽈, 골아 줍서. 어떤 거꽈?

#1 아니 게난 난 안 헤난 보기만 본 거지.

@1 어떵 헙디가? 불빠마를.

#1 그 뭐 이런 뭐에 숫 같은 거 담아. 요즘 부탄가스 같애. 그거 담앙 여기 딱 딱 꼽아. 경헹 약 불라근엥에. 딱 딱 꼽으믄 그게 불빠마엿지.

@1 그게 불빠마.

#1 그거 보기만 헷지. 우리.

@1 삼춘네는 어떵 헷수꽈?

#1 우리는 처음부터 그.

@1 영 헹 생긴 게 잇어예.

#1 응, 이런 거. 이거, 이거. 양쪽 두 개 심어근에 영 영 허는 거.

@1 영 헹 요걸로 말앙.

#1 응, 요걸로 말앙 이쪽에. 이걸로 말앙 이걸로 영 형. 이쪽에가 벌기는 게 있어. 이걸로 말면은 또 이쪽에 영 누리뜨는 것이 잇어.

@1 누리뜨는 게 잇어. 영 헹 말아 놩 누리뜨는 거 꼽앙.

#1 그게 모양을 만드는 거라.

@1 누리뜨는 게?

@2 말아지는 게.

#1 응. 이거 이거 감앙. 경 헹 영 헹 이걸로 영 헹 꼬부라지게 딱 딱 헤근엥에 이걸로 이쪽으로 헌 걸로 모양을 만들지.

@1 그거는 고데 허는 거마씨?

#1 고데.

@1 그거는 고데 허는 거고. 파마헐 때는 영 헹.

#1 아, 파마허는 거는 요즘 똑같다니까.

@1 똑같아예. 중화도 헤낫수꽈, 그때?

#1 응?

@1 중화?

#1 중화제? 마찬가지지게.

@1 마찬가지.

#1 요즘 같으믄 다 같애. 크고 작고 그 구루프[46]가 크고 작고지. 이전엔 적엇고.

---

46) '구루프'는 머리카락을 말아 구불거리게 만들어 주는 원통 모양의 기구를 말한다.

@1 예. 옛날 요만한 거에 고무줄 분홍 색깔 이거에 말아 가지고, 고무줄 영 영 영 헹 옛날에예.
#1 요즘도 마찬가지.
@1 마찬가지예. 그민 삼춘네 그때도 중화헤난 다음 머리 꼼아 주는 것도 다 헷수꽈?
#1 머리 꼼아사 어떵 손 볼 거 아니?
@1 그걸 미용사가 꼼아 줫냐, 아니면 자기대로 꼼앗느냐?
#1 우리가 꼼아 줘야주게.
@1 꼼아 줘야 뒈는 거. 손이 하영 갓수다. 손님 하영 못 받으쿠다.
#1 촌에난 그때 많지도 안헷주게. 옛날ᄀᆞ추룩 이제ᄀᆞ추룩 막 뭐 헷어게? 손님, 빠마 손님 무신 멩질 때 뒈 갈 때사 뭐 허곡 허주게. 하영 가도 그때는 하영 갈 땐 저 시다 쪼끔 데련 헤낫주.
@1 언제쯤에 시다를?
#1 아니게. 쪼금 영 뭐 할 때는 멧 년 데련 헤낫어.
@1 멧 년? 계속 헌 건 아니고, 하당 멧 년 하당.
#1 응. 나대로 이제 저 뭐 허곡 헷주게.

미용실 영업 종료와 이유

@1 보면 삼춘이 스물여섯 살에 미용실을 시작헷수다예. 경헹 몃 살때까지 미용실을 헌 거꽈?
#1 서른, 서른한 살까지 헤신가?
@1 서른한 살? 얼마 안 헤신게.
#1 시집간 오 년밲이 더 안 헷주게.
@1 그 후제는 뭐 헷수꽈?
#1 그리 집에 들어왓주게. 왜, 애기 나 부난에. 애기 하나, 두 개 날 때까지는 헷지.
@1 아, 기꽈?
#1 큰집 제사허곡 뭐 허곡 허젠 허난 너무 피곤헨에.
@1 게민 서른한 살서부터는 애기들 키우멍 집이 살림만 헌 거마씨? 남편 분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1 응. 과수원 허고.
@1 과수원 허고.
#1 그때사 일 배완에 과수원 허고 헷주게.
@1 아. 그믄 그때는 과수원 시작헐 때라예. 동네에서예.
#1 응. 과수원. 경헨.
@2 칠십일 년 정도까지.
@1 그후제는 그후제 미용실은 이 동네에 삼춘 후제에.
#1 많이 생겻지.
@1 많이 생겻지예.
#1 우리 했을 땐 두 군데밖에 없었어.

@1 삼춘 말고, 삼춘이 먼저꽈? 다른 디가 먼저?
#1 나가 몬저 헷지.
@1 삼춘이 먼저예.
#1 아니, 아니. 나 완 보난에 그 허던 사람 잇인 거, 허는 거 나가 인계 받앗주. 거 산에.
@1 그 사람은 어디 고성 사람이꽈?
#1 아니 아니. 다른 사람.
@1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여기 넘겨줘 둥 안 헨마씨?
#1 안 헨.
@1 안 한 거.
#1 아녀고 또 낭중에 나보단 ᄒᆞ꼼 늦게 있었어, 미용사. 그 수의사 각시엥 헤근엥에 잇어낫어. 저 밑에 우리보다 밑에. 저 아랫동네에, 했엇지. 두 군데 잇어낫주, 그때.
@1 그민 신부 화장헤 주레 다니는 것도 이 서른한 살까지만 뎅긴 거꽈?
#1 응. 응.
@1 그후제는.
#1 안 헷지. 안 헷지게.

미용 재료 구입 방법

@1 안 한 거예, 미용실에 이런 재료 같은 거는 어디 강 상 왓수꽈?
#1 그때도 미용실 재료 여기도 배달이 왔어.
@1 납품하는 디가 잇어나수꽈?
#1 응. 잇엇지게.
@1 그민 거는 그때도 차가 잇엉 그 사람이 온 거마씨?
#1 예. 응. 돌아뎅겨. 팔아 먹젱 허민게. 요즘이나 마찬가지.
@1 그민 그거 뭔가 재료 사레 삼춘이 어딘가에 연락하거나 가거나 하진 안헤도 뒈는 거예?
#1 아니 그 사람이 자꾸자꾸 돌아.
@1 그민 도는 건 나가 뭐 갖다 줍서 연락을 헙니까, 아니면 그냥.
#1 연락허기 전에 와.
@1 와.
#1 팔아 주렌 와.
@1 거믄 뭐 떨어진 거 엇수꽈, 헹.
#1 자꾸 돌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 풀아 먹젠, 경 헷주.
@1 맞수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2 그때 화장품도 ᄀᆞ치 팔안마씨? 미용실 안에서.
#1 아니. 화장품은 안 팔앗지.

@1 그냥 파마 약이나 파마할 때 쓰는 도구나.

#1 응, 도구나. 머리 기름 같은 거. 그런 거.

보조원 급여

@1 머리 기름 같은 거예. 그런 거 쓴 거. 예. 경헹 우리 시다도 써낫덴 헷잖아예. 한 몃 년. 그 시다한테 월급도 줘신가?

#1 만 오천 원. (웃음) 요즘 십오만 원. 그때는 쌀 한 말이 삼천 원이어신가. 삼만, 아, 삼천 원이었어. 곤쌀 한 말이, 경헐 때난에.

@1 아, 곤쌀 삼천 원 할 때. 월급 만 오천 원. 겡 이 시다는 다 배웡 온 아이꽈, 아니민 삼춘한테 배우젠 온 거꽈?

#1 쪼끔 배우레 온.

@1 배우레 온 아이.

#1 응. 배우레 온 아이. 우리 ᄉᆞ춘도 나 미장원 허는 거 봔에, 가이도 아이고, 언니 허는 거 봉 나도 이거 배와야켄 허멍 헨에 완 미장원 찰련에 시에서 헷어.

@1 게난 어쨋든 이 시다로 오는 아이들도 보면 다 그 미용학원은 거쳥 온 거잖아예.

#1 미용학원 거쳥 온 아이도 잇고 안 거쳥 오는 아이도 잇고.

@1 안 거쳐도 시다로 올 수 잇구나. 그민 시다로 왕 보멍 일 배우는 거구나예.

#1 예. 경헐 수도 잇고.

@1 아, 만 오천 원.

#1 경헌 거 같애. 만오천 원.

@1 좋수다. 이거 한 사람만 썻수꽈, 더 비싼 시다도 잇어낫수꽈?

#1 아니. 기자.

@1 기자 이런 시다. 이런 시다 써난 거예.

#1 또 배와 보켄 헤근엥에 돈 안 받앙 오는 아이도 잇고.

@1 그치예. 그치예. 기술 배우켄 헤 가지고예.

#1 경허는 사람도 쪼끔 있어나고 그랫지.

@1 돈 안 줘도 좋으난 나 기술 좀 배워 줍서.

#1 응. 멧 달씩 잇엉 헤 보당 가근엥에 자기 또 집에서 따로 파마헹 돈 버는 거라. 무허가로 헤근엥에.

@1 아, 동네 사람들. 아, 알아지쿠다. 알아지쿠다.

미용사 자격증

@2 그면 삼춘은 미용사 자격증을 받은 거마씨?

#1 으, 받안.

@2 그건 어떵 받은 거마씨?

#1 부산서 것도. 김○○, 부산 김○○ 부산 시장 때 그 사람 이젠 나이 많안 죽어신지 모르켜. 김현옥 부산 시장 때 받았어.

@1 학원만 졸업하면 그런 자격증 줍니까?

#1 안 줘, 따시 국가시험 봐야 뒈.

@1 국가시험 봐야 뒈는 거. 게민 국가시험 볼 때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잇수꽈?

#1 응.

@1 어떤 자격이꽈?

#1 아니, 어떤 자격 조건이나 시험만 보믄 뒈는 거 무시거. 아, 학력은 없고.

@1 학력은 없고. 예들 들면 저기 학원 경력이라든지 미용실에서 일헤난 경력 같은 건?

#1 그런 건 적었을지 몰르커라. 필기시험 옛날에 무신 법정 전염병 같은 거 그런 거.

@1 게민 필기시험도 보고.

#1 응. 필기시험도 보고.

@1 기술 시험도 보고마씨?

#1 시험도 보고.

@1 자격 요건이 어떵 뒈는지 잘 몰라예, 학력 같은 건 필요없었으니까.

#1 학력은 필요 없었어.

@1 필요 없고? 경력 같은 거는.

#1 그건 몰르고 아무튼 그 시험장에 강 필기시험 합격허곡 실기시험 합격허믄.

@1 게믄 삼춘 오 년 부산에 잇엇덴 헤신디 얼마 만에 자격시험을 땃수꽈?

#1 거기 간 한 이 년 만에 따실 거라.

@1 이 년 만에.

#1 어. 시험 봔에.

@1 시험 보젠 허난 다시 학원 다니고 그런 건.

#1 아니.

미용사 급여와 생활

@1 아니예. 그냥 혼자 공부헹예. 예. 우리 미용실 부산 강도 여러 군데 다녀신디 시다바리[47]도 헤 보고 중도 헤 보고 상도 헤 본 거잖아예. 월급은 얼마 받앗수꽈?

#1 월급 하영 못 받앗지게, 그때는.

@1 시다바리 헐 때 얼마 받앗수꽈?

#1 그때 몰라. 그때도 그디서 만오천 원 받아신가.

@1 중 헐 때 얼마 받앗수꽈?

47) '시다바리'는 일본어 'したばり(下張り·下貼り)'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1 몰라게. 그거는.

@1 아, 몰라. 제일 하영 받을 때 생각나실 거 같은디.

#1 몰라게. 그레 저레 헨에 허난.

@2 그러면 그때 집은 어디서 사션마씨?

#1 집은 그 헐 때는 그 미장원에서 잣지. 자고 먹고 허주게. 경허니까 월급이 작은 게 먹고 자고 허니까.

@1 먹고 자는 건 거기서 대 준 거라예.

#1 응, 경 헷지게.

@1 계속 겅허지 않고 집 빌엉 사실 때도 잇어난 거 아니마씨?

#1 아니.

@1 계속?

#1 응. 겅 허젠 허믄 어떵 헤근엥에.

@1 그믄 삼춘 말고 다른 미용사들도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헙니까?

#1 예. 경허여.

@1 미용실이 규모가 컷다예.

#1 경허는 디도 잇곡 또 출퇴근 허는 사람도 잇고 경 헤.

@1 출퇴근허는 사람도 잇지예?

#1 잇지게. 다 안 혀도. 나ᄀᆞ추룩 집 엇인, 꼭 중까지만 헹 뭐 허주 무신 일류덜은 왓다 갓다 헷주게.

@1 맞아예.

#1 경헷주게.

@1 그믄 보면 이 시다바리영 중 허는 사람이영 여러 사람이 먹고 자젠 허민 방 하나씩은 못 줘겠네. 다 같이.

#1 아이고, 거 같이 잣주. 무신 방 하나씩게. 옛날 그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어게.

@1 그지예.

#1 그때 완전 어려울 시절.

@1 그냥 다 ᄀᆞ치들 자고.

#1 길레, 길레 보면 넝마주이가 막 수두룩헐 때주게.

@1 그지예.

#1 막 뭐 지어근에 넝마주이 다닐 때.

@1 거난 다 ᄀᆞ치 자고 거디서 다 ᄀᆞ치 밥헤 먹고. 자기대로 밥헤 먹는 거라예.

#1 아니 그거 주인이 헤 줘. 마담이.

@1 아, 마담이 헤 줘?

#1 집 주인이 헤. 그런 밥은.

@1 그 집 주인이엔 허는 건 미용실 주인이꽈?

#1 어. 주인 마담.

@2 그 미용실 사장님을 마담이엔 불럿던 거마씨?

#1 응. 응.

@1 그 마담은 머리 안 허는 사람?

#1 머리허는 사람도 잇고, 안 허는 사람도 잇고. 경 헷지. 그 돈 벌젠게, 영 저 미용사만 데려근엥에 허는 사람도 잇고, 자기가 직접 헤근엥에 허는 사람도 잇고 경 헷주게. 다 다 틀리주게.

자녀

@1 삼춘 아까 게난 아기 둘 낳을 때까지는 미용실을 헌 거라. 아기가 멧이꽈?

#1 너이.

@1 너이. 멘 우이가 아들마씨?

#1 아들.

@1 아들 그다음에.

#1 딸.

@1 딸.

#1 딸, 딸, 아들.

@1 게니까 딸 둘, 아들 둘. 아, 겅 뒌 거. 그민 아들, 딸 잇일 때까지는 미용실 헌 거예.

#1 응.

운영했던 미용실

@1 그 처음에는 그 아까 위치 얘기해 준 디 거기 하당 동남 예식장 강 미용실을 헷잖아예.

#1 아니 그, 거기 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없어.

@1 얼마 없어예.

#1 한 오백 메다쯤?

@1 그니까.

#1 한 정거장도 안 뒈주게.

@1 그럼 거기서 허당 동남 예식장 강 허당 계속 여기서 헌 거꽈?

#1 응. 허당 그만 뒀지.

@1 아, 그만둔 거. 이 두 군데서 헷던 거예. 우리 이제는 사진 보게마씨.

#1 사진 뭐 볼 거 잇어?

머리 고정하는 방법

@2 삼춘, 그 저기 신부 머리 하러 가 줬을 때 보통 요즘은 스프레이도 영 뿌립니께. 고정허렌.

#1 그때는 엇엇어.

@2 그때는 안 하고?

@1 실핀 같은 거.
#1 응. 실핀. 실핀도 실핀이고 그 머리 올리면은 요런 거 잇어. 이런 거. 이런 거.
@1 집게. 알아지쿠다. 영 영 집는 거.
#1 집지 안혀고 콕 콕 찔르는 거.
@1 아, 영 검정 건디 영 생긴 거다예. 요거는 면사포 헐 때도 영 헹 끼웁디다. 우리 때도 잇어낫수다.
#1 아, 면사포 헐 때는 이 실핀 헤근엥에 경 꼽고 그 올림머리 헐 때는 요런 걸로.
@1 아, 고정시켜? 영 생긴 거? 검정헌 거. 영 꼽는 거.
@2 찔르기만 헌 거.
#1 그런 거 헹 헷주.
@1 그런 거 잇어나고.
#1 그거 헹 또 올림머리 허젱 허믄 이땅 머리 엇인 사람은 그 저 뽕이엔 헤근엥에 그 머리 이런 머리 빠진 거 헤근엥에 막 고데로 지지민 막 이추룩 막 이추룩 이추룩 헤 노민 올림머리 요기 뽕을 놔.
@2 머리카락 남은 걸로.
#1 응. 영 영 헤근에. 올림머리 허젱 허민.
@2 그것도 삼춘 가져가야 허는 거다예.
#1 그거, 그거 있으면은 그리 놓곡 경헷지.

출장 신부 화장 시의 물품

@1 게민 봐 보게예. 짐 가방에예, 고데기가 잇고. 고데기는 하나만 잇이민 뒙니까?
#1 응 하나만 있으면 뒈. 두 개가 한.
@1 하나 세트. 예. 돌리는 거랑 영 눌러 주는 거랑?
#1 빗허곡게. 그거.
@1 빗은 종류가 멧 개 정도 뒙니까?
#1 빗은 뭐 멧 개 종류가 무시거? 하나 코젱이 잇인 빗 헤근엥에 헷주게.
@1 아, 코젱이 잇는 빗 하나 가졍 가고.
#1 가위.
@1 가위. ᄀᆞ세 가져갈 거. ᄀᆞ세도 하나만 씁니까?
#1 응. 하나.
@1 하나민 뒙니까?
#1 응.
@1 언제 쓸 거마씨?
#1 아니, 기본으로 가졍 가는 거주게.
@1 혹시나예.
#1 그런 거주게. 그거허곡 루즈 같은 거 요즘 화장품 그거 대략 가져가는 거주.

@1 게도 루즈 같은 것도 막 색깔 여러 가지.
#1 예. 여러 가져가주.
@1 여기 뭐 분칠허는 것도 종류들 여러 개 잇일 거고.
#1 예, 그때는 또 여러 개는 없었어. 솔직이. 여러 개, 나 할 때까지.
@1 그민 화장 허젠 허민 지금은 밑 화장서부터 다 거기서 헤 줍니다예. 스킨 바르는 거영 뭐영 영양 주는 거영. 그런 것도 다 헷수꽈?
#1 아이고, 그런 거는 그때 없엇지게. 스킨 로션 발라근엥에 저 뭐 헷주게.
@1 게민 삼춘이 가정 가는 거는 스킨 로션도 가정 가마씨?
#1 응. 응.
@1 거난 스킨 로션 바르고, 분 바르고.
#1 응. 영양크림 같은 거 그런 거 헹 발르고.
@1 하고, 하고.
#1 그 화운데이숀게.
@1 화운데이션 하고.
#1 그다음 눈썹, 그 이거 이디 그리고 경 헷주게.
@1 경 한 거?
#1 응. 경 헷주게. 옛날에.
@1 도구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것들 엇일, 붓 종류도 막 여러 가지, 솔.
#1 아이고 요즘이엇지. 그때는 무슨. 요즘이니까 이거여, 저거. 우리 몰르커라, 요즘 거. 헤나도.
@1 몰르커라.
#1 모르커라.
@2 친정어멍 화장도 헤 줍니까, 머리영?
#1 친정어멍? 그때 친정어멍 허는 사람도 잇고. 그때 친정어멍 안 헸어. 친구들밖에. 친정어멍 보통 그때 쪽 지곡. 그다지 무시거 안 헷저, 친정어멍.
@1 출장강 영 하민 바로 돈 줍니까?
#1 응. 바로 돈 주주.

미용사를 부르는 호칭

@1 삼춘은 그면 동네에서 뭐엔 불런마씨?
#1 동네서 뭐엔 불러? 우리 아들 이름 불르지. 이 동네라 부난에게. 이 동네라 부난.
@2 아, 누구 엄마, 누구 엄마.
#1 누구 엄마나 나 이름 불르주게. 이 동네 사람들. 요기라 요기. 노인정 저쪽 이디서 이디 보여.
@1 미용실 이름은 엇어낫수꽈?
#1 동남 미용실. 예식장 미용실이렌 헷저, 첨.

@1 아, 동남 미용.
#1 예식장.
@1 예식장 미용실. 저기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는 미용실 이름 엇어낫수꽈?
#1 동남 미용실인지 몰르커라, 그때. 놉 허던 거 헹 헤난 기자 미용실.
@2 간판도 잇고?
#1 기자 동남 예식장예.
@1 옛날에 미용사 보면 그렇게 미용실 허는 사람을 불를 때, 예를 들어 누구 누구네 미용실, 미장원.
#1 아, 예식장 미장원. 응. 예식장에 미장원 강 허켜 헷주. 무신 호칭이 뭐 잇어.
@1 호칭 따로 엇수꽈?
#1 응. 미장원에 강, 예식장 미장원 헹 오주, 뭐옝 헤여.
@1 삼춘 부를 때도 그냥 춘자렌 부르든 아들 이름 불르든.
#1 아, 몰른 사람이야 동남 미장원, 저 예식장 미장원 불럿지. 몰른 사람이야 무슨 아들 이름을 알아, 나 이름을 몰르잖아.
@1 지금은 뭐 미용실 가 가지고 뭐 미용사님, 미용실 실장님, 디자이너님 이렇게 불러마씨.
#1 아니, 아니. 미용사 불럿지게.
@1 그냥 미용사, 미용사?
#1 응. 경 헷주 무신. 실장님 여러 사람 잇어사 실장님여 뭐여 허고 옛날. 옛날에사 무슨.

신부 화장 때 주의할 점

@2 혹시 그 집에 가근에 출장 머리 헤 주고 화장할 때 삼춘이 조심헤야 뒈는 것도 잇어마씨?
#1 조심헤야 뒐 거 뭐, 조심헤야 뒐 거 크게 뭐.
@1 옛날은 뭐 그날은 머리 자르민 안 된다.
#1 아니, 나 그런 말은 안 들어 봣어. 안 들어 봣어.
@1 그런 거 엇어예. 엇어예.

제보자 소장 결혼사진 설명

@2 사진을 촬영을 같이 하면서 기록하고, 스캔을 받아야.
#1 이거 방송 나갈 거?
@1 아니, 안 나갈 거마씨.
@2 우리 기억헤 가지고 정리할 거마씨.
@1 이거는, 이거는 다 친구들인 거 같수다예.
#1 이거 남자친구들이영 친구들 닮은게, 같이 찍은 거.
@1 이거 다 친구들? 신랑 친구들?
#1 신랑 친구 닮은게, 응.

@1 신랑 친구들예. 여기는예. 근데 사진을 잘도 여러 장 찍엇수다.
#1 이거 다 엇어. 엇어. 엇어져 베신게. 다 부떠 부난에 뭐 헤신고라.
@1 이거, 이거 주례 선생님예.
#1 주례 선생님.
@1 예. 어디 교장 선생님이엇던 분. 이게 아까.
#1 이분도 선생님이주.
@1 사회 보신 분예.
#1 이 사람 유명헌 사람이라.
@1 한○○ 씨라고예. 요거는 무슨 사진이꽈?
#1 이것도 이거 거 가족사진인 거 닮은게게. 가족사진.
@1 신부 가족이꽈, 신랑 가족이꽈?
#1 아니, 이거 이 시집이 완에, 이디 완에. 이거 시할망.
@1 시할망. 어디? 여기 시할망. 할머니?
#1 응. 할머니. 시어머니는 없었어, 시아버지하고. 일찍 돌아가 불언.
@1 요거는 누구꽈?
#1 이거는 우리 저 그 외삼춘 닮은게. 신랑 외삼춘.
@1 예. 여기 아이도 이수다예. 조카뻘 뒐 건가?
#1 몰르큰게, 난 눈 어둑언.
@1 이건 마당에서 찍은 거마씨?
#1 마당에서.
@1 마당에 보난 이렇게 천막도 친 거 닮수다.
#1 이거 천막 천에 영 헨 옛날 만국기 그거.
@1 만국기도 다 달고예.
#1 이거. 이거.
@1 게민 여기 사회 보젠 허민 지금은 이런 거 세웡 잇잖아예. 예를 들면 단, 단이렌 헹. 단 앞에 여기 서고 여기 사회 보는 사람이 서고, 신랑 신부 이렇게.
#1 그건 없엇고, 그자 탁자 같은 건 없이 샀어.
@1 아, 그냥 서기만 헹 사회를 본 거.
#1 응. 경 헌 거.
@1 그민 주례할 때도 지금 주례하는 것처럼 누구랑 누구랑 영 영 헹 그런 말도 다 하고?
#1 그런 말 헷지.
@1 아. 예. 그랫었던 거고.
#1 이건 우리 외삼촌이고.
@1 외삼춘이고. 이건 삼촌이꽈? 이거 언제꽈?

#1 이거 부산 잇일 때.
@1 결혼허기 전이우다예.
#1 전에. 옛날에 이거 홍수빵[48]이엥 헹 유명헤낫주.
@2 홍수빵? 그게 뭐꽈?
@1 홍수빵이 뭐꽈?
#1 이 기질이 홍수빵이엔 헷어.
@2 아, 천. 좋은 옷이구나게.
@1 옷 장만헤 가지고 입은 거.
#1 우리 맞춰, 그때는 맞춰 입엇지. 다 맞추언
@1 잠깐만예. 사진 막 여러 개 잇어.
#1 사진은 하수다.
@1 예. 이거는 다르우다. 이거는 어디꽈? 이것도 같은 사진?
#1 이것도 같은 건디 영 벤헤 부난에 이렛다 저렛다 헷어. 마찬가지.
@2 여러 장 뽑앗네. 이거를예.
@1 여러 장 뽑앗네. 여러 장 뽑앗네요. 잠깐만예.
#1 이거, 이거.

미용학원 졸업사진

@2 십, 십육 회. 무슨 대회라고 써졌는데.
#1 이거 이거 미장원. 저 학원, 학원
@1 학원.
@2 졸업 기념.
#1 멧 회? 십 멧 회? 이거 십 멧 회옝 헤시?
@1 아, 이거 좋다.
@2 무신 대회라고 써져신디.
#1 십육 회.
@2 육 회 맞아? 한자가 이상헤.
#1 십육 회 아니?
@1 예. 십육 회. 졸업기념. 제주미용원. 이 사람 전부?
#1 이 사람 전부 우리 기.
@1 학생이꽈?
#1 이거 선생.

48) 제보자에 의하면 '홍수빵'은 옷감의 한 종류라고 한다.

@1 아, 여긴 선생예. 선생 이름은 알아지쿠과?
#1 몰르크라.
@1 모르크라예. 그민 여기는 여기 모인 학생들은 다 다른 동네꽈?
#1 다 다른 동네.
@1 삼촌 ᄀᆞ튼 동네에서.
#1 엇어. 여기, 여기 ᄀᆞ튼 동넨 엇어.
@2 이 사람들 중에 ᄀᆞ치 부산 간 사름은 엇어마씨?
#1 엇어, 엇어.
@1 지금 그 후에 영 소식 알아지는 사람.
#1 몰라, 몰라.
@1 몰라. 그냥 그때만 만난 거예?
#1 응. 그때만 만난 거.

우도 신부 사진

@1 이거는 봅서, 누구 결혼헐 때.
#1 이거, 이거 소섬 갈 때. 이거 배, 배에 탄에.
@1 이거 삼촌 몃 살 때마씨?
#1 이거 임신헐 때라.
@1 누구 임신헐 때? 삼춘 임신헐 때?
#2 큰애기?
#1 두 번째.
@2 이게 삼춘예.
#1 이게. 요거.
@2 신부 영 잡아 준 거.
#1 배 뽈록헌 거.
@1 두 번째가 몃 년생이꽈? 두 번째 딸, 무슨 띠마씨?
#1 개띠.
@1 개띠? 칠십이 년생?
#1 칠십 년생인가.
@2 아, 칠십 년생이다, 칠공.
@1 네, 개띠. 가이 임신할 때예.
#1 자이 지금 저 자이 임신할 때.
@1 임신헐 때. 이거 봄인가 언젠가?
#1 봄인 거 닮아, 브라우스 입은 거 보난.

@1 봄인 거 닮아.
@2 신부가 소섬 사름이 아닌데 소섬으로 시집가는 거마씨?
#1 소섬서 나오는 거지.
@2 나오는 거. 결혼식은?
@1 게민 소섬에 친정인 거라예, 신부는예. 그민 나온다는 건 신랑칩은 어디꽈?
#1 아이, 나 몰르커라. 그거 기억헤지커라?
@1 그니까 어쨋든 신랑집은 소섬 아닌 거예.
#1 응. 아닌 거. 그냥 배 탄 나온 거.
@1 그니까 그 집이 강 장 화장헹 ᄀᆞ치 배 탕 나왕 신랑집이 갈 거. 이제. 예.
#1 이거 밴게.
@1 재미잇습니다.

우시와 들러리

@2 요기 이 사람은 누겐고?
#1 게난 이 신부쪽에 저 뭐겟지. 들러리겟지.
@1 그믄 이렇게 신부 옆에 가는 사람 우시가 ᄀᆞ치 갑니까? 그때는 들러리라는 거 잇어낫수꽈?
#1 들러리 있엇주게.
@1 들러리렌 ᄀᆞᆯ앗수꽈?
#2 응. 들러리엔 ᄀᆞᆯ앗저. 우시는 남자가 우시고. 남자ᄀᆞ라 같이 가는 것이 그 신랑집에서 친구 말앙 친척들에서 우시옝 헹 가 도렝.
@1 그니까 친척들 중에 어머니 쪽 친척 아버지 쪽 친척 헤 가지고 우시렌 헹 가고 여자로 헤 가지고 여자네가 가는 것은 우시렌 안 헙니까?
#1 아까 뭐니?
@1 들러리.
#1 들러리.
@1 게민 이 들러리는 멧 사람이나 갑니까?
#1 두 사람 정도. 게민 친구들도 가지만 두 사람. 겡 가민 그 신부 옆에 앚지. 그 상에 가민. 새각시 상도 들러리 상 따로 차리고, 신부상 따로 차리고.
@1 그민 신부가 가면 상 차릴 때 보면 대반이 옆에 앉잖아예.
#1 대반은 그 신부 쪽에, 신랑 쪽에 사람.
@1 신랑 쪽에 사람이 앉고예.
#1 응. 여자.
@1 우리 쪽에 들러리가 간 사람이 ᄀᆞ치 앉고예.
#1 응. 뒤에 쪼끔 거들러 주고 뭐 허는 거. 옷 벗길 때 옷 그 한복이나 뭐 벗으민 입혀 주고.

@1 입혀 주고. 도와 주고예.
@2 이 사진은 누게가 준 거마씨?
#1 어?
@2 이 사진은 누게가 준 거마씨?
#1 몰라. 어떵 헨 이거 찍언 이디 와신게.
@1 그때서부터 잇어난 거 아니예?
#1 응. 게난 이거 어떵 헹 온 거.

부산 근무 시절의 사진

@1 예. 이거는 무슨 사진이엇수꽈?
#1 이거 우리 이 식이라. 미장원에 이거, 미장원 이거 헤난 거.
@2 부산?
#1 부산서 이거. 이거 게난. 이거 이거 맞춰 이거 이거.
@1 이거 부산이꽈?
#1 응. 이거 부산. 쪼끌락허게 옛날 찍엉.
@1 여기서 삼춘이 어느 거마씨?
#1 이거, 이거.
@1 고데 하는 거?
#1 어. 이거 깡옷[49] 입고.

제보자의 결혼사진 설명

@1 삼춘 이거 미용실 사진 고거고. 삼춘, 이거 결혼헐 때우다마는 이거 누구 결혼헐 때?
#1 이거 난게게. 이것도.
@1 이거 나?
#1 응. 이거 다 이거 준준허게 찍언 이거 이거 영 헤 놔신게.
@1 아, 봐봐. 맞절도 다 허고.
#1 응. 이추룩게. 거 영 영 허믄 멘사포 걷어 줘낫주. 옛날에.
@1 이거 면사포 걷어 줭 뭐 허는 거꽈? 원래는 이렇게 드리워졍, 들어올 때는 영 드리워졍 잇어예.
#1 응, 게메 그 식 보젱 허민 이거.
@1 영 걷어 주는 거.
#1 걷어 주는 거.
@1 신랑이.

49) 여기서 '깡옷'은 미용사의 작업복을 가리켜 한 말이다.

#1 응. 걷어 주는 거. 맞절허고.
@2 다 헷네.
@1 다 헷네.
#1 거 마찬가지.
@1 이 앞에가 영 단이 잇어마씨. 주례 앞에. 이거, 이거 집에 다 만들엉 헤신게.
#1 만들엉 헤신게. 단 이샤? 난 몰르켜.
@1 단 잇어. 잇어.
@2 이거는 신랑 칩에서 다 준비한 거잖아예.
@1 이거 마당이꽈?
#1 마당.
@2 뭐 또 잇다.
#1 마당. 초가집.
@1 이건 벽이 아닌 거 닮아, 집이 아닌 거 닮아.
#1 아이, 집, 이거 집이라.
@1 집 마당예.
#1 아, 이거 다 헷구나, 나 이거.
@2 근데 뒤에 어떻게 태극기 걸지?
#1 태극기 뒤에 천막 그런 거 영 헤근엥에 우에 헤 놩 이거.
@1 앞에 또 천막.
#1 어. 천막 헤 놘에 이레 만국기 걸엇잖아, 이거. 헤 놔근에 영.
@2 육십팔 년인데 이거 다 헷구나예.
#1 예. 이거 허 노렌 헷주게. 막 쭐언, 쭐언. 근디 막 이만이 뚱뚱헤연.
@1 삼촌 결혼헐 때인 거라예.
#1 이건 나 처녀.

결혼 전 사진

@1 처녀 때. 삼춘 처녀 때. 아이고, 고와수다. 이건 여기서꽈, 부산서꽈?
#1 부산서게.
@1 이거 부산서. 이거는?
#1 이것도 부산서.
@1 부산서예.
#1 미장원에 집에서.

임신 기념 촬영 사진

@1 이거는?
#1 이거는 임신헨에. 임신헐 때.
@1 누구?
#1 큰아들.
@1 그믄 그거 기념으로 찍언?
#1 예.
@1 이 사진 어디 강 찍엇수꽈?
#1 이거? 동남서 찍엇주게.
@1 아, 이거 동남 사진관 가서 찍은 거예.
@2 그때 사진사 이름 기억 남수꽈?
@1 동남 사진관.
#1 고대혼가? 고.
@2 고대유?
#1 고대유.
@2 어. 고대유.
#1 알아져?
@2 우리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1 고대유. 그 예식장 헷지.
@2 동남 예식장 헷던 분.
#1 그디 허면은 나 곧으민 확 알아.
@1 그분 지금 돌아가시지 안헨마씨?
#1 글쎄, 몰르커라. 어떵 헤신지 원. 그 누이는 이땅 봐지는지.

고성리 사진사 정보

@2 그러면 삼춘 결혼할 때 와서 저 사진 찍어준 것도 고대유 씨마씨?
#1 그런 거 같애.
@2 한봉칠 씨 말고?
#1 한봉칠 씨 말고. 한봉칠 씨는 저 사진사만 헤낫어, 옛날에. 사진 찍으레만 뎅겨낫어.
@1 한봉이꽈, 한공이 아니고?
#1 봉칠이엔 헤실 거라. 성산.
@1 봉칠. 성산. 한봉칠.
@2 사진사만 헷다는 말이 뭐마씨? 출장은 안 가고?
#1 출장 다니면서 사진만 찍으니까.

@1 출장만. 출장만. 예식장은 안 하고예.

#1 예식장 안 하고 기자 어디 강 사진 찍어 줍서 허민 놀레 갈 때라도 이땅 아이들 찍어 주곡 경헷주. 예식장 그건 아니고. 말앙 그 후에 예식장 안 형 데련 뎅기는 저 사진사가 또 잇어신디 저 대유네 집이 같이 잇언에 헤난 아이 이름 모르커라.

@1 대유 밑에서 헤난 사람마씨?

#1 같이.

@1 ᄀᆞ치 헤난 사람.

@2 고대유 씨 돌아가셧다고 하지 않았어요?

#1 돌아가신가.

@1 응. 돌아셧던 거 같애.

#1 돌아갓구나.

@1 없는 거 같애.

@2 그때 이름은 나왔었어요.

@1 이름은 나왔었어요. 삼십칠 년생 정도 됏다고. 칠십 년대 예식장 했었엇고.

#1 오래 헷지. 막 부자로 살아신디이, 다 풀안. 동남 그 지금 무신 병원 채린 디 그디 헤나신디 막 잘 살아신디 어떵 헨에. 어멍, 큰어멍 죽어 부난에 어떵 어떵 허단 보난.

@2 그러면.

@1 이런 모습인게. 이게 이 앞에 주례가 이신 거 닮아예.

#1 맞아.

@1 신랑이랑 신부랑이고 뒤에 주변에 어르신들 요렇게 서 잇어.

#1 예. 앚앗어, 앚앗어.

@1 앉앙 잇어.

@2 진짜 이렇게 헷네.

@1 주변에.

#1 겅헤신게. 난 이 탁자신디 어떵헤신디 그때는 몰라 나가 어떵사 헤져신지.

@1 어르신은 요렇게 앉고 뒤에 처마 밑에 사람들 성 잇어. 아, 진짜다.

@2 하긴 헨, 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잇긴 있어요.

@1 집에서 영 헷구나예.

주례와 사회 사례

@2 주례한테는 고맙다고 사례도 헤신가예?

#1 그럼.

@2 돈도 드리고예.

#1 돈이 아니고 그때는 선물로 넥타이를 허든지 와이샤쓰를 허든지 그랫주.

@2 사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1 예. 같이 겅헷지.

@1 이거 찍읍시다, 사진.

@2 요거 저기 우리 스캔헤도 뒐 건가 헹.

@1 혹시 이 사진 빌령 강 저희가 컴퓨터로 이렇게 스캔헹 다시 가지고 와도 뒈쿠과?

#1 요까짓 거. 아멩이라도 헙서.

@2 이거 헤서 같이 헤야.

@1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2.

한림읍 한림리 박황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8월 1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 @1 김미진 @2 권미소
● **제보자**: #1 박황자, #2 박황자 씨 남편

제보자 정보

#1 아이고, ○순이가 보냇구나.

@1 네. 미용사 헤난 사람 누게 이시녠 허니까 ○순이 삼춘이 나 헐 때는 박황자 언니가 헤 줫저 영 허멍은에 얘기허더라고마씨. 경헤근에 그 언닌 어디 잇수과, 영헤근에 지금 전화번호 굴아 줍서 막 영헤근에 왓주마씨. 거난. 아까 박황자 삼춘예.

#1 황자.

@1 황자. 나이는 올해?

#1 팔십사.

@1 팔십사 세. 몃 년생인 철이꽈? 게민.

#1 사이 년.

@1 사십이 년생. 예. 원래 고향은 여기 한림마씨? 한림에서 낭 한림에서.

#1 한림에서 크고, 낭 늙고.

@1 한림에서 결혼헨? 남자 삼춘도 한림?

#1 아니, 우리 아저씨는 애월면.

@1 아, 그믄, 근데 계속 한림에서 사션마씨?

#1 예. 한림에서.

@1 그렇구나. 거난 사십이 년생이면 무슨 띠 뒐 철이꽈?

#1 말띠.

@1 말띠. 혹시 그 한림에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사셧수과?

#1 아니.

@1 계속 여기서만 살안?

#1 한림만.

@1 혹시 학교는 어디까지 뎅견마씨?

#1 난 학교 안 헤 봣수다. 아무 디도.

@1 초등학교 마당에도 안 갓다 옵디가?

#1 초등학교 매날 우리 운동허레도 가.

@1 운동허레만 가? 아니 삼춘 그렇게 나이가 막 많지 않은데.

#2 시집가서 한 십 년 애월읍에서, 애월읍 상가리에서 살앗지.

@2 아, 한 십 년.

#1 아이, 그거야 뭐. 왜냐하면 시댁에서 시어머니 돌아가셔 부난.

@1 예. 게난 삼촌은 몃 살에 결혼헨마씨?

#1 스물다섯에.

@1 스물다섯에.

미용일 시작

@1 그 미용하는 일은 어떵 헹은에 배우게 됀마씨?

#1 우리 할 때야게, 어디 알바 허는 디도 없고. 우리 앞에 저 미장원 잇어낫주게. 그 아는 언니. 게난 그 언니 밑에서 내가 하고 싶언 배우단 또 대구에 간 이제 학원 나오고.

@1 미용학원 뎅겻구나, 삼춘.

#1 예. 그다음에 다 배운 후에. 배운 후에 거기 우리 언니 잇이난 거기 간 잇이멍 헤 봣주게.

@1 게난 제주도에서 먼저 배우기.

#1 그냥 미장원에서.

@1 미장원에서.

한림 현대 미장원

@1 거긴 무슨 미장원이꽈, 이름은?

#1 현대 미장원.

@1 현대. 제주시에?

#1 아니, 아니. 한림.

@1 것도 한림. 아, 한림에 현대 미장원이 잇어낫구나예. 현대 미용실.

#1 어.

@1 현대 미용실에. 이 미용실에 사장님은 누게라?

#1 돌아가션. 박○진 언니라고.

@1 아, 친한 언니마씨?

#1 예.

@1 이 분도 한림 사람이고?

#1 한림. 원래 한림.

@1 그믄 원래 한림에 일 호 미용실은 현대 미용실인가.

#1 현대 미용실.

@1 아, 게믄 아까 그 김○림 삼춘은?

#1 그디는 그때 무슨 미장원이라신가. 건 저 엿날 그 시장통에 집이 거기난 그쪽에서 헤나신디 이젠 이름도 잊어 불엉 몰르컨게. 미용실 이름도. 그땐 미용실도 영 여러군데도 엇인 때주게.

@1 그니까.

#1 엇인 때.

@2 오고파?

#1 아니, 건 오고파는 얼마 안 둬고.

@1 얼마 안 둬고.

#1 그딘 저 ○자 언니가 거 오고파는 헤낫고.

@1 ○자 언니는 돌아가셧수꽈?

#1 아니, 거기는 살아 잇고.

@1 아, 여기도 살아계셔마씨?

#1 에. 시에, 시에.

@1 아, 시에.

@2 한림 철물점 어머니가 오고파 미장원 말고마씨?

#1 누구?

@1 한림 철물점 어머니.

#1 아, 아니. 가넨 아니. 가네 아니. 가넨 거 귀덕 아인디, 오고파네는 가네는 한참 후에. 우리도 다 설러 분 후에.

@1 그러면 처음에 배운 거는 현대 미용실에서 일을 배웟구나예.

#1 응.

@1 그건 몃 살 때쯤이꽈?

#1 그때 한 열여덟?

@1 열여덟. ᄒᆞ끔 큰 다음이네 그래도. 그때 처음 일 배우고.

#1 그때 거기서 배왓주게. 처음에는.

대구 미용학원

@1 그다음, 요거 요기서 배운 다음에 그다음 아까 대구?

#1 대구. 응. 가서 이제 우리 언니 잇이난. 거기 간에.

@1 대구에 언니가 잇구나예.

#1 그때 있을 때난에 그디 갓단에 그 학원에 좀 다녓주게.

@1 여기서 미용학원 다니고. 거난 미용학원은 대구 강 다녓구나예. 요건, 미용학원은 몃 달 정도 다녀야 뒈는 거마씨?

#1 아, 요거 그 당시에도 육 개월 코스로 우리는 헤연. 쪼끔 알고 하니까.

@1 돈도 막 비싸실 거 아니꽈?

#1 응?

@1 돈도 비싸실 거 아니, 미용 학원비 내젠 허믄.

#1 아, 그때는 얼마 안 뒛주게.

@1 얼마 안 뒌?

#1 물론 돈 까치도 그때는 좀 뭐 헌 땐디.

@1 그렇긴 헷지만.

#1 겐디 얼마, 그때는.

@1 그때 무사 이 육칠십 년대에 양재학원하고 미용학원이 그렇게 인기가 잇엇덴 허멍마씨예.

#1 예. 헐 것이 엇이난 그것밖에. 제일 큰 기술 그거, 옛날은. 게믄 우리는 어디 저 촌에 모집허영은에 오렝 헹 가젠 허믄 불파마는 막 기구들이 많주게. 뭐 숫도 잇고 기구도 저 쒜로 뒌 거하고 또 거 밑에 받쳉은에 허는 뭐 이 저 담요같이 막 뚜꺼운 거 머리 데카 부덴. 게믄 막 뚜꺼운 거 헹은에 영 이추룩 뎅 허믄 여기 영 짤랑은에 구멍이 잇어. 게믄 머리를 그쪽으로 빼내는 거라. 빼냉은에 롯드[50]를 감아. 롯드 감앙 도메 시켱 그다음은 숫불 피와근에 숫이엥 허믄.

@1 예, 예.

#1 이제 가봉이엔 헤근에 동글동글허게 나오주게. 영 네 개를 담아. 영 뒈엉 허믄 욜로 두 개 욜로 두 개 헹은에 영 집게, 빨래집게같이 이렇게 헹은에 집엉 헤믄. 겡 잘못헤믄 막 여기 데곡 머리 한 뭉텡이씩 막 타 버리고 허주게. 그추룩 헤여.

@1 겡 다시 제주도에 내려완예. 대구 갓다가예. 그믄 그땐 한 몃 살쯤 뒌 때꽈?

#1 그때 한 스무 살?

@1 스무 살? 거난 스무 살때부터 스물다섯 살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1 아니, 그때는 계속 못 헤연. 그때도. 어디 좀 갓다 오젠 뎅겨 부난.

일본 밀항

#1 그땐 일본 가젠 막 그냥 갓다 왓다 헐 때라 부난. 그땐 막 밀항헹덜 일본 갈 때주게.

@1 맞아마씨. 일본도 갓다옵디가?

#1 가도게.

@1 ᄒᆞ꼼 살당 완?

#1 살지도 못 헷주게. 걸려 부난게.

@1 아, 걸려 불언?

#1 두 번씩 가도.

@1 겡 못 살앙 그냥 와수과? 겅 헹 결혼헷구나게.

#1 경 허난 우리 어머니가 결혼시켜 불언.

@1 아유, 경 안 헤시믄 일본 강 돈 하영 벌엉 왓일 건디.

#1 또 가젠 막 헐 때. 막 가젠 헐 때난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헨에 그추룩 헨 헤 불어신디. 그때도 수용소에서 살단 오고.

@1 걸려 가지고?

#1 어. 걸리믄 수용소에. 아, 막 좋아, 수용소에. 그냥 시간 보내는 거주. 식사 같은 것도 메뉴가 그냥 매일매일 다 틀리고 대우가 그렇게 좋아. 밖에만 못 나가는 거주.

@1 아, 잡혀도.

50) '롯드'는 파마를 하거나 컬을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마는 막대를 말한다. 규범 표기는 '로드'이지만 여기서는 제보자가 발화한 대로 옮겨 적었다.

#1 거고 다게 제주 사람덜이고 허난 다 그냥 친구들 헹 놀고. 한 방에 멧 사람씩 헤영 허난. 막 죄수거치 영 가두는 것이 아니난. 게 막 재미져. 거기서 막 춤도 배우곡덜 거기서덜, 막 경헤난.

신부 머리 예약

@1 그믄 옛날에 그 결혼헐 때 머리 헤 주는 그거에 대헤서 자세히 물어 보쿠다예. 그 우리 똘 몃 일날 결혼헐 거난 머리 왕 헤 줘, 영 허는 걸 어떵 헤근에 약속을 헤?

#1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 통헹은에 허믄 소개를 헤 줘. 어느 신부한테, 거기서가 연락 왕은에, 강은에 메칠날 이제 헤 달렌 헹 허믄. 우리가 전혀 모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직접은 못 허주게.

@1 전화 같은 거 잘 엇일 때 아니꽈?

#1 전화가 어디 셔게.

@1 그믄 어떵 직접 왕은에 예약헤?

#1 아는 사람이 통헹은에 메칠날이다 허믄 한번 만낭은에 이제 그 날짜 잡앙은에 가는 거주게. 전날 가.

출장 미용사

@1 그믄 보통 전날?

#1 전날. 항상 전날.

@1 전날 가는구나예.

#1 응. 항상 전날 강 준비헤영 신부 다 밑화장 같은 거 이제 마사지 다 헹은에 아침 뒈면은 이제 출리는 거라. 경헹 거기서 체령은에 신부 거기서 헹은에 이제 면사포 같은 거 이제 그때 예식 두 개 기자 영 헹은에 집에서, 마당에서도 허고 공회당도 빌엉 허곡 경 헌 때 헹은에 예식 끗낭은에 신랑 집이 가믄 상 받앙 하믄 면사포만 풀믄 우리는 오는 거주게.

@1 아. 아까 요기 어디 조수도 가고 헷덴 헨게마는 주로 활동하는 데가 한림하고 한경?

#1 한경.

@1 애월은 안 가고?

#1 애월 쪽에는 안 가 봔.

@1 애월 쪽은 안 가 보고.

#1 조수 같은 데, 이제 저 신창 그런 데.

@1 그런 데 가셨엇구나예. 그때는 차 엇일 때 아니?

#1 차 엇일 때주게.

@1 어떵 헹 갑디가?

#1 버스 탕 뎅겻주게.

@1 아, 버스 탕.

#1 어. 버스 타곡 시골에 쪼끔 뭣 헌 딘 걸엉 가곡 차 안 뎅기는 디. 그믄 사진사도 마찬가지. 뚜러멩은에 그냥.

@1 겅헹 같이 가곡 영 헤낫구나예.
@2 둘이서 전날 ᄀᆞ치 갑니까, 사진사랑?
#1 아니, 아니. 사진사는 아침에야 오주게.
@1 아, 전날 갈 필요가 없으니까.
#1 우리, 우리 미용사만 전날.
@1 그때 당시에 미용헤 줄 때 머리, 머리 신부 머리는 몃 명 정도 헤 줘난 거 닮으꽈?
#1 신부허곡 이제 신부 들러리, 한 네 사람 뒐 때도 잇고.
@1 신부가 몃 명 정도, 삼춘은 몃 명 정도 머리 헤 줫저 생각남수과? 그 신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하면 몃 명 정도, 신부 친구들 말고.
#1 한 집에 가면?
@1 아니. 아니. 몃 집이나 그걸 헤 줫수과?
#1 멧 집사 헤 줘신지 촌에 그 쪼끔헌 딘 다 불러당은에 저기 출장.
@1 멧 집 가져신지는 기억 안나고?
#1 어. 어.

출장 준비물

@1 자 이젠 출장 갈 거라예. 게믄 아까 삼춘 막 하영 챙경 가야 뒌덴 헷수게. 그 챙경 가야 뒈는 거 하나씩 다시 ᄀᆞᆯ아 줍서. 무신 거, 무신 거 가졍 갈 거?
#1 화장품. 신부 출리젱 허믄 화장품 허고게 멘사포.
@1 화장품 허고 멘사포.
#1 멘사포.
@1 그다음에 아까 머리 헐 거예.
#1 예. 우리 기구.
@1 고데기.
#1 고데기 가졍 가고.
@1 그믄 먼저 화장품은 하나만 헐 게 아니잖아. 스킨, 로션, 뭐 이런 거 막 크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꽈예.
#1 예. 다 가졍 가야주.
@1 그때는 뭐 뭐 정도 헤신고마씨?
#1 그때도 스킨, 로션에다가 이제 그때는 마사지 크림, 콜드크림으로 그땐 나와낫주게. 이제는 마사지 크림이엥 헤도. 그걸로 이제 마사지, 손 마사지 헤 놓고 그다음에는 계란 마사지 헤 주고. 그때는 주로 계란으로 헷주게. 노란자 헤 가지고 그거 헨에, 허영은에 허믄 고데 가졍 가지. 화장품 그 축 허믄 저기 스킨, 로션, 영양크림, 그다음엔 이제 분.
@1 분. 맞아.

#1 그때는 분 허고 저 화운데숀.
@1 응. 화운데이션. 그다음에 눈썹 그리는 거.
#1 응. 그거 다 가졍 가야주.
@1 뭐 마스카라. 이런 거. 그런 거 마스카라는 안 헤?
#1 그때는 마스카라는 안 헐 때주게. 그냥 이 눈썹이나 허곡 이제.
@1 입술도 발라야 뒐 거 아니? 이런 거 다 챙겨 가지고.
#1 응. 다 챙경 가야지. 그때는 이제같이 여러 종류는 안 썻지마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챙경 가야주게.
@1 아. 그믄 화장품 챙기고. 그다음에 머리 허는 거는 무신 거 무신 거꽈?
#1 고데기.
@1 고데기하고. 고데기는 하나믄 뒈어? 종류별로 있어야 뒈?
#1 아니. 그거는 이제 한 세트가 잇어. 고데 마는 거 잇고 우에 컬이렌 허영은에.
@1 끼우는 거.
#1 우에 영 허는 거. 그거주게.
@1 그거 세트 하나만 있으면 뒈어?
#1 그거믄 뒈어.

불파마 시술

@1 그다음 아까 뚜꺼운 천 있어야 뒌다고.
#1 아, 그거는 불파마 할 때.
@1 불파마 할 때. 아, 고데 할 때는 아니고.
#1 응. 고데헐 땐 아니. 불파마 할 때. 불파마 할 때는 이디 영 헨에 로또로 이렇게 말면 데주게. 데는 때문 요만큼 요 손 두께 요만큼 뚜꺼운 담요 같은 거 헤서 스펀지처럼 딱딱헌 거 그거 허영은에 밑에 이렇게 받쳐. 머리, 머리 영허영은에 그걸 먼저 끼엉 그다음에 로또를 마는 거주게. 경 로또 말아근에 이제 그 불 네 개짜리 이제 영 헤믄 가봉이엥 헤근에 요만큼씩 숫이 나와. 매끈헌 거. 이제 저 연탄 불쑤시개 허는 그런 거 닮은 걸로 허영. 게믄 그거 붙여근에 숫불 붙영은에 이제 그 쒜에 담아근에 빨래 집게ᄀᆞ치 톡 허게 ᄌᆞᆸ아 불어. 게믄 머리가 이만큼 허주게. 막 ᄋᆞ라 개 꼽는 때문. 그런 때문에 짐이 많아. 파마 허레 갈 때.
@1 아, 파마허레 갈 때.
#1 응. 저 신부 화장 갈 땐 그런 거 필요 없고게. 가졍 가는 거 간편허주게. 화장품이나 갖곡, 고데기 놓곡 그자 멘사포만 가졍 가믄 뒈는 거난.
@1 파마하는 그 안에 숫을 담는 거꽈?
#1 응.
@1 아, 겅헹 이렇게 머리에 붙이는 거?
#1 머리에 꼽아. 게난 그거 잘못하믄 이제 막 타 불어. 타믄 막 머리가 한 뭉텡이씩 다. 겨난 이런 디 밑

에 할 때는 데여. 경헌 때문 그 뚜꺼운 걸 이디 영 허주게. 게난 옛날 그거 불파마 헐 때는 막 쭐르게도 못 헤여. 요 밑에 이추룩 짧게를 못 허여. 그거 영 끼우는 거 땜에, 밑에. 받침이 뚜꺼우난.

@1 음. 그럼 이 파마하는 그거는 한 사람 허젠 허믄 몃 개 정도 잇어야 뒈는 거꽈?

#1 어, 거 많이 들어. 그게 보통 한 삼십 개, 한 삼십다섯 개 정도.

@1 아, 한 사람 헐 거 그걸 다 챙경 가야 뒈는 거네.

#1 게믄 그거는 불파마 할 때는, 파마허레 갈 때는 한 사람 할 것만 가졍 가믄 안 뒈주게. 그거 헹 허믄 한 사람 허는 거 ᄀᆞ드레기 기다려져? 게난 한 사람 끼워 놓고 또 끼워 놓고. 여러 사람. 두서너 사람씩 이제 허다 보믄 한 사람 뒈믄 풀어 가고. 게난 흔 사람은 못 가주게, 파마는. 심부름허는 사람이 있어야 뒈어.

@1 아. 그건 불파마 허레 뎅기는 거고예. 그믄 신부 화장할 때는 일단 고데기 하나믄 뒐 거예. 고데 허는 건예.

솟수세

@1 머리빗은?

#1 빗은 이제 그.

@1 필요 엇어? 얼레기 필요 엇어?

#1 그냥 영 저기 줌진 빗 가졍 강은에 예를 들면 신부덜 뭐 허젠 허민 후카시[51] 놔 주는 거 줌진 거 가졍 강이, 코지빗 가졍 강 그거 허영은에 영 헤근엥에 이제 후카시 놔사 이 머리를 영 세와 주는 거 주게. 게난게 옛날에 게난 머리도 막 판낫주게. 그걸로이 막 영 솟수세 만들엉은에.

@1 무신거 멘들어근에? 솟수세? 솟수세가 뭐꽈?

#1 솟 시치는 수세미게.

@1 아, 솟 시치는 수세미.

#1 머리가 이만큼 붕 뜨지 안 헤여? 그축 헤낫주게. 옛날에는 뭐 기구덜이 엇엇주게.

신부 멘사포

@2 멘사포도 하나?

#1 하나게. 아니 경헌디 그것도 하루에 두 집 세 집 헐 때는 두 개 가졍 가. 빨리빨리 이쪽에 헤 뒁은에 이제 또 그쪽에 가곡. 경도 헤낫어. 한 사람만 딱 허질 안 허고. 옛날은 잔치게 같은 날에 허는 집이 많앗주게. 경허난. 게고 또 시골에서는 어디 내려왕 헹 가지도 못 허고 허난 잘허나 못허나 이제 미용사가 강은에 헤 주믄 기자 머리 허영 화장하고 이제 면사포 씌우면 다 뒈는 거라.

@1 응. 면사포는 여기 어떻게 고정헤? 고정하젠 허면 머리에.

51) '후카시'는 일본어 'ふかし'에서 온 말로, 머리를 부풀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후카시', '후까시' 등으로 발음된다.

#1 이 왕관처럼 여기 잇어. 이렇게 영 끼엉. 영 끼엉 영.

@1 끼우믄 뒈는 거.

#1 여기 영 헹은에 끼우주기게.

@1 응. 머리띠처럼 이렇게 뒈는 건가?

#1 응. 응. 머리띠처럼.

@1 벗어지지 안허게.

#1 안 벗어져. 고정시켜. 핀으로 또 고정도 시키주게. 면사포 써.

@1 그럼 핀도 가졍 가야 뒈고. 면사포는 어디서 만들앙은에 사는 거마씨?

#1 상. 시내에 가믄 그거 다 헹 풀아. 게난 우리 그거 면사포 허연, 헌 후제에 또 드레스 나오기 시작헷주게. 게난 우리 헐 때 드레스 얼마 안 허연 난 설러 불언.

@1 드레스 허기 전인 하양헌 멩지.

#1 하얀 저 한복 입곡. 응, 한복 입곡 이제 면사포 쓰고.

@1 면사포 쓰고 요거까지만. 머리는 주로 옛날에 그때는 짧은 머리 아니고 긴 머리 아니엿수과?

#1 올리기도 헷주게.

@1 아. 올리는. 옛날엔 막 머리 길게 헷으니까예.

#1 응. 올리기도 허곡.

꼿다발

#1 이제 또 이제는 꼿 생화 허영은에 이제 부케허는 디 그때는 꼿다발로 헷주게. 꼿다발.

@1 조화로?

#1 어. 조화로. 게면 그때는 생화는 별로 없잖아. 게믄 우리가 만들어 그거를.

@1 꼿을 종이로 만들어?

#1 응. 장미. 장미 같은 거. 장미꼿으로 만들어근에 이제 꼿다발을 만들주게. 게믄 그걸 가졍 가야. 옛날은 그거 경.

@1 그믄 그 부케는 종이로 만든 거, 아니면 헝겊으로 뒌 거?

#1 종이, 종이.

@1 종이. 우리 쉽게 생각하면.

#1 문 종이. 저런 걸로.

@1 절간에 연등 할 때에예, 그때 그 만드는, 연꼿 만드는 그 종이처럼 걸로 헤서 부케 꼿을 만들엇다는 말인 거마씨?

#1 응. 꼿 만들엉 이제 어디 강 동백나무 같은 거 그런 거 헤당 거기다가 다 끼워.

@1 아, 끼워근에. 줄기하고 이파리는 안 만들고.

#1 응. 그거는 이제 생화 헤당. 나무 끊어당.

@1 동백낭 끊어당 허고. 우에다가는 그 꼿을 만들엉 끼우는 거네.

#1 게난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저 연필이나 젓가락이나 뚜꺼운 거 헹 그거 다 이렇게 말주게. 말아근에 쭉 허게 모여 노면 이제 쪼글쪼글 헐 거 아니 경헹 풀엉 허믄 그걸 이제 나오면은 그걸 그냥 만드는 거라.

@1 무슨 색으로? 보통.

#1 하양 거.

@1 것도 하양 걸로. 부케도 하얀색으로. 그믄 그거 만들어진 거 들렁 가야 뒐 거구나예.

#1 예. 다 만들엉.

@1 한복은 자기 거 입고.

#1 자기 거 입고게. 우린 면사포만 하고 꽃다발 허곡 기자.

@2 가방 잇어사큰게예.

@1 게메. 들렁 갈 가방 잇어야 뒈커라예.

#1 아이고, 옛날엔 어디 가방도 경 흔헤서게. 꽃다발 들어갈 만헌 것이. 경 그거 또 만들엉 손에 줴엉 가주게.

@1 손에 줴엉 가. 버스 타고. 이제는 종이가방도 막 큰 거 나오고 허는디예.

#1 게. 아이고게. 이젠 첨, 다 쓰레기에 버리는 거 가방. 그런 거, 이제 거 그때 셔시믄 막 멋지게 들렁 뎅길 거주게. 그런 거 담앙.

계란 마사지

@1 게메. 게믄 그 전날 저녁에 가면, 신부집에 갓어예. 그믄 제일 먼저 무슨 거 헤마씨? 하는 일을 순서대로 얘기헤 줍서.

#1 가믄? 이제 머리도 한번 헹 놔둬야 뒷날 이제 허기가 좋주게. 게믄 거 허곡 강 신부 마사지 같은 거 시켜 주고.

@1 마사지는 주로 어떻게? 콜드크림으로 아까 한다고.

#1 그냥 콜드크림으로 허곡게, 이제 계란 마사지.

@1 계란 마사지는 어떵 헹 허는 거라?

#1 계란 노란자에 밀가루 쪼끔 놩. 계란 노랑 건만은 못 허주게 흘러 버령. 게난 밀가루 조금 서터근에 그걸로 마사지 허는 거라. 그것이 좋은 거. 옛날에는.

@1 머리도 그러면 뭐 특별하게 감는 거 잇수과? 머리도 감겨 줘?

#1 아니.

@1 그건 안 헤?

#1 그건 자기네가 다 헹 잇주게.

@1 머리결이 좋아지려면 무슨 뭘로 헹 머리 감으라 이런 것도 엇어?

#1 아니. 그런 것도 없고. 그땐. 그런 것이 엇어.

@1 보통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마사지샵 강 마사지 받고예.

#1 그렇지게. 그때는 어디 시난게. 촌에 가믄 그냥 캄캄헌 방에덜 ᄉᆞ못 모여정 앚곡 조그만헌 디 허젱 허믄 막 불편헤여. 막 왕덜 영 앚으믄, 방 족은디. 그축 헹 사람들이 또 시골이니까 잘 와. 그런 디.

@1 어떵 헴신고 궁금헹게예.

#1 보젱도 오곡. 신부 마사지 허는 거 보곡덜 허젱 막 오주게.

@1 마사지는 그냥 요기 팩만 얹어 주는 거꽈?

#1 응. 팩만. 팩만.

@1 응. 그냥 뭐 다른 데 이렇게 마사지를 헤 주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1 아니 그냥 이 손으로 헤도 그자 이 팩만 계란 팩 헨 그거 헨.

@1 계란 팩만 붙여 주는 거예.

#1 게믄 그것도 허젠 허믄 시골에서는게, 뭐 이제 ᄀᆞ치 뭐 전기 포트도 없곡 허믄 솟디 강 물 뎁혀다 주믄 이제 수건 이제 뜨신 물 그걸로 헹 얼굴게 차가운 걸론 안 뒈니까 뜨신 물 헹은에 수건으로 이제 그거 다 이제 허는 거주.

@1 팩 하고 나면.

#1 마사지 계란 팩 허기 전에 그거 물수건 찜질헤 줘.

@1 아, 온찜질 먼저 헤 주고.

#1 헤 줭 그다음엔 이젠 마사지 팩을 허는 거라. 팩 허믄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꼬들꼬들 말리믄 이젠 뻬영은에 이제 또.

@1 잘 안 떼질 거 아니꽈?

#1 잘 떼어져.

@1 아, 안에 뭐 팩 저기 뭐야.

#1 뭐 안 깔아도 뒈.

@1 안 깔아도 뒈? 안 깔아도 벳겨져?

#1 게난 우리 전 부치듯이 계란전 부치는 거 ᄀᆞ치 밀가루가 들어가니까 경허믄 그거 딱 떼 뒁 이젠 또 물수건 헹은에 찜질 헤낭 나중에 첨, 스킨, 로션, 영양크림 그런거 영 발랑 다 뒷날은 이제.

신부 화장

@1 겅 헹 전날은 허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날 아침 새벽이 뒛어예. 그다음 그믄 이제 어떵 순서대로. 어떵 어떵 헤신지.

#1 아침 일어나믄 우선 신부 먼저 하는 거지. 신부 먼저 이제 손 마사지 또 허영은에 이제 화장을 허는 거지.

@1 아, 손 마사지도 헤 줘? 얼굴을?

#1 응. 것도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손질허여 놩 깨끗허게 물수건으로 허여 뒁 그땐 이제 화장허는 거지. 게난 거 허기 전에 머리에 조금 손질헷당은에 화장 다 끝나믄 이젠 완전히 이제 머리 손질 끝내영 이제 면사포 썻주게. 경 헤나믄 ᄌᆞ끗디서 들러리 가는 사람덜토 머리헤 도렝 허영 헤 주고. 겡 막

바빠, 바빠. 시골에 가믄 어디 미장원도 없고 경헤 부난 다 허여 보젱덜게, 다 헤 도렝, 시간이 엇어 부난 허여 주고 싶어도 못 허주게.

신부 머리

@1 아까 전날 신부 머리도 미리 헤 놔야 다음날 쉽다고 헷는데 전날은 어떤 거를 하는 거마씨, 그믄?

#1 아니, 그냥. 이 머리 생머리덜 뒈곡 뭐 안 헤난 머리덜이난 머릿발을 좀 죽여야주게. 경헹 한번 이제 고데를 다 헤 주는 거라. 헤 줫당 이제 뒷날 허게 뒈믄 좀 쉽주게. 머리 말을 잘 듣주게. 그대로 헌 것보다.

@1 한 번 고데를 한 번 하는 거구나예. 고데 헤야 머리도 올리고 이렇게 헐 거 아니예?

#1 예. 생머리로 헌 안 뒈주게. 자꾸 내려완 안 뒈주게.

@1 풀어져 불어예. 고데 허젠 허민 무신 거에다가.

#1 그디 가믄 시골에 가믄게, 숫불게.

@1 화로? 화리?

#1 화로. 화로에. 화로에 거 저 부엌에 그 불 땐 웅덩이 갖당 허믄 고뎃기 거기다 붓는 거라. 저 연탄만 잇엇어도 좋앗지. 그 구멍에 다 꼭 들어강은에 저 그 고뎃기가 꼭 맞주게. 그축 헹 허는디 게믄 숫불에 허믄 뜨거울 땐 너무 뜨겁고. 불편허게 헤여. 불편헤여.

@1 겐 처음엔 숯불로 허당 나중엔 연탄으로도 헷수과?

#1 연탄으로도 허주게. 연탄으로도.

@1 삼춘도 연탄으로도 헤 봔?

#1 응.

@1 숫불 헐 때보다 연탄이 훨씬 편헌.

#1 편허주게. 그 연탄은 우에 고망에 안 찔러도 그냥 헹 우에만 놔도 열이 있으니까. 경 허는디 숫불은 이제 영 헹 노믄 숫불 끄어 불고, 또 뜨거우믄 너무 뜨겁지. 게믄 이제 물수건 하나 놩 그자 이거 뭐 이거 식히멍 허는 거주게. 식히멍. 경 안 허믄 머리 고데에 다 타부난.

@1 그믄 막 재도 막 부트고 허지 않읍니까, 고데기에?

#1 예.

@1 그믄 그거 그냥 머리에 그냥 허는 거라?

#1 아니.

@1 따까 가멍?

#1 따까야주게. 게난 물수건 ᄒᆞ나 항상.

@1 주로 신부 그 당시에 유행헷던 신부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헤난마씨?

#1 아니, 그때는 그자 유행이 저기 앞에 애교머리.

@1 앞에 여기 내령? 깻잎 머리?

#1 응. 그땐 애교머리엔 헷지이.

@1 애교머리. 애교머리 영 내리고.

#1 영 허영 그냥 신부덜 영 헹은에 일로 영 헨에 면사표 쓰믄 이디 영 헹 올령은에 이제 손질헤 주는 거라. 올리는 건 올리고, 경 안허믄 이제 이 쇼츠를 한다든지 우치마키를 한다든지 허믄 항상 이걸 내려. 이거 내령 이제 애교머리.

@1 아까 우치마끼는 무시거꽈?

#1 우치마키는 이제 머리게 그냥 영 짝짝 붙영 영 허는 거. 그때 쇼츠엔 헌 건 요거 이 밖으로 들렁 영 허는 거.

@1 뒤집는 거.

#1 그때 그거 유행이랏주게, 머리가.

@1 아, 요렇게 뒌 거.

#1 응. 아가씨들 영 허영 허곡.

@1 아니, 우리 어머닌 단발이엇던 거 같은데. 옛날에. 칠십 년대 단발머리.

#1 예. 단발머리는 우치마키식으로 이렇게 영 헷주게.

@1 아, 영 안쪽으로 이렇게.

#1 옛날은 그 머리게.

@1 올림머리는 많이 안 하고?

#1 올림머리덜은 시골에는 별로 엇어.

@1 우리 결혼할 때는 막 올림머리 헤야 뒌덴 헤 가지고 일부러 머리 기르고 막 이랫엇는데예.

#1 게. 경 헷주게. 근디 그 당시에는게 그냥 막 불파마나 헹 뎅기고 헐 때난. 무신 곱슬머리밲이 더 헷어, 그때? 게난 차라리 곱슬머리 파마헌 새각시덜은 좋아. 고데 허기가.

@1 아, 머리 말 잘 들언예.

#1 머리 말도 잘 듣곡, 그 구부러진 머리니까. 헌디 경 안 형 생머리는 허여나지 안 헌 머리난 머리가 너무 뻐드락정은에 자꾸 풀어져. 경허는 때문에 저녁 때 강 한번 헤영. 저녁에 헷당은에 또 뒷날 아침에 헤 주고. 순서가 그렇게 뒈언. 게난 별 다른 거 엇어. 그거뿐.

@1 게믄 밤이 ᄀᆞ치.

#1 그디 자고. 그 집이 같이 잣당. 새우잠을 자는 거지. 시골에 가믄 잔칫집에 온 사람덜이 식구가 많아 부니까 방에덜 다 누웡은에 그자 강 새우잠 자당 그자 시간 영 봥 ᄒᆞ끔 붉아 가믄 미리 일어낭덜 챙경. 경 헨게. 별다른 것이 엇어.

미용사 보수

@1 경헹 허민 돈은 얼마 받아나수꽈?

#1 그때 몰라. 우리 신부 화장 허믄 뭐 만 오천 원 받을, 그때 만 오천 원도 컷주게. 만 오천 원씩도 헹 가고 그축 헤낫어, 옛날에.

@1 육십 년댄가마씨?

#1 육십 년대.
@1 칠십 년대?
#1 육칠십 년대.
@1 육칠십 년대 만 오천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뭐 시가가 쌀은 얼마 정도 헐 때 이런 거 이신가?
#1 그때는 파마, 불파마 허는 것이 오백 원 헐.
@1 아, 불파마 하는 게 오백 원. 혼번 허는 게 오백 원. 근데 신부 화장은?
#1 만 오천 원.
@1 만 오천 원예. 혹시 뭐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건 얼만지 모르지예?
#1 그건 몰라.
@1 게민 뭐 쌀 혼 말에 얼마 정도 헐 때여 이런 건?
#1 몰라. 쌀 혼 말에 얼마산지. 우리도 그때도 우리도 어렷주게. 이젯 아이덜 닮지 안 헨. 그런 것에는 또 우리가 집에서 그런 걸 관여를 안 헤나난.

출장 전문 미용사

@1 그믄 신부 화장 만 오천 원 받으믄 다 삼춘 거, 아니믄 미용실에 얼마 내야 뒐 거?
#1 난 나가 다 헤난 거난.
@1 아, 삼춘이 헤난?
#1 으.
@1 아, 미용실 차령 허는 건 아니고, 출장만?
#1 출장만 가.
@1 아, 그믄 그 면사포랑 꼿이랑 이것도 다 삼춘 거?
#1 사.
@1 삼춘이 만들엉 준비한 거?
#1 응. 사. 꼿도 만들곡 이제 면사포도 다 준비가 뒈어 잇주게. 게난 면사포는 여러 개 살 수가 엇어. 하나 사믄 서로 우리가 우리끼리 빌려. 우리가 필요하면은.
@1 아, 다른 이렇게 출장 미용하시는 분이 여러 명이 있으면.
#1 우리 친구도 하나 잇어낫주게. 그 저 제일예식장에 그 홍○수 씨 사진 헐 때에. 그 동생도 헤나고, 또 옹포, 옹포 미용실이 잇어낫어. 그디도 우리 후배 아이들이니깐 이제 서로 가이네가 우리 안 가는 날은 이제 이시믄 나 거 갖당 허고. 또 나도 이제 두 군데나 이시믄 또 그디 거 또 하나 빌려당 허고.
@1 아, 출장 미용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1 예. 서로.
@1 서로서로 도와 가멍 헷구나예. 혹시 그분들도 혹시 살아계신가마씨?
#1 다 시에 살아 부난게, 만나난 지도 오래연. 다 시에덜.
@1 혹시 이름은 어떵 뒈마씨?

#1 문○숙.
@1 문○숙. 삼춘보다 나이 위에, 밑에?
#1 우리 후배.
@ 후배. 또? 아까 한 명 더 잇다고.
#1 또 하나는 시에 사는디.
@1 이름 모르커라?
#2 신랑 죽어 불고 허난 어디 사는질 몰라.
@1 이 사람 옹포 사람?
@2 문○숙 씨? 대정 사람.
#1 금능 아인디. 아, 옹포 아인디 금능 시집간 아이.
@1 옹포 아인디 금능 시집갓다고. 혹시 이 사람 시에 살암수과? 아니민 모슬포 살암수과?
#1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사는디 어디 사는지 몰라.
@1 미용실은 안 허고?
#1 안 헤.
@2 이분 대정 분 아니마씨, 원래?
#1 아니, 아니.
@1 동명이인인가 보다. 모슬포에도 이런 이름 비슷한 이름 미용실 하셧던 분 잇다고 헤 가지고.

면사포와 꼿다발

@1 그믄 삼춘이 출장 미용하기 위헤서 가지고 있엇던 거는 면사폰 하나.
#1 하나.
@1 꼿도 하나?
#1 아, 꼿은 거 자꾸 만드는 거니까.
@1 아, 계속 만드는 거.
#1 갈 때. 새 걸로.
@1 아, 새 걸로 만들어.
#1 어. 새 걸로 만들어야. 경허믄 그날 헤나믄 거 거기서 버리든지 뭐 지네가 그거는.
@1 거기다 주는 거구나예.
#1 응. 거기 붙영 내부는 거. 면사포에 붙여근에. 경헹 끝나믄 우린 멘사포만 가졍 오주게. 꼿 같은 건 안 가졍 와. 거 짐 뒈게 가졍 올 필요가 엇주게.
@1 신부 집에서예,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집까지 가야 뒈잖아예.
#1 가야. 신부 저 면사포 가졍 오젠 허믄 그디까지 가야주.
@1 그니까. 계속 따라다녀야 할 거 아니예. 처음에 신부 집에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면예, 신랑상 받고 신부를 데령 갈 거 아니꽈예. 그거 헐 때는 특별하게 뭐.

#1 우리 허는 건 엇어. 우리 허는 거 엇어. 거기서 저 신부 들러리가 같이.
@1 면사포 영 잘 헤 주고 화장 영 고쳐 주고 이런 건 안 헤?
#1 아, 그런 거는게 다 허지게. 그런 거는 다 헤.
@1 경헹 신부 집에서예, 신랑이 신부 데령 나왕예, 신랑 집으로 가.
#1 식장에 가는 거지.
@1 아, 예식장으로 가.
#1 거믄 식 끝낭 이제 또 신랑 집이 가는 거지.

사진 찍기

@1 예식장 가기 전이 신부 집이서도 사진 찍어?
#1 아니. 신부 집에선 안 찍어.
@1 신부 집에선 안 찍어?
#1 응.
@1 아까 노인정에서 삼춘들이 신부 집 마당에서 사진 찍엇다고.
#1 아니. 신부 집 아니. 무사 신부 집이서 찍을 리가 셔게. 안 허메.
@1 신부 친적들이 예식장 못 간덴.
#1 건 특별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찍을 수도 잇지. 원래는 경 안 허여. 신부 집이서 안 찍어.
@1 안 찍어.
#1 응. 바로 신랑 오믄 그자 상 끝낭, 상 받앙 끗나믄 신부 데령 그냥 식장으로 가는 거지. 겡 식 끗나믄 또 바로 신랑 집이 바로 가고. 신부 집이서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못 가는 입장이 뒈면은 저, 기념으로 찍을 수도 잇주게. 그런 건 잇주마는.

혼례식 장소

@1 혹시 삼춘 예식장 나오기 전이도, 예식장 엇인, 예식장 안 허고 그냥 신랑 집이서 결혼하거나 이런 건 안 봐낫수꽈?
#1 아니, 신랑 집이서 마당에서덜 허주게.
@1 그니까. 마당에서예. 그렇게도 헤낫지예. 예식장 안 가고예.
#1 응. 신랑 집이서 허는 사람덜토 많아. 마당, 신랑 집 마당에이, 영 헤영 ᄂᆞ람지 영 페왕은에이 신부 걸어가는 디, 흑 마당이니까. 또 겨울에믄이 줄락줄락 헤연 질퍽거리믄 막 그런 거 사람들 신발도 막 더럽고 허난 영 막 무시거 깔아게. 촌엣 잔치야게, 알아보는 거 아니, 거난에 헷다 허는 거뿐이주.
@1 마당에서 옛날에예, 결혼헐 때도 우리 저 테레비에서 보듯이 신랑 신부 절허고 이런 것도 헤낫수꽈? 주례도 사고.
#1 신랑 집에서 예식 허믄 다 경 허주게.
@1 신랑 집 마당에서.

#1 어, 어. 마당에서. 어, 식을 허여. 식을 지내여.
@1 그니까 그 식은 우리 전통 혼례식 하는 그런 거꽈? 그 비슷허게 허는 거꽈?
#1 어. 마찬가지. 전통 그, 이제 저.
@1 응. 장옷 입고 헤?
#1 그거 허는 사람들은 별로 엇엇어. 우리 헐 때는.
@1 그니까 다.
#1 응. 다 면사포 썽만 허영 허믄 그냥 이 예식장에 강 허듯이 식을 지내는 거라. 마당에서. 식장을 꾸미주게, 거기서.
@1 야외 결혼식이구나게.
#1 경 뒈는 거지. 야외 강 그때는 그거를 몰란 못 헤시는지는 몰르주만. 마당에 영 하간 것들 영 도구리도 어퍼근에 영 올라 사곡이. 의자가 없으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사진 찍젱 허믄 이제 그추룩 경헹은에.
@1 음. 그믄 마당에서 소님들, 저기 뭐 친척들은 다 상 잇어, 앉아근에?
#1 거기서게 앚앙도 잇는 사람도 잇고게, 경헹 이제 그디서 식 지내믄 그자 사진이나 찍젱 허믄 그자 친척들이영 형제간들이영 나왕 그 마당에서 사진 찍곡.
@1 주례 선생님도 잇곡, 신부 입장 영 걸아 주는 사람도 잇곡.
#1 경헤실 테주, 아멩헤도.
@1 그믄 그 신부는 그 ᄂᆞ람지 페운 우티 영 걸엉 가는 거구나예.
#1 게. 경헤근에 그디 강 마당에 상게, 신랑 신부가 영 사믄 이제 거기서 이제 첨 주례도 셔실 테주게. 경허난게, 옆에서 이제 보조덜 이제 이렇게 하곡 헹은에 무신 축사라도 하나 읽엉은에 끗나믄 그자 사진 찍곡 게믄 들어가민 걸로 끗 허는 거라. 잔치엔 말 뿐이주게. 이제허고 비교허믄이.
@1 아이고, 경헤도마씨.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1 게난.
@1 그믄 신랑 신부 기념 촬영 거기서 다 하고, 마당에서예.
#1 다 하지. 친척덜 이제이, 다 찍고. 신랑 신부 찍엉.
@1 그때도 미용사가 특별하게 할 일은 없고.
#1 엇어. 엇어. 멘사포나 첨 영 잘 헤 주곡 그런 거 뿐. 화장 고치곡 아이구, 옛날에사게, 그런 거꺼진 경 안 헷주게. 한번 화장하믄 그걸로 끗 허는 거라.

면사포 수거

@1 경헹 그다음엔 방에 들어강, 신부상 받고.
#1 경헹 상 받아나사 면사포 벗주게.
@1 그믄 상 받앙.
#1 경허믄 이젠 우린 면사포 챙경 오는 거라. 겨난 그 면사포 가졍 오젱 허믄 그꺼지 따라가야 뒈주게.

@1 아, 갖다 줍서 헐 수도 없고.
#1 아이고, 안 뒈.
@1 끗나믄 갖다 줍서예, 요즘 같아시민예.
#1 이젠 교통은 좋으난 헌디 그때는 갖다 도렝도 못 허고 또 차 시간 맞추왕은에 시골에서 어떵 헹은에 해변 내려 왕은에 그거 주젠 허여? 경허민 그냥 끝나는 거주. 거기서.
@1 면사포는 막 비싸신가? 그때 가격이. 거난 그거 챙경 와실 거 아니예.
#1 게. 어, 그땐게. 그때는게, 돈 만 원도 큰 때난게. 돈 만 원도 큰 때난 그땐 그거 허믄 어디 강 걸령 찢어지카 부덴 막 그냥 조심허고.
@1 혹시 찢어지면 꼬메기도 헤마씨?
#1 꼬메야. 크게 안 현 건 헤도게. 겐디 옛날엔 경 이제ᄀᆞ치덜 경 뭐 안 혀난게.
@1 막 웨딩 촬영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예.
#1 아이고, 어디 시난게, 웨딩 촬영. 사진 시집갈 때만 잘 찍어 줘도 것도 고마운 거주. 게, 못 찍는 사람덜토 있었을 때난게.

튼머리

@1 그 머리 올리거나 신부 머리할 때 혹시 자기 머리 말고 끼우거나 이런 것도 잇지 않으꽈?
#1 아니. 그때는 그런 건 안 헤연.
@1 아, 그런 거 엇어마씨?
#1 그런 건 안 헤연.
@1 옛날 더 옛날 어르신들은 머리 영 건지 영.
#1 옛날 머리, 튼머리.
@1 예, 튼머리. 그거 헤근에 헤낫잖아예. 근데 삼춘 헐 때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1 우리 할 때는 그런 거 안 헤연.
@1 지금처럼 이렇게 끼우는 것도 없고.
#1 엇어.
@1 가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엉 끼우는 것도.
#1 가발도 안 허고. 자기 잇는 머리로 그자 엇이믄 엇인 머리 그런 대로. 게난게, 머리가게 엇인 사람은게 후카시 막 놔 불믄 머리게, 솟수세 멘들엇주기게.
@1 게믄 주로 단발머리 정도 뒈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로만 고데 하는 거구나예.
#1 응.
@1 올림머리 같은 건 없고?
#1 올림머리는 그냥 감앙, 감앙게.
@1 아, 이렇게 밑에서 감앙 영 위로 올려마씨?
#1 응. 감앙은에 이제.

@1 우리는 이렇게 헤 가지고 요기서 요기.
#1 거기서 딴 거, 딱 거 붙여.
@1 예. 헤근에 끼우기 하고 막 이렇게 빤짝빤짝 빛나는 거나 이런 거.
#1 그때 그런 거 엇엇주게.
@1 그런 거 전혀 엇어마씨? 아무것도?
#1 응. 엇일 때.

면사포 왕관

@1 장식 같은 것도?
#1 장식 그런 거 하나도 엇어. 게난 그자 면사포 요 앞에 그 관만 막 이쁜 거 그것만 헤낫주게.
@1 아, 요기 관이 있어야 뒈는 거마씨? 왕관처럼?
#1 응. 관. 관. 근디 둥그렇게 허질 안 허고 이 앞에, 앞에만 요렇게 머리띠 허는 식으로 꼽게 나와. 영 노프게 좀. 왕관 식으로 앞에는 다 올려. 올령은에 꼿무늬를 논다든가 이쁘게 나와. 게믄 우리가 거 이쁜 그 관을 사 오주게. 관을 이제 하나만 사 오지 안허고 이제 한 서너 개 허영은에 자기 원하는 거 신부 원하는 걸로 기자.
@1 아, 우리 웨딩드레스 고르듯이 면사포 고르는 거구나예.
#1 응. 거주게.

신부 화장 준비

@1 응. 혹시 머리할 때나 화장할 때 신부한테 미리 이런 거랑 어떵 어떵 헹 이십서예,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주의허렌 허거나 이런 거 잇수과?
#1 아니.
@1 그런 거 엇어?
#1 시골 거리 멀곡 허믄 무신거게.
@1 미리 미리 허는 건 엇어?
#1 응. 엇어. 그냥 영 뭐. 자기 머리 감곡 그런 거나 준비헹 놔두렌 험밖이.
@1 거난 결혼허기 전날 나 가기 전까지 머리나 감앙 이십서 영 허는 거꽈?
#1 응.
@1 다른 거 뭐 머리에 뭐 볼르고 이런 것도 없고?
#1 아니, 그런 거 엇어. 그냥 우리 손에서 머리 만들엉만 그자 면사포 씌왕 가믄 걸로 끗 허는 거.

비양도 새각시

@1 혹시 그 옛날에 헷던 것 중에 좀 재미있엇던 거나 ᄒᆞ끔 이상헷던 거나 하는 이런 추억 같은 거 엇수과?

#1 아니. 그런 것도.

@1 기억나는 것도 엇어마씨? 그믄 아까 부회장님 헷덴 헨게마는 부회장님 헤난 거 생각남수과? 안 나멘. 양○순 삼춘이 난 그때 그 옥○이 삼춘한테 부탁허젠 헤신디 옥○이 삼춘이 바빠 가지고 박황자 삼춘이 헤 줫저. 경 골읍디다.

#1 가네 또 친군가 친척인가도 비양도 그디도 헨에 가냣주게, 나가.

@1 아, 비양도도 가 봔마씨?

#1 응. 가네 친척.

@1 아, 이 삼춘이 비양도꽈, 원래?

#1 어머니네가.

@1 아, 외가 쪽에가 비양도구나. 경헹 비양도도 출장으로 가근에 머리 헤 주고. 응. 비양도는 가젠 허믄 배 탕 가야 뒈잖아.

#1 배 탕.

@1 지금추룩 막 이렇게 돈 내근에 타는 배가 아닐 거 아니?

#1 그땐 그런 거 엇엇어.

@1 그니까.

#1 거난 그 집에서부터 자기 배덜 헹 나오주게.

@1 보내? 자기 배를 보내? 미용사 데령 가젠 허민?

#1 그때는 그디는 신부가 예를 들어서 신부가 거기면은 거기서 출령은에 이젠 배 탕 이제 뭍으로 나오는 거라.

@1 결혼식은 한림에서 허젠 허민.

#1 예를 들어서 신랑이 육지면 저 섬이 아니니까 게믄 섬 색시니까 거기서 출령 이제 배 탕 이제 와.

@1 아침이 ᄀᆞ치 나와. 그믄 비양도 삼춘 갈 때는 전날 그디서 배 보내 주민 그 배 탕 들어 강 신부 화장 다 헹 신부영 ᄀᆞ치 나오는 거구나.

#1 같이 나와. 비양도는 ᄒᆞᆫ 번 갓다 오고. 난 오래 안 헤 부난게. 나이들언에 쪼끔 허난 어디 다니단에 또 결혼허고 헤 부난에 얼마 안 헨.

제보자의 결혼

@ 삼춘 결혼헐 땐 어떵 헤수과? 누게가 머리 헤 줘수과?

#1 친구가.

@1 아까 그 친구?

#1 아니, 아니.

@1 말고? 문○숙 친구 말고?

#1 돌아가셔 불언. 문○순이렌 헌 어른인디. 우리 멧 년 선배 언닌디, 막 곱닥헌 언니 셔낫어. 그 어른이 제일 먼저 미용을 허기 시작헤낫주게.

@1 아, 문○순 삼춘이 먼저 헷구나예. 겐 이 삼춘도 출장 미용사라나수과? 아니면 미용실을 출련?

#1 미용실 채련 헤연.

@1 아, 이 사람은 미용실 출령 헨?

#1 응. 채련. 채련 허단.

@1 미용실 일름은 혹시 생각 안 나고예.

#1 몰라. 미용실 이름 그때 뭐라나신고? 하여튼 너무 오래 부난.

@1 한림에서?

#1 한림에서.

@1 이 언니가 헤 줜? 결혼할 때는?

#1 응.

@1 삼춘 결혼할 때는 어떵 어떵 헹은에 헷수과? 삼춘이 마사지도 다 할 줄 아니까 삼춘이 굳이.

#1 경헤도 왕은에 다 헤 주믄게, 기분 좋게 받아야주게.

@1 그때도 계란 마사지 헷수과?

#1 응. 그때도 계란 마사지.

@1 똑같애? 안 바껸?

#1 응. 그때도 계란 마사지. 나 헐 때까지도.

머리 감기

@1 머리는 무신 걸로 머리 감으면 머릿결 좋고 이런 건 엇수과?

#1 그런 것도 엇엇어, 그때는. 샴푸 같은 것도 엇인 때고게.

@1 그니까. 그믄 무신 걸로 헤근에?

#1 그냥 비누 머리.

@1 그냥 비누로 감아?

#1 경허주게.

@1 뭐 무슨 풀이나 뭐 이런 걸로 헹 머리 감으면 더 좋다거나 이런 건 엇어마씨?

#1 아니. 깻잎으로 허믄 머리 매끄럽뎅 허영 허긴 허는디 그건 또 우리신딘 아니, 허렝 안 헤여. 건디 이젠 머리 감앙은에 헹굴 때나 식초나 쪼끔 넣곡 헤영은에 머리 헹구렝 허영은에.

@1 린스 대신에예, 식초.

#1 그추룩 헤영 허주. 다른 건. 옛날엔게 아유, 그자 예를 들면 소금에 밥 먹는 식으로 그거 국허고 밥 허고 그거 뿐이주게. 머리 미용도 마찬가지. 그때는. 옛날엔 무신 파마라도 허믄 뭐 머리에 뭐 그 좀 에센스 같은 거라도 영 이제는 쪼끔 영 헤 주주마는 그때 그런 것도 엇엇주게. 어디 셧어게.

@1 대신에 뭐 허는 거 잇인가 헷지.

#1 엇어. 엇어.

@1 다른 걸로라도.

#1 단지 머릿기름 그자 머릿기름이나 헹은에 ᄒᆞ꼼 영 헤 주는 체 허주 이제 같이 에센스 같은 것도 엇고 머릿기름 경 허는 디도 엇어.

@1 머릿기름은 뭐 따로 그거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지예?

#1 아니, 아니, 안 나와.

@1 그럼 뭘로 헤?

#1 아니, 파는 거. 그냥.

@1 파는 거예.

#1 응. 그런 거 헹. 파마 허믄 그자 머리 꼼앙은에 그자 풀엉 가믄 그걸로 끗 허는 거. 옛날은. 이제 ᄀᆞ치 경 ᄉᆞ못 꼼져근에 막 이거 허고 저거 허곡 안 허주게.

면사포와 드레스

@1 삼춘 결혼헐 때는 그 삼춘도 와 가지고 하루 전날 왕은에.

#1 아, 동네난게.

@1 아침이 완 게믄, 전날 안 오고?

#1 응. 저녁에 왕 놀당도 가고, 아침에 왕은에 그냥.

@1 아침에 왕 화장헤 주고. 그믄 면사포는 삼춘 걸로 헨, 아니민 그 언니가 가졍 완?

#1 우리 걸로.

@1 삼춘 걸로. 삼춘도 웨딩드레스 안 입고 그냥 저고리 입엉 헷수과?

#1 우리 후젠 드레스.

@1 아, 삼춘넨 드레스?

#1 응. 드레스.

@1 아까 스물다섯에 결혼헷덴 헤신가?

#1 응.

@1 사십이 년에 스물다섯이면 육십칠 년. 그때도 드레스라낫구나예.

#1 그때 처음 드레스 나온 때. 게난 이제 ᄀᆞ치 막 요란스럽게도 안 나오주게. 그냥 수수허게 원피스 식으로. 영헨 드레스 경헤도 입언 헤낫어. 드레스도 막 길게덜 안 헹 그자 우리 한복 입엉 그자 발 안 보이게 헐 정도로. 그추룩헨 나올 때주게.

@1 그럼 면사포도 요즘 막 길게 하는데 옛날에는 길이가.

#1 경 길게 안 헤낫어.

@1 그니까. 어느 정도 뒈는고마씨? 허리?

#1 허리, 허리꺼지 나오는 것도 잇고 쪼끔 더 긴 것도 잇고.

@1 어. 삼춘이 집에 출장헐 때 가졍 뎅기는 건 어느 정도?

#1 쪼끔 긴 거.

@1 쪼끔 긴 거? 허리보다 더 긴 거? 엉덩이?

#1 어. 엉뎅이. 엉뎅이 밑에까지 쪼끔.

@1 엉덩이 밑에까지. 종아리, 허벅지 정도까지.

#1 허벅지꺼지.

@1 아, 그 정도 뒈는 거. 드레스 나왔을 때도 드레스에 면사포도 그 정도 길이꽈? 더 길어졋수과?

#1 마찬가지.

@1 마찬가지.

#1 그때도 마찬가지. 경 길게덜 안 헤낫주게.

제보자의 결혼식 장소

@1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헙디가?

#1 우리 이제 삼성.

@1 삼성에서. 그때 그 삼성에 딸린 사진관, 사진 찍으시는 분도 따로 잇고? 아니?

#1 그 삼성에가 사진사주게.

@1 삼성에? 예식장에 딸린 사진사예.

#1 응. 딸린 사진관.

@1 그럼 그분이 집에 와 가지고도 사진 찍어줘? 아니면 예식장에서만 찍어줘?

#1 그디서만 찍주게.

@1 예식장에서만.

#1 예식장에서만. 가족들이 다 그디 가주게.

@1 아, 그믄 예식장이 생기면서 출장 사진사들은 출장 가는 일이 줄어들엇겟다예.

#1 겐디 사진사도 그런 예식장 헌 디서 감주게.

@1 촌에 가근에 왜 옛날 마당에서 사진 찍어 주고 그거 허는 것도 줄어들엇겟네, 예식장으로 오면.

#1 그렇지. 건디.

@1 옛날엔 무조건 집으로 갓잖아마씨.

#1 집으로게. 거난 옛날엔 이런 데서 예식 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안헷주게. 그 당시에는. 출장이 많앗주.

@1 삼춘이 신식이엇네. 예식장에서 헷으니깐예.

#1 저 출장이 많앗주게. 그때는.

주례와 화동

@2 삼춘 결혼할 때 주례도 잇언마씨?

#1 주례 잇엇주게.

@1 누게가 주례 서 줜마씨?

#1 돌아가션. 송○규. 한림공원 그디 회장님. 돌아가션게. 그분.

@2 아, 맞아. 이 동네 이분이 많이 샀다고.

@1 아까 화동도 잇어낫덴 헨게마는. 아이들 꼿 뿌리는 거. 그런 것도 헙디가?
#1 아이, 우리, 우린 그런 거 안 헤연.
@1 그런 거 안 헨. 예식장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가?
#1 무사 안 허여? 허여.
@1 꼿 뿌리는 거 허지예. 아이들이 꼿 뿌리는 거.
#1 응. 이녁 가족이 허고 싶으믄 이제 애기들 헹 허는 거주게.
@1 아니, 그 집에서 결혼사진을 찍엇는데 거기도 꼿 뿌리는 아이들이 이십디다.
#1 응. 허여.
@1 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그걸 헷다는 거 아니꽈예.
#1 그렇지.
@1 예식장 아니고 집에서 헐 때도예.
#1 막 그냥 색종이 같은 거 막 잘라 놩은에 아이덜, 애기덜. 영 바구니 들렁.
@1 꼿 뿌리고예. 막 옛날부터 헤난 거구나예. 요즘에 허는 게 아니고예.
#1 응. 그건, 그건 옛날에부터. 옛날에 우선 그거 헌 거주게. 꼿 뿌리는 건 옛날. 이제는 안 헤도 그때는 옛날에는 꼿 뿌리는 걸 꼭 헷어. 시골에도.

예식장을 대신 했던 한림 이발소

@1 예식장 나기 전이, 막 그 학교 교실도 빌엉 허고, 어디 공회당도 빌엉 허고.
#1 공회당 같은 거 빌엉.
@1 예. 그런 데 빌엉도 헤낫덴 헙디다예.
#1 응. 공회당. 그런 디, 리사무소 그런 디.
@1 아까 어디 무슨 어디 이층 빌령 헷저 영허는 말도 하시고, 장소를.
@2 이발소.
@1 이발소 이 층. 한림에 이발소 이 층에서 헷덴 허멍은에 그런 말도 하시고. 건 예식장 나기 전인 거지예?
#1 나기 전에.
@1 고○자 삼춘이 한림 이발소에서 헷덴 헙니다.
민○?
@1 어디서 결혼헤시넨 허난 예식장에서 안 하고.
#1 아니, 그때는 경 널른 디 잇이믄 빌엉들 헷주게. 예식장이 별로 엇인 때난게. 민자가 우리보다 먼저 헷주게. 우리 동창이라도.
@1 응. 그니까 예식장 막 생기기 전에 헤신가.

삼성 예식장

#1 예식장덜이 가네 헐 때도 삼성 같은 디는, 집이 워낙에 널른 디니까.
@1 비쌋거나, 가격이 비쌋거나 아니면 뭔가 같은 날 다른 사람 예약 뒈 잇거나 이러면.
#1 그렇지.
@2 맞아, 맞아. ᄒᆞ끔 전이 고○순 삼춘이 삼춘네보다 네 개 위잖아예. 그 삼춘은 삼성에서 헷덴 헙디다.
#1 아, ○순이 언니?
@1 아까 거기 가 가지고 경로당 가 가지고 막 물어봣주마씨. 결혼헐 때 어떵 헙디가 헤근에 막.
#1 아, 그 언니도 삼성에서 헤낫구나게. 한림에는 그때는 삼성밲이 엇엇주게. 그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주예식장 헨에 허고.
@1 삼성이 제일 먼저 생기고.
#1 응. 삼성이 먼저 허연.

청첩장

@2 삼춘 결혼헐 때 청첩장도 돌련마씨? 그런 거 잇언마씨?
#1 우리 청첩장 돌렷수과? 현수 아빠, 우리 헐 때 청첩장도 헤수꽈?
#2 잇엇지.
@1 잇엇지. 혹시 그거 갖고 계셔마씨?
#1 에.
@1 다 데껴 붑디가? 기념으로 놔두시거나.
#1 우리 버리건데 얼마 안 뒈언. 이제 늙으난 미리미리 치우젠. 책장에 책이고 뭐고 다 버련.
@2 결혼사진은?
@1 결혼사진은 잇지예.
#1 결혼사진은 어디 실 거라.
@2 아, 그때 청첩장을 돌리는 시기마씨, 그때가?
#1 아, 그땐게 우리 아방 직원덜이나 허곡 학교.
@2 교직에 계셨으니까. 기구나게. 청첩장이 나온 게 오래뒈지 않아서.

미용사 호칭

@1 그 다른 사람들이 미용하시는 분, 출장 미용사한테 뭐렌 불러마씨? 이제는 미용사, 이렇게 미용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1 아유, 그때사 그런 예의 지키멍덜 뭐 불르지 안헷주게.
@1 그냥 이름 불러마씨?
#1 게. 어느 미장원 누구 이제, 그렇지게.
@1 그믄 삼춘한테 와근에 삼춘을 부를 때는 뭐엔 불르는 거라? 그냥.

#1 이름으로 그냥 불르지게.

@1 황자 언니 영 허는 거라?

#1 게. 경허주게. 그때는 경허연.

@1 어. 다른 미용사들 부를 때도 누게 언니, 누게 어멍 뭐 이렇게만?

#1 그때는 다 경헷주게. 그때는 예의 지켱은에 ᄉᆞ못 이제ᄀᆞ치 경 허질 안헷주게. 옛날이야.

직업으로서의 미용사

@1 미용사가 막 돈 하영 버는 직업 아니꽈, 아니?

#1 에그. 하영 버는 게 것도 크게나 허영 어떵 허민 헤도, 게도 요즘은 좀 단가덜이 세니깐, 단가덜이 세니까. 우리 헐 때ᄀᆞ치 안 혀난. 우리 할 때는 작게 받아도 또 돈 까치가 또 그만큼 헌 때주게. 경헷주마는 이제ᄀᆞ치 허믄 거 무시거 아무것도 아니주게. 돈 벌곡 뭐 허곡 허지 못할 때게 그때. 이제는게, 그래도 자기 기술 일이니까. 기술이곡 자기 집이곡 경허믄 여자 직업으로서는 괜찮아.

@1 그니까.

#1 평생 직업이니까, 근디 병신은 뒈메, 이것도.

@1 직업병이. 어디가 제일 아파마씨, 다리?

#1 어깨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1 아, 어깨랑 다리랑.

#1 완전히 거 상만 허는 거난.

@1 계속 서 잇어야 뒈니까. 손도 많이 습진 많이예.

#1 그렇지. 습진. 게난 장갑 껴덜 이젠, 우리 헐 땐 그런 것이 엇엇주게. 장갑이 엇엇주게. 그런 거. 이제는 다 미용 장갑 나오난 헤도. 그땐 그런 거 엇엉. 이제는 그런 거 다 끼엉 허난에. 경허고 또 한 번 머리 허믄 그래도게 이삼만 원씩 머리 파마 한 사람 허믄 허난 돈이 뒈지.

@1 파마 십만 원 더 줘야 뒈마씨 이젠.

#1 아이고. 우리 헐 때는 파마 헹 돈 못 벌엇어. 기자 신부화장이나 강 허고 게도 돈.

@1 ᄒᆞ꼼 벌고?

#1 이제 평생 직업이엥 헹 그것도 계속 헤져시믄 계속 했으믄 뒀지. 겐디 우리는 오래 안 헨 그자 헤부난.

@1 겡 그 번 돈으로 저 시집올 때 무신 거 헹 옵디가?

#1 아이고.

@1 아니?

#1 아니. 시집가는 것도 못 벌언. 난 돌아뎅겨 부난 어디. 일본 ᄒᆞᆫ 두어 번 갓다 왓다 헤 부난.

일본 밀항 이야기

@1 아, 그 돈 모아근에 일본 갓구나, 일본 가는 뱃값 헷구나예.

#1 게난 가지도 못 허곡 결국은. 가당 돌아오곡 돌아오곡 허연에.

@1 여기 남자 삼춘이영 결혼허렌 헌 팔잔가 보네.

#1 게난 세 번째 가젠 허난게 가지 못허게게, 거고 게난 왜냐하믄 그때는 밀항할 때난 막 형사들이 아는 우리 사람들이난 우리 어머니안티 양 삼춘, 어디 잇수과? 어디 가젠덜 앚아시카 부덴 그때 막 심으레 뎅겨낫주게. 경헨 헤 부난 우리 어머니 못 가게 허젠 시집보내 불언. 막 가젠 헐 때 또.

@1 그때 밀항은 여기 한림에서 배 타고 가마씨, 아니면?

#1 아니, 어디 시골로 강.

@1 어디로 강?

#1 어디 저 신창쪽으로 가당은에.

@1 신창?

#1 신창더레 가는 디 잇어. 판포. 판포, 판포 알아져? 판포 만양물이엔 헹 판포 가기 직전에 그 집들 엇인 디 잇잖아. 우리 글로도 가낫어.

@1 거기서 배를 대마씨?

#1 응. 그디 이디 절벽 닮은 디가 잇주게. 게믄 그 밑에 길가에서 사람 안 보이는 디. 거기서.

@1 그냥 고기잡이 배?

#1 아니.

@1 큰 배?

#1 크지.

@1 큰 배인데 그런 데서 세워근에?

#1 어. 그때는 고기잡이 허는 배보담은 큰 거난 크덴 헷주게. 겡 우리 뱃창 아래 강은에 누워, 밑에.

@1 곱아근에.

#1 응, 그디 강은에 누웡은에 글로도 한번 가나고, 우리 저 거제도로도 갓다 오고. 게난이, 산비탈도 막 내리멍 가, 거제도도 가믄.

@1 응. 배 타는 데가 공식적인 항구가 아니고.

#1 아니지. 건디 일본은 가난에 저 항구로 간 내려. 거긴 가난 인솔자가 한두 사람씩 가렌 허주게. 경헹은에 영헹 이제 놀레 갓당 가는 사람ᄀᆞ치 도모다찌 허영은에 이제 어깨동무 허렌 말을, 도모다찌 헹은에 영 그자 펜안허게 가렌. 의심스럽게 허지 말앙. 겡은에 배에서 영 보믄 여름이니깐 여섯 시 뒈믄 훤허주게, 해가 이만큼 나완. 게도이, 그디 바닷가에 그 고기 잡는 사람들 그물 만지멍 우리 배에서 내령 헤도 베린 체도 안 헤, 몰라. 한꺼번에 와르르 내리는 거 아니난. 그추룩 헹 우리 막 일본 강 인솔자네 집에 가기 전에이, 집 ᄎᆞᆺ지 못 허난 우린이, 모욕탕에 간이 모욕도 허곡, 경헹 갓어. 게난 이 한국 사람덜을 그 인솔자가 한국 사람들이렌 후로 허레 가믄 때 민덴 허난 경허지 말앙 샤워허는 식으로만 허렌 시켜 줘. 겨믄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거라. 때 밀고 영 막 몸 헤 가믄, 게믄 인솔자네 집 ᄎᆞᆺ을 동안 길가에 멧 바퀴 돌단 수상하게 생각허카 부덴 모욕허레 들어간. 경은에 후로 허영 나오면은 나가 강 찾아 봉 오켜 헨 인솔자가 허연에 우리 그때 헹 인솔자네 집이 간이, 한

이틀 살았어. 게난 우리도 델레 왓단 가건이 누가 밀고 옆에서 헤 부난. 경헨 걸련 그냥 와 불언.

다른 사람 결혼식

@1 삼춘, 삼춘은 언니나 누구 엇어마씨? 언니 엇어마씨?

#1 무사 엇어?

@1 언니네 결혼할 때 생각 안 남수과, 혹시?

#1 아이고, 우리 언니네 어느 옛날에 결혼헤난.

@1 게난. 그때 헐 땐 어떵 헷어.

#1 그땐게, 어떵사 헤신지 그자 집에서 잔치헴구나만 헷주 무신 따라간 보지도 안 허고. 예식이 어디 간 헤신지 말아신지 그것도 몰라.

@1 몃 살 차인디마씨, 언니가.

#1 나영 다섯 살.

@1 그믄 그 언니 결혼할 때 건 생각 안 나멘마씨?

#1 생각 안 나. 그자 집에서만 잇어난 것만 생각나. 우리 언니네 헐 때는 몰라.

@1 화장을 헤 주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지예. 삼춘이 헤 준 거 아니지예.

#1 아니, 아니. 아이구, 그때는 그땐 나 막 어린 때 뒈엇주게. 우리 언니도 어린 때 시집가난. 우리 언니가 스무 살에 시집가신가.

@1 아, 그믄 삼춘은 열다섯 살이난예.

#1 어. 경헤 부난에 원, 아무것도 몰라. 잔치헨 집이사 소님들 왓다 갓다 헌 것만 알주, 몰라. 몰라게.

@1 뭐 친구인데 화장을 헤 줘거나 이런 건 엇수꽈? 삼춘 친구인데 삼춘이 화장헤 주고. 돈 안 받고 헤 주고 막 이런 거 엇어?

#1 엇어.

@1 친구들.

#1 친구들은 우리 또래들이 먼저 시집은 다 가 불어도 나가 어디 뎅길 때 그 기간에 멧 년 왓다 갓다 허당 보난 난 결혼허는 아이들이 별로 엇엇주. 먼저덜 다 가 불언. 나가 우리 동창덜 중에 제일 늦게 간 셈, 그때는.

@1 아, 제일 늦게 간 거.

#1 예. 그땐 스물다섯 살에 ᄒᆞ끔 늦게 간 철.

부주

@1 그때 부주돈은 한 얼마나 헹 줘신고?

#1 그땐 오백 원.

@1 오백 원.

@2 불파마 값.

@1 보통. 불파마 값이영 ᄒᆞ꼼 비슷허게, 부짓돈을?

#1 오백 원. 우리 시집갈 때사게 돈게, 그거 무신 뭐 얼마 헐 때라게.

@1 부주 오백 원인데 신부 화장 만 오천 원이믄 잘도 비싼 거구나예.

#1 비싼 거주게.

@2 기술자여야 하는 거라예.

#1 것도 기술에 속헌 거주게.

@2 이 동네는.

#1 게난 그땐 화장하곡 면사포 값하곡 허난게.

방직공장 정보

@2 들어보면 다들 방직공장을 한 번씩 갓당 왓덴 헤신디 삼춘은 어떵허난 미용 기술 배웟수꽈?

#1 우리 언니도 방직공장에 가낫어. 아니, 우리 저 큰언니 말고 나 바로 우에 언니도 방직 가낫주게. 방직에 간디, 돌아가션. 일찍. 한 서른일곱에 돌아가셔 부난,

@1 일찍 돌아가셨구나. 방직은 어디 육지 간 거꽈?

#1 응. 대구게.

@1 대구. 응. 서울도 가낫덴 허는데 건 아니고 대구?

#1 응. 사모방직에.

@2 사모방직.

#1 옛날은 그자 사모방직 그런 디밲이 더 가? 커낫주, 그 방직이.

드레스 대여

@2 삼춘 결혼할 때 드레스 입엇잖아예. 그건 어디서 빌려준 거마씨?

#1 그거는 우리 후배 아이, 아까 그 문○숙이엔 헌 아이. 가이.

@2 미용실 허는 사람이 드레스도 가지고 잇언마씨?

#1 가이도 미용실 출련은 안 헤난.

@1 출장.

#1 응. 출장.

@1 건 예식장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미용사가 빌려주는 거?

#1 그때는 예식장에서 빌려주는 것이 엇언. 그자 미용사들이 자체에서 알앙은에 헤난.

예식장과 사진사

#1 예식장에 그때는 그런 저, 이런 거 출려 놓고 무시거 사진만 찍어 주고 그디서 예식 헹. 사진 찍기 위헤서 이제 예식장을 내놓는 거지. 그추룩 헹 헤난. 게난 예식장도 그때이, 돈 무신 얼마 경 벌거나 뭐는 못 허게 헤낫주게.

@2 게난 사진사가 하는 게 예식장인 거라예.

#1 그래.

@1 자기네 가게에다가.

#1 응. 자기 집이니까. 경허믄 한 군데라도 더 허잖아. 예식장에 왕 사진, 예식 허젱 허믄 사진을 거기서 찍어야 뒈니까.

@1 예식장비나 뭐 사진은 얼마 정도 받앗는지는 기억 안 나시지예.

#1 몰라.

신랑 혼례복

@1 이때 남자들은 옷은 어떤 거 입언마씨?

#1 양복.

@1 양복?

#1 양복.

@1 남자 삼춘 결혼헐 때 양복 입고 결혼헨마씨?

#1 응. 양복.

@1 그, 저 여자도 한복 입고 면사포 쓸 때도 남자도 양복?

#1 양복 입지. 그때는 모닝구엔[52] 헹 여자덜. 건디 우리 아방은 그 모닝구 안 입엉 양복입엇어양? 모닝구엔 헹은에 신랑 예복이엔 헹은에 이제 꼬리 긴 거. 영국 거 사람덜 입곡 그런 식으로.

@1 그거 모닝구엔 골암구나예.

#1 응. 그거 남자덜 그런 거 빌언 입어낫어. 건 아무나 것도 빌언 안 입엇주덜.

@1 누게가 빌려주는 거라 그 옷은?

#1 그것도 어디 빌리는 디가 잇엇주게. 사진사신디 말허믄 사진사가 어디 그거 강 헤 오고. 남자덜 모닝구는 그 사진사가 헤난. 게난 여자덜 우린 면사포백이 안 헤.

@1 사모관대는 안 하고?

#1 안 헤 봔, 그런 거. 쪽두리?

@1 여자는 한복 입는데 남자는 사모관대 쓰고 이렇게도 한다는데 아니고 남자는 다 양복 아니면 모닝구?

@2 양복 영 맞춰 입은 남자는 엇언마씨? 신랑 양장점에 강은에 신랑복으로?

#1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검은 양복덜게 상 입으믄게, 그거주게.

@1 거난 그땐 다 맞춰 입어실 거 아니우꽈?

#1 맞춰덜게.

@1 양장점, 아니 남자 옷.

52) '모닝구'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상복이나 연미복을 말한다.

#1 남자덜토 양복덜 다 그때는 기성복이 얼마 안 나올 때니까 그때는. 다 맞추왕 입을 때주게.

@1 결혼헐 때 남자 양복 하나 헤 주는 거꽈, 신부가?

#1 허여 주는 디도 잇곡 안 헤주는 디.

@1 삼춘은?

#1 난 안 헤 줘. 난 돈 번 거 엇이난 안 헤 줘.

@1 아니, 그믄 남자집에서는 여자 한복 헤 준덴 헙디다.

#1 응. 한복.

@1 그믄 여자 집이서는 남자 무신 거 헤 주는 거라?

#1 아무것도 안 헤 줘실 거라.

@1 아, 여자만 받고?

#1 어. 여자는 가믄 거 저 면사포 벗이믄 거기서 옷 한 벌 헤 주믄 그거 갈아입는 거.

@1 응. 한복 입는덴.

#1 응. 그거 그냥. 거난 옛날에는 옷도 그거 한 벌, 한 벌 헹은에 그디서 갈아입언. 게난 자기가 다 한복을 만드는 거라.

@1 자기 입을 거 자기가 만들어서? 삼춘도 삼춘 거 만들엉 입읍디가?

#1 아니게.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허영 간다는 거지. 신부 집에서 여자 입을 옷을. 남자 쪽에 가면은 한 불 헤 주면 이제 갈아입는데, 이제 그거 한 불로 못 입으니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 쪽에서가 허는 거지. 준비하는 거지. 여자 쪽에서 두어 불. 그땐 한복 입을 때니깐이.

답례품과 손수건

@1 뭐 결혼식할 때 답례품 같은 것도 잇고 헤낫수꽈? 요즘은 막 상품권 줌주마는예.

#1 그때는게 무신 손수건, 아니면은 이제 뭐 버선, 그런 거.

@1 그건 그 답례품은 잔치 먹으레 온 손님들 주는 거꽈, 친척들.

#1 아니게. 그 저 신부덜 저 신랑 친구덜 허곡게, 영헹 신부 친구덜 허곡 경헹 주는 거주게.

@1 손수건 파는 거 얘기하는 거꽈? 아니고?

#1 파는 거 상 허는 사람도 잇고. 보통 사당 허지.

@1 누구한테 주는 거라? 신랑 친구들?

#1 신랑 친구들.

@1 신부 친구들.

#1 응, 응. 뭐 친척덜 주는 것이 아니고. 거 버선 같은 거는 헤 가믄 친척들 이제 하나씩 주지.

@1 잔치 먹으레 온 사람들 주는 건 아니고?

#1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는 이제 이 상품권으로 헤영 영 헹 허는디 그런 것이 엇주게.

@1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엇어낫구나예.

#1 옛날에는 이제, 뭐 몰라. 돈으로 서로가 부모덜끼리는 이제 부모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네사람이라

든지 그런 거는 줘신디 몰라도 신부는 별다르게 허는 거 엇이메. 손수건, 보선 그런 거.

@1 혹시 이런 거 결혼할려고 하면 막 계 같은 거 헤근에.

#1 그런 것도 허는 사람덜은 헷주게.

@1 무신 계, 무신 계 허멍근에 뭐 살 것도. 궤도 하나 준비허젠 허믄.

#1 그렇지.

@1 예. 그런 것들 삼춘 안 헤 봣수가?

#1 우린 계로 안 헨 그냥, 직접.

혼수품

@1 시집갈 때 무신 거 헹 갑디가?

#1 무신 거 난. 아유, 그때는이 가구도 별로 허는 거 엇어.

@1 궤는 하나 헹 간?

#1 어게. 농 하나 허고, 농 허고 궤 허고.

@1 이불은 몃 채 헙디가?

#1 찬장허고. 이불 세 개, 세 개.

@1 이불 세 개? 아까 그 경로당에서 막 난 다섯 채 헷저, 막 난 네 채 헷저. 막 골읍디다게.

#1 우린 세 개.

@1 경 헤도 안 헹 간 게 아니네. 농도 허고 찬장도 허고 이불 세 채 허고. 하영 헤신게.

#1 궤에.

@1 궤에. 아까 돈 벌어 논 거 엇이난 안 헷덴 헨게마는.

#1 그거믄 충분, 시집갈 때.

@1 그건 어떵 시껑 가? 트럭에 시꺼?

#1 응.

@1 그 결혼식 당일 날 헙니까, 미리 그거.

#1 미리 가져가는 사람, 미리 가져가메.

@1 미리 보내는 거 아니?

#1 미리 전날이, 전날덜 가져가메.

@1 아, 전날덜 미리 가졍가.

#1 잔칫날 복잡허게 그거 경허젠 안 허주게. 하영 헤 가는 건 아니라도이.

신부님의 찝차

@1 삼춘은 트럭 저기 탕은에 가수꽈?

#1 완전히 기본이라. 그게.

@1 아, 그게 기본이라.

#1 우리는 트럭은 아니. 저 짐만 시꺼 간.

@1 택시?

#1 그때는 택시도 어려운 때라이. 우리는이, 우리 ᄉᆞ춘시아주방이이, 저 그 찝차, 찝차이, 왜냐하면은 신부님 차라낫, 신부님 차를 탓주게. 우리 시아주버님이.

@1 아, 성당에 다니는 신부님.

#1 저 임 신부님 이신 때.

@1 요기 성당에, 한림성당에?

#1 어. 한림성당에 잇고 또 한림성당에 잇단 또 이시돌 간에 헌 때. 게난 그 차로 우린 허연. 그 찝차. 그때는 경 안 헤시믄 택시나 경 안 허믄 무신 추럭, 추럭 허영 앞에덜 영 헤영은에 허는 사람이 많앗주게. 겐디 우린 추럭 안 헨. 것도 시아주버니가 거기 잇이난에 그 차로 허연.

@1 기구나.

@2 생생하다예.

@1 옛날 헤난 거 다 생각남신게마씨.

#1 글아 가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

@2 딱 중요한 시기에 미용 하셔신게. 우리가예 찾는, 우리가 찾는 미용사가 딱 그분들이거든예. 삼춘처럼 딱 집에 가서만 허주신 거, 딱 고 시기에. 딱 삼춘 잘 찾아 와신게마씨.

@1 지금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젊고.

#1 너무 젊고. 또 신식이고.

@1 예. 그거는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고.

#1 그렇지. 구식인 거.

@1 예. 옛날 헤난 말 들어보젠 헹은에예.

부케와 코사지

#1 경허난이 이제는 부케 하나 영 꼿 하나에 영 들렁 간단하게 영 영 새각시덜 영 헹 꼿다발 안앗주게.

@1 아, 요렇게 뒌 게 아니라 요렇게.

#1 응. 응. 꼿다발 영 헹 옆으로. 옆으로 이거, 이것이 꼿이믄 영 헹은에 길게 꼿을 이만큼 만들주게. 길게 길이가. 경헹 여기다 이렇게 꼿을 막 만들엉 곱게 둘아멩 그레 부쩡. 실로 이제 그레 다 무꺼. 꼿 만들엉 영 실 무끌 때 길게 남겻당 그거 이제 그 나무에 동백나무 헤당은에 가지 가지에 곱게 이제 균형 맞촹은에 그거 둘아멘 거. 게민 신부는 그거 주믄 흔착으로 영도 못 허고 양쪽으로 영 가져야 뒐 거주게.

@1 남자 코사지도 헤?

#1 응.

@1 그믄 그것도 삼춘이 만들엉 주는 거?

#1 응. 그거 헹 만들어 주민 그디 꼽앙.

@1 아. 저 신랑 거하고 신부 것만 헤? 요즘은 막 신랑 아버지 것도 하고.

#1 아니. 저 신랑 아버지 거 허진 안 허곡 저 들러리.

@1 아, 들러리 건 헤. 들러리가 부신랑 부신부지?

#1 부신랑.

@1 부신랑 거. 부신랑 코사지, 신랑 코사지, 그다음 신부 부케.

#1 신부.

@1 그걸 다 준비헹 가는 거구나.

#1 어. 다 다 만들엉 가야 뒈어. 거난 만 오천 원 받아도. 이제 그걸 실세로 따진다면은 경 자 복잡헤영 안 허젠 허주게. 그런 거 안 허젠. 게난 이제 얼마나 간편헹 좋아게. 부케이, 부케 하나 딱 헹은에 그냥 간단허게시리 헤근에. 그때는게, 이제는 부케 하니깐 부케 받을 사람 헹 주기도 허지마는 그땐 그런 것도 없엇잖아.

@1 그믄 그거 헤난 다음 어떵 헤?

#1 그냥 헤영은에 신부가 가졍 가믄 그자 거기서 아기들이 꼿이엥 허믄게 다 도렌덜 헹은에 주는 사람도 잇고 어디레 내불고 헤실 테주게. 우리는 일단 줘 불믄 관여를 안 하니까.

@1 그 꼿 그거 하나 만들젠 허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마씨?

#1 아고, 시간은 게도 혼자는이, 그것도 만들젠 허믄 시간 꽤 걸려. 한 서너 시간이 걸려.

@1 그믄 주문 받으면 그때 언제 누게 잔치여 허믄 그때 멘드는 거꽈, 미리 만들엉 놔두는 거꽈?

#1 아니, 미리 안 만들어.

@1 미리 안 만들어.

#1 가기 한 전 날 한 이틀 전에 영 헨 만들엉.

@1 예약 들어오민 그때 헹 만들엄구나예.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이신가, 뭐 이런?

#1 아니, 신부가 들르는 꼿은 꼿다발로 하여튼 이렇게 만들엇든 저렇게 만들엇든간에 이제 미용사 재량에 맡기는 거지, 그거는. 게난 다 그냥 꼿 허믄 경 안앙 가게끔덜만 헐 때주게. 그때는.

@1 밑에 리본 같은 것도 달아?

#1 아니. 아니, 리본이 아니라 그 꼿다발 허믄 꼿대 영 허믄 받침대가 잇기는 있어야지.

@1 건 뭘로 헤?

#1 하얀 종이로.

@1 종이로.

#1 하얀 종이로 헹 거기 무슨 실 그 밴드 닮은 걸로 영 무꺼근에 리본 식으로 그자 영 허영.

@1 그런 것도 미리 다 그면.

#1 다 헹 있어야 뒈.

@1 준비헹 놔 둬야겟네.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깐예.

#1 응. 모르니깐. 만드는 것만 그때 닥쳥은에 만들고. 다 준비는 다 뒝 있어야 뒈. 기본적인 건 있어야 주게.

심부름 헤 주는 사람

@2 아까 삼춘 뭐 한 집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집도 가고 헷다 헷잖아예, 최대 몃 집까지 같이 헤 봔마씨?

#1 두 집 이상 못 허메.

@2 두 집 이상 못 허여.

#1 혼자 하는 거난이, 두 집 기자 같이 영 나 보조헤 주는 사람 영 허영은에 이디 출려 줘 둥은에 이제 시간 맞추왕 또 딴 쪽 가주게.

@1 일 도와 주는 사람도 잇어낫수과? 그치?

#1 응, 같이 나영 강은에 심부름허는 사람 잇어야 뒈어. 혼자만 거 가졍 강은에 거 못 허주게.

@1 그믄 그 사람한테도 돈 줘야 뭘 거 아니꽈?

#1 줘야주게.

@1 그믄 만 오천 원 받으믄 다 내 게 아니네. 그 사람도 줘야 뭘 거 아니꽈.

#1 게. 심부름 값도 줘야 뒈주게.

@1 그니까. 재료비도 줘야 뒈고. 다 나 일당이 아니네.

#1 계산헌덴 허믄 경 뒈는 거주게.

@2 둘이서 무조건 세트로 다녀야 뒈는 거?

@1 두 명은 같이 다녀야 뒈는 거?

#1 응. 둘이 다녀야 뒈어. 게도 손발 맞게 심부름 헤 주는 사람이 잇어야 시간이 바쁜 때 탁 탁 허게 허주. 경 안 허믄 못 허주게. 거기 잇는 사람덜 몰르주게.

@1 그 사람은 미용 전문가는 아니고?

#1 아니. 전문가 아니.

약혼

@1 혹시 약혼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헤낫잖아예. 결혼식장에서 말고.

#1 집에 상견례 집에서 허는 거지. 신부 집에 왕.

@1 그렇게 할 때는 미용사가 필요하지 안헤?

#1 아니. 건 상견례, 상견례. 이제는 상견례 할 때 어디 뭐이, 강은에 호텔 같은 그런 디 강 허는디 그때는 신부 집에 저 돼지 다리 하나 가지곡 이제 출령은에이, 그추룩 헹 와낫어. 거난 것도 옛날이주.

@1 우리 어머니네는 보니까 약혼 사진을 사진관 강 사진을 찍엇더라고마씨.

#1 어머니 몃 살인데 지금?

@1 어머니, 어머니 사십칠 년생. 그니까 약혼식 헷던 사진, 약혼식이 어떤 행사가 잇는 게 아니라 약혼식 사진이 잇더라고마씨. 약혼식 사진 이렇게 헤 가지고.

#1 기념으로 강 둘이 이렇게 찍는 거.

@1 둘이 찍은 거. 이거 무슨 사진이녠 허니까 약혼식 사진이렌 곧더라고마씨.

#1 약혼식 때 찍은 거. 다들 겅헷주게.

@1 집이선 밥 먹고, 그날 강 기념으로예.

#1 영 헹은에 이제 사돈 뒌 어른덜 왓당 가 불믄 이제 강, 지네덜끼리 강은에 사진 찍곡. 사칠 년생이믄 우리보다 한 오 년 차이구나. 어딘데, 시에?

@1 아니마씨. 저기 우린 안덕.

#1 아, 안덕.

@1 모슬포에서 결혼헷덴 헙디다.

#1 게. 안덕이믄.

동료 미용사

@1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셨던 분들 아시는 분이 잇거나 이러지는 않아마씨? 제주시나 모슬포나.

#1 다 이제는 우리 헐 때 우리 또래덜은 이제 다 이젠 설른 지가 오래 됌고 어디 강 살암신지도 몰르고 경헤.

@1 연락하는 사람은 없구나예.

#1 엇어. 엇어. 우리 헐 때 헤난 아이덜도 다 시에 강 살아 부난, 원 연락들 엇이난. 모르주게.

@1 삼춘 활동헐 당시에 육십 년대 후반예, 그때 쯤에 여기 한림에는 삼춘처럼 출장 미용하시는 분들이 몃 명 정도 잇어난마씨?

#1 그때는 쪼끔 미장원 출령 허는 사람덜도 다 출장 갓주게. 그때는 다 미장원에도 왕 안 헹덜 출장으로 경헐 때라노난.

@1 미장원 몃 개 정도 잇어나고.

#1 미장원 그때는 두어 군데 셔나신가.

@1 한 두 군데 정도 잇고. 출장 미용하시는 분들은 한?

#1 미장원 때도 나 애들만은 이제 서이.

@1 그믄 한 다섯 명. 한림만 다섯 명 정도 있엇네예. 한림만 최소 다섯 명예.

@2 아, 생각났다. 문○숙 씨는 김○희 삼춘 머리 헤 주신 분.

#1 김○희 머리 헤 줫덴?

@2 예. 맞아요.

@1 이름 들어난.

#1 문○숙이게.

@2 여기 그 미용실 헤낫잖아예. 길에, 요기 큰길에.

#1 한림에서?

@2 응.

#1 아니.

@2 아니마씨?

#1 아니.

@1 문○숙 씨렌 헷던 거 닮은디.

#1 가이 옹포서나 쪼끔 헤나신가. 가인 경허믄 그자 어디 면사포 필요허믄 나신디 왕 가졍 가고 또 나도 필요허믄 가이 거 갖당 허고 경헨.

@1 저희가 물어볼 거는 다 물어 봤는데 아이고 이런 것도 잇어나신디 헹 삼춘이 더 골아줄 말은 엇수과? 엇어마씨?

#1 엇어. 엇어.

@1 고맙습니다.

머리하는 방법

#1 (사진을 보면서) 이건 컬.

@1 컬. 요렇게 끼우는 거예.

#1 응. 이추룩 허는 거. 요걸로 감앙 요걸로 컬로 허영은에 머리를 이제 내리와 오는 거주게. 이제는 이 고데기 하나 그걸로만 전기로 허니까 영 싹 싹 허지 안허멘. 그때는 불로 헐 때난이 요걸로 머리 말앙 요거 우일로 씌왕, 씌왕 그걸로 이거 내리와 오는 거.

@1 삼춘도 이걸로 쓴 거 게난? 고데기는 다 이 모양이꽈?

#1 응. 다 이거. 다 이거.

@1 요렇게 헤 가지고예. 가근에 우리 미용실에예, 이렇게 끼왕 이 삼춘은 전기로 허는 걸로 헷덴예.

#1 응. 전기인게.

@1 요렇게 끼와 가지고예, 요기 전기 꽂앙 이레 끼왓당 빼 가지고. 요렇게. 미용실에 갔는데예 이십디다게.

#1 우리 헐 때는 완전히 불에.

@1 아, 완전히 불에. 이건 안 봐납디가, 이런 건?

#1 아니, 보기사 봣주마는 이걸로 허지 안 헤 봔.

@1 삼춘은 써 보지 안 허고.

#1 고데기는 다 마찬가지. 같은 거.

@1 요 가위는 다 똑같은 거고. 요걸 어떻게 달구느냐 하는 거네예. 어떵 뜨겁게 만드느냐 하는 방법이 전기로도 허고 숫으로도 허고.

#1 숫으로도 허고.

@1 연탄으로도 허고.

#1 그렇지.

@2 쒜는 똑같은 거 아니마씨?

#1 거난 이거는 다 같은 거, 기구는.

@1 기구는 다 같은 거. 아까 이건 이름 뭐고, 이건 이름 뭐라고?

#1 컬.
@1 이건 컬. 요건?
#1 요건 그냥 고데기고.
@1 요건 고데기고 우에 끼우는 거는 컬이렌 곧는구나예.
#1 몰라. 이젠 뭣이엔사 헴신디.
@1 삼춘네 헤난 말이 궁금헌 거지.
#1 우리 헐 때는 것ᄀᆞ라 컬이엔 허주게.
@1 게믄 요거는 삼춘 요런 가위허고, 요런 컬하고 고데기는 하나밲이 엇어난 아니믄? 보통 몃 개 정도 가졍 잇어난?
#1 두 개, 두 개.
@1 두 개 가졍 잇어난. 삼춘은.
#1 하나만은 안 뒈어.
@1 하나만은 안 뒈어. 아, 끼워 놓고 달구는 동안 또 헤야 뒈니까. 최소 두 개는 잇어야 뒈겟네.
#1 아니. 이거 세트로 세트로 두 개씩 허영은에.
@1 세트로 두 개씩은 있어야 뒈겟네예. 경 헤야 하나 달구는 동안 머리 말고.
#1 그렇지.
@1 그믄 요렇게 세트가 두 개씩은 잇어야 고데를 할 수 잇인 거구나예.
#1 하나만 헤도 허주마는 이거 하나로 허젠 허믄 좀 오래잖아. 이거 달구는 시간에.
@1 달구는 시간도 있으니까. 맞아.
#1 게난 여유분이 있어야 뒈.
@2 이건 그때 어디 강 산마씨? 시에?
#1 시에. 이거 이런 거 미용 기구 파는 디가 잇어.
@1 어느 짝에 잇어나신고, 옛날에?
#1 이제도 어디 서문통 어디 그때 잇덴 허던데. 게난 이거 이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믄 미용 재료 ᄑᆞ는 디 가믄 미용 약이영 뭣이영 이런 거영 다 풀주게. 한밧디. 그디만 가믄 팔아.
@1 옛날엔 특별허게 약 같은 거 안 하신 거 아니꽈?
#1 파마 약.
@1 아, 파마 약. 불파마도 파마 약 헤야 뒈?
#1 약 헤야지.
@1 아, 난 고데 허는 식으로만.
#1 아니. 아니.
@1 약도 헤야 뒈는 거.
#1 약 허여. 머리 끼왕은에 약 볼랑 로또로 이레 말아. 경헹 이제 불 허영은에 끼우고.
@1 먼저 약을 발라. 거난 안 풀어지는 거구나게, 예. 고데 허는 식으로만 허믄 금방 풀어져불 건디.

#1 그렇지.

마을 파마하는 날

@2 그 아까 모집허영은에 파마허는 디도 갓다 왓덴 헌 거 아니예.
#1 응.
@2 누구네 마을에 파마 올 거난 영 파마 헐 사람 모입서 영 허는 날이 잇어마씨?
#1 그 동네서가 모영 왕 헤 도렌 허주게. 경허믄 그디 강 헤여.
@1 어디 강은에 그건 헤 봅디가?
#1 이 저 한경면게. 것도.
@1 웃드르?
#1 판포도 강 허고. 그런 데 가면 한꺼번에 한 열 사람씩이, 한 열 멧 사람씩 경 허믄 많으믄 그디 잣다 근에 이틀씩 헹 오곡 경 헤난.
@1 그건 주로 불파마?
#1 불파마, 그때는.
@1 그믄 불파마 갈 때도 혼자 안 가고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거 아니?
#1 아니. 둘이, 둘이.
@1 아, 도와주는 친구하고 둘이 헹 가는 거.
#1 응, 둘이. 게난 가이도 나영 헤여나난에 그거 저 쪼끔 배우난에 미용실 출련 ᄒᆞ끔 허단 한림 시집갓 단 죽엇덴. 죽언, 엇어.
@1 그믄 불파마는 아까 오백 원이엔 헌 말인가?
#1 응, 그땐 오백 원 헐 때.
@1 그믄 그디 저기 삼춘들 한 열 명 헤 봐야 오천 원이네.
#1 그 돈 오천 원이믄 컷지.
@2 왜냐면 신부는 만 오천 원 받앗덴 허니까.
#1 거난 신부 허는 건 화장헤 주지, 면사포 빌려 주지, 그러니깐 만 오천 원.

화장품

@2 마사지도 허고.
@1 화장품도 내 화장품 가져가서 헤 주는 거니까.
#1 어, 게. 우리 걸로 다 헤 주난.
@2 화장품도 막 비쌌을 거라예, 그땐예.
#1 비싸나마나 여러 가지 안 헐 때난게, 그땐.
@1 풀레 뎅기는 삼춘 잇어나지 안헨마씨?
#1 방문 판매허는 사람들. 우린 그런 디 안 사.

@1 아, 그믄 삼춘 어디 거 써?
#1 그냥 가게, 시에 강은에.
@1 아모레?
#1 아모레 거 많이 썻주게, 그때는. 아모레 많이 썻어.
@1 그거 나오기 전인 아모레 나오기 전이는 뭐여신고?
#1 우리 그때는이, 막 저 일본 거.
@1 어, 일제. 맞아.
#1 그런 화장품 썻주게.
@1 무조건 일제지.
#1 분도 그 일제로 쓰고, 화운데이션 같은 것도 일제가 확실히 좋았어, 그때는. 우데나구리므엔 허영은에 그 크림이 우데나엥 허믄 최고로 좋은 화장품이라낫주게. 일본거.
@2 우데나.
@1 우데나.
#1 우데나 크림.
@1 그믄 저기 크림만 말고도 스킨 로션도 다 우데나가 제일 좋은 거?
#1 아니, 게난 그거는 스킨 같은 거는 일본 거 못 써 봣어. 우데나 크림 허고 뭣고 저기 화운데이션, 분.
@1 그건 우데나가 최고로 좋은 거.
#1 응. 최고. 제일 좋은 화장품이라.
@1 그럼 화장품을 뭐 쓰느냐에 따라서도 선택의 기준이나 가격이 달라지거나 이렇겐 안 헤?
#1 아니, 경은 안 헤. 잘 헤주기 위헤서 좋은 거 쓰는 거니까.
@1 돈 벌기 위헤서는 싼 거 써야지.
#1 아이, 그건 안 뒈지.
@1 그건 안 뒈.
#1 화장발이 안 나지. 다르주게.
@1 아, 먹는 게. 아무래도.
#1 그렇지. 게난 화운데이션도 일산이 그렇게 좋아. 이제는 여기 거 좋은 거 나왕 허난 헤도 옛날은.
@1 일부러 부탁헹은에 일산을.
#1 응. 일본 뎅기는 사람들게.
@1 아, 사다 도렌 헹은에. 경헹은에 헷구나게.

집안 식구들 머리 손질

@1 삼춘은 근데 머리도 안 헹은에 무사 영헹 잇수과?
#1 나 머리 막 여름이난 이거 끊어 불언.
@1 끊어 불언?

#1 난 이거 처음으로 이축 끊언게. 경허난이 막 어색허연.
@1 삼춘 머리는 삼춘이 직접 헤?
#1 아니.
@1 그냥 미용실 강?
#1 응. 미용실에 강.
@1 집에서 옛날엔 애기들 머리도 다 삼춘이 잘라 주고 헤나수과? 할 줄 아니깐에.
#1 한 멧 년, 일이 년 전에만 헤도 우리 며느리도 집에서.
@1 삼춘이 헤 줜? 삼춘이 파마도?
#1 응. 파마 헤 주믄 그냥 또 그다음은 드라이 그냥 영 영 헹 뎅기난. 건디 나가 이제는 이거 팔 수술허고 헤 부난. 우리 손지도게, 파마 막 허멍 좋앗주게.
@1 삼춘이 다 헤 줜?
#1 집이서 헐 중 아난 그거게, 파마사게, 로또 말앙 영 머리만 자르기만 허믄 뒈는 거난.
@2 기술이 있어서.
@1 그믄 그거 안 버령 다 놔둡디가? 그런 거?
#1 다 버령 로또만 쪼끔 잇어.
@1 지금 놔 둔 건 엇수과? 다 데껴 불언?
#1 응. 이젠 하나씩 죽기 전에 설러 불젠, 치우젠 쓰레기. 메느리들 이제 쓰레기 많이 치우지 못허주게.
@1 게메, 경은 헌디 아까웡. 우리 같은 사람들 왕 ᄒᆞ끔 보여 줍서 헐 수도 잇는데.
#1 경헐 중 알아시믄 놔두컬게.
@1 거난 아까 그 고데기도 아까 미용실 간에 느네 이런 거 봐나시냐 영 허멍은에.
#1 나도게, 고데기 잇어나신디 어디사 가 불어신지 엇어졋어, 것도. 것도 엇어젼게. 이젠이 우리 메느리도 경허난 어머니 눈 딱 끔안 데껴 붑서, 하간 거 경 허주게. 할망들은 아까완게. 버리기 아까왕. 써지진 안 허곡.
@1 나도 아까왕 못 버려.
#1 경헨게. 그축 헷단 요번에도 그냥 저 우리 아저씨도 그냥이, 책이 아까완이 경 헤도 푸대로 멧 개, 열 개 허고 이제 경 헤도 셔. 책은 드러 사놘게.
@1 맞아마씨. 우리도 집에. 보지 안헤도 막 데끼지는 못 허고.
@2 경헤도 기술 있으셨으니까 손지들도 계속 헤 주고.
#1 여자는 직업 이거 배와지믄 좋은 거. 평생 직업 뒈어. 가정을 가져서도 헐 수 잇는 거주게. 나는 어떵 어떵 헹 못 허게 뒈 부난.
@2 게난 잘도 찾아와져수다게.
#1 게난 둘이 다 안덕?
@1 아니, 아니 야인 제주시
@2 아니 시에 아이. 완전 시에.

불파마 2

#1 경 헹 두세 사람 끼울 걸로 ᄒᆞᆫ 짐 넘주게. 게난 혼자는 못 다녀.

@1 롯드 아까 롯드 말앗덴 헷수게. 롯드가 영 파마 영 마는 거?

#1 응. 그거 ᄆᆞ는 거.

@1 플라스틱으로 나온 거예. 영 말면 아까 영 끼운 덴 헷잖아예. 요 끼우는 건 무신 거라?

#1 그거? 세트. 세트엥게.

@1 요건 롯드 요건 세트.

#1 불 놩 허는 거. 세트.

@1 여기가 불이 들어가는 거라.

#1 응. 집게 같이 영 두 개로 영 뒈주게. 뒈믄이, 영헹은에 빨래집게 같이 영헹 벌령은에 그레 로또 끼우는 거. 불 양쪽에 다 담앙. 게난 저 숫이 요만큼씩 헌 거 한쪽에 두 개씩 들어가. 게믄 하나에 네 개가 들어가지. 응. 경헹 허믄.

@1 그믄 숫도 다 챙경 가야 뒐 거 아니?

#1 그렇지.

@1 그거에 맞는 숫이 있을 거 아니꽈, 크기가?

#1 ᄑᆞ는 거. 그거 ᄑᆞ는 거. 아무 디나 엇이는 거, 것도 미용 재료상에 ᄑᆞ는 거. 그거 헹 허는 거. 그거 엇이믄 파마 안 뒈는 거게. 그냥 숫은 안 뒈.

@1 일반 숫은 끼우지도 못 허커라.

#1 끼우지도 못 허지만 그 열 관계, 열이 틀려. 파마허는 거 하고.

@1 번개탄 같은, 지금 번개탄 같은 건가.

#1 어. 그것이 비슷하게 나온 거. 건디 굉장히 그 숫 자체가 굉장히 가늘고이 그.

@2 잘 안 타고? 천천히 타고?

#1 아니, 천천히 타곡. 뭐엔 ᄀᆞᆯ으믄.

@2 재 안 나왐신가.

#1 입자가 굉장히 곱게 나온 거, 틀려. 입자가 굉장히 가늘게 나온 거. 막 우리 방앗간에서 떡가루 헌 거 같이이. 그축 헨에 나오는 거. 거 아무 디나 엇이는 거주게.

@2 불파마도 삼춘 딱 고 시기에만 그다음엔 엇어져 부난예. 불파마도 딱 요시기에만 헷다고 하더라고예.

#1 그렇지. 옛날에는 불파마만 헷주기게.

해녀 파마

#1 그 이제 막 해녀덜이 육지 물질 허레 가젠 허믄 또 파마 이디서 헤영덜 가젠이, 경헹 저 이 그런 디는 모집허영이 오믄게 하루에 풀아질 거 아니, 경허난이 모집허영덜이 파마 허영은에 육지 물질허레 가곡, 해녀덜. 경헷잖아.

@1 거난 육지 물질허레 가기 전이 다들 파마 헹 가는 거.

#1 어. 경하지. 그디 가믄 어디게, 육지 강 어디 물질 허젠 허믄 파마허레 갈 시간도 엇곡 경허난 그추룩 헹은에 물질허는 해녀덜이 막 모집헤영은에 파마 왕 헤여 ᄃᆞ렌 허주게. 그축 헨 뎅겨난.

@1 그믄 강은에 해녀들.

#1 응. 이젠 해녀도 얼마 없고 헤 부난 이젠 또 마을마다 이젠 또 미용실덜도 잇고게. 그축 허난 헤도. 옛날엔 미용실도 엇어 노난. 촌에선게 다 한경면에선 한림 와야만 헷주게. 그때는 파마를.

@1 한림이 제일 큰 도시니까 여기서는예.

#1 이제는 첨 집집마다 미장원이주마는. 이젠 미장원도 너무 많앙게.

@1 겅헤도 비싸마씨.

@2 해녀 물질 가기 전에 재미잇다. 모집헹 머리 하고. 협재도 가나실 거우다예, 그면.

#1 아니, 나 협재는 안 가 봔.

@2 협재는 아니.

#1 협재는이, 아니, 협재는 그때이 허는 집이서 우리 ᄀᆞ치 허는 사람이 잇어낫어. 어른. 근데 그 언니가 거 허단 부산 강 사는디. 그 언니는 협재서 헤나 부난 그디는 안 가 봔.

@2 지역에 누구 이시믄 거긴 안 가고.

#1 꼭이 우리 저 ○완이 처 닮은 아인게.

@2 나 메느리 닮아신가? 이 집 메느리? 누게 닮안마씨?

#1 우리 남동생네 메느리가 꼭 이 닮은 아이, 게난.

@2 어디서 봐난 아이.

#1 야이 ᄀᆞ치 키도 크고 얼굴이 꼭 닮안.

@1 남자 삼춘이 ᄀᆞᆯ아 줍서. 닮아수꽈?

#1 남자 삼춘은 몰르주기. 새각시 ᄒᆞᆫ번 봐나 부난 몰르주기.

@2 기구나. 삼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13.

구좌읍 세화리 양경순 · 한정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9월 5일
- **조사 장소**: 오고파 헤어샵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양경순 #2 한정자 #3 양경순 씨 언니

제보자 정보

@1 성함이 어떵 됨수과?

#1 양경순.

@1 멧 년생마씨?

#1 사구 년생.

@1 사십구 년생. 그 원래 고향이 어디꽈?

#1 우리 한림읍 월령리. 선인장 마을이주게.

@1 선인장 마을. 예. 경 어떵 세화리 온 거꽈?

#1 어이구, 세화리 촌 사람 만난 왓주.

@1 원래는 월령린디?

#1 원래는 월령린데 우리 언니가 월정리에 시집을 왔어. 월정리에 시집오니까 우리 언니가 여기에 세화리, 그때 나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을 때. 경헐 때 우리 언니가 여기 와서 미용실을 허라, 한번 헤 볼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어, 나는 생각을 안 헷주게. 나는 부산에서만 그냥 계속 할 때니까. 겐 그기서 옛날은 우리 부모님들이 육지, 즉 말허자면 이제 부산에서 그 미용 생활을 헷는데 육지 사람아피 혹시나 그디 가면은 그디 사람허고 결혼허영 살아 불카 부덴.

@1 눈 맞으카 부덴?

#1 어. 경 허카 부덴 이제 전보를 쳔에 오렌, 빨리 오렌.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빨리 들어오렌. 겐 완 보니까 이제 미용실을 하나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요기에 비어 잇는 데가 잇어 가지고 그거를 인수를 받아 있었어. 경 헨에 완 살단 보난 여기 신랑 만나고 헨 살앗주.

@1 아, 미용실을 먼저 출렷구나예.

#1 어. 미용실 먼저.

@1 그민 세화리 왕 미용실 출린 게 그때가 몃 살 때마씨?

#1 스물한 살 때.

@1 아, 스물한 살. 어떵 헹 미용 일을 헌 거꽈? 월령리 살당 학교는 어디까지 헌 거마씨?

#1 학교는이, 허지를 잘 못 헷어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자 중퇴하고. 그때는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든 거라. 우린 애기덜이, 우리 형제가 여덜.

@1 몃 째꽈?

#1 난 둘째. 경헌데 우리 아부지는 그때에 한의원 헷주게.

@1 월령리서마씨?

#1 월령리에서 한의, 이제 그 탕약방을 헷어, 아버지가.

@1 한약방?

#1 어, 한약방. 경허여근에 허엿는데 폭도들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수헤 불었어. 그 약국을, 재료로 재료영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폭도들아피, 바로 길가니까. 폭도들아피 탕진을 헤 불었어. 경허니까 이제는 다시 사젠 허니까 재료가 없지. 그때 돈이 엄청 힘들 때니까. 그래서 우리 아부지가

그렇게 이제 농사에 뛰어들고 한의, 탕약방은 못 허고, 재료 엇언, 돈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게난 애기덜 키우고 뭐 우리 짠 짠 짠 막 허다 보니까 게난 우리 아부지가 우리 어머니랑 이제 우리 커가니까 너네는 그러면은 아무거라도 벌어 먹고 살 일을 너네가 뭐 했으면 조겠냐 헤 가지고 우리 언니도 그때는 우리 친구덜토 전부 다 물에질을 배왔어, 해녀.

@1 그치예. 그 시기에는. 물에질, 맞수다.

#1 물에질, 물에질. 응. 경 헨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가 그때 상당히 저, 그 바로 그 집 앞에 이제 물통, 물통에 나가 그때에, 그때 멧 살 때 어릴 때에 나가 다섯 살 땐가 빠져 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살렸어. 살련 허난 완전 몸이 너무 약해 가지고 물에질 헐 그런 형편이 못 뒈언, 나가 몸이 너무 약허였어.

@1 한번 물에도 빠져낫고예.

제주시 미용학원 수강 배경

#1 어. 경헨 우리 아버지가 게도 한의, 그 약을 허니깐 이 딸을 살린 거라, 그때에. 다 죽넨 허는 거를. 경헷는데 이젠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너는 물에질 헐 이 신체도 못 뒈고 너무 몸이 약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너는 아무거라도 기술 계통에 배우는 게 어떠겟냐, 어무니허고 아부지가. 그래서 이이고, 게믄 좋다고 겐에 그디에서 이제 우리 촌에, 월령이렌 허면 굉장히 작은 마을이지. 시골 마을이. 아주 아주 시골 마을.

@1 그치. 한림읍 끗동네예.

#1 끗동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게믄 유학이나 마찬가지지. 제주 시내 와긴에 방 얻어 가지고 이제 헐 정도면 진짜 유학이나 마찬가지라. 나 생각이, 이제 와서 생각헤 보면은. 그래서 아이고, 게믄 나 제주 시내레 가겟다고. 바람이 이제 나도 아무거라도 이제 이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안허덴. 여기에서 나가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것이 나도 소원이 없고. 아이고.

@1 게민 월령리에서 국민학교까진 졸업헌 거마씨?

#1 졸업하고.

@1 중학교는 어디서 뎅기당 말앗수꽈?

#1 신창중학교 곳 들어간에.

@1 아, 들어간.

#1 들어간에 학교도 허지도 못허고. 그냥 너무 몸도 약허고. 바람 불면 진짜 불려날 정도로 몸이 약헤.

@1 말라낫구나예.

#1 응. 너무, 너무 말라 가지고 진짜 살지 안헌덴 헐 정도로 그렇게 헷어. 경허연 입학만 허고 중학교 다녀 보지도 안혀고, 경 헤연에 헌디 제주 시내로 이제 왔어.

@1 제주신 누게 잇어나수꽈?

#1 아무도 없어낫어.

@1 게믄 방은 놈의집 빌련?

#1 어. 놈의집 빌언. 경 헌디 어쩌면은 이제 그디 가 보니까 그때는 편물하고 양재하고 미용인데 이제 편물학원에도 가 보고 저 이제 양재학원에도 가 보는디 편물학원에 가니까 그냥 옷을 그냥 막 그냥 실 풀어 가지고 이만이 데며졍 먼지만 박삭허여 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나 도저히 안 뒈겟다. 또 이제 또 양재학원에 가 보니까 그때는 인기가 양재하고 편물이주게. 미용은 완전히 날라리, 날라리 허는 거라이. 경헤 가지고 아, 양재학원을 가도 도저히 나가 별로 나영 맞지 안허여. 겨난 이제 나중에는 이젠 마지막으로 이제 미용학원에 영주미용학원에 갔어. 영주미용학원이 무근성에 있었어, 그때에.

@1 이 편물이랑 양재학원은 어느 쪽에 잇어난마씨?

#1 오래뒈 부니까이.

@1 다 제주시?

#1 어. 제주시내. 제주시 안네 잇는데 이젠 그디저디 다 가 봐도 그때도 편물학원도 많앗고 양재학원도 많았어. 미용은 한 군데뿐. 영주미용학원.

@1 그 영주미용학원은 어디 잇어나수꽈?

#1 무근성.

@1 무근성예. 그민 다 그 근처 아닌가, 동문통?

#1 근처는 아니.

@1 근처는 아니? 동문통.

#1 동문통이 아니지. 저 어디 서문통 그 바로 무근성은 서문 쪽이.

@1 무근성은 그쪽인디 그 편물이나 양재학원.

#1 어. 그딘 다 중앙로 정도에 있은 거 같아. 우리 둘이 갓주게, 나 친구랑. 미용학원 허레 가자 헨에 둘이만 가근에 제주 시내를 다 돌았어. 아, 게난 나가 보니까 미용이 딱 마음에 드는 거라. 겨울인데 영 연탄 화로 이렇게 놓고 똥그란허게 의자에다 다 앚아 가지고 막 아기자기 얘기하면서 니 머리, 나 머리헤 주는 거야. 니 머리 나 머리. 이제 서로가, 둘이가 조가 뒈 가지고 나가 또 그디 머리헤 주고 그디는 또 내 머리헤 주고. 그런 식으로 헸어.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 가지고 미용허겟다고 아부지신디 아버지 미용허겟다고 헤 가지고 그디서 이제 방 얻어 가지고 무근성에 방 얻어 가지고 우리 친구랑 둘이 살았어. 살아 가지고 헌디 학원을 이제 속성과로 졸업헤연.

@1 얼마나 다닌 거마씨?

#1 삼 개월.

@1 아, 삼 개월이면 졸업이 뒛구나예. 그민 아까 중학교는 다니지 안헤신디 그 나이 때.

#1 나가 한 열여덟 살.

@1 아, 열여덟 살에 온 거라예. 그지예.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뒈난 영 온 거.

#1 어.

@1 그 사이는 그냥 계속 월령에 잇어나수꽈?

#1 응, 계속 잇어난. 몸이 약헤 노니까 어머니네도 어디 보내지를 못헤연. 나가 완전히 그냥 죽을 정도

의 그 그런 정도 뒀어. 경허니까 학교고 뭐고 우선 느가 몸을 건강허라 정도의. 그렇게 헤 가지고.

@1 열여덟 살 때 한 삼 개월 정도 영주미용학원 다닌 거예.

보조 미용사 생활

#1 경헤 가지고 다년에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보조. 그때는 이제는 지금은 보조로 생각허주마는 그때는 시다[53]렌 헷주게.

@1 예. 시다 맞수다.

#1 미용허는 디 시다로 들어갔어.

@1 시다로. 어디 들어가수과?

#1 시다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 산지, 산지에 잇는 아이고, 그 미용실도 이젠 너무 오래 뒈 부니깐 기억도 안 난다.

@1 백조 미용실.

#1 그 산지에 산지 미용실 있었어. 영춘빵집 바로 욮에.

@1 거기 백조 아니마씨? 은하수, 백조.

#1 아니, 그디 아니라. 은하 미용실. 아, 무슨 미용실이라. 아무튼 그때.

@1 요 은하수 미용실.

#1 은하수가 아니라. 아니라. 그 미용실에 가 가지고, 그이, 거 원장님 이름으로 그때 거 무신 미용실 헸어.

@1 미용실 헹, 예.

#1 경헹 그디 시다로 갔어. 게난 우리 아버지가 그땐 시다 월급도 없었어. 이제 내가 쌀을 한 달에 이제 세 말. 이제 여기 거뜨믄 한 말에 너 대 아니, 겨믄 세 말씩은 그 집에 가져갔었어. 내 그 이제 그디 살면서.

@1 아, 쌀 가져강 돈 냉, 먹을 쌀을.

#1 어. 내가 먹을 쌀을 내가 가져갔어. 경헌디 우리 아버지가 딸 이제 혹시나 눈치밥을 멕일까 봐 한 달도 뒈기 전이 또 쌀 서 말을 또 가져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헤 가지고 그디에서 멧 개월. 그때는 산지에 그 색시덜이 많앗주게. 그디 산지, 색시덜이 굉장히 창녀촌이라낫어.

@1 부둣가니까.

#1 근디 굉장히 이제 머리 그 업스타일. 지금은 업스타일로 허지마는 그때는 올림머리. 그때는 올림머리. 그때는 올림머리 허다가 이젠 도저히 안 뒈겟다.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기술 배우면은 더 발전이 엇겟다 헤 가지고 아, 이제 우리 친척 언니가 신창, 신창. 두모, 두모. 아, 그기 미용실 하나 차리니까 왕 나신디 막 헤 주렌 허는 거라. 그 언니는 학원만 나오고 미용실만 더그락 허게 찰려 논 거라. 하지도 못허면서.

53) '시다'는 일본어 'したばり(下張り·下貼り)'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1 하지도 못허멍.

#1 게 이제 나신디 이제 우리 친척이니까 나신디 그디 왕 쪼금만 자기 ᄒᆞ끔 익숙을 때까지만 ᄒᆞ끔 헤 주라고 헤 가지고.

@1 아니, 그거 가기 전에 우선은 산지 이 미용실은 원래 주인이 잇고 시다는?

#1 나뿐.

@1 나뿐. 경 둘이만 하는 거?

#1 으, 으.

@1 그민 여기서 한 육 개월 정도, 얼마나 헤수꽈?

#1 한 오 개월 헷는가?

@1 오 개월 정도예. 월급은 아까 엇어서예.

#1 하나도 없고.

@1 없고. 먹고 자는 건 헤 준 거.

#1 어. 쌀은 우리가 가져가고.

@1 가졍 간 거니까예.

#1 먹는 건 그기서, 잠자는 거 그기서 자고.

@1 거기서 자고예. 그민 눈 떵 잠잘 때까지 계속 일헤시컨게. 집안일을 도와 주든 뭘 하든.

#1 도와 줘주게. 도와 줘주. 식모나 마찬가지라.

@1 식모 마찬가지로예.

#1 보조가 식모라. 그나마 그디는 애기가 없는 디니까 다행. 우리, 내 친구덜은 애기 잇는 데, 그때 우리 학원 다니면서 헌 친구들은 보면은 애기 잇는 집이 가믄 기저귀 빨래 다 헤 주고, 밥 다 헤 주고 완전 그렇게 허난 미용을 끗까지 배우지 못헤여근에 성공을 못 헷어. 다 도중 하차.

@1 그니까 그런 거 싫엉.

#1 어. 나는 이거를 꼭 배와야 뒈겟다. 나는 이거를 배와야 먹고 살겟다. 솔직히 친구들은 다 물에질허레 그 돈 벌레 육지로 다 가는데 나는 물질도 못허고 이거 하나 안 배우믄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헷거든.

영주미용학원 수강과 생활

@1 그 학원은 삼 개월 다녓잖아예. 보통 삼 개월이꽈, 아니면 속성반?

#1 아니, 보통 삼 개월.

@1 삼 개월.

#1 속성과 삼 개월. 경 안 허믄 육 개월. 게난 속성과로 나완.

@1 게민예, 속성과는 삼 개월이면 학원 시간은 아침 몃 시부터 몃 시까지 헨마씨?

#1 아침에 가 가지고 허면은 아무튼이 한 세 시 정도 뒈엉 끝날 거라.

@1 아홉 시부터 한 세 시까지예. 경 헹 삼 개월 헌 거.

#1 어. 그때 경 뒀을 거라.

@1 돈은 얼마 내난 거 닮수꽈?

#1 돈 얼마는 몰라. 나 기억을 못허겠어. 그때 아버지네가 그것도 달달이 돈 내어 주고 허니까 이제 모르겟고, 아무튼 삼 개월 속성과로 아버지가 돈 한꺼번에 줘 불었어.

@1 게난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유학 보낸 거 맞네예.

#1 유학이지.

@1 학비 내 주고, 방 빌어 주고, 먹을 거.

#1 유학, 유학. 학교 못 헌 대신에 유학이라. 우리 아버지네도 그때 현명헷주. 우리 친구덜은 전부 다 해녀들에 물질 배웡 강 돈 강 벌어 오고 막 바리바리 강 돈 벌어와긴에 막 허는디 나는 이제 그 기술 배우저, 돈 들어, 아버지가 돈 헤 줘 가지고.

@1 게도 동네에서 약간 여유 있는 집안이랏수꽈?

#1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배운 분이라서.

@1 그지. 한약방 할 정도면.

#1 일본에서 공부허다가 일본에서 아부지가 공부허다가 한약 그 학교를 한의 학교를 다녀 가지고, 그 땐 학교를 다녓뎅 허거든, 아버지가. 경 헤연에 그 촌에서 약이라도 막 갑자기 아픈 사람덜 한약으로 헤근에 그때 헤 주고, 아버지가 다 헤난. 경 허연에 그디서 살단.

@1 삼춘네 팔 남매는 다 아버지가 공부 시켜수꽈?

#1 다 공부시켠. 우리 언니는 중학교, 언니는 중학교 졸업을 못 허연. 우리 언니도 도중 하차.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밑에덜은 대학교까지 다 나왓고. 우리가 큰애기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밑에 잘 잘 잘 잘 어린아이들이랏어. 그때는 우리가, 나가 두 번째 딸, 우리 언니. 경헨 이제 나는 이제 바깥으로 나와 불엇주. 그후로부턴 계속 이제 바깥에 돌아 다년.

미용실 근무 이력

@1 열여덟 살 이후로부턴 계속 밖에 산 거예. 예. 영 헹 사촌 언니네 미용실을 가수다. 그때 갈 때는 한 열아홉 살 뒈신게마씨.

#1 그때 열아홉 살. 그 정도 뒛지. 초 뒛지. 쪼끔만 배완에 이제 그 촌에니까 아무 디 가면은 이제 할 수 잇다 헤 가지고 용기를 생긴 거라. 겐에 이제 나가 이제 그 촌에서 막 이제 막 다 헌 거야. 나만 다. 경 허연에 그디 한 삼사 개월 잇다가 삼사 개월 잇다가 이제 저 나문통 샛별 미용실. 샛별 미용실.

@1 어디, 남원통? 동문통?

#1 아니, 저 나문통.

@1 남문통.

#1 남문통 그디 샛별 미용실. 광양[과양]이라, 이제. 이제 생각헤 보믄 광양[과양]이라. 광양[과양].

@1 아, 예, 광양[과양].

#1 이제 그디 원장님이 박.

@1 지금도 허시는 분이꽈?

#1 지금도 헴실 거라. 저 박○○, 박○○. ○○이는 언니고, ○○는 동생이라. 박○○, 박○○ 그디 저 중앙로 미용실 지하에 있었잖아. 그디 형제 잇는 디서 나가 들어간. 그디서 그 기술을 막.

@1 삼춘보다 연령은 더 위겟다예.

#1 위지. 지금도 하고 있어.

@1 몃 살 정도 위마씨? 이분들은. 한 대여섯 살 위?

#1 이제 팔십 이제 지금이 그 언니가 박○○ 원장님이 팔십둘인가 셋인가 길 거야. 경허고 박○○는 지금 중앙로에 있어. 박○○. 신랑은, 신랑은, 신랑도 미용하고 그 동생은. 언니하고 동생은 따로 분리시켠 미용실 다 찰리고 돈 잘 벌엉. 이제 남문로에 있어.

@1 경 헹 그 샛별 미용실 들어강.

#1 응. 들어강 그기서 좀 기술 배와서 한 일 년동안 잇다가 도저히 안 뒈겟다.

@1 게민 여기 샛별 미용실에서는 세 명이 ᄀᆞ치 일헌 거마씨?

#1 응. 세 명이. 소님 많았어.

@1 여기 둘은 주인인 거고 둘이, 시다로는 삼춘 한 명 잇는 거예.

#1 경 헤연에 이젠 부산으로 갓지.

@1 여기 샛별 미용실에는 얼마나 잇어나수꽈?

#1 한 일 년.

@1 일 년.

#1 일 년 정도 잇다가.

@1 기술은 여기서 다 배운 거마씨?

#1 기술은 박○○ 그 샛별 미용실에서 기술 어느 정도 배왔어. 이제 중상 정도의 그 기술을 배왔어.

@1 그 기술을 배운다는 게 어떤 걸 배우는 거꽈, 머리 잘르는 거?

#1 게니까 머리 잘르고, 머리 감기고 머리 잘르고 업스타일 머리하고 그자 커트, 뭐 파마 그런 거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헌 거지.

@1 그 전에 미용실 두 군데에서 잠깐 잠깐은 일헷어예. 그런 때는 고정뒌 스타일만 헌 거마씨? 기술 딱히 막 여러 개.

#1 이것저것. 이것저것이 다. 애기 머리도 잘라야 뒈고, 남자 머리도 잘라야 뒈고 할머니도 파마헤야 뒈고. 그때는 이제는 드라이로 쓰지마는 그땐 고뎃기. 연탄 고뎃기.

@1 기계에 찔렁.

#1 어, 어. 영 구멍에 찔렁. 그렇게 헤서 이제 부산을 간. 부산을 가 가지고 이제 그 어디냐면은 이제 저 청학동. 그 청학동 그 완전 번화한 쪽이라. 이젠 청학동 막 우쪽으로도 있엇는데 게도 그 밑에 그때 그 미용실에서 이제 중상으로 갓지, 중상.

@1 이젠 시다가 아니구나.

#1 어. 중상으로 갓지.

미용사 급여

@1 아, 예. 어쨋든 샛별 미용원 갈 때도 시다 급으로 간 거라예.

#1 그때도 최하로 갓지. 그때도 시다, 즉 말허자면은 그때도 시다. 내가 못 허는데 중상으로 가겟다, 중으로 가겟다 허면은 인정을 안 헤 줘. 중 미용사는 월급이 얼마, 중상은 얼마, 시다는 얼마, 그때만 오천 원 받았어, 시다로. 만 오천 원.

@1 예. 시다 만 오천 원. 중은 얼마나 뒙니까? 그때.

#1 중은 그때 얼마 줘신가.

@1 중상, 부산 갈 때는?

#1 한 이만 원이나 받앗는가. 부산 갈 때는 중상으로 들어갓지.

@1 그때는 얼마 받아수꽈?

#1 그때는 내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하면 촌에서 잇어도 머리를 다양허게 헤 봣지. 내가.

@1 샛별에서예.

신부 화장과 머리 손질 경력과 자부심

#1 아니. 촌에서 내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1 아, 신창 미용실에서.

#1 그디서 내가 전부 다 업스타일이고 뭐고 내가 다 헷지. 겐 이제 부산에서 한 일 년 살다가 아버지 그 부름에 와서, 여기 오니까 아주 이디는 촌이라서 머리 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업스타일 허니까 사람들이 다 뽕 가 불었어. 신부 화장을 그때부터 그자 인기가, 인기가 폭팔이랏지.

@1 그민 여기 세화 차리자마자 경 신부 화장을 한 거구나예. 머리예.

#1 신부 화장이고 업스타일 그 머리 올리는 머리. 그 신부덜은 그때 옛날 전부 머리 올렷지. 게난에 올리는 머리는 지금도 어디 간에 떨어지지 안헤여. 업스타일. 그때.

@1 세화리 차린 건 몃 살 때마씨? 스물둘이꽈, 스물세 살이꽈?

#1 스물두 살. 스물한 살에, 스물한 살에 찰려서.

@1 부산이 스물한 살인 거 같애.

#1 그디서 헨 왓지.

@1 왓어예. 여기 찰련. 스물한 살에.

@2 부산에 한 일 년 정도밖에.

#1 어. 일 년 정도 이제 헤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여기 올 생각을 안 했어. 경헌디 와 가지고 이디 오니까 머리 잘헌다고, 잘헌다고 소문이 소문이 말도 못 허게 났어이. 그 옛날에. 머리도 고데도 잘헌다고. 이제 드라이지이, 즉 이제 말허자믄 드라이지. 완전히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신부 화장이 그냥 폭팔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거야. 신부 화장이. 그래 가지고 신부 화장 헤연에이, 하루에이 내가 신부 화장을 더 이상 못 맡을 정도. 나 혼자만 허다 보면은.

@1 몃 건 정도, 최대?

#1 하루에 나는 아이덜 밑에 아이덜 데려다가, 데려다가 이집 저집 다니면서, 만약에 세화리 한 군데 잇고, 손당 한 군데 잇고, 평대 한 군데 있고 막 이디저디 이디저디 허거든. 경허면 그때는 차도 그때 이제는 다 집집마다 자가용 있으니까 자가용, 이제 지금 운전허니까 운전헹 다니주마는 그때는 우리 아저씨 오도바. 오도바로 시꺼다 줬어. 오도바 허기 전인 자전거, 짐 자전거로 나 태왕 다녔어. 경헤 가지고이 하루에 네다섯 건씩 그 신부 화장을 했어. 경허믄 나는 화장만 탁 탁 탁 탁 헤 주고 밑엣 아이덜 하나씩 다 빌어 가지고 쫙 세워서 너는 이디 가라, 이디 가라, 이디 가라 경헤연. 계란 마사지 헤 주레 전날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딱 딱 배치를 시켜 놓고 나는 그 시간 딱 뒝 제일 먼저 예식 허는 사람네 집이부터 먼저 강 화장을 헤 줘 뒁 왔어. 화장허는 디도 뭐 방이 잇나, 그때는 방 하나에 마루 하나 잇는 디, 다. 시골에는.

신부 화장 경험담

@1 촌에 집들.

#1 게난 촌에 집들. 경허면은 신랑을 방 하나에 받기 때문에 신부는 고팡에 가 가지고 화장을 시켯덴 허니까. 깍지불에서 것도, 깍지불.

@1 맞수다. 등 엇인디.

#1 알지? 알아지겟지.

@1 고팡에는 전등이 엇어예.

#1 전등이 엇언 깍지불 하얀 깍지불. 나중에는 또 이제 호야가 있어. 호야 요만이 헌 거이. 그걸로 이제 나중에는 헷지마는. 그추룩 경 헹은에 그 쫍짝헌 그 고팡에서 항아리들 막 논 고팡에서 밑에 초석 깔아긴에 그디에서 화장을 헌 거야. 화장을 헤여긴에 이제 멘사포까지 다 씌와 뒁인에 그때 한복 입엇다, 드레스 없었어. 한복. 하얀 한복. 이디 저 사녤 가추룩 이렇게 영허는 멘사포. 이때 그때 멘사포라고 했어. 그 짧막한 거. 요만이 헌 거. 멘사포. 그거 헤 뒁 오면은 이제 시다 아이가 이제 시다 아이가 이젠 신랑이영 같이 이제 그 신부 데리고 같이 이제 사진 찍는꺼지 같이 보조를 헤 줬어. 가이가. 겨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화장만 헤 줭 오고. 그렇게 헷어.

미용 보조원의 역할

@1 머리는 시다가 한 거네예.

#1 나가 헷지.

@1 머리하고 화장하고?

#1 머리허고 화장허고 전부 다 신부는 전부 다 갖추와 주고 시다 아이는 가 가지고 같이 도와 주는 거. 사진 찍을 때 보조헤 주고 이제 꼿 같은 거 영 잘 비뚤어 시믄 그거 잘 헤 주고 허는 보조.

@1 게민 시다는 미용 기술 배운 아이가 아니구나.

#1 아니, 전혀 아니.

@1 그냥 아르바이트생처럼 그냥.

#1 응. 알바생. 지금 알바생. 어, 그렇게 했어.

@1 그민 미용실 운영하면서 시다는 안 둬수꽈?

#1 미용사덜을 이제 그 나 밑에 시다 아이덜을 계속 데려 썼어. 계속 데려 써, 그때는 우리 집이 소님이, 소님이 아침이 일어낭 보믄 벌써 소님덜이 이제 차근차근 차근차근 앉아 있었어. 손당에서 내려온 삼춘덜이 이 앞에 쫙허게 앚앙, 문도 열기 전이 앉아 있었어. 파마 공장이라났어.

세화리 오고파 미용실 개업

@1 아, 다 뽀글뽀글 파마할 사람들?

#1 어. 경허니까 우리 집이 소님이 많아야 다른 미용실 갔어. 그정도로 소님이, 우리 오고파렌 허믄 소문났어.

@1 게민 삼춘이 오고파 미용실을 연 게 스물한 살이면 한 천구백칠십 년이꽈, 칠십일 년이꽈?

#1 칠십, 육십구 년이지.

@1 육십구 년도에 문을 열언예. 그민 이때 문 열 때 이 세화리에 다른 미용실도 잇어난마씨?

#1 잇엇지.

@1 몃 개 정도?

#1 서너, 세 군데 있었어.

@1 아, 여기 겅 많아나수꽈?

#1 어. 세 군덴가 있었어.

@1 아, 근데도 잘 한덴 소문이 낫구나. 신부 화장, 머리 올리는 거.

#1 신부 화장, 머리 업스타일은 다른 사람덜 못 했어. 허여도, 헤여도 허는 시늉만 헷지, 소님덜이 그냥 원장님이 이거다 허면서, 업스타일은 최고다 허면서 우리 집이 다 완. 아무튼 다. 나가 더 이상 받지 못허겟다 허면은 다른 디 갔어.

@1 겅헹 육십구 년에 미용실 차리난, 차리자마자 겅 신부 화장들을 허러덜 옵디가?

#1 응. 왓지. 소문이 나난. 머리 올리는 머리 잘헌덴 소문이 나 불었어. 잔칫집이 헐 때에 결혼식 허레 갈 때 올리는 머리, 우리 집이서 허거든. 올리는 머리 헹 보냉 놔두믄 아, 이 머리, 이 올리는 머리 어디서 헷냐, 이런 식이라. 그렇게 했어.

출장 신부 화장 경력과 일화

@1 그믄 그때서부터 헹 이렇게 한참 삼춘이 그 신부 화장헤 주러 영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게 언제까지 그런 잔칫집 돌아다니는 일을 헤수꽈?

#1 저 나가 경허단 보난 결혼헨 애기 나고 헤연 나가.

@1 결혼은 몃 살에 하신 거마씨?

#1 스물두 살에 헷지, 스물두 살에. 스물두 살에 헤 가지고 그 이제 우리 아들이 칠공 년생이라. 칠공 년생 우리 아들이 이제. 겐 이제 그 후에는 제주시에서 드레스샵들이 나왔어. 그때부터는 이젠 다샵에 강덜 허고, 예식도 제주시내 강 허고.

@1 그게 칠십 년대꽈, 팔십 년대꽈? 제주시에 샵 나와 가지고.

#1 샵 나올 때는이.

@1 아들 몃 살 때쯤?

#1 아이고, 잘도 오래 했어, 여기에서. 저 아이고 멧 년도는 모르겟지마는 아무튼 우리 아들네 중학교 정도 다닐 때까지도 나가 신부 화장을 계속 다녀진 거 같은데.

@1 아, 예. 예. 그 정도민 좋수다. 중학교 다닐 때면 팔십 년대 중반까지도 신부 화장하러.

#1 계속 헨 다녓지.

@1 아, 그민 동네는 어디 어디까지 가 봔마씨?

#1 다 어디 안 가는 디가 엇어.

@1 제일 멀리 갈 때는.

#1 제일 멀리 갈 때는 제주 시내도 가고 뭐, 우도, 연평 뭐, 어디 뭐, 어디 안 가는 디 잇어?

@1 어, 제주시도 간마씨?

#1 제주 시내도 가고.

@1 어. 경 먼 디도.

#1 어. 제주 시내도 가고 뭐 어디 안 가는 디 없어. 손당, 덕천 뭐, 뭐 표선까지도 다 갓다 와낫는데. 그때 그 옛날에도. 신부 화장. 안 다니는 데 없을 정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1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몃 건까지?

#1 여섯 건. 그때 경 허믄 신랑아피 욕 듣고 난리가 났어. 너무 늦게 왓다고.

@1 아, 그치.

#1 신랑이 와 가지고 밥 다 먹어도 미용사는 안 나타나 봐 봐. 난리가 낫지.

@1 아, 그지. 집 나가는 시간도 다 잇일 건디.

#1 어. 경헨 얼마나 내가이 그 홍역을 치렷다고. 차가 일로 절로, 내 차로 다니는 거트면은 금방금방 뒈는데, 이거는 뭐 자전거 탕, 아저씨 자전거 탕 갓다가 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불어. 이디서 종달리, 종달리서 두문이개 같은 디. 아이고, 말도 못 헷지.

@1 여섯 군데까지?

#1 응. 여섯 번, 일곱 군데까지 나만 막 헤 달렌 허는디 게믄 어떵 헐 거라. 욕심이 잇어 가지고이, 또이, 나는이, 아이고, 더 이상 못 헌다고, 못 헌다고 헤도 시간을 이제 짬 내 가지고 어떵 어떵 허면서 그렇게 막 헷지.

신부 화장 시간과 비용

@1 그럼 그 초창기에예, 겅 한 건 하민 돈은 얼마 받아수꽈?

#1 그때 얼마 받아져신지 모르커라. 만 오천 원 받아져신가. 이제 거트민 십오만 원이겠지이. 그 옛날에 십오만, 이제 생각허믄 십오만 원 받은 거라.

@1 그민 이동하는 시간은 다 틀릴 거고, 그 집에 도착헹 화장하고 머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삼십 분. 나 그렇게 빨리 헤.

@1 손 빠르구나예.

#1 굉장히 빨라. 머리, 머리 올리는 머리 오 분, 오 분이믄 올려. 오 분, 오 분. 업스타일 오 분이믄 올려.

@1 아, 기마씨? 손이 상당히 빠르구나. 삼십 분이민 끗나 불어.

#1 어, 끗나. 견디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화장허는 건 아무것도 아니.

미용사 출장 물품

@1 게민예, 우리 갈 때 삼춘이 준비헹 갈 건 뭐 뭘 가졍 갑니까? 준비하는 게.

#1 화장품 전부 다 갖고 머리 어떤 사람은 가발 쓸 사람은 또 가발까지 다 챙기고 부케. 부케는 나대로 만드는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 나가 부케를 젤 처음은 모조로 헌 거를 헷지마는 나중에는.

@1 직접 만들언마씨?

#1 나중에는 나가 육 개월 학원을 다녔어. 꼿 그 이제 꺼꽂이[54] 학원을 다녔어. 꺼꽂이 학원을 여기서 제주 시내에 그 한 육 개월을 나가 다녔어. 나는 한번 배운다 허면은 끗을 보는 사람이라. 부케를 부케 잡는 거 촥 허게 잡는 그 부케가 다 나가 만들었어. 게 부케 만드는 거 배웁고 이제 그 꺼꽂이도 배웁고, 그래서.

@1 꺼꽂이는 배우민 어디 써 먹을 거라?

#1 꺼꽂이 배와 가지고 많이 써 먹엇지. 나도 미용실에 꺼꽂이 다 헤 놓고.

@1 아, 아, 결혼식장에 얘기는 아니지예?

#1 그거는 아니고.

@1 별도로.

#1 어. 예식장에 가긴에 꺼꽂이 헤 주고.

@1 아, 그것도 헤 주고.

#1 어. 그것도 이제 나가 이제 꽂 이제 부케 허당 남으면은 이제 예식장에 강 꺼꽂이도 헤 주고 경허고. 또 나가 그때 아이들 학교 다닐 때난 어머니 회장 헐 때니까. 안 한 것이 엇어. 경 헤여긴에 허면은 우리 꺼꽂이 강의도 헤 줬어. 자모님들아피. 나가 꺼꽂이 배완 와 가지고. 진선미 헤 가지고 각 딱 잡앙 그쪽허고 허단 보난 경 그거 꽂을 만지단 보니까 부케도 만들어지고 부케 이 관도 다 생화로 만들었어.

@1 그런 거 다 직접 만들어?

#1 밤이 잠 안 자. 밤이 그거를 다 만들었어. 다. 꽂입 하나하나 헤 가지고 철사로 헤 가지고 테프로 다 종이 테프로 다 그거 말아서 다 내가 다 했어.

@1 그민 가져갈 때 챙겨 갈 게?

54) '꺼꽂이'는 제보자의 '꽃꽂이'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부케.

@1 부케도 챙겨 가고예.

#1 관.

@1 관도 챙겨 가고, 여기 면사포도 챙경 갈 거꽈?

#1 어. 면사포 챙경 가주.

@1 면사포 챙기고.

#1 한복은 거기서 다 이제 자기 한복은 하얀 한복 다 허니까.

@1 하고예. 화장품 같은 거는?

#1 다 우리가 갖고 갓지.

@1 뭐에 담앙 다년마씨? 그런 재료 같은 건 뭐에 담당 다녓수과?

#1 케스, 케스에 담앙 다녔어. 그때도.

@1 우리 테레비에 보는 영 네모난 케이스 이런 거?

#1 그런 거는 아니고게.

@1 어떤 거 썻수과?

#1 이제 그, 나중에는 나중에는 우리 케스가 딱 잇잖아. 층층헌 게. 그때는 그 케스도 없었어. 그자 이 박스에다가 그자 바리바리 다 화장품 다 놓곡 다 헤영 그거 보따리 무끄곡 가방에 지엉 다녓지.

@1 우리 다른 어르신한테 물으니까 그때는 이런 면사포 종류도 자기가 그냥 한 종류 해 가지고 갈 때마다 그렇게 썻덴 헙디다예?

#1 경허니까 우리는 나는, 면사포도 다른 사람은 밋밋허게 그렇게 허엿는데 샤로 이렇게 헷는데, 나는 지그자그 칭칭뒈게끔 허영 좀 우아허게 보이게 허고, 이제 그 이제 저 꽂집에 가면은 그 저 뭐가 있어. 그디 방울덜이 있어, 다. 그걸로 헤긴에 다 실 꿰 가지고 내가 빤짝이 그것도 다 내가 붙이고, 만들고 다 내가 다 손수 예쁘게. 그 빤짝빤짝허는 그 이런 그 꽂 모양으로 뒌 그 스파크 닮은 것이 있었어. 그거를 재료를 사다가 미용 재료 파는 디 가믄 그거 있어. 그거 사다가 이제 나냥으로 전부 다 붙여 줘. 면사포도 하나 두 개라. 여섯 군데 허믄 여섯 사름이 다 틀린 걸로 가졍 가야 뒈기 때문에 집이 항상 배치뒈엉 잇지.

@1 한 몃 개 정도 준비헹 잇어나수꽈?

#1 한 일고ᄋᆞ덟 가지는 항상 잇엇어.

신부 맞춤형 화장과 머리 손질

@1 아, 그렇게 준비헨. 만약에 그렇게 한 일고여덟 개 배치헤 두면 이렇게 두면 신부 보고 영 얼굴형을 보든 아니면 신부보고 어느 거 하고 싶어요?

#1 아니, 그거는 나가, 나가 자유로.

@1 아, 예. 자유로. 신부한테 선택권 없어난예.

#1 선택권 없었어, 내가.

@1 임의로 보면서. 그믄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게 헤줘수꽈, 아니민 일률적으로 하셔수꽈?

#1 다 틀리게 허지.

@1 다 틀리게.

#1 다 틀리게 허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얼굴에 맞게끔 미용사가 헤야지, 그렇게. 머리 짧은 머리도 잇고, 아주 짧은 머리도 잇고, 긴 머리도 잇고 겨니까 짧은 머리는 짧은 머리대로 또 올리는 스타일이 잇거든. 또 긴 머리는 길게 또 허는 머리가 잇고.

@1 그 짧은 머리인 경우에 붙임 머리 쓰고 헙니까, 그때도?

#1 그때는 머리로 싱을 놨어, 머리에.

@2 후까시[55]?

#1 후까시 말고 머리카락으로 그 싱을 다 만들어. 동글동글 동글허게. 다 만들었어, 우아허게.

@1 그민 사이에 넣는 거마씨?

#1 어, 중간중간 이 노면서 이제 복고풍으로 올렸어. 키 작은 사람은 복고풍으로 막 올렸어, 높이.

@1 그걸 싱이렌 헌 거마씨?

#1 어, 싱.

@1 머리카락 영 뽑아진 거 영 영 뭉크령 놧당 쓴 거잖아예.

#1 어, 어. 뭉크려긴에 그거를 이제 막 다 고데기로 그것도 이제 막 다 다루와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후까시 놔 가지고 그거 동글동글허게 만들었어. 만들어 가지고 머리가 머리니까 몰르지. 경허니까 머리 짧은 머린 그것에 우이로 올려 가지고 막 키 작은 사람은 키 크게 우아허게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다 했어. 수 없는 사람도 또 그거 놓곡.

@2 그믄 이거 고정 어떵 헤마씨? 그때 스프레이도 없엇는데.

#1 고정, 다 고정은. 그때는 스프레이가 없었어. 없엇는데도 후까시를 노면서 어떵 어떵 그때.

@1 삔?

#1 삔. 머리 실핀이 있었어. 아주 가는 실핀이 있었어. 그 실핀으로 고정허면서 탁 탁 탁 탁 붙였어.

@2 그게 기술이구나예. 여기 싱 놩은에 움직이지 않게 허는 거.

#1 어. 경허니까 다 업스타일 잘헌덴 얘기를 허는 거지.

신부 화장 전 마사지

@1 저기 내일 결혼헐 거렌, 아니 오늘 결혼식이라예. 저를 신부 화장을 헐 거우다. 머리를예. 도착허민 제일 모녀 뭐부터 헐 거꽈?

#1 제일 모녀, 일단은 신부 화장헐 때는 마사지부터 헤 줘야지. 일단은 마사지허고 머리는 나중에 고데기로 전부 다 말아 놓고 그다음엔 허는 거.

@1 마사지 허는 디는?

#1 마사시 허여 논 다음에 전날 가믄 마사지 허여.

@1 아, 그믄 그거 시타 시키는, 아르바이트생 시키는 거.

#1 어. 알바 시켜 가지고 계란 노란자만 그렇게 붙엿지게.

@1 예, 전날예.

#1 콜드 마사지허영.

@1 시다는 미리 보내는구나, 전날에.

#1 전날 보내야지. 전날 가믄 신부 그 전날에 그 마사지를 헤 줘야 뒈. 어. 이렇게 이렇게 허믄 나앞에 다 가네덜 다 가르켯지. 이렇게 이렇게 헤 주라. 이렇게 헤긴에 얼굴 마사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란 이렇게. 가네덜도 잘헤. 겨믄 계속 가네들 빌엉.

@2 콜드 발랑은에 영 영 영 영 헤 주는 거마씨?

#1 어. 어.

@2 콜드 크림 순서를?

@1 전날 가수다예. 먼저 나 세수를 하렌 헐 거예. 세수 헤수다. 뭐부터 헐 거꽈?

#1 아니, 콜드 마사지 저 수건으로 딱 허게 우에 올려 놩, 노렌 헤영은에 이제 콜드 마사지 이젠, 다 이제 콜드 마사지허고 눈썹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고, 얼굴에 저 수정헐 거 잇이믄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디 면도 샥 허게. 콜드 발른 디 면도 싹 허고, 그다음에 이젠 찜질 그 허여근에.

@1 뜨거운 수건에?

#1 뜨거운 수건 헤긴에 이거 얼굴 다 따까 내엉 경 따까냉 그다음은 계란 헤긴에 딱 부쪙.

@1 노른자만 허민 뒈마씨?

#1 노른자.

@1 뭐 안 서꺼?

#1 안 서꺼. 노른자 헤여긴에 이제 가제 얼굴에 더펑 경허는 거.

@1 가제.

@2 아, 가제 붙영은에 그 위에 허는 거마씨?

@1 노른자 위에.

@2 나 지난번에 한림 가난 그냥 계란 노른자를 영 부치면 팩처럼 영 뜯어진덴예. 경 하지 않고 그냥 여기 가제 하고?

@1 가제 헹.

#1 이거 얼굴에 삭 노란 계란자 붓으로 다 발랑 그다음은 거제로 딱 허게 영 영 허영 또 우에 한 번 더 발라 주는 거.

@2 두 번?

@1 아, 두 번. 거민 벗겨내면 뒐 거? 계란 마사지 헹?

---

55) '후까시'는 일본어 'ふかし'에서 온 말로, 머리를 부풀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신부 화장 순서

#1 겨믄 전부 다 면도하고 눈썹 수정하고 헌 다음에 이제 그추룩 경 헌 다음에 이제 계란 마사지 헌 거 있으면은 뒷날은 가 가지고 나가 신부 화장허고 머리허고 그렇게.

@1 예. 만낭 얼굴부터, 신부 화장부터 먼저 헐 거예?

@2 근데 그 전날 계란 마사지허고 다음날 머리 잘 들렌 미리 고데기를 다 헤 놓거나? 그런 건 안 헤?

#1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헤.

@1 게민 그 시다는 여기 마사지헤 주는 걸로 끝?

#1 그걸로 끝.

@1 마사지 씻어 가지고, 스킨 로션도 발라 주고?

#1 응. 거뿐.

@1 그거뿐. 아침에 일어낭.

#1 아침에 가서 나가 강 다 허는 거.

@1 스킨 로션 발랑 잇수다예. 뭐부터 발라수꽈, 얼굴은?

#1 얼굴에 그때 스킨, 로션 발르고, 그다음 영양 크림 발르고, 그다음 화운데숀 발르고, 그다음은 분우에 착 착 착 착 분 발르고, 무시거 헐 것이 멧 가지 잇어. 샤도우, 눈썹 붙이고, 이 눈썹 그리고, 아이샤도우 발르고, 볼 타치 허고 그거지 뭐, 다.

@1 그정도민 끝.

@2 눈썹도 붙연마씨?

#1 눈썹 붙이지.

@1 눈썹 붙이고예?

#1 눈썹 그때 붙였어. 안 붙이는 사람도 그땐 잇고, 나중에는 눈썹 붙이고, 처음에는 눈썹 안 붙엿어. 아주 칠십 년대에는 눈썹도 잘 안 붙이고, 눈썹도 엇어낫어. 견디 그다음부터는 눈썹이 있엇고, 그 다음은 다 있엇지.

@1 그때도 혹시 쌍커풀 이렇게 만들고 허는 것도 잇어나수꽈?

#1 잇지, 테프.

@1 나중에예.

#1 그대로 우리 테프로 짤라 가지고 헷어. 테프, 그자 테프 그때 영 짤라 가지고 딱 허믄 쌍가풀 딱 뒈어.

@1 거믄 어쨋든 거민 눈 커 보이잖아예.

#1 어, 크게 보이지.

@1 눈썹 붙이고예. 머리는? 그다음 화장 다 한 다음에 머리 후까시 넣을 거꽈?

#1 머리, 이제 전부 다 이제 고데기로 전부 다 머리 말아야지.

@1 예. 화장허는 동안 말앙 잇는 거예?

#1 전부 다 말고. 말앙 풀어긴에 겡 후카시 넣고 전부 다 이제 올리는 머리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지.

@2 화장하고. 화장 한 오 분, 십 분이면 끝나는 거? 그믄 고데기 할 때 달궈야 뒐 거잖아예.

#1 아니, 그디 다 그땐 곤로가 있었어. 곤로. 연탄 화로도 있엇고. 집집마다 다 있었어. 게믄 그거 가져당 그자 그디 그대로 다 헷지.

@1 겡헹 삼십 분이민 끝날 거마씨?

#1 어, 그 정도 빨라.

@1 아이고게.

#1 왜?

@1 완전 빨르다.

@2 그래도 한 시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예.

신부 들러리 머리 손질

#1 우린 삼십 분이믄 끝나, 우린. 올리는 머리를 막 잘 못 하는 사람들은 멘작멘작 허당 보믄 시간이 막 걸려 부는 거라. 경허고 주위에 사람. 주위에 사람 머리허는 것이.

@1 아, 그것도 헤 줫구나.

@2 들러리.

#1 어. 들러리 두 사람, 두 사람 외에는 안 헤 줬어.

@1 어무닌 안 헤 줍니까? 신부 어무니.

#1 신부 어무니 약간 손질허고, 그때는 또 물에질 허영 그냥 낭제 머리들 다 허고 허난에 그냥 그냥 슬랑슬랑 그거 허는 둥 마는 둥이라. 저 들러리 가는 두 사람은 머리 꼭 헤 줘.

@1 아, 그거 세트구나예.

#1 응. 세트.

신부 화장과 머리 손질 비용

@1 예. 경 헤 줭 십오만 원 정도? 옛날 만 오천 원?

#1 어. 그때 돈, 그때 돈 만 오천 원이니까 지금 내가 생각허면은 한 십오만 원 정도 뒈지 않으까?

@1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2 멘사포 빌려 주는 값 포함된 거고예.

#1 아니, 아니, 같이 다. 다.

@1 다 포함된 거.

신부 부케

@2 부케도 ᄀᆞ치 헤 주는 거?

#1 부케는 틀려게. 돈 받아야 뒈. 부케 값은 따로 받아야 뒈.

@1 그 부케 값은 부케는 그냥 줘 부는 거?

#1 줘 부는 거.

@1 그건 나중이잖아. 처음에 할 때도 줘 불어수꽈, 처음 할 때?

#1 처음에는 인조주게, 인조 꽃.

@1 그지.

@2 종이꼿 만들엇덴 헙디다.

#1 그거는 옛날 그거는 이제 모조, 그 꽃 이제 지금 그걸로덜.

@1 헹 그냥 가졍 잇인 거잖아. 빌려 줫당 가졍 오는 거잖아?

#1 어. 가졍 와.

@1 처음 할 때는예.

#1 어. 처음헐 때는 빌려 줫당 그거 가졍 오지.

@2 어떤 삼춘은 자기가 한지 같은 걸로?

#1 이제는 그다음에는 이제 생화 꼿이 나왔어. 생화 꼿은 그자 우리가 나가 다 만들엇지. 제주 시내서 만들엉 오젠 허믄 막 비싸. 경허니까 나대로 만들면은 이제 들러리, 이제 신랑 꼿까지 우시 꼿까지 다 내가 다 만들었어. 아스파라가스 사곡 헤면은 아스파라가스로 영 헨에 전부 다 밑에 촥 흘리고.

@1 꽃꽂이를 배운 이유가 다 잇인게, 그거 판매할 때 뒈니까.

#1 어, 이유가 다 잇지.

@1 그 기술이 필요 헤신게마씨.

#1 꼿을 꼭 내가 이걸 허지 않으면 안 뒈겟다 허는 생각이 들어서 백합을 딱 거 멧 송이 사 오믄 백합을 그거 하나하나 떼면서 나대로 다 종이 테프로 다 이으멍 철사로 탁 허게 허면서 고정시키면서 짝 짝 짝 짝 내려가게 경 헸어. 잘도 이뻐낫어. 나 만든 부케는 진짜 예뻤어.

@2 그때 주로 백합 썬마씨?

@1 백합, 백합, 백합. 그땐 백합을 많이 써.

@2 이것도 시에 강 상 와야 뒈는 거잖아예.

#1 제주 시내서 전화허면은 그 꼿집이 ○○꼿집. 우리가 ○○꼿집이 상대헷주게. 경 허면은 ○○꼿집에서 이제 버스로, 버스 마지막 버스로 이제 보내 달라 허면은 나가 차부에 요기니까 사서 받아.

@1 아, 물건만 부쳥?

#1 응. 물건 그디서 물건만 부쳐 주지, 이꺼지 가져올. 그디서 이디서 두 시간 거리라. 그때는. 아스팔트도 아니허고 둥탕 둥탕허는 그땐디 어떵 허여긴에. 이기서 제주시레 가젠 허믄 두 시간이라, 시간상. 이젠, 이젠 우리 차로 나 차로 가게 뒈믄 삼십오 분이믄 제주 시내 들어가는디.

@1 게민 택배 부쳐 가지고 지금 택배 배달허는 것처럼 버스에 부쳐 버리는 거예?

#1 응, 응. 경 헤서 찾아. 멧 호 버스, 멧 시에 여기 정착 버스 이제 그쪽으로 부친다 허면은 이제 나가 이제 그디 나강 그 차 거 잡아.

@1 옛날는 물건만 보내언.

@2 그래도 그때 전화 잇을 때다예?

#1 그때 전화 있엇지, 돌리는 전화.

신부 화장 예약 방법

@2 맨 처음에 삼춘이 신부 화장 다닐 때는 전화 엇일 때 아니예?

#1 없엇주.

@2 그때는 어떻게?

#1 예약 받앗주게. 와. 신부가 와서 멧 날 멧 일 날 어디 예식장에서 헐 건데 멧 시까지 신랑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헌 거를 이제 다 예약을 받아. 게믄 이제 아, 어디가 제일 먼저 예식이다, 어디가 나중이다 허는 걸 나가 판단을 헤영 먼저 이제 예식 헐 집이부터 제일 먼저 강긴에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았지.

@1 그믄 그 시기에, 전화가 없는 시기에 꼿 주문 같은 건 안 헷던 거잖아예. 나중에야 꼿 주문헌 거 아니꽈?

#1 나중에.

@1 나중에야. 예약은 그렇게 잡아 놓고. 보면 우리 세화리에 예식장이 생겻잖아예.

#1 응. 예식장 생겼어.

예식장의 등장

@1 언제쯤 예식장이 생겨수꽈?

#1 그때이, 그때이, 그 예식장 아저씨랑 나랑이, 거의 같이 들어왔어.

@1 아, 비슷한 시기에?

#1 어. 같이 들어왔어. 바로 앞이 잇엇어. 사진관이렌 헌 디. 잇엇어. 예식장이 아니고 사진관. 전문 사진관 그 아저씨가 이제 집이 가서 마당에 보리낭 깔곡 병풍 우에 치곡 헌 것이 다라. 마당에서 병풍, 사람 둘이 양쪽에 병풍 잡고 이디 신랑 신부 사고 헹인에 사진 찍는 것이 그것이 결혼식이렌 허지, 예식장이렌 헌 게 없었어, 그땐. 집이 마당에서 헸어.

@1 게난 아까 같은 시기에 들어왓다고 허는 건 사진관 아저씨를 얘기허는 거라예. 사진관이랑 미용실이랑 여기 같이 들어온 거?

#1 어, 어.

@1 그믄 영 미용실, 화장하러 강 보민 어디는 여기 사진관 아저씨가 왕 잇고 어느 집 가면?

#1 다른 디 가고.

@1 다른 디 사진관?

#1 어, 다 틀리지.

세화리 인근 사진관 정보

@1 거난 삼춘이 볼 땐 어디 어디 사진관이 영 잇어난 거 같으꽈?

#1 그때이, 문화 사진관이 있었어.

@1 세화리에마씨?

#1 세화 문화인가 그딘가 어딘가 나 모르커라. 이제는 하도. 중앙 사진관이 이제 그디가 아저씨영 우리 같은 이 안에 살고 있고. 평화 사진관, 평화 사진관 그다음은 또 요디는 또 무슨 사진관인가 또 있었어.

@1 세화리에 사진관이 몃 군데?

#1 세 곤데 있었어.

@1 세 군데. 중앙 있엇고, 평화 있엇고, 문화 있엇고?

#1 문화 잇어신가.

@1 어. 거의 다 비슷한 시기꽈? 어느 게 먼저 들어온 지 알아지쿠과?

#1 이 사진관[56] 아저씨네가 먼저 들어왓지.

@2 중앙?

#1 중앙. 나랑 같이 들어와시난.

@1 그게 먼저 들어 온 거. 나머진 나중에 생긴 거마씨?

@2 육십구 년?

@1 육십구 년. 게난 그 시기에는 어쨋든 예식장 없이 집이 강 화장허고 사진 찍고.

#1 집에 가긴에, 집게 가긴에 사진 영헹 병풍, 병풍이 배경이라.

세화리 중앙 예식장과 중앙 사진관

@1 초가집 아래서예. 경허당. 육십구 년엔 경헤수다예. 이제 결혼식장에 강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꽈?

#1 그때는이, 그때는이, 결혼 예식장에 간 때는 언젠고 모르겠어. 저, 사진관 저디 집 짓은, 예식장 짓은 디가 경헤도 중앙 사진관에 완에, 요기 완에 사진 찍는 사람덜토 있었어. 결혼, 신부덜. 경헌디 예식장을 크게 출렸어. 저디가 언제?

@1 아이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아들.

#1 중학교, 중학교 땐가.

@1 그때쯤.

#1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아무튼 사진관을 고등학교 때 사진관을, 저 예식장을 출렸어. 중앙.

@1 아, 그믄 예식장이랑 사진관은 같이 운영했을 거고?

#1 어. 경 허연에 같이 운영헨. 그때부터 드레스가 이제 사진관에 저, 예식장엔 왓지.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쫙 허게 드레스를 걸어 놨어. 한 이십 불. 걸어 놘 그때부터 이젠 그 예식장에 강 드레스 신부 오면은 그 예식에 강 허면서 그디서 드레스를 골령 그디서 입어 봐긴에 헷지.

신부 화장을 그만둔 시기

@2 그때 삼춘이 미용도 헤 줜마씨? 그때까지는?

56) 보조 제보자 한정자 씨 남편이 운영하던 중앙 사진관을 말한다.

#1 어. 계속 헷지.

@1 아, 그때.

#1 그때까지도 계속 헷지.

@1 그 미용실, 그 사진관이랑 같이 세트로 뒌 거꽈?

#1 세트로 안 둬도 거의 팔구십 프로는 나아피 다 오니까. 신부 화장은 팔구십 프로 나아피 왔어.

@2 팔십 년대 중반까지는 어쨌든 하셧구나예.

#1 다 헷지.

@2 어. 시에 강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전문적으로 미용한 거는 나중에.

#1 나중에지. 헌 지가 얼마.

@2 신부 화장을 안 거의 허게 뒌 때가 한 구십 년대 뒝마씨?

#1 겅 뒛일 거라.

@1 여기 예식장 안 하고 다 시에로 가 불 때?

#1 어. 시에로 가 불 때.

@1 그전까지는 여기에서도 많이 헤신디예?

#1 많이 헷주.

@2 이 삼춘인가.

#1 언니, 옵서, 옵서. 옵서.

@2 여기가 중앙 예식장 사모님마씨?

@1 옵서, 옵서, 옵서.

#1 무사 옵센 허난 어디 간? 병원에 가난? 이레 옵서.

@2 안녕하세요.

미용사 기술 습득을 위한 부산살이

@1 우리 중간에 거 하나만 여쭤 보쿠다예. 아까 신창에서 허당예, 신창 사촌 언니네 집에서 하당 그리고 나서 저기 어딜 간 거꽈, 부산을 간 거꽈? 부산을 간 이유가 뭐꽈?

#1 아니, 샛별 미용실에 간, 그디서 어느 정도 배완. 이젠 여기서도 안 뒈겟다. 그땐 내 어린 마음에서 육지로 나강 큰 바닥에서 한번 놀아 보자.

@1 기술을 더 배우자?

#1 더 배우자.

@1 헤 가지고.

#1 겐 부산 나간 거. 것도 친구랑. 같이.

@1 그때도 같이 친구랑마씨? 그 기술 같이 배운 친구랑?

#1 응. 그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언니 동생 뻘이 뒈었어, 이제. 경헤연에 그디 오빠가 부산 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우리 같이 가긴에 헤 보자. 기술을 더 배우자.

@2 그 친구분도 지금도 미용하시멘마씨?

#1 아니, 안 헤여. 그때 그디는 부산 오빠네 집이 강 잇고 나는, 그디는 경 그추룩 기술을 빨리 배울라고 노력을 안 했어. 나는 아주 노력파고, 그디는 허여도 그만, 말아도 그만. 오빠네 집이서 살면서 하고, 잇고. 나는 그 오빠네 집이 살지 못허잖아. 경허니까.

@1 방 빌엉 살앗수과?

#1 아니, 저 미용실에서.

@1 아, 맞아. 거기 다 딸령 잇는 거예.

#1 그디에서 다, 그디서 잠자고 먹고 다 허고.

@1 그민 샛별 미용실에서 하당 부산 미용실, 부산 미용실 이름은 알아지쿠과? 청학동 아까?

#1 아이고, 무슨 미용실인지 모르커라. 하도하도 오래 노난.

@1 모르커라예. 그 가난 막 틀립디가?

#1 아니, 틀리지는 안허고, 내가 기술이 어느 정도 익숙으니까 중상으로 들어갓덴 허니까. 중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1 거기는 몃 사람이나 일허는 디마씨?

#1 다서, 여섯 사람.

@1 아이고, 그면 한 세 번째 정도는 뒈겟네예.

#1 네 번째 정도. 중상이니까.

@1 아, 예. 네 번째 정도 뒈는 거예. 밑에 시다 둥예?

#1 어. 경헷지.

@2 그때 왜 제주도에서 미용하셧던 분들은 대부분 다 부산에 꼭 가셧던 거 닮아예.

#1 몰라. 아무튼이 여기서 서울 가는 거보다 부산 가는 것이 그때는 더 가까왔을 거라. 친척덜도 다 부산에 잇고 허니까 그렇게 뒌 거 같아.

신창 미용실 미용사 이력

@1 맞수다. 맞수다. 그래도 영 보면 아까 샛별 미용실에 갔을 때는 막 여러 종류의 머리를 해 보셧잖아예.

#1 어. 다양하게 헷지.

@1 그 신창에 있을 때는 어떵 허꽈? 신창에 잇일 때도.

#1 신창에 있을 땐 나가 나 멋대로 다 헷지.

@1 그니까.

#1 경 허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1 그 시기에도 혹시 아줌마들 막 파마헤 주는 것도 허고 자르는 것도 헷주마는 그때도 신부 화장은 헤신가마씨?

#1 그때 신부 화장은 그 신창 간 안 헤 봤어.

@1 아, 그땐 안 헤 본 거.

#1 얼마 엇었어. 여름에 가니까, 여름에 가니까 겨울에 신부 화장은 겨울에가 많이 허주.

@1 시기적으로.

#1 시기적으로 그때는 없었어.

@1 없었던 거예.

@2 다 겨울에만 헨예.

신부 머리 스타일

@1 육십구 년도에 이거 시작헤수다예. 아까는 거의 다 면사포 머리에 맞게 머리 올림머리를 헷잖아예. 혹시 그거 말고 한복 입고, 저고리 하는 머리는 안 헤 봐수꽈? 아니, 저기 쪽두리 쓰는 머리.

#1 아니, 무사 안 헤게. 허당도 버치주게. 쪽두리 우리 계속 부채춤 머리 저거 다 쪽두리주게, 다게.

@1 아, 그니까 신부 화장할 때.

#1 신부 화장할 때. 그때는 쪽두리보단 그땐 복고풍 머리야. 그거 이제는, 이제는 요즘에는 그때 유행이 요즘은 착하게 베짝허게 헤근에 탁 허게 요디 영 톡 허게 밑으로 영 내려긴에 쪽머리를 많이 요즘도 허더라고. 경 안 허믄 생머리 풀어 놓고 허는 이제 신부덜토 많이 잇고 허는데 쪽머리고 뭐 허는 머리고 나는 전부 다 헤. 난 아무리 짧은 머리라도 뭐 다 헤. 다 헤.

@1 게난 그 시기에 신부들은 다 여기 면사포 쓰는 머리엿던 거지예? 쪽두리 쓰는 머리들 아니엿지예, 그때는예?

#1 어. 안 헸어.

제보자의 결혼식 회상

@1 예. 그때는예. 삼춘 스물두 살에 결혼을 헤신디, 삼춘 시집갈 때 머리는 어떵 헤수꽈, 누게가 헤수꽈?

#1 머리? 나냥으로, 나냥으로 헷주.

@1 본인 머리, 올림머리 다?

#1 어.

@1 결혼은 어디서 헤수꽈, 삼춘은?

#1 우리? 이디, 결혼식이 그때 마당에서 다 했어. 그때 마당에서, 병풍 영 헤 놓고.

@1 신랑 집 마당에서?

#1 어. 신랑 집 마당에서, 그때.

@1 병풍 세와 놩예?

#1 어.

@1 웨딩드레스, 하얀 치마저고리 입고?

#1 나는 그때 저 드레스 입었어.

@1 와. 장만한 거꽈, 본인이?

#1 아니, 그때는 처음으로 드레스 한 사람씩 입을 때라. 경 헨에 드레스 입었어.

@1 그 드레스는 어디서 빌려신고예?

#1 아이고, 나 그거 빌린 거는 몰르커라. 어디서 빌어신디 모르커라.

@1 잊어 불언.

#1 시에 어디서 빌긴, 시에 어디서 빌긴 빌엇어.

@1 당시 시에서는 그런 드레스를 빌릴 곳이 예식장이 잇어낫어예?

#1 어, 잇어낫어. 경 헨에이, 시내에서 빌언에 완에이, 입언에이 했어.

@2 최초일 거 같은데, 세화에서?

#1 그때는이, 다 한복덜 입언 결혼헤난이, 그때도 나가 ᄒᆞ꼼이, 이제 ᄒᆞ꼼 그 신식으로 헌덴 헨에 빌언 입었어.

미용실 물품 구입처

@1 그지, 드레스 입는 건 신식이엇던 거잖아예. 우리 육십구 년도에 초창기에 미용실 차리젠 허민 저런 약들이영 막 도구들이 필요헐 거잖아예. 기본적인 도구는 첨엔 갖춰 놩 헐 거고. 저런 약들 가졍 오젱 허민 누게가, 어디에 주문헹 허는 거 다 잇어나수꽈?

#1 아, 제주시내 그 저 영미사라고 한 군데 잇었어. 제주 시내, 관덕정 옆에 바로 이제도 영미사 있어. 그디서 다 이제 그디 강 사 오지.

@1 직접 가야 뒈마씨? 아니민 그 사람들이 옵니까?

#1 아니, 우리가 갔어, 그때는. 멧 군데 없으니까. 그땐 차도 별로 뭐 없고 허니까 우리가 직접 갔어. 버스로 탕 강긴에 한꺼번에 막 강 허여 오고 경 헷어.

@2 정기적으로?

#1 메칠에, 우리가 필요허면 자주 갔어. 제주 시내를, 그때는.

미용실 운영의 황금기

@1 삼춘 영 계속 지금까지 영 미용실을 헴신디 돈벌이가 뒙디가?

#1 돈 벌엇주게.

@1 벌엇주게. 어느 시기가 제일 하영 벌어진 거 닮수과?

#1 몰라.

@1 돈벌이 뒈난 지금까지 하는 걸 거고. 우리 시기적으로 그것도 시대적으로 영 영 영 흐름이 이실 거 닮아예. 많이 벌 때가 잇고 좀 경기가 안 좋앙.

#1 견디 가만이 보면은 옛날이 칠십 년대 그때가 이 할머니덜, 그땐 또 쌌어. 파마덜이, 파마 값덜이 싸고, 한 팔십 년대는 전부 파마를 했어. 칠십 년대는, 칠십 년대는 파마를 별로 안 하고 영 낭제로 무꺼긴에 삔 꼽앙 다니는 사람들 많아나고, 팔십 년대는 느 나 헐 거 없이 전부 다 뽀글 파마. 경헨 다녔어.

@2 응. 유행하던 시절.

@1 보통 그렇게 파마하면 몃 달에 한 번씩은 올 거잖아예?

#1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 게난. 게난 돈 하영 벌어져신게.

#1 하영 벌엇주게. 하영 벌언에게.

@1 그때 팔십 년대에 파마 한 번 허민 얼마 받아신고예?

#1 그때이, 팔천 원, 팔천 원.

@1 아이고. 팔천 원.

#1 팔천 원, 오천 원, 팔천 원, 칠천 원.

@1 그때 떡볶이 천오백 원 헐 때우다.

@2 아니, 아, 진짜. 아니, 팔천 원 할 때 놉 빌엉은에 검질메러 가는 값으로?

@1 어. 하루 일당이 얼마라수꽈, 검질메는 일당이?

@2 삼춘 몰라.

#1 나 몰라. 그건 몰라.

@1 팔십 년대 중학교 다닐 때 떡볶이 천오백 원인가?

#1 천오백 원, 무신 떡볶이 천오백 원?

@1 아, 칠백 원.

@2 천오백 원은 나중에 나 때지.

#1 백오십 원이렌 골라. 백오십 원.

@1 아, 기라신가.

#1 천오백 원이 어디 셔, 백오십 원.

@1 아, 그민 돈 벌엇네.

#1 벌엇지.

@1 그민 돈 벌엉 집 사수꽈, 밧 사수꽈?

#1 아 이 집, 이 집 짓고게.

@1 아, 이 집 짓고,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2 맨 처음 미용실도 여기마씨?

#2 살림집도게 짓고. 이 집 허고. 살림집 돈 다 벌엉. 오고파가 최고라.

@1 그민 오고파 미용실 원래 자리가 여기꽈? 원래는 어느 쪽 자리꽈?

#1 원래는 바로 요 옆엔데 그디 빌언 허다가 이디가 우리 아저씨네 집이라.

@1 아, 거난 그거 튿엉 건물 올렷구나.

#1 어.

@1 그민 그때 집세 얼마 뒌 거는 알아지쿠과?

#1 그때 집세 몰라. 저쪽에 그때 만 원 줘신가. 저 ○○이 어멍네 집이 헐 때. 만 원 줘신가.

@1 한 달에?

#1 아니. 일 년에. 일 년에 만 원 줘실 거라. 만 원.

@1 일 년에 만 원 줘신디 한 번 파마.

#1 만 원이믄 그때 백만 원 정도라.

머리 비용

@1 아, 그민 그 초창기에 한번 파마 하면 얼마? 나중에는 팔천 원까지.

#1 백삼십 원.

@1 처음에.

#1 어. 백삼십 원.

@1 백삼십 원. 한번 파마 하민. 머리 짤르는 건마씨?

#1 머리 짤르는 건 모르컨게. 그때.

@2 그때 제가 다른 데서 들어 볼 때는, 한림에서 들어 볼 때는 파마 값이 삼천 원이면 신부 화장이 만 오천 원인 거라예. 그면 한 다섯 배? 아니면.

#1 게난 만 오천 원이 우리가 이제 십오만 원이다 허는 말이라, 이제.

@2 삼만 원. 다섯 배 정도 받는 게 맞아마씨? 신부 화장허는 게 불 파마했을 때 값이랑?

#1 우린 불 파마는 안 하고, 약 파마부터 시작했어.

@2 아, 삼춘 약 파마.

불 파마 설명

@1 불 파마는 뭐고, 약 파마는 뭐꽈?

#1 불 파마는 이제 세팅 기계에 그 양철 뚜껑 닮은 것에 숫 놔 가지고 벰벰 물안에 위로 탁 허게 숫 놩 인에 집어낫어. 겨믄 머리 타게 뒈믄 그 한 뭉텡이가 다 타 불어. 우린 약 파마부터 시작헨.

@1 불 파마허면 요건 오레 못 가겟다예.

#1 게도 오래 가긴 헸었어, 그 옛날에.

@1 머리 감아도 남앙 이십니까?

#1 판나. 판나.

@1 판나지예?

@2 그거는 이제 하 미용사가 허믄 머리가 판나고, 상 미용사가 조절허멍 헤야 뒌대요. 요기 숫을 논덴, 직접.

@1 아, 볼륨을 더 살릴 수 있구나.

#1 겨난에 아무라도 맽겻당은 시간 딱 오바뒈 불믄 머리 타. 큰일 나. 경허니까 정신 바짝 차령 허지 않으면 그때, 불 파마는. 불 파마헐 때.

@1 게난 삼춘은 손이 빠르난, 손이 재난 손님 더 받았을 거 아니예, 거난 돈 더 벌어신게.

#1 아이고, 우리 집이 그때에 하루에 한 이십 명씩, 삼십 명씩 파마헤낫어. 파마 공장이렝 헤낫어. 경헷덴 허난. 예, 저 언니, 언니.

@1 여기 세화리에서 제일 인기 잇는 집이꽈?

#2 인기 잇는 집. 오고파.

@1 오고파.

#2 오고파, 오고파 파마헨 간 사람 뚜시 오고. 오고파. 오고 싶어.

@2 나 여기 왕 머리 짤라신지도 모릅니다예. 나 세화중학교 졸업헤시난.

#1 기? 세화중학교?

@1 예.

#1 멧 살?

@1 이제 오십마씨.

#1 오십? 우리 족은아덜보단도 밑에로구나.

@1 멧 년생이꽈, 멧 년생이꽈? 족은아들.

#1 우리 족은아들 이제 쉰셋.

@1 밑인게마씨. 저희 선배님인게마씨.

#1 응. 우리 큰아들은 이제 칠십 년생. 오십여섯.

@1 칠십이 년생이면 우리 오빠 친구겟다. 족은아들.

#1 우리 똘은 이제 마흔여덟.

@2 아, 똘도 잇구나.

@1 저기 저기 테왁 든 사람은 누구꽈, 사진에?

@1 봐 봐. 누게냐.

@2 삼춘.

@1 삼춘이꽈? 물질 안 헤낫덴. 폼만 잡은 거꽈?

@2 무용, 무용.

@1 아, 무용.

#1 무용게. 우리 무용단 아니라.

@1 아, 맞아. 혹시 더 묻고 싶은 거 잇습니까?

보조 제보자 정보

@1 삼춘 성함은 어떵 뒘수과?

#2 한씨. 한정자.

@1 한정자. 몃 년생마씨?

#2 삼십구 년.

@1 삼십구 년생. 원래 어디 출신이꽈?

#2 월정.
@1 어떵 세화리 왓수과?
#2 세화리 사진관 허멍 세화리 와수게.
#1 나영 ᄀᆞ치 거의 들어완, 언니네랑. 어떵 허당 경 뒈언.
@1 그민 결혼은 언제? 육십구 년도에, 육십구 년에 사진관 연 거다예?
#2 육십 구년에.
#1 어. 그때 뒌 열엇어.
@1 삼춘 몃 살 때꽈? 사진관 연 게.
#2 나가 사진관 헐 때 스물일곱.
@1 더 전인게.
#1 결혼헨 완.
#2 결혼헹 와시난.
@1 스물 일곱이꽈?
#2 스물일곱에.
@1 스물일곱에 결혼한 거?
#2 아니, 아니. 스물셋에.
@1 아, 스물셋에 결혼헨.
#2 이디 온 지가.
#1 육지 살단에 이젠 이디 사진관 허레 완. 아저씨가 기술자.
@1 아저씨는 어디 사람이꽈?
#1 월정.
#2 월정.
@1 육지는 어디 살당 온 거라?
#2 누게?
@1 아저씨. 육지 어디서 살당 완?
#2 육지? 서울. 서울서 배완.
@1 그민 기술을 서울 강 배운 거마씨?
#2 예. 서울서 배와수게.
@1 게민 서울 살 때 ᄀᆞ치 잇어나수꽈, 삼춘?
#2 서울은 없고 딴 디 저 하도.
@1 하도.
#2 하동, 하동. 경남 하동.
@1 아, 경남 하동까지 가난 거?
#2 예.

@1 그 사진관, 사진 기술은 어디서 배웟덴 허는 말은 들어 봐수과?
#2 서울, 서울.
@1 게, 서울 어디?
#2 서울 어디산디 나가.
@1 학교 뎅기멍 배웟덴 헙디가?
#2 뎅기멍 학생들 앨범도 찍으레도 뎅기고 막 경 헷덴 그디서, 그 사장네 집이서.
@1 아, 게난 사진관에 이 아저씨도 시다로 이시멍 도와 주는 일로 이시멍 사진을 배운 거구나예.
#2 몰라. 나도 잘 몰라.
@1 나 몰라. 스물세 살에 어떵 알앙 결혼을 하셔수꽈?
#2 ᄒᆞᆫ 동네난, 옛날에.
@1 월정 ᄒᆞᆫ 동네마씨?
#2 예. ᄒᆞᆫ 동네라 부난.
@1 누게가 중매헨.
#2 중매?
@1 누게가 소개헨?
#2 중매 죽어 벳어, 그 아저씨도. 옛날이난 죽어 벳주게, 이제 ᄀᆞ자 살앙 잇일 거라?
@1 예. 서울서 사진관을 하당 여기로 내려온 거꽈?
#2 사진관 안 허고 그디서 기술만 배완 다닌 거라, 하동으로.
@1 하동으로 다닌 거예.
#2 하동 갓단 완도, 하동 경헹 갓당 마주막에 일로 온 거, 세화로.
@1 세화로 온 거. 결혼은 어디 살 때 결혼은 하신 거마씨?
#2 서울 살 때.
@1 남자 삼춘 서울 살 때?
#2 어. 서울 살 때, 아방. 난 이디 실 때.
@1 그민 결혼헹 따로따로 살아수꽈?
#2 어.
@1 따로따로 살안? 한 데 안 살안?
#2 으, 따로따로. 한 데 안 살안. 서울 가 불곡. 난 또 물엣거 허레 다니고, 육지. 해녀.
@2 삼춘도 물질하셧구나.
#2 어. 물엣거 허레.
@1 물엣거 허레 다니고마씨?
#2 어, 어.
@1 경헹 여기 서울서 내려왕 여기 제주도 들어오난 여기 왕 찰린 거예?
#2 여기에 집 빌언. 저 집 빌언.

@1 저 집 어디?
#2 저, 저 앞의 집.
@1 찬스 짱?
#2 앞이 저거 빌언 사진관 헷어.

세화리 중앙 사진관

@1 저기 무슨 사진관이랏수꽈?
#2 중앙 사진관, 원래.
@1 중앙 사진관예. 육십구 년 이전이커라, 스물일곱 살이렌 허면.
@2 비슷한 시기인 거.
@1 비슷한 시기. 게민 중앙 사진관 하실 때예, 남자 삼춘은 돌아가신 거마씨?
#2 응, 응. 돌아가션. 이제야 돌아가신 지 혼 삼 년?
@1 혹시 남자 삼춘 헸었던 자료 같은 것들 잇수꽈?
#2 경 헌디 뭐 아들이 마탕 허기로 헌디 안 뒈니까, 이제.
@2 아들이 사진관도 헨마씨?
#2 핸드폰으로 난 후제 다 핸드폰으로 찍어 부니까 사진관이 안 뒈주마씨.
@1 게니까 이어서 사진관을 할려고 헤신디.
#2 예. 아들이, 이제 작은아들이, 쌍둥인디 그 작은것이 허젠 헌디예, 그냥 안 뒈어 사진관이. 안 뒈 부니까 치와 벳어, 이제.
@1 치와 불엇어. 그민 아버지 자료들은 가지고 잇이큰게마씨.
#2 예.
@1 작은아들이?
#2 예.
@1 삼춘 사는 집에는 그런 거 어수꽈, 옛날 사진들?
#2 엇어.
@1 엇어.
#2 작은아들이 허단에 한 오 년 헷나, 안 뒈니까 치와 벳주.
@1 작은아들 지금 뭐 헴수꽈?
#2 이제 기자 작은아들은 기냥 하우스도 허고. (보조 제보자의 개인사 생략)

오고파 미용실과 중앙 사진관의 협업

@1 아, 이 아들이 허젠 허당. 그민 남자 삼춘 이실 때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 막 봐낫다예.
#2 여기 같이 다녓어, 이디.
#1 나영 ᄀᆞ치 신부 화장, 계속 사진 찍으레 다녓어.
#2 같이. 신부 화장허지, 우리는 사진 찍지. 예식 허레.
#1 이 언니 드레스, 예식장에 드레스 쫙 드레스 함 이시면은 드레스 헤영 갓다 오면은 이 언니 그 드레스 그거 다 빨앙 또 다 세탁헤영 또 손질헤영 데리미 데령 짝짝 걸어 노면은 또 허고, 또 허고 경헷 주게.
@1 예식장 운영헐 때구나예.
#1 어, 어.
@1 예식장은 몃 년서부터 시작을 헨마씨?
#2 예식장, 예식장 시작헌 지.
@1 큰아들.
#1 고등학교 다닐 때꽈?
#2 누게? 큰아덜?
#1 응.
#2 아니, 고등학교 다니기 전이 예식장 헷주.
#1 전이 중학교 때예.
#2 중학교 때, 헤신가 모르켜.
@1 나 중학교 때도 잇어낫수다, 예식장이 여기에. 여기 파출소에 골목 꺾으면 거기 예식장.
#2 어. 그게 예식장. 처음에 거기 예식장.
#1 그디 허당 크게 헌 거는 또 저쪽에.
@1 아, 여기 먼저 허당 나중에 저쪽에 간 거예?
#2 예. 저디 강 낸중 허고.
@1 나 중학교 때면은.
@2 천구백팔십 년대 중반?
@1 어, 그때 잇어난 거.
#2 예식장 헌 지 혼 사십 년 뒈실걸? 경 뒈는 거 닮다.
@1 경 뒌 거 닮다.
#2 여기 사십 년. 다 잊어 벤, 이제는.
@2 팔십 년대 들어 설 때잖아예, 이후에예?
#2 어. 경 뒌 거 닮다.
@1 팔십 년대 뒌 이후에.

중앙 사진관 대표의 정보

@2 남자 삼춘이 삼춘보다 위에마씨? 연령대가 어떵 뒈마씨?
@1 몃 년생이꽈? 남자 삼춘.
#2 나?

@1 남자 삼춘.
#2 이제 ᄀᆞ만 셔 봐.
@1 몃 살 위꽈?
#2 다섯.
@1 다섯 위.
#2 양력으로 헤 부난 다섯.
@1 삼십사 년생.
#2 에. 다섯. 사십이 년생인가.
@1 성함은 어떵 뒈마씨?
#2 고창송.
@1 예?
#2 고창송.
@1 예. 육십구 년서부터. 남자 삼춘 막 바쁠 때는 사진 찍으레 멧 군데나 가난 거 닮수과?
#1 아이구, 잘도 하영 갓어.
#2 잘도 많이 다녓어.
#1 다서여섯 곤데. 나나 마찬가지. 같이 쫓아 다녓어.
#2 어. ᄀᆞ치.

세화리 사진관 정보

@1 그때 여기 사진관도 세 군데나 잇엇덴 허멍마씨?
#1 어. 세 군데 잇언.
#2 네 군데.
#1 네 군데꽈?
@1 네 군데?
#2 코리아 잇고, 평화 사진관 잇고, 또 ○○이네 집이 사진관 무신 사진관이고.
#1 아, 그디도 잇엇구나.
#2 그디 잇어 부난 네 곤데. 우리까지 네 곤데.
#1 나 세 군데만 얘기헨.
#2 네 군데. 우리꺼지. 경허난 안 뒈니까 다 치와 벵 우리만 끗까지 헨.
@1 아, 삼춘네가 제일 마지막까지 한 거예?
#1 어. 그분덜은 다 치와 불언, 안 뒈니까.

중앙 사진관의 정보

@1 게민 남자 삼춘은 막 바쁘게 일헷잖아예. 사진 찍고, 그거 인화하고, 손님 응대하고.

#2 기사 데련.
@1 기사 몃 사람? 한 사람?
#2 기사 데령 앨범도 헤야지, 경 허난.
@1 앨범도 헤야지. 기사 한 사람 데령?
#2 어. 기사 ᄒᆞᆫ 사람 데령. 기사가. ᄀᆞ치.
@1 ᄀᆞ치 다녓고. 삼춘은 어떤 일 도와 준 거 이수꽈?
#2 어. 나도 사진 찍어 주곡. 카메라 사진 다 ᄆᆞᆯ려 주고. ᄀᆞ찌 안 혀믄 안 뒈어.
@1 사진 찍는 것도 삼춘이?
#2 어. 사진도 찍고.
@1 안녕하세요.
@2 손님인가.
#1 인터뷰 헴수다.
@1 ᄀᆞ치 말씀헤 주십서.

사진 인화 및 사진 촬영 방법과 종류

#2 옛날 말 헴서. 옛날 헤난 거. 사진도 그거 ᄆᆞᆯ리다근에 태와 불민 싸워 간다 싸와 온다.
@1 ᄆᆞᆯ리당 태운다는 게?
#2 몰랑 너미 기냥 판에서 ᄆᆞᆯ리당 보민.
#1 너무 오래 뒈 불믄게, 겨믄 잘못헷덴 이제 꾸지람 들엇주게.
#2 오래뒈 불민 태와져.
@1 그 ᄆᆞᆯ린다는 게 우리 액체 속에 요렇게 담앗당 꺼냉 불빗에 ᄆᆞᆯ리는 거잖아예?
#2 그 사진이 다 만들어 노민 물에 담강 그 물을 자꾸 ᄀᆞᆯ멍 다 시쳐 줘.
#1 약물을.
#2 약물을 빼 비어야 뒈어. 경 허믄 이제 그 사진 이제 또 말려야 뒈어. 인물 사진은 안 ᄆᆞᆯ리고 카메라 사진을 다 ᄆᆞᆯ려야지, 기계로.
@1 응. 전등에예.
#2 인물 사진은 그냥 영 뭐 허믄 ᄆᆞᆯ르는디 카메라 사진은 안 뒈어. ᄆᆞᆯ려야주, 판에.
@1 삼춘 인물 사진이영 카메라 사진이영 ᄀᆞᆯ암신디 어떤 게 인물 사진?
#2 인물 사진은 결혼사진, 증명사진, 가족사진 그런 사진 보고 인물 사진.
@1 그니까 요런 거 세워 놩 셔터로 찰칵 헹 찍는 거예?
#2 카메라로 찍는 건 카메라 그 사진이고, 또 큰 기계로 찍는 건 인물 사진이고.
#1 하나 둘, 하나 둘 찰칵.
#2 어. 그거. 예식 사진들 찍는 거.
@2 삼각 다리 잇고, 영 들렁 다니는 거 마그네슘 팡 터지는 거?

#2 처음엔 마그네슘으로 찍어수게.
#1 화약으로 탁 허는 거. 화약 화약.
@2 그거는 안 몰려도 뒌다는 말씀이신 거지예?
#2 그건 기냥 화약으로 마그네슘으로 담아근에 팡 팡 찍어.
@1 그럼 삼춘도 그 인화하는 순서를 다 알아졈구나.
#1 알주게.
#2 그 냉중엔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전기로 찍언, 처음엔 마그네슘으로.

결혼사진 촬영

@1 그믄 전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식장 인물 사진을 찍을 거우다예. 다 앉아 놩예. 뭐 뭐 준비헹 강 찍어야 뒐지 혼번 골아 줍서.
#2 거 기계허고.
@1 기계하고.
#2 필림.
@1 필림.
#2 응. 그거 원판. 원판만 놓고. 겅헹 강 찍으면 뒈. 결혼사진.
@1 겅 헹 찍언?
#2 카메라 사진은 또 카메라 필림 담앙 강 찍고.
@1 예. 그믄 원판 사진 찍젠 하믄 원판 사진은 몃 개나 가졍 가는 거 알아지쿠과?
#2 그거 열 장 찍젠 허믄 열 장 가졍 가야 뒈어, 것도.
@1 보통 한 사람 결혼할 때는 몃 장이 기본이꽈?
#2 결혼사진, 혼 사람 결혼헐 때믄 여섯 판.
@1 여섯 판.
#2 여섯 판. 경 안 헹 또 추가로 혼 일고ᄋᆞ덥 판, 경 찍어.
@1 기본은 여섯 판?
#1 신랑, 신부.
#2 신랑, 신부, 주례, 집사.
#1 이제 주례, 집사, 가족 저, 여자 가족, 남자 가족 이제 합쳥도 찍고.
#2 합쳥, 친구. 여섯 판은 기준이라.
@1 여섯 판이 기본.
@2 마당에서 결혼할 때도 여섯 판이 기본마씨?
#2 어. 마당에서도 겅 다 찍어야 뒈니까.
@2 그 마당에서 결혼할 때는 여자 쪽의 집안 사람들이 집에 오지는 않잖아예. 남자집에. 그믄 여자 집 가족사진은 어디서 찍어마씨?

#2 여자 가족사진 따로 찍젠 허믄 또 그 저.
#1 여자 집이서도 찍곡, 남자 집이서도 찍어.
#2 나올 때 찍곡. 건 카메라로.
@2 그 이렇게 스냅 사진 찍는 거가 카메라로 찍는 거라는 말씀이지예?
#1 작은 거.
@1 게난 원판 사진 찍는 건 신랑 집이서만 찍을 거잖아예?
#2 예. 신랑 집이서만.
@1 우리 결혼헹예, 신랑이 신부 집에 데리러 와 가지고 영 데령 신랑집이 도착하는 거잖아예. 그 전엔 카메라 사진으로만 찍당 우리 신랑 집에 들어강 신부상 받앗수다예. 그다음에 사진을 언제 찍읍니까?
#1 사진, 신랑상 받은 것도 사진 찍어.
#2 예식 끗나민, 예식 끝나민, 아, 그 예식헐 때 찍는 거.
@1 예식, 집에 가민 예식이라는 게 엇수꽤.
#2 어. 그냥 사근에 다, 그디 집이 들어가민.
@1 집이 들어갈 때 찍읍니까, 아니민 밥 다 먹어 앚앙 사진 찍읍니까?
#2 아니, 아니, 밥 먹기 전이 예식 사진.
#1 밥 먹기 전이.
@1 아, 그럼 우리 신부 집이서 신랑이 신부 데령 신랑 집이 도착허민 이제 가마에서든 트럭에서든 내릴 거예. 트럭에서 내렷수다. 택시에서 내렷수다. 내령 집이 들어갓수다. 이 사진 먼저 찍읍니까?
#1 어. 사진 먼저 찍어.
#3 아니라, 예식 끗낭근에 사진 찍어.
#1 예식장 가기 전이.
@1 예식 시작하기 전이?
#1 예식장이 마당에서 사진부터 찍어긴에 밥 먹어.
#2 신랑집에서.
#1 예식장 엇을 때게.
#3 마당에서 다 허주.
#1 게난게. 차에 내리면은 우선 사진부터 이제 다 이제 사진 찍어.
#3 그디서 저 닭이영 뭐영 놩 다 헤난 다음에 사진 나중에 찍어.
#1 아니.
#3 다 헤난 다음에.
#2 아니, 다 헤난 다음에 안 찍어.
#1 아니, 밥 먹기 전이 찍어.
#2 다 찍엉 끝난 다음에 들어강 밥 먹어.
@1 삼춘 집이서 결혼헤수꽈, 예식장에서 결혼헤수꽈?

#3 집이서 헷주.
#2 그디도 집이서 결혼헷주.
#1 게난 사진 집이서 찍엇주. 우리 언니, 우리 언니라.
@1 아, 우리 언니라?
#3 밥 먹기 전에 다 찍엇어. 다 찍어난 다음에 들어강 허주, 밥 먹어나믄 또.
#1 아니, 게난 밥 먹기 전이 사진부터 먼저 찍엉 들어강 밥 먹엇어.
#2 거 카메라로 찍는 거는 밥 먹는 것도 찍고, 다 끗나가도 찍고 경헤셔게. 경헹 드라이브 가 불고, 이. 언니도 잊어 벰셔, 이제.
#1 게난 밥 먹기 전이 사진부터 찍어긴에.
#2 전이 예식 헹 들어가, 사진부터.
@1 얘기허난 닮앗어. 곱수다게, 곱수다게. 게난 신랑집에 도착헹 하민 차에서 내리멍 영 모영 사진을 찍는 거라예.
#2 다 모여. 이디 미용사가 잘 알주, 따라뎅기니까.
@1 아까 여섯 판이 기본이렌 헷수다예.
#2 응. 여섯 판이 기본.
@1 여섯 판 한번 세 보게. 우선은 신랑 신부 둘만 찍을 거예. 거 한 판. 그리고.
#1 저, 주례사.
@1 주례랑 사회?
#1 저 사회.

결혼식 주례

@1 그때 우리 집이서 결혼할 때도 주례영 사회 잇어나수꽈, 엇엇지?
#1 그때는, 그때는 엇언 무데뽀[57]로 그냥 주례허고 아무튼 주례.
#2 주례 봔. 주례 봔.
@1 집에서 결혼헐 때도 주례 잇엇수과?
#2 어. 주례 잇엇어. 어. 주례 잇엇어.
#1 말헷주게. 영 영 어쩌고 저쩌고 허멍 이제 성혼 선언문 허멍 것도 다 헷어. 집이서 헐 거.
@1 집이서 헐 때도 그거 헷수과?
#1 소낭에 막 이제 풍선 달아메고 다 허영.
#2 솔문 세왕. 솔문 셉고.
#1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배경이 이제.

57) '무데뽀'는 일본어 'むてっぽう(無鉄砲)'에서 온 말로, 일의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1 거난 그거는 한 칠십 년대 후반 뒈 가지고.
#1 집이서 주례 허고 다 헷어.
@1 집에서 주례 헤수꽈?
#1 어. 허는 집은 다 헷어.
@1 삼춘도 주례 헤수꽈?
#2 어. 주례 헷어.
@1 삼춘도 집이서 헐 때 주례 헤수꽈?
#3 주례 헨 다음에 사진 찍었어.
@1 아.
#1 게메, 주례 허영 사진 찍은 다음엔 마주막엔 밥 먹어긴에 그다음에는.
#2 드라이브 가 벳주게.
#1 옷 갈아입엉 드레스 입으믄 하얀 옷으로, 저 한복으로 갈아입고 헤긴에 그다음은 이젠 술자리 혼 잔 헤긴에 사둔님 무신거 허멍 이디 마리에서 주고 받고, 사둔님 무신거 허멍 헤연 사둔대회 헤낭 끗.
#2 사둔대회 허민 끗이주.
@1 삼춘도 집에서 결혼헷잖아예?
#2 한복 입엉.
@1 주례 헤수꽈?
#2 어.
@1 주례 헨.
#1 마당에서 다 주례 다 헷어.
#2 마당에서 주례.

결혼식 아침 신부 준비

@1 그민 생각 한번 헤 보게예. 우리 결혼식 자체를 한번 차 차 차, 삼춘 걸로 떠올려 보쿠다예. 삼춘 삼십구 년생이고, 아까 스물셋에 결혼헨예. 삼춘도 월정이고 남자 삼춘 월정예. 자, 우리 결혼날 아침이우다. 결혼식 날 아침. 삼춘 집이서 뭐 헤수꽈?
#2 아침에? 결혼식 아침? 아무것도 안 헤, 결혼식 아침에는.
@1 아무것도 안 헤. 옷은 입어야 할 거 아니?
#2 옷은 입어야지.
#1 신부 화장허고 신부 머리허고.
#2 머리허고.
@1 머리허고예. 신부 화장 누게가 왕 헤 줘수과?
#2 난 서울 사람이 헷어, 서울 아줌마. 월정 완에 시집온 아줌마가.
@1 아, 동네 아주망이 헤 준 거.

#2 어. 서울서 완.
@1 서울서 왕예. 월정 왕 사는, 월정서 사는 아주망?
#2 예. 월정서 시집완. 월정에 시집완. 경허난 그 아줌마가 미용헨.
@1 그 사람 미용하는 사람이라수꽈?
#2 예, 미용허는 사람.
@1 미용하는 사람.
#2 예. 원래 미용허는 사람.
@1 그민 미용실 월정에 차린 거마씨?
#2 엇어, 엇어. 아니, 아니, 기냥.
@1 아니, 그냥. 아니.
#1 그냥 영 ᄒᆞ꼼.

신랑상

@1 그 사람이 헤 준 거. 그민 이제 신부 화장 곱게 헹 이제 신랑이 집이 와수다예. 신랑이 집이 오민 멘 먼저 뭐 헙니까?
#2 방드레 모셔근에 강 밥상 출리주. 경 안 헤샤이. 밥상 출려.
#1 새각시칩이 이제 가긴에.
#2 가민 우선 방더레 모셔.
@1 예. 밥 먹을 거예.
#2 어. 밥 먹을 거. 밥상 출려.
@1 신랑상 받앙 밥 먹을 거예.
#2 으, 밥 출령.
@1 밥 다 먹엇수다. 그다음 뭐 헙니까?
#2 그다음엔 이제 신부 모셩.
#1 새각시 데령 올 거.

신랑집으로 신부 이동

@1 새각시 데령 올 거. 삼춘은 새각시 데령 어떵 물 탕 와수꽈, 가마 탕 와수꽈, 트럭 탕 와수꽈?
#2 동네라 부난 나 걸엉 간.
@1 걸엉 간.
#1 옛날에 다 걸엉 다녓어.
#2 가메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동네라 부난 걸엉 간.
@1 걸엉 간예. 삼춘 결혼한 시기에 다른 친구들은 가메 타수꽈, 트럭 타수꽈?
#2 트럭도 타곡, 가메도 타곡.

@1 아이고.
#1 가까와 부난에. 가까와 부난에.
#2 가까와 부난. 가까와 부난 걸엉 간.
#1 신랑칩하고 가까완.
@1 그민 신랑집이 갈 때, 걸엉 갈 때 신랑이랑 영 팔짱 껴 가수꽈, 아니면 앞뒤로 헹 가수꽈?
#1 앞뒤로 갓주게.
#2 앞뒤로 가. 앞뒤로. 팔짱 안 껴.
@1 그민 삼춘 옆에는 누게가 잇엇수꽈?
#1 들러리 잇주. 여자 들러리.
#2 저, 들러리.
#3 남자네 친척.
#1 데리레 와.
@1 우시 간 사람예.
#2 우시 온 사람.

신랑집 마당에서의 예식

@1 신랑집으로 들어감수다예. 저기 그냥 방 안으로, 삼방으로 들어갑니까?
#2 아니, 아니, 마당에서 사진 찍어야지.
#1 아니, 아니, 사진 찍어. 예식허여. 예식허는 거지. 마당에서 예식헤.
@1 마당에서 예식헤. 게민 집에 들어가민 마당에 섯수다예. 그 뭐 단상, 상 같은 건 없잖아예, 테이블 같은 거예?
#1 엇어. 엇어. 병풍만 영 치어긴에.
@1 병풍 영 쳐졍 잇어.
#2 경 안허믄 또 솔문으로.
@1 응?
#2 소나무 헤다근에 두에.
@1 삼춘 할 때도, 삼춘 할 때도 올레 들어갈 때 솔문 잇엇구나예. 누구 누구 축 결혼 헹예, 써졍예. 솔문이 잇엉 글로 들어가난 마당에 들어가수다. 주례는 어느 펜이 이십디가?
#2 주례 누게 그거 ᄎᆞᆺ이 본 사람 잇어?
@1 ᄎᆞᆺ이 못 봔예. 게민 방에 안 들엉 사람들 거기 다 모영 삼구나예. 거민 주례가 앞에 상 뭐렌 뭐렌 굴읍니까?
#2 아니. 두에. 신랑 신부 두에.
@1 신랑 신부 뒤에. 우리는 지금 보면 주례가 아, 두 사람 신랑 신부 백년해로 허고 뭐 하고 막 한마디 헙니께.

#1 혼마디 허주.
#2 말사 허지.
@1 그거 헤수꽈?
#1 허주게.
#2 거 헤신가. 어떵 헤신가.
@1 몰르크라. 일단 주례는 이신디 그건 기억 안 나?
#2 어. 기억 안 남저게.

보조 제보자의 예식 후 결혼 사진 촬영

@1 그민 그다음은 뭐 할 거?
#1 사진 찍어.
#2 그다음은 사진 찍어근에 강 방으로 들어가 불민.
@1 방으로 들어갈 거예. 그민 그때 사진 신랑 신부만 한번 찍엇수다예. 그리고 신랑 신부영 주례영 한 번 찍엇수다예. 그다음 또.
#1 어머니, 아버지.
#2 또 어머니, 아버지.
@1 어머니 아버지영 신랑 신부영 찍엇수다예.
#2 경헌디 어머니, 아버지 옆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1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 신부헹 네 사람이 찍언예.
#2 이제 또 가족사진.
@1 전체 사진예. 가족예.
#2 가족사진 찍으민 친구 사진.
@1 친구 사진. 다섯 판. 한 판은 또 뭔고?
#2 ᄀᆞ만 셔 봐. 주례.
#3 신랑 친구영 신부 친구 따로따로.
#1 신랑 친구덜.
@1 신랑 친구 신부 친구 따로 찍엇수과?
#2 따로 찍는 딘 따로 찍고, 같이 찍는 딘 같이 찍고.
@1 어.
#3 따로따로 찍어.
@1 따로 찍으민 여섯 판 됨수다.
#2 같이 찍는 딘 같이 찍고, 또 따로 찍는 딘 따로 찍고.
#1 한쪽으로.
@2 친청 식구들이랑 찍는 건 없잖아예, 그니까.

결혼식의 사진 촬영자

@1 엇어. 엇어. 그건 카메라 사진으로만 찍을 거. 자, 삼춘 결혼헐 때는 누게가 사진을 찍어 줘수꽈?
#2 서울서 와. 거기서. 서울서.
@1 그 남자 삼춘 친구꽈?
#2 예. 서울서 와.
#1 일헤난 디.
#2 서울서 완 찍언.
#3 우리 결혼헐 땐 ** 아방이 간.
#1 어게. 은희 아방 다 찍엇주, 무신.
@2 삼춘 결혼할 때는 중앙사진관 남자 삼춘이 강 찍어준 거.
#1 우리도 다 마찬가지.

신부 이동의 에피소드

#3 시발택시 타근에 저 한림서 와 부난 김녕 완 고장 나고, 만장굴 왕 고장 나고. 한림서 오젠 허난 그 때 아스팔트 안 헐 때 비포장도로.
@1 오멍 고장 난. 오멍 고장 난.
#3 겨난 ○○ 삼춘이 먼 디 시집감디.
#2 그때 추럭 탕 와샤?
#1 응? 시발차.
#3 택시 세 개, 돈 엇어 부난 택시 너무 비싸 부난, 하난 김녕 완, 하난 만장굴, 하난 월정 차부에 완 세 개 다 고장 난.
#2 아이고, 고장 나 불언. 그 먼 디서 오믄 그거 어디고게.
#3 장거리 아스팔트 아닌 비포장 도로 와 가난.

기타 결혼사진 이야기

@1 삼춘 결혼사진 게난 이수꽈?
#2 누구?
@1 삼춘 결혼사진.
#2 결혼헐 때 어떵?
@1 그때 사진이 이수꽈?
#2 어디사 가 베신디.
@1 삼춘, 이 삼춘이 찍어준, 이디 남자 삼춘이 찍어준 사진 이수꽈?
#3 잇어.
@2 잇어.

#1 우리도 잇어.
@1 여기도 이 삼춘이 찍어 준 거꽈?
@2 아, 여기 하면 뒈겟다. 둘 다 잇덴.
@1 둘 다 잇덴.
@2 저희 그것도 좀.
@1 그거 사진.
#1 거 저디 집이 강 가져 오젠 허믄 언제랑. 저 삼 층에 강 가정 와야 뒐 거난.
#3 삼 층에 강 가져 와야 뒐 거.
@2 삼 층 뭐꽈게. 여기, 여기 삼 층 아니?
#2 아니라, 아니. 저쪽에.
@1 나 업힙서.
@2 아니믄 삼춘 거 꺼내 놓으면 나가 사진만 받으레 오쿠다.
@1 어. 나중에. 나중에 오쿠다.
@2 그거 우리 스캔. 컴퓨터에 옮겨 놓으려고. 쪼그만한 거 아니예.
#1 큰 거지.
#2 크주. 중판일 걸.
@2 흑백인데예.
#2 아니, 저만이 헐걸? 저쪽에 저기 저디 찍은 거만이.
@1 진짜 옛날 사진 정식으로 찍은 건게.
#2 커.
@2 어. 우리가 본 거는 다 쪼끌락헌 거.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갖고 왓는데.
@1 요거. 요거. 요런 거. 이거 미용학원. 미용학원 때 사진도 이수꽈?
#2 이만이 허여, 이만이. 이거, 이거. 이걸로만 찍엇에. 그때 시절에.
#1 어디 잇긴 잇는데이, 어디 잇긴 잇는데. 사진들 옛날 사진 춪아 보면 막 다 잇는데.
@2 그거 보레 와도 뭘 거마씨? 따로, 옛날 사진. 모아진 것만.
#1 어. 어. 어.
@2 이거는 우리 저기 성산에 가니까 요기 삼춘 이름이 정춘자.
@1 일 기 미용생. 삼춘은 몃 기꽈?
@2 근데 영주미용학원은 아닌 거 같고, 옥천 다녓덴마씨. 옥천. 이 삼춘이 이게 우도에 시집간 삼춘 이제 신부 화장하러 갓는데 배 탕 나오는 거. 이거 드레스 입엇던 거고. 이게 이제 삼춘처럼 옆에서 미용사 헷던 거. 그 삼춘이고, 혹시 문순애라고. 옥천 미용실. 중앙로에. 옥천 미용실 여기가 문순애 삼춘이거든예.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쿠과? 문순애 삼춘 몰라?
#1 이름은 많이 들어낫어.
#2 카메라 사진인게, 다 이거.

#1 들러리만 가낫어.

미용학원에 대한 기억

@2 이거는 미용 기술 배우러 갓던.
#1 학원생덜.
@2 학원생. 이렇게 배웠엇던 건지. 모다져근에. 칠십 년대.
#1 우리는 우리는 막 이 저 동그랑 헌 의자, 연탄 화리면은 동글랑하게 고데기들 다 노멍 삥 돌아 앉앙 돌아 앉앙 동글 동글 동글 돌아 앚앙 헷어. 이추룩 영 쫙 앚앙 그거 안 허고.
@1 강의실처럼 안 헹 그냥 테이블처럼 요렇게 앚앙?
#2 응. 가운데는 고뎃기 놓곡 연탄 화로 놓곡 헤영. 경헹 배완.

센터 사진 수집 안내

@2 그러면 삼춘 사진만 옛날 사진 이시면 그 결혼사진하고 남자 삼춘 찍어준 사진이영 삼춘 옛날에 미용헷던 사진이나 옛날 흑백 사진 있으면 고것만 한번 나 잇저 하면 제가 가지러 올게마씨.
#1 게메 한번 춪아 보아야주.
#2 이실 거여게.
#1 아이고, 오만 저예, 막 오래뒌 사진들은 막 버려 불곡 헤 부난예.
@1 그거 귀중한 자료우다예.
#1 게메게.
@2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일하는 데서도 옛날 사진 모아 가지고 이제 뭐 시상식 이런 것도 허고 허니까 사진 보여 주시면 담당 직원한테도 좀 말헤 가지고 따로 오라고.
@1 우리 남자 삼춘이 찍엇던 사진들 옛날 사진도 잇어시믄 참 좋을 건디. 건 진짜.
#2 엇어. 중이 이녁 머리 못 까끈다고 경 사진을 안 찍엇어.
#1 응. 맞아.
@1 사진은 더 안 봐도 뒈죠?

결혼식 주례자

@2 예, 예. 주례는 누가 보통 왕은에 헤 주는 거마씨?
#1 그때는 교장 선생님덜. 교장 선생님을 많이 했어. 우리도 교장 이디 저.
#2 교장 선생. 담임 선생. 경 안 허민 담임 선생덜토 주례 삿어. 경 안 허믄 교장 선생님.
@1 그건 그냥 인사로 헤 준 거잖아예, 뭐 그거 헤 줫덴.
#1 게도 덕망이 있는 분.
@1 그지예. 마을에. 덕망 잇는 분.
#1 덕망 잇는 사람.

@1 어쨋든 관련 잇는 사람한테 강 부탁허는 거고, 경 헤 줫덴 헤 가지고.
#3 와이사쓰 하나 사당 안네어, 주례사 님한테.
@1 예. 좋수다.
#1 와이사쓰 선물.
@1 돈은 안 드리고예?
#1 그때는 와이사쓰가 큰 선물이주.
#2 응. 선물.
#1 주례 서, 주례.
@1 그민 그때는 주례는 잇엇주마는 우리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는 사회도 잇고 주례도 잇잖아예. 마당에서 할 때 사회는 엇어낫수과?
#2 엇어.
#1 엇어. 엇어.
@1 그건 없고.
#1 아무튼 주례만 아무튼 허연에.

전통 혼례 정보

@1 우리 옛날에 테레비전 보다 보면 옛날 전통 혼례 결혼할 때는 마당에서 결혼할 때 영 거기도 음식 차려 놩 서로 영 맞절 허고.
#1 술.
@1 술 따라 주는 것도 잇잖아예. 우리도 그런 것도 헤신가마씨?
#1 안 헷어. 안 헷어.
#2 에. 그런 건.
@1 허는 디도 잇어낫수꽈?
#2 옛날엔 잇엇지게.
#3 그 마당에서 음식 다 헹.
@1 그니까 그거 할 때 서로 왜 신랑이 신부에게 절하고.
그때는 큰 한복 입어긴에 이제 이런 옷이 아니고, 그땐 그 도폭, 남자도 도폭 입고 아주 그 저 뭐 허고 여자는 이제 연지 곤지 찍곡 허여긴에 영 허영 옆에서 부축헤 주는 거를 헤여긴에 영 술 따라 줭 영 허곡 이제 저 무신거 영 던지곡. 애기 나렌 허믄 그 저 대추, 대추 그거 영 던지곡 경헨.
@1 게난 육지에서는 경 헤신디. 제주도는.
#1 그축 허고. 이디는 경 안 했어.
#2 제주는 안 헨. 안 했어.
@1 그지예. 제주는 안 헷지예. 게도 주례는 있엇다. 아이고. 예.

오고파 미용실 개업의 유래

@2 처음부터 이 미용실 이름 오고파마씨? 누가 지어준 거마씨?
#1 나가 오고파 지어 주니까 아니, 완 보난 우리 언니가 미장원을 저, 오고파 미장원을 사긴에 이제 빨리 들어오렌 허는 거라.
@1 아, 그민 거기 미용실 헷던 자리마씨?
#1 어. 어. 오고파 미용실.
#3 야이 부산 신디 여기 세화리에 미장사들이 변변치 안헤. 나 월정 살 땐디 왕 보믄 세화리 읍이엔만 헷주, 변변치 안허연. 겨난 자인 부산 이신디 거기서 보내 주지 안 허연. 게난 아버지 돌아가셧덴 전보 쳔. 전보 치난에 자이 들어완. 경 헨 미장원허단에 이디 시집왓주.
#1 경 헷주게. 아까 말 안 헨? 월정 우리 언니가 잇엇덴 말, 그 언니가 이 언니라. 겨난 나영 ᄀᆞ치 이제 평생을 ᄀᆞ치 감세.
#3 거난 월정서게, 이디 오면은 세화리 오면은 미장원이 변변치 안헤. 겨난 틀림엇이 야이는 기술 배와근에 부산ᄁᆞ지 강 잇이난에 뭘 거다 생각헨 나가 미장원을 삿주게.
@1 예. 언니가 잘 헤신게.
#2 게, 언니가.
#3 야이신디 들어오렌 허난 그 주인이 안 보내어 줜.
@1 잘허니까.
#3 경 허난 이젠 헤시믄 부산서 더 부산 사람 뒝 더 큰 사람 뒈신지.
#1 나는 기술이 어디 가도 주인 눈에 들엉 그 머리를 잘했어.
#3 경허난에 이젠 나 전보 쳣주게. 전보도 한 번 쳔 안 보내언 두 번썩 세 번썩 쳐 가사 그때사 보낸. 그때 위급허덴 허멍 막 전보 치난에 그때사.
#1 아부지 위급. 경 헨. 그때는 전보, 전보덜만 칠 때주.
@1 게난 위급하덴 허난 진짜 위급한 줄 알고 마음 졸이멍 와신디.
#1 게난 오꼿 이디.
#2 잘 뒛주.
#3 그디서가 이젠, 이건 자네 집이난.
@2 원래 잇던 미용실 이름이 오고파. 그 이름 그대로.
#1 그대로. 겨난이, 전통이라, 이거. 우리 오래뒌 전통이라. 오고파 몰른 사람 없어.
#2 멧 년이라게. 오십 멧 년. 오십팔 년이나 됌사, 최고라 최고.

오고파 미용실의 현재

@1 여기에서예?
#2 오십팔 년.
@1 게민 언제까지 미용실을 더 하고 싶어마씨?

#3 구십, 구십 나도록.
@1 구십 나도록.
#1 백 나도록.
@1 그믄 요즘은, 요즘은 손님이 하루에 어느 정도 잇어마씨?
#1 몰라. 엇인 땐 이추룩, 오늘은 막 엇인게, 오늘은 소님. 잇일 땐 잇곡 엇일 땐 엇곡게.
@1 그래도 제일 하? 어쨋든 할머니들도 이제는 다 파마허잖아예. 자르기도 허는 거고.
#2 이제 할머니들이 문딱, 많이 돌아가셔 빗주.
#1 돌아가신 사람이 핫어.
@1 아니, 원래 있엇던 사람이야 돌아가셧지만 새 사람들도 영 올 거고.
#2 올 거라도 인구수가 경 무신.
@1 어쨋던 오던 사람들이 계속.
#2 어.
#3 멧 십 년썩 단골, 단골 할망덜. 걷지 못허는 할망덜. 난이 할망덜이 말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안 잘 놀레도 안 오고. 자인 다.
@1 언니 머리는 꽁짜로 헤 줌수꽈?
#3 멧 십 년 헨 돈 안 줘 봣어, 자이신디. 화장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나 진짜이.
@1 너무 잘 어울리게 헤 줘신게. 게난 요새는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됌수꽈?
#1 요즘은 엇어, 엇어.
#2 할망덜토 요양원에 가 불고, 다 죽어 불고 헤 부난 벨 소님 이젠, 단골 손님이 이제 안 남안.
#1 나도 이제 맥이 다 끊어져 가멘.
#3 다방덜토 하르방덜 다 죽어 부난 다방 손님 원.
#2 맞아, 다방에도 마찬가지.
@1 경 헤도 문 닫을 생각 없는 거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2 맞아. 그 말 맞아게.

천직 미용업

@1 그믄 하나만 더 물으쿠다. 미용실을 나가 잘 헤진 거 닮수과, 아니민 다시 태어나민 다른 일을 헤 보고.
#1 다시 태어나도 미용실.
@ 무사마씨, 그거는?
#1 나가 즐거워.
@1 즐거워.
#3 사람 구경허고.
@1 아, 적성에 맞는 일예.

#3 자이는 할망덜 곧는 말 다 들어 줘.
#1 들어 줘야 뒈주게. 들어 줘야, 소님인디다가 다 백 프로 들어 줘야 뒈주.
#3 요번인 손 심엉.
#2 게난 잘헤 부난 단골이 계속 다니는 거라, 할머니덜이.
#1 게난 올 때덜은 할망,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배추도 가져오곡 무신, 무신 것도 가지도 가져오곡, 뭐 무신 것도 가져오고, 콩도 가져오고 새우리도 가져오곡 경 헴세게, 할망.
@1 미용실 하멍 제일 힘들엇던 건 뭐꽈?
#1 힘들엇던 거? 힘들엇던 거는 그냥 뭐 힘들다 헌 거 없이 내 직업이다 생각허니까 그자 즐겁게 허는 거주, 힘들다 생각하는 거는 엇어.
@1 엇어. 그 왜 시다로 일할 때 막 서럽다는 그런 경험은 어수꽈?
#1 아이고, 그거야게. 멧 번 때려 치와 불고정 허주게. 옛날엔 식모나 마찬가지로 헨 살앗는데. 눈칫밥 먹고, 소님 눈치 보저, 주인 눈치 보저, 어디 남의 집 생활이 무신 호화스럽게 허는 거라. 아이고, 경 허난에 끗끗내 배우는 사람이 살아남기가 힘들어. 요즘은, 요즘은 첨 아이들 경 안 하는데 그 옛날은이 아주 옛날은 첨, 요즘은 사람들도.
@1 우리 학원 다닐 때 몃 사람이 ᄀᆞ치 배워수꽈?
#1 아이고, 그때는이 멧 사름산디. (동네 어르신 방문, 내용 생략)

신부 화장 일화

@1 하나만 더예. 다닐 때 재밌어난 일 기억나는 일 엇수과? 화장 다닐 때. 기억나는 거.
#1 기억나는 거 무사 엇어게.
@1 어떤 일.
#1 아이고. 애기 ,애기 이제 신부 화장 일찍 왕 허여 주렌 헹 간에 일찍 가난에 애깃베맞촨에 신부 화장 헤 가난 애깃베맞촨.
@2 삼춘이?
#1 아니.
@2 누구?
@1 아까 다시 굴아 줍서. 신부가 애깃베맞추완? 임신한 상태로 결혼헌 거?
#1 애기 날 때 뒈언에 결혼허는 디 이제 사진관 아저씨랑 나랑 이제 가는디 빨리 일찍 오렌 허는 거라. 일찍 왕 화장을 헤 주렌 허는 거라. 게난 사진관 아저씨랑 나랑 이제 빨리 일찍 갓주게. 경허난 가난에 월정, 월정. 게난에 이젠 새각시가 애깃베맞추는 거라. 아이고 이제 결혼식은 이제 허여야 헐 거고, 애깃베맞추고 ○○ 언니 아시, 죽어 분.
@1 경 헹?
#1 애깃베맞추난에 빨리 오렌 허는 거라. 전화가 집집마다 경 별로 엇일 때라. 하나 어떵 허당인에 전부 다 전화가 엇일 때.

#2 그디 리사무소에 하나 잇어실 거라, 리사무소에.

#1 일찍이 빨리 왕 신부 화장을 헤 주렌 허난에 아이, 무사마씨? 애깃베맞추와 부난 경 헴덴. 아이 간 보난 사진관 아저씨영 나영 이젠 막 돌아 간 보난 이젠 애깃베는 맞촷닥 또 누겻닥 허잖아. 메날 계속 아프는 게 아니고. 아고게, 경헨 이제 가난 이제 화장 이제 가문잔치 다 허고 내일은, 오늘은 잔친디 잔칫날인디다가게, 전날부터 잔친디게 애깃베맞촤 부난 이제 똠이 잘잘 나는디 화장을 허여. 와작착 와작착 한 삼십 분 내로 화장을 허연에 이젠 허난 이제 빨리 사진 찍으라. 사진만 찍어야 뒌덴. 겐 이제 그 마당에서, 마당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펭풍 쳔에 사진을 딱 찍언 허난에 이제 똠은 달 달 달 달, 애깃베맞추고 한복은, 그때 하얀 한복을 입을 때 영 쪽두리 쓰고 헹 애깃베맞촤 가는디 아이고, 막 죽어 가난에 아이고, 큰일 낫저. 사진만 이제 팍 팍 팍 팍 찍언에 이젠 난 이젠 아이고게, 빨리 글읍서 집에 가게 헨에 이제 집이 와 부난에 ᄒᆞ끔 잇이난에 애기 나수꽈? 허난에 금방 사진관이영 금방 미용사영 가 부난에 금방 애기 낫덴, 아덜. 것도. 추억거리가 조그만이 잇인 게 아니라. 겐 애기 아들 난. 그 ○○ 언니 이제 그 가이, 암 걸련 죽어 분 아이. 아이고, 나영 동갑. 나영 동갑. 아이고, 경 헌 일이 있엇고. 또 한 군데는 또 이제이 하돈디 하돈디 이젠 형허고이 동생허고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엇어. 겐 이제 결혼을 이제 허는디 이제 형이영 전날 막 싸완에 이제 그 저 누게 잇지 안허꽈? 김○○이. 그디 보통 아니. 아니꽈?

#2 응. 그디.

#1 게난 그디 아시 결혼헐 때 운전허여, 결혼허는디 이젠 저 일찍 오렌 허는 거라. 게난 무사마씨? 허난에 어떵 그럴 사정이 잇언 일찍 와 주렌. 밤이 언니 이 밤과 저 밤 사이 막 일찍 갔어, 이젠. 간 헌디 나만 이젠 우리 아저씨 자전거 탄 이젠 그디 갔어. 경 헨 간디 아휴, 무사 경 일찍이 밤이 이 밤도, 저 밤도 아닌디 어떵 헨 헴수광 허난, 이제 그 나가는 시간도 무시허고 무조건 이 집에서 빨리 그 새각시 데령 나와 불민 허켄. 겐 화장을 헤연에 이젠 허난에 예식장은 어디꽝? 허난에 예식도 엇이예, 가당 보면은예, 아무 디라도 문 연 디 가긴에 사진관에 강 사진만 흔 장 찍어긴에 허쿠다 헌 것이 이제 운전헤긴에 이젠 화장허여긴에 나도 ᄀᆞ찌 간 이제 허는디 가단 보난 김녕이라. 김녕에 사진관이 조그만허게 있었어. 게난예, 그디 간예, 내련에 그디 아침 일찍이 문 올았어. 게난 그디 간에 사진만 우리 찍어 주렌 헨 사진을 찍었어. 겐 그디 간 사진 찍언 이젠예, 허난에 밤이예, 그 저 김○○이가예 막 죽이켜 살리켜 칼로 찔러 죽여 불켜, 불 붙여 불켜 막 하도 하도 싸와 노난예, 밤이 그냥예, 야간 허는 식으로 경 헨 간 허난에 경 헨에 사진을 찍언에, ○○이 아주방이 그 아줌마야. 이젠이, 그디 똘이 이제도 아방은 운전을 허는디 완전 잘 뒈언. 그 저 메느리, 그디 똘이예, 학교 선생인디 이제 저 하도 당근 제일 하영 허는예, 일 년에 십 억씩 버는 그디 메느리로 간. 경허연 밤이, 형 몰르게.

#2 밤에 결혼식 사진을 거기 찍언?

@2 형이? 무사?

#1 막 싸움난덜 난리가 난. 막 싸움 난에. 경 헨에이, 밤이 도주허고이, 벨 집일 다 나 봣저. 벨 집일 다 봔.

@2 결혼 못 허게도 허는구나.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영 허난.

#1 아니, 아니, 경 헌 거 아니고 형제끼리 싸완.

@1 형제 사이가 안 좋안.

#2 형제끼리 싸운 것에 그축 밤에 결혼식으로 사진?

#1 다 뒈언?

미용과 사진 출장 이동 방법

@2 하나만. 그 중앙사진관 남자 삼춘이영 원장님이영 같이 움직일 때는 그러면 삼춘네 남자 삼춘 같이 안 가고 두 분이서 저 뭐냐, 오도바이?

#1 아니, 아니 그자 걸엉 다년, 손당꺼지 걸언 다녔어. 손당도 아저씨랑 나영 같이 걸엉 같이 다녔어.

#2 걸엉 다녓주. 송당꺼지 걸엉.

@1 송당까지 걸언 간마씨?

#1 어. 차가 없었어, 그때.

#2 차 엇엇주. 그때는게.

@2 ᄀᆞ치 갓당 ᄀᆞ치 오고.

#1 어, 어. ᄀᆞ치 오고 ᄀᆞ치 가곡 경 했어.

#2 차가 없어. 그때는.

@2 걸엉. 그민 여기서 송당까지 걸어가젠 하믄 그때는.

#1 엄청 걸렷지, 시간.

#1 한 시간 넘어 걸려.

@1 두 시간.

#3 옛날은 송당서도 제주시 가는 차가 엇엉.

#1 걸엉만 다녓어.

#3 세화리 내려왕.

@1 우리 학교 다닐 때도.

#3 세화리 내려 왕 버스 타근에 시내.

#1 게난 끗.

14.

우도면 중앙동 한봉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6월 4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한봉원

제보자 정보

#1 저기 우선은 저희가 이 자료가 필요헤 가지고예, 삼춘 성함부터 여쭤 보젠마씨.

@1 난 한봉원이고.

#1 예. 한봉원 자 뒈시고예.

@1 몃 년생이시꽈?

#1 삼십구 년. 게난 팔십다섯.

@1 삼십구 년생마씨?

@2 좋아요.

#1 그럼 아까 형님, 형님은 맨 큰형님인데 몃 년, 몃 살 위꽈?

#1 게메, 그걸 이젠 기억이 안 나는디 어쨌든 우리 세 살 맏이로 헤 가지고. 아이고.

@2 정확하게 안 기억하셔도.

@1 형제가 몃이나 뒈마씨?

#1 우리 여덟 오누이. 게난 남자가 셋, 여자가 큰누님, 셋누님, 말젯누님. 일곱 오누이로구나.

@1 일곱 오누이, 예.

#1 남자는 서이. 건디 나 나기 전일진 모르주. 일본 시대니까.

@1 예, 일본 시대.

#1 일본 시대에 일본 가서 사진 학교를 나온 모양이라. 형님이.

@1 아, 진짜 전문가였구나.

사진사로 활동

#1 전문가. 거난 사삼사건 당시에 현장 사건 찍으레 뎅겻어. 한라산에. 그리고 나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헤 가지고 당분간 와 있을 때 성산포서, 거 형님 허는 걸 조금 배운 거라. 배와서 그때 당시에 일본 완전히 통일이 안 뒌 때. 안 뒌 때난에 성산포 경찰서가 잇엇어. 그믄.

@1 사삼사건 완전히 해결이 안 뒐 때예.

#1 해결이 안 뒌 때. 혹이나 바다에서 사체가 올른다든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엇다든지 허민 가서 현장 사진을 찍으레 나가 뎅겻어.

@1 현장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고마씨? 그때는 한 열 몃 살인디?

#1 스무 살 넘은 때.

@1 아, 스무 살 넘을.

#1 예. 이젠 사진 찍으러 뎅길 때는 스무 살 넘은 때.

@1 예. 그믄 저기, 우리 삼춘이 현장 사진 찍으러 다녔다는 얘기잖아예. 그민 스무살 넘으민 오십구 년인건디마씨.

#1 예. 어떻든 스무 살 넘은 땐디, 그 현장 사진 찍으레 혼번은 그디 가면 성산포 가면은 터진목이엔 헌 디가 잇어.

@1 알아지쿠다.

#1 터진목 순베기왓디 영장을 갖다 논 거라. 겨난 알고 보니까.

@1 순부기왓디예.

#1 으, 순베기왓디. 거난 우리 우도 사람이 자살로 물에 빠젼 죽은 거라. 겐 그 시체가 먼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배 그물로 뗑겨 온 거라. 게 와서 그 사람들 영장이난 좀 의심할 거 아니라. 물에 다시 내려 놔 벳어. 게서 또 작업허는 디 또 들어온 거라. 게서 이제 홀 수 엇이 이 사체는 그 사람덜토 사람이니까 몰른 밧디 놓젠 헴구나. 게서 그딜 갖다 노니까 이젠 거 신고 했을테주. 지서에, 경찰서에. 그니까 이젠 우리는 사진 찍는 집이난 완 현장 사진 좀 찍어 달렌 헤 가지고 나가 찍은 예가 잇어. 겨난 경 찍언 오면은 암실이엔 헤 가지고 있거든이. 게서 거기서 현상을 허는데, 약이 두 가지라. 그림자 나오는 약이 잇고, 그다음에 이름도 다 잊어벳저. 저 스돕 시키는 약. 경 헤서 스돕이 뒈면은 이제 밖에 몰려 가지고 밖에 가져 뎅겨도 뒈는 것이 필름 사진 뒈. 근때 당시에 우리 사진 찍을 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소님이 와서 사진관에 소님 오면은 옛날 호롱불, 헝겁 이렇게 허고.

@1 맞수다.

#1 호야 영 끼우고 헌 그 등 아져 가지고 불 비춰서 핀트를 맞춘 거라. 그런 때라. 게서 이제는 광은 어떻게 냇느냐. 것도 잊어벳네. 거 화약, 화약을 이젠 그런 거 엇주마는 아이들 탁 두들민 빵 터지는 그런 걸 따로, 또 이제사, 마그네슘. 마그네슘 잇이난 거 불껑 닮은 약을 어느 정도 놔 가지고 이렇게 헤서 튕기는 거라. 경헤서 그 광으로 사진 찍어서 영업을 헷어. 게서 그 나가 전기 온 후로는 ᄆᆞ쳐 벳어.

@1 아, 전기 온 후렌 허면 한.

#1 상당히 오랜 때주게. 오랜 땐데.

@1 예. 게난 한 마흔 살쯤 뒈난 마쳐 분 거구나예.

#1 마흔 살 전이.

@1 서른 살 정도 뒈난.

#1 서른 살은 조금 더 있엇고. 저 주민등록이 언제 개조헷는진 몰라도, 주민등록 사진 찍을 때까지는 영업헷어.

@1 아, 예. 좋은 정보입니다.

#1 게난,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처음 주민등록 헷다가 다시, 다시 바꿀 때. 바꿀 때가, 까지는 헷는데, 근때까지도 전기는 안 들어완게. 게난 근때 당시에는 카메라덜이 조금 발전뒌 때라. 게서 우리 사진도 면에 가서 면 직원들이 찍어가지고 주민등록 사진을 헷거든게.

@1 게난 뒤에서부터 말씀하시니까 그냥 묻겟는데, 무사 그만둬수꽈? 그때 주민등록 찍을 땐 한참 돈 벌어실 거 같은디.

#1 벌엇주. 벌어도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 촌이라부니까. 촌이라부니까 허곡. 이 얘기 헤서 뭘지 안 뭘지. 근때 당시 주민등록 바꿀 때는 어디냐 하면 남군 신산리. 알아지커라?

@1 예, 알아지쿠다.

예식장 개업

#1 신산이서 나가 예식장을 출련 헤낫주.

@1 아, 예.

#1 게서 거기서 보는 마을이 온평, 그다음 난산, 성읍리에 소님은 표선이서 뗑겨 가고. 이제 삼달 상하동, 신풍. 그 마을을 사진 찍으레 뎅겻주. 게서 한번은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서 갖다 줘야 헐 건디. 그때는 교통이 걸언 다닐 때거든게. 걸어 다닐 땐데 동남, 거 요번에 얘기허듯이 고대유 씨라고. 게, 나보다는 우에고, 또 제자로썬 우리 형님 제자고.

@1 아, 고대유 씨가예. 맞수다, 맞수다.

#1 형님 제자고, 그래서 사진을 갖다 주지 못 헨 애가 터지는디 하, 그 양반이 오도바[58] 자랑 허레 온 거라. 오도바 처음 나올 때. 또 오도바 그때 사기도 힘든 때주. 보통 돈으론. 그 형님은 동남에서 크게 벌려 가지고 돈 번 때라. 경헨 허니까 오도바가 서투니까 또 길 이제가치 아스팔뜨 길도 아니고, 나 뒤에 탄 동만아, 발 줍지라, 발 줍지라.

@1 발 줍지라. (웃음)

#1 발 줍지니까 바쿠에 헤서 이 상처, 이 상처서 아무것도 아니로 친 것이 그게 파상풍이 와 분 거라. 게서 옛날 도립병원이 이제는 대학병원이주마는 도립병원이 어디 잇냐민 저, 저 동문통 시장 저쪽에 그 ᄆᆞ을 이름은 잘 몰르커라. 그디 도립병원 이실 때. 거기서 치료허단, 결과적으로 살아나젠 허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실습 온 교수덜이 있엇던 모양이라. 게난 실험용으로. 난 실험용으로 써 가지고 처음 간 때는 파상풍 약을 ᄒᆞᆫ 병 가지민 세 번씩 나누어서 허는 걸, 말은 못 ᄀᆞᆯ아도 들으니까. 헷는디, 나가 살아난 때는 그 교수들이 와 가지고 ᄒᆞᆫ 병을 ᄒᆞᆫ뻔에 세 병씩 넣은 거라. 게난 죽으믄 죽고 살민 살렌 헌 거라. 게 그게 살아난.

@1 게난 완전 심헷구나, 파상풍이예.

#1 심헤연. 그냥.

@1 죽을 걸로 생각허고 잇어낫어.

#1 응. 죽을 걸로 생각허고. 제일 아픈 디가 어디냐면 이디 등골. 등골을 못 헤 가지고 박는 형식이라. 드러 박아. 건 뭐 옆이 환자들은 기가 멕히주게, 웨는 소리에. 경헤서 결국은 살아난 오늘까지 살안, 명 질언에, 이제.

사진 시작 계기

@1 거난 그때 아픈 걸 계기로 헹 안 허게 뒌 거꽈?

#1 아니, 응. 경도 허고. 경 허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로 이사를 온 거라. 이사 와 가지고 뭐 허단 보니깐 우도에서는 그렇게 널르지도 안혀고, 또 출장 갈 일도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그때도 혹여나 어디 대질 가젠, 저 바껏디 나가젠 허면은 배를, 풍선.

58) '오도바'는 '오토바이'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1 그지예.

#1 돗 돌안 뎅기는.

@1 빌려야 뒐 거.

#1 으, 빌련 타고. 경 헤서 그냥 그럭저럭 기냥 설러 불엇지.

@1 아, 게민 우도 들어왕 살멍 이 우도 안에서 사진은 찍어시쿠다예.

#1 잠시.

@1 잠시.

#1 예. 잠시. 그때 주민등록 막 ᄆᆞ치지 안 현 때난에 그냥 조끔 허단에. 그 여러 가지로 불편헹게. 전기도 없지. 또 재료 사레도 시에, 허단 시에 어디 알지는 모르지마는, 이제는 어신가.

@1 동문로. 동문통.

#1 동문통 조금 지난 디주. 월광사엔.

@1 예. 월광사. 이게 뭐.

@2 재료상.

#1 재료 집. 컷주, 근때. 어떠튼 우리 제주도 사진관은 전부 다 거기 재료를 써시난.

@1 그믄 그때까지 헤신디,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쿠다예. 어떵헹 영 사진 일을 허게 뒌 거꽈?

#1 아니게, 형님이 사진을.

@1 언제부터 형님, 어릴 때부터마씨?

#1 아니게. 어릴 땐 우리 고향은 여기난.

@1 예. 원래 여기꽈, 고향?

#1 고향은 밑에 마을이주. 살단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난에 뿔뿔이 헤어지게 뒌 거주게. 형님은 시에 가서 살단 성산포로 오게 뒌 거고. 거난 이제 흔번이라도 형님네 집에 가면은 신바람시킬 거 아니라. 그때 당시엔 이제 사진은 어떵 허는지 몰라도 그땐 사진을 인화헤서 나오면은 세숫대야에서 물 커. 게서 즉 말허면 약기를 빼는 거주. 게난 그 조절이 어느 정도 허느냐에 따라서 십 년만이 변헷저, 이십 년만이 변헷저 허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1 아, 사진이.

#1 사진이.

@1 그니까 조절을 잘 헤야 오래 돼는 거라예.

#1 그렇지. 경헌 거. 경 허니까 형님은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니까 그 일본식으로 허니깐 사진이 오래 간다는 소문이 나고. 게난 그 가까운 사람덜이 제주시 가민 수타 사진관이라고 잇엇어.

@1 제주시에, 그 시기에예.

#1 으. 수타 사진관이 이름 잇엇주. 겐 그분이 난 얼굴 몰르주마는 우리 형님허고 단짝이라.

@1 ᄀᆞ치 일본에서 배워신가?

#1 그건 몰라. 하여튼 가까운 친구덜이라. 경헨에 형님 심바람허단 보니까 이젠 또 형님 또 술을 허니깐. 난 술은 안 허주마는, 술을 허니까 술을 허면은 야, 복만아, 저 물 커 불라. 또 기술도 없는디 암실에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그 필림이, 영 어떵 헤근에 영헹 그림자 어떵 허고 영 헤서 경 신바람시키는 거라.

아내와의 만남

@1 그난 그런 신바람헌 게 한 삼춘 몃 살 때쯤 일이꽈?

#1 그때가 스물두어 살. 아니, 스무 살쯤 뒌 거 같아. 나 스물두 술엔가, 세 술엔가 결혼헤시니까. 결혼헐 때는 사진 찍으레 갓단 만난 거주. 우리 안사람이 신산리 사람이라.

@1 아, 예.

#1 겨난 신산리 출장을 갓는디 어둑어서 차 엇언 못 오게 뒌 거라. 경 헤서 결국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난 이제까지 잘 살암주.

@1 차 엇엉 못 오게 뒛는디 어디 강 잣다.

#1 그땐 걸엉만 다닐 때.

@1 맞수다.

#1 또 이 얘길 우스운 얘기를 헌다고 허면은, 사진기 들고 가방 들, 필름 논 영 가방, 또 사진기 이렇게 조립헌 삼각대영. 바로 그 식으로.

@1 사다리예.

#1 삼각대 헤 가지고 헤서 이렇게 메곡 들곡 헤서 신산리서 신풍을 갔다가 오곡 허는 거라. 게서 한번은 신산리 결혼 또, 삼달린가 신풍인가 결혼을 두 군데를 맡은 거라. 차 ᄀᆞ트민 확 강 왓주마는 걸엉 뎅기니까 왕 보난 이디 예식이 다 끝나 분 거 아니? 경헹 나 매 맞음도 헤낫어.

@1 아, 안 왓덴.

#1 안 오니까게.

부산 생활과 중학교 중퇴

@1 아, 보면 그럼 스무 살 때는 이거 시작은, 이거는 스무 살 때는 배운 거잖아예, 형님 밑에서. 거난 이전까지는 계속 우도에서 지내셧던 거마씨?

#1 아니. 부산 간 학교도 좀 다니고.

@1 게민 하나씩 물어 보쿠다예. 삼십구 년에 여기 우도에서 태어낭 학교는 어디까지 헤수꽈?

#1 중학교밲이 못 헷는디. 중학교도.

@1 우도는 초등학교 그때 우도서 헤수꽈?

#1 우도서 초등학교.

@1 중학교는?

#1 게난 중학교를 부산 간 허긴 헷는데, 우리 두 번째 형님이 부산 사니까 그 공부 시키켄 허니까 좋안 간 거 아니라. 가니까 형님도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게. 게서 일 학년 다니니까 좀 어려운 거 같아. 겨난 부산서 학교 다니는데 그 거리가 부산 뎅겨낫어? 부산 태종대라고 잇어. 영도에. 태종대서 그때

마을은 동삼동이고. 거기 살았는디 학교는 어디냐. 국제시장 넘어와 가지고 보수공원이라고 잇어. 거기 피난 온 학교니까. 겐 천막 학교에 다닌 거라. 그렇게 헤서 우도를 나가게 뒌 거.

@1 중학교 가젠 우도 나강, 부산 강 살앗구나예.

#1 게서 이제는 학교도 다 못 ᄆᆞ치고 제주에 들어오니까 이제.

@1 몃 학년까지 허당 들어온 거꽈?

#1 이 학년꺼지.

@1 이 학년 하고예.

형님 일 보조

#1 게서 성산 완 사니까게, 형님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왠만한 것에 신바람 시키젠 헐 거 아니라?

@1 그민 신바람은 그때서부터 한 건게예.

#1 헌 거. 헌 거.

@1 중학교 이 학년때니까 열다섯 살쯤 때?

#1 쪼끔 더 지난 때라.

@1 한 열일곱 살 때부터 형님 밑에서 신바람을 한 거예.

#1 게난 사실은 제대론 기술도 못 배왕 영업을 헌 거주.

@1 아니, 배워신게. 형님한테서.

#1 경헤도 어느 정도 뭐 가리켜 주거나 이렇게 헌 건 아니.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건 모냥이라. 알아서 터득허라. 형제간이라도.

@1 눈으로 보멍.

#1 응. 보멍.

@1 옆에서 보멍. 배우라는 얘긴 거지예. 견습하라는 얘기인 거지예.

결혼사진 촬영 일화

#1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은, 신산리 결혼사진 찍으레 갔는데 길이 궂어 가지고 그때 당시엔 차가 많지 안헌 때니깐 그때 삼발이 차라고 잇엇어. 화물차. 저 바꾸 세 개짜리. 그것이 처음에 들어온 차라. 게, 그걸 빌어서덜. (녹음 끊김) 뒤집을 방법이 엇어. 어둑어 부니까. 겐 사진을 찍어야 뒈겟고.

@1 아, 낮에 찍을 걸로 허난 준비를 못 헷구나예. 가당 보난 어둑어 불언.

#1 아니, 신부가 오당 보니까 어둑어 분 거라. 겨난 샷다[59]를 보통은 하나 둘 셋 헤서 그냥 순식간에 노아야 뒈는 건디 스물, 서른꺼지 샷다를 눌러서 헤서 사진 찍은 거라.

@2 무사마씨?

59) '샷다'는 '셔터'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1 조리개 맞추는 데가.

#1 조리개 맞촤 가지고 사진 이제 찍으는 거. 그민 차가닥 착 헤야 뒈는 건디 경헤면은.

@1 빛이 없으니까 빨리 안 움직여.

@2 아, 조리개가.

#1 거니까 이젠 뒈민 뒈고, 말민 말라 허는 식으로 헤 가지고 하튼 삼십 번 셋는지 사십 번 셋는진 몰라. 게도 사진은 나왓네.

@1 나완마씨? 잘 나완?

#1 응. 응.

@1 아니 그럼 그 사십 번 세는 동안 영 찍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말아야 뒈.

#1 가만히, 가만있는 거지. 가만있는 거지. 응. 응. 가만히 있는 거주.

@1 우리 카메라.

@2 멈춰야 뒈.

#1 겨난 그런 일도 잇엇어. 그땐 전기 엇인 때난게. 지금이야 뭐 그냥 사진 찍으민 그냥 빼는 생이란게.

형님 일 보조

@1 게난 아까 열일곱 살서부터 신바람을 한 건디, 그니까 형님네 집에서 살멍 신바람을 한 거.

#1 응. 그렇주.

@1 거기서 살멍예.

#1 형제간이난게.

@1 형제간이난 시키는 것대로 헌 거라예. 경 본격적으로 삼춘이 요청이 왕, 형님 없이 삼춘만, 처음에는 형님이랑 같이 다닌 거꽈? 사진 찍으러 갈 때. 어떵 가수꽈?

#1 그렇주. 응. 응. 같이. 가방 들르곡 헹.

@2 조수 모냥예.

#1 응, 응. 조수.

출장 결혼사진

@1 그럼 그 예를 들면 신산리에서 이렇게 우리 내일, 언제 언제 잔칫날 왕 사진 찍읍서 헹 의뢰가 오잖아예, 의뢰가 오면 갈 때 누구누구 몃 명이 갑니까?

#1 아니, 혼자 걸엉.

@1 혼자 가마씨?

#1 혼자 걸엉 가는 거라. 그디. 그때 차가 지금거치 계속 뎅길 때도 아니고. 혹이나 차가 있다고 허민 버스도 간혹 가당 잇엇주마는 제주시에 가젠 하면 화물차 얻엉덜 탕 간 때가 태반이주게.

@1 게난예. 혼자 걸엉가는디, 혼자 갑니까?

#1 혼자게.

@1 보조 엇어도 뭽니까?
#1 아이, 보조 엇어도 뒈는 거.
@1 왜나면 이렇게 카메라 셔터 눌르는 사람이 잇고 옆에서 팡 터뜨리는 사람이 잇덴 헙디다.
#1 아니, 아니.
@1 아, 초창기에는.
@2 없언.
#1 이 저 뭐가 잇주. 스위치엔 허민 뭴 거라. 그 공 닮은 거 헤 가지고.
@1 바람 뚝.
#1 바람 탁 놩 자, 찍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탕. 자, 이렇게.
@1 아,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였구나예.
#1 혼자 헐 수 있는 거.

결혼사진 촬영 시 준비물

@1 아까 들렁 가는 건, 가지고 가는 건 가방 하나에 카메라 어깨 메고 요거 삼발이 하나 들르고, 요렇게 들고 가는 거.
#1 게서 거기 가 가지고 이젠 사진을 거 도리바코[60]렌 허는데, 거 일본 말일지는 몰라도. 필림 들어가는 저, 칸이 잇어. 오레 부니깐 다 물러나 가지고 데껴 벳주마는. 그것을 세 개나 네 개 노면은 양쪽씩 놔서, 네 개 가정 가면은 요둡 판밲이 못 찍는 거니까. 요둡 판밲이 못 찍으난 사진을 더 찍을 일이 생긴다고 허면은 여비 필림은 가졍 가. 거민 거기 강 이불 덮어 도렌 헤.
@1 이 사진기에예, 여기 이불 덮을 거예.
#1 아니, 사진기가 아니고.
@2 필름에.
#1 필림만. 필림 박스허고 필림 봉지허고 요렇게 써 가지고. 그래서 필림 바꽈치기 헤 가지고 또 사진 찍고.
@2 암실 만들어서.
#1 카메라가 아니니까.
@1 여기에 필름을 끼워야 뒈는디 그때 그냥 베껫디서 끼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불 속에서 끼웠다는 얘기예.
#1 응. 응.
@1 그믄 아까 사진기 따로 들르고 삼발이 따로 들르고 사진 가방이 있었잖아예. 가방 안에는 뭐 뭐가 들어 잇어나수꽈?
#1 저 사진기.

60) '도리바코'는 일본어 'とりばこ'에서 온 말로, 여기에서는 필름을 넣어 두는 칸칸이 나뉜 상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1 가방은 얼만이 큰 거마씨? 어만이 헙니까?
#1 가방?
@2 이만이?
#1 데껴 베져신가?
@1 이 정도, 이만큼 헙니까?
#1 거보다 좀 클 거라.
@1 이거보단 클 거예. 네모난 거예.
#1 일본 시대에는 가죽으로 된 거 헷주마는 우리 한국엔 그땐 일본안틴 떨어진 때니까. 아모레 화장품 거 판매.
@1 응. 판매용, 네모난 거.
#1 그거 가졍 뎅겻어. ᄉᆞ각진 거 빳빳허고 이렇게 저 뚜껑 놓아도 쪼그라지지 안허니까 편리허거든. 그거 가졍 뎅견.
@1 그 가방에 필요헌 거 담안?
#1 논 것이 삼각대는 세 개 이렇게.
@1 접어지는 거.
#1 접어근에 포에 싸곡, 게난 포는 햇빛 못 들어가게 이중으로 헤 가지고 포를 만들어 이렇게.
@1 건 여기 씌우는 포 얘기하는 거지예.
#1 어, 어. 게서 이렇게 머리 쓰고 사진기 쓰고 헤서 이렇게 핀트를 맞추는 거고. 삼각대는 그렇게 헹처리하고, 가방은 조리개 아 저, 저 샷다. 샷다 통, 그다음에 렌즈, 아까 주름상자 있는 원통. 그거 또 이제 필림 담아 있는 도리바꼬. 경 가졍 다녀. 만약에 이제 밤에 출장이다 허게 뒈면은 그 저.
@2 조명?
#1 조명이 아니고 그.
@2 마그네슘?

결혼사진 촬영 방법

#1 마그네슘. 마그네슘 놓는 거. 게난 그거를 요렇게, 요렇게 뒈 가지고 요거 요거 손잡이 잇고 여기 눌르는 것이 잇고 경헤서 이제 화약을 놓는 거라. 화약 놔 가지고 빗을 사람덜안테 골고루 갈 수 잇게끔. 벽 있는 데는 벽에서 반사헤 가지고 만들언 헐 수도 잇고 겨난 사진사마다 틀려. 경헤근에 가방은 가졍 뎅기는 거.
@1 응. 여기 놩 빗을 골고루 갈 수 잇덴 허는 건 이건 터트리는 거꽈?
#1 터트리는 거.
@1 터트리는 거. 여기에 마그네슘을 놩 여기 손잡이 이렇게 하면 여기 눌르민 이게 터지는 거꽈?
#1 여기에 그런 것이 잇일 건가. 어린아이덜 장난으로 여기 화약 촘 촘 촘 촘 놔둠서로 돌로 딱딱 찍엉 팡팡하는 거 봐나실 거라. 그런, 그런 원리. 그런 것을 이것에 놔 가지고 이것도 이름이 잇주마는

오래 부난 잊어비언. 이레 놔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누를 수 잇게끔 뒈 잇어. 딱 눌르면은 우에 것이 탁 내려왕 거, 화약을 탁 찍으면은 폭발 뒈는 거.

@1 폭발 뒈는 거.

#1 응. 폭발 뒈민 그 마그네슘이 터지는 거. 게난 즉 말허민 거리와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마그네슘을 흔 숟ᄀᆞ락 놓느냐 반 숟ᄀᆞ락 놓느냐 그것이 광의 조절이라.

@1 예. 광의 조절예.

#1 또 렌즈도 조절허고. 렌즈도 우리 숫자로 허면은 팔을 놔서 맞는 거냐, 십을 놔서 맞는 거냐. 그런 식으로.

@1 그럼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자, 여기 찍을 사람들이 잇어예. 그민 여기서 사진 기사가 렌즈를 먼저 조절하는 거지예. 그민 이거 맞춰 놓고, 이제 이거 터트릴 거예. 거리 보고 빗 보면서 이거 터트릴 건데, 팡 터트리고 나서 요거 팡. 이거 눌르는 거. 어떵 헙니까?

#1 일단 지금 필림 논 때까지는 젤 앞에 막아진 거.

@1 예. 여기 막아젼. 지금 셔터 막아졍 잇수다.

#1 어. 막아졋는데 이제 다 핀트 맞춰 가지고.

@1 예. 막아진 상태로 핀트 맞출 거예.

#1 아니. 열엉.

@2 조릿대 열엉?

#1 헤서 이제는 필림을 넣어 가. 필림통을 디물려 놔. 거 기계에 다 맞게 뒈 잇어. 이렇게 이 설랍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라. 가서 이제 허면은 이제 다 핀트 다 맞춰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일단 필림을 열어야 뒈니까. 그게 문식으로 열게 뒈 잇어. 일단 열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영 허면 탁 흔번 잡으면은 저 앞이 조리개 저거 열어져. 열어지면은 이제 팡 험과 동시에 이거를 노면은 이젠 닫아지는 거라. 그게 사진 찍어지는 거고. 우리 카메라는 그냥 우리 물체 머리가 우에 발이 밑에 여기 잇주마는 그 사진기는 꺼꿀로 뒈.

@1 옛날 영화들 보다 보면은 꺼꿀로 뒈 이십디다.

#1 거난 핀트 맞춤도 꺼꿀로. 맞춰지는 거라. 게 그렇게 헹.

@1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선은 여기에서 막아진 상태에서, 우선은 이거 열고 렌즈를 맞추고, 필름을 끼우고, 그리고 나서 팡 누르고.

#1 거난 팡 약 논 거만큼 렌즈 조리개를 맞추고. 이만이 허느냐 이만이 허느냐. 렌즈 가졍 오지이. 저 핀트 맞춰 놩.

결혼사진용 사진기의 렌즈

@1 이게 결혼사진 찍는 그 사진기에 렌즈꽈?

#1 어. 어. 그 사진기. 자 이거 봐. 이거 자, 자 오널 광선이 요만인가, 이만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술이라.

@1 광선, 물체를 보면서 핀트 맞추는 게 아니고 빛이.

@2 빛이 얼마 들어가나.

#1 맞춰 놩.

@1 예, 맞춰 놩.

#1 이젠 필림허곡 물체허곡 제대로 맞춰야 허니까.

@1 예. 아, 이거 돌리멍 맞춰 놩.

#1 우리 지금 카메라덜토 영 헴실 걸 지금.

@2 예. 자동으로 영 영 영 열엉.

#1 팔이다, 십이다이.

@2 맞아, 맞아. 빛이 얼마냐에 따라서.

#1 응,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 게민 이거 언제서부터 쓰던 렌즈꽈, 이거는?

#1 이거 나 ᄆᆞ칠 때까지.

@1 아, 그니까 처음에, 그민 이거는 형님이.

#1 아니, 아니.

@1 그건 아니고.

#1 응. 응.

@1 저기 삼춘이 장만하신 거마씨?

#1 장만헌 거.

@1 처음서부터?

#1 응.

@1 시작하실 때부터예.

#1 응. 이거, 이거 봐. 이것도 이젠 다 못 쓰지 안헴서.

@2 일본 거.

@1 찍어 주세요.

@2 예. 찍어야겟다.

#1 아니, 그땐 지금은 한국에서 멘들앙 그땐 렌즈 한국에서 못 만들어난.

@2 다 일본 거.

#1 응.

영수증용 도장

@1 이거 써난 렌즈. 이런 도장은 왜 필요헌 거꽈?

#1 이건 뭐게.

@1 뭐?

#1 저 영수증에.

@1 아, 영수증에.
#1 영수증에 써난 거.
@1 그럼 렌즈 맞추고 필림 끼우고 팡 팡 터트리는 과정입니다.
#1 나가 영 얘기해도 제대로운 기술자는 아니라낫어.
@2 제대로운 기술자마씨.
@1 제대로운 기술자마씨.
#1 제대로운 기술자는 아니랏고. 이 촌, 도회지엔 가믄 안 뒈주마는 촌에서는 헌덴은 헤낫어.

사진사 활동 시기

@1 영 보면 저기, 삼춘이 어쨌든 열일곱 살경서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춘, 형님 밑으로 가 가지고 신바람허멍 배운 거라예.
#1 배운 거라.
@1 배웡 혼자 본격적으로 혼자 의뢰 들어왕 사진 찍으러 간 건 몃 살에 시작을 헤수꽈?
#1 한 스무 술쯤 뒐 거라.
@1 그게 스무 살인 거예. 혼자.
#1 겨난 확실친 안 허여. 다 잊어비연.
@1 다 잊어비언예. 형님 쫓앙 결혼식 강 찍는 건, 잔칫집 강 찍는 건 안 배워수꽈? 겅은 안 헤도 뒈수꽈? 첨에 시작헐 때.
#1 아니, 같이.
@1 그치예.
#1 예. 가서 그냥 기계만 들렁 뎅엿주 강 뭐 맞추거나 소님 배열, 앚지거나 영은 안 현.
@1 아, 겅 안 하고.
#1 아녀고 형님 허는 것만 봄만.
@1 봄만 허고.
#1 기냥 신바람헨.

활동 지역

@1 겅헹 한 스무살서부터 사진 찍으러 다녓덴 허민, 삼춘 생각헤 보면예, 한 멧 집이나 영 사진 찍어진 거 같수꽈?
#1 많이 헷주.
@1 많이 헷주.
#1 아이고 많주.
@1 아까 성산읍 관내는 다 다니신 거라예.
#1 어, 어.

@1 성산읍 관낸게마씨. 신산이여, 온평이여.
#1 삼달리여, 신풍, 신풍리도 상하동.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으레 가민 또 신부 집이 가족사진 찍으레도 따라가주. 그민 중문꺼지 가낫어.

스냅 사진용 카메라

@2 이거는 스냅 사진 찍을 때 이거 들렁 다닌 거마씨?
#1 에. 그냥 이건 기념사진덜. 그때 당시엔 카메라 엇인 때난 사진 찍으레 가민 저런 수입이 더 잇어. 카메라 찍는 거. 게믄 강 집드레 강 나무 있는 데 가근에덜 세와근에 찍엉.
@1 맞수다.
#1 겅헨 찍언.

결혼사진 판수

@1 그럼 우리 이 결혼사진이라예. 이게 주인 거잖아예, 가족사진 찍는 거. 보통 한 집에 가면 요거 몃 판이 기준이꽈?
#1 네 판이 기준이라.
@1 네 판.
#1 신랑 신부, 주례 집사, 저 신랑 신부 친구, 가족사진. 영헤서 이제 더 부튼다고 허면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이 가족 찍어 주는 거.
@1 보통 우리 옛날에 처음에는 삼춘도 그 촌에 가 가지고 집이 강 결혼할 때 사진 찍은 거잖아예. 그때도 주례 집사가 잇어수꽈?
#1 잇엇주. 잇엇주. 저 마당에서 허는 데도.
@1 주례 집사가 잇언마씨?
#1 어, 간혹가다가.
@1 간혹가다가지예.
#1 어. 간혹게. 계속은 아니고.
@1 그니까 보통 예식장에서 하게 뒈민 주례 집사까지 포함헤서 네 판이 기준이 뒐 건데 집에 강 찍을 때, 초창기에 할 때도, 그때도 네판.
#1 마찬가지. 마찬가지.
@1 주례 집사가 엇이민 누게 사진이 들어갈 거라, 만약에?
#1 신랑 신부.
@1 신랑 신부.
#1 주례 집사 잇어실 거라. 아니, 가만 잇어 봐이. 아니, 그건 엇인 때 신부 친구, 또 신랑 친구 이렇게 뜨로 헐 수도 잇고.
@1 뜨로 헐 수도 잇고.

#1 응. 또 합헤서 헐 수도 잇고. 평균 네 판은 뒈 잇어.

@1 평균 네 판. 한번 가민 기본으로 네 판 잡는 거예.

#1 네 판이고. 사진은 어느 만이 사이즈가 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사절이거든.

@1 예. 저건 사절. 맨 왼쪽에.

#1 이것덜 사 절인데 저거 반쪽.

@1 맞수다. 가지고 있는 사진이 그런 사진. 부모님 사진이.

#1 그것이 초창기라. 게서 네중 뒈 가니까, 이젠 좀 발전 뒈니까 이젠 팔절이엔 헤 가지고 저거 삼분의 일, 저 일분의 사엔 헐 건가?

@2 저거 두 개 정도.

@1 두 개 정도 크기.

#1 어. 두 개 정도 크기. 경 허다가 네중엔 이제 사절이 나온 거라.

@1 저희 부모님이 오십구 년도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십구 년도에 결혼을 하셔신디 사진 남아 있는 거 보난 어떵 결혼사진이예, 신랑 신부 가운데 잇고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만 잇어. 원래 그렇게 찍는 건 아니지예? 다 네 판이 기준인 거지예.

#1 아니. 게난 공식은 아니주.

@1 공식은 아니마씨.

#1 어. 공식은 아니고. 게난 되도록이면 우리는 더 찍어야 뒈니까. 돈 벌젠 허민. 그러니까 이젠 넉 장을, 네 판을 찍는 거고. 또 억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소님덜이 이제 찍는 걸 옆에 집이 자꾸 걸 보곡 허니까 예약할 때 대충 예약헤여.

사진 촬영 예약

@1 예. 우리 잔치 가젠 허민 예약을 헤야잖아. 보통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떵 연락을 왕 예약을 잡읍니까?

#1 아, 그건 기억이 안 뒈커라.

@1 기억이 안 뒈커라예. 아까 네 판을 찍엇수다예. 기본으로. 경허민 비용은 얼마 정도 헤나수꽈?

#1 게메이.

@1 게메.

#1 이거, 이거 언제라.

@1 이거 언제라. 너무 오래.

#1 돈 보기도 틀리고.

예식장 운영

@1 아, 예. 기억 안 나도 좋수다. 기억 안 나도 좋수다. 아까 삼춘이 신산리에서 예식장을 차렷덴예. 몃 년도에 차려수꽈?

#1 아이게, 그 주민등록증 헐 시절에.

@1 그 시절에 예식장을 차련, 신산리에. 그 예식장을 얼마나 운영을 헤수꽈?

#1 흔 일이 년 헷어. 게서 그 파상풍, 그추룩 아까 다쳔. 집에 그냥 뭐, 우혐허게 생각을 안 현 거주게.

@1 그냥 내분 거.

파상풍 경험담

#1 응. 치료도 안 현. 그냥 좋을 테주, 헷는데 저녁을 먹는데 밥맛이 그렇게 좋아.

@1 다친 후제?

#1 거난 그 예식장 자리가 동네 향사라. 즉 말허민. 동네 사무실이라난 디라. 게서 마루에 기계 놓는 마루에 자곡, 예식장 이쪽으로 반으로 잇곡 영헌디. 아, 밤이 잔 일어난 즉 말허민, 저디가 사진 찍는 화면이면은 이렇게 보니까 만국기가 다섯 줄을 이렇게 돌아 잇엇는디. 예식장이난. 돌아 잇엇는디 이상허게 이거 끊어지고 이거 끊어지고 헷어. 거난 나 혼자만 야, 거 이상허다 허는데 이리 부터 가. 이상허다.

@1 눈이 이상헤진 거.

#1 허는데 그게 이제 파상풍 증상이 세게 와 가는 거라. 게서 거디 야부 의사[61]가 살앗는디 우리 집사람이 간 허니깐 빨리 시에 실렁 가렌. 겐 그게 거기서도 ** 못허고 그냥.

@1 아, 그민 아, 경헹 바로 병원으로 가 가지고. 그믄 그 예식장은 어떵 뒈수꽈?

#1 아이, 게난 그냥 놈의 집이난게. 동네 거난에.

@1 그난 접어 분 거?

#1 어. 접어 분 거.

@1 다른 사람이 인수헹 허거나.

#1 인수 안 헨.

@1 접어 분 거. 일이 년 허당. 그 예식장 이름은 뭐라수꽈?

#1 일출예식장.

@1 일출예식장.

#1 또 성산 형님 신 저 사진관도 일출사진관이고. 성산 일출봉 따란.

@1 아, 경헹 일출예식장, 거기도 일출예식장 헷던 거구나예.

#1 게난 강 봐근에 조금 남이 보거나 들어근에 조금 이상헌 거랑 빼 비어.

사진 인화 과정

@1 아, 예. 저기 오늘 강예, 예식장이 결혼 잇덴 헹 집이 강 사진을 찍엉 왓수다예. 사진을 찍엉 오민 밤

61) '야부 의사'는 실력이 없는 의사를 비하해서 부르는 '돌팔이 의사'를 말한다. 일본어 '야부이샤(やぶいしゃ)'에서 온 말로, 시골에서 민간요법과 주술을 섞어 치료하던 의사 비슷한 사람을 낮춰 부르던 말에서 왔다.

에 왕 작업을 헐 거잖아예.

#1 당연하지.

@1 어떤 작업을 헙니까? 그 순서대로 말씀을 헤 주십서. 일단 사진을 찍엉 왓수다.

#1 오면은 암실에 들어가. 약, 저 사진 나오는 약을 거, 닝게루[62] 평에 조합허주. 거난 그게 약이 두세 가지 뒐 때도 잇고 댓 가지 뒐 때도 잇고, 약 조합이. 경헤서 조합헤 논 것을 차판 닮은 사진 허는 것이 잇어. 이젠 것도 잊어벳주마는. 거레 헤서 일단 나오는.

@1 요런 거. 움푹허게예.

#1 나오는 것을. 아, 것도 누게 줘 베졋구나.

@1 뭔가 잇어낫다.

#1 이런 거. 빗 안 대영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 잇엇어. 아, 그것도 잊어불엇네. 그거 보면서 물체 나오는 것을 자꾸 확인헤여. 게서.

@1 이 정도면 뒈겟다. 이 정도면 뒈겟다.

#1 이정도 뒈겟다 허면은 이젠 하잇뿌[63]엔 헤 가지고 스돕[64] 허는 약더레 놓는 거라. 게서 스돕허는 약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정착이 뒛다 헐 때는 이제 물에 씻어 가지고 이렇게 말류와.

@1 몰리는 거. 자, 그럼 이거 약 농도 조절허는 게 중요허꽈, 아니면?

#1 다, 다 중요헤.

@1 다 중요헤.

#1 이거에 따라서 여기 스돕 시키는 약에 너미 오래 베도 즉 말허민 과헤 부니까.

@1 지워져 불 거.

#1 잘못허민 지워질 거 아니라. 또 어디 변헤 불고. 그런 것도 잇고. 또 사진 인화헤 가지고 종이에 나온 사진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도 안 뒈고. 너무 일찍 허면은 빨리 변헤 불고. 게난 그런 것이 그 기사 나름대로 시간 조절허는 것이 기술이라.

@1 그럼 이렇게 단계를 거쳥 말릴 때까지를 한번 생각헤 보게예. 여기 필림을 가졍 왕 여기 넣을 거우다예. 여기에 담강 잇는 시간은 한 얼마 정도 담강 이십니까?

#1 그건 시간 정허지 못허여.

@1 아, 정하지 못 헤여.

#1 응. 확실한 시간을 정허지 못허여. 어떻든 요걸로 보면서 확인허는 거니까.

@1 게민 암실에 들어강 이거 영 나오는 시간, 중화헤 가지고 영 물 시치는 데까지는 계속 지켜 상 잇어야 뒈는 거꽈?

#1 그렇주. 그렇주.

62) '닝게루'는 '링거'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63) '하잇뿌'은 일본어에서 온 말인 듯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충분하다'는 의미인 듯하다.

64) '스돕'은 '스톱(stop)'을 발음한 것이다.

@1 겅 시쳥 영 걸어 둥.

#1 둰 나오면은 이제는 안심이라.

@1 안심이라.

#1 어. 어.

@1 나와 베도 뒐 거.

#1 일 년 후에 인화헤도 뒈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중요헌 거니까.

@1 아, 게민 만약에 우리 결혼식 갓당 와수다예. 근데 저녁에 와신디 나 바빠 가지고 바로 이걸 요렇게 못 헨. 이거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영 꺼넹 헤도 뒙니까?

#1 뒈는 거.

@1 아, 그건 상관없는 거. 이것만, 요 시간에만 암실에 잇엉.

#1 우리 지금도 사진관에 강 증명사진 찍을 거 아니라. 거민 네중에 또 필요험직 허면은 필림 도렌 헹 우리 가져오지 안혀.

@1 맞수다.

#1 지금 콤퓨타[65]로 허는 것도 필림 썸선게. 경허는 거.

@1 맞수다. 맞수다.

#1 맞아. 필름만 있으면 또 허고, 또 허고 헤지니까.

#1 걸음걸이 헌 보람 잇일 건가 모르켜.

@2 너무 좋아마씨. 무사 거절하셔신지.

#1 미안허여. 보탬이 뒈시민 좋으커라.

사진사 형님

@1 삼춘은 영헹 칠십 년대, 그 서른 살 중반까지 사진을 헤신디, 형님 아까.

#1 형님은 그때에 당시 돌아가시고.

@1 몃 살?

#1 아, 건 기억이 안 나.

@1 게민 삼춘 활동하실 때, 사진관 하시면서 활동하실 때.

#1 헐 때 계셔난 거.

@1 그땐 계션난예. 삼춘이 접을 때. 사진을 접엉 우도에 들어오실 때는 계셔나수꽈?

#1 아니. 돌아가션.

@2 일찍 돌아가셨구나.

#1 일찍 돌아가션게. 겨난 나가 줴 받은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가 삼 형젠디 형제분 산 거만이 나가 지금 살암서.

65) '콤퓨타'는 '컴퓨터'를 발음한 것이다.

@2 아, 다 합친 거만이.

#1 우리 큰형님 성산포 형님은 마흔넷에 돌아가시고, 게난 것도 술 때문에. 오징어 나끄레 갓당 완, 집에 와 가지고 이제 남풍 부니까. 거 성산포 가믄 수메밑이엔 헤 가지고 검은 모레밧이 잇어. 거기 배 메시니까 이제 남풍 불민 그디가 ***거든. 게 배 잘 메레 갓다가 아마 거 근때 풍선이니까, 돛단배니까 거 앞이 꼿장 허거든게. 옛날 배덜은. 돛단배덜은. 거난 닷 잘 메단 아마 이렇게 술 취한 짐에 박아져 분 모양이라. 게난 여기 찍어 베신고라 경헨 돌아가션에 나중에 시체는 춪앗주마는. 경헨 돌아가셔 분 거. 경헷지, 우리 두 번째 형님도 부산 사시다가 마흔두 살에 돌아간, 두 분 산 것만이 나가 혼자 살암서. 나 죄 받안 영 살암젠 헴주. 너미 오래 살아도 안 뒈.

@1 아닙니다게.

현재 생활

#1 이추룩 나이 먹어도 이제도 배 헤여. 거난 배 돈 벌젠 허는 것이 아니고.

@1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

#1 건강. 오늘 이제까지 누워 잇어나지 안헷어. 그민 이제 오후 뒈민 배 보레 가.

@1 아, 일 나가시는 거마씨?

#1 아니, 일 나가는 건 아니고. 차 탕 강. 차 일부러 멀리 세와. 게서 배 앞에 강 쳐다보고 뒤에 강 쳐다보고, 것도 운동이라. 경 허고 신경 쓰는 게 밤에 누워둠서로 엔진이 어디가 잘못 뒛나. 머리를 자꾸 쓰는 거라. 저, 뭐냐 치매 안 걸리게.

@1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인게.

#1 그니깐 나가 경헤서 건강헌지도 몰라. 허리 아직은 페왕 걷거든게. 경 허젠 배 허는 거. 돈 벌젠 허는 건 아니고.

사진사 활동 범위

@1 삼춘 게난예, 결혼사진 찍엇고 아까 증명사진 찍엇잖아예. 그런 사진 말고 다른 뭐 행사, 아까 경찰 뭐 뭐 시체 나온 거 찍으러 다녓고.

#1 어. 현장 사진.

@1 사진 찍엇고. 그런 사진도 찍엇고 혹시 돌 사진이나 아니면 어디 행사 잇엉 그런 사진 같은 것도.

#1 행사 사진도 간혹 잇엇주.

@1 행사 사진은 어떤?

#1 지금은 기억이 안 남서.

@1 안 남서예. 그 당시에 돌 사진 찍으레도 막 오고 헤나수꽈?

#1 경 심허진 안 헨.

@1 안 헤서예. 어쨌든 위주는 결혼사진인 거구나예.

#1 응. 결혼사진. 기념사진. 그땐 사진 찍는 재미덜을 잇엇거든. 그민 저 예를 들어서 성산서 사진관이 다 허면은 수산, 고성 이디 사람들 다 왔엇거든.

@1 맞습니다.

#1 근땐 그거, 이젠 강 사진 전부 핸드폰으로 찍엄주마는 그땐 사진 찍을 일이 것벢이 없이니까.

@1 그렇지예.

#1 그니까 결혼사진 찍으레 가도 결혼사진 액수보다 그 카메라 찍는 것이 더 수입.

우도 사진관

#2 여기 오십 년 뒈언 들어완에 이 집터도 사진관 요거 출련 홀 멘들안.

@2 우도에서마씨?

@1 우도에서도 헤신게.

#1 아니, 허젠 허단 말아 불언.

형님이 운영했던 예식장

@1 아, 말아 불언. 그믄 아까 신산은 그냥 접어 분 거고. 신산 예식장은. 일출예식장예. 고성에 잇어난, 성산에 잇인 예식장은 일출예식장은 형님 돌아가시난 어떵 뒈수꽈?

#1 그거 그냥 설러 분 거. 그때 당시엔 또 설른 거고. 거 술을 좋아하시니까 바다에 가서 횟감 헤단 술 마시는 재미로 사진관 설러 분 거라. 어떻든 기술은 좋은 건 틀림 엇엇어.

@1 게난 돌아가시기는 예식장 설른 후제 돌아가신 거꽈?

#1 응. 응.

@1 아, 하당 한 게 아니고예.

@2 두 분이 같이 일출예식장, 아니 일출사진관 하셧던 거지예?

#1 처음에. 처음에. 아니 게난 헌 게 아니고 신바람.

@1 신바람.

#1 신바람헤도 저 현장 사진꺼지는 찍고 저 현상허고 했으니까. 거 필름 빼는 거 보고 현상이엔 허주. 또 사진 만드는 거 보고 인화엔 허고.

#2 결혼식덜 다 야외서 허난 때문게, 쫓아 가근에 어디 삼달리나 어디 다른 부락에 강 찍어 오민 거기 쫓아 뎅겻주게.

제보자의 결혼사진 촬영

@1 삼춘이 결혼할 때는 누게가 사진 찍어수꽈?

#1 형님이.

@1 삼춘 결혼할 때 사진 이수꽈?

#2 아니, 오래뒈 부난 찢어 비언.

@1 찢어 벤? 하나도 어수꽈? 아이고야. 아까운 거.

@2 그때 고대유씨는 동남사진관 헐 때지예.

#1 동남사진관.

@2 아, ᄀᆞ치 있었을 때마씨? 일출사진관이영 동남사진관이영 두 밧디가 같이 있을 때마씨?

#1 아니. 형님은 성산포 헤난. 형님안티 신바람허단에 동남 간 찰린 거. 가지 쳔 간 거주.

@1 그지예.

#1 게난 그디 성헐 때에 형님은 돌아가셔 분 거. 또 돌아가시자 편헌 영업을 헐 전기도 오고. 길도 포장 뒈고 차도 널어지고. 그때라야 돈 벌 땐디 돌아가신 거.

@2 사모님이랑 어떵 만나셧덴 헌 거마씨?

#1 외ᄉᆞ춘 오라방네 집이 결혼사진 찍으레 갓단 날이 어둑어 분 거라. 그믄 그땐 시간 넘으민 차가 엇일 때거든. 걸어오젠 허민 상당한 거리니까. 겐 머지는 게 어떵 헨 눈이 맞안에.

@1 아, 이 집이 머져신디 그때 눈이 맞앙 그때 그냥 결혼헤 분 거.

#2 우도꺼지 왕 고생허젠. 여기 우도 들어온 지가 우리 오십 년 넘엇주. 신산리서 사진 영업 설르니까 이 우도 들어와근에 쪼끔 허단, 허주 헨에 사진 영업도 많이 널어지고.

#1 막 여기저기 사진 벌어젼게.

딸의 결혼사진

@1 저거 백조예식장은 누게꽈?

#1 우리 아덜덜.

@1 아덜덜. 백조예식장은 어딘고예.

#2 아덜이 ᄋᆞ섯, 똘 서이. 요건 큰똘이고. 요쪽이 거.

@2 백조, 백조.

#1 이거? 이거 부산 우리 똘. 동래에 잇는 예식장. 우리 큰똘.

@2 우리 정춘자 씨한테 들었던 백조예요. 미용실 옆에 붙엇던 데.

@1 동네 닮은디 백조예식장은.

@2 부산 아니? 부산.

@1 정춘자 씨 부산 갔을 때.

#2 다 결혼 못 시켯어.

@1 다 결혼 못 시켯어마씨? 더 물어볼 거?

@2 아니요.

15.

대정읍 하모리 김석원 씨 채록 자료

- **조사 일시**: 2025년 5월 30일
- **조사 장소**: 제보자 댁
- **조사자**: @1 김보향 @2 권미소
- **제보자**: #1 김석원

제보자 정보

@1 성함이 어떵됨수가?

#1 김석원입니다.

@1 예, 몃 년생마씨?

#1 사십육 년.

@1 사십육 년 몃 월 며칠이고.

#1 팔 월 이십칠 일.

@1 예, 예. 고향은, 태어난 건 이디마씨?

#1 예, 원래 제가 태어난 거는 바로 옆 마을 하동이라는 데에서 태어낫고.

@1 하도, 하모, 하도.

#1 예, 대정읍 하모리 하동.

@1 예. 으.

#1 하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내가 이제 한, 두 살 때부터 이쪽으로 옮겨 와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쪽으로 땅을 사서 와 가지고 여기가 본가가 됨는 거야.

@1 그지예, 하동 여기서 멀지는 않잖아예.

#1 멀지 않습니다. 여기 뭐 한 삼 키로, 삼 키로가 안 됨겟구나.

@1 그지, 그지예. ᄀᆞ튼 마을이라고 봐도예?

#1 예, 같은 마을.

@1 예, 저기 학교는 다녀져수꽈?

#1 예. 대정고등학교라고 졸업헷어.

@1 고등학교 졸업하셧구나예. 그러면 아까 사진 일을 하셨엇는데 죽장 그 일을 하신 거꽈?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고, 하신 거꽈?

#1 사진 일을 이제 처음부터 사진 일을 헷지. 사진 일을 죽장헤 가지고 어, 일반 사진관 작은 사진관을 이제 몃 년 하다가 이제 그 결혼식을 이제 그 신랑 신부 집을 찾아가서 평풍을 펴고 거기서 신랑 신부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가 그 됨 가지고 우리가 예식장을 한번 헤 보까 헤 가지고 천구백칠십 년도에예.

@1 아? 칠십 년도에예.

#1 예. 이제 본 소재지 대정읍 하모리 팔백○○일 번지에, 에, 사십 평짜리 이 층 건물에 칠십리예식장이라고예.

@1, @2 아.

@1 칠십 년도예예?

#1 시설을 헤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주도에서도 멧 번째가 안 됨고, 모슬포는 처음이고.

@1 아니, 모슬포 이거 처음이꽝?

#1 처음. 우리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헸어.

@1 그러면 중앙도 잇엇덴 허는디 거기는?

#1 중앙, 중앙예식장은 우리가 한, 한참 뒤에.

@1 먼저엿구나예.

#1 우리가 먼저.

사진업을 하게 된 계기

@1 아까 고등학교도 졸업하셔신디 이 사진 일을 언제서부터 헤수꽈?

#1 사진 일은 뭐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냐면은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 만드는 그 작업을 할 때에, 형님들 밑에서 같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형님네 사진 기술을 내가 전부 다 전수를 한 거지.

@1 형님네라고 한 건 형님이꽈? 아니믄 다른 분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잇어수꽈?

#1 아니, 한 사람 더 있엇지. 형님이 채용헤서 쓰시던 분. 예.

@1 그믄 그 형님은 언제부터 그 사진 일을 한 거는 알아지쿠과?

#1 형님이, 원래 형님도 옛날 한,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오래됏는데. 에, 사십구 년도, 사십구 년도 정도에 이제 그 우리 형님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1 아, 그. 실례하는데 형님은 몃 살 정도 위? 몃 년생마씨?

#1 우리, 제보다는 세 살 위입니다.

@1 아, 예, 예.

#1 세 살 위에.

@1 세 살 위라면, 천구백사십삼 년생이구나예?

#1 예, 사십삼 년인데, 여기 뭐냐 하면은 이 우리 동네에 사진관이 하나가 있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진 기술을 배웠어요.

@1 아, 그럼 원래 그 사진관 이름은 알아지쿠꽈? 동네, 이.

#1 제일사진관이라고.

@1 예. 이 동네렌 하는 건 이 모슬포도?

#1 바로 여, 옆, 옆에.

@1 제일사진관에서 그럼 형님이 먼저예, 거기서 일을 배우신 거구나예.

#1 예. 거기, 거기 그 뭐냐 하면 그분은 어디서 사진을 배웟냐면은 일본에서 사진을 사진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여기서 사진관을 헷는데 그때 당시에 뭐 딴 거는 안 찍고 결혼사진하고 증명사진만 찍어서.

@1 맞습니다.

#1 그거를 이제 옛날엔 흑백 사진이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그 얼굴을 놓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이 뭐냐믄 얼굴에 티도 없애고 뭣도 하고, 이제.

사진 수정·보정이 제일 큰 기술

@1 옛날에도 그런 작업을 헤수꽈?

#1 옛날, 그거 우리가.

@1 어.

#1 그 옛날 그 연필 중에서 옛날 저기. 일본 연필 돔보라고 있엇습니다, 잠자리표예.

@1 아, 예. 저도 알아지쿠다게.

#1 일본말로 돔보가 잠자리니까, 잠자리표 연필로 그 연필심을 길게 깎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뒤에 전구 놓고 요렇게 헤 가지고 나타나면은 그 얼굴을 이쁘게, 눈 작은 사람도 크게 만들 수 잇게, 칼, 칼질도 하고. 그런데 그런 흑백이니까 요즘은 칼라니까 그것이 안 뒈지마는 옛날에 그것이 제일 그 사진 기술 중에서 제일 힘든 기술이 수정.

@1 보정, 수정하는 작업이?

#1 보정하는 작업이 제일 큰 기술이고, 사진 찍고 또 뭐냐 허믄 거기 그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한이, 삼 개월이면 다 누구든지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수정은 이거는 참 원래 손 솜씨가 좀 있어야 뒈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건.

@1 거난 아멩헤도 미술 같은 거 가능.

#1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랑, 신부 결혼사진을 찍다가 요즘은 뭐 칼라니까 뭐 여러 카트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 추려 가지고 그걸 뽑는데 그때는 한 번 딱 찍으믄 거기서 끗나는 거예요. 그러믄 그때 신부가 눈을 감앗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정 칼이라고 있어요. 칼로 눈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1, @2 아, 아.

#1 그래서 가운데 눈동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필름에 불빛을 비춰 가지고 안에 인화지에 다가 비추면은 요거를 약물에 집어넣으면 사진이 뒈는 거거든요.

@1 그런 게 기술이엇구나예.

#1 예, 그런 게 기술이엇습니다.

@1 잘 깎고 덧칠하고.

#1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저기 결혼식이 있으면은 여기서 저기 어디 한경면 끝에, 한림까지 한림도 예식장이 없엇거든, 그때 당시에는. 사진 찍는 사람이 없엇고 그때 우리 할 당시에는 사진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몃 사람 없었어요.

@1 그럼 아까 형님, 세 살 위에 형님이 제일 사진관에서 이, 이 내용을.

#1 이제 배워서.

@1 형님은 몃 살 때 언제부터 배웠는지 알아요, 그?

#1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

@1 중학교 때, 형님 중학교 때.

#1 중학교.

@1 그때 배운 거예? 그러면 저기 우리 선생님은 형님 밑에서 다시 중학교 때서부터?

#1 그렇지, 예, 예. 같이 뭐 중학교 때 전에도 국민학교 때부터 그 옆에서 만드는 거 구경하고 뭐 하고

다 헷지마는 원래 내가 그 하나씩 할 때는 중학교 때부터 헷지.

@1 보면, 우선은 제일 사진관이라는 게 있어서 형님이 여기 가서 배운 게 중학교 때라고 하면 그때 형님이 배울 때도 ᄀᆞ치 따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1 그렇죠, 예, 예. 같이 같이 배웠지.

칠십리 사진관 개업 경위

@1 그믄 이 형님이 여기에 부속돼지 않고 혼자 이렇게 시작헌 거는 언제쯤입니까?

#1 혼자 시작헌 거는 여기 저기 뭐냐 하면은 형님이 그 중간에 추자도로 저, 장가를 가 가지고 추자도에서 사진관을 한 이 년쯤 헷을 거예요. 한 이, 삼 년 처갓집에 가 가지고 헤서 헷다가 내가 육십칠 년도에 제대를 헤서 와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한 오십 평짜리, 건물 이 층 건물을 여기다가. 이, 이 번지에다가 이 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내가 추자도에 가 가지고 형님을, 집을 지어놨으니까 와서 같이 사진업을 합시다 하고 모셔온 거지. 예, 예. 모셔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칠십리예식장이라고 헤 가지고 개업을 한 겁니다. 천구백칠십 년도.

한림읍 내 사진관

@1 육십칠 년에 건물 지어 가지고 칠십 년도에 개업한 거. 그럼 그전에 사진이 일을 한 거는 거의 제일사진관 직원으로서 일을 헌 거구나예?

#1 그렇죠. 직원으로서, 직원으로서.

@1 직원으로서?

#1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형님이.

@1 예.

#1 그래서 우리가 사진관을 하니까 중앙사진관이라고 우리 그 형님 동창이 있어요. 동창이, 동창하곡 탐나사진관하고 셋이 동창이었엇는데 친구가 사진, 사진 일을 하니까 그것을 배워 가지고 사진관을 한 거지, 둘.

@1 아, 친구한테 배웡?

#1 응, 그렇지.

@1 여기 세 군데 잇엇던?

#1 세 군데. 중앙사진관하고 탐나사진관하고 세 군데. 이제 우리 형님이 사진업을 하니까 그것을 뭐 헤 가지고 같이 자기네가 사진 영업을. 왜냐믄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은, 예, 그 사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을 땐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뭐 국회의원이 온다 그때는 국회의원 하면은 벌써 제주시 도로가 다 통제돼고.

@1 겅 헷지예.

#1 다 통제됐어요. 제주시에서 여기까지 오십 메다에 하나씩 전부 다 저기 경찰들이 서 가지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국회의원 한 사람 오는데. 그것이 요즘은 국회의원 보면은 정말 이거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옆집 사람 보는 거만큼도 안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랫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요인이 오시면은 서귀포 가서 이제 모시고, 모시고 그거 하는 과정을 저희가 나갔어요.

주요 행사, 현장 등 스냅 사진 촬영

@1 예. 사진 찍으러?

#1 예, 예.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제가 나갔어요.

@1 아, 그 나가는?

#1 스냅 사진이라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 과정, 또 비행기에서 승용차를 타는 과정 또 쫓아가서 이제 호텔에서 회담하는 거 뭐 하는 거 제가 다 찍고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에 교통사고가 낫다, 인상 사고가 낫다, 교통사고 큰 사고가 낫다 그러면은.

@1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을 우리가 경찰에서 오면은 우리가 가서 현장 사진을 다 찍어서, 찍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헷습니다. 지금은 뭐 즉석에서 다 찍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밖에 그런 거를 못 했어요, 그리고.

@1 그믄, 그믄 찍으신 이 현장 사진을 경찰에 넘기는 겁니까? 이거를 신문사에 다 배부허는 거꽈?

#1 아니, 경찰에만 넘어, 경찰에만. 경찰에서, 와서 그걸 찍고 경찰에서 가져갔어요.

@1 그 사진 그런 현장 사진 찍고 아니면 국회의원 왔을 때 사진 찍고 하는 건 한 몃, 몃 년대마씨? 그런 일을 헌 건?

#1 그것이, 그것이 약 한, 한 칠십 년대까지.

@1 칠십 년대까지?

#1 약 한 칠십 년대 말까지.

@1 칠십 년대까지예. 그러면 어쨋든 형님한테 중학교 때서부터 배우멍, 그때는 배운 거잖아예?

#1 배우멍 해야지, 옆에서.

형님과 동업으로 칠십리 사진관 운영

@1 본격적으로 그 일을, 그러니까 배울 때랑 아니, 본격적으로 거기서 일을 시작헌 거는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라?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헌 거꽈? 아니면.

#1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고 내가 저기 일을, 형님 옆에서 배웟다가, 배웟다가 내가 군대가 육십오 년도 군대를 가 가지고 육십칠 년도에 제대를 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예. 돌아와 가지고 이 층 집, 오십 평짜리 이 층 집을 내가 어머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걸 지었어. 군대 갓다 와서, 갓다 와서 그걸 지어 가지고 형님을 모셔다가.

@1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1 같이, 동업식으로 헷지, 이제 주인이 형님이 아니고 동업식으로 집을 내가 지었으니까.

@1 맞습니다.

#1 동업식으로. 그믄 가서 제가 모자란 기술을 그 이후에 초보 기술은 그전에도 있엇지마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은 그 이후에 다 배웟죠.

@1 그럼 어쨌든 이거 차리기 전까지는 밑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다녓던 거구나.

#1 예, 예. 다녓죠.

형님에게서 사진 기술 전수

@1 그럼 우리 삼춘이 맨 처음 이 결혼 사진 찍으러 형님 따라 같이 간 거는 언제쯤에 맨 처음 그런 거 따랑 현장에 가봐수과?

#1 따랑 현장에 간 거는 그 이전에 육십, 칠십 년도 이전에 한, 내가 중학교 시절에도 이제 겨울방학 하면은 그때는 결혼식이 겨울밖에 없었다고.

@1, @2 아하.

@1 맞습니다.

#1 봄, 여름, 봄, 여름, 가을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일절 이 혼인을 안 헤.

@1 맞습니다.

#1 겨을에만 단지 겨을에만 헷다고. 그러면 방학 때. 이제 왜냐믄 그때는 결혼이 한 한 십오 프로만 예식장을 이용을 헷고, 그니까 좀 집안이 조금 잇는 분들 요런 분들만 예식장을 이용헤 가지고 헷고, 그 나머지.

@1 육십 년대라예, 이런?

#1 육십 년대, 육십 년대, 육십 년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분들은 어디서 헷냐면은 그 신랑 집 마당에서 헷지. 마당에서 보리찍 깔고 헤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평풍 이렇게 헤 가지고 사진 찍고 다 헷습니다.

@1 아, 그믄 형님 쫓아다닌 거는 중학교 때부터?

#1 그렇지, 어릴 때부터 본 게 그거니까.

@1 맞습니다. 아까.

#1 어쩌면 국민학교 때부터 봣지, 그거를.

@1 아, 보기는?

#1 보기는, 사진 만드는 그 과정을 보기는.

@1 예, 그믄 아까 그렇게 쫓아간 게 아까 한림까지도 갔엇다고예?

#1 한림, 한림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중문.

@1 중문.

#1 중문 서귀포까지도 갔엇는데 서귀포에서는 일찍 뭐냐, 그.

@1 예식장.

#1 예식장이 생겼어요. 거기 일 하고 또 예식장이 생겨도 서귀포 사람들이 우리가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안테 빌려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집 안에.

@1 기술은 알려져낫구나.

#1 백 일 사진 뭐 무슨 사진 무슨 사진 헤 가지고 다 우리가 다 찍었어요.

사진 촬영 예약 방법

@1 그럼 우리 나갈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결혼식이 있어, 잔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사진 찍어 줍서 하고 영 의뢰가 들어오잖아예?

#1 의뢰가 들어와.

@1 그, 그런 거는 뭐 직접 와 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꽈, 아니면 어떵 허는 거꽈?

#1 직접 와야지.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말이지마는 전화도 없어 가지고.

@1 맞습니다.

#1 우체국에 가서 신청해서 기다리면은 멧 번 오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돌려 가지고 멧 번 가서 전화 받으십시오 헤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1 맞수다.

#1 전화가 없엇어. 휴대폰도 없고, 가정용 이것도 없고.

@1 그러면 그렇게 우체국 통헤 가지고 전화왕 그걸로도 예약받고 헤 줫구나예?

#1 근데 그거 그렇게 하다가 에, 한 칠십 년도, 칠십 년도부터는 그 뭐냐믄 백색 전화라고 한 마을에 전화 한 열 대씩, 뭐 스무 대씩 이렇게 배정이 뒈 가지고 그 전화가 있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예식장에도 전화를 헤 가지고 그 전화로 예약받고, 또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인 일조의 출장 사진 촬영

@1 그, 그 예식장 생겨 가지고 연락 올 때쯤 말고 그전 거를 물어보게 뒈면 그전 걸로 거슬러 올라가게 뒈면 연락이 왓어예. 그면 어느, 어느 마을에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가게 뒈면 형님 혼자 갑니까? 아니면 몃 사람이 같이 갑니까?

#1 그 사진은 혼자로, 혼자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결혼사진 같은 건.

@1 아, 예.

#1 왜냐믄은 기사가, 사진 찍는 기사가, 사진을 맞춰 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찍는데 그 찍는 순간에 조명을 비춰줘야 뒈요.

@1 아.

#1 근데 사진 찍는 사람이 그 조명까지 다 못 하거든.

@1 못 해.

#1 그때 조명이 뭐냐믄은 마그네슘이라고 펑 하면은.

@1 맞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1 그렇지, 펑 펑 하지. 크게.

@1 그게 터져야.

#1 사진, 그러니까 조리개가 딱 열리고 열리면서 하나, 둘, 셋 열리면 이게 펑 하면 그 사이에 사진이 찍히는 거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이가 가야 됩니다.

@1 아, 둘?

#1 네. 혼자 가서는 안 됨. 스냅 사진은 혼자 카메라로 스냅 찍는 거는 정부 행사 있을 때나 그럴 때는 혼자 가서 다 찍는데.

@1 카메라가 다르구나예. 그럼 결혼식장에?

#1 그렇죠, 결혼 찍는 거는 큰 사진기.

@1 예. 여기 다리 놓고, 요것처럼 다리 놓고.

#1 이렇게 헤서 이제 높은 게 헤 가지고 그 큰 사진기로 찍는 거고 필림이, 필림이 십육 절 이만한 거 필림 자체가.

@1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카메라는 삼십육 미리(mm)라고 조그마한 거.

@1 맞아요.

#1 그렇지, 삼 점 육 센치. 그거는 카메라고 우리가 결혼 사진 찍는 거는 십육 절지만 한 큰 걸로 찍어요. 그래야, 왜냐믄 그때는 그 뭐냐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하믄은 얼굴에 예를 들어서 죽은 기미가 잇다 그러면 기미가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을 열 배를 확대를 하면은 이 기미가 열 배가 커져.

@1 아. (웃음)

#1 그러니까 일 대 일로 찍기 때문에 일 대 일로 찍기 때문에 큰 걸로 해서 찍는 거지.

@1 아예 필림 자체가 다른 용도?

#1 다른 용도예.

결혼사진 촬영 장수

@1 사용됏던 거구나예. 그럼 두 사람이 갔엇던 거, 그리고 항상 보조원이 필요했엇던 거예? 예. 예. 보통 보면 결혼 사진들 남아 잇는 거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은 한 장이라예. 한 장 결혼사진이렌 헤 가지고 찍엇던 거, 가족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잇는 그 사진 한 장이거든마씨. 보통 가면은 몃 장 정도 사진을 찍었엇습니까?

#1 기본이, 기본이 신랑, 신부.

@1 신랑, 신부.

#1 예. 그리고 신랑 가족.

@1 아, 예, 신랑 가족.

#1 신부 가족.

@1 예, 예.

#1 친구,

@1 예, 예.

#1 친구, 사진예. 그리고 신부 독사진 이거 다섯 개가 기본입니다. 다섯, 다섯 장이.

@1 아? 그믄 지금 남아 잇는 건 거의 대부분 신랑 가족이랑 찍은, 이것만 가지고 잇더라고요.

#1 이제 다 없어졋겟지. 우리도 다 없어졋는데 뭐, (웃음) 우리 우리 내가 사진.

@1 그럼 삼춘이 시작할 때는 어쨋든 다섯 장을 기본으로?

#1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면은 신부 친구가 신부들 신부하고 기념 사진 찍느라고 이제 한 십오 명, 이렇게 헤서 하고 또 신랑 친구들하고 찍고. 신랑 신부 친구들을 합쳐서 찍고 또 그 주문헤 가지고, 뭐냐믄 저 신부 엄마 사진만 따로 찍고 이럴 건데, 기본이 다섯.

@1 그러면 이거 기본이 다섯이라고 헷던 건 우리 삼춘이 사진사로 헤서 시작할 때 기본이 다섯이엇던 거?

#1 으. 그렇지.

@1 혹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육십 년대 삼춘이 시작했엇던 이건 칠십 년대 이야기라예. 그 이전에 육십 년대 혹은 오십 년대 말 그때도 기본이 다섯이엇인가마씨?

#1 그때도 다섯. 칠십 년대는 내가, 그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고.

@1 예. 예.

#1 그전에 오십 년대, 오십 년대 육십 년대는 우리가 사진관을 헷거든, 사진관을. 칠십 년대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십 년 전부터 우리가 사진관을 헷지.

@1 사진관을 한 거. 그믄 이때는 제일사진관 아니고 다른 칠십리사진관으로 활동을 하셧던 거예?

#1 그렇지.

사진 촬영과 인화 비용

@1 예. 그믄 아까 건물 지어서, 건물 짓어서 한 거는 웨딩 예식장.

#1 웨딩홀, 예, 예, 예.

@1 그 이전에 군대 가실 때예. 그 기간에도 사진관 그전에도 사진관은 하셧던 거구나.

#1 그렇지.

@1 그 사진 이름은 똑같이 칠십리사진관?

#1 칠십리.

@1 예, 이렇게 기본으로 다섯 개의 사진을 찍게 됨면 요거는 대략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합니까?

#1 그때 당시에, 에 그 가격, 가격, 가격이 한 판에 천팔백 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천팔백 원.

@1 천팔백 원. 그러면 다섯 장 하면 이거 곱하기 오 할 걸로 찍는 거예?

#1 예, 예, 예, 예. 천팔백 원이고 그때 당시 증명사진, 우리가 쓰는 여권 사진 고거 고거 하나가 그거 하나 찍으면은 보리쌀이 한 말이랏어.

@1 이거 한 장 찍으면 보리쌀 한 말?

#1 우리 쌀 한 말 때 사진이 아주 고급 직종이었엇지.

@1 그치.

#1 그 왜냐면 아무나 못하니까.

@1 그렇지.

#1 우리 주민등록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 생길 때 우리가 다 그 뭐 한림이고, 여기 모슬포고 어디 사진을 천부 다 우리가 찍었다고. 그때 당시는 카메라를 가지고 찍엇는데 일곱 명을 세워 놓고 그냥 일곱 명 찍어서 와서 다 사진을 뽑은, 뽑은 거지. 그 제일 처음 그 주민등록 만들 때, 그 사진을 우리가 찍었다고.

@1 아.

#1 출장 사진.

@1 그치예.

#1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 가지고 밭에 가기 전에, 전에 이제 다 그때는 뭐 화장을 하고 뭐 한 거 없이 생긴 고대로 찍었지, 생긴 고대로.

@1 출장이라고 하면은 어디로 출장을 나가는 거마씨?

#1 촌에, 촌에 마을로 가 가지고.

@1 마을로예?

#1 촌에, 촌에. 마을로. 그 사람들이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을회관이믄 회관에 가면은 밭에 가면서 들려 가지고, 이거 찍고 가고.

출장 사진 준비 물품

@1 우리 결혼식 의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찍으러 나갈 때는 두 사람이 가는데 챙기고 가야 뒈는 도구들이 잇잖아예?

#1 도구는 사진기.

@1 사진기?

#1 사진기허고 사진 가방이라고, 가방이라고 한, 한 사 키로(kg) 뒈나?

@1 아, 무게가?

#1 무게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믄 렌즈 놓고 또 사진 필림 같은 거 놓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뒘.

@1 예. 가방 하나 따로 사진기 하나 따로?

#1 예, 예. 그렇죠.

@1 그믄 이 사진기는 그런 예식용, 사진 스냅 사진용 아니고?

#1 아, 거 스냅 사진도 가져갓어. 그 스냅 사진도 신부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신랑하고 딱 걸어 다닐 때 스냅 사진을 찍엇지. 요즘 동영상 찍는 거를 그때는 멧 카트(cut) 찍으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지, 이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환등 위에 놔 가지고 돌리면은 이제 영화처럼 그게 움직이지.

@1 이어지게예?

#1 이어지게, 예. 이, 이것을 카트, 카트 그냥 계속 찍어 가지고 환등기에 놔 가지고 요것을 손으로 요렇게 돌리면은 필름이 돌아가서 이제 불 비치고 하면은 요즘 영화처럼 뒈는 거지.

@1 우리 아까 다섯 장이 기본이라 헷잖아예. 그럼 필림도 우리 다섯 장 찍젠 하민 딱 다섯 장이면 뒙니까? 아니면 여벌로 더?

#1 아, 여벌로, 여벌로 한 필림은 한 스무 장쯤 갖고 다니지.

@1 그러면 그거 다 들어마씨? 스무 장이 다 듭니까, 아니면 한 다섯 장씩 찍엇덴 하면 한 필름 몃 장 정도면 완성뒐 거꽈?

#1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십육절지 하는 것이 이것이 대판.

@1 대판.

#1 큰 판.

@1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이거 반짜리가 중판.

@1 중판.

#1 그리고 사 분의 일짜리가 명함판 사 분의 일에서, 또 사분의 일이 증명판 이렇게 뒈는 거야예.

@1 그러면 대판인 경우에는 한 다섯 장이면, 실수 안 하면 그냥 다섯 장으로 끗낼 수도 잇겟다예? 예.

#1 예,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신부가 눈을 감거나 할 때가 실수가 뒈는 거지, 그때는 눈을 만들어야 뒈니까.

@1 맞습니다. 더 큰일 뒈 버리는 거라예, 눈 만들젠 허믄이. 그럼 만약 예약 가 가지고 오늘 어디 한림 쪽에 출장을 강, 거기 결혼식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엇어예. 그믄 사진 찍젠 하면 사진기만 있으면 뒈고, 별도 필요한 물건들은 따로?

#1 물건은 없습니다.

@1 가지고 다니는 거?

#1 예, 가지고 다닌 건 없고 그 집에서 신랑 신부 집에서, 뭐 평풍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헤서, 그 옛날에는 그 초가집이니까. 왜냐믄은 신랑 신부 가족들이 이렇게 서면은 좀 초라하니까 그 초가집을 가리기 위헤서 양쪽에 사람을 서 가지고 평풍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거기다 놓고 사진을 찍엇지.

@1 그런 사진들이 많드라고요. 예.

#1 많지, 대부분이 다 그거니.

혼례 시 가족사진 촬영

@1 아까 사진 다섯 장 속에 이 사진은 남자 집이 갔을 때 찍는 거잖아예?

#1 남자 집에.

@1 보니까 다섯 장 속에 신부 가족이랑 찍는 가족 사진도 들어가 잇어예. 그러면 이것도 남자 집에서 찍는 거라마씨?

#1 그거는 신부 가족에 찍는 거는 예식장에 와서 한 대.

@1 그지예? 그.

#1 그렇지, 예식장 할 때는, 왜냐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편이, 오른편이 신랑 친척, 왼편이 신부 친척 이렇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가지. 근데 집에서 하는 거는 신부 가족이 신랑 집에 갈 수가 없지.

@1 없잖아예.

#1 단 단 일곱 명만 갈 수 잇지. 일곱 명은 뭐냐믄은 상객이라고 헤 가지고.

@1 우시로 가는 거.

#1 우시, 우시로 가는 거지.

@1 우시로 가는 사람덜예. 게난 아까 기본이 다섯 장이라고 헷던 건 예식장에서 찍을 때 얘긴게마씨.

#1 그렇지. 집으로 갈 때도 신랑 신부 찍지, 신랑 신부, 신랑, 신랑 신부 찍지, 신부 저 가족 사진 찍지, 친구 찍지, 친구들은 다 찍으니까 신랑 친구 찍지, 그래서 한 한 세 판 내지 네 판.

@1 그치예? 그리고 신부가 쪼금 뭐 하믄 다 그걸 찍으려고 그래. 신부 독사진을 찍으려고 그랫다고. 그거는 한 팔십 프로가 신부 독사진을.

혼례식 과정 촬영

@1 그럼 우리 이렇게 출장 가 가지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보면 하루에 한 집만 찍어집니까, 아니면 여러 집을 찍어집니까?

#1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출장 가서 결혼식을 찍을 때는 하루 한 집밖에 못 찍어.

@1 흔 집밖에예.

#1 예. 왜냐믄 제일 처음 아침 일곱 시에 신랑이 출발을 헤, 신부 집으로 신부를 가서 데려와야 뒈니까.

@1 맞습니다예.

#1 뭐 우시도 가고 헤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신랑 신부가 그 방에 앉아 가지고 그거 헤 가지고 끗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와 가지고 사진 찍곡.

@1 그러면 그 과정까지도 다 같이 참여허는 거꽈?

#1 같이, 같이 가서 스냅도 찍고 또 신랑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상, 마지막 상을 받거든.

@1 예.

#1 그 집에서 저 신부가 시집을 가면서 마지막 그 큰 상을 받는다고. 거기에 이제 신랑이 동석을 헤 가지고 뭐 신랑 저 신부 들러리 신랑 들러리 같이 이제 앉아 가지고, 이제 그 상을 받아간 다음에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지, 이제, 이제.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야 뒈.

@1 스냅 사진 찍는 경우는예. 그러면 우리 신랑 집으로 와수다예. 신랑 집으로 오면 언제 사진을 찍는 거꽈? 방으로 먼저 들어가?

#1 아니, 아니. 사진 찍고 들어가.

@1 사진 찍고.

#1 그 방에 들어가서 또 나올라 그러면 안 뒈고. (웃음)

@1 그지예. 그믄 신부 데려서 신랑 집에 도착헤수다. 옛날에 뭐 차 타고 갓덴 하면 차에서 내려수다. 내리면 바로 사진 찍는 과정이 뒈는 거꽈?

#1 그렇지 바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사진이 끗나면은 들어가면은 신부가 옷을 갈아입어. 한복으로 드레스를 벗고 한복으로 갈아입어. 한복으로 갈아입어서 이제 상을 받게 뒈지.

@1 예.

#1 한복, 드레스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한복을 입어서 이제 그 한복 입어 가지고 한 것도 다 카메라로 스냅 사진 다 찍고.

사진 촬영 순서

@1 그 네 장, 다섯 장 여러 사진을 찍게 뒈면, 여러 사진을 찍게 뒈면 가장 먼저는 어느 사진이 가장 먼저 찍습니까? 신랑 신부 사진입니까, 아니면 가족사진입니까?

#1 신랑 신부 사진이 우선예.

@1 신랑 신부 사진 먼저 찍고.

#1 예, 그다음 신랑 신부 부모, 부모, 부모.

@1 가족사진 찍고?

#1 그다음 가족 사진.

@1 그러니까 신랑 신부 사진 찍고, 부모 사진 찍고, 부모만 따로 찍는 건 아니잖아예, 가족 사진인 거잖아예.

#1 이게 부모만 따로 찍는 것도 잇는데, 대부분이 가족, 가족.

사진 현상 과정

@1 가족 사진 찍고 그다음에 친구 사진도 찍게 뒈면 그 사진 찍는 경우예. 이렇게 사진을 다 찍고 왓습니다. 그러면 오고 나서 그다음에 작업 단계는 어떻게 뒈카마씨?

#1 무슨 작업?

@1 이 사진을 찍고 오면 그다음 어떤 과정?

#1 아, 제작 과정?

@1 예, 예, 예.

#1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그날 밤에 암실에서 그 필림을 빼 가지고 사진을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약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사진이 나타나게, 나타나게 헤 가지고예. 그것을 이제 물에 씻혀 가지고 말립니다. 그 필림을, 필림을 말려서 이제 그것을 말린 다음에는 그 필림을 가지고 인화지

라고, 인화지라고 우에 놔서 전기로 빛을 비치면은 거기 잇던 그 형태가 이 인화지에 다 찍히는 거지. 그래서 요 요, 찍힌 종이를 다시 약물에 집어너믄 싹 나타나지. 그냥 가만 놔두면 아주 찐하게 나타나는 거고, 제일 처음부턴 아주 약하게 진하게 나타나면 아, 요 정도면 됚겟다 하는 게 그게 기술이라.

@1 그믄 어느 정도 농도를 보고?

#1 그렇지.

@1 제때 꺼낼 수 있어야 됚는 거구나예.

#1 그렇지, 그래서 딱 헤서 싹 나타나믄 어느 정도에서 딱 뚜렷이 나타나믄 아, 됏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옆에 약통이 딱 집어너믄 그것이 스돕[66] 시키는 약. 그럼 딱 스돕 됚면은 그것은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그 인화지, 사진이 백혀 잇는 종이를, 인화지를 거기 놔서 한 세 시간 동안 흐르는 물에 씻혀 줘야 됚어.

@1 아.

#1 그것을 바쁘다고 헤서 세 시간 동안 씻히지 안하고, 그냥 바로 말려서 헤 버리면은 한 달 후에는 사진이 누렇게 변헤 버려.

@1 아, 그런 사진들 잇던데? (웃음)

#1 그러니까 그게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깨끗이 씻혀졋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하얀 그 좋은 색깔로 남느냐, 중간에 누렇게 변허느냐 그렇지.

@1 달라지는 거구나예.

#1 그니까 그 기술을 철저히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헤 가지고 하믄은 안 됚.

사진 제작 시간

@1 그럼 우리 오늘 사진 찍고 와 가지고 밤서부터 암실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는데.

#1 그렇지.

@1 그럼 그 작업을 하면서 완성됚기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1 그 사진이 완성됚는 건 아니지.

@1 예.

#1 그 필림이 완성뒐 때까지, 필림이 완성뒐 때까지는 어, 한 두 시간.

@1 두 시간? 으.

#1 두 시간. 시작을 필름을 빼서 약물에 집어놔서 헤서 필림을 완전히 만들 때까지 한 두 시간, 두 시간.

@1 그건 그날 밤이 이루어지는 작업?

#1 그렇지.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작업, 그 필림을 이제 물 흐르는 물에 씻혀서 말리면은, 말리면은 뒷날은 그 필림이 다 말르면은 이제 다 됚 거지, 이제.

66) '스돕'은 '스톱(stop)'을 발음한 것이다.

@1 그러면 이제 필름이 말랏다. 그럼 다 됚 상태에서 다시 사진으로 만들어야 됚나요?

#1 사진으로 만드는데 그 우, 우리가 결혼.

@1 하룻밤 정도는 말리는 거잖아예?

#1 그렇지, 그렇지. 하룻밤을 말려야지. 이제 오늘 가서 찍어온 거를 오늘 밤에 그 저기 뭐냐믄은 현상을 하고 필림을 다 헤서 말리면은 낼은 그 필림을 가지고 사진을 만들 수 잇지. 사진을 만드는 거는 한 삼 분이면 만들어 버려.

@1 아, 이 필림만 잘 헤내면?

#1 그렇지, 그 필림을 놓고, 그 사진 만드는 종이에다가 얹어 놓고 빛을 비춰 가지고 멧 초에 딱 비춰 가지고 요, 요거를 담가서 사진이 나오게 하는 거는 뭐 한 삼 분이면.

@1 간단한 작업, 예.

#1 그래서 그 사진을 또 물에다가, 물에다가 한 세 시간 담가놔야 됚. 세 시간 그래서 말리믄 사진 다 됚는 거.

@1 그러면 이거는 몃 분 이거 세 시간 하게 됚면 어쨋든 세 시간 정도 걸리는 거라고 생각허믄 됚겟다예?

#1 그렇지, 그렇지. 전체가.

사진 인화 장수와 금액

@1 우리가 사진 지금 한 다섯 컷을 찍어수다예. 가족 사진이랑 다 포함헤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 사진 찍은 거는 요렇게 인화헤 가지고 사진 한 장만 됚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 여러 장을 만들어 냅니까?

#1 그러니까 각 삼 매.

@1 각 삼 매, 딱 정헤져 잇는 거예?

#1 기본.

@1 아, 예.

#1 기본이 삼 매고 가족이 우리랑 저 가족 사진 찍은 거양, 권당들 핫이난에 흔 일곱 여덟 장 헤 줍서 하면 또.

@1 추가 비용?

#1 추, 추가 비용, 한 장에 얼마씩 헤서 한 거 또 그 카메라, 카메라는 스냅 사진 찍은 거는 카트마다 한 장씩이 기본이고, 또 거기서 그 인원 수대로 뽑아 줍서 허면은 두 사람 찍으면 두 장, 세 사람 찍으면 세 장, 석 장 이렇게 헤서 만들어 주고.

@1 아까 결혼 사진 큰 거, 그림 큰 거는 한 장당 천팔백 원씩 계산을 헷어예?

#1 아니, 한 장이 아니고 한 판.

@1 한 판.

#1 그렇지, 한, 한, 한 판이라는 건 필름을 얘기하는 거고, 한 장은 사진을 얘기하는 거지.

@1 그럼 이 천팔백 원에 아까 세 장, 하나당 세 장을 뽑는덴 헷잖아예?

#1 그렇지.

@1 이 세 장 뽑아 주는 금액이 들어간 거?

#1 들어간 거, 들어간 거, 들어간 거 그냥 세 장이 넘으면 추가, 추가.

@1 추가돼는 거예. 만약 추가하게 돼면은 비용은 얼마 정도 추가됍니까?

#1 그거는 뭐 아주 싸지, 한 삼백 원.

@1 몃 백 원 정도.

#1 몃, 몃 백 원 정도.

@1 예, 그럼 아까 우리 이거 필림으로 찍은 것들은 또 다른 거잖아예? 스냅 사진.

#1 스냅 사진.

@1 그거는 얼마 정도 비용을 책정헤나수꽈?

#1 그거는 이제 그 필름 한 통에, 한 통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름 한 통에 칠백 원이면은 스물넉 장이 나옵니다, 스물넉 장을 찍게끔 돼 있어. 스물넉 장 한 거를 하면은 한 통에 저것이 천 원?

@1 음. 그 정도 비용을 받아 놓은 거?

#1 그렇지, 한 통.

@1 한 통에 천 원 정도 비용을 받앗던 거라.

#1 받고 사진 한 장 한 장 만들면은 그 한 장당 허는 것이 뭐 십 원?

@1 아.

#1 예, 십 원.

@1 그러면 이렇게 받는데 출장비는 혹시 별도로?

#1 출장비는 안 받아.

@1 엇고?

#1 이거 출장비는 없지, 사진 찍어서 사진에 이익을 보는데.

인화 사진 제공일

@1 그러셧구나예. 그럼 어제 찍어온 사진은 어쨋든 밤에 요렇게 인화헤 가지고 다음 날이면 사진 나오잖아예. 그믄 그거 바로 갖다 줍니까? 아니믄 이거.

#1 아니지.

@1 허는 거 며칠 걸립니까?

#1 그러니까, 저 며칠 걸리지. 그거 왜냐믄은 그날 그분덜만 하는 게 아니지. 계속 매일 허니까 그걸 다 만들어낼라면은 한 일주일, 최하 보름은 있어야 나오지. 그러니까 보름 동안 뭐 거의 매날 전화 오고, 만들어수가, 뭐 헤수가? 헹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거를 그때는 화제가 그거밖에 없엇다고.

@1 그렇지예.

#1 결혼헤서 그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잇는 게 오로지 가족들이 앉아서 그 사진 보는 게.

@1 아, 그렇지예.

#1 그렇지, 사진이 그때 당시에는 이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앗다고, 사람들에게.

사진 촬영 비용

@1 음, 음. 우리 아까 비용은 우리가 출장 가서 거기서 찍었을 때라예. 칠십 년도에 여기에 사진관 만들었을 때 증명 사진 찍으러도 오잖아예, 가족사진 찍으러도 오잖아예, 결혼사진 찍으러도 오잖아예. 그럼 여기서 찍는 것도 가격은 같으꽈?

#1 가트주.

@1 출장, 출장 가는 거랑?

#1 가트지.

@1 아, 똑같이 받는 거마씨?

#1 똑같이 받는 거라.

@1 출장 가는 거랑 이거랑?

#1 출장 가는 걸 비싸게 받는 게 아니.

@1 비싸게 받아야 돼는 거 아니꽈? (웃음)

#1 아니야, 아니. (웃음)

@1 날력부령 가는 건디.

#1 아니, 아니.

인화 재료 구입처

@1 아, 그런 건 아니구나예. 그럼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인화허젠 허믄 필림도 필요하고 인화지도 필요하고, 그 인화할 때 쓰는 액체에 들어가는 약품도.

#1 약품.

@1 필요허고 허는 거잖아예. 그런 거는 어떵 구헹 써신고마씨?

#1 제주 시내에 사진 재료 도매상이 잇었어, 제주 시내.

@1 예, 예.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진에 대한 모든 약품, 필림 사진을 만들 수 잇는 모든 재료가 전부 일본 제품이란 말이여. 한국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어, 전부 일본 제품. 뭐 필림 하나만 헤도 후지 필림 코닥 필림 한국에서는 그런 걸 만들질 안헷다고,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안 됏다고. 한국이 발전된 게 개구리 발전이라.

@1 이 도매, 제주시에 있엇던 도매상이, 어디 칠성통에 잇어나수과?

#1 칠성통.

@1 어디 칠성통, 칠성통 여기 혹시 이름 알아지쿠꽈?

#1 이름은 모르겟는데에.

사진 제작에 필요한 물품과 제작 방법

@1 어쨋든 잇어난예. 알아수다. 우리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진에 대헤서 전혀 그 무지한 사람들이난예,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젠 허민,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인화헤서 사진으로 내우젠 허민 필요한 것들이 뭐, 뭐가 잇어나신고마씨, 기본적으로 사진기가 잇고?

#1 그렇지.

@1 이 필림이 잇고.

#1 필림, 그러니까 사진기가 잇고 필림은 필수고.

@1 예, 예.

#1 또 그것을 저 사진으로 만드는 약품들 잇엇, 잇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내는 종이가 잇고, 그런 거.

@1 그러면 인화지가 종이가 뭘 거고.

#1 그렇지, 인화지.

@1 약품이렌 허민 어떤 약품들이꽈?

#1 그러니까 그 약품은 에, 세 가지가 잇는데.

@1 예, 예.

#1 필림을 이제 찍힌 현상을, 찍힌 모습을 그냥 나타내게, 그만 나타내게 하는 필름이 잇고.

@1 아까?

#1 그거는 약.

@1 약예. 아까 사진 찍어 온 그 필름을 영 씻어 주는 거.

#1 씻어 주는 거 말고.

@1 아, 아 담아 주는 거.

#1 담그면은 여기에 딴 딴 물질은 다 빠지고 그 찍힌 영상만 남게끔 하는 약, 예, 예.

@1 예.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1 첫 번째.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그다음 스돕 시키는 약품. 그다음에 이것을 말려 가지고 인화하는 과정. 인화지에다 놓고, 그것뿐이주, 뭐 뭐 딴 거.

@1 그때 인화지에 놓고 인화할 때도 약품을 발라 주는 거?

#1 아니지.

@1 그믄?

#1 약품은 다 발라진 종이니까, 약품을 발라진 종이에 필림을 얹혀놓고 빗만 비치면은 그 인화지에 뭐냐면은 그 약품이 요 필림의 영상을 받아 가지고 여기 각색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약품에다 또 집어노믄 그것이 또.

@1 아, 그믄 이게 세 번째 약품이 뒈겟다예?

#1 그걸 그렇지, 그렇지.

@1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인화지에 넣으면 뒈는 거. 그믄 아까 조명 기구도 필요한 거다예, 이거 비춰 주는 조명? 으.

#1 그렇지. 그 저 뭐냐면 사진 만드는 과정은 이런 햇빗이 잇는 곳에서는 절대 안 뒈.

@1 암실이어야 뒈는 거.

#1 암실.

@1 예.

#1 햇빗이, 하나도 안, 햇빗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다 버려지는 거지.

@1 음. 그믄 아까 여기 영 영 빗, 빗 비춰 가지고 이 인화지 이게 뭘 수 잇게, 빛을 비춰 준덴 헷잖아예. 요런 조명도 우리 이런 형광등 같은 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특별한 조명인 거잖아?

#1 특별 조명 아니라.

@1 아니? 그냥?

#1 그냥, 그냥 백혈등.

@1 백혈등이꽈?

#1 백혈등.

@1 그믄 이거는 그냥 별도로 자기가 준비하면 뒈는 거?

#1 우리가 만들아서,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아 가지고, 스위치 달아 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서 하나 둘 허민 탁 끄면 뒈는 거. 그다음에 또 바꽈서 또 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1 그런 거고. 그러면 뭐 인화뒌 거 사진 자르젠 허민 이런 도구들도 필요허지예?

#1 그거는 이 카타라고, 카타. 사진 요렇게 놔서, 요런 예쁘게 사각나게 하는 카타가 잇엉. 이렇게 놔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1 그것도 필요한 거고, 아까 필림을 약품에 넣젠 허면 요런 틀에 맞는 뭔가 도구도 잇어야 뒈겟다예.

#1 그렇주. 거, 것은 뭐냐믄 이렇게 네모난 건데, 네모난 건데 약 흔 사십 센치에 한 삼십 센치 크기의 얇은 차판, 차반 같은 거 잇는데 그거는 철도 안 뒈고, 이 뭐냐면은 도기로 뒛다고, 도기.

@1 특별한 걸 제작헤야 뒈는 거구나?

#1 건 저 철, 철에 대어도 안 뒈고, 독이.

@1 약품 성분이 달라져?

#1 그니까 법랑, 법랑, 법랑 차판 법랑 오봉 같은 거. 왜냐믄 약품의 반응을 안 하게 위헤서는 차단을 시켜 주는 법랑, 법랑을 써야 뒈는 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난 그런 건 특별하게 사용했엇던 거. 그 외에 필요한 도구들은 따로 엇어나신가예?

#1 그우에 필요한 도구들은 별로.

사진 수정 시 연필

@1 음, 혹시.

#1 수정하는 거.

@1 수정할 때, 수정할 때 뭐 필요한가마씨?

#1 수정하는 거는 그 수정 틀이 잇다고. 수정 틀에 구멍을 요만큼 뚫러 가지고 구멍을 요만큼 뚫러 가지고 여, 그 뒤에다가 그 전기 불을 키고, 필림을 이렇게 놔서 하면은 형태가 나타나지. 그러믄은 연필로 이쁘게 화장을 시키는 거지. 깨끗이, 이 저 뭐냐믄 이 점 잇는 것도 지워 버리고.

@1 그 연필이렌 한 건 아까 돔보 그냥 그런 연필, 보통 사용허는 거, 그냥?

#1 그런 연필, 그렇지. 근데 한국은 좋은 연필이 안 나왔으니까.

@1 연필도, 그런 용으로 나오는 특별한 연필이 잇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부헐 때 쓰는 그런 거 써도 뒈는 건지?

#1 근데 공부할 때 쓰는 거는 그 필림에 잘 묻지를 안헤.

@1 아.

#1 근데 돔보는 뭐냐면은 그게.

@1 사비(4B) 연필.

#1 그림, 그림 그릴 때 쓰는.

@1 사비(4B) 연필, 예.

#1 그렇지. 그것이 그림 그릴 때 쓰는 연필이 그 수정을 할 수 잇다고. 우리 일반 거는 묻지를 안헤.

@1 아, 그렇구나, 그.

#1 돔부 연필 그거, 그, 그 그림 그리는 연필은 우리가 스케치 하는 연필.

@1 예, 예, 예, 맞수다.

#1 어, 그거.

@1 깎아내는 건 일반 칼로 그냥 헤도 뒈마씨?

#1 그냥 칼로, 응. 그때 당시에 일본, 일본 그 저 뭐가 잇는데, 저 연필 깎기가 잇는데 고거는 연필 요렇게 헤서 돌리면은.

@1 깎아지는 거.

#1 깎아지는데 그게 연필심이 요만큼밖에 안 헤. 근데 이거는 연필심이 얼마나 길어야 뒈느냐면은 최소한도 한 십센치는 길어야 뒈어, 십 센치. 아주 미세한 작업이라고. 예. 왜냐믄 이게 요기서 요만큼 연필심이 있으믄 이게 이게 이게 안 뒈. 길어야 이게 미세허게 작업을 할 수가 잇지.

@1 아, 기마씨?

#1 그렇지.

@1 여기 심만 있으믄 영 잡아도 똑같을 거 같은디?

#1 아이고, 아이고 안 뒈, 안 뒈.

@1 달라요? 아, 그럼 심을 여기까지나 까끄는 거라, 십 센치나예?

#1 이렇게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깎아서 뾰쭉허게 만들지. 그 연필 깎는 기술도 엄청.

사진 수정 기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화했을 때 하양허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믄 거기에 색깔을 칠한다는 거잖아예, 영예.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한 연필을 한 부분이 희게 나오거든. 사진을 하면. 까만 것을 희게 나오고, 까만 저, 흰 거는 까맣게 나오고.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라고 그러지. 그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고 그러지, 칼라 사진, 흑백 사진.

@1 반대로 나오게.

#1 반대로. 그니까 뭐 신부가 특별히 부탁헤서 뭐, 뭐 쌍꺼풀을 만들어 달라든지.

@2 앗. (웃음)

@1 그런 부탁도 이수과?

#1 아, 잇지. 왜냐믄 그런 부탁을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진을,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신부 사진을 찍엇는데 보니까 아, 이디, 여기도 쌍꺼풀초록 잘 헷고 허난 이거 무사 영 헤시니? 허면은 그거 가서 부탁하면 거기서 다 이걸로 만들어 준다고 요렇게 할 때도 잇고, 연필을 잡아서 요걸로 할 때도 잇고.

출장 사진 촬영과 예식장 사진 촬영의 차이

@1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쨋든 결혼은 다 겨울에만 잇어낫잖아예.

#1 겨울에만 잇어난.

@1 보통 일 년에 이렇게 출장 결혼 출, 사진 찍는 걸로 출장 나가는 건 한 몃 번 정도 나가난마씨, 많이 나갈 때가.

#1 그때, 많이 나갈 때 하루에.

@1 아니, 하루에 여러 번 나간 경우도 이수꽈?

#1 하루에 일곱 번, 아니 나가질 안헤지, 그거는.

@1 아, 그니까 사진관에서 찍을 때.

#1 예식장에 와서 찍으니까.

@1 그럼 제일 많이 찍는 건 하루에 일곱 번까지?

#1 일곱 번까지.

@1 출장 가는 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가고?

#1 한 번밖에 못 가지. 그니까 저, 저 그래서 그게 출장 가서 찍는 것이 점점 예식장으로 오게끔 뒈니까, 하루에 일곱 번까지 하지.

@1 일곱 번까지.

#1 왜냐믄 아침 여덟 시 반부터 시작헤 가지고 오후 네 시 반까지. 그냥. 요즘 저기 예식장처럼 시간, 시간 딱딱 정헤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와. 건데 내가 결혼할 때도 여섯 번을 결혼시키고, (웃음) 나가 오후 네 시에 결혼 사진을 찍어서 결혼식을 헷다고, 내가. (웃음)

@1 어머, 어머. 당신, 삼춘이 결혼허는 날도 일도 허고?

#1 아이구, 일도 헤야지. 왜냐믄은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면은 아이고, 에에, 내불라 낼랑 풀자

허면 뒈는 건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남의 큰일 결혼식을 맡아놧는데.

@1 그건 인생의 큰일인데예.

#1 그렇지. 그거는 시간 뭐 다 짜졋기 때문에 우선 내가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 사람들 다 헤 놓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출장 결혼사진 촬영

@1 그믄 나눠서 얘기하자면 예식장 할 때 말고예, 출장만 다닐 때라예. 집집 돌아다니면서 할 때. 일년에 한 몃 번 정도를 영 나가난 거 닮아마씨?

#1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면은 뭐 매일 잇지.

@1 거의 매일이꽈?

#1 매일. 그러니까 이, 한 십일 월?

@1 예. 십일 월.

#1 십일 월, 일 월, 이 월.

@1 십일 월, 십이 월.

#1 야, 십일, 십이, 일, 이.

@1 응. 넉 달 동안.

#1 그렇지, 넉 달 동안, 넉 달. 그때는 또 겨을이 길었어요. 요즘처럼 짧, 짧은 게 아니고.

@1 이 기간 동안 넉 달이면 사, 삼, 십이 한 백 건 정도는.

#1 그렇지, 백 건 정도는.

@1 뒌 거꽈? 아니, 우리 보통 가면은 날 좋은 날은, 결혼날 안 잡잖아마씨.

#1 뭘 날 좋은 날?

@1 우리 날 봥 무슨 날이여, 오늘은 길일이여, 흉.

#1 그렇지, 그런 것도 잇는데 대부분이 그 뭐냐면은 그 집안이 막 뭐 헌 데는 그렇게 꼭 그거를 지키지 마는 요즘은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만 허잖아.

@1 옛날에는 그런 것 엇어나수까?

#1 없지, 토요일, 일요일만 한 게 없지. 토요일, 일요일이 필요 없지. 왜냐믄 구십오 프로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토요일, 일요일은 관계없지.

사진관 운영 기간과 영업 종료 이유

@1 경 헹 언제까지 사진관을 하셧수과?

#1 그게 그렇게 뒈서 음, 팔십 년대 중반.

@1 팔십 년대 중반까지. 한 십오 년 동안은 열심히 하셧구나예.

#1 왜 그만둿느냐 하면은 팔십 년대 중반이 나오니까 칼라가 나왓다고, 칼라.

@1 예, 예.

#1 우리 흑백 사진 말고, 칼라가 나오고 카메라가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사진관이 필요가 없는 거야.

@1 아, 그런 거예.

#1 그렇지.

@1 그러면 팔십 년대 중반이면은 우리 삼춘은 한 사십 대 뒛다예.

#1 그렇지, 그렇지. 예, 사십 대 조금 전에.

@1 그 이후에는 무슨 일 하셧수과?

#1 그 이후에는 내가 저기 뭐냐면은 저기, 부동산하고.

@1 아, 그런 일들?

#1 부동산하고 건축.

@1 건축도 하고.

#1 종합, 아파트 짓고.

@2 결혼은 언제 하션마씨?

#1 결혼은 우리가 음, 칠십사 년돈가.

@1 칠십사 년도에 자제분은 몃 분 계시고?

#1 두 사람.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1 아, 예. 좋수다예.

칠십리 사진관 개업 시기

@1 혹시 일에 관련헤서.

@2 예, 예. 칠십리예식장 전에 사진관을 먼저 개업하신 거잖아예? 그게 몃 년도가 뭘 건가마씨? 육십.

#1 그거는 한 내가 그거는 오래는 안 헷는데, 한 육십오 년도.

@1 육십오 년도.

#1 쪼금 하다가.

@1 예, 이거는 주체는 삼춘이엇수꽈, 형님이엇수꽈?

#1 형님, 형님, 형님이 헷지.

@1 예, 예. 형님이.

#1 칠십 년도 뒈 가지고 그거를 예식장을 할 때부떠 내가 이제 오십 프로 주권을 가져서 한 거고.

한림읍 제일 사진관 정보

@1 예, 예. 그렇지예. 그믄은 그 이전에 제일사진관은 계속 잇어난 거꽈?

#1 잇어낫지.

@1 저기 칠십리사진관 하실 때도 제일사진관은 잇어난마씨?

#1 어, 아니, 아니. 없지.
@1 엇어젼?
#1 그렇지, 엇어졋지.
@1 제일사진관은 없어지고. 이 제일사진관은 언제 생긴 거는 모르쿠꽈?
#1 생긴 것이, 그 사진관 그 생긴 것이 나가 한 국민학교 때?
@1 아, 예.국민학교 때 우리 칠십리는 예식장도 ?치헌 거잖아. 그.
#1 예식장예.
@1 예식장은 잘 뒈수과?
#1 잘 뒛지.
@1 아.
#1 잘 뒛지, 잘 뒛지.
@1 그러면 그것도 팔십 년대 같이 없어진 거예?
#1 예, 같이 없어진 거. 왜냐믄 칼라가 나옴으로써, 칼라가 나오고 카메라가 나와서 대중화가 뒈 버리기 때문에 사진관에 올 그런 뭐가.

사진관 성쇠의 이유

@1 그래도 예식장은 필요헷잖아마씨.
#1 아, 예식장은 필요헷지. 근데 칼라, 칼라, 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예, 칼라, 우리 흑백을 할 때는 기술을 팔아 먹엇는데, 기술을. 칼라는, 기술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면 그냥 나오니까 기술이 아니고 그 사진 값만 받는 거지. 그게 타산이 안 맞지, 딴 장살 헤야지.
@1 칼라가 더 편헤수과?
#1 편하지. 칼라가, 칼라는 기계에서 다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흑백은 찍는 과정부떠 만드는 과정 마무리까지 전부 사람이 하는데 칼라는 집어노면, 영상을 집어노면 여기서 다 인화가 딱 나오면 사진 한꺼번에 나와 버려.

칠십리예식장 운영

@2 네, 그러면 그때 칠십리예식장 운영하실 때 미용실도 같이 운영하션마씨?
#1 아니지.
@2 그 안에 머리하는 분들은 없고예?
#1 그때는 미장원에서. 신부가 미장원에 계약을 헤 가지고.
@2 어.
@1 옛날에 여기 무슨 미장원 그런 거 헤낫는 디 잇어난 디 알아지쿠꽈?
#1 그거는 자세히 모르겟네.
@1 예, 예.

#1 그 가격은 알으니까, 한 칠천 원 받았을 거라. 신부 화장할 때.
@2 그러면 예식장 할 때는 그때 식사하고 이런 거는 나중엔 거지예?
#1 식사는.
@1 그런 건 없어.
@2 그냥 진짜 그냥 사진 찍고.
#1 그렇지. 그.
@2 그 삼춘이 출장으로 신랑 집에 가서 사진 찍어 주실 때는 그 주례하고 뭐 신랑 신부 인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을 때만 사진?
#1 그렇지. 우리가 출장 가서 찍을 때는 뭐 주례하고 그런 거 일절 없고.
@2 없고?
@1 예식장 와서에야?
#1 예식장, 예식장 칠십 년도 오픈헤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주례하고, 뭐 사회하고.
@1 예, 맞습니다.
#1 또 사회가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대신헤서, 제가 대신헤서 이제.
@1 하기도 하고. 아이고, 일 인 몃 역을?
#1 그렇지. 아니 그거 헐 줄, 없는데 어떻게 헤.

사진사 호칭

@2 혹시 어, 삼춘을 부르는, 신랑 신부집에서 삼춘을 부르는 이름, 뭐 누구누구 사진사여, 이런 거?
#1 기사님.
@2 아, 기사님?
#1 기사님. 그래 가지고 그때 결혼식 집에서 최고 귀빈이여, 귀빈.
@1 대우. 아.
#1 그다음이 운전수.
@1 아, 기꽈?
#1 두 사람, 최고 대우.

출장 시 이동 방법

@2 삼춘 출장 가실 때도 차가 잇언마씨, 삼춘 차?
#1 그때는 오토바이로 갓지, 오토바이.
@1 오토바이 잇어수과?
#1 일본, 일산 오도바이. 그때 한국에서는 오도바이 만들지도 않앗고, 일본 오도바이 타서 하고 또 저기 신랑, 신랑이 신부 모시러 갈 때는 뭐냐 하면은 요즘같이 승용차가 아니고 승용차가 없어 가지고.
@1 트럭.

#1 트럭, 트럭. 트럭도 시동도 앞에 가서 이걸로 하는 트럭 헤 가지고 그 조수대에 저 신랑 신부 앉히고 또 신부가 풍채가 좀 크면은 둘리 못 앉으니까 신랑은 적재함에 타고, 적재함 타고, 또 신부 뭐 가구, 신부 데리러 가서 올 때 신부 가구 거기 다 이불 같은 거 다 싣고.

@1 맞수다.

#1 그때는 한 팔십, 팔십 프로가 눈 위에서 행사를 헷다고.

@1 눈?

@2 겨울이니까.

#1 겨울. 그때는 십일 월 뒈면은 이, 삼 월 될 때까지 눈이 항상 묻어 있엇다고.

@2 혹시 사진을 찍으러 와 달렌 헹, 사진 다 찍어근에예. 근데 찾으러 안 오고 돈도 안 내고 이런 경우도 잇언마씨?

#1 그런 경우는 없고. 한 번도 없어.

@1 사진은 찍어신디 안 나와 부는 경우는 잇어나수꽈?

#1 그거는 우리는 없어, 그런 그런 실수는 안 허지.

기억에 남는 결혼식

@2 기억에 남는 결혼식 이런 거는 엇언마씨? 제일 신랑 신부 중에 기억에 남고 이런.

#1 그런 건 없는데. 특별히[특뼐리] 뭐 기억나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믄 그때, 그때 그 시절에는 단순했으니까 뭐 기억에 남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똑 그 짜진 틀에서만 요렇게 움직였으니까.

사진업의 노동 강도

@1 일하실 때 재미집디가?

#1 재미지지. 재미진데 피곤헤, 사진업이.

@1 아, 피곤헤.

#1 왜냐믄은 아침에 일어나믄은 출장 가야지.

@1 밤이 왕 또 작업헤야지.

#1 출장 가면은 한 네 시. 이 겨을에 네 시믄 어두워. 왜냐믄은 왜 네 시에 오냐믄 이제 결혼식 다 끗나면은 그 신부 친구덜 신랑 친구덜이 사진을 찍을라고 막 산에 이런 데 데려가서 사진 찍어 주저 뭐 하저 허면 집에 오면은, 저녁에 오면은 그날 찍은 거.

@1 작업헤야 뒐 거.

#1 작업을 헤야지, 이거 필림에서 만든 필림에서 다 걸어 놓고서 잠 잘 시간이 멧 시냐 하면은 열두 시 뒈야. 빨르면 열두 시.

@1 만약에 오늘 찍은 필림을 바로 와 가지고 여기 약품에 넣어 가지고 말린덴 헷잖아예. 요거 그 작업 안에 막 오래 놔두면?

#1 아,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 괜찮아마씨?

#1 그대로 언제든지 하면 뒘.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사진업하고 숙박업, 여관, 여관하고 목욕탕은 이 삼 종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라.

@1 아, 힘든 거라예.

#1 보기에는 엄청 뭐 목욕탕이니 뭐 이런 데는.

@1 그런 거랑 사진관은 좀 다를 것 같애마씨. 사진관은 전문 분야.

#1 전문 분야라도 시간이, 노동 시간이, 노동 시간이 단 사람덜은 여덟 시간이면 끗나는데 나는 벌써.

@1 별도로 헤야 뒈는 시간이.

#1 별도로 그렇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사진관에서 이제 증명사진 같은 거 찍고 하면은 내일 여덟 시까지 그걸 찾아야 그걸 가정 어디 버스 탕 어디 쓰레 갈 거우다 허면은 그걸 그때까지 만들어 놔야, 수정까지 다 헤서 만들어 놔야. 그 밤에 뒷날 아침 그 증명사진 가져갈 사진을 수정 다 하고, 사진까지 다 만들어서 말려놔서 잠을 자야 뒈는 거.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찾으러 오면 그걸 주어야지.

@1 맞습니다.

#1 그 약속의, 그 약속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다고.

사진사에 대한 자부심

@1 아, 예. 아니, 그래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예.

#1 그렇지.

@1 그 여관이든 뭐든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어도.

#1 그렇지.

@1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1 그거는 잇지. 그때 당시에 요즘은 헤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사진 하면은 다 높이 봣지, 기술을.

@1 기사님.

#1 기사님.

@1 붙여 가지고예?

칠십리 예식장과 사진관

@2 예식장이 같이 운영뒛다고 하는 거는 사진관 안에 이렇게 단상 잇고. 이름 붙이고 이렇게 잇는 게 잇는 거, 아니면 그러면 이 층이니까, 이 층에는 예식장 일 층에 사진관 영 헹?

#1 아니, 이 예식장 내에 겉에 사진관. 사진 예식, 예식 시간만 그거 하는 거지. 예식 시간 지나면은 그거 뭐 사진관이지, 거기서, 거기서 다 사진 찍고 다 하니까.

@2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예식장은 아닌 거라예.

#1 요즘 예식장은 아니지.

@1 아니, 그 요즘 예식장처럼 신랑 신부 가족들 와 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다 하는 공간은 있엇잖아예.

#1 그 공간 넓게.

@1 그치예?

#1 그렇지.

@1 지금처럼 막.

#1 약 한, 한 백오십 명 들어가지.

@1 의자도 다 놔 가지고.

@1 칠십 명, 칠십 명 헤 가지고. 요즘은 백오십 명 가지고 택도 안 뒈지만 그때는 백오십 명이면은 반차, 반.

@1 가족들?

@2 이 자리마씨? 이 자리?

#1 아니, 바로 요 공터에 잇는데. 바로 이 자리지, 이 자리. 이 자리. 그 집이 왜냐믄 도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집이 뜯겼어.

@1 네, 오늘 고맙습니다.

Ⅳ.

부록

〈제주의 혼례문화〉 현지 조사 질문지

〈제주의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현지 조사 질문지



제주시 일도1동 제보자 문순애(1941년생) 씨가 손님의 머리를 손질해 주던 모습

[붙임 1]

〈제주의 혼례문화〉 현지 조사 질문지

Ⅰ. 제보자 정보

1.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2.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띠, 양력/음력,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일치 여부)
3. 고향이 어디입니까? 타 지역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까?(타 지역 거주 기간)
4.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5. 생업은 무엇입니까?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6. 언제 결혼했습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 결혼 전 얼굴 알기, 만난 횟수, 결혼까지 걸린 시간
   – 당시 처녀/총각의 결혼 나이, 제보자가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 조혼 풍습
7. 남편/아내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 중매/연애 결혼

Ⅱ. 결혼 전 준비 절차

1. **중매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혼담 방법, 혼담이 오고 간 이후 결혼까지 걸리는 시간
2. **사주/궁합**은 어떻게 주고 받습니까?
   – 사주/궁합을 봐 주는 사람, 사주 보는 장소
   – 사주/궁합을 보러 가는 사람, 적어 보내는 사람, 작성 양식
   – 사주/궁합이 좋지 않을 때 하는 방법
   ※신부 사주를 주는 날은 신부집에서 음식 대접을 하지 않음. '**사주고남**' 용어 확인
3. **결혼 날짜**는 어떻게 정합니까? 결혼 날짜를 어떻게 알립니까?
   – '막펜지' 가져가는 날, 택일 후 신부집에 가는 인원, 방법과 절차
4.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예복 준비
      – 물품명과 비용: 치마저고리, 장옷(수의로 활용까지 추가 질문), 마고자, 두루마기 등
      – 예복의 재료 및 색깔, 준비하는 개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예비신랑/신부

– 마련하는 사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예비 신랑/신부

2) 예물 · 예단 준비

– 물품명과 비용: 이불, 방석, 요, 베개, 궤, 찬장, 버선, 시계, 재봉틀 등

– 물품의 재료 및 색깔, 준비하는 개수

– 만드는 사람

– 주의해야 할 사항

※이불 만드는 날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지 확인

3) 잔치 음식 준비

– 음식 재료 마련: 돼지, 물, 쌀, 두부, 술, 달걀, 순대 등

– 부대 물품 준비: 그릇, 천막, 술잔, 쟁반 등

– 준비하는 인원, 수량, 기간, 비용(재료, 사례 등)

– 돼지 잡는 사람, 고기도감, 술도감, 솟밋할망의 명칭, 역할 등

4) 이바지 음식 준비

– 음식 재료 마련: 돼지, 물, 쌀, 두부, 술, 달걀, 순대 등

– 부대 물품 마련: 용기, 천 등

– 준비하는 인원, 수량, 기간, 비용(재료, 사례 등)

5. **결혼 준비와 관련한 계(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족두리접, 가마접, 쏠접, 그릇제 등

6. **결혼 전 신랑/신부가 주의/금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청첩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제작 시기, 배포 범위, 비용

8. **파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요? 어떤 경우에 파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 **약혼식/프로포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필요 물건, 비용, 장소, 예식 절차와 방법

III. 결혼식 절차

1. **홍세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예장 검사, 준비 절차, 필요 물품, 인원, 시간

2. **결혼식날 지내는 제사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신랑집 문전제

3. '**사둔열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의미, 진행 방법, 장소

4. **결혼식 당일 음식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새각시상/신랑상, '곶인상'

– 손님 대접 차림

– 준비하는 인원, 수량, 기간, 비용(재료, 사례 등)

5. **신랑의 결혼식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혼례 지침서 확인

– 결혼식장 이동 방법 및 수단('뭬께', 가마, 말, 트럭, 버스, 승용차) 등의 변화 과정

– 예복 환복, 도우미 등

– 동행자와 그 역할(하님, 우시)

– 결혼식 초대 범위와 시기, 방법

6. **신부의 결혼식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결혼식장 이동 방법 및 수단('뭬께', 가마, 말, 트럭, 버스, 승용차) 등의 변화 과정

– 예복 환복, 화장, 머리 등(기술자, 비용)

– 동행자와 그 역할(하님, 우시, 중방, 대반)

– 결혼식 초대 범위와 시기, 방법

※신부 친구들의 손수건 팔기 목적과 하는 방법

〈하님, 상객, 우시, 중방, 대반〉

– 하는 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남녀의 역할 구분, 요청 시기, 필요 인원, 사례, 금기 · 주의 사항, 기억나는 일화 등

7. **결혼식 장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시대별 변화: 신랑집/신부집, 마을회관, 학교, 예식장 등

– 입구에서부터 식을 올리는 곳까지 구성, 양가 부모, 손님이 앉는 자리 등

– 혼례식 기물(기러기)과 기물의 의미,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장소 등

– 결혼식장의 꽃 장식과 부케 준비, 비용

– 결혼식을 올리면 안 되는 장소, 방향

8. **결혼식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예장 확인→신랑/신부 입장, 양가 부모 인사→주례와 주례사→예물 교환, 맞절→폐백→신랑상/신부상 받기(대반)→상객 인사→사진 촬영

9. **부신랑/부신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하는 사람과 하는 일(신랑/신부 도우미, 솔문 제작, 손수건 팔기 등)

– 요청 시기, 필요 인원, 대상, 사례, 금기/주의 사항, 기억나는 일화 등

10. **결혼식이 끝난 뒤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신랑 발창 때리기, 뒤풀이, 친척/친구, 첫날밤

11. **부조금/답례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비용(당시 화폐 가치 하루 일당 등과 비교)과 전달 범위, 주는 시기
  – 개인 부조(남성–남성/여성–여성), 겹부조, 부조금 봉투에 적는 글, 의미
  – 곡물→화폐 변화 시기 추정
12. **재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것, 절차, 금기 사항
13. **혼례와 관련한 금기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계절, 시기(대소사 겹침), 형제 순서, 이사 등
14. **혼인 신고서 작성, 제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5. **신혼집/신혼 살림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신혼집 장소(시댁, 친정, 별도 장소), 신혼 살림(찬장, 식기, 솥 등)
16.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장소, 기간, 비용, 사진 촬영 등
17.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8. **이 지역의 결혼식장**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붙임 2]

〈제주의 혼례를 도왔던 사람들〉 현지 조사 질문지

[공통 질문] 제보자 정보

1.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2.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띠, 양력/음력,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일치 여부)
3. 고향이 어디입니까? 타 지역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까?(타 지역 거주 기간)
4.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5. 생업은 무엇입니까?
6. 언제 결혼했습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Ⅰ. 미용과 화장

1.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배웠습니까?
2. 머리, 화장 등 요청은 어떻게 연락이 옵니까? 어디까지 이 일을 하러 다녔습니까?
  – 활동 범위, 지역 내 이동 방법, 수단 등
3. 지금까지 몇 명의 신부 머리와 화장을 해 줬습니까?
4. 출장 갈 때 가지고 가는 물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 핀, 댕기, 화장품과 머리빗 종류 등
5. 한 번 출장 미용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 신부 머리, 추가 친정어머니 등 머리
6. 사례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7. 주로 어떤 머리를 했었습니까? 당시 어떤 머리 모양이 유행했었습니까?
  – 머리 장식과 그 의미, 자신의 머리카락, 가짜 머리카락(가체, '톤머리, 건지머리' 용어 확인)
  – 머리 올림 방법과 순서 등
8. 화장, 머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9. 금기/주의 사항, 특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11. 미용사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Ⅱ. 사진사

1.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진 기술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2. 어떻게 연락이 옵니까?
3. 당시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던 사람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유명했던 인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사진 촬영에 필요한 물품, 도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5. 사진을 찍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로 어떤 사진을 몇 건 정도 촬영했습니까? 결혼식 때는 한 번에 몇 장 정도 촬영합니까?
6. 결혼식 촬영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촬영 대상: 양가 부모, 친척, 단체, 친구 등(현대 촬영과 비교)
   – 촬영 장소: 신랑/신부집, 야외
7. 사진관에 와서 결혼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사진관 운영 여부, 운영 관련 내용, 재료 구입 경로, 비용, 인화 시간 등
8. 보통 어디에서 어떤 어떤 사진을 많이 촬영합니까?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 돌, 증명, 결혼, 행사 사진 등/비용, 시간
9. 사례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 촬영 내용, 촬영 매수, 인화 장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확인
10.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1. 이 일을 할 때 주의/금기 사항, 특이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사진 찍는 사람의 호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ISBN 979-11-995729-7-3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7
-제주의 혼례문화 구술 자료집

결혼허영 뒷날 아칙 밥허렌 요강에 쏠을 솜빡 채완 줭게

연구 책임 권미소
공동 연구 김미진, 김보향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064-900-1829
www.jst.re.kr
제작처 한그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064-723-7580
onetreebook.com

이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